

# CBETA電子佛典集成

---

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ebook

X79n1557

## 聯燈會要

宋 悟明集

中華電子佛典協會



# 目次

- [編輯說明](#)
- [章節目次](#)
  - [聯燈會要目次](#)
  - [No. \\_1557-A](#)
  - [No. \\_1557-B](#)
  - [No. \\_1557-C](#)
  - [七佛](#)
    - [過去莊嚴劫第九百九十八尊毗婆尸佛](#)
    - [過去莊嚴劫第九百九十九尊尸棄佛](#)
    - [過去莊嚴劫第一千尊毗舍浮佛](#)
    - [見在賢劫第一尊拘留孫佛](#)
    - [見在賢劫第二尊拘那含牟尼佛](#)
    - [見在賢劫第三尊迦葉佛](#)
    - [見在賢劫第四尊釋迦牟尼佛](#)
  - [竺乾諸大賢聖](#)
  - [西天祖師](#)
    - [初祖摩訶大迦葉](#)
    - [二祖阿難尊者](#)
    - [三祖商那和修尊者](#)
    - [四祖優婆鞠多尊者](#)
    - [五祖提多迦尊者](#)
    - [六祖彌遮迦尊者](#)
    - [七祖婆須蜜尊者](#)
    - [八祖佛陀難提尊者](#)
    - [九祖伏馱密多尊者](#)
    - [十祖脇尊者](#)
    - [十一祖富那夜奢尊者](#)
    - [十二祖馬鳴尊者](#)
    - [十三祖迦毗摩羅尊者](#)
    - [十四祖龍樹尊者](#)
    - [十五祖迦那提婆尊者](#)
    - [十六祖羅睺羅多尊者](#)
    - [十七祖僧伽難提尊者](#)
    - [十八祖伽耶舍多尊者](#)

- [十九祖鳩摩羅多尊者](#)
- [二十祖闍夜多尊者](#)
- [二十一祖婆修盤頭尊者](#)
- [二十二祖摩拏羅尊者](#)
- [二十三祖鶴勒那尊者](#)
- [二十四祖師子尊者](#)
- [二十五祖婆舍斯多尊者](#)
- [二十六祖不如密多尊者](#)
- [二十七祖般若多羅尊者](#)
- [二十八祖菩提達磨](#)
- [東十祖師](#)
  - [二祖慧可大師](#)
  - [三祖僧璨大師](#)
  - [四祖道信禪師](#)
  - [五祖弘忍大師](#)
  - [六祖惠能大師](#)
  - [四祖道信大師旁出法嗣](#)
    - [金陵牛頭山法融禪師](#)
    - [牛頭第二世](#)
      - [金陵牛頭山法融禪師法嗣](#)
        - [金陵牛頭智巖禪師](#)
    - [牛頭第五世](#)
      - [金陵牛頭法威禪師法嗣](#)
        - [潤州鶴林玄素禪師](#)
        - [宣州安國玄挺禪師](#)
        - [舒州天柱山崇慧禪師](#)
    - [金陵牛頭第六世](#)
      - [金陵牛頭慧忠禪師法嗣](#)
        - [天台佛窟岩惟則禪師](#)
      - [潤州鶴林玄素禪師法嗣](#)
        - [杭州徑山道欽禪師](#)
    - [金陵牛頭第七世](#)
      - [天台佛窟岩惟則禪師法嗣](#)
        - [天台雲居智禪師](#)
      - [杭州徑山道欽禪師法嗣](#)
        - [杭州鵲巢道林禪師](#)
  - [五祖弘忍大師旁出法嗣](#)
    - [北宗神秀大師](#)

- [嵩山惠安國師](#)
- [袁州蒙山道明禪師](#)
- [北宗神秀大師法嗣](#)
  - [兗州隆魔藏禪師](#)
- [嵩山惠安國師法嗣](#)
  - [嵩山破竈墮禪師](#)
  - [嵩山元珪禪師](#)
- [五祖旁出第三世](#)
  - [嵩山普寂禪師法嗣](#)
    - [終南山惟政禪師](#)
- [五祖旁出第四世](#)
  - [益州無相禪師法嗣](#)
    - [益州保唐無住禪師](#)
- [六祖惠能禪師法嗣\(旁出\)](#)
  - [西天崛多三藏](#)
  - [韶州法海禪師](#)
  - [溫州永嘉直覺大師](#)
  - [司空山本淨禪師](#)
  - [婺州玄策禪師](#)
  - [荷澤神會禪師](#)
  - [信州智常禪師](#)
  - [壽州智通禪師](#)
  - [洪州法達禪師](#)
  - [江西志徹禪師](#)
  - [吉州志誠禪師](#)
  - [廣州志通禪師](#)
  - [西京光宅惠忠國師](#)
    - [西京光宅慧忠國師法嗣](#)
      - [吉州耽源應真禪師](#)
- [六祖慧能大師法嗣\(南嶽\)](#)
  - [潭州南嶽懷讓禪師](#)
  - [南嶽第二世](#)
    - [南嶽懷讓禪師法嗣](#)
      - [江西馬祖道一禪師](#)
  - [南嶽第三世](#)
    - [江西馬祖道一禪師法嗣](#)
      - [池州南泉普願禪師](#)
      - [洪州百丈懷海禪師](#)

- [廬山歸宗智常禪師](#)
- [明州大梅法常禪師](#)
- [杭州鹽官齋安國師](#)
- [京兆府章敬懷惲禪師](#)
- [幽州盤山寶積禪師](#)
- [婺州五洩山靈默禪師](#)
- [蒲州麻谷寶徹禪師](#)
- [南嶽下第六世](#)
  - [江西馬祖道一禪師法嗣](#)
    - [汾陽大達無業國師](#)
    - [虔州西堂智藏禪師](#)
    - [越州大珠慧海禪師](#)
    - [信州鵝湖大義禪師](#)
    - [池州杉山智堅禪師](#)
    - [澧州茗溪道行禪師](#)
    - [撫州石鰲慧藏禪師](#)
    - [袁州南源道明禪師](#)
    - [鼎州中岳洪恩禪師](#)
    - [洛京佛光如滿禪師](#)
    - [潭州三角山總印禪師](#)
    - [伊闕伏牛自在禪師](#)
    - [湖南東寺如會禪師](#)
    - [池州魯祖寶雲禪師](#)
    - [定州柏巖明哲禪師](#)
    - [京兆府興善惟寬禪師](#)
    - [洪州百丈惟政禪師](#)
    - [洪州泐潭法會禪師](#)
    - [洪州泐潭常興禪師](#)
    - [潭州華林善覺禪師](#)
    - [袁州楊歧甄叔禪師](#)
    - [南嶽西園曇藏禪師](#)
    - [郢州太陽伊禪師](#)
    - [江西北蘭讓禪師](#)
    - [唐州紫玉山道通禪師](#)
    - [磁州馬頭峰神藏禪師](#)
    - [五臺鄧隱峰禪師](#)
    - [潭州龍山和尚](#)
    - [潭州秀溪和尚](#)

- [鎮州金牛和尚](#)
- [韶州乳源和尚](#)
- [洛京黑澗和尚](#)
- [京兆興平和尚](#)
- [溫州佛嶼和尚](#)
- [齊峰和尚](#)
- [古寺和尚](#)
- [烏臼和尚](#)
- [石臼和尚](#)
- [松山和尚](#)
- [本谿和尚](#)
- [石林和尚](#)
- [浮杯和尚](#)
- [洞安和尚](#)
- [百靈和尚](#)
- [濛溪和尚](#)
- [洪州水潦和尚](#)
- [打地和尚](#)
- [利山和尚](#)
- [洪州西山亮公座主](#)
- [則公首座](#)
- [南嶽下第三世](#)
  - [江西馬祖道一禪師法嗣](#)
    - [襄州龐蘊居士](#)
- [南嶽下第四世](#)
  - [池州南泉普願禪師法嗣](#)
    - [趙州觀音從諗禪師](#)
    - [衢州子湖利蹤禪師](#)
    - [終南山雲際師祖禪師](#)
    - [荊州白馬曇照禪師](#)
    - [湖南長沙景岑禪師](#)
    - [鄧州香巖義端禪師](#)
    - [池州靈鷲閑禪師](#)
    - [鄂州茱萸禪師](#)
    - [日子和尚](#)
    - [陸巨大夫](#)
    - [池州甘贄行者](#)
  - [洪州百丈山懷海禪師法嗣](#)

- [潭州大滄靈祐禪師](#)
- [筠州黃檗希運禪師](#)
- [廣州和安通禪師](#)
- [杭州大慈寰中禪師](#)
- [天台平田普岸禪師](#)
- [筠州五峯常觀禪師](#)
- [潭州石霜性空禪師](#)
- [福州長慶大安禪師](#)
- [福州古靈神贊禪師](#)
- [洪州東山慧禪師](#)
- [江州龍雲臺禪師](#)
- [京兆府衛國道禪師](#)
- [清田和尚](#)
- [廬山歸宗智常禪師法嗣](#)
  - [福州芙蓉靈訓禪師](#)
  - [漢南高亭禪師](#)
  - [新羅大茆和尚](#)
  - [五臺山智通禪師](#)
- [明州大梅法常禪師法嗣](#)
  - [杭州天龍和尚](#)
- [秀州鹽官齊安國師法嗣](#)
  - [襄州關南道常禪師](#)
- [京兆府章敬懷暉禪師法嗣](#)
  - [金州操禪師](#)
  - [朗州古堤和尚](#)
  - [福州龜山智直禪師](#)
- [幽州盤山寶積禪師法嗣](#)
  - [鎮州普化和尚](#)
- [蒲州麻谷寶徹禪師法嗣](#)
  - [壽州良遂座主](#)
- [虔州西堂智藏禪師法嗣](#)
  - [虔州處微禪師](#)
- [湖南東寺如會禪師法嗣](#)
  - [吉州蓼山慧超禪師](#)
- [荊州永泰靈湍禪師法嗣](#)
  - [湖南上林戒靈禪師](#)
  - [湖南祇林和尚](#)
  - [五臺秘魔巖和尚](#)

- 南嶽下第五世
  - 趙州觀音從諗禪師法嗣
    - 楊州光孝慧覺禪師
    - 隴州國清奉禪師
    - 婺州新建禪師
    - 杭州多福和尚
    - 益州西穆和尚
  - 衢州子湖利蹤禪師法嗣
    - 日容遠禪師
    - 紫桐和尚
    - 漳州浮石和尚
  - 長沙景岑禪師法嗣
    - 明州雪竇常通禪師
  - 鄂州茱萸禪師法嗣
    - 石梯和尚
  - 潭州大溈靈祐禪師法嗣
    - 袁州仰山慧寂禪師
    - 鄧州香巖智閑禪師
    - 杭州徑山洪譚禪師
    - 福州雙峰禪師
    - 福州九峰慈慧禪師
    - 滁州定山神英禪師
    - 襄州延慶法端禪師
    - 益州應天和尚
    - 元康和尚
    - 京兆米和尚
    - 襄州常侍王公敬
  - 筠州黃蘗希運禪師法嗣
    - 睦州陳尊宿
    - 福州烏石靈觀禪師
    - 杭州千頃楚南禪師
    - 相國裴公休
    - 鎮州臨濟義玄禪師
  - 福州長慶大安禪師法嗣
    - 益州大隋法直禪師
    - 韶州靈樹如敏禪師
    - 福州壽山師解禪師
    - 福州靈雲志勤禪師

- [浮江和尚](#)
- [福州南臺鄭十三娘子](#)
- [筠別高安大愚禪師法嗣](#)
  - [筠州末山尼了然禪師](#)
- [襄州關南道常禪師法嗣](#)
  - [襄州關南道吾禪師](#)
  - [漳州羅漢和尚](#)
- [福別先雙峰禪師法嗣](#)
  - [福州雙峰古禪師](#)
- [南嶽下第六世](#)
  - [楊州光孝慧覺禪師法嗣](#)
    - [道巘禪師](#)
  - [袁州仰山慧寂禪師法嗣](#)
    - [袁州仰山南塔光湧禪師](#)
    - [晉州霍山景通禪師](#)
    - [袁州仰山東塔和尚](#)
    - [鄧州佛巖暉禪師](#)
  - [睦州陳尊宿法嗣](#)
    - [睦州陳操尚書](#)
  - [鎮州臨濟義玄禪師法嗣](#)
    - [鎮州保壽沼禪師](#)
    - [鎮州三聖慧然禪師](#)
    - [魏府大覺禪師](#)
    - [魏府興化存獎禪師](#)
    - [鄂州灌溪志閑禪師](#)
    - [幽州談空和尚](#)
    - [定州崔禪禪師](#)
    - [鎮州萬歲和尚](#)
    - [襄州歷村和尚](#)
    - [滄州米倉和尚](#)
    - [涿州克符道者](#)
    - [桐峰和尚](#)
    - [虎谿庵主](#)
    - [覆盆庵主](#)
    - [杉洋庵主](#)
    - [雲山和尚](#)
    - [定上座](#)
    - [叢上座](#)

- 南嶽下第七世
  - 袁州仰山西塔穆禪師法嗣
    - 吉州資福如寶禪師
    - 鴿湖和尚
  - 袁州仰山南塔光湧禪師法嗣
    - 鄂州芭蕉慧清禪師
    - 越州清化全怱禪師
  - 鎮州保壽禪師法嗣
    - 汝州西院思明禪師
    - 鎮州二世保壽禪師
  - 鎮州三聖慧然禪師法嗣
    - 鎮州大悲和尚
    - 緇州水陸和尚
  - 魏府大覺禪師法嗣
    - 廬州澄心曼德禪師
    - 汝州南院和尚
    - 廬州大覺禪師
    - 荊南府竹園山禪師
  - 魏府興化存獎禪師法嗣
    - 汝州南院顯禪師
    - 太行山禪房克賓禪師
    - 守廓侍者
  - 涿州克符道者法嗣
    - 際上座
- 南嶽下第八世
  - 鄂州芭蕉慧清禪師法嗣
    - 鄂州興陽清讓禪師
    - 汝州芭蕉繼徹禪師
    - 天彭詞殼禪師
  - 汝州西院思明禪師法嗣
    - 鄂州興陽歸靜禪師
  - 汝州南院顯禪師法嗣
    - 汝州風穴延沼禪師
    - 汝州顯橋安禪師
- 南嶽下第九世
  - 汝州風穴延沼禪師法嗣
    - 汝州首山省念禪師
    - 汝州廣慧直禪師

- 南嶽下第十世
  - 汝州首山省念禪師法嗣
    - 汾陽善昭禪師
    - 汝州葉縣歸省禪師
    - 襄州石門慈照聰禪師
    - 汝州廣慧元璉禪師
    - 潭州神鼎鴻譚禪師
    - 并州承天嵩禪師
    - 汝州首山志禪師
    - 隋州智門[罕-干+二]禪師
    - 汝州仁王評禪師
    - 襄州石門慧昭山主
- 南嶽下第十一世
  - 汾陽善昭禪師法嗣
    - 潭州興化楚圓禪師
    - 筠州大愚守芝禪師
    - 滁州瑯琊慧覺禪師
    - 舒州法華全舉禪師
    - 蘄州龍華曉愚禪師
    - 湖州天聖浩泰禪師
    - 南嶽芭蕉谷泉庵主
  - 汝州葉縣歸省禪師法嗣
    - 舒州浮山法遠禪師
    - 汝州寶應法昭禪師
  - 襄州石門慈照聰禪師法嗣
    - 大乘遵禪師
    - 潤州金山達觀曇穎禪師
    - 襄州石門了同禪師
    - 處州仁壽嗣珍禪師
    - 都尉李文和公遵昂
  - 汝州廣慧元璉禪師法嗣
    - 侍郎楊公億
- 南嶽下第十二世
  - 潭州興化楚圓禪師法嗣
    - 洪州黃龍慧南禪師
    - 袁州楊歧方會禪師
    - 洪州翠巖可直禪師
    - 洪州大寧寬禪師

- [潭州道吾悟真禪師](#)
- [筠州大愚守芝禪師法嗣](#)
  - [潭州雲峰文悅禪師](#)
- [滁州琅琊慧覺禪師法嗣](#)
  - [越州姜山方禪師](#)
  - [蘇州定慧海印信禪師](#)
- [南嶽下第十三世](#)
  - [洪州黃龍慧南禪師法嗣](#)
    - [洪州黃龍祖心禪師](#)
    - [洪州寶峰直淨克文禪師](#)
    - [潭州雲蓋守智禪師](#)
    - [湖州報本元禪師](#)
    - [洪州寶峰洪英禪師](#)
    - [南嶽福嚴慈感禪師](#)
    - [筠州黃檗勝禪師](#)
    - [洪州雲居元祐禪師](#)
    - [蘄州開元琦禪師](#)
    - [吉州隆慶閑禪師](#)
    - [金陵保寧璣禪師](#)
  - [袁州楊岐方會禪師法嗣](#)
    - [舒州白雲守端禪師](#)
    - [建康府保寧仁勇禪師](#)
  - [洪州翠巖可直禪師法嗣](#)
    - [潭州大溈慕喆禪師](#)
  - [潭州雲峰文悅禪師法嗣](#)
    - [桂州崇壽齊曉禪師](#)
- [南嶽下第十四世](#)
  - [洪州黃龍祖心禪師法嗣](#)
    - [洪州黃龍悟新禪師](#)
    - [洪州黃龍惟清禪師](#)
    - [洪州寶峰善清禪師](#)
    - [鄂州黃龍智明禪師](#)
  - [洪州寶峰克文禪師法嗣](#)
    - [洪州寶峯文準禪師](#)
    - [東京法雲佛照杲禪師](#)
    - [洪州兜率從悅禪師](#)
    - [衢州超化靜禪師](#)
    - [南嶽上封慧和禪師](#)

- 南康軍雲居元祐禪師法嗣
  - 洪州羅漢系南禪師
  - 泉州南峰永程禪師
  - 鄂州子凌山白瑜禪師
- 江州東林常總禪師法嗣
  - 廬州開先廣鑑英禪師
- 潭州大溈懷秀禪師法嗣
  - 南嶽南臺允恭禪師
- 舒州白雲守端禪師法嗣
  - 蘇州五祖法演禪師
  - 潭州雲蓋智本禪師
- 南嶽下第十五世
  - 洪州黃龍悟新禪師法嗣
    - 吉州禾山方禪師
  - 洪州黃龍惟清禪師法嗣
    - 東京天寧守卓禪師
    - 福州鼓山佛心才禪師
  - 洪州兜率從悅禪師法嗣
    - 丞相無盡居士張公商英
  - 蘇州五祖法演禪師法嗣
    - 成都府昭覺克勤禪師
    - 建康府蔣山慧勳禪師
    - 舒州龍門清遠禪師
    - 潭州開福道寧禪師
  - 潭州雲蓋智本禪師法嗣
    - 潭州承天白承禪師
  - 東京智海平禪師法嗣
    - 東京淨因繼成禪師
- 南嶽下第十六世
  - 東京天寧守卓禪師法嗣
    - 湖州道場良範禪師
  - 福州鼓山本才禪師法嗣
    - 福州普賢元素禪師
    - 泉州法石祖珍禪師
  - 成都府昭覺圓悟克勤禪師法嗣
    - 潭州大溈法泰禪師
    - 臨安府徑山宗杲禪師
    - 明州阿育王山端裕禪師

- [平江府虎丘隆禪師](#)
- [台州護國景元禪師](#)
- [建康蔣山佛鑑慧勲禪師法嗣](#)
  - [韶州南華知炳禪師](#)
- [舒州龍門清遠禪師法嗣](#)
  - [福州鼓山十珪禪師](#)
  - [饒州薦福道行禪師](#)
  - [撫州白楊仙林禪寺法順禪師](#)
- [潭州開福道寧禪師法嗣](#)
  - [潭州大溈善果禪師](#)
- [南嶽下第十七世](#)
  - [前潭州大溈法泰禪師法嗣](#)
    - [鼎州靈巖仲安禪師](#)
    - [潭州芙蓉清日禪師](#)
  - [臨安府徑山宗杲禪師法嗣](#)
    - [福州西禪鼎霽禪師](#)
    - [福州龜山彌光禪師](#)
    - [福州東禪思岳禪師](#)
    - [福州西禪守淨禪師](#)
    - [建寧府開善道謙禪師](#)
    - [江州東林道顏禪師](#)
    - [饒州薦福道本禪師](#)
    - [潭州大溈法寶禪師](#)
    - [明州阿育王佛照德光禪師](#)
    - [福州雪峰崇聖普慈蘊聞禪師](#)
    - [建寧府竹原庵主宗元](#)
    - [平江府資壽尼妙總禪師](#)
    - [溫州淨居妙道禪師](#)
    - [侍郎張公九成](#)
  - [明州阿育王山端裕禪師法嗣](#)
    - [湖州道場法全禪師](#)
    - [臨安府淨慈師一禪師](#)
  - [平江府虎丘隆禪師法嗣](#)
    - [明州天童曇華禪師](#)
  - [台州護國景元禪師法嗣](#)
    - [台州國清行機禪師](#)
  - [饒州薦福道行禪師法嗣](#)
    - [泉州法石惠光禪師](#)

- 南嶽下第十八世
  - 福州西禪鼎需禪師法嗣
    - 溫州龍翔南雅禪師
    - 福州天王志清禪師
    - 南劔州劔門審安分審主
  - 福州東禪思岳禪師法嗣
    - 福州鼓山宗逮禪師
  - 福州西禪守淨禪師法嗣
    - 福州乾元宗穎禪師
  - 湖州道場法全禪師法嗣
    - 常州華藏有權禪師
  - 明州天童曇華禪師法嗣
    - 明州天童咸傑禪師
- 韶州六祖慧能禪師法嗣(青原)
  - 吉州青原行思禪師
  - 青原下第二世
    - 吉州青原行思禪師法嗣
      - 南嶽石頭希遷禪師
  - 青原下第三世
    - 南嶽石頭希遷禪師法嗣
      - 荊州天皇道悟禪師
      - 澧州藥山惟儼禪師
      - 鄧州丹霞天然禪師
      - 潭州長髯曠禪師
      - 潭州大川和尚
      - 潮州大顛和尚
      - 汾州石樓和尚
      - 鳳翔府佛陀孫禪師
      - 潭州招提慧朗禪師
      - 工行者
  - 青原下第四世
    - 荊州天皇道悟禪師法嗣
      - 澧州龍潭崇信禪師
    - 前澧州藥山惟儼禪師法嗣
      - 潭州道吾宗知禪師
      - 潭州雲巖曇晟禪師
      - 秀州華亭船子德誠禪師
      - 宣州樛樹慧省禪師

- [高沙彌](#)
- [朗州刺史李翱](#)
- [鄧州丹霞天然禪師法嗣](#)
  - [京兆府翠微無學禪師](#)
  - [吉州孝義性空和尚](#)
  - [米倉和尚](#)
- [潭州長髭曠禪師法嗣](#)
  - [潭州石室善道和尚](#)
- [潭州大川和尚法嗣](#)
  - [僊天和尚](#)
- [潮州大顛和尚法嗣](#)
  - [漳州三平義忠禪師](#)
  - [馬賴山本空和尚](#)
  - [本生和尚](#)
  - [侍郎文公韓愈](#)
- [青原下第五世](#)
  - [澧州龍潭崇信禪師法嗣](#)
    - [鼎州德山宣鑑禪師](#)
    - [洪州寶峰和尚](#)
  - [潭州道吾宗智禪師法嗣](#)
    - [潭州石霜慶諸禪師](#)
    - [潭州漸源仲興禪師](#)
    - [祿青和尚](#)
  - [潭州雲巖曇晟禪師法嗣](#)
    - [筠州洞山良价禪師](#)
    - [潭州神山僧密禪師](#)
    - [涿州杏山鑿洪禪師](#)
    - [幽溪和尚](#)
  - [秀州華亭船子德誠禪師法嗣](#)
    - [澧州夾山善會禪師](#)
  - [京兆府翠微無學禪師法嗣](#)
    - [舒州投子大同禪師](#)
    - [湖州道場山如訥禪師](#)
    - [鄂州清平令遵禪師](#)
    - [棗山光仁禪師](#)
    - [建州白雲約禪師](#)
  - [吉州性空和尚法嗣](#)
    - [歙州茂源和尚](#)

- 青原下第六世
  - 鼎州德山宣鑿禪師法嗣
    - 鄂州巖頭全豁禪師
    - 福州雪峰義存禪師
    - 泉州瓦棺和尚
    - 襄州高亭簡禪師
    - 洪州大寧感潭資國和尚
  - 潭州石霜慶諸禪師法嗣
    - 筠州九峰道虔禪師
    - 台州湧泉景欣禪師
    - 潭州雲蓋志元禪師
    - 福州覆船荐禪師
    - 潭州大光居海禪師
    - 鳳翔府石柱和尚
    - 潭州文殊禪師
    - 秀才張公拙
  - 筠州洞山良价禪師法嗣
    - 撫州曹山本寂禪師
    - 洪州雲居道膺禪師
    - 潭州龍牙居遁禪師
    - 襄州洞山師虔禪師
    - 撫州疎山羗仁禪師
    - 澧州欽山文冢禪師
    - 京兆府華嚴休靜禪師
    - 筠州高安白水本仁禪師
    - 益州北院通禪師
    - 洛京白馬遁儒禪師
    - 明州天童咸啟禪師
    - 越州乾峰和尚
    - 筠州九峰普滿禪師
    - 峴子和尚
    - 台州幽棲和尚
  - 澧州夾山善會禪師法嗣
    - 澧州洛浦元安禪師
    - 袁州盤龍可文禪師
    - 撫州黃山月輪禪師
    - 洛京韶山寔普禪師
  - 舒州投子大同禪師法嗣

- [福州牛頭微禪師](#)
- [安州九嶷山和尚](#)
- [東京觀音巖俊禪師](#)
- [青原下第七世](#)
  - [鄂州巖頭全豁禪師法嗣](#)
    - [福州羅山道閑禪師](#)
    - [台州瑞巖師彥禪師](#)
    - [懷州玄泉彥禪師](#)
  - [福州雪峰義存禪師法嗣](#)
    - [福州玄沙師備禪師](#)
    - [韶州雲門文偃禪師](#)
    - [福州長慶慧稜禪師](#)
    - [福州安國明直大師](#)
    - [漳州保福從展禪師](#)
    - [杭州龍冊順德恁禪師](#)
    - [福州長生皎然禪師](#)
    - [福州鼓山神晏禪師](#)
    - [明州翠巖令參禪師](#)
    - [泉州臥龍道溥禪師](#)
    - [越州越山師竊禪師](#)
    - [安州白兆山志圓禪師](#)
    - [南嶽金輪可觀禪師](#)
    - [漳州報恩懷嶽禪師](#)
    - [漳州隆壽紹鄉禪師](#)
    - [杭州龍華靈照禪師](#)
    - [洛京南院和尚](#)
    - [太原孚上座](#)
  - [筠州九峰道虔禪師法嗣](#)
    - [洪州同安常察禪師](#)
    - [吉州禾山澄源無殷禪師](#)
    - [新羅清院和尚](#)
  - [潭州雲蓋志安禪師法嗣](#)
    - [新羅臥龍和尚](#)
  - [潭州大光居誨禪師法嗣](#)
    - [潭州伏龍禪師](#)
  - [台州湧泉景欣禪師法嗣](#)
    - [台州六通紹禪師](#)
  - [潭州雲蓋志元禪師法嗣](#)

- [潭州雲蓋志罕禪師](#)
- [撫州曹山本寂禪師法嗣](#)
  - [撫州金峯從志禪師](#)
  - [處州廣利容禪師](#)
  - [襄州鹿門處直禪師](#)
  - [衡州阿育王弘通禪師](#)
  - [撫州曹山惠霞禪師](#)
- [洪州雲居道膺禪師法嗣](#)
  - [杭州佛日和尚](#)
  - [蘇州永光直禪師](#)
  - [洪州同安不禪師](#)
  - [洪州雲居懷岳禪師](#)
  - [歙州朱溪謙禪師](#)
  - [池州嵇山章禪師](#)
  - [洪州雲居簡禪師](#)
  - [廬山歸宗懷惲禪師](#)
- [筠州九峯普滿禪師法嗣](#)
  - [洪州同安威禪師](#)
- [潭州龍牙居遁禪師法嗣](#)
  - [潭州報慈嶼禪師](#)
  - [襄州含珠山審哲禪師](#)
- [襄州洞山師虔禪師法嗣](#)
  - [襄州鳳凰山石門獻蘊禪師](#)
  - [襄州萬銅山廣德禪師](#)
- [撫州疎山義仁禪師法嗣](#)
  - [筠州黃蘗慧禪師](#)
  - [隋州護國淨果守澄禪師](#)
  - [洛京長水歸仁禪師](#)
  - [撫州大安山省禪師](#)
- [筠州高安白水本仁禪師法嗣](#)
  - [杭州瑞龍幻璋禪師](#)
- [澧州洛浦元安禪師法嗣](#)
  - [鳳翔府青峰傳楚禪師](#)
  - [蘄州烏牙彥賓禪師](#)
- [袁州蟠龍可文禪師法嗣](#)
  - [袁州木平善導禪師](#)
- [撫州黃山月輪禪師法嗣](#)
  - [鄂州桐泉和尚](#)

- 青原下第八世
  - 福州羅山道閑禪師法嗣
    - 婺州明招德謙禪師
    - 吉州清平惟曠禪師
    - 婺州金柱義昭禪師
    - 吉州匡山和尚
    - 西川慧禪師
  - 懷州玄泉彥禪師法嗣
    - 岳州黃龍海璣禪師
  - 福州玄沙師備禪師法嗣
    - 漳州羅漢桂琛禪師
    - 福州安國惠球禪師
    - 婺州金華國泰瑤禪師
    - 福州螺峰冲奧禪師
    - 泉州睡龍禪師
    - 天台雲峯光緒禪師
    - 天台國清師靜上座
  - 韶州雲門文偃禪師法嗣
    - 韶州白雲祥禪師
    - 岳州巴陵顯鑿禪師
    - 隋州智門師竄禪師
    - 襄州洞山守初禪師
    - 韶州雙峰競欽禪師
    - 蘄州北禪寂禪師
    - 朗州德山圓明密禪師
    - 隋州雙泉郁禪師
    - 郢州林溪敬脫禪師
    - 潞府妙勝臻禪師
    - 益州香林澄遠禪師
    - 韶州雲門法球禪師
    - 潭州南臺道遵禪師
    - 南岳般若啟柔禪師
    - 信州鵝湖雲震禪師
    - 廬州天王徽禪師
    - 深明二上座
    - 饒州薦福古禪師
  - 福州長慶慧稜禪師法嗣
    - 泉州招慶道匡禪師

- [福州報慈光雲禪師](#)
- [婺州報恩寶資禪師](#)
- [襄州鷲嶺明遠禪師](#)
- [福州石佛靜禪師](#)
- [福州僊天守玘禪師](#)
- [杭州傾心法瑤禪師](#)
- [新羅龜山和尚](#)
- [大傳王公延彬](#)
- [漳州保福從展禪師法嗣](#)
  - [泉州招慶省偈禪師](#)
  - [漳州報恩熙禪師](#)
- [福州鼓山神晏國師法嗣](#)
  - [金陵淨德慧悟禪師](#)
  - [福州鼓山智岳禪師](#)
  - [建州白雲智作禪師](#)
- [明州翠巖令參禪師法嗣](#)
  - [杭州龍冊子興禪師](#)
- [泉州臥龍道溥禪師法嗣](#)
  - [漳州保福清豁禪師](#)
- [洪州雲居懷岳禪師法嗣](#)
  - [揚州風化令崇禪師](#)
- [安州白兆志圓禪師法嗣](#)
  - [朗州大龍智洪禪師](#)
  - [襄州白馬行鸞禪師](#)
  - [晉州興化師普禪師](#)
- [洪州同安不禪師法嗣](#)
  - [洪州同安志禪師](#)
- [青原下第九世](#)
  - [婺州明招德謙禪師法嗣](#)
    - [處州報恩契從禪師](#)
  - [鄂州黃龍海璣禪師法嗣](#)
    - [棗樹和尚](#)
    - [嘉州黑水和尚](#)
  - [漳州羅漢桂琛禪師法嗣](#)
    - [金陵清涼法眼文益禪師](#)
    - [襄州青溪洪璣禪師](#)
    - [撫州龍濟紹修山主](#)
    - [金陵清涼休復悟空禪師](#)

- [南岳南臺守安禪師](#)
- [潭州延壽惠輪禪師法嗣](#)
  - [廬山歸宗道詮禪師](#)
- [韶州白雲祥禪師法嗣](#)
  - [連州保峰和尚](#)
  - [韶州月華和尚](#)
- [吉州巴陵顯鑿禪師法嗣](#)
  - [泐潭靈澄散聖](#)
- [隋州智門師寬禪師法嗣](#)
  - [江陵福昌惟善禪師](#)
  - [蘄州五祖師戒禪師](#)
  - [蘄州四祖譚禪師](#)
  - [蘄州廣教懷志禪師](#)
  - [舒州龍門永禪師](#)
  - [唐州天日契滿禪師](#)
  - [鄂州建福智通禪師](#)
- [襄州洞山守初禪師法嗣](#)
  - [岳州乾明睦禪師](#)
  - [鄧州廣濟通禪師](#)
  - [荊南府開福德賢禪師](#)
- [朗州德山密禪師法嗣](#)
  - [南岳南臺勤禪師](#)
  - [鼎州文殊應直禪師](#)
  - [鼎州德山紹晏禪師](#)
  - [鼎州文殊寬禪師](#)
- [隋州雙泉郁禪師法嗣](#)
  - [鼎州德山慧遠禪師](#)
- [江陵府奉先深禪師法嗣](#)
  - [天台蓮華峰祥公庵主](#)
- [郢州林溪敬脫禪師法嗣](#)
  - [西劔州鳳凰山智廣禪師](#)
- [潞府妙勝臻禪師法嗣](#)
  - [潭州大漁承禪師](#)
- [益州香林澄遠禪師法嗣](#)
  - [隋州智門光祚禪師](#)
- [洪州同安志禪師法嗣](#)
  - [鼎州梁山緣觀禪師](#)
- [韶州舜峰韶禪師法嗣](#)

- [磁州桃園曦朗禪師](#)
- [青原下第十世](#)
  - [金陵清涼法眼禪師法嗣](#)
    - [天台德韶國師](#)
    - [金陵清涼泰欽禪師](#)
    - [金陵報恩玄則禪師](#)
    - [金陵報恩玄覺禪師](#)
    - [杭州報恩慧明禪師](#)
    - [漳州羅漢守仁禪師](#)
    - [金陵鍾山義章禪師](#)
    - [金陵報恩文遂禪師](#)
    - [杭州永明道潛禪師](#)
    - [廬山歸宗慧超禪師](#)
    - [廬山棲賢慧圓禪師](#)
    - [洪州百丈恒禪師](#)
    - [杭州靈隱清簪禪師](#)
  - [襄州清溪洪璫禪師法嗣](#)
    - [襄州天平從漪禪師](#)
  - [蘇州五祖師戒禪師法嗣](#)
    - [洪州泐潭懷澄禪師](#)
    - [筠州洞山白寶禪師](#)
    - [復州北塔思廣禪師](#)
  - [潭州福嚴良雅禪師法嗣](#)
    - [潭州北禪智賢禪師](#)
  - [鼎州文殊應直禪師法嗣](#)
    - [筠州洞山曉聰禪師](#)
  - [朗州德山慧遠師云法嗣](#)
    - [廬山歸宗善暹禪師](#)
  - [隋州智門光祚禪師法嗣](#)
    - [明州雪竇重顯禪師](#)
    - [鼎州彭法燈泗禪師](#)
    - [潭州雲蓋繼鵬禪師](#)
  - [鼎州梁山緣觀禪師法嗣](#)
    - [鄂州太陽明安警延禪師](#)
- [青原下第十一世](#)
  - [天台德韶禪師法嗣](#)
    - [杭州永明延壽智覺禪師](#)
    - [溫州僊巖安禪師](#)

- [杭州五雲志逢禪師](#)
- [廣州光聖師護禪師](#)
- [杭州龍華慧居禪師](#)
- [溫州瑞鹿本先禪師](#)
- [溫州鴈蕩願齊禪師](#)
- [杭州興教洪壽禪師](#)
- [金陵清涼泰欽禪師法嗣](#)
  - [洪州雲居齊禪師](#)
- [洪州百丈恒禪師法嗣](#)
  - [廬山栖賢澄謚禪師](#)
- [洪州雲居清錫禪師法嗣](#)
  - [天台山從進禪師](#)
- [廬山歸宗義柔禪師法嗣](#)
  - [明州天童新禪師](#)
- [廬山長安延規禪師法嗣](#)
  - [潭州雲蓋用清禪師](#)
- [洪州泐潭澄禪師法嗣](#)
  - [明州阿育王大覺懷璉禪師](#)
  - [婺州承天惟蘭禪師](#)
- [復州北塔思廣禪師法嗣](#)
  - [荊門軍玉泉承浩禪師](#)
- [潭州北禪智賢禪師法嗣](#)
  - [洪州法昌倚遇禪師](#)
- [筠州洞山曉聰禪師法嗣](#)
  - [南康軍雲居曉舜禪師](#)
- [廬山歸宗善暹禪師法嗣](#)
  - [洪州雲居佛印元禪師](#)
- [明州雪竇重顯禪師法嗣](#)
  - [越州天衣義懷禪師](#)
  - [泉州承天傳宗禪師](#)
  - [舒州投子法宗道者](#)
  - [越州天衣存禪師](#)
- [郢州太陽警延禪師法嗣](#)
  - [郢州興陽剖禪師](#)
  - [舒州投子義青禪師](#)
  - [慧州羅浮如禪師](#)
  - [西川雲頂鵬禪師](#)
- [青原下第十二世](#)

- [廬州栖賢澄謚禪師法嗣](#)
  - [湖州西余體柔禪師](#)
- [洪州雲居曉舜禪師法嗣](#)
  - [建康府蔣山法泉禪師](#)
  - [處州慈雲修慧禪師](#)
- [越州天衣義懷禪師法嗣](#)
  - [東京法雲圓通法秀禪師](#)
  - [杭州佛日智才禪師](#)
  - [東京慧林宗本禪師](#)
  - [台州瑞巖子鴻禪師](#)
  - [直州長蘆體明禪師](#)
  - [蘇州淨慧可證禪師](#)
- [舒州投子義青禪師法嗣](#)
  - [東京淨因道楷禪師](#)
  - [西京少林恩禪師](#)
- [青原下第十三世](#)
  - [東京法雲法秀禪師法嗣](#)
    - [澧州香積用旻禪師](#)
  - [東京慧林宗本禪師法嗣](#)
    - [杭州淨慈善本禪師](#)
    - [福州太平恩禪師](#)
    - [秀州本覺法真禪師](#)
  - [北京天鉢重元禪師法嗣](#)
    - [西京聖善直悟禪師](#)
  - [東京淨因楷禪師法嗣](#)
    - [東京淨因法成禪師](#)
- [青原下第十四世](#)
  - [杭州淨慈善本禪師法嗣](#)
    - [福州雪峰思慧禪師](#)
  - [鄧州丹霞淳禪師法嗣](#)
    - [明州天童正覺禪師](#)
- [青原下第十五世](#)
  - [福州雪峰思慧禪師法嗣](#)
    - [臨安府淨慈道昌禪師](#)
  - [明州天童正覺禪師法嗣](#)
    - [臨安府淨慈慧暉禪師](#)
- [應化賢聖](#)
- [亡名尊宿](#)

- 雜著
  - 傅大士心王銘
  - 誌公和尚十二時歌
  - 誌公和尚十四科
    - 菩提煩惱不二
    - 持犯不二
    - 佛與眾生不二
    - 理事不二
    - 靜亂不二
    - 善惡不二
    - 色空不二
    - 生死不二
    - 斷除不二
    - 直俗不二
    - 解縛不二
    - 境照不二
    - 運用無礙
    - 迷悟不二
  - 三祖璨大師信心銘
  - 永嘉直覺大師證道歌
  - 石頭和尚參同契
  - 石頭和尚草庵歌
  - 僧亡名息心銘
  - 趙州和尚十二時歌
  - 羅漢琛禪師明道頌
  - 同安察禪師十玄談
    - 心印
    - 祖意
    - 玄機
    - 塵異
    - 演教
    - 達本
    - 還源
    - 回機
    - 轉位
    - 一色
  - 法眼禪師三界惟心頌
  - 澄觀國師答皇太子心要

- 鼎州普安道和尚頌
  - 函蓋乾坤句
  - 截斷眾流句
  - 隨波逐浪句
  - 三句外
  - 通褒貶
  - 辨親疎
  - 辨邪正
  - 通賓主
  - 擡薦商量
  - 提綱商量
  - 據實商量
  - 委曲商量
- 卷目次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贊助資訊](#)

## 編輯說明

- 本電子書以「CBETA 電子佛典集成 Version 2023. Q1」為資料來源。
- 漢字呈現以 Unicode 3.0 為基礎，不在此範圍的字則採用組字式表達。
- 梵文悉曇字及蘭札字均採用羅馬轉寫字，如無轉寫字則提供字型圖檔。
- CBETA 對底本所做的修訂用字以紅色字元表示。
- 若有發現任何問題，歡迎來函 [service@cbeta.org](mailto:service@cbeta.org) 回報。
- 版權所有，歡迎自由流通，但禁止營利使用。

## 聯燈會要目次

### 卷第一

#### 序

毗婆尸佛 尸棄佛  
毗舍浮佛 拘留孫佛  
拘那含牟尼佛 迦葉佛  
釋迦牟尼佛 竺乾應化賢聖  
西天祖師  
初祖摩訶大迦葉 二祖阿難陀  
三祖商那和修 四祖優婆毘多  
五祖提多迦 六祖彌遮迦  
七祖婆須密 八祖佛陀難提  
九祖伏馱密多 十祖脇尊者

### 卷第二

十一祖富那夜奢 十二祖馬鳴  
十三祖迦毗摩羅 十四祖龍樹  
十五祖迦提婆 十六祖羅睺羅  
十七祖僧迦難提 十八祖耶舍多  
十九祖鳩摩羅多 二十祖闍夜多  
二十一祖婆修盤頭 二十二祖摩拏羅  
二十三祖鶴勒那 二十四祖師子  
二十五祖婆舍斯多 二十六祖不如密多  
二十七祖般若多羅 二十八祖菩提達磨

#### 東土祖師

二祖慧可大師 三祖僧璨大師  
四祖道信大師 五祖弘忍大師  
六祖慧能大師

四祖道信大師旁出法嗣一人

#### 牛頭第一世

金陵牛頭法融禪師

#### 牛頭第二世

金陵牛頭法融禪師法嗣一人

金陵牛頭智巖禪師

牛頭三世四世無機緣不載

#### 牛頭第五世

金陵牛頭法威禪師法嗣三人(師見法持。持見惠方。方見二世智巖)

潤州鶴林玄素禪師 宣州安國玄挺禪師

舒州天柱崇慧禪師

牛頭第六世

金陵牛頭慧忠禪師法嗣一人

天台佛窟巖惟則禪師

潤州鶴林玄素禪師法嗣一人

杭州徑山道欽禪師

牛頭第七世

天台佛窟巖惟則禪師法嗣一人

天台雲居 智禪師

杭州徑山道欽禪師法嗣一人

杭州鵲巢道林禪師

卷第三

五祖弘忍禪師旁出法嗣三人

北宗神秀大師 嵩山慧安國師

袁州蒙山道明大師

五祖旁出第二世

北宗神秀大師法嗣二人

嵩山普寂禪師(無機緣) 兗州降魔藏禪師

嵩山慧安國師法嗣二人

嵩山破竈墮禪師 嵩山元珪禪師

五祖旁出第三世

嵩山普寂禪師法嗣一人

終南山惟政禪師

五祖旁出第四世

益州無相禪師法嗣一人(師見資州處寂。寂見資州智旻。旻見五祖)

益州保唐無住禪師

六祖慧能禪師法嗣一十五人(南嶽懷讓禪師。見第四卷。青原行思

禪師見第十九卷)

西天崛多三藏 韶州法海禪師

永嘉真覺禪師 司空山本淨禪師

婺州玄策禪師 荷澤神會禪師

信州智常禪師 壽州智通禪師

洪州法達禪師 江西志徹禪師

吉州志誠禪師 廣州志通禪師

西京光宅慧忠國師(吉州耽源應真禪師附)

卷第四

六祖慧能大師法嗣

南嶽懷讓禪師  
南嶽第二世  
南嶽懷讓禪師法嗣  
江西馬祖道一禪師

南嶽第三世  
江西馬祖一禪師法嗣  
池州南泉普願禪師  
廬州歸宗智常禪師  
杭州鹽官齊安國師  
幽州盤山寶積禪師  
蒲州麻谷寶徹禪師

卷第五

南嶽下第六世

江西馬祖道一禪師法嗣

分陽大達無業國師	虔州西堂智藏禪師
越州大珠慧海禪師	信州鵝湖大義禪師
池州杉山智賢禪師	澧州茗溪道行禪師
撫州石鞏慧藏禪師	袁州南源道明禪師
鼎州中邑洪恩禪師	洛京佛光如滿禪師
潭州三角山總禪師	伊闕伏牛自在禪師
湖南東寺如會禪師	池州魯祖寶雲禪師
定州栢巖明哲禪師	京兆興善惟寬禪師
洪州百丈惟政禪師	洪州泐潭法會禪師
洪州泐潭常興禪師	毗陵芙蓉大毓禪師
潭州華林善覺禪師	袁州楊岐甄叔禪師
南巖西園曇藏禪師	郢州大陽山伊禪師
江西北蘭山讓禪師	唐州紫玉道通禪師
磁州馬頭神照禪師	五臺山鄧隱峰禪師

潭州龍山和尚 潭州秀溪和尚

鎮州金牛和尚 韶州乳源和尚

洛京黑澗和尚 京兆興平和尚

溫州佛嶼和尚 齊峰和尚

古寺和尚 烏臼和尚

石臼和尚 松山和尚

本谿和尚 石林和尚

浮盃和尚 洞安和尚

百靈和尚 濛溪和尚

水潦和尚 打地和尚

利山和尚 亮公座主

則公首座

卷第六

南嶽下第三世

江西馬祖道一禪師法嗣下

襄州龐蘊居士

南嶽下第四世

池州南泉普願禪師法嗣一十一人

趙州觀音從諗禪師 衢州子湖利蹤禪師

終南山雲際禪師 荊州白馬曇照禪師

湖南長沙景岑禪師 鄧州香巖義端禪師

池州靈鷲閑禪師 鄂州茱萸禪師

日子和尚 陸亘大夫

甘贄行者

卷第七

南嶽下第四世

洪州百丈懷海禪師法嗣一十三人

潭州大偽靈祐禪師 筠州黃蘗希運禪師

廣州和安通禪師 杭州大慈寰中禪師

天台平田普岸禪師 筠州五峯常觀禪師

潭州石霜性空禪師 福州長慶大安禪師

福州古靈神讚禪師 洪州東山慧禪師

江州龍雲臺禪師 京兆府衛國道禪師

清田和尚

廬山歸宗智常禪師法嗣四人

福州芙蓉靈訓禪師 漢南高亭禪師

新羅大茅禪師 五臺智通禪師

明州大梅法常禪師法嗣

天龍和尚

秀州鹽官齊安國師法嗣

關南道常禪師

京兆府章敬懷惲禪師法嗣三人

金州操禪師 朗州古堤和尚

福州龜山智真禪師

幽州盤山寶積禪師法嗣

鎮州普化和尚

蒲州麻谷寶徹禪師法嗣

壽州良遂座主

虔州西堂智藏禪師法嗣  
虔州處微禪師  
湖南東寺如會禪師法嗣  
吉州薯山慧超禪師  
荊州永嘉靈湍禪師法嗣三人(師見馬祖)  
湖南上林戒靈禪師 湖南祇林和尚  
秘魔巖和尚

南嶽下第五世

趙州觀音從諗禪師法嗣六人  
楊州光孝慧覺禪師 隴州國清奉禪師  
婺州新建禪師 洪州嚴陽尊者  
杭州多福和尚 益州西穆和尚  
衢州子湖利蹤禪師法嗣三人  
日容遠禪師 紫桐和尚  
漳州浮石和尚

卷第八

南嶽下第五世

長沙景岑禪師法嗣一人  
明州雪竇常通禪師  
鄂州茱萸禪師法嗣一人  
石梯和尚  
潭州大溈靈禪師法嗣一十一人  
袁州仰山惠寂禪師 鄧州香巖智閑禪師  
杭州徑山洪諲禪師 福州雙峯禪師  
福州九峰慈慧禪師 徐州定山神英禪師  
襄州延慶法端禪師 益州應天和尚  
元康和尚 京兆米和尚  
常侍王公敬  
筠州黃蘗希運禪師法嗣上四人  
睦州陳尊宿 福州烏石靈觀禪師  
杭州千頃楚南禪師 相國裴公休

卷第九

南嶽下第五世

筠州黃蘗希運禪師法嗣下  
鎮州臨濟義玄禪師

卷第十

南嶽下第五世

福州長慶大安禪師法嗣六人

益州大隨法真禪師 韶州靈樹如敏禪師  
福州壽山師解禪師 福州靈雲志勤禪師  
台州浮江和尚 南臺鄭十三娘子  
筠州高安大愚禪師法嗣一人  
筠州末山尼了然禪師  
襄州關南道常禪師法嗣二人  
襄州關南道吾禪師 漳州羅漢和尚  
福州先雙峯禪師法嗣一人  
福州雙古禪師  
南嶽下第六世  
楊州光孝慧覺禪師法嗣一人  
道巘禪師  
袁州仰山慧寂禪師法嗣四人  
袁州仰山南塔湧禪師 晉州霍山景通禪師  
袁州仰山東塔和尚 鄧州佛巖暉禪師  
睦州陳尊宿法嗣一人  
睦州陳操尚書  
鎮州臨濟義玄禪師法嗣一十八人  
鎮州保壽沼禪師 鎮州三聖慧然禪師  
魏府大覺禪師 魏府興化存獎禪師  
鄂州灌溪志閑禪師 幽州談空和尚  
定州崔禪禪師 鎮州萬歲和尚  
襄州歷村和尚 滄州米倉和尚  
克符道者 桐峯庵主  
虎谿庵主 覆盆庵主  
杉洋庵主 雲山庵主  
定上座 叢上座

卷第十一

南嶽下第七世

袁州仰山西塔穆禪師法嗣二人  
吉州資福如寶禪師 鴿湖和尚  
袁州仰山南塔光湧禪師法嗣二人  
郢州芭蕉慧清禪師 越州清化全怱禪師  
鎮州保壽禪師法嗣二人  
汝州西院思明禪師 鎮州後保壽禪師  
鎮州三聖慧然禪師法嗣二人  
鎮州大悲和尚 緇州水陸和尚  
魏府大覺禪師法嗣四人

廬州澄心旻德禪師 汝州南院和尚  
廬州大覺禪師 荊州竹園山禪師  
魏府興化存獎禪師法嗣三人  
汝州南院顥禪師 太行山禪房克賓禪師  
守廓侍者  
幽州談空和尚法嗣一人  
池州魯祖教禪師  
涿州克符道者法嗣一人  
際上座  
南嶽下第八世  
郢州芭蕉慧清禪師法嗣三人  
郢州興陽清讓禪師 汝州芭蕉繼徹禪師  
天彭詞殼禪師(或本作彭州承天辭確禪師)  
汝州南院思明禪師法嗣一人  
郢州興陽歸靜禪師  
汝州南院顥禪師法嗣二人  
汝州風穴延沼禪師 汝州穎橋安禪師  
南嶽下第九世  
汝州風穴延沼禪師法嗣二人  
汝州首山省念禪師 汝州廣慧真禪師  
南嶽下第十世  
前安州首山省念禪師法嗣上一人  
汾陽善昭禪師  
卷第十二  
南嶽下第十世  
前汝州首山省念禪師法嗣下九人  
汝州葉縣歸省禪師 襄州石門聰禪師  
汝州廣慧元璉禪師 潭州神鼎鴻謚禪師  
并州承天 嵩禪師 汝州首山志禪師  
隋州智門罕禪師 汝州仁王評禪師  
襄州鹿門慧昭山主  
南嶽下第十一世  
汾陽善昭禪師法嗣上三人  
潭州興化楚圓禪師 筠州大愚守芝禪師  
滁州瑯琊慧覺禪師  
卷第十三  
南嶽下第十一世  
汾陽善昭禪師法嗣下四人

舒州法華全舉禪師 蘄州龍華曉愚禪師  
湖州天聖浩泰禪師 南嶽芭蕉谷泉庵主  
汝州葉縣歸省禪師法嗣二人  
舒州浮山法遠禪師 汝州寶應法昭禪師  
襄州石門慈照聰禪師法嗣五人  
大乘遵禪師 潤州達觀曇穎禪師  
襄州石門了同禪師 處州仁壽嗣珍禪師  
都尉李公遵勗  
汝州廣慧元璉禪師法嗣一人

侍郎楊公億

南嶽下第十二世

潭州興化楚圓禪師法嗣上二人  
洪州黃龍慧南禪師 袁州楊岐方會禪師

卷第十四

南嶽下第十二世

潭州興化楚圓禪師法嗣下三人  
洪州翠巖可真禪師 洪州大寧 寬禪師  
潭州道吾悟真禪師  
筠州大愚守芝禪師法嗣一人  
潭州雲峯文悅禪師  
滁州琅琊慧覺禪師法嗣二人  
越州姜山方禪師 蘇州定慧信禪師

南嶽下第十三世

洪州黃龍慧南禪師法嗣上八人  
洪州黃龍祖心禪師 洪州寶峯克文禪師  
潭州雲蓋守智禪師 湖州報本元禪師  
洪州寶峯洪英禪師 南嶽福嚴慈感禪師  
筠州黃檗勝禪師 洪州雲居元祐禪師

卷第十五

南嶽下第十三世

洪州黃龍慧南禪師法嗣下四人  
蘄州開元琦禪師 吉州隆慶閑禪師  
金陵保寧璣禪師  
江州東林常總禪師(語見拈提)  
袁州楊岐方會禪師法嗣二人  
舒州白雲守端禪師 建康保寧仁勇禪師  
洪州翠巖可真禪師法嗣一人  
潭州大偽慕喆禪師

潭州雲峰文悅禪師法嗣一人  
桂州崇壽齊曉禪師  
南嶽下第十四世  
洪州黃龍祖心禪師法嗣四人  
洪州黃龍悟新禪師 洪州黃龍惟清淨師  
洪州寶峰善清禪師 鄂州黃龍明禪師  
洪州寶峯克文禪師法嗣五人  
洪州寶峯文準禪師  
東京法雲佛照杲禪師  
洪州兜率從悅禪師 衢州超化靜禪師  
南嶽上封慧和禪師  
卷第十六  
南嶽下第十四世  
南康軍雲居元祐禪師法嗣三人  
洪州羅漢系南禪師 泉州南峯永程禪師  
鄂州子凌山自瑜禪師  
江州東林常總禪師法嗣一人  
廬州開先廣鑑英禪師  
潭州大偽懷秀禪師法嗣一人  
南嶽南臺允恭禪師  
舒州白雲守端禪師法嗣二人  
蘄州五祖法演禪師 潭州雲蓋智本禪師  
南嶽下第十五世  
前洪州黃龍悟新禪師法嗣一人  
吉州禾山方禪師  
前洪州黃龍惟清禪師法嗣二人  
東京天寧守卓禪師 福州鼓山本才禪師  
前洪州兜率從悅禪師法嗣一人  
丞相張商英  
前蘄州五祖法演禪師法嗣四人  
成都昭覺克勤禪師 建康蔣山慧勲禪師  
舒州龍門清遠禪師 潭州開福道寧禪師  
潭州雲蓋智本禪師法嗣一人  
潭州承天自承禪師  
東京智海平禪師法嗣一人  
東京淨因繼成禪師  
南嶽下第十六世  
東京天寧府卓禪師法嗣一人

湖州道場良範禪師  
福州鼓山本才禪師法嗣二人  
福州普賢元素禪師 泉州法石祖珍禪師  
成都昭覺克勤禪師法嗣上一人  
潭州大偽法泰禪師

卷第十七

南嶽下第十六世

成都府昭覺克勤禪師法嗣下四人  
臨安府徑山宗杲禪師 明州育王端裕禪師  
平江府虎丘隆禪師 台州護國景元禪師  
建康府蔣山慧勲禪師法嗣一人  
韶州南華炳禪師  
舒州龍門清遠禪師法嗣三人  
福州鼓山士珪禪師 饒州薦福道行禪師  
撫州白楊法順禪師  
潭州開福道寧禪師法嗣一人  
潭州大瀉善果禪師

南嶽下第十七世

前潭州大偽法泰禪師法嗣二人  
鼎州靈巖仲安禪師 潭州芙蓉清旦禪師  
臨安府徑山宗杲禪師法嗣上五人  
福州西禪鼎需禪師 福州龜山彌光禪師  
福州東禪思岳禪師 福州西禪守淨禪師  
建州開善道謙禪師

卷第十八

南嶽下第十七世

臨安府徑山宗杲禪師法嗣下九人  
江州東林道顏禪師 饒州薦福道本禪師  
潭州大偽法寶禪師 明州阿育王光禪師  
福州雪峯蘊聞禪師 建寧府竹原元庵主  
平江資壽妙總禪師 溫州淨居尼妙道禪師  
侍郎張公九成  
明州阿育王山端裕禪師法嗣二人  
湖州道場法全禪師 臨安府淨慈師一禪師  
平江府虎丘隆禪師法嗣一人  
明州天童曇華禪師  
台州護國景元禪師法嗣一人  
台州國清行機禪師

饒州薦福道行禪師法嗣一人  
泉州法石惠光禪師

南嶽下第十八世  
前福州西禪鼎需禪師法嗣三人  
溫州龍翔南雅禪師 福州天王志清禪師  
南劔州劔門安分庵主  
福州東禪思岳禪師法嗣一人  
福州鼓山宗逮禪師  
福州西禪府淨禪師法嗣一人  
福州乾元宗穎禪師  
前湖州道場法全禪師法嗣一人  
常州華藏有權禪師  
明州天童曇華禪師法嗣一人  
明州天童咸傑禪師

卷第十九  
韶州六祖慧能禪師法嗣一人  
吉州青原行思禪師

青原下第二世  
吉州青原行思禪師法嗣一人  
南嶽石頭希遷禪師

青原下第三世  
南嶽石頭希遷禪師法嗣一十人  
荊州天皇道悟禪師 澧州藥山惟儼禪師  
鄧州丹霞天然禪師 潭州長髭曠禪師  
潭州大川和尚 潮州大顛和尚  
汾州石樓和尚 鳳翔府佛陀遜禪師  
潭州招提慧朗禪師 丁行者

青原下第四世  
前荊州天皇道悟禪師法嗣一人  
澧州龍潭崇信禪師  
前澧州藥山惟儼禪師法嗣六人  
澄州道吾宗智禪師 潭州雲巖曇晟禪師  
秀州甌子德誠禪師 宣州樺樹慧省禪師  
高沙彌 朗州刺史李翱  
前鄧州丹霞天然禪師法嗣三人  
京兆翠微無學禪師 吉州孝義性空禪師  
米倉和尚  
前潭州長髭曠禪師法嗣一人

潭州石室善導禪師  
前潭州大川和尚法嗣一人  
僊天和尚

卷第二十

青原下第四世

潮州大顛和尚法嗣四人  
漳州三平義忠禪師 馬頰山本空和尚  
本生和尚 侍郎文公韓愈

青原下第五世

澧州龍潭崇信禪師法嗣二人  
鼎州德山宣鑑禪師 洪州寶峰和尚  
潭州道吾宗智禪師法嗣三人  
潭州石霜慶諸禪師 潭州漸源仲興禪師  
祿青和尚  
潭州雲巖曇晟禪師法嗣四人  
筠州洞山良价禪師 潭州神山僧密禪師  
涿州杏山鑿洪禪師 幽溪和尚

卷第二十一

青原下第五世

秀州華亭舡子德誠禪師法嗣一人  
澧州夾山善會禪師  
京兆府翠微無學禪師法嗣五人  
舒州投子大同禪師 湖州道場如訥禪師  
鄂州清平令遵禪師 棗山光仁禪師  
建州白雲約禪師  
吉州性空禪師法嗣一人  
歙州茂源和尚

青原下第六世

鼎州德山宣鑿禪師法嗣上二人  
鄂州巖頭全豁禪師 福州雪峯義存禪師

卷第二十二

青原下第六世

鼎州德山宣鑿禪師法嗣下三人  
泉州瓦棺和尚 襄州高亭簡禪師  
洪州感潭資國和尚  
潭州石霜慶諸禪師法嗣八人  
筠州九峯道虔禪師 台州湧泉景欣禪師  
潭州雲蓋志元禪師 福州覆舡荐禪師

潭州大光居誨禪師 鳳翔府石柱和尚  
潭州文殊禪師 秀才張公拙  
筠州洞山良价禪師法嗣上一十一人  
撫州曹山本寂禪師 洪州雲居道膺禪師  
潭州龍牙居遁禪師 襄州洞山師虔禪師  
撫州疎山羗仁禪師 澧州欽山文邃禪師  
京兆華嚴休靜禪師 筠州白水本仁禪師  
益州北院通禪師 洛京白馬遁儒禪師  
明州天童感啟禪師

卷第二十三

青原下第六世

筠州洞山良价禪師法嗣下四人  
越州乾峯和尚 筠州九峯普滿禪師  
蜺子和尚 幽棲和尚  
澧州夾山善會禪師法嗣四人  
澧州洛浦元安禪師 袁州盤龍可文禪師  
撫州黃山月輪禪師 洛京韶山寰普禪師  
舒州投子大同禪師法嗣三人  
福州牛頭微禪師 安州九嶷山和尚  
東京觀音巖俊禪師

青原下第七世

鄂州巖頭全豁禪師法嗣三人  
福州羅山道閑禪師 台州瑞巖師彥禪師  
懷州玄泉彥禪師  
福州雪峯義存禪師法嗣上一人  
福州玄沙師備禪師

卷第二十四

青原下第七世

福州雪峯義存禪師法嗣下一十七人  
韶州雲門文偃禪師 福州長慶慧稜禪師  
福州安國明真禪師 漳州保福從展禪師  
杭州龍冊德惣禪師 福州長生皎然禪師  
福州鼓山神晏禪師 明州翠巖令參禪師  
泉州臥龍道溥禪師 越州越山師鼎禪師  
安州白兆志圓禪師 南嶽金輪可觀禪師  
漳州報恩懷嶽禪師 漳州隆壽紹卿禪師  
杭州龍華靈照禪師 洛京南院和尚  
太原孚上座

卷第二十五

青原下第七世

筠州九峯道虔禪師法嗣三人

洪州同安常察禪師 吉州禾山澄源禪師

新羅清院和尚

潭州雲盖志安禪師嗣一人

新羅臥龍和尚

潭州大光居誨禪師嗣一人

潭州伏龍和尚

台州湧泉景欣禪師法嗣一人

台州六通紹禪師

潭州雲盖志元禪師法嗣一人

潭州雲盖志罕禪師

撫州曹山本寂禪師嗣五人

撫州金峯從志禪師 處州廣利容禪師

襄州鹿門處真禪師 衡州育王弘通禪師

撫州曹山惠霞禪師

洪州雲居道膺禪師法嗣八人

杭州佛日和尚 蘇州永光真禪師

洪州同安丕禪師 洪州雲居懷岳禪師

歙州朱溪謙禪師 池州嵇山章禪師

洪州雲居簡禪師 廬山歸宗懷惲禪師

筠州九峯普滿禪師法嗣一人

洪州同安威禪師

潭州龍牙居遁禪師法嗣二人

潭州報慈岐禪師 襄州含珠審哲禪師

襄州洞山師虔禪師法嗣二人

襄州鳳凰山獻蘊禪師 襄州萬銅山廣德禪師

撫州疎山羌仁禪師法嗣四人

筠州黃檗慧禪師 韶州護國淨困禪師

洛京長水歸仁禪師 撫州大安省禪師

筠州高安白水本仁禪師法嗣一人

杭州瑞龍幻璋禪師

澧州洛浦元安禪師法嗣二人

鳳翔青峰傳楚禪師 蘄州烏牙彥賓禪師

袁州盤龍可文禪師法嗣一人

袁州木平善道禪師

撫州黃山月輪禪師法嗣一人

郢州桐泉和尚

青原下第八世

福州羅山道閑禪師法嗣五人

婺州明招德謙禪師 吉州清平惟曠禪師

婺州金柱義昭禪師 吉州匡山和尚

西川慧和尚

懷州桐泉彥禪師法嗣一人

鄂州黃龍誨璣禪師

卷第二十六

青原下第八世

福州玄沙師備禪師法嗣七人

漳州羅漢桂琛禪師 福州安國惠球禪師

婺州金華國泰禪師 福州螺峯冲奧禪師

泉州睡龍禪師 天台雲峯光緒禪師

天台國清師淨上座

韶州雲門文偃禪師法嗣一十九人

韶州白雲祥禪師 岳州巴陵顥鑿禪師

隋州智門師寬禪師 襄州洞山守初禪師

韶州雙峰敬欽禪師 蘄州北禪寂禪師

朗州德山圓明禪師 隋州雙泉郁禪師

郢州臨溪竟脫禪師 潞府妙勝臻禪師

益州香林澄遠禪師 韶州雲門法球禪師

潭州南台道遵禪師 南岳般若啟柔禪師

信州鵝湖雲震禪師 廬州天王徽禪師

深明二上座 饒州薦福古禪師

福州長慶慧稜禪師法嗣九人

泉州招慶道匡禪師 福州慈雲光雲禪師

婺州報恩寶資禪師 襄州鷲嶺明遠禪師

福州石佛靜禪師 福州僊天守玘禪師

杭州傾心法瑫禪師 新羅龜山和尚

太傅王公延彬

漳州保福從展禪師法嗣二人

泉州招慶省澄禪師 漳州報恩熙禪師

福州鼓山神晏國師法嗣三人

金陵淨德慧悟禪師 福州鼓山智嶽禪師

建州白雲時作禪師

明州翠巖令參禪師法嗣一人

杭州龍冊子興禪師

泉州臥龍道溥禪師法嗣一人  
漳州保福清豁禪師  
洪州雲居懷嶽禪師法嗣一人  
揚州風化令崇禪師  
安州白兆志圓禪師法嗣三人  
朗州大龍智洪禪師 襄州白馬行靄禪師  
晉州興化師晉禪師  
洪州同安丕禪師法嗣一人  
洪州同安志禪師  
韶州護國淨果禪師法嗣一人  
潁州薦福思禪師  
青原下第九世  
婺州明招德謙禪師法嗣一人  
處州報恩契從禪師  
鄂州黃龍誨璣禪師法嗣二人  
棗樹和尚 嘉州黑水和尚  
漳州羅漢桂琛禪師法嗣五人  
金陵清涼文益禪師 襄州青溪洪璉禪師  
撫州龍濟紹修山主 金陵清涼休復禪師  
衡岳南台守安禪師  
卷第二十七  
青原下第九世  
潭州延壽慧輪禪師法嗣一人(師見保福)  
廬山歸宗道詮禪師  
韶州白雲祥禪師法嗣二人(師見雲門)  
連州保峯和尚 韶州日華和尚  
吉州巴陵顥鑒禪師法嗣一人  
泐潭靈澄散聖  
隋州智門師寬禪師法嗣七人  
江陵福昌惟善禪師 蘄州五祖師戒禪師  
蘄州四祖諲禪師 蘄州廣教懷志禪師  
舒州龍門永禪師 唐州天目契滿禪師  
鄂州建福智通禪師  
襄州洞山守初禪師法嗣三人  
嶽州乾明睦禪師 鄧州廣濟通禪師  
荊南府開福德賢禪師  
朗州德山密禪師法嗣四人  
南嶽南臺勤禪師 鼎州文殊應真禪師

鼎州德山慧晏禪師 鼎州文殊寬禪師  
 隋州雙泉郁禪師法嗣一人  
 鼎州德山慧遠禪師  
 江陵府奉先深禪師法嗣一人(師見雲門)  
 天台蓮華峯祥公庵主  
 郢州林溪敬脫禪師法嗣一人(師見雲門)  
 西劔州鳳凰智廣禪師  
 路府妙勝臻禪師法嗣一人  
 潭州大瀉承禪師  
 益州香林澄遠禪師法嗣一人  
 隋州智門光祚禪師  
 洪州同安志禪師法嗣一人  
 鼎州梁山緣觀禪師  
 韶州舜峯韶禪師法嗣一人(師見雲門)  
 磁州桃園曦朗禪師  
 青原下第十世  
 金陵清涼大法眼文益禪師法嗣一十三人  
 天台山德韶國師 金陵清涼泰欽禪師  
 金陵報恩玄則禪師 金陵報恩玄覺禪師  
 杭州報恩慧明禪師 漳州羅漢守仁禪師  
 金陵鍾山義章禪師 金陵報恩文遂禪師  
 杭州永明道潛禪師 廬山歸宗慧超禪師  
 廬山棲賢慧圓禪師 洪州百丈恒禪師  
 杭州靈隱清聳禪師  
 襄州清溪洪璣禪師法嗣一人  
 相州天平從漪禪師  
 蘄州五祖師戒禪師法嗣三人  
 洪州泐潭懷澄禪師 筠州洞山自寶禪師  
 復州北塔思廣禪師  
 潭州福嚴良雅禪師法嗣一人  
 潭州北禪智賢禪師  
 鼎州文殊應真禪師法嗣一人  
 筠州洞山曉聰禪師  
 朗州德山慧遠禪師法嗣一人(師見雙泉郁都見雲門)  
 廬山歸宗善暹禪師  
 隋州智門光祚禪師法嗣三人  
 明州雪竇重顯禪師 鼎州彰法燈泗禪師  
 潭州雲蓋繼鵬禪師

鼎州梁山緣觀禪師法嗣一人

郢州太陽警延禪師

卷第二十八

青原下第十一世

天台德韶禪師法嗣八人

杭州永明延壽禪師 溫州僊巖安禪師

杭州五雲志逢禪師 廣州光聖師護禪師

杭州龍華慧居禪師 溫州瑞鹿本先禪師

溫州鴈蕩願齊禪師 杭州興教洪壽禪師

金陵清涼泰欽禪師法嗣一人

洪州雲居齊禪師

洪州百丈恒禪師法嗣一人

廬山栖賢澄謚禪師

洪州雲居清錫禪師法嗣一人(師見法眼)

天台般若從進禪師

廬山歸宗義柔禪師法嗣一人(師見法眼)

明州天童新禪師

廬山長安延規禪師法嗣一人(師見法眼)

潭州雲蓋用清禪師

洪州泐潭澄散聖法嗣二人

明州育王懷璉禪師 婺州承天惟簡禪師

復州北塔思廣禪師法嗣一人(師見五祖戒)

荊門軍玉泉承浩禪師

潭州北禪智賢禪師法嗣一人

洪州法昌倚遇禪師

筠州洞山曉聰禪師法嗣一人

洪州雲居曉舜禪師

廬山歸宗善暹禪師法嗣一人

洪州雲居了元禪師

明州雪竇重顯禪師法嗣四人

越州天衣義懷禪師 泉州承天傳宗禪師

舒州投子宗禪師 越州天衣在禪師

郢州大陽警延禪師法嗣四人

郢州興陽剖禪師 舒州投子義青禪師

惠州羅浮如禪師 西川雲頂山鵬禪師

青原下第十二世

廬山栖賢澄謚禪師法嗣一人

湖州西余體柔禪師

洪州雲居曉舜禪師法嗣二人  
建康蔣山法泉禪師 處州慈雲居慧禪師  
越州天衣義懷禪師法嗣六人  
東京法雲法秀禪師 杭州佛日智才禪師  
東京慧林宗本禪師 台州瑞巖子鴻禪師  
真州長廬體明禪師 蘇州淨慧可證禪師  
舒州投子義青禪師法嗣二人  
東京淨因道楷禪師 西京少林恩禪師

卷第二十九

青原下第十三世

東京法雲法秀禪師法嗣一人  
澧州香積用旻禪師  
東京慧林宗本禪師法嗣三人  
杭州淨慈善本禪師 福州太平恩禪師  
秀州本覺法真禪師  
北京天鉢重元禪師法嗣一人  
西京聖善真悟禪師  
東京淨恩楷禪師法嗣二人  
鄧州丹霞淳禪師(未見錄)  
東京淨因法成禪師

青原下第十四世

杭州淨慈善本禪師法嗣一人  
福州雪峯思慧禪師  
鄧州丹霞淳禪師法嗣一人  
明州天童正覺禪師

青原下第十五世

福州雪峯思慧禪師法嗣一人  
杭州淨慈道昌禪師  
明州天童正覺禪師法嗣一人  
臨安府淨慈慧暉禪師  
應化賢聖 亡名尊宿

卷第三十

傅大士心王銘 誌公和尚十二時歌  
誌公和尚十四科 三祖璨大師信心銘  
真覺大師證道歌 石頭和尚參同契  
石頭和尚草庵歌 僧亡名息心銘  
趙州和尚十二時歌 羅漢琛和尚明道頌  
同安察禪師十玄談 法眼禪師三界惟心頌

澄觀國師答皇太子心要  
鼎州普安和尚頌  
聯燈會要目次(終)

No. 1557-A

楚人鬻照乘之珠於鄭。寘之薰桂之櫝。飾以翡翠。綴以玫瑰。鄭人悅其外之澤也。不吝千金。爭市其櫝。珠則還之。

嗚呼今之鸚僧。承言滯句。其類是歟。

自七佛以還。初無一字示人。傳燈廣燈。暨前修一時機緣。雖言滿宇宙。聖諦第一義。蓋未之見也。況有所謂第二句哉。年祀浸遠。烏焉成馬。密室咕囁。以打之遶。為機辯。以鳳林楂。為全提。末派渺瀰。直指之宗胥而為名相之學。櫝則為我有矣。摩尼寶珠。其將安在。

真懶明老。入木庵之室。而操戈逐之。深疾夫曲曲彎彎絲絲密密。迺罔羅衲僧巴鼻。下刃於頂[寧\*頁]上。着着有出身之路者。目以聯燈會要。鋟板流通。將使鑿戰。沙場者。射人先射馬。擒賊先擒王。然後囊弓仆鼓。坐底太平。老負之心。蓋亦切矣。

千里貽書。謁余以序。余聞。東寺只索一顆明珠。仰山當下傾一拷栳。今觀此書。盡泄天地之寶。又何止傾一拷栳也。探驪頷者。其毋遭神龍之寤哉。雖然自顛迄末。有一轉語。未徹根源。畢竟誦訛在底處。呈似大方之家。必能辯出。

淳熙己酉三月初吉 淡齊李泳 序。

No. 1557-B

聯燈錄。乃晦翁和尚居江心潛光室時。全提機要。開鑿人天。編集聯類。而成此書。始唱道于泉之崇福。耆衲檀信。力請刊行。逮遷鄮峯。遂以板寘旃檀林。歲壬申。思忠在寂窻老叔侍下。多舉錄中機緣激勵。乃曰。此錄去取。簡而不繁。未幾。板為灰燼。深為嘆惜。僕僕旋閩越。二十年。復來湖上。搜尋故本。就大報國鋟梓。工費二千餘緡。實文雅藏主。相其成也。敬以此錄。仍舊歸育王寂窻塔下。[凡/?/一]之無窮。俾燈聯燄續。晦而復明。庶有補於宗教云耳。

時至元辛卯佛成道日松江澱山比丘思忠拜書。

No. 1557-C

達磨西來。不立文字。直指人心。見性成佛。只要當人具決定志。有大力量。不思前筭後。直下一刀兩段。到頂到底。無第二見。無第二人。便與從上佛祖。無異無別。

自曹谿而下。得其傳者。千有餘數。凡垂一言半句。如同電拂。眨得眼來。新羅國裡。設有方便。如國家兵器。不得已而用之。道箇抽釘拔楔。解粘去縛。早是項上著枷。脚下著扭了也。其餘合作麼生即得。

近年已來。據師位者。不本宗由。枝詞蔓說。對句押韻。簇錦攢花。謾人自謾。不知其幾。學者不辨邪正。遞相汙襲。與之俱化。從上不傳之旨。絕無聞矣。

余淳熙癸卯。坐夏永嘉之中川。因閱傳燈廣燈。前輩當代諸大老錄。採摭其具徹向上巴鼻。可以關鑿人天眼目者。六百餘家。提唱機緣。問答語句。拈提古今。得其要妙者。各逐本人章次收錄。離為三十卷。命曰聯燈會要。唯臨濟雲門二宗。自汾陽昭雪竇顯而下。罕得其錄。今所編者。十之二三。續燈所載。似無取焉。當伺同志。集而補之。庶幾後學。得見前輩典刑存焉爾。

然前所謂不立文字。直指人心。見性成佛。此一絡索。得非文字語言乎。若作文字語言會。未具衲僧眼在。不作文字語言會。亦未具衲僧眼在。畢竟如何。英俊道流。試請從頭定當看。時淳熙十年。解制後五日。偃谿真懶子悔明。書于潛光室。

No. 1557

聯燈會要卷第一

住泉州崇福禪寺嗣祖比丘 悟明 集

過去莊嚴劫。第九百九十八尊。毗婆尸佛

偈曰。

身從無相中受生 猶如幻出諸形像

幻人心識本來無 罪福皆空無所住

長阿含經云。人壽八萬歲。佛刹利種。姓拘利若。父名槃頭。母名槃頭婆提。居槃頭婆城。坐波波羅樹下。成最正覺。說法三會。度人三十四萬八千。上足二。一名騫茶。一名提舍。執事無憂。子方膺。

過去莊嚴劫。第九百九十九尊。尸棄佛

偈曰。

起諸善業本是幻 造諸惡業亦是幻  
身如聚沫心如風 幻出無根無實相

長阿含經云。人壽七萬歲。佛刹利種。姓拘利若。父名明相。母名光耀。居光相城。坐分陀利樹下。成最正覺。說法三會。度人二十五萬。上足二。一名阿毗淨。一名三婆婆。執事忍行。子無量。

### 過去莊嚴劫。第一千尊。毗舍浮佛

偈曰。

假借四大以為身 心本無生因境有  
前境若無心亦無 罪福如幻起亦滅

長阿含經云。人壽六萬歲。佛刹利種。姓拘利若。父名善燈。母名稱戒。居無踰城。坐婆婆樹下。成最正覺。說法二會。度人一十三萬。上足二。一名扶游。一名鬱多羅。執事寂光。子妙覺。

### 見在賢劫。第一尊。拘留孫佛

偈曰。

見身無實是佛見 了心如幻是佛了  
了得身心本性空 斯人與佛何殊別

長阿含經云。人壽四萬歲。佛婆羅門種。姓迦葉。父名記得。母名善枝。居安和城。坐尸利沙樹下。成最正覺。說法一會。度人四萬。上足二。一名薩尼。一名毗樓。執事善覺。子上勝。

### 見在賢劫。第二尊。拘那含牟尼佛

偈曰。

佛不見身知是佛 若實有知別無佛  
智者能知罪性空 坦然不怖於生死

長阿含經云。人壽三萬歲。佛婆羅門種。姓迦葉。父名大德。母名善勝。居清淨城。坐烏暫婆羅門樹下。成最正覺。說法一會。度人三萬。上足二。一名舒槃那。一名鬱多樓。執事安和。子導師。

### 見在賢劫。第三尊。迦葉佛

偈曰。

一切眾生性清淨 從本無生無可滅  
即此身心是幻生 幻化之中無罪福

長阿含經云。人壽二萬歲。佛婆羅門種。姓迦葉。父名梵德。母名財主。居波羅奈城。坐尼拘律樹下。成最正覺。說法一會。度人二萬。上足二。一名提舍。一名婆羅婆。執事善友。子進軍。

### 見在賢劫。第四尊。釋迦牟尼佛

偈曰。

幻化無因亦無生 皆即自然見如是

諸化無非自化生 幻化無生無所畏

謹按佛本行經云。姓刹帝利。父淨飯王。母摩耶。於無量劫。護持禁戒。梵行清淨。命終之後。正念往生兜率陀天。應其補處。名曰護明。智慧滿足。天壽四千歲。為諸天說法教化。顯示法相。天壽既盡。遂即下生。托孕摩耶夫人。十月滿足。當春之時。摩耶夫人。游嵐毗尼園。至波羅叉樹下。即舉右手。攀其樹枝。菩薩從母右脇而降。

又按普耀經云。佛初生刹利王家。放大智光明。照十方法界。地湧金蓮華。自然捧雙足。東西及南北。各行於七步。分手指天地。作大師子吼。上下及四維。無能尊我者。

即周昭王二十四年。甲寅歲。四月八日也。至四十二年。二月八日。游四門。踰城出家。歷試邪法。摧伏外道。至穆王三年癸未。二月八日。明星現時。成道。為憍陳如五人。轉四諦法輪。而證道果。住世說法。四十九年。

後告上首迦葉云。吾以清淨法眼。涅槃妙心。實相無相。微妙正法。分付於汝。汝當護持。并勅阿難。副貳傳化。無令斷絕。仍說偈云。法本法無法。無法法亦法。今付無法時。法法何曾法。復告迦葉云。吾將金縷僧伽梨衣。傳付於汝。轉授補處。至慈氏佛出世。勿令朽壞。

即於熙連河側娑羅樹間。右脇累足。泊然而寂。實穆王五十二年。壬申。二月十五日也。

後一千一十七年。教流東土。即從漢永平十年。戊辰歲也。

世尊初生下。一手指天。一手指地。周行七步。目顧四方云。天上天下。唯我獨尊。

雲門云。我當時若見。一棒打殺。與狗子喫。貴圖天下太平。琅琊覺云。可謂將此深心奉塵刹。是則名為報佛恩。雲峰悅云。雲門雖有定亂之謀。且無出身之路。

妙喜頌云。老漢纔生便着忙。周行七步似顛狂。賺他無院癡男女。開眼堂堂入鑊湯。

世尊一日陞座。大眾纔集定。文殊白槌云。諦觀法王法。法王法如是。

雪竇頌云。列聖叢中作者知。法王法令不如斯。會中若有仙陀客。何必文殊下一槌。

世尊因文殊至諸佛集處。值諸佛。各還本處。唯有一女人。近彼佛座。入於三昧。文殊白佛。何此女人。得近佛座。而我不得。佛告文殊。汝但覺此女。令從三昧起。汝自問之。文殊遶女人三匝。鳴指三下。乃托至梵天。盡其神力。而不能出。世尊云。假使百千萬文殊。亦出此女人定不得。下方過四十二恒河沙國土。有罔明菩薩。能出此女人定。須臾罔明從地湧出。作禮世尊。世尊勅罔明。出女人定。罔明於女人前。鳴指一下。女子從定而起。

五雲云。不唯文殊。不能出此女子定。但恐世尊。也出此定不得。只如教意。怎生體解。夾山齡云。若具奔流度刃底眼。非但見這一隊漢敗關。乃至河沙佛祖出來。也被他覷破。其或青黃不辨。邪正不分。只管覓女子出定。玄沙道底。

世尊因自恣日。文殊三處度夏。迦葉欲白槌擯出。纔舉槌。乃見百千萬億文殊。迦葉盡其神力。槌不能舉。世尊遂問迦葉。汝欲擯那箇文殊。葉無對。

世尊因靈山會上。有五百比丘。得四禪定。具五神通。未得法忍。以宿命智通。各各自見。過去殺父害母。及諸重罪。心內懷疑。於甚深法。不能證入。於是文殊。承佛神力。手握利劍。持逼如來。世尊謂文殊云。住住。不應作逆。勿得害吾。吾必被害。為善被害。文殊。從本以來。無有我人。但以內心見有我人。內心起時。吾必被害。即名為害。於是五百比丘。自悟本心。如夢如幻。於夢幻中。無有我人。乃至能生所生父母。於是五百比丘。同聲贊嘆云。文殊大智士。深達法源底。自手握利劍。持逼如來身。如劍佛亦爾。一相無有二。無相無所為。是中云何殺。

世尊。因文殊忽起佛見法見。被世尊神力攝。向二鐵圍山。

世尊一日見文殊。在門外立。乃云。文殊文殊。何不入門來。文殊云。我不見一法在門外。何以教我入門來。

玄覺徵云。為復是門內語。門外語。

大溈喆云。吾不如汝。

世尊將諸聖眾。往第六天。說大集經。勅他方此土。人間天上。一切寧惡鬼神。悉皆集會。受佛付囑。擁護正法。設有不赴者。四天門王。飛熱鐵輪。追之令集。既集會已。無有不順佛勅者。各發弘誓擁護正法。

唯有一魔王。謂世尊云。瞿曇。我待一切眾生。成佛盡。眾生界空。無有眾生名字。我乃發菩提心。

天衣懷云。臨危不變。真大丈夫。諸仁者。作麼生着得一轉語。與黃面瞿曇出氣。尋常神通妙用。智慧辨才。總用不着。盡閻浮大地。無不愛佛。到這裏。何者是佛。何者是魔。還有人辨得麼。良久云。欲識魔麼。開眼見明。欲識佛麼。合眼見暗。魔之與佛。以柱杖子。一時穿却鼻孔。

妙喜代云。幾乎錯喚爾作魔王。

世尊因普眼菩薩。欲見普賢。不能得見。乃至三度入定。徧觀三千大千世界。覓普賢。不能得見。却來白佛。佛云。汝但於靜三昧中。起一念便見普賢。普眼於是纔起一念。便見普賢。向空中。乘六牙白象。

雲居舜云。作麼生會雲居道。普眼推倒世尊。世尊推倒普眼。

爾道。普賢在甚麼處。

世尊一日陞座。大眾集定。迦葉白槌云。世尊說法竟。世尊便下座。

世尊在靈山會上。拈花示眾。眾皆默然。唯迦葉破顏微笑。世尊云。吾有正法眼藏。涅槃妙心。實相無相。微妙法門。不立文字。教外別傳。付囑摩訶迦葉。

妙喜頌云。拈起一枝花。風流出當家。若言付心法。天下事如麻。

世尊昔至多子塔前。命摩訶迦葉分座。以僧伽梨圍之。乃告云。吾有正法眼藏。密付於汝。汝當護持。傳付將來。無令斷絕。

世尊一日陞座。默然而坐。阿難白槌云。請世尊說法。世尊云。會中有二比丘。犯律行。我故不說法。阿難以他心通。觀是比丘。遂乃遣出。世尊復默然。阿難白世尊。是二比丘。已遣出。何不說法。世尊云。吾誓不為聲聞二乘人說法。便下座。

世尊同阿難行次。見一古佛塔。世尊作禮。阿難云。是甚麼人塔。世尊云。是過去諸佛塔。阿難云。過去諸佛。是甚麼人弟子。世尊云。是吾弟子。難云。應當如是。

世尊一日食時將至。勅阿難。汝當入城持鉢。阿難應諾。世尊云。汝既持鉢。當依過去七佛儀式。阿難遂問。如何是過去七佛儀式。世尊召阿難。阿難應諾。世尊云。持鉢去。

世尊因地布髮掩泥。獻花於燃燈佛。燃燈見布髮處。遂約退眾。乃指地云。此一方地。宜建一梵剎。眾中有一賢子長者。持標。於指處插云。建梵剎已竟。時諸天散花贊嘆云。庶子有大智矣。

世尊九十日。在忉利天宮。為母說法。及辭天界而下時四眾八部。俱往空界奉迎。有蓮花色比丘尼。作念云。我是尼身。必居大僧後。不若用神力。變作轉輪聖王。千子圍繞。最初見佛。果滿其

願。世尊纔見。便呵云。蓮華色比丘尼。何得越大僧見吾。汝雖見吾色身。且不見吾法身。須菩提在岩中宴坐。却見吾法身。

世尊因五通仙人問云。世尊有六通。我有五通。如何是那一通。世尊召云。五通仙人。通應諾。世尊云。那一通。汝問我。

雪竇云。老胡元不知那一通。却因邪打正。

雲峯悅云。大小瞿曇。被外道勘破了也。有傍不肯底麼。出來。我要問爾。如何是那一通。

保寧勇頌云。無量劫來曾未遇。如何不動到其中。莫言佛法無多子。最苦瞿曇那一通。

世尊因長爪梵志。索論義。預約云。我義若墮。我自斬首以謝。世尊云。汝義以何為宗。志云。我義以一切不受為宗。世尊云。是見受否。志拂袖而去。行至中路。有省。乃謂弟子云。吾當回去。斬首以謝世尊。弟子云。人天眾前。幸當得勝。何以斬首。志云。我寧於有智人前斬首。不於無智人前得勝。乃嘆云。我義兩處負墮。是見若受。負門處麤。是見不受。負門處細。一切人天二乘。皆不知我義墮處。唯有世尊。諸大菩薩。知我義墮。回至世尊前云。我義兩處負墮。故當斬首以謝。世尊云。我法中。無如是事。汝當回心向道。

於是。同五百徒眾。一時投佛出家。證阿羅漢。

天衣懷頌云。是見若受破家門。是見不受與誰論。匾擔驀折兩頭脫。一毫頭上現乾坤。

世尊因比丘問。我於佛法中。見處即有。證處未是。世尊當何所示。佛云。比丘某甲。當何所示。是汝所問。

世尊因耆婆善別音響。同至塚間。見五髑髏。世尊敲一髑髏。問云。此生何道。云生人道。又敲一云。此生何道。云生天道。又敲一云。此生何道。耆婆罔措。

世尊因黑齒梵志。運神力。以左右手。擎合歡梧桐花兩株。來供養佛。佛召仙人。志應諾。佛云。放下著。志放下左手花。佛又召仙人放下著。志放下左手花。佛又召仙人放下著。志云。我今空手而立。更放下箇甚麼。佛云。吾非教汝。放捨其花。汝當放捨外六塵。內六識。中六根。一時放捨。至無可捨處。是汝免生死處。志放言下。悟無生法忍。

世尊因調達謗佛。生身陷地獄。佛勅阿難。傳問云。汝在地獄中。安否。達云。我雖在地獄。如三禪天樂。佛又勅問汝還求出否。達云。我待世尊來。即出。阿難云。佛是三界大師。豈有入地獄分。達云。佛既無入地獄分。我豈有出地獄分。

翠巖真云。親言出親口。

世尊因異學問。諸法是常耶。世尊不對。又問。諸法是無常耶。世尊亦不對。異學云。世尊具一切智。何不對我。世尊云。汝之所問。皆為戲論。

世尊一日以隨色摩尼珠。問五方天王云。此珠作何色。天王互說異色。世尊。藏其珠。却舉手問。此珠作何色。天王云。佛手中無珠。色從何有。世尊嘆云。汝何迷倒之甚。吾將世珠示之。便強說有青黃赤白。吾將真珠示之。便總不知。時五方天王。聞語。悉悟道。

世尊因波斯匿王。問。聖義諦中。還有世俗諦否。若言其有。智不應一。若言其無。智不應二。一二之義。其義云何。世尊云。大王。汝於過去龍光佛法中。曾問此義。我今無說。汝亦無聞。無說無聞。是名一義二義。

翠巖真云。波斯匿王。善問。不善答。世尊善答。不善問。一人理上偏枯。一人事上偏枯。翠巖當時若見。點一把火。照看黃面老子。面皮厚多少。

世尊坐次。見二人舁猪子過。乃問。這箇是甚麼。其人云。世尊具一切智。猪子也不識。世尊云。也要問過。

大陽延云。不因世尊問。洎乎忘却。

世尊因乾闥婆王獻樂。其時山河大地。盡作琴聲。迦葉起舜。王問。迦葉。豈不是阿羅漢。諸漏已盡。何更有餘習。佛云。實無餘習。莫謗法也。王又撫琴三遍。迦葉亦三度作舞。王云。迦葉作舞。豈不是。佛云。實不曾作舞。王云。世尊何得妄語。佛云。不妄語。汝撫琴。山河大地。草木。盡作琴聲。豈不是。王云是。佛云。迦葉亦復如是。實不曾作舞。王乃信受。

修山主問澄源禪師。乾闥婆王奏樂。直得須彌岌岌。海水騰波。迦葉作舞。作麼生會。源云。迦葉過去世曾作樂人來。習氣未除。修云。須彌岌岌。海水騰波。又作麼生。源休去。法眼代云。正是習氣。

世地因外道問。昨日說何法。云說定法。外道云。今日說何法。云說不定法。外道云。昨日說定法。今日何故說不定法。云昨日定。今日不定。

大滄喆云。非公境界。

世尊因外道問云。不問有言。不問無言。世尊據坐。外道贊嘆云。世尊大慈大悲。開我迷雲。令我得入。作禮而去。阿難白佛云。外道有何所證。而言得入。世尊云。如世良馬。見鞭影而行。

翠巖芝云。大小世尊。被外道當面搽糊。只如外道云。令我得入。要且不曾夢見。既不曾夢見。為甚麼悟去。翠巖真云。六

合九有。緇黃青紫。一一交參。咸言良久據坐不對。要且不是。

又舉諸方拈了。復云。於戲假如鶩子滿慈。運智摘詞。馳神作用。何益之有。雪竇云。邪正不分。過由鞭影。妙喜云。邪正兩分。正由鞭影。

天衣懷頌云。雙鋒覆護兩俱摧。迷雲從此豁然開。收得劫初鈴子後。輕輕一振動雲雷。

世尊因七賢女。游屍陀林。一女指屍云。屍在這裏。人在甚麼處。一女云。作麼作麼。諸姊諦觀。各各契悟。感帝釋散花。云惟願聖姊。有何所須。我當終身供給。女云我家。四事七珍。悉皆具足。唯要三般物。一要無根樹子一株。二要無陰陽地一片。三要叫不響底山谷一所。帝釋云。一切所須。我悉有之。若此三般物。我實無得。女云。汝若無此。爭能濟人。帝釋罔措。同往白佛。佛言。憍尸迦。我諸弟子。諸大阿羅漢。悉皆不解此義。唯有諸大菩薩。乃解此義。

世尊成道後。在逝多林樹下。跏趺而坐。有二商人。以五百乘車。經過林畔。有二車牛不行。商人怪訝。山神報云。林中有聖人。成道。逾四十九日。未食。汝當供養。商人入林。果見一人。端坐不動。遂問云。為是梵王耶。帝釋耶。山神耶。河神耶。世尊微笑。舉袈裟示之。商人作禮。陳供養。

世尊一日。於涅槃會上。以手摩霄。告大眾云。汝等善觀吾紫摩金色之身。瞻仰取足。勿令後悔。若謂吾滅度。非吾弟子。若謂吾不滅度。亦非吾弟子。時百萬億眾。悉皆悟道。

雲峯悅云。然則膏肓之門。不足以發藥。雲峯今日。且作死馬醫。汝等諸人。皮下還有血麼。

世尊臨入涅槃。文殊請佛再轉法輪。世尊咄云。文殊吾四十九年住世。未嘗說一字。汝請吾再轉法輪。是吾曾轉法輪耶。

世尊已入涅槃。迦葉後至。世尊乃於槲中。露雙趺。示之。迦葉作禮。請如來。以三昧火。而自闍維。即時金棺。從七寶床升舉。繞拘尸羅城七匝。却還本處。化火光三昧。而自焚之。

### 竺乾諸大賢聖(凡二十五)

文殊大士。一日令善財採藥云。是藥者採將來。善財徧採。無不是藥。却來白云。無不是者。文殊云。是藥者採將來。善財拈一草。度與文殊。文殊提起。示眾云。此藥。能殺人。亦能活人。

大瀉喆云。善財能採。文殊善用。非但寢疾毗耶。直饒盡大地人。抱必死之疾。到文殊所。教伊。箇箇脫體而去。何故解用

不須霜刃劍。延齡何必九還丹。

文殊大士。謂善住意天子言。汝今若能違背諸佛。毀謗法僧。吾即同汝如是梵行。天子言。大士今何故。復如是語。大士言。天子。如汝意者。以何為佛。天子言。如如法界。我言是佛。大士言。汝意云何。如如法界。可染著乎。天子言。弗也。大士言。以是義故。我如是說。汝今若能毀背佛法。吾將同汝如是梵行。

文殊問菴提遮女云。生以何為義。女云。生以不生生為生義。文殊云。如何是生以不生生為生義。女云。若能明知地水火風四緣。未嘗自得有所和合。而能隨其所宜。以為生義。

文殊又問。死以何為義。女云。死以不死死為死義。文殊云。如何是死以不死死為死義。女云。若能明知地水火風四緣。未嘗自得有所離散。而能隨其所宜。以為死義。

天親菩薩。從彌勒內宮下。無著問。經云。人間四百年。彼天為一晝夜。彌勒於一時中。成就五百億天子。證無生法忍。未審說甚麼法。天親云。只說這箇法。只是梵音清雅。令樂聞。

天衣懷云。彌勒已錯說。天親已錯傳。山僧今日將錯就錯。與爾諸人注破。良久云。諦聽諦聽。向下文長。付在來日。

利益菩薩。白燃燈佛。我欲得阿耨菩提。唯願世尊。教示我。令速成菩提。佛言利益。汝觀此法。何者是法。是汝所問。

天竺有一上首菩薩。作一乞士。入城乞食次。時有比丘恒伽。謂乞士言。汝從何來。云我從真實中來。又問。何謂真實。云寂滅故名真實。又問。寂滅相中。有所求耶。無所求耶。云無所求。又問。無所求者。何用求耶。云無所求中。吾欲求之。又問。無所求中。何用求耶。答有所求者。一切皆空。得者亦空。著者亦空。實者亦空。求者亦空。語者亦空。問者亦空。寂滅涅槃。一切虛空界分。亦復皆空。吾為如是空法。而求真實。

維摩會上。三十二菩薩。各說不二法門。文殊云。我於一切法。無言無說。無示無識。離諸問答。是為菩薩入不二法門。文殊又問維摩。維摩默然。文殊嘆云。乃至無有語言文字。是菩薩真入不二法門。

保福展云。大小維摩。被文殊一坐。直至如今。起不得。雪竇云。維摩道甚麼。又云。勘破了也。

琅琊覺云。文殊贊善。也是杓卜。聽虛聲。維摩默然。汝等諸人。不得鑽龜打瓦。

維摩因須菩提。持鉢到門。取鉢滿盛香飯。謂尊者云。若能於法等者。於食亦等。乃至入諸邪見。不到彼岸。住於八難。不得無難。同於煩惱。離清淨法。汝得無諍三昧。一切眾生。亦得是定。其施

汝者。不名福田。供養汝者。墮三惡道。為與眾魔同一手。作諸勞侶。汝與眾魔及諸塵勞。等無有異。於一切眾生。而有怨心。謗於佛。毀於法。不入眾數。終不得滅度。汝若如是。乃可取食。須菩提聞此語。忙然不知以何答。置鉢欲去。

須菩提說法。帝釋雨花。須菩提乃問。此花從天得耶。從地得耶。從人得耶。帝釋皆云。弗也。須菩提云。從何而得。帝釋舉起手。菩提云。如是如是。

須菩提在巖間宴坐。諸天雨花贊嘆。尊者云。空中贊嘆者。復是何人。天云。我是梵天。敬重尊者。善說般若。尊者云。我於般若。未嘗說一字。汝云何贊嘆。天云。如是。尊者無說。我乃無聞。無說無聞。是真說般若。

雪竇云。避喧求靜處。世未有其方。在巖間宴坐。也被這一隊漢搽糊。更有這老漢。把不定。問空中雨花贊嘆。復是何人。早敗闕了也。我重尊者善說般若。惡水驀頭潑。又云。我於般若。未嘗說一字。草裏漢。尊者無說。我乃無聞。識甚好惡。總似這般漢。何處有今日。

復召大眾云。雪竇幸是無事人。爾來這裏。覓甚麼。以拄杖一時趨下。

舍利弗問天女。汝何不轉却女身。云我從十二年。求女人相。了不可得。當何所轉。

即時天女。以神通力。變舍利弗作天女。乃化身如舍利弗。却問舍利弗。汝何不轉却女身。舍利弗言。我今不知何輪而變為女身。舍利弗因入城。遙見月上女出城。舍利弗心口思惟。此姊見佛。不知得忍否。我試問之。纔近前便問。甚麼處去。女云。如舍利弗與麼去。弗云。我方入城。汝當出城。云何言如舍利弗與麼去。女云。諸佛弟子。當依何住。舍利弗云。諸佛弟子。當依大涅槃而住。女云。諸佛弟子。既依大涅槃而住。我如舍利弗與麼去。

舍利弗問須菩提。夢中說六波羅密。與覺時同異。須菩提言。此義深遠。吾不能說。會中有彌勒大士。汝往彼問。

雪竇云。當時若不放過。隨後與一筭。誰名彌勒。誰是彌勒者。便見冰消瓦解。

富樓那問佛。清淨本然。云何忽生山河大地。

瑯琊覺云。山僧即不然。清淨本然。云何忽生山河大地。薦福信云。先行不到。末後太過。

首楞嚴云。吾不見時。何不見吾不見之處。若見不見。自然非彼不見之相。若不見吾不見之地。自然非物。云何非汝。

雪竇頌云。全象全牛翳不殊。從來作者共名模。如今要見黃頭老。剎剎塵塵在半途。

賓頭盧尊者。因阿育王問。承聞尊者。親見佛來。是否。尊者以手策起眉云。會麼。云不會。者云。阿耨達池龍王。曾請佛齋。吾是時預其數。

翠巖真云。且道甚麼處見。直饒雪天漂渺。湖光淡蕩。且莫說夢。

大滄喆云。無憂王雖飯三萬大阿羅漢。要且不識賓頭盧。當時待他策起眉毛云。會麼。便與作禮。非唯識賓頭盧。亦乃同參古佛。

善財因毗目仙人執其手。善財自見其身。往十方佛刹微塵數諸佛所。乃至經不可說不可說。微塵數劫時。仙人放手。善財即見自身還在本處。

善財參五十三員善知識。末後到彌勒閣前。見樓閣門閉。瞻仰讚嘆。見彌勒從別處來。善財作禮云。願樓閣門開。令我得入。尋時彌勒。至善財前。彈指一聲。樓閣門開。善財入已。閣門即閉。見百千萬億樓閣。一一樓閣內。有一彌勒。領諸眷屬。并一善財。而立其前。

善財因無著問。我欲見文殊。何者即是。財云。汝發一念心清淨。即是。無著云。我發一念心清淨。為甚麼不見。財云。是真見文殊。

善住天子。白文殊云。可共往如來所咨決未受。亦同此時如法問難。文殊云。爾莫分別取著如來。天子云。如來今在何所。令我莫著。文殊云。只在目前。天子云。若如是者。我何不見。文殊云。汝若一切不見。是名真見如來。天子云。若見在前。云何戒我。莫取著如來。文殊云。汝今見前何有。天子云。有虛空界。文殊云。如來者虛空界是。虛空界即是如來。此中無有一物。可分別者。殃崛摩羅。因持鉢。至一長者家。值婦人產難。子母未分。者云。瞿曇弟子汝為至聖。當有何法。能免產難。殃崛語長者云。我乍入道。未知此法。待我回問世尊。却來相報。及返白佛。佛告殃崛。汝速去報言。我自從賢聖法來。未曾殺生。殃崛往告。婦人聞之當下分免。

妙喜頌云。華陰山前百尺井。中有寒泉徹骨冷。誰家女子來照影。不照其餘照斜領。

月氏國王。聞罽賓國。有一尊者。曰祇夜多。有大名稱。即與群臣。往彼國。禮見問法。修敬畢。請尊者。為開演。尊者云。大王時來好。道今去亦如來時。

緊那羅王。奏無生樂。供養。佛乃勅有情無情。俱隨王去。若有一物。不隨王去。即去佛處不得。

無厭足王。入大寂定。乃勅有情無情。皆順於王。若有一物。不順於王。即入大寂定不得。

障蔽魔王。領諸眷屬。一千年。隨金剛齊菩薩。覓起處不得。忽一日得見。乃問云。汝當依何而住。我一千年。覓汝起處不得。齊云。我不依有住而住。不依無住而住。如是而住。

法眼云。障蔽魔王。不見金剛齊。即且從。只如金剛齊。還見障蔽魔王麼。

城東有一老母。與佛同生。而不欲見佛。每見佛來。即便回避。雖然如此。回顧東西。總皆是佛。遂以手掩其面。十指掌中。亦總是佛。

菴婆提遮女。問文殊云。明知生是不生之義。為甚麼。被生死之所流轉。文殊云。其力未充。

有一聚落。毒龍所居。時五百尊者。往彼降之不得。有一異方尊者。彈指一聲。其龍即降。

瑯琊覺云。若據教乘。自有科判。山僧即不然。只這彈指。也不消得。雖然如是。且莫困魚止箔。鈍鳥棲蘆。

## 西天祖師

### 初祖摩訶大迦葉(凡三)

分座。傳衣。世尊示滅。結集法藏。斥出阿難。未盡諸漏。阿難遂於畢鉢巖前。磐陀石上。坐至中夜。得證道果。即現神通。透石而入。

迦葉後付法眼。而說偈云。法法本來法。無法無非法。何於一法中。有法有不法。

有外道問。如何是我我。祖云。覓我者是汝我。外道云。這箇是我我。師我何在。祖云。汝問我覓。

祖踏泥次。有沙彌問。尊者何得自為。祖云。我若不為。誰為我為。

法眼云。我當時若見。拽來踏泥。

### 二祖阿難尊者(凡三)

祖一日白佛云。今日入城。見一奇特事。佛云。見何奇特事。祖云。入城時。見一攢樂人作舞。出城。總見無常。佛云。我昨日入城。亦見一奇特事。祖云。未審見何奇特事。佛云。我入城時。見一攢樂人作舞。出城時。亦見一攢樂人作舞。

祖問迦葉云。師兄。世尊傳金襴袈裟外。別傳箇甚麼。迦葉召阿難。祖應諾。迦葉云。倒却門前剎竿著。

汾陽昭云。不問那知。

翠巖芝云。千年無影樹。今時沒底靴。

祖大事既辦。詣常水河。化為金地。集諸聖眾。顧得道弟子商那和修。付正法眼。說偈云。本來付有法。付了言無法。各各須自悟。悟了無無法。

### 三祖商那和修尊者(凡一)

問優婆塞多云。汝年幾耶。云。我年十七。祖云。汝身十七耶。性十七耶。云師髮已白。為髮白耶。心白耶。祖云。但髮白。非心白爾。云我身十七。非性十七。祖知是法器。

後付法眼。而說偈云。非法亦非心。無心亦無法。說是心法時。是法非心法。

### 四祖優婆塞多尊者(凡二)

祖訪一比丘尼。纔入門。便觸撒鉢盂。尼云。佛在日。六群比丘。甚是麤行。數來我舍。尚不如此。尊者紹繼祖位人。得與麼麤行。

汾陽昭代云。已知錯誤。

祖說法度人。籌盈石室。有長者子曰眾香。投祖出家。祖問。汝心出家耶。身出家耶。云我自出家。非為身心。祖云。不為身心。復誰出家。云夫出家者。無我我故。心不生滅。心不生滅。即是常道。故諸佛亦常。心無形相。其體亦然。祖云。汝當大悟。心自通達。即為剃度。易名提多迦。遂付法眼。而說偈云。心自本來心。本心非有法。有法有本心。非心非本法。

### 五祖提多迦尊者(凡一)

有彌遮迦者。見師慈相。即悟宿因。乃棄仙術。而求聖果。請問祖云。我於仙道。更無進趣。唯守虛靜。不達至理。祖云。佛言。修仙敬學小道似繩牽。汝可自知之。若棄小流。頓歸大海。當證無生。彌遮迦聞語。豁然契悟。

後付法眼。而說偈云。通達本法心。無法無非法。悟了同未悟。無悟亦無法。

### 六祖彌遮迦尊者(凡一)

道化北天。有婆須蜜者。手提酒器。逆問祖云。師何方來。欲往何所。祖云。從自心來。欲往無所。云師識我手中物否。祖云。此是觸器。而負淨者。云還識我否。祖云。我即不識。識即非我。汝當稱名。吾後示汝本因。云我姓波羅墮。名婆須蜜。祖云。佛記汝。當紹祖位。即與剃度。頓悟宿因。後付法眼。而說偈云。無心無可說。說得不名法。若了心非心。始解心心法。

### 七祖婆須蜜尊者(凡一)

游行諸國。說法度人。有一智者。自稱佛陀難提。謂祖云。我欲與師論義。祖云。義即不論。論即不義。若擬論義。終非義論。難提即悟本心。投祖出家。後付法眼。而說偈云。心同虛空界。示等虛空法。證得虛空時。無是無非法。

### 八祖佛陀難提尊者(凡一)

智慧滔淵。捷辯無礙。有伏馱密多者。作禮問云。父母非我親。誰是最親者。諸佛非我道。誰是最道者。祖云。汝言與心親。父母非可比。汝行與道合。諸佛心即是。外求有相佛。與汝不相似。欲識汝本心。非合亦非離。伏馱聞是偈。頓悟佛理。祖與剃度。後付法眼。而說偈云。虛空無內外。心法亦如是。若了虛空故。是達真如理。

### 九祖伏馱密多尊者(凡一)

生來五十年。唯坐一床。口不曾言。足不曾履。聞偈悟道。傳法度生。有難生者。投師出家。長坐不臥。通達法性。祖付法眼。而說偈云。真理本無名。因名顯真理。受得真真法。非真亦非偽。

### 十祖脇尊者(凡一)

處胎六十年。神珠夢應。誕生之日。滿室光明。出家得道。至一林中。有富那夜奢者。恭敬合掌而立祖前。祖問。汝從何來。云我心非往。祖云。汝住何處。云我心非止。祖云。汝不定耶。云

諸佛亦然。祖云。汝非諸佛。云諸佛亦非。祖知是法器。即與剃度。

付法說偈云。真體自然真。因真說有理。領得真真法。無行亦無止。

聯燈會要卷第一

西天祖師

十一祖富那夜奢尊者(凡一)

詣波羅奈國。有馬鳴大士。迎祖作禮。問云。我欲識佛。何者即是。祖云。汝欲識佛。不識者是。云佛既不識。焉知是乎。祖云。既不識佛。焉知不是。云此是鋸義。祖云。彼是木義。祖復問。鋸義者何。云與師平出。馬鳴却問。木義者何。祖云。汝被我解。馬鳴豁然大悟。

後付法眼。而說偈云。迷悟如隱顯。明暗不相離。今付隱顯法。非一亦非二。

十二祖馬鳴尊者(凡一)

得法之後。於華氏國。有迦毗摩羅者。三千眷屬。有大神力。祖問云。汝盡神力。變化若為。云我化巨海。極為小事。祖云。汝化性海得否。云何謂性海。我未嘗知。祖云。性海者。山河大地。皆依建立。三昧六通。由茲發現。迦毗摩羅。聞是語已。契自本心。與三千徒。投祖出家。

後付法眼。而說偈云。隱顯即本法。明暗元不二。今付了悟法。非取亦非離。

十三祖迦毗摩羅尊者(凡一)

本習外道。歸心佛乘。游西印度。至一深山。有龍樹尊者。出迎。問祖云。深山孤寂。蛇蟒所居。大德至尊。何枉神足。祖云。吾非至尊。來訪賢者。龍樹默念云。此師得決定性明道眼否。是大聖繼真乘否。祖云。汝雖心語。吾已意知。但辦出家。何慮吾之不聖。龍樹悔謝。祖與剃度。

後付法眼。而說偈云。非隱非顯法。說是真實際。悟此隱顯法。非愚亦非智。

十四祖龍樹尊者(凡一)

具大知見。無所不通。游西印度。彼國人。多信福業。聞尊者為說妙法。各相謂言。人之福業。世間第一。徒言佛性。誰能覩之。祖云。汝欲見佛性。先須除我慢。彼眾云。佛性大小。祖云。非大非小。非廣非狹。無福無報。不死不生。彼聞理勝。悉回初心。悟無生忍。

有迦那提婆者。謁祖。祖知是智人。先令侍者。盛滿鉢水。置于座前。彼以一針。進而投之。忻然契會。

後付法眼。而說偈云。為明隱顯法。方說解脫理。於法心不證。無瞋亦無喜。

### 十五祖迦那提婆尊者(凡一)

博識辨慧。名聞諸國。後游巴連弗城。聞諸外道。欲障佛法。計之已久。祖執長幡。入彼眾中。彼云。汝何不前。祖云。汝何不後。彼云。汝似賊人。祖云。汝似良人。云汝解何法。祖云。汝百不會。云我欲得佛。祖云。我酌然得佛。云汝不合得。祖云。元道我得。汝實不得。云汝既不得。云何言得。祖云。汝有我故。所以不得。我無我故。我自當得。

彼既詞屈。乃問云。汝名何等。祖云。我名迦那提婆。彼眾中。有上首羅睺羅多。聞語悔過。心即開悟。

祖付法眼。而說偈云。本對傳法人。為說解脫理。於法實無證。無終亦無始。

### 十六祖羅睺羅多尊者(凡一)

得法之後。隨處利生。至室羅筏城。金水河源。見僧伽難提入定。祖俟之七日。方從定起。祖問之云。汝身定耶。心定耶。云身心俱定。祖云。身心俱定。有何出入。云雖有出入。不失定相。如金在井。如金出井。世相去來。金體常寂。祖云。若金在井。若金出井。金無動靜。何有出入。云言金動靜。何物出入。言金出入。金非動靜。祖云。若金在井。出者何金。若金出井。在者何物。云金若出井。在者非金。金若在井。出者非物。祖云。此義不然。云彼理非著。祖云。此義當墮。云彼義不成。祖云。彼義不成。我義成矣。云我義雖成。法非我故。祖云。我義已成。我無我故。云我無我故。復成何義。祖云。我無我故。故成汝義。云仁者師誰。得是無我。祖云。我師迦那提婆。證是無我。僧伽難提以偈贊曰。稽首提婆師。而出於仁者。仁者無我故。我欲師仁者。祖答以偈云。我

已無我故。汝須見我我。汝若師我故。知我非我我。難提當下豁然。即求剃度。後付法眼。而說偈云。於法實無證。不取亦不離。法非有無相。內外云何起。

### 十七祖僧伽難提尊者(凡一)

寶莊嚴王之子也。因到山舍。見一童子手提圓鑑。直造祖前。祖問汝幾歲耶。云我今百歲。祖云。汝年尚幼。何言百歲。非其理也。云我不會理。正百歲爾。祖云。汝善機耶。云佛言。若人生百歲。不善諸佛機。未若生一日。而得決了之。祖云。汝手中物。當何所表。云諸佛大圓鑑。內外無瑕翳。兩人同得見。心眼皆相似。遂投祖出家。名伽耶舍多。俾令給侍。一日風吹殿角鈴鳴。祖問。風鳴耶。鈴鳴耶。云非風鈴鳴。我心鳴耳。祖云。心復誰乎。云俱寂靜故。祖云。善哉善哉。繼吾道者。非子而誰。即付法眼。而說偈云。心地本無生。因地從緣起。緣種不相妨。華果亦復爾。

### 十八祖伽耶舍多尊者(凡一)

得法之後。徧游諸國。至大月氏國。見一婆羅門舍。祖將入門。舍主鳩摩羅多問。是何徒眾。祖云。是佛徒眾。彼聞佛名。心神悚然。即閉其戶。祖良久敲門。彼云。此舍無人。祖云。答無者誰。彼聞語異。開門延接。投誠出家。後付法眼。而說偈云。有種有心地。因緣能發萌。於緣不相礙。當生生不生。

### 十九祖鳩摩羅多尊者(凡一)

為自在天。繼祖時至。降生人間。得法之後。至中天竺國。有闍夜多者。問云。我家素向三寶。常縈疾苦。隣舍旃陀。所作如意。彼何幸。而我何辜。祖云。何足疑乎。且善惡之報。有三時焉。凡人但見仁夭暴壽。逆吉義凶。便謂無因果。虛罪福。殊不知影響相隨。毫釐靡忒。縱百千劫。亦不磨滅。時闍夜多。得聞是語。頓釋所疑。復告之云。汝已信三業。而未明業從惑生。惑因識有。識依不覺。不覺依心。心本清淨。無生滅。無造作。無報應。無勝負。

寂寂然。靈靈然。汝若入此法門。可與諸佛同矣。一切善惡。有為無為。皆如夢幻。彼於言下。頓悟無生。後付法眼。說偈云。性上本無生。為對求人說。於法既無得。何懷決不決。

### 二十祖闍夜多尊者(凡一)

祖於羅閱城。廣興佛事。敷演頓教法門。彼有學眾。唯尚辯論。有上首名婆修盤頭。一食不臥。六時。禮佛。清淨無欲。為眾所尊。祖欲度之。問彼眾云。此徧行頭陀。勤修梵行。可得佛乎。彼眾云。我師精進如是。何故不得。祖云。汝師與道遠矣。設行苦行。經於塵劫。皆虛妄之本。彼眾云。尊者蘊何德業。而譏我師。祖云。我不求道。亦不顛倒。我不一食。亦不雜食。我不知足。亦不貪欲。心無所希。名之曰道。時徧行聞是語已。發無漏智。祖須臾却問云。適吾對眾挫仁者。得無惱乎。云我責躬悔過以來。聞諸惡言。如風如響。況今獲飲無上甘露。返生熱惱耶。惟願大士。誨以妙道。祖云。汝久植德本。當繼吾宗。後付法眼。而說偈云。言下合無生。同於法界性。若能如是解。通達理事竟。

### 二十一祖婆修盤頭尊者(凡一)

在胎遇記。必為世燈。生長苦行。而證道果。至那提國。國王有子摩拏羅。投祖出家。得大神力。頓悟心宗。當紹祖位。即付法眼。而說偈云。泡幻同無礙。如何不了悟。達法在其中。非今亦非古。

### 二十二祖摩拏羅尊者(凡一)

捨王宮樂。出家證道。往月氏國。有鶴勒那者。問云。龍子何聰。鶴眾何惑。祖告其宿因。心即開悟。復云。我今當修何業。令此鶴眾。轉得人身。祖云。佛有無上法寶。展轉相傳。今付於汝。廣度有情。鶴眾因此而得解脫。後付法眼。而說偈云。心隨萬境轉。轉處實能幽。隨流認得性。無喜亦無憂。

### 二十三祖鶴勒那尊者(凡一)

生時天花散彩。地布金錢。收養王宮。廣現神變。後至中印度。有師子比丘。問云。我欲求道。當何用心。祖云。汝欲求道。無所用心。云既無用心。誰作佛事。祖云。汝若用心。即非功德。汝若無作。即是佛事。經云。我所作功德。而無我所故。師子聞之。頓入佛慧。

祖付法眼。而說偈云。認得心地時。可說不思議。了了無可得。得時不說知。

### 二十四祖師子尊者(凡三)

祖至罽賓國。問禪定達磨達云。仁者習定。當何來此。既至于此。胡云習定。云我雖來此。心亦不亂。定隨人習。豈在處所。祖云。仁者既來。其定亦至。既無處所。豈在人習。云定習人故。非人習定。我雖來此。其定常習。祖云。人非習定。定習人故。當自來時。其定誰習。云如淨明珠。內外無翳。定若通達。必當如此。祖云。定若通達。一似明珠。今見仁者。非珠之徒。云珠既明徹。內外悉定。我心不亂。猶若此淨。祖云。其珠無內外。仁者何能定。穢物不動搖。此定不是淨。彼聞此語。心地朗然。

祖一日。遇一長者。引其子。而問云。此子名婆舍斯多。當生。便拳左手。今雖長大。而未能舒。願尊者。示其宿因。祖熟視之。即索云。可還我珠。童子遽開拳。奉珠。眾皆驚異。祖云。吾前報為僧。赴西海龍王齋。受襯珠。付此童子婆舍斯多。今還吾珠。理固然矣。

長者捨其子。出家得度。

祖將償宿債。預付心法。而說偈云。正說知見時。知見即是心。當心即知見。知見即于今。

罽賓有二外道。學諸幻術。偽為釋子。盜入王宮。事跡既敗。罽賓王怒。破毀伽藍。仍自秉劍。謂祖云。師得蘊空否。祖云。已得蘊空。云離生死否。祖云。已離生死。云可施我頭。祖云。身非我有。豈況於頭。王即揮刃。白乳涌丈餘。王之右臂。尋亦墮地。七日而終。

玄沙云。大小師子尊者。頭也不會作得主。雪竇云。作家君王。天然有在。

### 二十五祖婆舍斯多尊者(凡二)

母夢神劍。覺而有孕。既誕遇師子尊者。顯發宿因。密傳心印。適南天竺國中印度國王名迦勝。設禮供養。有外道號無我。為王敬

重。深嫉祖來。乃於王前。謂祖云。我與默論。不假言說。祖云。孰知勝負。云不爭勝負。但取其義。祖云。汝以何為義。云以無心為義。祖云。汝既無心。安得其義。云我說無心。當名非義。祖云。汝說無心。當名非義。我說非心。當義非名。云當義非名。誰能辯義。祖云。汝名非義。此名何名。云為辯非義。是名無名。祖云。名既非名。義亦非義。辯者是誰。當辯何物。如是往返五十九翻。外道杜口信伏。

芭蕉云。譬如象馬[怡-台+龍]戾難調。加諸楚毒。至于徹骨。方乃調伏。大陽延云。蚌鷸相持。死在漁人之手。妙喜云。尊者何用繁詞。待他道請師默論。不假言說。便云。義墮了也。祖因南天竺國太子。不如密多。投祖出家。祖云。汝求出家。當為何事。云我求出家。當為佛事。祖嘆云。太子智慧天至。必諸聖降跡。即垂納受。削髮具戒。付法眼藏。而說偈云。聖人說知見。當境無非是。我今悟真性。無道亦無理。

## 二十六祖不如密多尊者(凡一)

捨太子位。傳法度生。至東印度。有婆羅門子。街巷游行。初無定止。祖問之云。汝行何速。云師行何緩。祖云。汝今何姓。云與師同姓。祖云。汝憶往事否。云我念遠劫。與師同居。祖云。共為何事。云師演摩訶般若。我轉甚深修多羅。祖云。今日所談。深契宿因。汝乃大勢至菩薩也。即度出家。名般若多羅。後付法眼。而說偈云。真性心地藏。無頭亦無尾。應緣而化物。方便呼為智。

## 二十七祖般若多羅尊者(凡二)

既得法已。適南印度。香志國王。崇奉佛乘。尊重供養。於祖施以無價寶珠。王有三子。祖以所受珠。問三王子云。此珠圓明。有能及否。第一第二王子。皆云。此珠七寶中尊。固無逾矣。第三王子。菩提多羅云。此是世寶。未足為上。於諸寶中。法寶為上。此是世光。未足為上。於諸光中。智光為上。此是世明。未足為上。於諸明中。心明為上。此珠光明。不能自照。要假智光。而辯於此。既辯此已。即知是珠。既知是珠。即明其寶。若明其寶。寶不自寶。若辯其珠。珠不自珠。要假智珠。以辯世珠。寶不自寶。要假智寶。以明法寶。然則師有其道。其寶自現。眾生有道。心寶亦然。尊者嘆其辯慧。無能及矣。

祖復問。於諸物中。何物無相。云於諸物中。不起無相。祖云。於諸物中。何物最高。云於諸物中。人我最高。祖云。於諸物中。何物最大。云於諸物中。法性最大。祖知是法器。因受出家具戒。付正法眼。而說偈云。心地生諸種。因事復生理。果滿菩提圓。花開世界起。

妙喜云。說得道理好。歸依佛法僧。

## 二十八祖菩提達磨(凡十三)

南天竺國王第三子也。因珠辯義。眾所驚伏。

本國有二師。一名佛大勝。一名佛大光。號二甘露門。大勝之徒。分為六宗。一曰有相。二曰無相。三曰定慧。四曰戒行。五曰無得。六曰寂靜。各封已解。傳化多眾。

祖問有相宗云。一切諸法。何名實相。眾中有上首。名薩婆羅。答云。於諸相中。不互諸相。是名實相。祖云。一切諸相。而不互者。若名實相。當何定耶。云於諸相中。實無有定。若定諸相。何名為實。祖云。諸相不定。便名實相。汝今不定。當何得之。云我言不定。不說諸相。當說諸相。其義亦然。祖云。汝言不定。當為實相。定不定故。即非實相。云定既不定。即非實相。知我非故。不定不變。祖云。汝今不變。何名實相。已變已往。其義亦然。云不變當在。在不在故。故變實相。以定其義。祖云。實相不變。變即非實。於有無中。何名實相。薩婆羅心知師玄解潛達。以手指空云。此是世間有相。亦能空故。當知此身。得似此否。祖云。若解實相。即見非相。若了非相。其色亦然。當於色中。不失色體。於非相中。不礙有故。若如是解。此名實相。彼眾聞已。心意朗然。祖問無相宗云。汝言無相。當何證之。彼眾有波羅提者。答云。我明無相。心不現故。祖云。汝心不現。當何明之。云我明無相。心不取捨。當於明時。亦無當者。祖云。於諸有無。心不取捨。又無當者。諸明無故。彼云。入佛三昧。尚無所得。何況無相。而欲知之。祖云。相既不知。誰云有無。尚無所得。何名三昧。云我說不證。證無所證。非三昧故。我說三昧。祖云。非三昧者。何當名之。汝既不證。非證何證。波羅提聞祖辯析。即悟本心。

祖問定慧宗云。汝學定慧。為一為二。彼眾有婆蘭陀。答云。我此定慧。非一非二。祖云。既非一二。何名定慧。云在定非定。處慧非慧。一即非一。二亦非二。祖云。當一不一。當二不二。既非定慧。約何定慧。云不一不二。定慧能知。非定非慧。亦復然矣。祖云。慧非定故。然何知哉。不一不二。誰定誰慧。婆蘭陀聞已。心疑頓釋。

祖問戒行宗云。何者名戒。云何名行。當此戒行。為一為二。彼眾有賢者。答云。一二二一。皆彼所生。依教無染。名為戒行。祖云。汝言依教。即是有染。一二俱破。何言依教。此二違背。不及於行。內外非明。何名為戒。云我有內外。彼已知竟。既得通達。便是戒行。若說違背。俱是俱非。言及清淨。即戒即行。祖云。俱是俱非。何名清淨。既得通故。何談內外。賢者聞之。即自慚伏。祖問無得宗云。汝云無得。無得何得。既無所得。亦無得得。彼眾有寶靜者。答云。我說無得。非無得得。當說得得。無得是得。祖云。既得不得。得亦非得。既云得得。得得何得。云見得非得。非得是得。若見不得。名為得得。祖云。得既非得。得得無得。既無所得。當何所得。寶靜聞之。頓除疑網。

祖問寂靜宗云。何名寂靜。於諸法中。誰靜誰寂。彼有導者。答云。此心不動。是名為寂。於法無染。名之為靜。祖云。本心不動。要假寂靜。本來寂故。何用寂靜。云諸法本空。以空空故。於彼空空。故名寂靜。祖云。空空已空。諸法亦爾。寂靜無相。何靜何寂。彼導者聞祖指誨。豁然開悟。

既而六眾咸歸。化被南天。度無量眾。

於是祖念緣熟。行化時至。俗姪異見王。具大舟。實以眾寶。送至海壖。祖汎重溟三周寒暑。達于南海。抵廣州。實梁普通八年。七月二十一日也。刺史蕭昂延接。具表奏武帝。帝遣使詔。十月一日到金陵。帝問。朕自即位而來。造寺寫經度僧。不可勝數。有何功德。祖云。並無功德。帝云。何得無功德。祖云。此但人天小果。如影隨形。雖有非實。帝云。如何是真功德。祖云。淨智妙圓。體自空寂。如是功德。不可以世求。

帝問。如何是聖諦第一義。祖云。廓然無聖。帝云。對朕者誰。祖云。不識。帝不領旨。

祖於是月十九日。潛渡江北。十一月二十二日。屆于洛陽。當後魏孝明太和十年也。寓止嵩山少林。終日面壁而坐。人謂之壁觀婆羅門。

有僧神光者。來參禮。莫聞誨勵。光自惟曰。古人求道。敲骨取髓。刺血濟飢。布髮掩泥。投崖飼虎。古尚如此。我又何人。其年十二月初九日夜。天大雪。光立庭下。遲明雪積過膝。師憫而問之曰。汝立雪中。當何所求。光垂淚云。願和尚。開甘露門。廣度群品。祖云。諸佛無上妙道。曠劫精勤。能行難行。能忍難忍。豈以小德小智。輕心慢心。欲繼真乘。徒勞勤苦。光聞祖語。潛取利刀。自斷左臂。置于祖前。祖知是法器。乃云。諸佛求道。為法忘軀。汝今斷臂吾前。求亦可在。遂與易名。曰慧可。仍與說法。告

之曰。汝但外息諸緣。內心無喘。心如墻壁。乃可入道。慧可種種說心說性。曾未契理。

忽一日契悟。走告祖云。我已息諸緣耳。祖云。莫成斷滅否。可云不斷滅。祖云。以何為驗。可云。了了常知故。言之不可及。祖云。此是諸佛所傳心體。更勿疑也。

祖有安心法門云。迷時人逐法。解時法逐人。解時識攝色。迷時色攝識。但有心。分別計較。自心現量者。悉皆是夢。若識心寂滅。無一動念處。是名正覺。

問。云何自心現量。答見一切法有。有不自有。自心計作有。見一切法無。無不自無。自心計作無。乃至一切法亦如是。並是自心計作有。自心計作無。又若人造一切罪。自見己之法王即得解脫。若從事上得解者。氣力壯。從事中見法者。即處處不失念。從文字解者。氣力弱。即事即法者深。從汝種種運為。跳踉顛蹶。悉不出法界。若以法界入法界。即是癡人。凡有施為。皆不出法界心。何以故。心體是法界故。

問世間人。種種學問。云何不得道。答由見己故。所以不得道。己者我也。至人逢苦不憂。遇樂不喜。由不見己故。所以不知苦樂。由亡己故。得至虛無。己尚自亡。更有何物。而不亡也。

問諸法既空。阿誰修道。答有阿誰。須修道。若無阿誰。即不須修道。阿誰者。亦我也。若無我者。逢物不生是非。是者我自是。而物非是也。非者我自非。而物非非也。即心無心。是為通達佛道。即物不起見。是名達道。逢物直達。知其本源。此人慧眼開。智者任物不任己。即無取捨違順。愚人任己不任物。即有取捨違順。不見一物。名為見道。不行一物。名為行道。即一切處無處。即作處。無作處。無作法。即見佛。若見相時。即一切處見鬼。取相故墮地獄。觀法故得解脫。若見憶想分別。即受鑊湯爐炭等事現見生死相。若見法界性。即涅槃性。無憶想分別。即是法界性。心非色故非有。用而不廢故非無。又用而常空故非有。空而常用故非無。期城太守楊銜之。竭誠參扣。乞示宗旨。師說偈云。亦不觀惡而生嫌。亦不觀善而勸措。亦不捨智而近愚。亦不拋迷而就悟。達大道兮過量。通佛心兮出度。不與凡聖同躔。超然名之曰祖。

祖將西返。乃命門人云。時將至矣。汝等各言所得。道副云。如我所見。不執文字。不離文字。而為道用。祖云。汝得吾皮。尼總持云。我之所解。如慶喜見阿閼佛國。一見更不再見。祖云。汝得吾肉。道育云。四大本空。五陰非有。而我見處。實無一法可當情。祖云。汝得吾骨。慧可禮三拜。依位而立。祖云。汝得吾髓。

天衣懷云。祖師與麼說話。無計較中。翻成計較。無途轍中。却成途轍。若教伊踏著德山臨濟門下。免見九年冷坐。被人喚

作壁觀胡僧。直饒如是。也未免殃及兒孫。大陽延云。且道。更有一人出來。得箇甚麼。乃云。不得不得。

翠岩芝云。二祖被他當面搽糊。莫道髓。皮也不曾摸著。因甚却紹祖位。

祖顧慧可。而告之云。昔如來以正法眼。分付摩訶大迦葉。展轉付囑。而至於我。我今付汝。汝當護持。并授汝袈裟。以為法信。各有所表。可云。請師指陳。祖云。內傳法印。以契證心。外付袈裟。以定宗旨。後二百年。止而不傳。法周沙界。明道者多。行道者少。說理者多。通理者少。潛符密證。千萬有餘。

聽吾偈云。吾本來茲土。傳法救迷情。一花開五葉。結果自然成。祖於後魏太和十九年。丙辰歲。十月初五日。端坐而逝。十二月二十八日。葬熊耳山。

後三年。宋雲使西域歸。遇祖于葱嶺。手携隻履。飄飄獨行。雲問。師今何往。祖云。西天去。又謂雲曰。汝主已厭世。雲茫然東邁。暨復命。明帝已登遐矣。孝莊即位。雲具表。奏其事。旨令發壙。惟空棺隻履存焉。

## 東土祖師

### 二祖慧可大師(凡三)

師問達磨。諸佛法印。可得聞乎。磨云。諸佛法印。不從人得。師云。我心未寧。乞師安心。磨云。將心來。與汝安。師沉吟。須臾云。覓心了不可得。磨云。與汝安心竟。

芭蕉云。金剛與泥人揩背。

白雲端頌云。終始覓心不可得。寥寥不見少林人。滿庭舊雪重知冷。鼻孔依前搭上唇。

師適北齊。有一居士。年逾四十。詣前作禮云。弟子身纏風恙。請師懺罪。師云。將罪來。與汝懺。士良久云。覓罪性。了不可得。師云。與汝懺罪竟。宜依佛法僧住。居士云。今見和尚。已知是僧。何名佛法。師云。是心是佛。是心是法。佛法不二。僧寶亦然。居士云。今日始知。罪性不在內。不在外。不在中間。如其心然。佛法無二也。師深器之。

瑯琊云。猶欠作云何梵在。

師即授出家剃落。易名僧璨。

付法說偈云。本來緣有地。因地種花生。本來無有種。花亦不曾生。

後於開皇十三年癸丑。三月十六日。示寂。壽一百七歲。

### 三祖僧璨大師(凡二)

因沙彌道信來。作禮云。願和尚乞與解脫法門。師云。誰縛汝。云無人縛。師云。何更求解脫乎。信於言下大悟。服勤九載。後付法眼。而說偈云。花種雖因地。從地種花生。若無人下種。花地盡無生。師於隋煬帝。大業二年丙寅。十月十五日。為四眾。宣演法要訖。於大樹下。合掌立終。塔于本山。

### 四祖道信禪師(凡一)

河內司馬氏子也。師問三祖。如何是古佛心。祖云。汝今是甚麼心。師云。我今無心。祖云。汝既無心。諸佛豈有耶。師言下。頓息疑情。自茲攝心無寐。脇不至席者。六十年。一日於蘄州黃梅縣。逢一童子。骨相奇秀。異乎常童。師問之云。子何姓。云姓即有。不是常姓。師云。是何姓。云是佛性。師云。汝無姓耶。云姓空故。師默器之。即受出家落髮。俾令給侍。後付法眼。而說偈云。花種有生地。因地花生生。大緣與信合。當生生不生。師於高宗永徽辛亥歲。九月四日。安坐示寂。壽七十二。塔于本山。

### 五祖弘忍大師(凡一)

蘄州黃梅人。無父。從母姓周氏。得法之後。居破頭山。有居士盧惠能。來參。師問。汝自何來。云嶺南。師云。欲求何事。云唯求作佛。師云。嶺南人無佛性。若為得佛。云人有南北。佛性豈然。祖默異之。乃呵云。著槽廠去。能入碓坊。腰石舂米。供眾。師將付法。命門人呈偈。見性者付焉。有上首神秀大師。作一偈。書于廊壁間云。身是菩提樹。心如明鏡臺。時時勤拂拭。莫遣惹塵埃。師嘆云。若依此修行。亦得勝果。眾皆誦之。能聞。乃問云。誦者是何章句。同學具述其事。能云。美則美矣。了則未了。同學呵云。庸流何知。發此狂言。能云。若不信。願以一偈和之。同學相顧而笑。能至深夜。自執燭。倩一童子。於秀偈之側。書一偈云。菩提本無樹。明鏡亦非臺。本來無一物。何處惹塵埃。師知是能作。心已默之。乃謂眾云。此偈亦未見性。

深夜潛召能入室。囑之云。吾以無上微妙正法。并所傳袈裟。用付於汝。善自護持。傳付將來。無令斷絕。聽吾偈云。有情來下種。因地果還生。無情既無種。無性亦無生。能跪受衣法云。法既受已。衣付何人。師云。達磨初來。人未之信。故傳衣以明得法之實。今信心已熟。衣乃諍端。止於汝身。不復傳也。師付法後又四載。上元二年。告眾云。吾今事畢。時可行矣。遂安坐而寂。俗壽七十有四。塔于黃梅之東山。

## 六祖惠能大師(凡八)

辛州盧氏子。得法之後。晦跡于南海法性寺。偶風颺刹幡。有二僧對論。一云風動。一云幡動。往復曾未契理。師云。不是風動。不是幡動。仁者心動。二僧悚然。

雪峯云。祖師龍頭蛇尾。好與二十棒。太原孚侍立。不覺咬齒。峯云。我恁麼道。也好與二十棒。

巴陵鑒云。祖師道。不是風動。不是幡動。既不是。風幡向甚麼處著。有人與祖師作主。出來與巴陵相見。雪竇云。風動幡動。既是風幡。向甚麼處著。有人與巴陵作主。出來與雪竇相見。

保寧勇頌云。蕩蕩一條官驛路。晨昏曾不禁人行。渾家不是不進步。無柰當門荊棘生。

示眾云。諸善知識。汝等各各靜心。聽吾說法。汝等諸人。自心是佛。更莫狐疑。外無一物。而能建立。皆是本心。生萬種法。故經云。心生種種法生。心滅種種法滅。若欲成就種智。須達一相三昧。一行三昧。若於一切處。而不住相。彼相中。不生憎愛。亦不取捨。不念利益成壞等事。安閑恬靜。虛融澹薄。此名一相三昧。若於一切處。行住坐臥。純一直心。不動道場。真成淨土。名一行三昧。若人具二三昧。如地有種。能含藏長養。成就其實一相一行。亦復如是。我今說法。猶如時雨。溥潤大地。汝等佛性。譬如種子。遇茲沾洽。悉皆發生。承吾旨者。決獲菩提。依吾行者。定證妙果。

示眾云。吾有一物。無頭無尾。無名無字。無背無面。諸人還識麼。

時荷澤神會。出云。是諸法之本源。乃神會之佛性。師打一棒云。這饒舌沙彌。我喚作一物尚不中。豈況本源佛性。此子向後。設有把茆蓋頭。也只成得箇知解宗徒。

法眼云。古人受記人。終是不錯。如今立知解為宗。即荷澤也。

唐中宗。遣內侍薛簡詔祖。祖辭疾不赴。簡云。京師禪德皆云。欲得會道。必須坐禪習定。若不因禪定。而得解脫者。未之有也。未審如何。師云。道由心悟。豈在坐也。經云。若見如來。若坐若臥。是行邪道。何故。無所從來。亦無所去。若無生滅。是如來清淨禪。諸法空寂。是如來清淨坐。究竟無證。豈況坐耶。簡云。弟子回京。主上必問。願和尚指示心要。傳奏聖人。及京城道學者。譬如一燈。然百千燈。冥者皆明。明明無盡。師云。道無明暗。明暗是代謝之義。明明無盡。亦是有盡。簡云。明論智慧。暗況煩惱。修道之人。儻不以智慧。照破煩惱。無始生死。憑何出離。師云。若以智慧。照破煩惱者。此是二乘見解。羊鹿等機。上智大根。悉不如是。簡云。如何是大乘見解。師云。明與無明。凡夫見二。智者了達其性無二。無二之性。即是實性。實性者。處凡愚而不滅。在賢聖而不增。住煩惱而不亂。居禪定而不寂。不斷不常。不來不去。不在中間。及其內外。不生不滅。性相如如。常住不遷。名之曰道。簡云。師說不生不滅。何異外道。師云。外道所說。不生不滅。將滅止生。以生顯滅。滅猶不滅。生說無生。我說不生不滅者。本自無生。今亦無滅。所以不同外道。欲知心要。但一切善惡。都莫思量。自然得入。清淨心體。湛然常寂。妙用恒沙。簡蒙指教。豁然大悟。禮辭還闕。奏師語。詔賜袈裟絹帛寶鉢。以謝。

僧問黃梅意旨。甚麼人得。師云。會佛法人得。僧云。和尚得否。師云。我不得。僧云。和尚為甚麼不得。師云。我不會佛法。師於先天元年。告眾云。吾受忍大師衣法。今為汝說。汝等性根純熟。決定不疑。堪任大事。聽吾偈云。心地含諸種。溥雨悉皆萌。頓悟花情已。菩提果自成。

復云。其法無二。其心亦然。其道清淨。亦無諸相。汝等慎勿觀靜。及空其心。此心本淨。無可取捨。各自努力。

師於先天二年。七月一日。謂門人云。吾欲歸辛州。汝等速理舟楫。時大眾哀慕。乞師且住。師云。諸佛出現。猶示涅槃。有來必去。理固常然。吾此形骸。歸必有所。眾云。師從此去。早晚却回。師云。葉落歸根。來時無口。

法雲秀云。非但來時無口。去時亦無鼻孔。

眾復問。師之法眼。何人傳授。師云。有道者得。無心者通。遂歸辛州國恩寺。沐浴跏趺順寂。即其年。八月三日也。俗壽七十六。歸塔于韶州寶林。勅諡大鑑禪師。

#### 四祖道信大師旁出法嗣

## 金陵牛頭山法融禪師(凡二)

四祖遠觀氣象。躬自尋訪。見師端坐自若。祖問。爾在此。作甚麼。師云。觀心。祖云。觀者何人。心是何物。師不能加答。祖於宴坐石上。書一佛字。師悚然。不敢坐。祖問。只這裏。別有住處。師云。後有小菴子。遂引祖至菴前。唯有虎狼異獸。祖以手指。作怕勢。師云。猶有這箇在。祖云。這箇是甚麼。師於言下有省。乃稽首。請說真要。祖云。夫百千法門。同歸方寸。河沙妙德。總在心源。一切戒門定門慧門。神通變化。悉自具足。不離汝心。一切煩惱業障。本來空寂。一切因果。皆如夢幻。無三界可出。無菩提可求。人與非人。性相平等。大道虛曠。絕思絕慮。如是之法。今汝已得。更無少欠。與佛何殊。更無別法。汝但任心自在。莫作觀行。亦莫澄心。莫起貪嗔。莫懷愁慮。蕩蕩無礙。任意縱橫。不作諸善。不作諸惡。行住坐臥。觸目遇緣。總是佛之妙用。快樂無憂。故名為佛。師云。心既具足。何者是佛。何者是心。祖云。非心不問佛。問佛非不心。師云。既不作觀行。於境起時。如何對治。祖云。境緣無好醜。好醜起於心。心若不強名。妄情從何起。妄情既不起。真心任徧知。汝但隨心自在。無復對治。即名常住法身。無有變異。吾授璨大師頓教法門。今付於汝。後有五人。紹汝玄化。

邑宰蕭元善問。恰恰用心時。若為安穩好。師云。恰恰用心時。恰恰無心用。曲談名相勞。直說無煩重。無心恰恰用。常用恰恰無。欲識無心處。不與有心殊。

## 牛頭第二世

### 金陵牛頭山法融禪師法嗣

#### 金陵牛頭智巖禪師(凡一)

曲阿華氏子。初為隋郎將。累有戰功。後乞出家。入舒州皖公山。從寶月禪師。為弟子。嘗在谷中入定。山水瀑漲。師怡然不動。其水自退。

有昔同軍者二人。訪師。既相見。謂師云。郎將狂邪。何為住此。師云。我狂欲惺。君狂正發。嗜色淫聲。貪榮冒寵。流轉生死。何由自出。二人感悟而去。

師後謁融禪師。發明大事。融謂師云。吾授信大師真訣。所得俱忘。設有一法。過於涅槃。吾說亦如夢幻。夫一塵飛而翳天。一芥

墮而覆地。汝今已過此見。吾復何云。  
牛頭三世四世無機緣。

## 牛頭第五世

### 金陵牛頭法威禪師法嗣

#### 潤州鶴林玄素禪師(凡一)

本郡延陵馬氏子。

有僧敲門。師云。誰。僧云。是僧。師云。莫道是僧。佛來也不著。僧云。為甚麼不著。師云。無棲泊處。

鼓山永云。鶴林只解把定封疆。不能隨高就下。山僧即不然。方丈門八字打開了也。僧來佛來。了無罣礙。何故如此。家無小使。不成君子。

#### 宣州安國玄挺禪師(凡二)

初參五祖忍禪師。侍立次。有講華嚴僧。問五祖。真性緣起。其義云何。祖默然。師遽云。大德正興一念問時。是真性緣起。其僧。言下大悟。

妙喜云。未興一念問時。不可無緣起也。時有僧云。未興一念問時。喚甚麼。作緣起。妙喜云。我也只要爾恁麼道。

僧問。南宗自何而立。師云。正宗無南北。

#### 舒州天柱山崇慧禪師(凡二)

彭州陳氏子。

僧問。達磨未來此土。還有佛法也無。師云。未來即且致。即今事作麼生。云某甲不會。乞師指示。師云。萬古長空。一朝風月。又云會麼。云不會。師云。自己分上作麼生。干他達磨來與未來作麼生。他家大似賣卜。漢相似。見汝不會。為汝錐破卦文。纔生吉凶。盡在汝分上。一切自看。

時有僧問。如何是解卜底人。師云。汝纔出門時。便不中也。

僧問。如何是天柱家風。師云。時有白雲來閉戶。更無風月四山流。

問宗門中事。請師舉唱。師云。石牛長吼真空外。木馬嘶時月隱山。

## 金陵牛頭第六世

### 金陵牛頭慧忠禪師法嗣

#### 天台佛窟岩惟則禪師(凡二)

京兆孫氏子。

示眾云。天地無物也。我無物也。然未嘗無物。斯則聖人如影。百年如夢。孰為生死哉。至人以是獨照。能為萬物之主。吾知之矣。汝知之乎。

僧問。如是那羅延箭。師云。中的也。

### 潤州鶴林玄素禪師法嗣

#### 杭州徑山道欽禪師(凡五)

蘇州崑山朱氏子。

唐代宗詔師。至闕下。親加禮敬。

一日師在大內。見帝來。乃起立。帝云。師何以起。師云。檀越。何得向四威儀中。見貧道也。

馬大師。令人送書到。師開緘。見一圓相。索筆。就圓相中。著一點。却封回。

後。忠國師聞云。欽師猶被馬祖惑。

雪竇云。徑山被惑。且置。若呈似忠國師。別作箇甚麼伎倆。免被惑去。

有老宿云。當時坐却便休。

又有道。但與劃破。

若恁麼。只是不識羞。敢謂天下老師。各具金剛眼睛。廣作神通變化。還免得麼。雪竇見處。也要諸方共知。只這馬師畫出。早自惑了也。

馬大師。令智藏問。十二時中。以何為境。師云。待汝回去時有信。藏云。只今便回去。師云。傳語馬大師。却須問取曹谿。

崔趙公問。弟子今欲出家。得否。師云。出家乃大丈夫事。非將相之所能為。公於是有省。

僧問。如何是道。師云。山上有鯉魚。水裏有蓬塵。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汝問不當。云如何得當去。師云。待吾滅後。向汝道。

## 金陵牛頭第七世

### 天台佛窟岩惟則禪師法嗣

#### 天台雲居 智禪師(凡一)

有僧繼宗問。見性成佛。其義云何。師云。清淨之性。本來湛然。無有動搖。不屬有無淨穢。長短取捨。體自翛然。如是明見。乃名見性。性即佛。佛即性。故云見性成佛。僧云。性既清淨。不屬有無。因何有見。師云。見無所見。僧云。既無所見。何更有見。師云。見處亦無。僧云。如是見時。是誰之見。師云。無有能見者。僧云。究竟其理如何。師云。汝知否。妄計為有。即有能所。乃得名迷。隨見生解。便墮生死。明見之人。即不然。終日見而未嘗見。求其見處。體相不可得。能所俱絕。名為見性。僧云。此性徧一切處否。師云。無處不徧。僧云。凡夫具否。師云。尚言無處不徧。豈有凡夫而不具乎。僧云。因何諸佛菩薩。不被所拘。凡夫獨縈於苦。何曾得徧。師云。凡夫於染淨性中。計有能所。即墮生死。諸佛大士。善知清淨性中。不屬有無。即能所不立。僧云。若如是說。即有能了不了人。師云。了尚不可得。豈有能了人乎。僧云。至理如何。師云。我以要言之。汝即應念。清淨性中。無有凡聖。亦無了不了人。凡之與聖。二俱是名。若隨名生解。即墮生死。若知假名不實。即無有當名者。又云。此是極究竟處。若云我能了。彼不能了。即是大病。見有淨穢凡聖。亦是大病。作無凡聖解。又屬撥無因果。見有清淨性可棲止。亦是大病。作不棲止解。亦是大病。然清淨性中。雖無動搖。具不壞方便應用及興慈運悲。如是興運之處。即全清淨之性。可謂見性成佛矣。繼宗得聞是語。踊躍作禮而謝。

### 杭州徑山道欽禪師法嗣

#### 杭州鵲巢道林禪師(凡三)

福州福清。翁氏子。卜居錢增西湖。有宮使會通者。因韜光禪師。勉令謁師。通云。弟子素持齋戒。不願為官。志慕出家。願和尚。受與僧相。師云。今時為僧。鮮能精苦。行多浮濫。通云。本淨非琢磨。元明不隨照。師云。汝若了淨智妙圓。體自空寂。即真出家。何假外求。汝當為在家菩薩。施戒

俱修。如謝靈運之儔也。通云。然雖如此。於事何益。儻垂攝受。誓遵師教。師遂與剃度。

會通一日取辭。師問。汝欲何往。通云。某甲為佛法出家。和尚不垂慈誨。往諸方。學佛法去。師云。若是佛法。老僧此間。亦有少許。通云。如何是和尚此間佛法。師於身上。拈起布毛。吹之。通於是有省。

大滄秀云。可惜這僧。認地口頭聲色。殊不知。自己光明。盖天盖地。

妙喜云。大滄恁麼批判。也未夢見鳥窠在。

白侍郎居易。守杭。謁師問云。禪師住處甚危嶮。師云。太守危嶮尤甚。白云。弟子。位鎮江山。何危嶮之有。師云。薪火交煎。性識不停。得非嶮乎。

又問。如何是佛法大意。師云。諸惡莫作。眾善奉行。白云。三歲孩兒。也解恁麼道。師云。三藏孩兒雖道得。八十老人行不得。白遂作禮而謝。

聯燈會要卷第二

### 五祖弘忍大師旁出法嗣

#### 北宗神秀大師(凡一)

開封尉氏子。

示眾云。一切佛法。自心本有。將心外求。捨父逃走。

#### 嵩山惠安國師(凡二)

荊州枝江。衛氏子。

有僧坦然懷讓。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何不問自己意。云如何是自己意。師云。當觀密作用。云如何是密作用。師以目開合示之。坦然言下知歸。讓即謁曹谿。

武后問師。甲子多少。師云。不記。后云。何得不記。師云。生死之身。其若循環。環無起盡。焉用記為。況此心流注。中間無間。見漚起滅者。乃妄想爾。從初識至動相。滅時亦只如此。何年月日。而可記乎。后聞加敬。

師享壽一百二十八。

#### 袁州蒙山道明禪師(凡一)

鄱陽陳宣帝之裔也。因與數十人。趣廬行者。至大庾嶺。能見師來。擲衣鉢于盤石上云。此衣表信。可力爭耶。任汝將去。師舉之。如山不動。踟躕悚慄。乃云。我來求法。非為衣也。願行者開示。能云。不思善不思惡。正恁麼時。阿那箇是明上座本來面目。明於言下開悟。徧體汗流。作禮問云。上來密語密意外。還更有意旨否。能云。我今與汝說者。即非密也。汝若返照自己面目。密却在汝邊。明云。某甲在黃梅隨眾。實未省自己面目。今蒙指授入處。如人飲水冷煖自知。今行者。即某甲師也。能云。若如是。吾與汝。同師黃梅。善自護持。

#### 北宗神秀大師法嗣

### 兗州降魔藏禪師(凡一)

趙郡王氏子也。

秀問。汝名降魔。此無山精木怪。汝翻作魔耶。師云。有佛有魔。秀云。汝若是魔。必住不思議境界。師云。是佛亦空。何境界之有。

### 嵩山惠安國師法嗣

#### 嵩山破竈墮禪師(凡三)

不稱名氏。

山塢有廟。甚靈。殿中唯破竈一所。鄉民祭祀不輟。師入其廟。以拄杖敲竈三下云。汝本泥土。塼瓦合成。靈從何來。聖從何起。恁麼烹宰物命。又敲三下。竈乃傾墮。師云。破也墮也。破也墮也。須臾有一青衣峩冠。設拜師前。師問汝是何人。神云。我本此廟竈神。久受業報。今蒙和尚為說無生法忍。得脫此處。今生天上。特來致謝。師云。是汝本有之性。非吾強言。神再拜而沒。

少選侍僧問云。某等久侍和尚。不蒙示誨。竈神得何徑旨。便得生天。師云我只向伊道。爾本泥土塼瓦合成。別也無道理為他。侍僧無語。師云。會麼。僧云不會。師云。本有之性。為甚麼不會。侍僧俱作禮。師云。破也墮也破也墮也。侍僧於此有省。

後義豐禪師。舉似安國師。安嘆云。此子會盡物我一如。可謂如朗月處空。無不見者。難究伊語脉。

僧問。如何是大修行底人。師云。檐枷帶鎖。云如何是大作業底人。師云。修禪入定。云乞師指示。師云。汝問。我惡。惡不從善。汝問我善。善不從惡。良久云。會麼。云不會。師云。惡人無善念。善人無惡心。所以道。善惡如浮雲。起滅俱無處。其僧言下大悟。

牛頭有僧來。師問。來自何人法會。僧叉手近前。繞師一匝而出。師云。牛頭會下。不可有此人。僧回師上肩。叉手而立。師云。果然果然。

僧却問。應物不由他時如何。師云。爭得不由他。僧云。恁麼則順正歸源去也。師云。歸源何順。僧云。若非和尚。幾錯招愆。師云。猶是未見四祖時道理。見後。道將一句來。僧繞繩床一匝而出。師云。順正之道。今古如然。

#### 嵩山元珪禪師(凡一)

伊闕李氏子。印心於安國師。遂廬於嶽之龐塢。  
一日有異人。峩冠袴褶而至。從者極多。輕步舒。徐稱謁大師。師  
覩其形貌。奇偉非常。乃諭之曰。善來仁者。胡為而至。彼云。師  
寧識我耶。師云。吾觀佛與眾生等。吾一目之。豈分別耶。彼云。  
我岳神也。能生死於人。安得一目我哉。師云。吾本不生。汝安能  
死。吾視身與空等視。吾與汝等。汝能壞空與汝乎。苟能壞空與  
汝。則吾不生不滅也。汝尚不能如是。又焉能生死吾耶。神稽首  
云。我亦聰明。正直於餘神。詎知師有廣大之智辯乎。願受以正  
戒。令我度世。師云。汝既乞戒。即既戒也。所以者何。戒外無  
戒。又何戒哉。神云。此理也。吾聞茫昧。止求師戒。我身為弟  
子。師即為張座秉爐。正几云。付汝五戒。若能奉持。即應云能。  
不能則云否。神云。謹授教。師云。汝能不姪乎。云我亦娶也。師  
云。非謂此也。謂無羅欲也。云能。師云。汝能不盜乎。云何乏。  
我也焉有盜取哉。師云。非謂此也。謂饗而福淫。不恭而禍善也。  
云能。師云。汝能不殺乎。云實司其柄。焉曰不殺。師云。非謂此  
也。謂有濫誤疑混也。云能。師云。汝能不妄乎。云吾正直。焉有  
妄乎。師云。非謂此也。謂先後不合天心也。云能。師云。汝不遭  
酒敗乎。云能。師云。如上為佛戒也。  
又言。以有心奉持。而無心拘執。有心為物。而無心想身。能如  
是。則先天地生。而不為精。後天地死。而不為老。終日變化。而  
不為動。畢竟寂默。而不為休。悟此則雖娶。非妻也。雖饗非取  
也。雖柄非權也。雖作非故也。雖醉非昏也。若能無心於萬物。則  
羅欲。不為姪福淫。禍善不為盜。濫誤疑混。不為殺。先後違天。  
不為妄。昏荒顛倒。不為醉。是謂無心也。無心則無戒。無戒則無  
心。無佛無眾生。無汝乃無我。孰為戒哉。  
神云。我神通亞佛。師云。汝神通。十句五能五不能。佛則十句。  
七能三不能。神悚然避席。跪啟云。可得聞乎。師云。汝能戾上  
帝。東天行。而西七曜乎。云不能。師云。汝能奪地祇。融五岳。  
而結四海乎。云不能。師云。是謂五不能也。佛能空一切相。成萬  
法智。而不能即滅定業。佛能知群有性。窮一劫事。而不能化導無  
緣。佛能度無量有情。而不能盡眾生界。是謂三不能也。定業亦不  
堅久。無緣亦是一期。眾生界本無增減。且無一人。能主其法。有  
主無法。是謂無法。無法無主。是謂無心。如我解。佛亦無神通  
也。但能以無心。通達一切法爾。神云。我誠淺昧。未聞空義。師  
所受戒。我當奉行。今願報慈德。效我所能。師云。吾觀身無物。  
觀法無常。塊然更有何欲耶。神云。師必命我。為世間事。展我小  
神功。使已發心。初發心。未發心。不信心。必信心。五等人。目  
我神蹤。知有佛有神。有能有不能。有自然。有非自然者。師云。

無為是。無為是。神云。佛亦使神護法。師寧隳叛佛耶。願隨意垂誨。師不得已而言曰。東岩寺之障。莽然無樹。北岫有之。而背非屏擁。汝能移北樹於東嶺乎。神云。已聞命矣。然昏夜必有喧動。願師無駭。作禮辭去。師門送。且觀之。見儀衛逶迤。如王者之狀。嵐靄烟霞。紛綸間錯。幢幡環珮。凌空隱沒焉。其夕果有暴風吼雷。奔雲掣電。棟宇搖蕩。宿鳥聲喧。師謂眾云。無怖無怖。神與我契矣。詰旦和霽。則北岩松栝盡移東嶺。森然行植。師謂其徒曰。吾沒後。無令外知。若為口實。人將妖我。

### 五祖旁出第三世

嵩山普寂禪師法嗣(師見神秀)

終南山惟政禪師(凡一)

平原周氏子。因唐文宗。好嗜蛤蜊。沿海官吏。遞進亦勞。一日御饌中。有擘不張者。帝以為異。焚香禱之。乃開。見菩薩形。梵相具足。即貯以金粟檀香匣。覆以美錦。賜興善寺。令眾僧瞻禮。因問群臣。此何祥也。或言太一山有惟政禪師。深明佛法。乞詔問之。帝詔師。問其事。師云。臣聞物無虛應。此乃啟陛下信心耳。故契經云。應以此身得度者。即現此身。而為說法。帝云。菩薩身已現。且未聞說法。師云。陛下觀此。為常耶。非常耶。為信耶。非信耶。帝云。希奇之事。朕深信焉。師云。陛下已聞說法竟。皇情大悅。得未曾有。遂勅天下寺舍。各立觀音像。

### 五祖旁出第四世

益州無相禪師法嗣

益州保唐無住禪師(凡二)

唐相國杜鴻漸問。弟子聞金和尚說。無憶無念莫妄。三句法門。是否。師云。然。公云。此三句。是一是三。師云。無憶名戒。無念名定。莫妄名慧。一心不生。具戒定慧。非一非三也。公云。後妄字。莫是從心之亡乎。師云。從女者。是也。公云。有據否。師云。法句經云。若起精進心。是妄非精進。若能心不妄。精進無有涯。公聞。疑情盪然。

公又問。師還以三句示人否。師云。初心學人。還令息念。澄停識浪。水清影現。悟無念體。寂滅現前。無念亦不立也。于時庭樹鶡鳴。公問云。師聞否。師云。聞。鶡去已。公又問。師聞否。師云。聞。公云。鶡去無聲。云何言聞。師乃普告大眾云。佛世難值。正法難聞。各各諦聽。開無有聞。非關聞性。本來不生。云何有滅。有聲之時。是聲塵自生。無聲之時。是聲塵自滅。而此聞性。不隨聲生。不隨聲滅。悟此聞性。即免聲塵之所轉。當知聞無生滅。聞無去來。

公與僚屬。大眾。作禮。

又問。云何不生。云何不滅。云何。解脫。師云。見境心不起。名不生。不生即不滅。既無生滅。即不被前塵所縛。當處解脫。公云。何為識心見性。師云。一切學道人。隨念流浪。蓋為不識真心。真心者。念生亦不順生。念滅亦不依寂。不來不去。不定不亂。不取不捨。不沉不浮。無為無相。活鱗鱗。平常自在。此心體。畢竟不可得。無可知覺。觸目皆如。無非見性也。

## 六祖惠能禪師法嗣

### 西天崛多三藏(凡一)

天竺人也。得法之後。游五臺。遇一僧。結庵靜坐。師問。汝孤坐何為。云觀靜。師云。觀者何人。靜者何物。僧作禮問。此理如何。師云。何不自觀自靜。僧茫然。師云。汝出誰門。云神秀大師。師云我西天。異道最下種。不墮此見。兀然空坐。於道何益。僧乃問云。師所師者何人。師云。我師六祖。汝何不往曹溪。決其真要。其僧禮謝。尋往曹谿。

### 韶州法海禪師(凡一)

曲江人也。師問六祖云。即心即佛。願垂指諭。祖云。前念不生即心。後念不續即佛。成一切相即心。離一切相即佛。吾若具說。窮劫不盡。聽吾偈云。即心名惠。即佛乃定。定惠等持。意中清淨。悟此法門。由汝習性。用本無生。雙修是正。師於言下大悟。以偈贊曰。即心元是佛。不悟而自屈。我知定惠因。雙修離諸物。

### 溫州永嘉真覺大師(凡二)

本郡戴氏子。少習經論。深造閩域因看維摩經。發明心地。偶玄策禪師相訪。與師劇談。出言暗合諸祖。策驚云。仁者得法師誰耶。師云。我聽方等經論。各有師承。後於維摩經。悟佛心宗。未有證明者。策云。威音王已前即得。威音王已後。無師自悟。盡是天然外道。師云。願仁者。為我證據。策云。我言輕。曹溪有六祖大師。四方雲集。並是受法者。率師同往曹溪。師到曹溪。繞繩床三匝。振錫一下。卓然而立。祖云。夫沙門者。具三千威儀。八萬細行。大德何方而來。生大我慢。師云。生死事大。無常迅速。祖云。何不體取無生。了無速乎。師云。體即無生。了本無速。祖云。如是如是。師遂具威儀。作禮。須臾告辭。祖云。返太速乎。師云。本自非動。豈有速耶。祖云。誰知非動。師云。仁者強生分別。祖云。子甚得無生之意。師云。無生豈有意耶。祖云。無意誰當分別。師云。分別亦非意。祖云。善哉善哉。少留一宿。

雪竇舉。至生大我慢處。便喝。乃云。當時若下得這一喝。免見龍頭蛇尾。

又舉。至卓然而立處。代祖師云。未到曹溪時。與汝三十棒了也。

#### 司空山本淨禪師(凡四)

絳別張氏子。僧問。如何是道。師云。無心是道。云道因心有。何得言無心是道。師云。道本無名。因心名道。心名若有。道不虛然。窮心既無。道憑何立。二俱虛妄。總是假名。云見有身心。是道已否。師云。山僧身心。本來是道。云適言無心是道。今又言。身心本來是道。豈不相違耶。師云。無心是道。心泯道無。心道一如。故言無心是道。身心本來是道。道亦本是身心。身心本既是無。道亦窮源何有。僧云。觀禪師。形質甚小。却會此理。師云。大德只見山僧相。不見山僧無相。見相者是大德所見。經云。凡所有相。皆是虛妄。若見諸相非相。即見其道。若以相為實。窮劫不能見道。云諸師於相上。說無相。師云。淨名云。四大無主。身亦無我。無我所見。與道相應。大德。若以四大有主是我。若有我見。窮劫不會道也。

示以偈云。四大無主復如水。遇曲逢直無彼此。淨穢兩處不生心。壅決何曾有二意。觸境但似水無心。在世縱橫有何事。

志明禪師問。若言無心是道。瓦礫無心。亦應是道。又云。身心本來是道。四生十類。皆有身心。亦應是道。師云。大德若作見聞覺知解會。與道懸殊。即是求見聞覺知者。非是求道。經云。無眼耳

鼻舌身意。六根尚無。見聞覺知。從何而立。窮本不有。何處存心。焉得不同草木瓦礫。志明杜口。

師復示以偈云。見聞覺知無障礙。聲香味觸常三昧。如鳥空中只麼飛。無取無捨無憎愛。若於應處本無心。方得名為觀自在。

有真禪師問。道既無心。佛有心否。佛之與道。是一是二。師云。不一不二。云佛度眾生。為有心故。道不度人。為無心故。何得無二。師云。若言佛度眾生。道無度者。此是大德。妄生二見。如山僧。即不然。佛是虛名。道亦妄立。二俱不實。總是假名。一假之中。如何分二。云佛之與道。從是假名。當立名時。是誰為立。若有三者。云何言無。師云。佛之與道。因心而立。推窮立心。心亦是無。心既是無。即悟二俱不實。知如夢幻。即悟本空。強立佛道二名。此是二乘人見解。乃說無修無證。

偈云。見道方修道。不見復何修。道性如虛空。虛空何所修。徧觀修道者。撥火覓浮漚。但看弄傀儡。線斷一時休。

法空禪師問。佛之與道。俱是假名。十二分教。亦應不實。何以從前尊宿。皆言修道。師云。錯會經意。道本無修。大德強修。道本無作。大德強作。道本無事。強生多事。道本無知。於中強知。如此見解。與道相違。從前尊宿。不應如是。自是大德。不會。請思之。

復示以偈云。道體本無修。不修自合道。若起修道心。此人不曾道。棄却一真性。却入鬧浩浩。若逢達道人。第一莫向道。

### 婺州玄策禪師(凡一)

金華人也。游方屆于河朔。聞智隍禪師謁五祖。自謂已得正受。庵居長坐。積二十年。師知其所得未真。造庵問云。汝在此作甚麼。云入定。師云。汝言入定。為有心入耶。無心入耶。若無心入者。一切無情。草木瓦石。應合得定。若有心入者。一切有情含識之流。亦應得定。隍云。我正入定時。不見有有無之心。師云。不見有有無之心。即是常定。何有出入。若有出入即非大定。隍無對良久問云。師嗣誰耶。師云。我師曹溪六祖。隍云。六祖以何為禪定。師云。我師所說。妙湛圓寂。體用如如。五陰本空。六塵非有。不出不入。不定不亂。禪性無住。離住禪寂。禪性無生。離生禪想。心如虛空。亦無虛空之量。

隍聞是說。經往曹溪謁六祖。祖問。仁者何來。隍具述前緣。祖嘆云。誠如策所言。祖閱其遠來。遂垂開決。於是大悟。二十年所得心。都無影響。其夜河北土庶。聞空中有聲云。隍禪師今日得道。復歸河北。開化四眾。實師之力也。

### 荷澤神會禪師(凡四)

襄陽高氏子也。師謁六祖。祖問。知識遠來艱辛。還將得本來麼。若有本。即合識主。試道看。師云。以無住為本。見即是主。祖云。這沙彌。爭合取次語話。便打。師即服勤給侍。師訪青原思。思問。甚處來。師云。曹溪來。思云。曹溪意旨如何。師振身而立。思云。猶帶瓦礫在。師云。和尚莫有真金與人麼。思云。設有。汝向甚麼處著。

翠岩芝云。真金瓦礫。錯下名言。如今喚作甚麼。師一日鄉信。報父母俱亡。師入僧堂白槌云。父母俱喪。請大眾。念摩訶般若波羅密多。大眾擬念。師遽白槌云。勞煩大眾。即散去。僧問。無念法。還具有無否。師云。不言有無。云恁麼時作麼生。師云。亦無恁麼時。猶如明鏡。若不對像。終不見像。若見無物。乃是真見。

### 信州智常禪師(凡一)

本州貴溪人也。謁六祖。祖問。甚麼處來。欲求何事。云學人近往白峯山。禮大通禪師。蒙示見性成佛之義。未決狐疑。伏望和尚慈悲。指示祖云。彼有何言句。汝試舉看。吾為汝證明。常云。某甲到彼。凡經三月。不蒙開示。為法切故。獨造方丈作禮。請問如何是某甲本心本性。彼云。汝見虛空否。某甲云見。彼云。汝見虛空。有相兒否。某甲云。虛空無形。有何相貌。彼云。汝之本性。猶如虛空。觀自性。了無一物可見。是名正見。了無一物可知。是名真知。無有青黃長短。但見本源清淨。覺體圓明。即名見性成佛。亦名極樂世界。亦名如來知見。學人雖聞此說。猶未決了。乞和尚指誨。令無凝滯。祖云。彼之所示。猶存見知。令汝不了。吾今示汝一偈云。不見一法存無見。大似浮雲遮日面。不知一法守空知。還如太虛生閃電。此之知見瞥然興。錯認何曾解方便。汝今一念自知非。自己靈光常顯現。常聞偈。心意豁然。述偈云。無端起知見。著相求菩提。情存一念悟。寧越昔時迷。自性覺源體。隨照枉遷流。不入祖師室。茫然趣兩頭。

### 壽州智通禪師(凡一)

本郡安豐人也。看楞伽經千餘徧。而不會三身四智。禮六祖。求解其義。祖云。三身者。清淨法身。汝之性也。圓滿報身。汝之智也。千百億化身。汝之行也。若離本性。別說三身。即名有身無智。若悟三身。無有自性。即名四智菩提。

聽吾偈曰。自性具三身。發明成四智。不離見聞緣。超然登十地。吾今為汝說。諦信本無疑。莫學馳求者。終日說菩提。

通云。四智之義。可得聞乎。祖云。既會三身。便明四智。何更問耶。若離三身。別談四智。此名有智無身也。即此有智。還成無智。

復說偈云。大圓鏡智性清淨。平等性智心無病。妙觀察智見非功。成所作智同圓鏡。五八六七果因轉。但用名言無實性。若於轉處不留情。繁興永處那伽定。

通禮謝。以偈贊云。三身元我體。四智本心明。身智融無礙。應物任隨形。起修皆妄動。守住匪真精。妙旨因師說。終忘染污名。

### 洪州法達禪師(凡一)

師禮六祖。頭不至地。祖呵云。禮不投地。何如不禮。汝心中。必有一物。蘊習何事耶。云某甲念法華經。已及三千部。祖云。汝若念至萬部。得其經意。不以為勝。則與吾偕行。汝今負此事業。都未知過。

聽吾偈曰。體本折慢幢。頭奚不至地。有我罪即生。亡功福無比。祖又問。汝名甚麼。云名法達。祖云。汝名法達。何曾達法。復說偈曰。汝今名法達。勤誦未休歇。空誦但循聲。明心號菩薩。汝今有緣故。吾今為汝說。但信佛無言。蓮花從口發。

師聞偈。悔過云。而今而後。當謙恭一切。惟願和尚大慈。略說經中義理。祖云。汝念此經。以何為宗。師云。學人愚鈍。但依文誦念。豈知宗趣。祖云。汝試為吾誦一徧。吾當為汝解說。師即高聲念。至方便品。祖云。止止。此經元來。以因緣出世為宗。縱有多種譬喻。亦無越於此。何者。因緣惟一大事。一大事。即佛知見也。汝慎勿錯解經意。見他道。開示悟入。自是佛之知見。我輩無分。若作此解。乃是謗經毀佛也。彼既是佛。已具知見。何用更開。汝今當信。佛知見者。只汝自心。更無別體。蓋為一切眾生。自蔽光明。貪愛塵境。外緣內擾。甘受驅馳。便勞他。從三昧起。種種苦口。勸令寢息。莫向外求。與佛無二故。云開佛知見。汝但勞勞執念。謂為功課者。何異犂牛愛尾也。師云。若然者。但得解義。不勞誦經耶。祖云。經有何過。豈障汝念。只為迷悟在人。損益由汝。

聽吾偈云。心迷法華轉。心悟轉法華。誦久不明己。與義作讎家。無念念即正。有念念成邪。有無俱不計。長御白牛車。師聞偈。再啟云。經云。諸大聲聞。乃至菩薩。皆盡思度量。尚不能測於佛智。今令凡夫。但悟本心。便名佛之知見。自非上根。未免疑謗。又經說三車。大牛之車。與白牛車。如何區別。願和尚。再垂開示。祖云。經意分明。汝自迷背。諸三乘人。不能測佛智者。患在度量也。饒伊盡思共推。轉加懸遠。佛本為凡夫說。不為佛說。此理若不肯信者。從他退席。殊不知。坐却白牛車。更於門外。覓三車。況經文明向汝道。無二亦無三。汝何不省。三車是假。為昔時故。一乘是實。為今時故。只教爾去假歸實。皈實之後。實亦無名。應知所有珍財。盡屬於汝。由汝受用。更不作父想。亦不作子想。亦無用想。是名持法華經。從劫至劫。手不釋卷。從晝至夜。無不念時也。師蒙啟發。踊躍歡喜。以偈贊曰。經誦三千部。曹溪一句亡。未明出世旨。寧歇累生狂。羊鹿牛權設。初中後善揚。誰知火宅內。元是法中王。祖云。汝今後方可名為念經僧也。

### 江西志徹禪師(凡一)

名行昌。少任俠。自南北分化。二宗主雖亡彼此。而徒侶竟起愛憎。北宗門人。自立秀為第六祖。而忌能大師傳衣。為天下聞。祖預知其事。即置金十兩於方丈。時行昌。受北宗門人所囑。懷刃入祖室。將欲加害。祖伸頸而就。行昌揮刃者三。都無所損。祖云。正劍不邪。邪劍不正。只負汝金。不負汝命。行昌驚仆。久而方蘇。哀求悔過。即願出家。祖遂與金云。汝且去。恐徒眾。翻害於汝。他日可易形而來。吾當攝受。行昌稟旨。宵遁。投僧出家。具戒精進。

一日憶祖之言。遠來禮覲。祖云。吾久念汝。汝來何晚。云昨蒙和尚捨罪。今雖出家苦行。終難報於深恩。其唯傳法度生乎。弟子曾覽涅槃經。未曉常無常義。乞和尚慈悲。略為解說。祖云。無常者。即佛性也。有常者。即善惡一切諸法。分別心也。云和尚所說。大違經文。祖云。吾傳佛心宗。安敢違於佛經。云經說佛性是常。和尚却言無常。善惡諸法。乃至菩提心。皆是無常。和尚却言是常。此即相違。令學人。轉加疑惑。祖云。涅槃經。吾昔聽尼無盡藏誦一徧。便為講說。無一字一義。不合經文。乃至為汝。終無二說。云學人識量淺昧。願和尚委曲開示。祖云。汝知否。佛性若常。更說甚麼善惡諸法。乃至窮劫。無有一人發菩提心者。故吾說

無常。正是佛說真常之道也。又一切諸法。若無常者。即物物皆有自性。容受生死。而真常有不徧之處。故吾說常者。正佛說真無常義也。佛此為凡夫外道。執於邪常。諸二乘人。於常計無常。共成八倒。故於涅槃了義教中。破彼偏見。而顯說真常真樂。真我真淨。汝今依言背義以斷滅無常。及確定死常。而錯會佛之圓妙。最後微言。縱覽千徧。有何所益。行昌忽如醉醒。乃說偈曰。因守無常心。佛說有常性。不知方便者。如春池拾礫。我今不施功。佛性而見前。非師相授與。我亦無所得。祖云。汝今徹也。宜名志徹。禮謝而去。

### 吉州志誠禪師(凡一)

本州太和人也。初參神秀。秀之徒譏能大師不識一字。有何所長。秀云。他得無師智。深悟上乘。吾不如也。五祖親付衣法。豈徒然哉。吾恨不能遠去親近。虛受國恩。汝等諸人。無滯於此。可往曹溪質疑。他日皈來。還為吾說。師聞此語。辭往曹溪。隨眾參請。不言來處。祖告眾云。今有盜法之人。潛在此會。師出作禮。具陳其事。祖云。汝師若為示徒。云常指教大眾。令住心觀靜。長坐不臥。祖云。住心觀靜。是病。非禪。長坐拘身。於理何益。聽吾偈云。生來坐不臥。死去臥不坐。元是臭骨頭。何為立功過。師云。未審大師。以何法示人。祖云。吾若言有法與人。即為誑汝。但且隨方解縛。假名三昧。聽吾偈曰。一切無心自性戒。一切無礙自性惠。不增不退自金剛。身去身來本三昧。師聞偈。悔謝。呈偈云。五蘊幻身。幻何究竟。回趣真如。法還不淨。祖然之。尋還玉泉。

### 廣州志通禪師(凡一)

南海人也。初參六祖。問云。學人自出家。覽涅槃經。僅十餘載。未明大意。願和尚垂誨。祖云。汝何處未了。云諸行無常。是生滅法。生滅滅已。寂滅為樂。於此疑惑。祖云。汝作麼生疑。云一切眾生。皆有二身。謂色身法身也。色身無常。有生有滅。法身有常。無知無覺。經云。生滅滅已。寂滅為樂者。未審何身寂滅。何身受樂。若色身者。色身滅時。四大分散。全然是苦。苦不可言樂。若法身。寂滅。即同草木瓦石。誰當受樂。又法性是生滅之

體。五蘊是生滅之用。一體五用。生滅是常。生則從體起用。滅則攝用皈體。若聽更生。則有情之類。不斷不滅。若不聽更生。則永皈寂滅。同於無情之物。如是則一切諸法。被涅槃之所禁伏。尚不得生。何樂之有。祖云。汝是釋子。何習外道斷常邪見。而議最上乘法。據汝所解。色身外。別有法身。離生滅。求於寂滅。又推涅槃常樂。言有身受者。斯乃報吝生死。耽著世樂。汝今當知。佛為一切迷人。認五蘊和合。為自體相分。別一切法。為外塵相。好生惡死。念念遷流。不知夢幻虛假。枉受輪迴。以常樂涅槃。翻為苦相。終日馳求。佛憫此故。乃示涅槃真樂。剎那無有生相。剎那無有滅相。更無生滅可滅。是則寂滅現前。當現前時。亦無現前之量。乃謂常樂。此樂無有受者。無不受者。豈有一體五用之名。何況更言涅槃禁伏諸法。令永不生。斯乃謗佛毀法。聽吾偈曰。無上大涅槃圓明常寂照。凡愚謂之死。外道執為斷。諸求二乘人。目以為無作。盡屬情所計。六十二見本。妄立虛假名。何為真實義。唯有過量人。通達無取捨。以知五蘊法。及以蘊中我。外見眾色像。一一音聲相。平等如夢幻。不起聖凡見。不作涅槃解。二邊三際斷。常應諸根用。而不起用想。分別一切法。不起分別想。劫火燒海底。風鼓山相擊。真常寂滅樂。涅槃相如是。吾今強言說。令汝捨邪見。汝勿隨言解。許汝知少分。師聞偈踊躍。作禮而退。

### 西京光宅惠忠國師(凡二十五)

越州諸暨冉氏子。初參六祖。而頓悟心宗也。示眾云。禪宗學者。應遵佛語。一乘了義。契自心源。不了義者。互不相許。如師子身中蟲。夫為人師。若涉名利。別開異端。則自他何益。如世大匠。斤斧不傷其手。香象所負。非驢所堪。示眾云。青蘿夤緣。直上寒松之頂。白雲淡泞。出沒太虛之中。萬法本閑。而人自鬧。黃龍南舉了云。鬧箇甚麼。咄。雪竇云。國師走入露柱裏去也。見麼見麼。良久云。出頭便死。師問僧。何方而來。云南方來。師云。南方有何知識。云知識頗多。師云。如何示徒。云彼方知識。直下示人。即心是佛。佛是覺義。汝今悉具見聞覺知之性。此性善能揚眉瞬目。去來動靜。徧於身中。捏頭頭知。捏腳脚知。故名正徧知。離此之外。更無別佛。此身即有生滅。心性無

始以來。未曾生滅。生滅者。如龍換骨。如蛇脫皮。如人出故宅。身是無常。其性常也。南方所說。大約如此。

師云。若然者。與彼先尼外道無有差別。彼云。我此身此性。能知痛痒。身壞之時。神則出去。如舍被燒。舍主出去。舍即無常。舍主即常矣。審如此者。邪正莫辨。孰為是乎。

吾比游方。多見此色。近尤盛矣。聚却三五百眾。目視雲漢云。是南方宗旨。把他壇經改換。添糶鄙談。削除聖意。惑亂後徒。豈成言教。苦哉。吾宗喪矣。若以見聞覺知。是佛性者。淨名不應云。法離見聞覺知。若行見聞覺知。是則見聞覺知。非求法也。

僧又問。法華了義。開佛知見。此復若為。師云。他云開佛知見。尚不言菩薩二乘。豈經眾生癡倒。便同佛之知見耶。

僧又問。阿那箇是佛心。師云。墻壁瓦礫是。云與經文大相違也。涅槃云。離墻壁無情之物。故名佛性。今云是佛心。未審心之與性。為別不別。師云。迷則別。悟則不別。云經云。佛性是常。心是無常。今云不別。何也。師云。汝但依語。而不依義。譬如寒月。水結為冰。及至暖時。冰釋為水。眾生迷時。結性成心。悟時釋心成性。若執無情無佛性者。經不應言。三界惟心。宛是汝自違。吾不違也。

問無情既有心性。還解說法否。師云。他熾然常說。無有間歇。云某甲為甚麼不聞。師云。汝自不聞。云誰人得聞。師云。諸聖得聞。云眾生應無分耶。師云。我為眾生說。不為諸聖說。云某甲聾瞽。不聞無情說法。師應合聞。師云。我亦不聞。云師既不聞。爭知無情解說法。師云。賴我不聞。我若得聞。汝即不聞我所說法。云眾生得聞否。師云。眾生若聞。即非眾生。云無情說法。有何典據。師云。不見華嚴云。剎說眾生說。三世一切說。眾生是有情乎。云師但說無情有佛性。有情復若為。師云。無情尚爾。況有情耶。若然者。前舉南方知識云。見聞覺知是佛性。應不當判同外道。師云。不道他無佛性。外道豈無佛性耶。但緣見錯。於一法中。而生二見。故非也。云若俱有佛性。且殺有情。即結業互酬。害無情。不聞有報。師云。有情是正報。計我我所。而懷結恨。即有罪報。無情是依報。無結恨心。是以不言有報。云教中但見有情作佛。不見無情受記。且賢劫千佛。孰是無情耶。師云。如皇太子。未受位時。唯一身耳。受位之後。國土盡屬於王。寧有國土。別受位耶。今但有情受記。作佛之時。十方國土。悉是遮那佛身。那得更有無情受記耶。云一切眾生。盡居佛身之上。便利污穢佛身。穿鑿踐踏佛身。豈無罪耶。師云。眾生全體是佛。欲誰為罪。云經云。佛身無罣礙。今以有為質礙之物。而作佛身。豈不乖於聖旨。師云。小品經云。不可離有為。說無為。汝信色是空否。云佛

之誠言。那敢不信。師云。色既是空。寧有罣礙。云眾生佛性既同。只用一佛修行。一切眾生。應時解脫。今既不爾。同義安在。師云。汝豈不見華嚴六相義。云同中有異。異中有同。成壞總別。類例皆然。眾主與佛。雖同一性。不妨各各自修自得。未見他食我飽。

云有幾知識。示學人云。但自識性了。無常到時。拋却殼漏子。一邊著。靈臺智性。迴然而去。名為解脫。此復若為。師云。前已說了。猶是二乘外道之量。二乘厭離生死。欣樂涅槃。外道亦云。吾有大患。為吾有身。乃趣乎冥諦。須陀洹人。八萬劫。餘三果人。六四二萬劫。辟支佛一萬劫。住無定中。外道亦八萬劫。住非非想中。二乘劫滿。猶能回心向道。外道還即輪迴。

云佛性為一種。為別。師云。不得一種。云何也。師云。或有全不生滅。或半生滅。半不生滅。云孰為此解。師云。我此間。佛性全不生滅。南方佛性。半生半滅。半不生滅。云如何區別。師云。此則身心一如。身外無餘。所以全不生滅。汝南方。身是無常。神性是常。所以半生半滅。半不生滅。云和尚色身。豈得便同法身。不生不滅耶。師云。汝何得入於邪道。云學人早晚入邪道。師云。汝不見。金剛經云。色見聲。求皆行邪道。今汝所見。不其然乎。云某甲曾讀大小乘教。亦見其道。不生不滅。中道正性之處。亦見有說。此陰滅。彼陰生。身有代謝。而神識不滅之文。那得盡撥同外道斷常二見。師云。汝學出世無上。正真之道。為學世間生滅。斷常二見耶。汝不見。肇公云。譚真則逆俗。順俗則違真。違真故。迷性而莫返。逆俗故。言淡而無味。中流之人。如存若亡。下士撫掌而不顧。汝今欲學下士。笑於大道乎。

云師亦言。即心是佛。南方知識亦言。即心是佛。那有異同。師不應自是而非他。

師云。或名異體同。或名同體異。因茲濫矣。只如菩提涅槃。真如佛性。名異體同。真心妄心。佛智世智。名同體異。緣南方錯將妄心。言是真心。認賊為子。有取世智。稱為佛智。猶如魚目。而亂明珠。不可雷同。事須甄別。

云若為離得此過。師云。汝但子細返觀陰入界處。一一推窮。有纖毫可得否。云子細觀之。不見有一物可得。師云。汝壞身心相耶。云身心性離。有何可壞。師云。身心外。還更有物否。云身心無外。寧更有物耶。師云。汝壞世間相耶。云世間相即無相。那用更壞。師云。若然者。師離過矣。

師問南泉。甚處來。云江西。師云。還將得馬師真來否。泉云。只這是。師云。背後底[斬/耳]。泉休去。

長慶稜云大似不知。

保福展云。泊不到和尚此間。

丹霞訪師。值師睡次。霞問侍者耽源云。國師在否。源云。在。只是不見客。霞云。太深遠生。源云。莫道上座。佛眼也覷不見。霞云。龍生龍子。鳳生鳳兒。師睡起。源舉前話。師打二十棒。趨出。霞聞乃云。不謬為南陽國師也。

丹霞又一日來。纔展坐具。師云。不用不用。霞退後三步。師云。如是如是。霞進前三步。師云。不是不是。霞繞禪床一匝而出。師云。去聖時遙。人多懈怠。三十年後。討箇師僧。也難得。

大滄喆云。丹霞可謂懷藏至寶。遇智者乃增輝。國師鴻門大啟。陟者須是其人。如今還有為丹霞作主者麼。出來與大滄相見。有麼。良久云。不是龍門客。切忌遭點額。

西堂藏禪師。為馬祖馳書至。師問。汝師說甚麼法。藏從西過東立。師云。只這箇。更別有。藏從東過西立。師云。這箇是馬大師底。仁者作麼生。藏云。早箇呈似和尚了也。

保福展云。西堂埋沒馬大師不少。

麻谷到來。振錫一下。卓然而立。師云。汝既如是。何用見吾。谷又振錫一下。師叱云。野狐精。出去。

雪竇云。泊不到此。

師一日喚侍者。者應諾。如是三喚。侍者三應。師云。將謂吾辜負汝。誰知汝辜負吾。

趙州云。如人暗中書字。字雖不成。文彩已彰。

雪竇便喝 投子云。抑逼人作麼。

雪竇云。垛根漢。

玄沙云。却是侍者會。

雪竇云。停囚長智 雲門云。作麼生是國師辜負侍者處。若會得。也是無端。

雪竇云。元來不會。

雲門云。作麼生是侍者辜負國師處。粉骨碎身未足酬。

雪竇云。無端無端。

法眼云。且去別時來。

雪竇云。謾我不得 興化云一盲引眾盲。

雪竇云。端的瞎。有人問雪竇。便打。也要諸方檢責。

雪竇頌云。師資會遇意非輕。無事相將草裏行。負汝負吾人莫問。任從天下競頭爭。

翠岩真頌云。侍者何曾喚不回。國師乾地起風雷。當時若也相逢著。九轉還丹化作灰。

有大耳三藏。得他心通。肅宗請師。試驗之。三藏纔見師。便作禮立于右。師問。汝得他心通那。藏云。不敢。師問。汝道。老僧即

今在甚麼處。藏云。和尚是一國之師。何得去西川看競渡。師良久復問。汝道。老僧即今在甚麼處。藏云。和尚是一國之師。何得去天津橋上。看弄胡獠。師良久復問。汝道。老僧即今在甚麼處。藏罔措。師叱云。這野狐精。他心通。在甚麼處。藏無對。

玄沙云。爾道。前兩度。曾見麼。仰山云。前兩度是涉境。後人自受用三昧。所以不見也。

僧問趙州。大耳三藏。第三度。不見國師。未審國師。在甚麼處。州云。在三藏鼻孔裏。

僧後問玄沙。既在鼻孔裏。為甚麼不見。沙云。只為太近。

白雲端云。國師若在三藏鼻孔裏。有甚難見。殊不知。國師在三藏眼睛裏。

師問紫璘供奉。大德所蘊何業。云講青龍疏。師云。是金剛經否。云是。師云。經文最初兩字。喚作甚麼字。云如是。師云。是甚麼。

明招代云。昔日靈山。今日親見。

師問供奉。佛是甚麼義。云是覺義。師云。佛曾迷否。云不曾迷。師云。用覺作麼。奉無對。

供奉云。請禪師立義。某甲破。某甲立義。禪師破。先請禪師立義。師云。立義了也。云是甚麼義。師云。果然不見。供奉無對。師云。非公境界。

師問供奉。甚麼處來。云城南來。師云。城南草作何色。云作黃色。師却問童子。童子亦云。作黃色。師云。只這童子。亦可簾前賜紫。對御談玄。

供奉欲註思憶經。師問大凡註經。須會佛意始得。云若不會佛意。爭解註得。師令侍者。盛一盆水來。著七粒米於水中。上橫一隻筯。乃問。這箇是甚麼義。奉無對。師云。老僧意尚不會。豈況佛意。又爭能註得經。

師問座主。講甚麼經。云唯識論。師云。三界惟心。萬法唯識。作麼生會。主無對。師指簾云。這箇是甚麼法。云色法。師云。大師簾前賜紫。對御談玄。五戒也不持。

座主問。宗門中。傳持何事。師云。座主傳持何事。云三經五論。師云。總是師子兒。主作禮出去。師召云。座主。主應諾。師云。是甚麼。主無對。

佛鑑懃云。是則是。師子兒只是爪牙未備。爪牙若備。何處更有國師也。

百法座主問。禪宗畢竟。將何為真實。師良久。主再問。師云。大德不唯講經論。兼有佛法眼目。主作禮出去。師召云大德。主回首。師云。莫錯認定盤星。

肅宗皇帝問。如何是十身調御。師云。檀越踏毗盧頂上行。帝云。此意如何。師云。莫認自己清淨法身。

肅宗問師。百年後。所需何物。師云。與老僧。作箇無縫塔。帝云。就師請塔樣。師良久云。會麼。帝云不會。師云。吾有付法弟子耽源。却諳此事。請詔問之。

後代宗問耽源。源以偈答云。湘之南譚之北。中有黃金充一國。無影樹下合同船。琉璃殿上無知識。

雪竇云。肅宗不會且置。耽源還會麼。只消箇請師塔樣。盡西天此土。諸位祖師。遭此一問。不免將南作北。有傍不肯底。出來。我要問汝。那箇是無縫塔。五祖演云。閑言語。

肅宗同師到宮前。師指石師子云。請陛下。下取一轉語。宗云。朕下不得。請師下。師云。山僧罪過。

後耽源問師。皇帝還會麼。師云。皇帝且置。子作麼生會。

玄沙云。大小國師。被侍者勘破。

虞軍容問。師住白崖山。如何修行。師喚童子來。以手摩其頂云。惺惺直言惺惺。歷歷直言歷歷。向後莫受人謾。

保福展云。國師著一問。直得脚忙手亂。

## 西京光宅慧忠國師法嗣

### 吉州耽源應真禪師(凡四)

師問國師。百年後。有人問極則事。如何。國師云。幸自可憐生。須要箇護身符子。作甚麼。

師在泐潭。見百丈推車。師問。車在這裏。牛在甚麼處。丈乃斫額。師乃拭目。

麻谷問。十二面觀音。豈不是聖。師云。是谷打師一擱。師云。知爾不到這境界。

師為國師侍者。國師一日法堂坐次。師入來。國師垂下一足。師便出去。須臾却來。國師云。適來意作麼生。師云。向阿誰說。國師云。即今問汝。師云甚麼處見某甲。國師休去。

聯燈會要卷第三

六祖慧能大師法嗣

潭州南嶽懷讓禪師(凡四)

金州杜氏子。少習毗尼藏。一日自嘆云。夫出家者。為無為法。以報佛恩。以此拘身。於道何益。

遂同坦然禪師。謁嵩山安國師。復往曹谿。參六祖。祖問甚處來。師云。嵩山來。祖云。甚麼物恁麼來。師云。說似一物即不中。祖云。還假修證否。師云。修證即不無。污染即不得。祖云。即此不污染。是諸佛之護念。汝既如是。吾亦如是。西天般若多羅識汝。向後出一馬駒。踏殺天下人去在。病在汝心。不須速說。

師後居南嶽般若臺。時道一住傳法寺。日唯坐禪。師往問曰。大德坐禪。圖箇甚麼。云圖作佛。師一日。將磚。於道一庵前磨。一怪而問曰。作甚麼。師云。磨作鏡。一云。磨磚豈得成鏡。師云。磨磚既不成鏡。坐禪豈得成佛。一云。如何即是。師云。如牛駕車。車若不行。打車即是。打牛即是。一無對。

師又問。汝學坐禪。為學坐佛。若學坐禪。禪非坐臥。若學坐佛。佛非定相。於無住相。不應取舍。汝若坐佛。即是殺佛。若執坐相。非達其理。道一於言下開悟。如飲醍醐。作禮請問。如何用心。即合無相三昧。師云。汝學心地法門。如下種子。我說法要。譬彼天澤。汝緣合故。當見其道。一云。道非色相。云何能見。師云。心地法眼。能見乎道。無相三昧。亦復然矣。一云。有成壞否。師云。若以成壞而見道者。非也。聽吾偈云。心地含諸種。遇澤悉皆萌。三昧花無相。何壞復何成。

師有弟子六人。師各印可云。汝等六人。同證吾身。各契一體。一人得吾眉。善威儀(常浩)。一人得吾眼。善顧眄(智達)。一人得吾耳。善聽理(坦然)。一人得吾鼻。善知氣(神照)。一人得吾舌。善談說(巖峻)。一人得吾心。善古今(道一)。又云。一切諸法。皆從心生。心無所生。法無所住。若達心地。所作無礙。非遇上根。宜慎辭哉。

僧問。如鏡鑄像。像成後。未審光向甚麼處去。師云。如大德為童子時。相貌何在。云只如像成後。為甚麼不鑑照。師云。雖然不鑑照。瞞他。一點也不得。

馬大師闡化江西。師云。道一在江西。總不寄箇消息來。遣一僧去。囑之云。汝去待他上堂次。但出問。云作麼生。看伊道甚麼。記將來。其僧依教。出問云。作麼生。一云。自從胡亂後。三十年。不曾少鹽醬。僧回舉似師。師然之。

妙喜頌云。見得分明識得親。舉來猶自涉途程。直饒不犯毫芒者。也是拈齏舐指人。

## 南嶽第二世

### 南嶽懷讓禪師法嗣

#### 江西馬祖道一禪師(凡十一)

漢州什邡馬氏子也示眾云。汝等諸人。各信自心是佛。達磨大師。從南天竺國。來至中華。傳上乘一心之法。令汝開悟。又引楞伽以印眾生心地。恐汝顛倒。不自信此一心之法。各各有之故。楞伽經。以佛語心為宗。無門為法門。夫求法者。應無所求。心外無別佛。佛外無別心。不取善。不捨惡。淨穢兩邊。俱不依怙。達法性空。念念不可得。無自性故。三界惟心。森羅及萬象。一法之所印。凡所見色。皆是見心。心不自心。因色故有。汝但隨時言說。即事即理。都無滯礙。菩提道果。亦復如是。於心所生。即名為色。知色空故。生即不生。若了此意。乃可隨時。著衣喫飯。長養聖胎。任運過時。更有何事。

汝授吾教。聽吾偈曰。心地隨時說。菩提亦只寧。事理俱無礙。當生即不生。

僧問。如何是修道。師云。道不屬修。若言修得修成還壞。即同聲聞。若言不修。即同凡夫。

僧云。作何見解。即得達道。師云。自性本來具足。但於善惡事中不滯。喚作修道人。取善捨惡。觀空人定。即屬造作。更若向外馳求。轉疎轉遠。但盡三界心量。一念妄心。即是三界生死根本。但無一念。即除生死根本。即得法王無上珍寶。無量劫來。凡夫妄想。諂曲邪偽。我慢貢高。合為一體。故經云。但以眾法。合為此身。起時唯法起。滅時唯法滅。此法起時。不言我起。滅時不言我滅。前念後念。念念不相待。念念寂滅。喚作海印三昧。攝一切法。如百千異流。同歸大海。都名海水。住於一味。即攝眾味。住於大海。即混諸流。如人在大海中浴。則用一切水。所以聲聞悟迷。凡夫迷悟。聲聞不知聖心。本無地位因果階級。心量妄想。修因證果。住於空定。八萬劫二萬劫。雖即已悟。悟已還迷。諸菩

薩。觀如地獄苦。沉空滯寂。不見佛性。若是上根眾生。忽爾遇善知識指示。言下悟去。更不歷於階級地位。頓悟本性。故經云。凡夫有返復心。而聲聞無也。對迷說悟。本既無迷。悟亦不立。一切眾生。從無量劫來。不出法性三昧。長在法性三昧中。著衣喫飯。言談祇對。六根運用。一切施為。盡是法性。不解返源。隨名定相。迷情妄起。造種種業。若能一念返照。全體聖心。汝等諸人。各達自心。莫記吾語。縱饒說得河沙道理。其心亦不增。總說不得。其心亦不減。說得亦是汝心。說不得。亦是汝心。乃至分身放光。現十八變。不如還我死灰來。淋過死灰。無力喻聲聞。妄修因證果。未淋死灰。有力喻菩薩。道業純熟。諸惡不染。若說如來權教三藏。河沙劫說不盡。猶如鈎鎖。亦不斷絕。若悟聖心。總無餘事。珍重。

僧問。離四句絕百非。請師直指某甲西來意。師云。我今日勞倦。不能為汝說得。問取智藏去。

僧問智藏。藏云。汝何不問和尚。云和尚教來問上座。藏云。我今日頭痛。不能為汝說得。問取海兄去。

僧問海。海云。我到這裏。却不會。僧舉似師。師云。藏頭白。海頭黑。

大滄喆云。這僧恁麼問。馬師恁麼答。離四句。絕百非。智藏海兄。都不知。會麼。不見道。馬駒踏殺天下人。

有僧來作四劃。上一劃長。下三劃短。云不得道一劃長。三劃短。離四句絕百非。請師答話。師劃一劃云。不得道一劃長。三劃短。答汝了也。

鄧隱峰辭師。問甚處去。云南嶽石頭處去。師云。石頭路滑。峰云。竿木隨身。逢場作戲。峯到石頭。繞繩床一匝。振錫一下云。是何宗旨。頭云。蒼天蒼天。峯無語。回舉似師。師云。汝更去。見伊道蒼天蒼天。汝便噓兩聲。峰又去。依前問。頭遂噓兩聲。峰又無語。回舉似師。師云。我向汝道。石頭路滑。

師有小師耽源。行脚歸。於師前。作一圓相。於中立地。師云。汝莫欲作佛麼。云某甲不會捏目。師云。吾不如汝。

雪竇云。然則猛虎不食伏肉。爭奈來言不豐。諸人要識耽源麼。只是箇藏身露影漢。

保寧勇代馬祖云。對面謾我不少。

師見僧來。劃一圓相云。入也打。不入也打。僧纔入。師便打。僧云。和尚打某甲不得。師靠却拄杖。休去。

雪竇云。二俱不了。和尚打某甲不得。靠却拄杖。擬議不來。劈脊便棒。

師翫月次。南泉百丈西堂侍立。師問。正恁麼時如何。堂云。正好供養。丈云。正好修行。泉拂袖而去。師云。經歸藏。禪歸海。唯有普願。獨超物外。

翠巖真云。神鼎叔祖云。只為老婆心切。翠巖即不然。垂萬里鉤。駐千里烏騅。布幔天網。收衝浪巨鱗。有麼。有則衝浪來相見。如無。且歸巖下待月明。

僧問。和尚為甚麼。說即心是佛。師云。為止兒啼。云兒啼止時如何。師云。非心非佛。云除此二種人。來時。如何指示。師云。向伊道不是物。

龐居士問。如水無筋骨。能勝萬斛舟。此理如何。師云。我這裏無水。亦無舟。說甚麼筋骨。

### 南嶽第三世

#### 江西馬祖道一禪師法嗣

#### 池州南泉普願禪師(凡十四)

鄭州王氏子也。

示眾云。然燈佛道了也。若心所思。出生諸法。虛假皆不實。何故。心尚無有。云何出生諸法。猶如形影。分別虛空。如人取聲。安置篋中。亦如吹網。欲令氣滿。故老宿云。不是心。不是佛。不是物。且教爾兄弟行履。據說。十地菩薩。住首楞嚴三昧。得諸佛祕密法藏。自然得一切禪定解脫。神通妙用。至一切世界。普現色身。或示現成等正覺。轉大法輪。入般涅槃。使無量。入一毛孔。演一句。經無量劫。其義不盡。教化無量億千眾生。得無生法忍。尚喚作所知愚。極微細所知愚。與道全乖。大難大難。

示眾云。喚作如如。早是變了也。今時師僧。須向異類中行。

歸宗云。雖行畜生行。不得畜生報。師云。孟八郎漢。又恁麼去。

德山密云。南泉中毒了也。琅琊覺云。遇水喫水。遇草喫草。

焉知畜生行。

示眾云。諸和尚子。王老師。十八上。便解作活計。如今莫有解作活計底麼。出來。共汝商量。良久。顧視大眾云。也須是箇人始得。珍重。

示眾云。文殊普賢。昨夜三更相打。每人與三十棒。趣出院了也。

趙州出眾云。和尚棒。教誰喫。師云。王老師過在甚麼處。州便作禮。

雲門代云。深領和尚慈悲。某甲歸衣鉢下。得箇安樂。又代云。為眾除害。

示眾云。王老師賣身去也。還有人買麼。時有僧。出眾云。某甲買。師云。不作貴。不作賤。爾作麼生買。僧無對。

趙州云。來年與和尚。作領布衫。

臥龍球云。和尚屬某甲。

雪竇云。雖然作家競買。要且不解輪機。且道。南泉還肯麼。雪竇也擬酬箇價直。教南泉。進且無路。退亦無門。良久云。別處容和尚不得。

示眾云。王老師。自小。養一頭水牯牛。擬向溪東牧。不免食他國王水草。擬向溪西牧。不免食他國王水草。不如隨分納些些。總不見得。

雲門云。且道。牛內納。牛外納。直饒伊說得。納處分明。我更問爾。覓牛在。

大滄喆云。雲門只會索牛。不會穿他鼻孔。

示眾云。江西馬大師。說即心即佛。王老師不恁麼。不是心。不是佛。不是物。恁麼道。還有過也無。

時趙州出作禮。師便下座。

妙喜頌云。倒腹傾腸說向君。不知何故尚沉吟。如今便好猛提取。付與世間無事人。

後有僧。問趙州。上座禮拜了去。意作麼生。州云。爾去問取和尚。僧問師。師云。他却領得老僧意。

示眾云。道非物外。物外非道。趙州出問。如何是物外道。師便打。州捉住云。和尚莫打某甲。已後錯打人去在。師擲下棒云。龍虵易辨。衲子難瞞。

師同魯祖歸宗杉山。喫茶次。祖提起盞子云。世界未成時。便有這箇。師云。今時只識這箇。且不識世界。宗云是。師云。師兄莫同此見麼。宗提起盞子云。向世界未成時。道得麼。師作掌勢。宗以面作受掌勢。

師同歸宗麻谷。去禮觀忠國師。路次。師於地上。畫一圓相云。道得即去。道不得即不去。宗於圓相中坐。谷作女人拜。師云。恁麼則不去也。宗云。是甚麼心行。於是却回。

翠巖芝云。當時若見。各與一棒。貴圖天下太平。

佛印元云。歸宗麻谷。氣宇如王。落在南泉圈裏。當時見他畫圓相。拂袖便行。直饒南泉。有神通。也較三千里。

師與魯祖杉山歸宗。辭馬祖。各謀住庵。中路分袂次。師插下拄杖云。道得。也被這箇礙。道不得。也被這箇礙。宗拽拄杖。便打云。也只是這箇。王老師。說甚麼礙不礙。魯祖云。只此一句。大

播天下。宗云。還有不播底麼。祖云有。宗云。作麼生是不播底。祖作掌勢。

師與杉山向火次。師云。不用指東劃西。本分事。直下道將來。杉以火筴。插向爐內。師云。直饒如是。猶較王老師一線道。

又問趙州。州劃一圓相。於相中。著一點。師云。直饒恁麼。猶較王老師一線道。

師問神山。甚麼處來。山云。打羅來。師云。手打脚打。山無對。師云。汝問我。山理前問。師云。分明記取。舉似明眼人。

師寄書與茱萸云。理隨事變。寬廓非外。事得理融。寂寥非內。僧問茱萸。如何是寬廓非外。茱萸云。問一答百也無妨。云如何是寂寥非內。萸云。覩對聲色。不是好手。

又問趙州。州作喫飯勢。僧進後語。州作拭口勢。

又問長沙岑。岑瞪目視之。僧進後語。岑閉目示之。

僧舉似師。師云。此三人。不謬為吾弟子。

師一日閉却方丈門。將灰圍却門外云。有人道得。即開門。眾祇對。多不契。趙州云。蒼天蒼天。師便開門。

趙州問。和尚百年後。向甚麼處去。師云。山下作一頭水牯牛去。州云。謝師指示。師云。昨夜三更月到窓。

師為馬大師。作忌齋。問僧云。且道。馬大師。還來麼。眾無對。洞山云。待有伴即來。師云。此子雖後生。甚堪雕琢。洞山云。和尚。且莫壓良為賤。

師刈茆茨。有僧問。南泉路。向甚麼處去。師豎起鎌云。我這鎌子。是三十文買。僧云。我不問這箇。南泉路。向甚麼處去。師云。我用得最快。

師問維那。今日普請。作甚麼。那云。拽磨。師云。磨即從爾拽。不得動著中心樹子。維那無語。

師拈毬子。問僧。那箇何似這箇。云不似。師云。甚麼處見那箇。便道不似。云若問某見處。請和尚。放下手中物。師云。許爾具隻眼。

師因兩堂爭猫兒。師遂提起猫兒云。大眾。道得即不斬。道不得即斬。眾無語。師遂斬之。

雪竇頌云。兩堂俱是杜禪和。撥動煙塵不奈何。賴得南泉能舉令。一刀兩段任偏頗。

少頃。趙州從外來。師舉似州。州脫履。安頭上。出去。師云。子若在。即救得猫兒。

翠巖芝云。大小趙州。只可自救。

雪竇頌云。公案圓來問趙州。長安城裏任閑游。草鞋頭戴無人會。歸到家山即便休。

師住庵時。有一僧來。師云。某甲上山作務。齋時。上座做飯。喫了。却送一分來。其僧齋時做飯。喫了。將家具。一時打破。就床而臥。師伺不來。遂歸見僧偃臥。師亦去身邊臥。僧便起去。師云。得恁麼靈利。

師住後云。我往前住庵時。有箇靈利道者。直至如今不見。

翠巖芝云。兩箇漢。即不到村。後不到店。

師入園。見一僧。拋瓦礫打之。僧回首。師蹶一足。僧無語。師歸。僧隨後請益云。和尚適來拋瓦礫打某甲。豈不是警覺某甲。師云。蹶一足又作麼生。僧無對。

師問僧。夜來好風。云夜來好風。師云。吹折門前一株松。僧云。吹折門前一株松。又問一僧。云夜來好風。云是甚麼風。師云。吹折門前一株松。云是甚麼松。師云。一得一失。

翠巖真云。眾中商量。有云。前頭據實祇對。所以云得。後頭不合云。是甚麼風。所以言失。只知車書混同。泥玉一所。不知道之根源。理之深淺。要會麼路逢劍客須呈劍。不是詩人不獻詩。

有一庵主。人謂之曰。南泉近日出世。何不去禮拜。主云。非但南泉。直饒千佛出興。亦不去。

師聞。令趙州往勘之。州纔見庵主。便作禮。主不顧。州從西過東。從東過西而立。主亦不顧。州云。草賊大敗。拽下簾子便行。舉似師。師云。我從來疑著這漢。

雪竇云。大小南泉趙州。被箇擔板漢勘破。

師一日下莊。莊主預備迎奉。師云。老僧居常出入。不曾與人知。何得預辦如此。主云。昨夜土地神報。師云。王老師修行無力。被鬼神覷見。

侍者便問。大善知識。為甚麼被鬼神覷見。師云。土地前更下一分飯著。

達觀穎云。南泉被這僧一問。不免向鬼窟裡作活計。

師翫月次。僧云。幾時得似這箇。師云。王老師。二十年前。也曾恁麼來。云即今又作麼生。師便歸方丈。

有僧問訊罷。叉手而立。師云。太俗生。僧合掌。師云。太僧生。僧無語。

僧問。牛頭未見四祖時。為甚麼。百鳥嚙花獻。師云。為渠步步踏佛階梯。云見後。為甚麼。不銜花獻。師云。直饒不來。猶較王老師一線道。

僧問。即心是佛又不得。非心非佛又不得。師意如何。師云。爾但即心是佛便了。更說甚麼。得與不得。只如爾喫了飯。東廊上西廊下。不可總問人得與不得。

師問良欽。空劫中。還有佛否。云有。師云。是阿誰。云良欽。師云。居何國土。欽無對。

師問僧。不思善。不思惡。總不思時。還我本來面目來。僧云。無容止可露。

洞山云。還曾將示人麼。

僧問師。居丈室。將何指南。師云。昨夜三更失却牛。天明起來失却火。

師問座主。講甚麼經。云彌勒下生經。師云。彌勒幾時下生。云見在天宮未來。師云。天上無彌勒。地下無彌勒。

洞山舉問雲居。居云。天上無彌勒。地下無彌勒。未審誰與安名。洞山被問。直得繩床震動。乃云。吾在雲巖問。老人直得火爐震動。今日被子問。直得通身汗流。

有座主辭師。問甚麼處去。云山下去。師云。第一不得謗王老師。云爭敢。師噴嚏云。是多少。主無對。

僧問。百尺竿頭。如何進步。師云。更進一步。

復問鹽官。官云。百尺竿頭。用進作麼。僧不肯。拂袖而出。官便打。

承天宗云。若參南泉。須進一步。若參鹽官。須退一步。明眼底辨取。

陸亘大夫問師。肇法師也甚奇怪。解道。天地與我同根。萬物與我一體。師指庭前花云。大夫。時人見此一株花。如夢相似。

師與大夫。見人雙陸。大夫拈起骰子問。恁麼不恁麼。但信彩時如何。師拈起骰子。便擲云。臭骨頭一十八大夫問。弟子家中。有片石。或時坐。或時臥。如今擬鐫作佛。得麼。師云得。大夫云。莫不得麼。師云。不得。

大夫問師。大悲菩薩。用許多手眼。作甚麼。師云。如國家用大夫。作甚麼。

大夫謂師云。弟子亦薄會佛法。師云。大夫十二時中。作麼生。夫云。寸絲不挂。師云。猶是階下漢。復云。不見道。有道君王。不納有智之臣。

大夫歸宣城治所。師問。大夫去彼。將何治民。夫云。以智慧治民。師云。恁麼則彼地生靈。盡遭塗炭去也。夫無對。

### 洪州百丈懷海禪師(凡十六)

福州長樂人也。師參馬大師。為侍者。檀越每送齋飯來。師纔揭用盤蓋。馬大師拈起一片胡餅。示眾云。是甚麼。每日如此。師經三年。方有省。

師侍馬大師。游山次。忽見野鴨飛過。祖問是甚麼。師云野鴨子。祖云。甚麼處去也。師云。飛過去也。祖擗師鼻頭。師負痛。失聲云。阿耶耶。阿耶耶。祖云。又道飛過去也。師於此契悟。浹背汗流。却歸侍者寮。哀哀大哭。同事問。汝憶父母耶。師云。無。云被人罵耶。師云無。云爾哭作甚麼。師云。我鼻孔。被大師擗得。痛不可徹。同事云。有甚因緣不相契。師云。汝問取和尚去。同事問馬大師云。海侍者。有何因緣。不契。在寮中哭告。和尚為某甲說。大師云。是伊會也。汝自問取他。同事歸寮云。和尚道。汝會也。教我自問汝。師乃呵呵大笑。同事云。適來哭。如今為甚却笑。師云。適來哭。如今笑。同事罔然。

妙喜頌云。有時笑兮有時哭。悲喜交參暗催促。此理如何說向人。斷絃須是鸞膠續。

馬大師次日陞堂。眾纔集。師出卷却席。祖便下座。歸方丈。却問師。我適來上堂。未曾說話。爾為甚麼卷却席。師云。某甲昨日。被和尚擗得鼻頭痛。祖云。汝昨日向甚麼處留心。師云。鼻頭今日。又不痛也。祖云。汝深得今日事。師作禮而退。

雪竇云。當時若見出來卷却席。劈脊與他一踏。令坐者倒者。皆起不得。且要後人。別有生涯。免見遞相鈍置。豈不是箇英靈漢。

白雲端出馬祖語云。我鈍置猶可。汝鈍置太殺黃龍心云。馬祖陞堂。百丈卷席。後人不善來風。盡道不留朕跡。殊不知桃花浪裏。正好張帆。七里灘頭。更堪垂釣。

楊傑次公頌云。野鴨飛鼻頭裂。卷簾更來呈醜拙。直饒獨坐大雄峰。也是天邊第二月。

師再參馬大師。侍立次。大師目顧繩床角拂子。師云。即此用離此用。祖云。汝向後開兩片皮。將何為人。師取拂子。豎起。祖云。即此用。離此用。師挂拂子舊處。祖震威一喝。師直得三日耳聾。汾州云。悟去便休。說甚麼三日耳聾。

石門聰云。若不三日耳聾。何得悟去。汾州聞云。我恁麼道。較他石門半月程。雪竇云。奇怪諸禪德。如今列其派者多。究其源者少。總道百丈於喝下大悟。還端的也無。然刁刀相似。魚魯參差。若是明眼漢。瞞他一點不得。只如馬大師道。爾他後開兩片皮。將何為人。百丈豎起拂子。為復是如蟲禦木。為復是啐啄同時。諸人要會三日耳聾麼。大冶精金。應無變色。東林總云。當言不避截舌。當爐不避火迸。佛法豈可曲順人情。東林今日。向驪龍窟裏爭珠去也。百丈不無他三日耳聾。汾州石門。爭免二俱瞎漢。這三箇。還曾悟去也無。良久云。祖嬾不了。殃及兒孫。

汾陽昭頌云。每因無事侍師前。師指繩床角上懸。舉放却歸舊位立。分明一喝至今傳。

示眾云。併却咽喉唇吻。速道將來。為山出眾云。某甲道不得。請和尚道。師云。不辭與汝道。恐已後喪我兒孫。五峰云。和尚也須併却。師云。無人處。斫額望汝。雲巖云。和尚有也未。師云。喪我兒孫。

師一日上堂。眾纔集。師拈拄杖一時打散。復召大眾。眾回首。師云。是甚麼。

師參次。有一老人。隨眾聽法。眾人退。老人亦退。忽一日不退。師問。面前立者何人。老人云。某甲非人也。過去迦葉佛時。曾住此山。因學人問。大修行人。還落因果也無。某甲對云。不落因果。五百生墮野狐身。今請和尚代一轉語。遂理前問。師云。不昧因果。老人言下大悟。作禮云。某甲已脫野狐身。住在山後。乞依亡僧事例。師令維那白槌云。食罷送亡僧。眾皆怪訝云。又無人遷化。何得送亡僧。食罷。師領眾。至山後巖下。以拄杖。挑出一死狐。依法火葬。

師至晚上堂。舉前因緣。黃檗出眾問云。古人錯對一轉語。五百生墮狐身。轉轉不錯。合作箇甚麼。師云。近前來。與汝道。檗近前。與師一掌。師拍手笑云。將謂胡鬚赤。更有赤鬚胡。

司馬頭陀。舉問為山。山撼門扇三下。陀云。太羸生。為云。佛法不是這箇道理。為山舉問仰山。仰云。黃檗常用此機。為云。天生得。從人得。仰云。亦是稟受師承。亦是自性宗通。為云。如是如是真淨文頌云。不落藏逢不昧分。要伊從此脫狐身。相逢盡道休官去。林下何曾見一人。

大為喆頌云。大冶洪爐。烹佛烹祖。規模鎔盡。識者罔措。僧問。如何是大乘頓悟法門。師云。汝等先歇諸緣。休息萬事。善與不善。世出世間。一切諸法。莫記憶。莫緣念。放捨身心。令其自在。心如木石。無所辨別。心無所行。心地若空。慧日自現。如雲開日出相似。俱歇一切攀緣。貪嗔愛取。垢淨情盡。對五欲八風。不被見聞覺知所縛。不被諸境所惑。自然具足神通妙用。是解脫人。對一切境。心無靜亂。不攝不散。透一切聲色。無有滯礙。名為道人。但不被一切善惡垢淨。有為世間。福智拘繫。即名為佛慧。是非好惡。是理非理。諸知見總盡。不被繫縛。處心自在。名初發心菩薩。便登佛地。一切諸法。本不自空。不自言色。亦不言是非垢淨。亦無心繫縛人。但人自虛妄計著。作若干種解。起若干種知見。若垢淨心盡。不住繫縛。不住解脫。無一切有為無為解。平等心量。處於生死。其心自在。畢竟不與虛幻塵勞。蘊界生死。諸人和合。迥然無寄。一切不拘。去留無礙。往來生死。如門開相

似。若遇種種苦樂。不稱意事。心無退屈。不念名聞衣食。不貪一切功德利益。不為世法之所滯。心雖親受苦樂。不干于懷。麤食接命。補衣禦寒暑。兀兀如愚如聾相似。稍有相親分。於生死中。廣學知解。求福求智。於理無益。却被解境風飄。却歸生死海裏。佛是無求人。求之即乖。理是無求理。求之即失。若取於無求。復同於有求。此法無實無虛。若能一生。心如木石相似。不為陰界。五欲八風之所漂溺。即生死因斷。去住自由。不為一切有為因果所縛。他時還與無縛身同。利物以無縛心。應一切心。以無縛慧。解一切縛。亦能應病與藥。

僧云。如今受戒身口清淨。已具諸善。得解脫否。答少分解脫。未得心解脫。未得一切解脫。云如何是心解脫。答不求佛。不求知解。垢淨情盡。亦不守此無求為是。亦不住盡處。亦不畏地獄縛。不受天堂樂。一切法不拘。始名為解脫無礙。即身心及一切。皆名解脫。汝莫言有少分戒善。將謂便了。有恒沙無漏戒定慧門。都未涉一毫在。努力猛作早與。莫待耳聾眼暗。頭白面皺。老若及身。眼中流淚。心裏惶惶。未有去處。到恁麼時。整理手脚不得也。縱有福智多聞。都不相救。為心眼未開。唯緣念諸境。不知返照。復不見佛道。一生所有惡業。悉現在前。或欣或怖。六道五蘊。盡見嚴好舍宅。舟舡車輦。光明顯赫。為縱自心。貪愛所見。悉變為好境。隨見重處受生。都無自由分。龍畜良賤。亦總未定。問如何得自由。答如今對五欲八風。情無取捨。垢淨俱忘。如日月在空。不緣而照。心如木石。亦如香象截流而過。更無滯礙。此人天堂地獄。所不能攝也。

師云。讀經看教。語言皆須宛轉。歸就自己。俱是一切言教。只明如今覺性自己。俱不被一切有無諸法境轉。是導師。能照破一切有無境法。是金剛。即有自由獨立分。若不能恁麼得。縱令誦得十二章陀經。只成增上慢。却是謗佛。不是修行。讀經看教。若准世間。是好善事。若向明理人邊數。此是壅塞人。十地之人。脫不去。流入生死河。但不用求覓知解語義句。知解屬貪。貪變成病。只如今但離一切有無諸法。透過三句外。自然與佛無差。既自是佛。何慮佛不解語。只恐不是佛。被有無諸法轉。不得自由。是以理未立。先被福智載去。如賤使貴。不知於理先立。後有福智。臨時作得主。捉土為金。變海水為酥酪。破須彌為微塵。於一義。作無量義。於無量義。作一義。

雲巖問。和尚每日區區。為阿誰。師云。有一人要。巖云。何不教伊自作。師云。渠無家活。

智藏問師。老兄向後作麼生。師以手卷舒兩邊。示之。藏云。更作麼生。師以指點空三下。

師謂眾曰。我要一人去。傳語西堂。阿誰去得。五峰出云。某甲去得。師云。爾作麼生傳語。峰云。待見西堂。即道。師云。道甚麼。峰云。却來說似和尚。

師因普請鋤地。有一僧。聞鼓鳴。拋下鋤頭。呵呵大笑便歸。師云。俊哉俊哉。此是觀音入理之門。遂喚其僧問。汝適來見箇甚麼道理。云適來肚裏飢。聞鼓聲。喫飯去。師乃大笑。

有一僧。哭上法堂。師云。作甚麼。云父母俱喪。請師選日。師云。明日與汝一時埋却。

僧問。抱璞投師。請師一決。師云。昨夜南山虎咬大蟲。云不謬真詮。為甚麼。不垂方便。師云。掩耳偷鈴漢。云不得中郎鑑。還同野舍薪。師便打。僧云。蒼天蒼天。師云。得與麼多口。云罕遇知音。拂袖便出。師云。百丈今日輸却一半(佛鑑云。雖得一場榮。別却一雙足)。至晚。侍者問。和尚被這僧不肯了。便休。師便打。者云。蒼天蒼天。師云。罕遇知音。者作禮。師云。一狀領過。

佛鑑云。百丈老人。獨坐大雄峰。咳唾生風。寰宇之中。誰敢覷著。被侍者捏著脚跟。直得兩手分付。雖然如此。養子方知父慈。

僧問。依經解義。三世佛冤。離經一字。如同魔說。師云。固守動用。三世佛冤。此外別求。則同魔說。

僧問。如何是奇特事。師云。獨坐大雄峯。僧作禮。師便打。

雪竇頌云。祖域交馳天馬駒。化門舒卷不同途。電光石火存機變。堪笑人來捋虎鬚。

### 廬山歸宗智常禪師(凡十一)

示眾云。從上古德。不是無知解。他高上之士。不同常流。今時不能自成自立。虛度時光。諸子莫錯用心。無人替汝。亦無汝用心處。莫就佗覓。從前只是依他作解。發言皆滯。光不透脫。只為目前有物。

示眾云。吾今欲說禪。諸子總近前。大眾進前。師云。汝聽觀音行。善應諸方所。

僧問。如何是觀音行。師彈指云。還聞麼。云僧聞。師云。這一隊漢。來這裏覓甚麼。以棒趁下。大笑歸方丈。

師與南泉相別。煎茶次。泉問。從前與師兄商量言句。彼此已知。向後有人。問畢竟。作麼生。師云。這一片田地。好卓庵。泉云。卓庵且致。畢竟事作麼生。師踢翻茶鉢。泉云。師兄喫茶了。某甲未喫茶。師云。作此語話。滴水也難消。泉休去。

雲巖來參。師見便作彎弓勢。崑良久。作拔劍勢。師云。大遲生。

師割草次。有座主來參。偶一條蛇過。師以鋤斷之。主云。久響歸宗。元來只是箇羸行沙門。師顧座主云。爾羸我羸。主問如何是羸。師豎起鋤頭。云如何是細。師作斷蛇勢。云與麼則依而行之。師云。依而行之且置。爾甚麼處。見我斬蛇。主無對。

雪峰問德山。古人斬蛇。意旨如何。山便打。峰便走。山召云。布衲子。峯回首。山云。他時悟去。方知老漢徹底老婆心。雪竇云。歸宗只會慎初。不能護末。德山頗能據令。未明斬蛇。乃云。大眾看。雪竇今日斬三五條。拈拄杖。打散大眾。

師普請取菜次。師劃一圓相。圍却一株菜。眾皆下語。不契師意。師遂拔却菜。拈拄杖打趣云。這一隊漢。無一箇有智慧。僧問。如何是玄旨。師云。無人能會。云向者如何。師云。有向即乖。云不向者如何。師云。誰求玄旨。僧無語。師云。去無爾用心處。云豈無方便。令學人得入。師云。觀音妙智力。能救世間苦。云如何是觀音妙智力。師敲鼎蓋三下云。還聞麼。云聞。師云。我何不聞。僧無語。師拈棒趣下。

師因小師大愚辭。師問甚處去。云諸方學五味禪去。師云諸方有五味禪。我這裏有一味禪。為甚不學。云如何是和尚一味禪。師劈口便打。愚當下大悟。乃云。我會也我會也。師急索云道道。愚擬開口。師又打。即時趣出。

雪竇云。以強凌弱。有甚麼難。我這裏。有一味禪。為甚不學。但向道。待伊拈起。有般無眼漢。只管喫。咩咩。雪竇門下誰敢。

師泥壁次。白舍人來。師問。君子儒小人儒。云君子儒。師打泥盤一下。白便過泥。師接泥使用。良久問。莫是俊快底白侍郎麼。白云不敢。師云。只有過泥分。

李渤刺史問。教中道。須彌納芥子。渤即不疑。芥子納須彌。莫是妄談否。師云。人傳使君讀萬卷書。是否。云然。師云。摩頂至踵。如椰子大。萬卷書向甚麼處著。李俛首而已。

李問。一大藏教。明甚麼邊事。師舉拳示之云。會麼。云不會。師云。飽學措大。拳頭也不識。云某甲實不會。師云。遇人即途中受用。不遇人即世諦流布。

### 明州大梅法常禪師(凡十三)

襄陽鄭氏予。問馬大師。如何是佛。馬大師云。即心是佛。師於言下大悟。後於梅子真舊隱。而卜居焉。

鹽官有一僧。採拄杖迷路。到師庵。乃問。和尚住此山多少時。師云。只見四山青又黃。云出山路。向甚麼處去。師云。隨流去。僧回舉似鹽官。官云。我在江西時。曾見此一僧。自後不知消息。莫是他否。遣僧招之。師答以偈云。摧殘枯木倚寒林。幾度逢春不變心。樵客遇之猶不顧。郢人那得苦追尋。

馬大師。遣僧問師云。和尚見馬大師。得箇甚麼。便住此山。師云。馬大師向我道。即心是佛。我便向這裏住。僧云。馬大師。近日佛法又別也。師云。作麼生別。僧云。又道非心非佛。師云。這老漢。惑亂人。未有了日。任他非心非佛。我這裏只管即心即佛。僧回舉似馬大師。大師云。梅子熟也。

龐居士聞之。欲驗師真實。特往勘之。纔見便問。久響大梅。未審梅子熟也未。師云。爾向甚麼處下口。士云。百雜碎。師伸手云。還我核子來。士無語。

示眾云。汝等各自回心達本。莫逐其末。但得其本。其末自至。若欲識本。唯了自心。此心。元是一切世間。出世間法。根本故。心生則種種法生。心滅則種種法滅。心且不附一切善惡而生。萬法本自如如。

有僧。從馬大師處來。纔相見。便繞師行一匝。提起坐具云。正恁麼時。賓主俱不立。師云。不立者是誰。僧又繞師一匝。師云。我今為汝。保任此事。終不虛也。僧作禮。師云。咩咩。猶欠主人禮在。僧云。非但某甲。諸佛亦然。師云。咩咩。猶欠客禮在。僧掩耳而出。師喚維那云。好好。安排著這僧。從馬大師處來。

定山與夾山同行。言話次。定山云。生死中無佛。即無生死。夾山云。生死中有佛。即不迷生死。是非不<sub>已</sub>。二人上山。求決親疎。纔人事罷。夾山舉前話。問云。不知那箇較親。師云。一親一疎。山復問。那箇親。師云。且去明日來。夾山明日又問。師云。親者不問。問者不親。

夾山住後云。我當時在大梅。失却一隻眼。

雪竇云。夾山畢竟不知當時換得一隻眼。大梅老漢。當時聞舉。以棒一時趨出。非唯劃斷兩人葛藤。亦乃為天下宗匠。新羅僧來。師問甚處人。云欲通來處。恐招和尚怪責。師云。不可無來處也。云新羅。師云。又爭怪得爾。僧作禮。師云。是與不是。知與不知。也只是新羅國裏人。

有僧。號饒舌昭。作禮問。如何是大梅主。師敲繩床示之。昭云。恁麼則聲色一如去也。師云。一如。又一如箇甚麼。昭云。某甲今日。方始豁然。師云。如許多時。甚麼處去。昭云。今日全承和尚威光。師云。下去得也。

僧問。和尚初到馬大師處。從甚麼言句中。得入。師顧視少頃云。會麼。云不會。師云。須是合他始得。云如何得合他去。師云。須是蹤跡絕去。方可合他。云既是蹤跡絕去。何須更合。師云。當處具足。不假用心。是蹤跡絕處。心意識無我。是合他處。云合他後如何。師云。不假本來面目。云恁麼則意識全真。無外物去也。師云。意識若真。自無外物。更欲問誰。僧作禮。

師乃云。雖內外無生。而照用不歇。所以道。無我。無造作。無受者。善惡之業亦不忘。所以千聖共同心。意識亦同。行住坐臥。本無前後。但物物無心去。是名般若波羅蜜多。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西來無意。

鹽官云。一箇棺木。兩箇死漢。玄沙云。鹽官是作家。雪竇云。三箇也有。

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云。蒲花柳絮。竹針麻線。

師臨示寂時。示眾云。來莫可抑。去莫可追。

從容間。聞鼯鼠聲。師云。即此物。非他物。善自護持。吾當逝矣。

雪竇云。這漢。生前莽鹵。死後顛預。即此物非他物。是何物。還有分付處也無。有般漢。不能截斷脚跟。只管道。貪程太速。

### 杭州鹽官齋安國師(凡二)

海門郡。李氏子也。示眾云。虛空為鼓。須彌為槌。甚麼人打得。眾無對。

南泉云。王老師。不打這破鼓。

法眼云。王老師不打。雪竇云。打者甚多。聽者極少。且道。誰是解打者。莫謗鹽官好。南泉道。王老師。不打這破鼓。法眼道。王老師不打。兩箇既不奈何。一箇更是摩羅。又云。王老師不打。還肯得諸方也無。自代云。千年田八百主。

師一日。喚侍者。將犀牛扇子來。者云。破也。師云。扇子既破。還我犀牛兒來。

投子云。不辭將出。恐頭角不全。

雪竇云。我要不全底頭角。石霜代云。若還和尚。即無也。

雪竇云。犀牛兒猶在。保福代云。和尚年尊。別請人好。

雪竇云。可惜勞而無功。資福代。作圓相。於中書牛字。

雪竇云。適來何不將出。

遂拈云。若要清風再復。頭角重生。請諸禪客。下一轉語。乃問。扇子既破。還我犀牛兒來。時有僧出云。大眾參堂去。師

喝云。拋鉤釣鯤鯨。釣得箇蝦蟆。

雲居舜云。侍者當時。若見道扇子既破。還我犀牛兒來。便向他道已颺在榼[木\*(天/圭)]堆頭了也。

### 京兆府章敬懷惲禪師(凡六)

泉州同安謝氏子也。示眾云。至理亡言。時人不悉。強習他事。以為功能。不知自性。元非塵境。是箇微妙大解脫門。所有鑑覺。不染不礙。如是光明。未曾休廢。曩劫至今。固無變易。猶如日輪。遠近斯照。雖及眾色。不與一切和合。靈燭妙明。非假煅煉。為不了故。取於物像。但如捏目。妄起空花。徒自疲勞。枉經塵劫。若能返照。無第二人。舉措施為。不虧實相。

麻谷來。繞師三匝。振錫一下。卓然而立。師云。是是。

谷到南泉。亦如是。泉云。不是不是。谷云。章敬道是。和尚因甚。道不是。泉云。章敬即是。是汝不是。此是風力所轉。終成敗壞。

大滄喆云。章敬道是。落在麻谷穀中。南泉道不是。亦落在麻谷穀中。大偽即不然。忽有人。持錫繞繩床三匝。振錫一下。

卓然而立。但向他道。未到這裏。與爾三十棒了也。

百丈和尚遣一僧來。囑之云。爾去。待伊上堂。即出展坐具禮拜了。將伊一隻鞋。以袖拂却上塵。倒覆向下。其僧一依指教。師云。老僧罪過。

師有小師。游方歸。師問。汝離吾此間。多少時耶。云自離和尚。將及八載。師云。辨得箇甚麼事。小師於地上。劃一圓相。師云。只這箇。更有在。小師劃破圓相。便作禮。師云。不是不是。

僧問。四大五蘊身中。那箇是本來佛性。師召僧。僧應諾。師良久云。汝無佛性。

僧問。心法雙忘。指歸何處。師云。郢人無汗。徒勞運斤。

### 幽州盤山寶積禪師(凡十)

在馬大師會下。一日出街持鉢。忽見一客人買肉。謂屠者曰。精底割一斤來。屠者放下刀。叉手云。長史那箇不是精底。師於此有省。

後一日。見人昇喪。歌郎振鈴云。紅輪決定沉西去。未委魂靈往那方。幕下孝子哭云。哀哀。師即大悟。踴躍而歸。馬祖印其所證。示眾云。心若無事。萬法不生。意絕玄微。纖塵何立。道本無體。因道而立名。道本無名。因名而得號。若言即心即佛。今時未入玄

微。若言非心非佛。猶是指蹤極則。向上一路。千聖不傳。學者勞形。如猿捉影。

琅琊覺云。上來講讚。無限良因。

示眾云。夫大道無中。復誰先後。長空絕跡。何用稱量。空既如斯。道復何說。

示眾云。夫心月孤圓。光吞萬象。光非照境。境亦非存。光境俱忘。復是何物。禪客。譬如擲劍揮空。莫論及之不及。斯乃空輪絕跡。劍刃無虧。若能如是。心心無知。全心即佛。全佛即人。人佛無異。始為道矣。

示眾云。禪客。可中學道。似地擎山。不知山之孤峻。如石含玉。不知玉之無瑕。若能如是。是真出家。故導師云。法本不相礙。三際亦復然。無為無事人。猶是金鎖難。所以靈源獨耀。道絕無生。大智非名。真空無跡。真如凡聖。皆是夢言。佛及眾生。並為增語。直須自看。無人替代。

示眾云。三界無法。何處求心。四大本空。佛依何住。璿機不動。寂爾亡言。覲面相呈。更無餘事。

師臨示寂時。謂眾云。還有人。邈得吾真麼。眾皆寫呈。不契師意。普化出云。某甲邈得。師云。試呈似老僧看。化打筋斗而出。師云。這廝兒。向後甚處。掣風顛去。

保福展云。普化掣顛不少。盤山醜拙尤多。

### 婺州五洩山靈默禪師(凡一)

毗陵宣氏子。師問石頭。一言相契即住。一言不契即去。頭據坐。師拂袖便行。頭召云。閣梨。師回首。頭云。從生至老。只是這箇。回頭轉腦作甚麼。師忽然契悟。遂拗折拄杖(洞山落髮師也)。

洞山云。當時不是五洩先師。也大難承當。雖然如是。猶涉途在。翠巖芝云。石頭據坐。五洩回首。石頭召他。却成多事。雲峰悅云。大小石頭。坐不定。把不住。似這般擔板漢。放去便休。又喚回。被伊搽糊一上。道我向這裏。有箇悟處。驢年夢見麼。

### 蒲州麻谷寶徹禪師(凡七)

師與丹霞游山。見水中魚。以手指示丹霞。霞云。天然天然。師休去。

至來日。又問丹霞。昨日意作麼生。霞放身作臥勢。師云。蒼天蒼天。

師問臨濟。大悲千手眼。那箇是正眼。濟云。大悲千手眼。作麼生是正眼。速道速道。師拽濟下繩床。却坐。濟起云。不審。師擬議。濟便喝。拽下繩床。却坐。師出去。

達觀穎云。諸禪德。二尊宿如此。且道怎生。今時人總道。照用同時。照甚麼盃。一切人。只解自騎馬去捉賊。自持刀去殺賊。此二人。便能騎賊馬捉賊。奪賊鏘殺賊。雖然如是。臨濟雖是得便宜。却是落便宜。

師與南泉二三人。去謁徑山。路逢一婆子。乃問。徑山路。向甚麼處去。婆云。驀直去。師云。前頭水深。還過得麼。云不濕脚。又問。上岸稻。得與麼好。下岸稻。得與麼怯。云總被螃蟹喫了也。師云。禾好香。婆云。沒氣息。又問。婆住在甚處。云只在這裏。三人至店。婆煎茶一瓶。携盞三隻。乃云。和尚有神通者。即喫茶。三人相顧問。婆云。看老朽。自逞神通去也。拈盞傾茶便行。師坐帳內。以手巾蓋却頭。披雲和尚來見。便作哭聲。良久出去。法堂上。繞繩床一匝。

却入來。撥開帳。見師去却手巾而坐。披雲云。死中得活。萬中無一。師下牀。作抽坐具勢。雲把住云。前死後活。爾還甘麼。師云。甘即甚甘。阿師堪作甚麼。雲推師向一邊云。知道前言不副後語。

師使扇次。僧問。風性常動。無處不周。和尚為甚麼。却使扇。師云。爾只知風性常動。且不知無處不周。云作麼生是無處不周底道理。師却搖扇。僧作禮。師云。無用處師僧。著得一萬箇。有甚麼益。

師問僧。甚處來。僧云。不審。師再問。僧珍重。師下繩床搗住云。這箇師僧。問著便作佛法祇對。云大似無眼。師放手云。放汝命。通汝氣。僧作禮。師復搗住。僧掣肘便行。師云。休將三歲竹。擬比萬年松。

師問僧。甚處來。云漳州。師云。彼中瘴氣。近日如何。云極盛。師云。闍梨因甚却無事。云某甲是冬月過。師云。何處得盛。

石鞏云。語即是。理即未是。

聯燈會要卷第四

南嶽下第六世

江西馬祖道一禪師法嗣

汾陽大達無業國師(凡五)

商州上洛杜氏子。初參馬大師。問三乘教理。粗亦研窮。嘗聞禪宗。即心是佛。實未明了。乞和尚慈悲指示。大師云。只爾不了底心是。更無別物。迷即眾生。悟即是佛。如拳作掌。如掌作拳。師言下領旨。

師問馬祖。如何是祖師西來意。祖云。大德正鬧在。且去別時來。師纔出。祖召云。大德。師回首。祖云。是甚麼。師豁然大悟。便作禮。祖云。這鈍漢。禮拜作麼。

師住後。學者扣問。多答云。莫妄想。

院主問。和尚平日答對。只云莫妄想。這回休得也。師召院主。主應喏。師云。這回休得也。自後凡有扣問。俱云。這回休得也。

僧問。十二分教。流于此土。得道果者。非止一二。云何祖師東化。別唱玄宗。直指人心。見性成佛。豈得世尊說法。有所未盡。只如上代諸德高僧。並學貫九流。洞明三藏。生肇融叡盡其神異間生。豈得不知佛法遠近。某甲庸昧。願師指示。

師云。諸佛不曾出世。亦無一法與人。但隨病施方。遂有十二分教。如將蜜果。換苦葫蘆。淘汝業根。俱無實事。神通變化。及百千三昧門。化彼天魔外道。福智二嚴。為破執有滯空之見。若不會道及祖師來意。論甚麼生肇融叡。如今天下。解禪解道。如河沙數。說佛說心。有百千萬億。纖塵不去。未免輪迴。絲念不忘。盡須沉墜。如斯之類。尚不能自識業果。妄言自利利他。自謂上流並他先德。但言。觸目無非佛事。舉足皆是道場。原其所習。不如一箇五戒十善凡夫。觀其發言。嫌他二乘十地菩薩。且醞上味為世所珍。遇斯等人。翻成毒藥。南山尚自不許。呼為大乘學語之流。爭鋒唇舌之間。鼓論不形之事。並他先德。誠實苦哉。

只如野逸高士。尚解枕石漱流。棄其利祿。亦有安國理民之謀。徵而不赴。況我禪宗。途路且別。看佗古德道人。得意之後。茆茨石室。向折脚鐺子裏。煮飯喫。三十二年。名利不干懷。財寶不為念。大忘人世。隱跡巖叢。君王命之不來。諸侯請而不赴。豈同我

輩。貪名愛利。汨沒世途。如短販人。有少希求。而忘大果。十地諸聖。豈不通佛理。可不如一箇博地凡夫。實無此理。他說法如雲如雨。猶被佛呵云。見性如隔羅縠。只為情存聖量。解在果因。未能逾越聖情。過諸影跡。先賢古德。碩學高人。博達古今。洞明教網。蓋為識學詮文。水乳辨難。不明至理。念靜求真。嗟乎得人身者。如爪甲上土。失人身者。如大地土。良可傷哉。設有悟理之者。有一知一解。不知是悟中之則。入理之門。便為永出世利。巡山傍澗。輕忽上流。致使心漏不盡。理地不明。到老無成。虛延歲月。且聰明不能敵業。乾慧未免苦輪。假使才並馬鳴。智齊龍樹。只是一生兩生。不失人身。根思宿靜。聞之即解。如彼生公。何足為羨。與道全乖。共兄弟。論實不論虛。只這口食身衣。盡是欺賢罔聖。求得將來。他心慧眼觀之。如喫膿血一般。總須償他始得。阿那箇有道果。自然招得他信施來。不受者。學般若菩薩。不得自謾。如水凌上行。似劒刃上走。臨終之時一毫凡聖情量不盡。纖塵思念未忘。隨念受生。輕重五陰。向驢胎馬腹裏託質。泥犁鑊湯裏。煮燂一徧了。從前記持憶想。見解智慧。一時失却。依前再為螻蟻。從頭又作蚊蚋。雖是善因。而遭惡果。且圖甚麼。兄弟。只為貪欲成性。二十五有。向脚跟下繫著。無成辨之期。祖師觀此土眾生。有大乘根性。唯傳心印。指示迷情。得之者。即不揀凡之與聖。愚之與智。且多虛。不如少實。大丈夫兒。如今直下便休歇去。頓息萬機。越生死流。迥出常格。靈光獨耀。物累不拘。巍巍堂堂。三界獨步。何必身長丈六。紫摩金輝。項佩圓光。廣長舌相。以色見我。是行邪道。設有眷屬莊嚴。不求自得。山河大地。不礙眼光。得大總持。一聞千悟。都不希求一食之直。汝等諸人。儻不如是。祖師來至此土。非常有損有益。有益者。百千人中。撈攬一箇半箇。堪為法器。有損者。如前已明。從他依三乘教法修行。不妨却得四果三賢。有進修之分。所以先德云。了即業障本來空。未了應須還宿債。

師臨示寂時。示眾云。汝等見聞覺知之性。與太虛同壽。不生不滅。一切境界。本自空寂。無一法可得。迷者不了。即為境惑。流轉無窮。汝等諸人。當知心性本自有之。非因造作。猶如金剛。不可破壞。一切諸法。如影如響。無有實者。故經云。唯此一事實。餘二則非真。若了一切俱空。無一物可當情。便是諸佛用心處。汝等勤而行之。言訖而寂。

### 虔州西堂智藏禪師(凡五)

本郡廖氏子。師因普請次。云因果歷然。爭奈何爭奈何。時有僧出。以手托地。師云作甚麼。云相救相救。師召云。大眾。這箇師僧。猶較些子。僧拂袖便出。師云。師子身中虫。自食師子肉。僧問。有問有答。即且置。無問無答時如何。師云。怕爛却那。百丈云。從來疑著老兄。僧問丈云。請和尚道。文云。一合相不可得。

後有僧問長慶。慶云。相逢盡道休官去。林下何曾見一人。師在路次。逢天使。使留師齋。偶見驢鳴。使召師。師舉頭。使指驢。師却指使。使無對。

保福展云。西堂因齋慶讚 法眼。別但作驢鳴。有俗官問。有天堂地獄否。師云有。云有佛法僧寶否。師云有。更有多問。皆答云有。官人云。和尚莫錯否。師云。汝曾見甚麼人來。云某甲曾參徑山和尚來。師云。徑山尚汝道甚麼。云凡有所問。皆答云無。師云。汝有妻子否。云有。師云。徑山和尚有否。云徑山古佛。和尚莫謗他好。師云。徑山和尚。道無即得。李翱問僧。馬大師有何言句。僧云。或說即心即佛。或說非心非佛。翱云。總過言邊著。翱却問師。師召李翱。李應諾。師云。鼓角動也。

### 越州大珠慧海禪師(凡六)

建州朱氏子。初謁馬祖。祖問。甚處來。師云。越州大雲來。祖云。來求何事。師云。求佛法。祖云。我這裏。一物也無。求甚麼佛法。自家寶藏。不顧。拋家散走作麼。師云。阿那箇是某甲寶藏。祖云。只今問我者是。汝寶藏。一切具足。受用自在。更無欠少。不假外求。師於言下大悟。識自本心。不由他覺。踴躍作禮而謝。

示眾云。諸人幸自好箇無事人。苦死造作。要擔枷落獄作麼。每日至夜奔波道。我參禪學道。解會佛法。如此轉沒交涉。也只是逐聲色走。有甚歇時。貧道聞江西和尚道。汝自家寶藏。一切具足。使用自在。不假外求。我從此。一時休去。自己家財。隨身受用。可謂快活。無一法可取。無一法可捨。不見一法生滅相。不見一法去來相。徧十方界。無一微塵許。不是自家寶藏。但自子細觀察。自心一體三寶。常自現前。無可疑慮。莫尋思。莫求覓。心性本來清淨故。華嚴經云。一切法不生。一切法不滅。若能如是解。諸佛常現前。又淨名云。觀身實相。觀佛亦然。若不隨聲色動念。不逐相貌生解。自然無事去。莫久立。珍重。

大眾久而不散。師云。諸人何故在此不去。貧道已對面相呈。還肯休麼。有何事可疑。莫錯用心。枉費氣力。若有疑情。一任諸人。恣意早問。

時有僧出問。如何是佛。如何是法。如何是僧。如何是一體三寶。師云。心是佛。不用將佛求佛。心是法。不用將法求法。佛法無二。和合為僧。即是一體三寶。心佛與眾生。是三無差別。身口意清淨。名為佛出世。三業不清淨。名為佛滅度。喻如瞋時無喜。喜時無嗔。唯是一心。實無二體。本智法爾。無漏現前。如蛇化龍。不改其鱗。眾生回心作佛。不改其面。性本清淨。不待修成。有證有修。即同增上慢者。真空無滯。應用無窮。無始無終。利根頓悟。用無等等。即是阿耨菩提。心無形相。即是微妙色身。無相即是實相法身。性相體空。即是虛空無邊身。萬行莊嚴。即是功德法身。此法身者。即是萬化之本。隨處立名。智用無盡。名無盡藏。能生萬法。名本法藏。具一切智。名智慧藏。萬法歸如。名如來藏。經云。如來者。即諸法如義。又云。世間一切生滅法。無有一法。不歸如也。

維摩座主問。經云。彼外道六師等。是汝之師。因其出家。汝師所墮。汝亦隨墮。其施汝者。不名福田。供養汝者。墮三惡道。謗於佛。毀於法。不入眾數。終不得滅度。汝若如是。乃可取食。今請禪師。明為解說。

師云。迷循六根。號為六師。心外求佛。名為外道。有物可施。不名福田。生心受供。墮三惡道。汝若能謗於佛者。是不著佛求。毀於法者。是不著法求。不入眾數者。是不著僧求。終不得滅度者。是智用現前。若有如是解者。便得法喜禪悅之食。

有座主問。般若經云。度九類眾生。皆入無餘涅槃。又云。實無眾生。得滅度者。此兩段經文。如何通會前後。人說皆云。實度眾生。而不取眾生相。常疑未決。請師為說。師云。九類眾生。一身具足。隨造隨成。是故無明為卵生。煩惱包裹為胎生。愛水浸潤為濕生。忽起煩惱為化生。悟即是佛。迷號眾生。菩薩只以念念心。為眾生。若了念念心體俱空。名為度眾生也。智者於自本際上。度於未形。未形既空。即知實無眾生。得滅度者。

有法師問。擬伸一問。師還答否。師云。寒潭月影。任意撮摩。問如何是佛。師云。清談對面。非佛而誰。云師說何法。擬度何人。師云。我未嘗有一法度人。云禪師家。渾如此。

師却問。大德說何法度人。云講金剛經。師云。講得幾座。云二十餘座。師云。此經是誰說。僧抗聲云。禪師相弄。豈不知是佛說耶。師云。若言如來有所說。即為謗佛。是人不解我所說義。若言不是佛說。又成謗經。請大德說看。僧無對。師云。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是人行邪道。不能見如來。大德且道。阿那箇是如來。云某甲到此。却迷去。師云。從來未悟。說甚麼却迷。云請禪師說。師云。汝講二十餘座。却不識如來。僧作禮云。願垂開示。師云。如來者。即諸法如義。何得忘却。僧云。是是。師云。是亦未是在。云經文分明。那得未是。師云。大德如否。云如。師云。木石如否。云如。師云。大德如。同木石如否。云無二。師云。大德與木石何別。僧無對。乃嘆云。此上人者。難為酬對。師問座主。講甚麼經。云三昧經。師提起拄杖云。這箇是三昧。不是三昧。主無對。師云。老僧住持事繁。不能打得爾。

### 信州鵝湖大義禪師(凡三)

衢州江山徐氏子。唐憲宗詔入內論義。有法師問。欲界無禪。禪居色界。此土憑何而立名禪。師云。法師只知欲界無禪。不知禪界無欲。云如何是禪。師以手點空。法師無對。

憲宗云。法師講無限經論。只這一點。便不奈何。

師問諸碩德。行住坐臥。以何為道。有對云。知者是。師云不可以智知。不可以識識。何謂知者是。

有云。無分別者是。師云。善能分別諸法相。於第一義而不動。安得無分別者是。

有云四禪八定是。師云。佛身無為。不墮諸數。安得四禪八定是。於是舉眾杜口。

妙喜云。相罵饒爾接鬚。相唾饒爾潑水。

順宗問。何者是佛。師云。不離陛下所問。帝默契。

### 池州杉山智堅禪師(凡四)

與歸宗南泉。路次逢虎。各從邊過了。泉問歸宗。適來見虎。似箇甚麼。宗云。似箇貓兒。復問師。師云。似箇狗子。師却問南泉。泉云。似箇大蟲。

師普請擇蕨次。南泉拈起一莖蕨云。這箇大好供養。師云。非但這箇。百味珍羞。他亦不顧。泉云。雖然如是。箇箇須是嘗過始得。

師齋次。南泉収生飯云。生甕。師云。無生。泉云。無生猶是末。泉行數步。師召云。長老。泉云。作甚麼。師云。莫道是末好。

僧問。如何是本來身。師云。舉世無相似。

### 澧州茗溪道行禪師(凡一)

示眾云。吾有大病。非世所醫。

後僧問曹山。承古有言。吾有大病。非世所醫。未審喚作甚麼病。曹云。攢簇不得底病。云一切眾生。還有也無。曹云。人人盡有。云和尚還有也無。曹云。正覓起處不得。云一切眾生。為甚麼不病。曹云。眾生若病。即非眾生。云未審諸佛。還有此病也無。曹云有。云既有。為甚麼不病。曹云。為伊惺惺。

#### 撫州石鞏慧藏禪師(凡四)

本為獵人趨鹿。從馬祖庵前過。乃問。還見我鹿麼。祖云。汝是何人。云射獵人。祖云。汝一箭射幾箇。云一箭射一箇。祖云。汝不善射。云和尚善射否。祖云。善射。云一箭射幾箇。祖云。一箭射一群。云彼此生命。何用射他一群。祖云。既知如是。何不自射。云若教某甲自射。直是無下手處。祖云。這漢曠劫無明煩惱。今日頓歇。師擲下弓箭。投祖出家。

法燈云。且道作麼生是一箭射一群底道理。直是三千大千世界生命。也不消一箭。

師自後。凡有僧來。以弓架箭。示之。

一日三平來。師喚云。看箭。平撥開胸云。此是殺人箭。活人箭又作麼生。師扣弓弦三下。平便作禮。師云。三十年。架一張弓。兩隻箭。只射得半箇聖人。遂拗折弓箭。

平後謁大顛。舉前話。顛云。既是活人箭。為甚麼。向弓絃上辨。平無語。顛云。三十年後。要人舉此話。也難得。

師在厨下作務。祖問。作甚麼。云牧牛。祖云。作麼生牧。云一回入草去。驀鼻拽將來。祖云。子真牧牛也。

師問西堂。汝解捉虛空麼。堂云。解捉。師云。汝作麼生捉。堂以手撮虛空。師云。汝不解捉。堂云。師兄作麼生。師把西堂鼻頭。便拽。堂作痛聲云。大殺拽人鼻孔。直欲脫去。師云。直須恁麼捉。始得。

#### 袁州南源道明禪師(凡二)

示眾云。快人一言。快馬一鞭。有事何不出頭來。無事各自珍重。僧問。如何是一言。師吐舌云。待我有廣長舌相。即向爾道。

洞山來。纔上法堂。師便云。已相見了也。洞便下去。明日却上。問昨日已蒙和尚慈悲。不知甚處是相見處。師云。心心無間斷。流入於性海。洞云。泊合放過。遂辭去。師云。多學佛法。廣作利益。山云。多學佛法。即不問。如何廣作利益。師云。一物莫違。

## 鼎州中邑洪恩禪師(凡二)

仰山來謝戒。師於繩床上。以手拍口云。和和。山從西過東。師又以手拍口云。和和。山從東過西。却於中間而立。然後謝戒。師云。甚麼處得此三昧來。山云。曹溪脫印子學來。師云。汝道。曹溪用此三昧接誰。山云。一宿覺。山却問。和尚甚麼處得此三昧。師云。我於馬大師處。得此三昧。

仰山問。如何得見性去。師云。譬如一室有六窻。內有一獼猴。外有獼猴。從東邊。喚狺狺。獼猴即應。如是。六窻俱喚俱應。山作禮云。適來蒙和尚譬喻。無不了知。更有一事。只如內獼猴瞌睡。外獼猴。欲相見時。如何。師下繩床。捉山手。作舞云。狺狺我與汝相見了也。

崇壽稠云。有人定得此道理麼。若定不得。只是箇弄精魂手脚。佛性義。在甚麼處。

靈巖安云。靈巖有箇獼猴。六根杜絕。一念不生。拽不向前。推不向後。且作麼生喚。若喚得應。許爾具隻眼。若喚不應。也許爾具隻眼。

## 洛京佛光如滿禪師(凡一)

唐順宗問。佛從何方來。滅向何方去。既言常住世。佛今在何處。師云。佛從無為來。滅向無為去。法身等虛空。常在無心處。有念歸無念。有住歸無住。來為眾生來。去為眾生去。清淨真如海。湛然體常住。智者善思惟。更莫生疑慮。

帝又問。佛向王宮生。滅向雙林滅。住世四十九。又言無法說。山河及大地。天地及日月。時至皆歸盡。誰言不生滅。疑情猶若斯。智者善分別。師云。佛體本無為。迷情妄分別。法身等虛空。未嘗有生滅。有緣佛出世。無緣佛入滅。處處化眾生。猶如水中月。非常亦非斷。非生亦非滅。生亦未嘗生。滅亦未嘗滅。了見無心處。自然無法說。

## 潭州三角山總印禪師(凡二)

示眾云。若論此事。眨上眉毛。早是蹉過了也。麻谷出眾云。眨上眉毛。即不問。如何是此事。師云。蹉過了也。谷便掀倒繩床。師便打。

雪竇云。兩箇漢。有頭無尾。眉毛未曾眨上。說甚麼此事蹉過。

尋有僧問。眉毛為甚麼不眨上。寶便打。  
示眾云。凡說法。須用應時應節。  
時有僧問。四黃四赤時如何。師云。三月杖頭挑。云為甚麼滿肚貯氣。師云。爭柰一條繩何。云如何得出氣去。師云。直待皮穿。

### 伊闕伏牛自在禪師(凡二)

吳興李氏子。為馬祖馳書。上忠國師。國師問。馬大師如何示徒。云即心是佛。國師云。是甚麼語話。  
又問。更有甚麼言句。云非心非佛。或云。不是心。不是佛。國師云。猶較些子。  
師却問。未審和尚此問。如何示徒。國師云。三點如流水。曲似刈禾鎌。  
雪竇向猶較些子處。便喝。又向曲似刈禾鎌處云。是甚麼語話。也好與一撈。見之不取。千載難忘。  
示眾云。即心即佛。是無病求藥。非心非佛。是藥病相治。  
僧問。如何是脫洒一句。師云。伏牛山下古今傳。

### 湖南東寺如會禪師(凡四)

始興曲江人也。示眾云。心不是佛。智不是道。劒去久矣。爾方刻舟。  
師問仰山。甚處人。山云廣南人。師云。我聞廣南有鎮海明珠。是否。云是。師云。此珠如何。云白月即隱。黑月即現。云將得來否。云將得來。師云。何不呈似老僧。云某甲昨到瀉山。被索此珠。直得無言可對。無理可伸。師云。真師子兒。善能哮吼。譬如螻蛄蟲。向蚊子眼睫上作窠。於十字街頭。大叫云。土曠人稀。相逢者少。  
仰山來。師云。已相見了也。不用上來。山云。恁麼相見。莫不當麼。師便歸方丈。閉却門。  
仰山舉似瀉山。瀉云。子是甚麼心行。仰山云。若不恁麼。爭識得伊。  
承天宗云。仰山識得東寺。強說道理即不可。設使瀉山親去。也未得與東寺相見。  
師同崔相國。入佛殿。見雀兒。於佛頭上拋糞。乃問。一切眾生。皆有佛性。是否。師云。是。崔云。既有。為甚麼。却向佛頭上拋糞。師云。他終不去鷄子頭上拋。

## 池州魯祖寶雲禪師(凡四)

尋常纔見僧來。便面壁。

南泉聞乃云。我尋常。向師僧道。向佛未出世時會取。尚不得一箇半箇。他恁麼。驢年去。

羅山閑云。陳老師。當時若見。背上與五火抄。何故。為伊會放。不會收。玄沙云。我當時若見。也與五火抄。翠巖芝云。何勞如此。若有僧來見。甚麼知時好。又云。我即不然。未具胞胎時。不得會。會得打折汝腰。妙喜云。魯祖不得。南泉泊乎覷破壁。

洞山來作禮侍立。少頃而出。却再入來。師云。只恁麼只恁麼。所以如此。洞云。大有人不肯。師云。作麼取爾口辨。洞山乃侍奉數月。

僧問。如何是雙林樹。師云。有相身中無相身。云如何是無相身。

師云。金香爐下鐵崑崙。

僧問。如何是不言言。師云。爾口在甚麼處。云某甲無口。師云。尋常將甚麼喫飯。僧無對。

洞山云。他又不飢。喫甚麼飯。雪竇云。好劈脊棒。這漢開口了合不得。合口了開不得。

## 定州柏巖明哲禪師(凡二)

洞山與密師伯到。師問。二上座。甚處來。洞云。湖南來。師云。觀察使姓甚麼。洞云不得姓。師云。名甚麼。云不得名。師云。還理事也無。云自有廓幕在。師云。還出入也無。洞云。不出入。師云。豈不出入。洞拂袖而出。

師次日侵晨入堂。召二上座。二人便出。師云。昨日老僧。對上座一轉語。不稱意。一夜不安。今請上座。別轉語。若愜老僧意。便開粥相伴過夏。洞云。請和尚問。師云。不出入。洞云。太尊貴生。師乃開粥同過夏。

師見藥山看經。師云。老和尚莫獠人好。山置問經云。日頭早晚。師云。正午也。山云猶有文彩在。師云。某甲無亦無。山云老兄好聰明。師云。某甲只恁麼。和尚作麼生。山云跛跛挈挈。百醜千拙。且恁麼過時。

## 京兆府興善惟寬禪師(凡二)

衢州信安祝氏子。僧問道在何處。師云。只在目前。云我何不見。師云。汝有我故。所以不見。云我有我故。所以不見。未審和尚。還見也無。師云。有汝有我。展轉不見。云無汝無我。還見也無。師云。無汝無我。阿誰求見。僧問。狗子還有佛性也無。師云有。云和尚還有也無。師云。無。云一切眾生。皆有佛性。和尚為甚麼。却無。師云。我非一切眾生。云既非眾生。莫是佛否。師云。不是佛。云究竟是何物。師云。亦不是物。云可見可思否。師云。思之不及。議之不得。故云不可思議。

### 洪州百丈惟政禪師(凡二)

一日謂眾云。汝等為我開田。我為汝說大義。僧開田了。云請和尚說大義。師展開兩手。

白雲端云。百丈說大義。止於此。當時再參馬祖底。向甚麼處去也。若言更有。未免為蛇畫足。且作麼生。得知百丈老人立地處。客來無茶點。苛湯備禮儀(作大智語拈。誤也)。

師問南泉。從上知識。還有不為人說底法麼。泉云有。師云。作麼生是不為人說底法。泉云。不是心。不是佛。不是物。師云。恁麼則說了也。泉云。某甲只恁麼。和尚又作麼生。師云。我又不是善知識。爭知有說不說。泉云。某甲不會。師云。我太煞為汝說了也。

大滄喆云。百丈只知瞻前。不知顧後。待他道某甲不會。但云。我更不會。非唯與南泉。為師為匠。亦乃與天下人。為師為匠。

### 洪州泐潭法會禪師(凡一)

師問馬大師。如何是祖師西來意。大師云。低聲。復召師。近前來。師近前。大師打一掌云。六耳不同謀。且去明日來。師明日再問。大師云。待老漢上堂時。出來。與汝證明。師於此有省。

### 洪州泐潭常興禪師(凡二)

師因行食。與龐居士。士接食。師縮手云。生心受施。淨名早訶。去此一機。居士還甘否。士云。當時善現。豈不作家。師云。干他

甚麼事。士云。食到口邊。被人奪却。師便下食。士云。不消一句子。

居士問。馬大師著實為人處。還分付師麼。師云。我尚不見他。作麼生知他著實處。士云。只此見解。也無討處。師云。居士也不得一向言說。士云。一向言說。師又失宗。若作兩向三向。師還開得口麼。師云。直是開口不得。可謂實也。士撫掌而去。

南泉來。見師面壁而坐。泉撫師背一下。師云。阿誰。泉云普願。師云。如何。泉云。也尋常。師云。汝何多事。

妙喜云。也要驗過。

### 潭州華林善覺禪師(凡三)

常持錫。夜出林麓。一振錫。一稱觀音号。

夾山問。遠聞和尚念觀音。是否。師云然。山云。騎却頭時如何。師云。出頭從爾騎。不出頭騎箇甚麼。山無對。

有僧來。方展坐具。師云。緩緩。云和尚見箇甚麼。師云。可惜許。磕破鐘樓。其僧從此悟入。

裴休相國問師。還有侍者否。師云。有一兩箇。即是不可見客。裴云。在甚處。師喚云。大空小空。俄二虎從庵後而出。裴驚悸。師語二虎云。有客且去。虎咆哮而去。裴問。作何行業。感得如斯。師良久云。會麼。裴云不會。師云。山僧常念觀音。

### 袁州楊歧甄叔禪師(凡二)

示眾云。群靈一源。假名為佛。體竭形消而不滅。金流朴散而常存。性海無風。金波自湧。靈源絕兆。萬象齊照。體斯理者。不言而徧歷河沙。不用而功益玄化。如何背覺返合塵勞。於陰界中。妄自囚執。

禪月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提起數珠。月罔措。師云會麼。云不會。師云。某甲參見石頭來。月云。和尚見石頭。得何意旨。師指底前鹿云。會麼。云不會。師云。渠儂得自由。

### 南嶽西園曇藏禪師(凡一)

因自燒浴次。僧問。和尚不使沙彌童行。何得自燒。師撫掌三下。後僧舉似曹山。山云。一等是箇拍手撫掌。就中西園奇怪。俱抵一指頭禪。蓋謂承當處不諦當。僧云。西園撫掌。豈不是奴兒婢子邊

事。山云是。僧云。向上還有事也無。山云有。僧云。如何是向上事。山叱云。這奴兒婢子。

### 郢州大陽伊禪師(凡一)

因到石林。林云。近日有一般禪師。指教人。了取目前事。作箇為人。還會文彩未彰時也無。師云。擬向這裏置一問。不知可否。林云。答汝已了。莫道可否。師云。還識得目前也無。林云。是日前作麼生識。師云。不免遭人撿點。林云。誰。師云。某甲。林便喝。師退步而立。林云。汝只解瞻前。且不解顧後。師云。雪上更加霜。林云。彼此無便宜。

### 江西北蘭讓禪師(凡一)

師因胡唐亮長老問。承聞師兄。畫得先師真。暫借瞻禮。師撥芻示之。亮便作禮。師云。莫禮莫禮。亮云。師兄莫錯。某甲不禮師兄。師云。爾禮先師真那。云因甚教某甲莫禮。師云。何曾錯。

### 唐州紫玉山道通禪師(凡二)

廬江何氏子。因于頔相公問。佛法至理。乞師一言。師云。相公若問。須去其情理于云便請。師云。但問將來。于云。如何是佛。師召云。于頔。于應諾。師云。更莫別求。

藥山聞乃云。噫可惜。于家箇漢。生埋向紫玉山中。公聞。即躬往藥山。山見乃問。聞相公在紫玉山中。大作佛事。是否。公云不敢。某甲聞和尚道。可惜于家箇漢。生埋向紫玉山中。今日特來。乞師指示。山云。有疑但問。公云。如何是佛。山召于頔。于應諾。山云。是甚麼。于於此有省。

招慶共羅山舉次。慶云。一等是道。藥山甚是奇特。雲泥有隔。羅云。也不得草草。當時賴是于頔。可中草窠裏。撥著箇焦尾大蟲。何處有藥山也。慶云。作麼生。羅云。還知于頔是煨了精金麼。

于公一日問。如何是黑風吹其船舫。漂墮羅剎鬼國。師云。于頔客作漢。問恁麼事。作麼。于失色。師指云。這箇便是黑風漂墮羅剎鬼國。于作禮而謝。

### 磁州馬頭峰神藏禪師(凡一)

示眾云。知而無知。不是無知而說無知。

南泉云。恁麼依師道。始得一半。

黃蘗云。不是南泉剝他話。要圓前話。

### 五臺鄧隱峰禪師(凡八)

邵武鄧氏子。幼若不慧。父母聽其出家。初參馬祖。復來往石頭。兩次不捷。

後問石頭云。如何得合道去。頭云。我亦不合道。師云。畢竟如何。頭云。汝被這箇得。多少時耶。師無對。

後印心馬大師焉。

師在石頭會中。石頭割草次。師在左側而立。頭飛割向師面前。割一株草。師云。和尚只割得這箇。不會割得那箇。頭提起割子。師奪割子。作割草勢。頭云。子只割得那箇。且不會割得這箇。師休去。

師在馬祖會中。一日推車次。馬大師展脚路坐。師云。請師収足。祖云。已展不縮。師云。已進不退。乃推車輾損大師足。祖歸法堂。執斧子云。適來輾損老僧足底。出來。師便出。祖前引頸。祖乃置斧。

師到南泉。泉指淨瓶。問師。淨瓶是境。瓶中有水。不得動著境。與老僧將水來。師拈淨瓶。向南泉面前便瀉。泉休去。

歸宗誠云。鄧隱峰奇怪。要且亂瀉。

師到瀉山。山聞。即具威儀。下堂見師。師見來。便作倒勢。山便歸方丈。師便發去。

少頃。山問侍者。師叔在否。者云。已去了也。山云。有甚言語。云無言語。山云。莫道無語。其聲如雷。

師在襄州破威儀堂。只著襯衣。於砧槌邊立。拈起槌云。道得即不打。眾默然。師便打一下。

法眼云。鄧隱峰奇怪。也甚奇怪。要且打不著。又云。其時一眾。出自偶然。

翠巖芝云。此語有勘破處。且道勘破阿誰。

師曾燒殺一僧。一日現身云。還我命來。師云。爾還死也未。云已死。師云。汝既已死。索命者誰。當下不見。

師將須寂。問眾云。諸方遷化。吾嘗見之。還有立化者也無。眾云有之。師云。還有倒立者否。眾云。未嘗有之。師之倒立而終。亭亭然。其衣順體。昇之不動。

師有妹為尼。見之咄云。老兄在日。不循法律。死亦熒惑於人。以手推之。儼然而踣。遂就闍維。収舍利建塔。

## 潭州龍山和尚(凡二)

問僧甚處來。云老宿處來。師云。有何言句。云說即千句萬句。不說即一字也無。師云。恁麼則蠅子放卵也。僧作禮。師便打。洞山與密師伯到來。師問。此山無路。闍梨向甚麼處來。洞山云。無路且置。和尚從何而入。師云。我不曾雲水。洞山云。和尚住此山。多少時。師云。春秋不涉。洞山云。和尚先住。此山先住。師云。不知。洞山云。為甚麼不知。師云。我不從人天來。洞山云。和尚得箇甚麼。便住此山。師云。我見兩箇泥牛鬪入海。直至如今無消息。便住此山。因作偈云。三間茅屋從來住。一道神光萬境閑。莫把是非來辨我。浮生穿鑿不相干。

## 潭州秀溪和尚(凡一)

因谷山問。聲色純真。如何是道。師云。亂道作麼。山從西過東立。師云。若不恁麼。即禍生。山從東過西立。師下繩床。纔行三兩步。山把住云。聲色純真。又作麼生。師與一掌。山云。三十年後。要一箇下茶。也無。師云。要谷山老漢。作甚麼。山呵呵大笑。

## 鎮州金牛和尚(凡二)

師凡喫飯時。舁飯桶。到堂前。作舞云。菩薩子。喫飯來。乃撫掌呵呵大笑。

長慶稜云。大似因齋慶贊。

雪竇云。金牛不是好心。

雪竇頌云。白雲影裏笑呵呵。兩手持來付與他。若是金毛師子子。三千里外見譎訛。

後有僧。問大光。長慶道。因齋慶贊。意旨如何。光作舞。僧禮拜。光云。見箇甚麼。便禮拜。僧作舞。光云。野狐精。

雪竇頌云。前箭猶輕後箭深。誰云。黃葉似黃金。曹溪波浪如相似。無限平人被陸沈。

## 韶州乳源和尚(凡二)

示眾云。西來的意。也不易舉唱。時有僧出。師劈脊便打云。如今是甚麼時節。出頭來。便歸方丈。

承天宗云。宗乘也不易扶豎。這兩箇漢。扶不起。我道這僧若不出頭。棒須是乳源自喫。

西禪需云。這老漢。雖然不惜身命。入泥入水。其奈瞎却天下人眼。

仰山作沙彌。時念經。師咄云。這沙彌念經。恰似哭。山云。和尚作麼生。師顧視之。山云。若如此。何異於哭。

### 洛京黑澗和尚(凡一)

僧問。如何是密室。師云。截耳臥街。云如何是密室中人。師云。換手槌胸。

### 京兆興平和尚(凡三)

洞山來作禮。師云。莫禮。老朽。山云。禮非老朽。師云。非老朽不受禮。山云。他亦不止。

洞山問。如何是古佛心。師云。即汝心是。山云。猶是某甲疑處。師云。若恁麼。即問取木人去。洞云。某甲有一句子。不借諸聖口。師云。試道看。山云。不是某甲。

洞山辭。師問甚麼處去。山云。汭流無定止。師云。法身汭流。報身汭流。山云。總不作此解。師乃撫掌。

保福展云。洞山別是一家。復召云。覓得幾人。

### 溫州佛嶼和尚(凡二)

師見僧來。以拄杖卓地云。前佛也恁麼。後佛也恁麼。僧云。正恁麼時作麼生。師作圓相示之。僧作女人拜。師便打。

僧問。如何是異類。師敲盃云。花奴花奴。喫飯來。

### 齊峰和尚(凡三)

龐居士來。師云。俗人頻頻入僧寺。討箇甚麼。士顧視左右云。誰恁麼道。師便喝。士云。在這裏。師云。莫是當陽道麼。士云。背後底響。師回首云。看看。士云。草賊大敗。師休去。

居士問。此去峯頂有幾里。師云。甚麼處去來。士云。可殺峻硬。不敢問著。師云。是多少。士云。一二三。師云。四五六。士云。何不道七。師云。纔道七。便有八。士云。得也得也。師云。一任添取。士便喝。師亦喝。

師與居士並行。士前行一步云。我強如師一步。師云。無背向老翁。要爭先在。士云。苦中苦。未是此一句。師云。怕公不甘。士云。我若不甘。齊峯堪作甚麼。師云。若有棒在手。打也不解倦。士便打師一擗云。不多好。師方拈棒。士把住云。這賊今日一場敗關。師笑云。是我拙。是公巧。士撫掌云。平交平交。

### 古寺和尚(凡一)

丹霞來。次日侵晨。粥熟。行者只盛一盃與師。又盛一盃自喫。不顧丹霞。霞遂自去盛粥喫。行者云。五更侵早起。更有夜行人。霞問師。如何不教訓這行者。得與麼無禮。師云。淨地上。不要點污人家男女。霞云。泊不問過。

### 烏臼和尚(凡一)

有玄紹二上座。來參。師問。二禪伯。發足甚處。云江西。師拈棒便打。玄云。久響和尚有此機要。師云。爾既不會。第二箇近前來。紹擬議。師亦打云。同坑無異土。參堂去。

雪竇云。宗師眼目。須是恁麼。如金翅擘海。直取龍吞。有般漢。眼目未辨東西。拄杖不知顛倒。只管說。照用同時。人境俱奪。

大滄喆云。烏臼大似巨靈逞擘大華之威。蒼龍展拏珠之勢。直得乾坤失色。乃拈拄杖云。諸人還識烏臼麼。若也識去。橫按鑊鐮。囊中獨據。若也未識。棒頭有眼明如日。卓拄杖一下。妙喜頌云。烈焰不容蚊蚋泊。大海那能宿死屍。任是三頭并六臂。望風無不豎降旗。

### 石臼和尚(凡一)

馬祖問師。甚處來。師云。烏臼來。祖云。有何言句。師云。幾人於此茫然。祖云。茫然即且置。悄然一句作麼生。師近前三步。祖云。我有七棒。寄打烏臼。你還甘麼。師云。和尚先喫。某甲後甘。

### 松山和尚(凡三)

與龐居士坐次。師拈起尺子云。居士還見麼。士云見。師云。見箇甚麼。云松山。師云。不得道著。云爭得不道。師拋下尺子。士

云。有頭無尾得人憎。師云。不是這老子。還道不及。云不及甚麼處。師云。有頭無尾處。云強中得弱即得。弱中得強即無。師把住云。這老漢。就中無話處。

師與居士喫茶次。士拈起橐子云。人人盡有分。因甚麼道不得。師云。只為人人有分。所以道不得。云阿兄為甚麼道得。師云。不可無言去也。士云。酌然酌然。師便喫茶。士云。阿兄喫茶。何不揖客。師云。誰。士云。龐公。師云。何須再揖。

後丹霞聞舉。乃云。若不是松山。洎被箇老翁作亂一上。士聞。令人傳語丹霞云。何不會取未舉橐時事。

師一日扶杖行次。士見便問。手中是甚麼。師云。年邁。闕伊一步不得。士云。雖然年邁。壯力猶存。師打士一棒。士云。放却手中杖子。別有箇問訊來。師拋下杖子。士云。這老漢。前言不副後語。師便喝。士云。蒼天中更添冤苦。

### 本谿和尚(凡三)

居士問。丹霞打侍者。意作麼生。師云。大老翁。猶見人長短在。云我與師同參。方敢借問。師云。若恁麼。從頭舉來。共爾商量。士云。大老翁。不可說人是非。師云。念公年老。公云。罪過罪過。

師問居士。達磨西來。第一句作麼生道。士云。誰記得。師云。可謂無記性。士云。舊日事。不可東道西說。師云。即今事作麼生。士云。一辭不措。師云。有智人前說。添他多少光彩。士云。阿師眼能大。師云。須是恁麼始得為絕朕之說。士云。眼裏著一物不得。師云。日正盛。難為舉目。士云。穿過髑髏去在。師彈指云。誰辨得伊。士云。這漢有甚麼奇特。師便歸方丈。

師坐次。居士來。師纔顧視。士以拄杖。劃一圓相。師近前踏却。士云。與麼不與麼。師亦劃一圓相。士亦近前踏却。師云。與麼不與麼。士拋下杖而立。師云。來時有杖去時無。士云。幸自圓成。何勞目視。師撫掌云。奇哉一無所得。士拈棒便行。師云。看路看路。

### 石林和尚(凡三)

問居士云。有箇借問。莫惜言句。士云。請舉來。師云。元來惜言句在。士云。這箇問訊。不覺落他便宜。師乃掩耳。士云。作家作家。

師見居士來。遂舉起拂子云。不落丹霞機。試道看。士奪拂子。豎起拳。師云。正是丹霞機。士云。與我不落看。師云。丹霞患啞。龐公患聾。士云。恰是恰是。師不對。士云。向道偶爾。師亦不對。師下茶與居士。士擬接。師縮手云。何似生。士云。有口道不得。師云。須是恁麼始得。士拂袖而出云。也大無端。師云。識得龐公了也。士回首。師云。也大無端。士無語。師云。爾也解無語。

### 浮杯和尚(凡一)

凌行婆問。盡力道不得底句。分付阿誰。師云。浮杯無剩語。婆云。未到浮杯。不妨疑著。師云。別有長處。不妨拈出。婆斂手哭云。蒼天中更添冤苦。師無語。婆云。語不知偏正。理不知倒邪。為人即禍生。

後有僧。舉似南泉。泉云。苦哉苦哉。浮杯被這老婆。折挫一上。婆聞笑云。王老師猶少機關在。

時有澄一禪客。問婆云。南泉為甚麼。少機關在。婆哭云。可悲可痛。一罔措。婆云。會麼。一合掌而立。婆云。伎死禪和。如麻似粟。

後澄一舉似趙州。州云。我若見這臭老婆。問教他口啞。一云。和尚作麼生問他。州便打。一云。為甚麼却打某甲。州云。爾這伎死禪和。不打更待何時。

婆聞乃云。趙州合喫婆手中棒。州聞乃哭云。可悲可痛。婆聞乃云。趙州眼光。爍破四天下。州聞。令人問婆云。如何是趙州眼。婆豎起拳。僧舉似趙州。州作頌寄之云。當機覲面提。覲面當機疾。報汝凌行婆。哭聲何得失。婆答頌云。哭聲師已曉。已曉復誰知。當時摩竭國。幾喪目前機。

### 洞安和尚(凡一)

問僧。近離甚處。云東川。師云。雙澗孤松。煙清月白。那箇是上座主人公。云。始屆洞安。便遭此問。師云。記劍刻舟。破珠求影。豈不是闍梨境界。

僧却問。那箇是洞安正主。師云。途中駒子。不勝驪騮。僧作禮。師云。胡人打令。舞拍全無。

### 百靈和尚(凡三)

路逢龐居士。乃問。南嶽得力句。曾舉似人麼。士云。曾舉來。師云。舉似阿誰。士指芻云。龐公。師云。直是妙德空生。也贊之不及。士却問師。得力句舉似阿誰。師戴笠子便行。士云。善為道路。師更不回首。

師問居士。道得道不得。俱未免。爾且道。未免箇甚麼。士瞬目視之。師云。奇特更無如此也。士云。師錯許人。師云。誰不恁麼。士珍重而去。

師一日。把住居士云。今人道。古人道。居士作麼生道。士打師一掌。師云。不得道著。士云。道必有過。師云。還我一掌來。士近前云。爾試下手看。師拂袖便行。

### 濛溪和尚(凡二)

問僧。甚處來。云定州來。師云。定州近日。有甚奇特事。云某甲到彼。只聞鹽貴米賤。別無奇特事。師云。我這裏。也只是麤茶淡飯。別無奇特事。爾來這裏。覓甚麼。云某甲不會。乞師慈悲。師云。賴爾不會。爾若會。我即輸爾一半道理。首座却問。適來為甚麼道。輸他一半道理。師云。賴得爾舉。老僧泊合忘却。座云。請和尚說。師云。爾却忘前失後。我又忘後失前。座方去。師喚回云。恰不得舉著。近日師僧。只說鹽貴米賤。並不將佛法為事。忽然頻頻舉著。喪却爾性命也不難。

師見僧來。便喝。僧云。好箇來由。師云。猶要棒喫在。僧珍重便出。師云。得能自在。

### 洪州水潦和尚(凡一)

問馬大師。如何是祖師西來意。大師攔芻與一踏。踏倒。當下大悟。起來撫掌。大笑云。也大奇。也大奇。百千法門。無量妙義。只向一毫頭上。識得根源去。便作禮。

蔣山泉云。忽然瞥地。更是好笑。

西禪需云。大小水潦。喫人踢踏了。却道我悟。悟甚麼屎。及乎起來。更不識羞。道向一毫頭上。識得根源去。且莫捏目生花。

住後告眾云。自從一喫馬師踏。直至如今笑不休。且道。笑箇甚麼。

### 打地和尚(凡一)

江西領旨。自晦其名。凡學者扣問。師唯打地一下。  
一日被僧。預藏其棒。然後設問。師回頭尋棒不見。遽云。若在這裏。泊著一棒。

一日有僧。問師門人云。和尚凡有所問。唯打地一下。意旨如何。門人於竈下。拈一片柴。擲于釜中。

妙喜云。養子不及父。家門一世衰。

### 利山和尚(凡一)

僧問。眾色歸空。空歸何所。師云。舌頭不出口。云為甚麼不出口。師云。內外一如故。

### 洪州西山亮公座主(凡一)

蜀人也。馬祖問師。承聞座主。大講得經論。是否。師云。不敢。祖云。將甚麼講。師云。將心講。祖云。心如工伎兒。意如和伎者。爭解講得經。師抗聲云。心既講不得。莫是虛空講得麼。祖云。却是虛空講得。師拂袖而出。

祖召云。座主。師回首。祖云。是甚麼。師於言下大悟。遂作禮。祖云。鈍根阿師。禮拜作麼。師自此。隱于西山。

### 則公首座(凡三)

蜀人也。因號則川。與龐居士摘茶次。士問。法界不容身。師還見我否。師云。不是老僧。泊答公話。士云。有問有答。也是尋常。師不對。士云。莫怪適來容易。師亦不對。士喝云。這無禮儀漢。待我一舉似明眼人去在。師拋下茶籃。便歸。

雪竇云。則川只解把定封疆。不能同生同死。當時與他。捋下幞頭。誰敢喚作龐居士。

師坐次。居士來云。只知端居丈室。不覺僧到參。時師垂下一足。士出行三兩步。却回。師乃収足。士云。可謂自由自在。師云。我是主。士云。阿師只知有主。不知有客。師喚侍者點茶來。士作舞而出。

師問居士。記得初見石頭時道理麼。士云。猶得阿師舉在。師云。情知久參事慢。士云。則川老耄。不啻龐公。師云。二彼同時。又爭幾許。士云。龐公鮮健。且勝阿師。師云。不是勝我。只是欠爾一箇幞頭。士拈下幞頭云。恰與阿師相似。師大笑而已。

聯燈會要卷第五

南嶽下第三世

江西馬祖道一禪師法嗣

襄州龐蘊居士(凡十五)

衡州衡陽人也。士問石頭。不與萬法為侶者。是甚麼人。頭以手掩士口。士於此有省。後問馬大師。大師云。待汝一口吸盡西江水。即向汝道。士於言下大悟。乃述偈云。十方同聚會。箇箇學無為。此是選佛場。心空及第歸。

石頭問居士。子自見吾後。日用事作麼生。士云。若問日用事。直是無開口處。頭云。知子恁麼。方始問。士呈一喝云。日用事無別。唯吾自偶諧。頭頭非取捨。處處勿張乖。朱紫誰為號。丘山絕點埃。神通并妙用。運水及般柴。石頭然之。

居士問。馬大師云。不昧本來人。請師高著眼。馬祖直下覷。士云。一種沒絃琴。唯師彈得妙。馬祖直上覷。士作禮。祖便歸方丈。士隨後入云。弄巧成拙。

雲峰悅云。且道賓家弄巧成拙。主家弄巧成拙。還有人揀得出麼。若揀得出。三十棒。一棒也不較。若揀不出。來年更有新條在。惱亂春風卒未休。

居士見丹霞來。士不語。亦不起。霞提起拂子。士拈起槌子。霞云。只恁麼。別更有在。士云。此回見師。不似於前。霞云。不妨減人聲價。士云。本來要折倒爾一上。霞云。與麼則啞却天然口去。士云。啞却汝口猶閑。累我亦啞却。霞擲下拂子。便行。士召云。然闍梨然闍梨。霞不顧。士云。不唯患啞。兼亦患聾。

居士訪丹霞。於霞前。立少時。便出去。霞不顧。士却來坐。霞却來士前。立少時。便歸方丈。士云。汝出我入。未有事在。霞云。大老翁。出出入入。有甚了期。士云。略無些子慈悲。霞云。引得箇漢。到這田地。士云。把甚麼引。霞拈起居士幞頭云。恰似一箇師僧。士拈幞頭。安霞頭上云。恰似一箇俗人。霞應喏三聲。士云。猶有些子氣息在。霞拋下幞頭云。大似箇烏紗巾。士亦應諾三聲。霞云。昔時氣息。爭解忘得。居士彈指三下云。動天動地。居士見丹霞。霞作走勢。士云。猶是拋身勢。作麼生是嘖呻勢。霞便坐。士近前。以拄杖。劃箇七字。霞於下畫箇一字。士云。因七

見一。見一忘七。霞便起去。士云。更坐少時。猶有第二句在。霞云。向這裏著語得麼。士遂哭出去。

居士見大同濟禪師。乃提起擔籬。召云大同。濟不應。士云。石頭一宗。到師瓦解冰消。濟云。不得居士。酌然如是。士拋下擔籬云。寧知不直一文錢。濟云。雖然不直一文錢。欠他又爭得。士作舞而出。濟提起擔籬。召云居士。士回首。濟亦作舞而去。士撫掌云。歸去來。歸去來。

居士辭藥山。山命十人禪客。相送及門首。士指空中雪云。好雪片片。不落別處。有全禪客。云落在甚麼處。士與一掌。全云。居士。也不得草草。士云。汝恁麼稱禪客。闍老子。未放爾在。全云。居士作麼生。士又與一掌云。眼見如盲。口說似啞。

居士見僧緣化。遂將一錢。謂之云。不辜信施。試道看。若道得即捨。僧無對。士云。汝問我。待我與汝道。僧躡前問。士云。少人聽。又云會麼。僧云。不會。士云。是誰不會。

居士因入講肆。隨喜金剛經。至無我無人處。士問。既無我又無人。誰講誰聽。座主無對。却問居士。意作麼生。士示一偈云。無我復無人。作麼有疎親。勸君休歷座。不似直求真。金剛般若性。外絕一點塵。我聞并信受。總是假名陳。

居士謂女子靈照云。古人道。明明百草頭。明明祖師意。照云。老老大大。作這箇語話。士云。爾又作麼生。照云。明明百草頭。明明祖師意。士笑而已。

居士賣擔籬。下橋喫撲。照一見。亦去身邊倒。士云。作甚麼。照云。見爺喫[偵\*頁]。故來相扶。士便起去。

居士一日自語云。難難。十碩油麻樹上攤。龐婆應聲云。易易。百草頭邊祖師意。靈照云。也不難也不易。飢來喫飯困來睡。

居士有偈云。心如境亦如。無實亦無虛。有亦不管。無亦不拘。不是賢聖。了事凡夫。易復易。即此五蘊有真智。十方法男一乘同。無相光中豈有二。若捨煩惱人菩提。不知何方是佛地。

又云。有男不婚。有女不嫁。大家團欒頭。共說無生話。

居士將順世。令靈照視日。及午即報。照須臾報云。日已中。而有蝕也。士出觀。照即登父座。合掌而逝。士入見。笑云。我女鋒捷矣。又延七日。

州牧于頔問疾。居士告之云。但願空諸所有。慎勿實諸所無。好住世間。皆如影響。言訖。枕公膝而逝。

#### 南嶽下第四世

#### 池州南泉普願禪師法嗣

## 趙州觀音從諗禪師(凡七十)

曹州郝氏子。初謁南泉。值泉偃息次。泉問。近離甚處。師云。瑞像。泉云。還見瑞像麼。師云。瑞像即不見。只見臥如來。泉遂起問。爾是有主沙彌。無主沙彌。師云。有主。泉云。那箇是爾主。師云。孟春猶寒。伏惟和尚尊體。起居萬福。泉喚維那云。此沙彌。別處安排著。

師問南泉。如何是道。云平常心是道。師云。還假趣向也無。泉云。擬向即乖。師云。不擬。爭知是道。泉云。道不屬知。不屬不知。知是妄覺。不知是無記。若真達不擬之道。猶如太虛。廓然蕩豁。豈可強是非耶。師於言下。頓領深旨。

南泉垂語云。今時人。須向異類中行。始得。師便問。異即不問。如何是類。泉以兩手托地。師近前一踏踏倒。却向涅槃堂。叫云。悔悔。泉令侍者問。汝悔箇甚麼。師云。悔不更與兩踏。

師在井樓上。打水。見南泉從下過。師抱樓柱。懸雙脚云。相救相救。泉以手敲扶梯云。一二三四五。師遂下樓。具威儀。上方丈。作禮云。適來謝和尚相救。

師問南泉。離四句。絕百非。請師道。泉下座歸方丈。師云。這老漢。尋常口吧吧地。今日被我一問。直得無言可對。無理可伸。侍者云。莫道和尚無語好。師打侍者一擱云。這一擱。合是王老師喫。

師問南泉。明頭合。暗頭合。泉便歸方丈。師歸堂云。老和尚。被我一問。直得無言可對。無理可伸。首座云。莫道和尚無語。自是上座不會。師打首座一掌云。這一掌。合是堂頭老漢喫。

五祖戒云。正賊走了。邏蹤人喫棒。

又云。南泉當斷不斷。返招其亂。

南泉見浴頭燒浴。乃云。記取來。請水牯牛。浴頭應諾。至晚上方丈云。請水牯牛浴。泉云。還將得繩索來麼。頭無對。

泉舉似師。師云。某甲有語。泉躡前問。師近前。驀鼻便拽。泉云。是則是。太羸生。

師在南泉作爐頭。一日閉却僧堂門。燒滿屋煙。叫云。救火救火。大眾俱來。師云。道得即開門。眾無對。泉將鎖匙。牕間度與師。師便開門。

師到百丈。丈問。近離甚處。師云。南泉。丈云。有何言句。師云。未得之人。直須悄然去。丈便喝。師作怕勢。丈云。大好悄然。師作舞而退。

瑯琊覺云。趙州老人。向師子窟中。換得爪牙。

師到黃蘗。蘗見來。閉却方丈門。師於法堂上。叫云。救火救火。蘗開門。攔胸扭住云。道道。師云。賊過後張弓。

雪竇云。直是好笑。笑須三十年。忽有箇衲僧。問雪竇笑箇甚麼。笑賊過後張弓。

師到雲居。居云。老老大大。何不覓箇住處。師云。甚麼處是某甲住處。居云。山前有箇古寺基。師云。和尚自住取好。

後到茱萸。萸云。老老大大。何不覓箇住處。師云。甚麼處是某甲住處。萸云。老老大大。住處也不知。師云。三十年弄馬騎。今日被驢撲。

大滄喆云。雲居茱萸。為人如為己。爭柰趙州不入繆績。然雖如是。不得雪霜力。焉知松柏操。

師到茱萸。將拄杖。於法堂上。從西過東。從東過西。茱萸云。作甚麼。師云。探水。萸云。我這裏。一滴也無。探箇甚麼。師靠却拄杖。便去。

瑯琊覺云。世亂奴欺主。時衰鬼弄人。

師一日又到茱萸。纔上法堂。萸云。看箭。師亦云。看箭。萸云。過。師云。中。

雪竇云。二俱作家。蓋是茱萸趙州。二俱不作家。箭鋒不相拄。直饒齊發齊中。也只是箇射垛漢。

師訪道吾。吾見來。著豹皮裩。把桔撩棒。於三門外。等候。纔見師來。便高聲唱喏而立。師云。小心祇候著。吾又唱喏一聲而去。師到保壽。壽見來。便背面而坐。師展坐具。壽便起歸方丈。師收坐具。便下去。

保福展云。保壽忘頭失尾。趙州平地喫交。

師訪一庵主。問云。有麼有麼。主豎起拳。師云。水淺不是泊舡處。又訪一庵主。云有麼有麼。主亦豎起拳。師云。能縱能奪。能殺能活。便作禮。

雲居舜云。趙州當時甚生意氣。雖然如是。要且鼻孔在二庵主手裏。教忠光云。趙州氣宇如王。向二庵面前。永消瓦解。

有一老宿。問師。近離甚處。師云。滑州。宿云。幾程到。師云。一躡到。宿云。好箇捷疾鬼。師云。萬福大王。宿云。參堂去。師云。諾諾。

師欲游五臺。有老宿。作偈相留云。何處青山不道場。何須策杖禮清涼。雲中縱有金毛現。正眼看來非吉祥。師云。作麼生是正眼。宿無對。

示眾云。金佛不度爐。木佛不度火。泥佛不度水。真佛內裏坐。菩提涅槃。真如佛性。盡是帖體衣服。亦名煩惱。不問即無煩惱。且實際理地。甚麼處著。一心不生。萬法無咎。汝但究理而坐。二三

十年。若不會。截取老僧頭去。夢幻空花。徒勞把捉。心若不異。萬法一如。既不從外得。更拘執箇甚麼。如羊相似。亂拾物安口裏。老僧見藥山和尚道。有人問著。便教合取口。老僧亦教合取口。取我是垢。不取我是淨。一似獵狗相似。專欲喫物。佛性義。在甚處。這裏千人萬人。盡是覓佛漢子。覓一箇道人無。若與空王為弟子。莫教心病最難醫。未有世界。早有此性。世界壞時。此性不壞。自從一見老僧後。更不是別人。只是箇主人公。這箇更用向外覓作麼。正恁麼時。莫轉頭換腦。若轉頭換腦。即失却去也。時有僧問。承聞和尚有言。世界壞時。此性不壞。如何是此性。師云。四大五蘊。云此猶是壞底。如何是此性。師云。四大五蘊。

法眼云。是一箇。是兩箇。是壞。是不壞。且作麼生會。試斷看。

示眾云。此事的的。沒量大人。出這裏不得。老僧到滄山。見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山云。與我過床子來。若是宗師。須以本分事。接人。始得。

時有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庭前栢樹子。僧云。和尚莫將境界示人。師云。我不將境界示人。僧云。如何是祖師西來意。州云。庭前栢樹子。

五祖戒云。和尚何以將別人物。作自己受用。

示眾云。兄弟莫久立。有事商量。無事向衣鉢下窮理好。老僧行脚時。除二時粥飯。是雜用心。餘外。更無別用心處。若不如此。出家大遠在。

示眾云。爾若一生。不離叢林。不語十年五載。無人喚爾。作啞漢。已後佛也不奈爾何。

示眾云。兄弟若從南方來者。即與下載。若從北方來者。即與上載。所以道。近上人問道即失道。近下人問道即得道。兄弟正人說邪法。邪法悉皆正。邪人說正法。正法悉皆邪。諸方難見易識。我這裏易見難識。

示眾云。此事如明珠在掌。胡來胡現。漢來漢現。老僧將一枝草。作丈六金身。將丈六金身。作一枝草。佛即是煩惱。煩惱即是佛。示眾云。纔有是非。紛然失心。還有答話分也無。

後僧舉似洛浦。浦扣齒。又舉似雲居。居云。何必。僧回舉似師。師云。南方大有人。喪身失命。僧云。請和尚舉。師纔舉。僧指傍僧云。這僧作恁麼語話。師便休去。

示眾云。至道無難。唯嫌揀擇。纔有語言。是揀擇。是明白。老僧不在明白裏。是汝諸人。還護惜也無。僧云。和尚既不在明白裏。護惜箇甚麼。師云。我亦不知。云和尚既不知。為甚麼道不在明白裏。師云。問事即得。禮拜了退。

師小參。示眾云。今夜答話去也。有會問者。出來。時有僧。纔出禮拜。師云。拋擲引玉。引得箇墜子。

後法眼問覺鐵背。先師意作麼生。覺云。如國家拜將。乃問。甚人去得。或云。某甲去得。復云。汝去不得。眼云我會也。

雪竇云。靈利漢。聞舉便知落處。然雖如是。放過覺鐵背。夫宗師語不虛發。出來必是作家。因甚麼拋擲引墜。諸禪德。要識趙州麼。從前汗馬無人識。只要重論蓋代功。

師垂語云。佛之一字。吾不喜聞。又云。不識玄旨。徒勞念靜。僧問。如何是玄旨。師云。壁上挂錢財。

師垂語云。我向行脚。到南方時。火爐頭。有箇無賓主話。直至如今。無人舉著。

師一日。於雪中倒。叫云。相救相救。時有一僧。却去師邊臥。師便起去。

翠巖芝云。這僧在趙州綉裏。還有人出得麼。

師因侍者報云。大王來。師起身鞠躬云。萬福。大王。者云未到在。師云。又道來也。

黃龍南云。頭頭漏泄。罕遇仙陀。侍者只解報客。不知身在帝鄉。趙州入草求人。不覺渾身泥水。

師與文遠論義。鬪劣不鬪勝。勝者輸胡餅。遠云。請和尚立義。師云。我是一頭驢。遠云。某甲是驢胃。師云。我是驢糞。遠云。某甲是糞中蟲。師云。爾在彼作甚麼。遠云在彼過夏。師云。把將胡餅來。

師聞沙彌喝參。乃向侍者道。教伊去。者纔教去。沙彌便珍重。師謂傍僧云。沙彌得入門。侍者在門外。

雲居錫云。甚麼處是沙彌得入門。侍者在門外處。這裏會得。便見趙州。

有僧辭。師問。甚麼處去。云諸方學佛法去。師云。有佛處不得住。無佛處急走過。三千里外。逢人不得錯舉。僧云。恁麼則不去也。師云。摘楊花摘楊花。

師座下。有二僧。相推不肯作第一座。主事白師。師云。總教作第二座。主事云。第一座教誰作。師云。裝香著。云裝香了也。師云。戒香定香慧香解脫香。

有僧辭往雪峰。師云。雪峰忽問汝。和尚有何言句。作麼生祇對。云某甲道不得。請和尚道。師云。冬即言寒。夏即言熱。

又云。忽更問汝。畢竟事作麼生。汝又如何。僧又云。道不得。師云。但道。某甲親從趙州來。不是傳語漢。

其僧到雪峰。峰問。甚處來。云趙州。峰云。有何言句。僧舉前話。峰云。須是我趙州始得。

玄沙云。大小趙州。敗闕也不知。

師問僧。發足甚處。云雪峰。師云。有何言句。云尋常道。盡大地。是沙門一隻眼。爾等諸人。向甚麼處屙。師云。上座若回。寄箇鍬子去。

雪竇云。這僧既不從雪峰來。可惜趙州鍬子。

琅琊覺云。眾中有云。寄鍬子去埋却。趙州若道寄鉢盂去。便道盛粥飯。用狂解夢見。作麼商量。不是僧繇手。徒說學丹青。

師見僧掃地。遂問。與麼掃。還得淨潔也無。僧云。轉掃轉多。師云。豈無撥塵者。僧云。誰是撥塵者。師顧視云。會麼。僧云。不會。師云。問取雲居去。

僧問雲居。居云。這瞎漢。

師指火。問僧云。這箇是火。爾不得喚作火。僧無對。師筈火。示之云。會麼。云不會。師云。此去舒州有投子和尚。汝往問之。必為汝說。

其僧到投子。子問。甚處來。云趙州。子云。有何言句。僧舉前話。子云。爾作麼生會。云某甲不會。乞師指示。子下繩床。行三兩步。却問云。會麼。云不會。

僧回舉似師。師云。投子恁麼。不較多也。

師與文遠行次。師云。這裏好作箇巡鋪。遠於路傍立。伸手云。把將公驗來。師打遠一擲。遠云。公驗分明過。

師一日在東司。見文遠過。驀召云。文遠。遠應諾。師云。東司上。不可與汝說佛法。

師在僧堂後。逢一僧。師問云。大眾向甚麼處去。云普請去。師袖中取刀。度與僧云。老僧住持事繁。請上座為我斫倒却。乃引頸向前。其僧便走。

師掃地次。僧問。大善知識。為甚麼却有塵。師云。外來底。云既是清淨伽藍。為甚麼有塵。師云。又一點也。

師問新到。曾到此間否。云曾到。師云。喫茶去。

又問。一僧。僧云。不曾到。師云。喫茶去。

院主問。為甚曾到此間。喫茶去。不曾到此間。也喫茶去。師召院主。主應諾。師云。喫茶去。

保福展云。趙州慣得其便。後鏡清舉。問僧云。作麼生。僧便出去。清云。邯鄲學唐步。

雪竇云。這僧不是邯鄲人。為甚却學唐步。若辨得出。與爾茶喫。

僧寫真呈師。師云。且道似老僧。不似老僧。若似。即打殺老僧。若不似。即燒却。僧無對。

師問僧。甚處來。云南方來。師云。還知有趙州關麼。云須知有不涉關者。師云。這販私鹽賊。

僧問。至道無難。唯嫌揀擇。如何是不揀擇。師云。天上天下。唯我獨尊。云此猶是揀擇。師云。田庫奴。甚麼處是揀擇。

僧問。至道無難。唯嫌揀擇。和尚如何為人。師云。何不引盡此語。云某甲只念。得到這裏。師云。只這至道無難。唯嫌揀擇。師問僧。曾看法華經麼。云曾看來。師云。衲衣在空閑。假名阿練若。誑惑世間人。作麼生會。僧擬議。師云。爾披衲衣來麼。僧云。披來。師云。莫惑我。僧云。如何得不惑去。師云。莫取我語。

師問座主。講甚麼經。云涅槃經。師云。問大德一段義。得麼。主云。問甚麼義。師以脚踢空吹一吹云。是甚麼義。主云。經中無此義。師云。脫空謾語漢。此是五百力士揭石義。

有老宿代云。和尚謾某甲。謾大眾。

雪竇云。和尚慣得其便。

僧問。狗子。還有佛性也無。師云無。

五祖演頌云。趙州露刃劍。寒霜光焰焰。更擬問如何。分身作兩段。妙喜頌云。有問狗佛性。趙州答云無。言下滅胡族。猶為不丈夫。

僧云。上至諸佛。下及螻蟻。皆有佛性。狗子。為甚麼却無。師云。為伊有業識在。

真淨文頌云。言有業識在。誰云意不深。海枯終見底。人死不知心。

僧問。晝生兜率。夜降閻浮。於中摩尼。為甚麼不現。師云。道甚麼。僧再問。師云。毗婆尸佛早留心。直至如今不得妙。

僧問。學人乍入叢林。乞師指示。師云。喫粥了也未。云喫粥了。師云。洗鉢盂去。其僧。言下大悟。

雲門云。且道有指示。無指示。若言有。趙州向伊道甚麼。若言無。這僧因甚悟去。雪竇云。我不似雲門。為蛇盡足。直言向爾道。問者如蟲禦木。答者偶爾成文。然雖與麼。瞎却衲僧眼。作麼生免得此過。諸仁者。要會麼。還爾趙州喫粥了也。未拈却這僧喫粥了。雪竇與爾拄杖子。歸堂。

雪峯悅云。雲門恁麼道。大似為蛇畫足。黃門栽鬚。雲峯則不然。這僧於此悟去。入地獄如箭射。

妙喜云。雲門雲峰。更數百生。為善知識。也未夢見洗鉢盂話在。又云。諸方瞎長老。往往盡作洗鉢話會。

僧問。二龍爭珠。誰是得者。師云。老僧只管看。

雪竇云。看即不無。爭則不得。且道。扶這僧。扶趙州。

師問僧。甚處來。云南方。師云。佛法盡在南方。汝來這裏作甚麼。云佛法豈有南北。師云。饒汝從雪峰雲居來。也只是箇擔版漢。

僧問。言詮不到處。請師直道。師云。老僧耳背多時。僧繞繩床一匝云。請師直道。師亦繞繩床一匝云。百千諸佛。皆從此門而入。僧云。如何是百千三昧門。師便打。

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云。貓兒是一百五十文買。云我不問貓兒。如何是佛法大意。師云。這橐子。是大王送來。云謝師答話。師云。作家師僧。天然有在。

僧問。如何是佛。師云。殿裏底。云殿裏底。豈不是泥龕塑像。師云是。云如何是佛。師云。殿裏底。

僧問。久響趙州石橋。到來只見略約。師云。汝只見略約。且不見石橋。云如何是石橋。師云。度驢度馬。

雪竇頌。孤危不立道方高。入海還須釣巨鰲。堪笑同時灌谿老。解言劈箭亦徒勞。

僧問。如何是玄中玄。師云。汝玄來。多少時了也。云玄來久矣。師云。汝若不遇老僧。幾被玄殺。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敲床脚。示之。僧云。莫只這是麼。師云。若是。便脫取去。

僧問。如何是趙州。師云。東門西門南門北門。

雪竇頌云。句裏呈機劈面來。爍迦羅眼絕纖埃。東西南北門相對。無限輪鎚擊不開。

有官人問。和尚還入地獄也無。師云。老僧末上入。云既是大善知識。為甚麼却入地獄。師云。我若不入。教阿誰教化爾。

真定帥王公來。師坐而問云。會麼。王云不會。師云。自小持齋今已老。見人無力下繩床。

後軍將來。師却下繩床。侍者問。和尚見大王。不下繩床。軍將來。為甚麼却下繩床。師云。非汝所知。上等人來。繩床上接。中等人來。下繩床接。下等人來。三門外接。

師問婆子。甚麼處去。云偷趙州筍去。師云。忽遇趙州時如何。婆便掌。師便休。

雪竇云。好掌。更下兩掌。也無勘處。

婆子問云。和尚住在甚處。師云。趙州東院西。婆無語。師歸寺問僧。爾道。使那箇西字。或云。東西字。或云。棲泊字。師云。汝總作得鹽鐵判官。僧云。師意如何。師云。為汝總識字。

臺山下有婆子。凡有僧。問臺山路。向甚麼處去。便云。驀直去。僧纔行。婆云。好箇師僧。又恁麼去。每每如斯。僧舉似師。師

云。待我與汝勘過。明日便去。亦如是問。婆亦如是答。師歸謂眾云。婆子。我為汝勘破了也。

玄覺徵云。前來也恁麼問答。後來也恁麼問答。且那裏是趙州勘破婆子處。又云。非唯被趙州勘破。亦破這僧勘破。瑯琊覺云。大小趙州。去這婆子手中。喪身失命。雖然如是。錯會者多。

大滄喆頌云。叢林老作世無儔。凜凜威風四百州。一擊鐵關成粉碎。恩大難將雨露酬。

僧問。萬法歸一。一歸何處。師云。我在青州。作一領布衫。重七斤。

問。四山相逼時如何。師云。無路是趙州。

問。初生孩子。還具六識也無。師云。急水上打毬子。

問。如何是毗盧頂相。師云。老僧不曾眼花。

承聞和尚。親見南泉。是否。師云。鎮州出大蘿蔔頭。

問。十二時中。如何用心。師云。汝被十二時使。老僧使得十二時。

問。澄澄絕點時如何。師云。這裏不著客作漢。

問。如何是趙州一句。師云。老僧半句也無。

問。道人相見時如何。師云。呈漆器。

師將示寂。寄拂子。與真定帥王公。謂僧云。若問何處得來。但道。老僧平生用不盡底。

師於唐乾寧四年。十一月二日。右脇而寂。壽一百二十。

### 衢州子湖利蹤禪師(凡十)

澶州周氏子。示眾云。諸法蕩蕩。何絆何拘。汝等於中。自生難易。心源一統。綿亘十方。上上根人。自然明白。不見南泉道。如斯癡鈍。世且還稀。歷歷分明。有無不是。只少箇丈夫之志。致見如斯疲勞。汝今欲得易會麼。自古及今。未嘗有箇凡夫聖人。出現汝前。亦無一箇善語惡語。到汝分上。為甚麼如此。故為善善無形。為惡惡無相。既已無我。將甚麼為善惡。立那箇是凡聖。汝還信否。還保任否。有甚麼回避處。恰似日中。逃影相似。還逃得麼。今之既爾。古之亦然。今古齊時。汝還諱得麼。佛法玄妙。了得者自相策發。無為小緣。妨於大事。汝不見道。寧可終身立法。誰能一旦忘緣。仁者要徑會禪麼。各歸衣鉢下看取。

示眾云。祖師西來。也只是箇冬寒夏熱。夜暗晝明。只為爾徒無意立意。無事立事。無內外。強作內外。無東西。謾說東西。所以奢摩不能明了。以至根境。不能自由。

時有僧問。如何得不被根境惑去。師云。爾試點惑底境出來看。云某甲不見。師云。汝既不見。惑境何來。僧作禮。師云。又見妄想去也。

示眾云。幸自可憐生。苦死向人前。討些子聲色唇吻作麼。我且問爾。聲色兩字。作麼生討得。還會麼。我道聲色如泡。為復為爾說破。為復為爾討聲色。試商量看。莫生容易。若了根源。終非他物。譬如圓鏡。男來男現。女來女現。乃至僧俗青黃。山河萬法。隨其色相。一鏡傳輝。不可是鏡有多般。但能映物而露。仁者還識得鏡也未。若不識鏡。盡被男女青黃。山河等類。礙汝光明。有甚麼出氣處。若識鏡去。乃至青黃男女。大地山河。有想無想。四足多足。胎卵情生。天堂地獄。咸於一鏡中。悉得其分劑。長短劫數。若色若空。並能了知。更非他物。汝豈不聞。諸法如義。光陰迅速。莫謾悠悠。大事因緣。決須了取。

示眾云。仁者還知子湖親切相為麼。行時但行。坐時但坐。乃至喫茶喫飯。種種施為。有甚麼相隱處。仁者信取。無別強為。只是汝今無疑作疑。無事生事。於自心源。却生顛倒。譬如百千澄清大海。棄之。唯認些子浮漚。目為全潮。亦如認些子螢光。作於日焰。還生慚耻麼。諸聖得道得果。數如恒沙。汝今却作箇下劣凡夫著。恰莫因循。

師於三門下。立一牌。牌上題云。子湖有狗。上取人頭。中取人心。下取人足。擬議即喪身失命。

僧問。如何是子湖狗。師云。嗥嗥。

臨濟下有二僧來。纔揭簾。師便喝云。看狗。僧回首。師便歸方丈。

雪竇云。我當時若見。先與他斫却牌。然後入寺。待這漢云看狗。與他放出箇焦尾大虫。如今諸人。要見麼。日勢稍晚。歸堂。

劉鐵磨來。師問。莫是劉鐵磨麼。云不敢。師云。左轉右轉。云和尚莫顛倒。師便打。

師與勝光鋤園次。師亞纜。回顧光云。事即不無。擬心即差。光云。如何是事。師攔芻與一踏。光於此大悟。

師一夜。於半夜時。在後架。叫云。賊賊。眾皆驚起。有一僧。被師搗住。云捉得也。捉得也。僧云不是。某甲。師云。是即是。只是爾不肯承當。

師有偈云。三十年來住子湖。二時齋粥氣力羸。無事上山行一轉。試問時人會也無。

終南山雲際師祖禪師(凡一)

師問。南泉云。摩尼珠人不識。如來藏裏親收得。如何是藏。泉云。王老師與爾往來者是。師云。不往來者鬻。泉云。亦是。又問。如何是珠。泉召云師祖。師應諾。泉云。去汝不會我意。師於此悟入。

雪竇向往來處。著語云。草裏漢。向亦是藏處。著語云。雪上加霜。

又向如何是珠處。別云嶮。百尺竿頭作伎倆。不是好手。這裏著得隻眼。竇主互換。便能深入虎穴。或不恁麼。縱饒師祖悟去。也是龍頭蛇尾。

### 荊州白馬曇照禪師(凡一)

常云。快活快活。臨順寂時。叫云苦苦。又云。閻老子來。取我也。院主問。和尚當時。被節度使拋向水中。神色不變。如今何得如此。師提起枕头云。汝道。當時是。如今是。主無對。師投枕而終。

### 湖南長沙景岑禪師(凡一十九)

示眾云。我若一向舉揚宗教。法堂前。草深一丈。我事不獲已。所以向諸人道。盡十方世界。是沙門一隻眼。盡十方世界。是沙門全身。盡十方世界。是自己光明。盡十方世界。在自己光明裏。盡十方世界。無有一人。不是自己。我尋常。向爾諸人道。三世諸佛。共盡法界眾生。是摩訶般若光。光未發時。諸人向甚麼處委悉。光未發時。尚無佛無眾生消息。何處得山河國土來。

僧問。如何是沙門眼。師云。長長出不得。僧擬議。師云。成佛成祖出不得。六道輪迴出不得。僧云。未審出箇甚麼不得。師云。晝見日夜見星。僧云。不會。師云。妙高山色青又青。

師遣僧。問同參會禪師云。和尚見南泉後如何。會不對。僧云。和尚未見南泉已前作麼生。會云。不可更別有也。僧回舉似師。師示以偈云。百尺竿頭坐底人。雖然得入未為真。百尺竿頭須進步。十方世界現全身。

時有僧問。百尺竿頭。如何進步。師云。澧州山朗州水。僧云。不會。師云。四海五湖皇化裏。

華嚴座主問。虛空為是定有。為是定無。師云。言有亦得。言無亦得。虛空有時。但是假有。虛空無時。但是假無。僧云。如和尚所說。有何教文。師云。大德豈不聞。首楞嚴經云。十方虛空。生汝心內。猶如片雲。點太清裏。豈不是虛空生時。但生假名。又云。

汝等一人。發真歸源。十方虛空。悉皆消殞。豈不是虛空滅時。但滅假名。老僧所以道。有是假有。無是假無。

僧問。如何是文殊。師云。墻壁瓦礫是。云如何是觀音。師云。音聲語言是。云如何是普賢。師云。眾生心是。云如何是佛。師云。眾生色身是。云河沙諸佛體皆同。何故有種種名字。師云。從眼根返源。名為文殊。從耳根返源。名為觀音。從心根返源。名為普賢。文殊是佛妙觀察智。觀音是佛無緣大慈。普賢是佛無為妙行。三聖是佛之妙用。佛是三聖之真體。用則有河沙假名。體則總名一薄伽梵。

師與仰山翫月次。仰云。人人盡有這箇。只是用不得。師云。恰是。倩爾用去。仰云。爾作麼生用。被師攔胸一踏踏倒。山起來云。爾直下似箇大蟲(因號岑大蟲)。

保福展云。人人盡道。岑大蟲奇特。須知仰山。有陷虎之機。琅琊覺云。李陵雖好手。爭免陷番身。

師游山歸。至門首。首座問。和尚甚處去來。師云。游山來。云到甚麼處來。師云。始隨芳草去。又逐落花回。云大似春意。師云。也勝秋露滴芙蓉。

秀上座問。南泉遷化。向甚麼處去。師云。石頭作沙彌時。參見六祖來。云我不問石頭作沙彌時。參見六祖來。南泉遷化。向甚麼處去。師云。教伊尋思去。云和尚只有千尺寒松。且無抽條石笋。師不對。僧云。謝師答話。師亦不對。

秀舉似三聖。聖云。若實恁麼。猶勝臨濟七步。雖然如是。待我親驗過。始得。遂造問。承聞和尚答南泉遷化話。可謂光前絕後。今古罕聞。師亦不對。

皓月供奉問師。古德云。了即業障本來空。未了應須還宿債。只如師子尊者。二祖大師。為甚麼却還宿債。師云。大德不識本來空。奉云。如何是本來空。師云。業障是。奉云。如何是業障。師云。本來空是。奉無語。師示以偈云。假有元非有。假滅亦非無。涅槃償債義。一性更無殊。

僧問。如何是陀羅尼。師指繩床左邊云。這箇師僧。却誦得。又問。別有人。誦得否。師指繩床右邊云。這箇師僧亦誦得。云某甲為甚不聞。師云。大德豈不見道。真誦無響。真聽無聞。云恁麼則音聲不入法界性也。師云。離色求觀非正見。離聲求聽是邪聞。

僧問。如何是平常心。師云。要眠即眠。要坐即坐。云學人不會。師云。熱即取涼。寒即向火。

僧問。如何是向上一路。師云。一口針三尺線。云如何領會。師云。益州布楊州絹。

僧問。如何是上上人行行李處。師云。如死人眼。云上上人相見時如何。師云。如死人手。

僧問。南泉遷化。向甚麼處去。師云。東家作驢。西家作馬。云此意如何。師云。要騎便騎。要下便下。

僧問。三世諸佛不知有。狸奴白牯却知有。既是三世諸佛。為甚麼不知有。師云。未入鹿苑時。猶較些子。云狸奴白牯。為甚麼却知有。師云。爭怪得伊。

僧問。如何轉得山河大地。歸自己去。師云。如何轉得自己。歸山河大地去。云不會。師云。湖南城裏好養民。米賤柴多足四隣。

僧問。色即是空。空即是色。此理如何。師示以偈云。礙處非牆壁。通處沒虛空。若能如是會。心色本來同。

有秀才。看千佛名經。乃問。百千諸佛。只聞其名。未審居何國土。師云。黃鶴樓。崔顥題後。秀才曾題否。云不曾題。師云。無事。題取一篇好。

黃龍新頌云。黃鶴樓前法戰時。百千諸佛豎降旗。渠無國土居何處。贏得多才一首詩。

竺尚書問。蚯蚓斬為兩段。兩頭俱動。未審佛性在阿那頭。師云。莫妄想。竺云。爭柰動何。師云。會即風火未散。

竺又一日謁師。師召云。尚書。竺應諾。師云。不是尚書本命元辰。竺云。不可離却即今祇對底。有第二主人公也。師云。喚尚書。作至尊得麼。竺云。恁麼則總不祇對和尚。莫是弟子主人公麼。師云。非但祇對。不祇對時。從無始劫來。如箇生死根本。示以偈云。學道之人不識真。只為從前認識神。無量劫來生死本。癡人喚作本來人。

### 鄧州香嚴義端禪師(凡三)

示眾云。佛是塵。法亦是塵。終日馳求。有甚麼休歇。但時中。事不挂情。情不挂物。無善可取。無惡可棄。莫被他籠罩著。始是學處。

示眾云。語是謗。默是誑。語默向上。有事在。老僧口門窄。不能為爾說得。

僧問。正因為甚麼無事。師云。我不曾停留。又云。假饒重重剝得淨盡。無停留。暫時施設。亦是方便接人。若是那邊事。無有是處。

### 池州靈鷲閑禪師(凡一)

示眾云。是汝諸人本分事。若教老僧道。即與蛇畫足。此是頓教諸上座。

時有僧問。與蛇畫足。即不問。如何是本分事。師云。汝試道看。僧擬進語。師云。畫足作麼。

### 鄂州茱萸禪師(凡四)

金輪可觀和尚問。如何是道。師云。莫向虛空裏釘橛。觀云。虛空是橛。師便打。觀把住云。和尚莫打某甲。已後錯打人去在。師便歸方丈。

雲門云。矢上加尖。僧云。和尚適來恁麼道那。門云。鎚鐘謝響。得箇蝦蟆。

雪竇云。若要此話大行。直須喫棒了趁出。

師問僧。甚處來。云閩中來。師云。閩中尊宿。愛舉胡來胡現。漢來漢現。是否。僧擬開口。師打一掌。僧云。欲透龍門。却遭點額。師云。燕金塞海。蝦蚶搖山。僧撫掌大笑出去。師云。疥狗不願生天。却笑雲中白鶴。

師見僧來。以手一劃。僧便出去。師云。這僧來不通名。去不通姓。僧轉身。亦以手一劃。師云。這僧名又不識。姓又不知。僧云。且道。某甲姓箇甚麼。師云。苦哉波斯喫胡椒。僧拂袖而出。師云。作家師僧。天然有在。

僧問。如何是沙門行。師云。行即不無。若覺即乖。其僧舉似洞山。山云。何不進語云。是甚麼行。其僧復來。進語。師云。是佛行是佛行。僧回舉似洞山。山云。幽州猶似可。最苦是新羅。僧却問洞山。如何是沙門行。山云。頭長三尺。頸短二寸。

### 日子和尚(凡一)

亞谿來。師作起勢。谿云。這山鬼精。猶見我在。師云。罪過罪過。適來失祇對。谿擬進語。師叱之。谿云。大陣前不妨難禦。師云。是是。云不是不是。

趙州云。可憐兩箇漢。不識轉身句。

### 陸亘大夫(凡三)

問南泉。弟子從六合來。彼中還有身麼。泉云。分明記取。舉似作家。陸云。和尚不可思議。到處世界成就。泉云。適來總是大夫分上事。

大夫問南泉。弟子家中。於瓶內。養得隻鵝。今來長大。出瓶不得。如今不得毀瓶。亦不得損鵝。和尚作麼生出得。泉召大夫。陸應諾。泉云。出也。

南泉遷化。大夫。往弔慰。院主問。大夫何不哭先師。陸云。道得即哭。主無對。

### 池州甘贄行者(凡六)

因巖頭在家過夏。一日把針次。甘於頭前立。頭舉針作筍勢。甘歸欲著衣服禮謝。妻云。作甚麼。甘云。莫說。妻云。有甚事。也要大家知。甘舉前話。妻云。從此三十年後。一度飲水一度咽。女子云。還知盡大地人性命。被豁上座針頭上。筍將去麼。

甘往南泉設粥。請南泉念誦。泉白槌云。為狸奴白牯念。摩訶般若波羅蜜多。甘拂袖而出。

泉粥罷。問典座。行者在甚麼處。座云。當時便去了也。泉云。打破鍋子著。

藥山化主來。甘問。甚麼處來。云藥山。甘云。還將得藥來麼。云行者有甚麼病。甘欣然。施銀一百兩。復云。山中有人。此物却回。

主歸。納疏。山怪問。子歸何速。主云。問佛法相當。得銀一百兩。即舉前話。山云。急送還他。汝著賊了也。主即送還。甘云。山中有人。也添一百兩施之。

同安云。早知行者恁麼問。終不道藥山來。

甘又到南泉設粥。時黃蘗為第一座。甘云。請施財。蘗云財法二施。等無差別。甘舁錢出去。須臾復云。請施財。蘗復云。財法二施。等無差別。甘更行錢。

翠巖真云。甘贄行者。黠兒落節。黃蘗施財。何曾夢見。

妙喜云。一等是隨邪逐惡。這雲居羅漢。較些子。

雪峯來。甘閉却門。云請和尚入。峰隔籬擲過袈裟。甘便開門。甘問僧。甚處來。云為山來。甘云。有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山豎起拂子。上座作麼生會。云借色明心。附物顯理。甘云。上座且歸為山好。

聯燈會要卷第六

南嶽下第四世

洪州百丈山懷海禪師法嗣

潭州大漚靈祐禪師(凡四十一)

福州長谿趙氏子。侍立百丈。夜深。丈云。看爐中。有火也無。師撥云無。丈躬至爐邊。深撥得少火。夾起示之云。爾道無。這箇[斬/耳]。師於此大悟。作禮。呈其所解。丈云。此乃暫時岐路耳。經云。欲識佛性義。當觀時節因緣。時節若至。其理自彰。便知[己]物。不從外得。祖師云。悟了同未悟。無心亦無法。只是無虛妄。凡聖等心。本來心法。元自備足。汝今既爾。善自護持。師一日。侍百丈行次。丈云。還將得火來麼。師云。將得來。丈云。在甚麼處。師拈一莖柴。吹三吹。度與丈。丈云。如蟲禦木。

妙喜云。百丈若無後語。洎被典座謾。

師在百丈充典座。丈選漚山主人。命師往。時華林為首座。乃云。某甲[忝]居第一座。而不得往。典座却往。百丈令首座與師。對眾下語。出格者行。

遂拈淨瓶。置地上云。不得喚作淨瓶。汝喚作甚麼。首座云。不可喚作木[木\*突]也。丈却問師。師踢倒淨瓶而去。丈笑云。首座輸却山子也。因命師行。

師上堂。良久。僧出云。請和尚。為眾說法。師云。我為汝得徹困也。僧便作禮。

雪峰云。古人得恁麼老婆心切。

玄沙云。山頭老漢。蹉過古人事。峰後問玄沙。甚麼處。是老僧蹉過處。沙云。大小漚山。被這僧一問。直得百雜碎。峯駭然。

示眾云。夫道人心。質直無偽。無背無面。無詐妄心。行。一切時中。視聽尋常。更無委曲。亦不閉眼塞耳。但情不附物。即得。從上諸聖。只是說濁邊過患。若無如許多惡覺情見。想習之事。譬如秋水澄淨。清淨無為。淡泞無礙。喚他作道人。亦名無事人。時有僧問。頓悟之人。更有修否。師云。若真悟得本。他自知時。修與不修。是兩頭語。如今初心。雖從緣得。一念頓悟自理。猶有無始曠劫習氣。未能頓盡。須教渠淨除現業流識。即是修也。不道

別有法。教渠修行趣向。從聞入理。聞理深妙心自圓明。不居惑地。縱有百千妙義。抑揚當時。此乃得坐披衣。自解作活計。以要言之。實際理地。不受一塵。萬行門中。不捨一法。若也單刀直入。則聖凡情盡。體露真常。理事不二。即如如佛。

示眾云。如許多人。只得大機。不得大用。仰山以此語。問山下一庵主云。和尚恁麼道。意旨如何。主云。爾更舉看。仰擬再舉。被庵主一踏踏倒。仰歸舉似師。師呵呵大笑。

示眾云。老僧百年後。向山下。作一頭水牯牛去。左脇書五字云。為山僧某甲。當恁麼時。若喚作為山僧某甲。又是水牯牛。若喚作水牯牛。又是為山僧某甲。且道。畢竟喚作甚麼。仰山出。作禮而退。

雲居膺云。師無異號。

南塔勇云。一千五百人善知識。只道得一半。

保寧勇云。和尚一等是人泥入水。

芭蕉徹頌云。不道為山不道牛。一身兩號實難酬。離却兩頭應須道。如何道得出常流。

示眾云。仲冬嚴寒年年事。暑運推移事若何。仰山近前叉手而立。

師云。我也知。汝答這話不得。

却顧香巖。巖云。某甲偏答得這話。師躡前問。巖亦近前叉手而立。師云。賴遇寂子不會。

示眾云。一切眾生無佛性。鹽官示眾云。一切眾生有佛性。

後鹽官有二僧。探師宗旨。聞師說法。莫測其涯。意生輕慢。一日二僧。在中庭坐。見仰山來。遂勸云。師兄切須勤學佛法。不得容易。仰作圓相托呈。却拋向後。復伸手。就二僧索。二僧茫然。不知所措。仰乃勸云。直須勤學佛法。不得容易。珍重便去。

二僧却返鹽官。將行三十里。一人忽有省。乃自嘆云。為山云。一切眾生無佛性。酌然是無。却回為山。一人行數里。因渡水。忽有省。亦自嘆云。為山道。一切眾生無佛性。酌然是有。他恁麼道了。亦返為山。

師一日謂眾云。汝等諸人。各呈所解看。

時有志和上座。出作禮。師云。不思善不思惡。正恁麼時。還我志和上座本來面目。和云。正恁麼時。是某甲放身命處。師云。子莫落空麼。和云。若有空可落。何曾放得身命。師云。爾到這裏。何不問。和云。到這裏。亦不見有和尚可問。師云。汝福薄。扶吾宗不起。

師問仰山。甚處來。云田中來。師云。禾好刈也未。云好刈也。師云。作青色。作黃色。作不青不黃色。云和尚背後是甚麼。師云。

子還見麼。仰拈起禾穗云。和尚何曾問這箇。師云。此是鵝王擇乳。

師問仰山。寂子速道。莫入陰界。仰云。某甲信亦不立。師云。汝信了不立。未信不立。仰云。只是某甲。更信阿難。師云。若恁麼。即是定性聲聞。仰云。佛亦不見。

師坐次。仰山從方丈。前過。師云。若是百丈先師。子須喫痛棒始得。云今日事作麼生。師云。合取兩片皮有分。云此恩難報。師云。非子不才。老僧年邁。云今日親見百丈師翁。師云。子向甚句中見。云不道見。只是無別。師云。始終作家。

師摘茶次。謂仰山云。終日摘茶。只聞子聲。不見子形。仰撼茶樹。師云。子只得其用。不得其體。云未審和尚如何。師良久。仰云。和尚只得其體。不得其用。師云。放子三十棒。

首山念云。夫為宗師。須具擇法眼。始得。當時不是為山。便見扶籬摸壁。

琅琊覺云。若不是為山。泊合打破蔡州。

師坐次仰山香巖侍立。師云。今時總恁麼者少。不與麼者多。巖從西過東。仰從東過西。師云。這箇因緣。三十年後。擲地作金聲。仰云。須是和尚提唱始得。巖云。今日亦不少。師云。合取狗口。師問仰山。即今事且置。自古事作麼生。仰叉手近前。師云。猶是即今事。自古事作麼生。仰叉手退後而立。師云。你屈我。我屈你。

師問仰山。近日宗門令嗣作麼生。云大有人疑著。師云。寂子又作麼生。云某甲只管困來合眼。倦即坐禪。所以未曾說著。師云。到這田地。也難得。云據某甲見處。著此一句。亦不得。師云。子為一人也不得。云自古聖人。盡皆如此。師云。大有人。笑你恁麼祇對。云解笑某甲。是某甲同參。師云。出頭作麼生。仰遶繩床一匝。師云。裂破古今。

師謂仰山云。有俗弟子。將三束絹來。與我贖鐘子。與世人植福。云俗弟子有絹。與和尚贖鐘。和尚將何酬他。師以杖敲床三下云。我將這箇酬他。仰云。若是這箇。用作甚麼。師又敲三下云。汝嫌這箇。作甚麼。仰云。某不嫌這箇。只是大家底。師云。你既知是大家底。何得更就我覓物酬他。云只怪和尚。把大家底行人事。師云。汝不見。達磨大師。從西天來。亦將此物。行人事。汝諸人。盡是受他信物者。

師睡次。仰山來。師便面壁。仰云。某甲是和尚弟子。不用形跡。師作起勢。仰便出去。師召云。寂子。仰回首。師云。聽老僧說箇夢。仰作聽勢。師云。為我原看。仰取一盆水。并手巾來。師洗面了。纔坐。香巖進來。師云。我與寂子。適來作一上神通。不同小

小。嚴云。某甲雖在下面。一一得知。師云。你試說看。嚴點一碗茶來。師嘆云。二子神通。過於鶩子目連。師與仰山行次。師指枯樹云。前頭是甚麼。仰云。枯樹子。師却問耘田翁。翁亦云。枯樹子。師云。這翁子。他後安有五百眾。師問仰山。妙淨明心。汝作麼生會。云山河大地。日月星辰。師云。汝只得其事。云和尚適來問甚麼。師云。妙淨明心。仰云。喚作事得麼。師云如是如是。師索門人呈語云。聲色外。與吾相見。幽州鑿弘長老云。不辭出來。那箇人無眼。師云。此語不正。仰山出云。見取不見底。師云。細如米末。冷如冰霜。仰第二次云。聲色外。誰求相見。師云。只滯聲色。如方木榻地。第三次云。非聲色。師云。汝解不真。第四次云。如兩鏡相照。於中無像。師云。此語正也。我是。汝不是。早立像了也。仰云。某甲精神昏昧。拙於祇對。未審和尚。在百丈師公處。如何呈語。師云。我於先師處。呈語云。如百千明鏡鑑像。光光相涉。剎剎塵塵。各不相借。仰山禮謝。仰山問。百千萬境一時來。作麼生。師云。青不是黃。長不是短。諸法各住本位。非干我事。仰便作禮。師坐收足次。指脚謂仰山云。十二時中。承他負載。不可辜他。仰云。昔日給孤園內。也只說這箇。師云。未在更道。仰云。寒時與他韞著。也不為分外。仰山問。和尚百年後。有人問先師法道。如何傳嗣。師云。一粥一飯。云前人不肯又作麼生。師云。作家師僧。仰遂作禮。師云。向後錯舉即不可。師見仰山來。以手捏拳相交。示之。仰作女人拜。師云。如是如是。師坐次。仰山香嚴侍立。師云。過去未來。與現在佛。佛佛同宣。人人得箇解脫之路。云如何是人人解脫之路。師顧香嚴云。寂子借問。何不對他。嚴云。若問過去未來并現在。某甲却有箇祇對。師云。汝作麼生祇對。嚴珍重便出。師却問仰山。他恁麼祇對。還契子意麼。師云。不契惠寂意。師云。子又作麼生。仰亦珍重便出。師呵呵大笑云。如水乳合。師問仰山。涅槃經四十二卷。多少佛說。多少魔說。仰云。總是魔說。師云。已後無人奈子何。仰云。某甲只是一期之事。行履在甚麼處。師云。只貴子眼正。不說子行履處。師問仰山。天寒人寒。云大家在這裏。師云。何不直說。云適來也不曲。

師見仰山香巖作餅次。師云。百丈先師親得這箇道理。仰顧香巖云。誰人答得此話。師云。有一人答得。仰云誰。師指水牯牛。云道道。仰取草一束。巖取水一桶來。放牛前牛纔喫。師云。與麼與麼。不與麼不與麼。二人俱作禮。師云。或時明。或時暗。師問道吾。甚處來。吾云看病來。師云。有幾人病。吾云。有病底。有不病底。師云。不病底。莫是智頭陀麼。吾云。病與不病。總不干他事。速道速道。師云。道得也與他沒交涉。師問雲巖。聞汝右藥山。是否。云是。師云。如何是藥山大人相。巖云。涅槃後有。師云。如何是涅槃後有。巖云。水洒不著。巖却問師。未審百丈大人相。如何。師云。巍巍堂堂。煒煒煌煌。聲前非聲。色後非色。蚊子上鐵牛。無汝下觜處。師問雲巖。菩提以何為座。云以無為為座。巖却問師。師云。以諸法空為座。又問道吾。吾云。坐也聽他坐。臥也聽他臥。有一人。不坐不臥。速道速道。師休去。

師舉如意。復作此相  云。有人道得。便得此如意。道道。時有僧出云。此如意。本不是和尚底。師云。得而無用。有一僧云。設與某甲。亦無著處。師泥壁次。李軍容具公裳。直至師背後。端簡而立。師回首見。側泥盤。作接泥勢。李轉笏。作進泥勢。師擲下泥盤。與軍容。歸方丈。

後巖頭聞得云。噫。佛法。淡薄。大小為山。泥壁也不了。師喚院主。主應諾。師云。我喚院主。你來作甚麼。院主無對。師坐法堂。庫頭打木魚。火頭擲下火抄。拊掌呵呵大笑。師云。眾中也有恁麼人。遂喚來問。爾作麼生。頭云。某甲不喫粥。肚飢。所以歡喜。師乃點頭。

東使云。當時為山會裏。無此人。

臥龍云。當時為山會裏。有此人。

劉鐵磨來。師云。老牯牛。汝來也。磨云。來日臺山。大會齋。師還去也無。師放身便臥。磨便出去。

雪竇頌云。曾騎鐵馬入重城。勅下傳聞六國清猶握金鞭問歸客。夜深誰共御街行。

僧問。如何是道。師云。無心是道。云某甲不會。師云。會取那不會底。云如何是不會底。師云。只是爾。不是別人。

師復云。今時人。但直下會取不會底。正是汝心。正是汝佛。若向外得一知一解。將為禪道。且沒交涉。名運糞入。不名運糞出。污汝心田。所以云。不是道。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豎起拂子。

後有僧。到王常侍處。舉前話。王云。彼中兄弟。如何商量。僧云。借色明心。附物顯理。王云。不是這箇道理。上座快歸瀉山去。某甲寄一封書。與和尚。僧得書。馳上師。師開書。見一圓相。相中書日字。師云。誰知千里外。有箇知音。仰山侍立。乃云。雖然如是。也只是箇俗漢。師云。子又作麼生。仰作圓相。於中書日字。以脚抹却。師乃大笑。僧問。從上諸聖。直至如今。意旨如何。師云。目前是甚麼物。僧云。莫只這便是麼。師云。阿那箇。云適來祇對者。師云。爾擬那箇去。莫生事。

### 筠州黃檗希運禪師(凡一十五)

福州人也。師初到洛京。行乞。吟添鉢聲。有一嫗。出棘扉問云。太無厭生。師云。汝猶未施。責我無厭。何耶。嫗笑而掩扉。師異之。進而與語。多所發藥。須臾辭去。嫗告之曰。可往南昌。見馬大師去。

師至南昌。大師已遷寂。聞塔於石門。遂往瞻禮。時大智禪師。廬于塔傍。師序其遠來之意。願聞平日得力句。百丈乃舉。我再參馬大師。侍立次。大師顧繩床角拂子。我問即此用。離此用。大師云。汝他後。開兩片皮。將何為人。我取拂子。豎起。大師云。即此用。離此用。我挂拂子舊處。被大師。震威一喝。我直得三日耳聾。師聞是語。不覺吐舌。丈云。子已後莫承嗣馬大師去否。師云。不然。今日因師舉。得見馬祖大機之用。且不識馬祖。若嗣馬祖。已後喪我兒孫。丈云。見與師齊減師半德。子甚有超師之作。百丈問師。甚處來。師云。大雄山下。採菌子來。丈云。還見大蟲麼。師作大蟲聲。丈拈斧作斫勢。師與丈一掌。丈吟吟而笑。即歸上堂云。大雄山下。有一大蟲。汝等諸人。也須好看。百丈老漢。今日親遭一口。

後瀉山舉問仰山。仰云。和尚作麼生。瀉云。百丈當時合與一斧斫殺。因甚到如此。仰云。不然。瀉云。子又作麼生。仰云。百丈只會騎虎頭。不解把虎尾。瀉云。子有嶮崖之句。

師普請開田次。丈問。運闍梨開田不易。師云。隨眾作務。丈云。有煩道用。師云。爭敢辭勞。丈云。開得多少田。師將糞築地三下。丈便喝。師掩耳而去。

師問百丈。從上宗乘。如何指示於人。丈據坐。師云。後代兒孫。將何傳授。丈云。我將謂。爾是箇人。便起去。

雲峯悅云。百丈老人。憐兒不覺醜。雖然如是。盡法無民。

南泉問師。如許大身材。戴箇些兒大笠子。師云。三千大千世界。總在裏許。泉云。王老師擡。師戴笠便行。

師在南泉。為首座。一日捧鉢。向泉位上坐。泉入堂。見乃問。長老甚年中行道。師云。威音王已前。泉云。猶是王老師兒孫在。下去。師便過第二位坐。泉休去。

為山云。欺敵者亡。仰山云。不然。須知黃蘗有陷虎之機。為山云。子見處。得恁麼長。

雪竇云。王老師。只見錐頭利。我當時若作南泉。待他道威音王已前。即便於第二位坐。令黃蘗一生起不得。雖然如是。也須救取南泉。

雲峰悅云。叢林中。多有商量。或云。黃蘗有陷虎之機。南泉有殺虎之威。若作與麼說話。誠實苦哉。殊不知。這老賊。有年無德。喫飯坐處。也不依本分。若是雲峰門下。說甚麼威音王已前。王老師更大。直須喫棒了趁出。

南泉問師。定慧等學。明見佛性。此理如何。師云。十二時中。不依倚一物。始得。泉云。莫是長老見處麼。師云。不敢。泉云。漿水錢且置。草鞋錢。教甚麼人還。師休去。

為山問仰山云。莫是黃蘗。搆他南泉不得麼。仰云。不然。須知黃蘗有陷虎之機。為山云。子見處。得恁麼長。保福展云。若無為仰。埋沒他黃蘗。

五祖戒云。仰山大似為蛇畫足。

南泉問師。黃金為城。白銀為壁。是甚麼人居止處。師云。聖人居止處。泉云。更有一人。居何國土。師近前叉手而立。泉云。道不得。何不請王老師道。師云。更有一人。居何國土。泉云。可惜許。

南泉問師。甚麼處去。師云。擇菜去。泉云。將甚麼擇。師豎起刀子。泉云。汝只解作賓。不解作主。師以刀子。點三下。

示眾云。汝等諸人。盡是嗜酒糟漢。恁麼行脚。何處有今日。還知大唐國裏。無禪師麼。

時有僧出云。只如諸方匡徒領眾。又作麼生。師云。不道無禪。只是無師。

為山問仰山。黃蘗意作麼生。仰云。鵝王擇乳。素非鴨類。為山云。此實難辨。五祖戒出僧語云。謝和尚。說得道理好。石門聰云。黃蘗垂示。不妨奇特。纔被布衲搯著。失却一隻眼。翠巖真云。諸方商量。便道。黃蘗坐却這僧。又道。黃蘗被這僧出來。直得分析不下。何謂也。上藍輒生擬議。霧豹澤毛未嘗下食。庭禽養勇終待驚人。

師上堂。大眾纔集。師拈拄杖。一時打散。復召大眾。眾回首。師云。月似彎弓。少雨多風。

禾山方云。黃蘗和尚。恨不兩手分付。檢點將來。大似為蛇畫足。

師一日捏拳。謂眾云。天下老和尚。總在這裏。我若放一線道。從汝七縱八橫。若不放過。不消一捏。

時有僧問。放一線道時如何。師云。七縱八橫。云若不放過時如何。師云。普。

師聞大愚辭歸宗。宗問。甚麼處去。云諸方學五味禪去。宗云。諸方有五味禪。我這裏。只有一味禪。愚遂問。如何是和尚一味禪。宗便打。愚於此大悟。乃云。噯。我會也。我會也。宗急索云。道道。愚擬開口。宗又打。即時趨出。

師謂眾云。馬祖接八十餘員善知識。動著屙輾輾地。唯有歸宗。較些子。牛頭橫說豎說。未知有向上關捩子。有此眼腦。方辨得邪正宗黨。若不如是。但知念言念語。[祝/土]向皮袋裏。稱我會禪會道。還替得生死麼。輕忽老宿。入地獄如箭射。我纔見爾入門來。便識得爾了也。急須努力。

師左鹽官。殿上禮拜次。時大中帝為沙彌。問師不著佛求。不著法求。不著僧求。長老當何所求。師云。不著佛求。不著法求。不著僧求。常禮如是事。彌云。用禮何為。師與一掌。彌云。太羸生。師云。這裏是甚麼所在。說羸說細。隨後又掌。

雪竇頌云。凜凜孤風不自誇。端居寰海定龍蛇。大中天子曾經觸。三度親遭弄爪牙。

一日六人新到相看。五人作禮。一人提起坐具。作一圓相。師云。我聞有一隻獵狗甚惡。云尋羚羊聲來。師云。羚羊無聲到爾尋。云尋羚羊跡來。師云。羚羊無跡到汝尋。云尋羚羊蹤來。師云。羚羊無蹤到爾尋。云恁麼則死羚羊也。師休去。

次日陞堂云。昨日尋羚羊僧出來。其僧便出。師云。昨日公案。老僧休去。作麼生。僧無語。師云。將謂是本色衲子。元來是義學沙門。拈拄杖。即時打出。

雪竇云。只如聲響蹤跡既無。獵狗向甚麼處尋逐。莫是絕音響蹤跡處。見黃檗麼。諸禪德。要明陷虎之機。也須是本分衲子。

### 廣州和安通禪師(凡二)

師禮佛次。有禪者問。師禮底是甚麼。師云佛。禪者指像云。這箇是甚麼。師罔措。

至夜具威儀。禮問禪者云。今日伏蒙垂問。意旨如何。禪者云。座主幾夏耶。師云十夏。禪者云。還曾出家也未。師轉茫然。禪者云。若不會。百夏奚為。遂邀師。同謁馬大師。大師已示寂。後印心於百丈禪師。

仰山作沙彌時。師召云。寂子。與我拈床子來。仰持至。師云却送舊處著。

復問。寂子。床那邊是甚麼。云無物。師云。這邊暫。云無物。師又召云。寂子。山應諾。師云去。

### 杭州大慈寰中禪師(凡五)

蒲坂盧氏子也。示眾云。山僧不會答話。只是識病。時有僧出。師便歸方丈。

雪竇云。大凡扶豎宗乘。須辨箇得失。且大慈識病。不答話。有僧出。便歸方丈。雪竇識病不答話。有僧出。劈脊便棒。諸方識病不答話。有僧出。必然別有長處。敢有一箇。動著大唐天子。只三人。

示眾云。說得一丈。不如行取一尺。說得一尺。不如行取一寸。

洞山云。說取行不得底。行取說不得底。

雲居云。行時無說路。說時無行路。不行不說時。合行甚麼路。洛浦云。行說俱到。則本事無。行說俱不到。則本事在。

趙州問。般若以何為體。師云。般若以何為體。州呵呵大笑。師明日見趙州掃地。師却問。般若以何為體。州置掃帚。拊掌呵呵大笑。師便歸方丈。

雪竇云。前來也笑。後來也笑。笑中有刀。

大滄喆云。纔見呵呵大笑。便與一掌。明日又問。待渠笑。又與一掌。大慈若下得這兩掌。趙州若不對他。可謂生鐵鑄就。風吹不入底漢。

師住庵時。南泉問。如何是庵中主。師云。蒼天蒼天。泉云。蒼天即且置。如何是庵中主。師云。會即便會。休口喃喃。泉休去。有僧辭。師問甚麼處去。云江西。師云。將取老僧去得麼。云非但和尚。更有過如和尚者。亦不將去。師休去。

汾陽昭云。知汝力微。

### 天台平田普岸禪師(凡五)

示眾云。神光不昧。萬古徽猷入此門來。莫存知解。

示眾云。大道虛曠。常一真心。善惡勿思。神清物表。隨緣飲啄。更復何為。  
師訪茂源。源起迎師。師把住云。開口即失。合口即喪。去此二途請師別道。源以手掩鼻。師放開云。一步較易。兩步較難。源云。著甚死急。師云。若非是師。不免諸方撿點。  
臨濟訪師。到路口。先逢一媪。在田使牛。濟問媪云。平田路。向甚麼處去。媪打牛一棒云。這畜生。到處走到。此路也不識。濟又云。我問爾。平田路。向甚麼處去。媪云。這畜生。五歲也尚使不得。濟心語云。欲觀前人。先觀所使。便有抽釘。拔楔之意。及見師。師便問。爾還曾見我媪也未。濟云。已收下了也。師遂問。近離甚處。濟云江西黃檗。師云。情知爾見作家來。濟云。特來禮拜和尚。師云。已相見了也。師云。賓主之禮。合施三拜。師云。既是賓主之禮。禮拜著。  
師見僧來。拈拄杖便打。僧約住拄杖。師云。適來造次。僧奪棒便打。師云。作家作家。僧作禮。師把住云。却是闍梨造次。僧呵呵大笑。拂袖而去。師云。草賊大敗。

### 筠州五峯常觀禪師(凡三)

問僧甚麼處去。云五臺山去。師豎一指云。若見文殊了。却來這裏與汝相見。僧無對。  
師問僧。還見牛麼。云見。師云。見左角。見右角。僧無對。師代云。見無左右。  
有僧辭。師云。汝去諸方。莫道老僧在這裏。云某甲不道和尚在這裏。師云。汝道。老僧在甚麼處。僧豎一指。師云。早是謗老僧也。

### 潭州石霜性空禪師(凡一)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如人在千尺井中。不假寸繩。如何出得此人。若出得此人。即答汝西來意。僧云。湖南暢和尚。亦為人東語西話。時仰山在左右。師召云。沙彌。拽出這死屍著。仰山舉問耽源。源咄云癡漢。誰在井中。  
後問為山。如何出得井中人。為召慧寂。仰應諾。為云出了也。仰上住後云。我當時在耽源處得名。為山處得地。

### 福州長慶大安禪師(凡六)

本州陳氏子問百丈。學人欲識佛。何者是佛。丈云。大似騎牛覓牛。師云。識後如何。丈云。如人騎牛到家。師云。如何保任。丈云。如牧牛人。執杖視之。不令犯人苗稼。師於言下領旨。

後因同參祐禪師。創居大瀉。師往躬耕助道。祐歸寂。師繼踵住持。後歸閩川。開山長慶。而終老焉。

示眾云。汝等諸人。總來就安。覓箇甚麼。若欲作佛。汝自是佛。而却傍家走忽忽。如渴鹿逐陽燄何時得相應去。阿儂若欲作佛。但無如許多顛倒攀緣。妄想惡覺。垢欲不淨。眾生之心。只汝便是初心正覺佛。更向何處別討。所以安住瀉山三十年。喫瀉山飯。屙瀉山屎。不參瀉山禪。只看一頭水牯牛。若落路入草。便牽出。若犯人苗稼。即便鞭撻。調伏既久。可憐生。受人言語。而今變作箇露地白牛。常在面前。終日迥迥地。趁亦不去也。

示眾云。汝等諸人。各有無價大寶。從眼門放光。照山河大地。從耳門放光。領採一切善惡音響。六門晝夜。常放光明。亦名放光三昧。汝自不識取。隱在四大身中。內外扶持。不敢傾側。如人負重擔。從獨木橋上過。亦不教失脚。且道。是甚麼物。恁麼扶持。便得如是。汝若覓毫髮。即不見。故誌公云。內外追尋覓總無。境上施為渾大有。

示眾云。有句無句。如藤倚樹。

疎山聞之。徑造瀉山。值師泥壁次。便問。有句無句。如藤倚樹。豈不是和尚道。師云是。疎云。忽遇樹倒藤枯時如何。師放下泥盤。呵呵大笑。便歸方丈。

疎山隨後啟云。某甲四千里。賣却布單。特為此因緣來。和尚何得相弄。師喚侍者云。將錢還伊去。遂囑云。向後有獨眼龍。為汝點破在。

疎山後到明招。舉前話。招云。大瀉可謂頭正尾正。只是不遇知音。疎山却問。樹倒藤枯時如何。招云。更使瀉山笑轉新。疎山因而有省。乃云。瀉山元來笑裏有刀。遂遙望瀉山作禮。

妙喜頌云。若將此語定綱宗。辜負明招獨眼龍。笑裏忽分泥水路。方知千里共同風。

雪峯寄一木。其狀若虵。於背上題云。本自天然。不假雕琢。師接得云。本色住山人。且無刀斧痕。

僧問。大用現前。不存軌則。時如何。師云。汝用得但用。僧脫膊繞師三匝。師云。向上何不道取。僧擬開口。師遂打云。這野狐精。出去。

### 福州古靈神讚禪師(凡一)

本州人也。受業大中寺。有法眷三人。同出遊方。唯師參百丈。發明心地。

後歸受業。侍立其師。師云。汝等游方。得何事業。第一人云。某甲自辭和尚。在外讀書。粗能著文。第二人云。某甲自辭和尚。在外聽得三本經論。師出云。某甲自辭和尚。在外一如未游方時。其師咄云。這愚癡大師。兄能著文。小師兄。能通經論。汝却云。一如未游方時。辱我何多。今後只在廚下執役。

其師一日澡浴。命師去垢。師撫其背云。好所佛殿。只是無佛。其師咄云。這風顛漢。得與麼無禮。師云。雖然無佛。也解放光。其師疑其語。

又一日看經次。有蠅子鑽牕。師云。世界如許廣闊。鑽他故紙。驢年去。遂作頌云。空門不肯出。投牕也大癡。百年鑽故紙。何日出頭時。

其師置經問云。汝行脚遇何人。吾前後見汝。發言異常。無乃得上人法耶。當為我說。師云。某甲蒙百丈和尚。指箇歇處。今欲報慈德耳。

其師致齋。命師說法。師陞座。舉唱百丈門風云。靈光洞耀。迥脫根塵。體露真常。不拘文字。心性無染。本自圓成。但離妄緣。即如如佛。其師言下感悟。乃云。何期垂老。得聞極則事。

師臨遷化時。告眾云。汝等諸人。還識無聲三昧麼。眾云不識。師云。汝等靜聽。莫別思量。眾皆側聆。師已示寂。

#### 洪州東山慧禪師(凡四)

游山次。僧指岩。問云。此巖。還有主也無。師云有。云是甚麼人。師云。三家村裏漢。

師同大于南用三人。在茶堂內。一僧近前。合掌云。不審。南用云。我既不納汝。汝亦不見我。不審阿誰。僧無語。

師云。不得平白地。恁麼問他。用云。大于亦無語那。于把住其僧云。是爾恁麼。累我亦然。遂與一擲。用笑云。朗月與青天(統要作大于語誤)。

師復問大于侍者。金剛正定。一切皆然。秋去冬來。且作麼生。者云。不妨和尚借問。師云。即今即得。去後作麼生。云誰敢問著某甲。師云。大于還得麼。云猶要別人檢點在。師云。輔弼宗師。不廢光彩。侍者作禮。

師有小師。行脚歸。師云。爾離吾。在外幾年耶。云十年。師云。不用指東劃西。直道將來。云對和尚。不敢謾語。師喝云。這打野樵漢。

### 江州龍雲臺禪師(凡一)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昨夜欄中失却牛。

### 京兆府衛國道禪師(凡一)

師問僧。甚處來。云河南來。師云。黃河水清也未。僧無對。  
滄山代云。小小狐兒。要過但過。用疑甚麼。

### 清田和尚(凡一)

與瑫上座。點茶次。師敲禪床三下。瑫亦敲三下。師云。老僧敲。有箇善巧。上座敲。有何道理。瑫云。某甲敲。有箇方便。和尚敲。作麼生。師舉起盞子。瑫云。善知識眼。應須恁麼。煎茶子。瑫却問。和尚適來舉盞子。意作麼生。師云。不可更別有也。

### 廬山歸宗智常禪師法嗣

#### 福州芙蓉靈訓禪師(凡三)

師問歸宗。如何是佛。宗云。我向爾道。爾還信否。師云。和尚誠言。安敢不信。宗云。即汝便是。師云。如何保任。宗云。一翳在眼。空花亂墜。師於言下。頓領深旨。

師辭歸宗。宗問。甚處去。師云。入嶺去。宗云。子在此多年。束裝了來。為子說一上佛法。及師束裝了。却去問訊。宗云。時寒。途中善為。

師訪同參實性大師。大師陞堂。以右手拈拄杖。靠左邊。良久云。此事若不是芙蓉師兄。大難委悉。便下座。

黃龍南云。實性用不得。便休。劫將佛法。以為人情。千載之下。與人作笑端。且道。利害在甚麼處。

#### 漢南高亭禪師(凡一)

夾山有一僧。來作禮。師便打。僧云。特來禮拜。何得打某甲。又作禮。師又打。其僧回舉似夾山。山云。汝還會麼。云不會。山云。賴汝不會。汝若會。即夾山口啞。

## 新羅大茆和尚(凡二)

示眾云。欲識諸佛。向無明心內識取。欲識常住不凋性。向萬物遷變處識取。

僧問。如何是大茆境。師云。不露鋒。云為甚麼不露鋒。師云。無當者。

## 五臺山智通禪師(凡二)

師謁歸宗。忽一夜叫云。我悟也。我悟也。明日歸宗上堂。問昨夜大悟底僧。出來。師便出。宗云。汝見甚麼道理。便言大悟。師云。師姑元是女人做。宗駭之。

師臨示寂時。有偈。示眾云。舉手攀南斗。回身倚北辰。出頭天外看。誰是我般人。

## 明州大梅法常禪師法嗣

### 杭州天龍和尚(凡二)

示眾云。大眾莫待老僧。上來便上來。下去便下去。各有華嚴性海。具足功德。無礙光明。各各參取。

僧問。如何出得三界去。師云。汝即今在甚麼處。

## 秀州鹽官齊安國師法嗣

### 襄州關南道常禪師(凡一)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拈起拄杖云。會麼。云不會。師便打出。

## 京兆府章敬懷惲禪師法嗣

### 金州操禪師(凡一)

因請米胡齋。不排位。米到。展坐具作禮。師下繩床。米便就師位而坐。師却席地而坐。

齋罷。米去。侍者却問。和尚受一切人欽仰。今日坐位。被人奪却。師云。三日後若來。即受救。若不來。即救不得。三日後。果來云。前日遭賊。

### 朗州古堤和尚(凡一)

仰山來參。師云。去汝無佛性。山叉手。近前三步。應諾而已。師云。子甚麼處。得此三昧。山云。從耽源處得名。為山處得地。師云。莫是為山的子麼。山云。世諦即不無。佛法即不敢。山却問。和尚從甚麼處。得此三昧。師云。我從章敬。得此三昧。山嘆云。不可思議。來者難為湊泊。

### 福州龜山智真禪師(凡二)

謁章敬。敬問。自何而至。師云。至無所至。來無所來。敬默許之。後入室。益臻玄奧。示眾云。動容瞬目。無出當人。一念淨心。本來是佛。

### 幽州盤山寶積禪師法嗣

#### 鎮州普化和尚(凡八)

師見人。無高下。皆振鈴一聲。時號普化和尚。或將鈴。就人耳邊振。或拊人背。有回首者。師便伸手云。乞我一文錢。師尋常入市。振鈴云。明頭來。明頭打。暗頭來。暗頭打。四方八面來。旋風打。虛空來。連架打。臨濟令侍者。攔臂搗住云。總不恁麼來時如何。師托開云。明日大悲院裏有齋。者回舉似臨濟。濟云。我從來疑著這漢。師同臨濟。赴一施主齋。濟云。毛吞巨海。芥納須彌。為復是神通妙用。為復是法爾如然。師乃踢倒飯床。濟云。太麤生。師云。這裏是甚麼所在。說麤說細。濟休去。明日又同赴一家齋。濟云。今日供養。何似昨日。師又踢倒飯床。濟云。太麤生。師云。瞎漢。佛法說甚麼麤細。濟不覺吐舌。

雪竇云。兩箇老賊。喫飯也不了。好與三十棒。棒雖行。且阿那箇是正賊。

臨濟一日。同河陽木塔三人。在僧堂地爐內坐。正說師每日。在街市。掣風掣顛。知他是凡是聖。師忽入堂。濟問云。爾是凡是聖。師云。爾道。我是凡是聖。濟便喝。師指河陽木塔云。河陽新婦

子。木塔老婆禪。臨濟小廝兒。却具一隻眼。濟云這賊。師云。賊賊。便出去。

師在臨濟堂前。喫生菜。濟云。這漢大似一頭驢。師便作驢鳴。濟喚直歲云。細抹草料著。師云。少室人不識。金陵又再來。臨濟一隻眼。到處為人開。

趙州云。何不與他。本分草料著。

師於闌闌中。振鈴云。覓箇去處。不可得。被道吾把住云。爾擬去甚麼處。師云。汝從甚麼處來。吾無語。師掣肘便行。

師一日。見馬道使喝道。師亦喝道。又作相撲勢。馬道令人打五棒。師云。似則似。是則不是。

師將入滅。徧問人。覓直裰。人皆送與。師俱不受。臨濟令人買棺木一具。師歸來。濟云。我與爾。做直裰了也。師笑云。臨濟廝兒饒舌。

遂擎棺。遶街叫云。臨濟與我。做直裰了也。我往東門。遷化去。市人相率送之。師云。今日不合青烏。明日南門。遷化去。市人亦隨之。師又云。今日未吉。明日西門遷化去。人皆不信。隨者稍稀。師第四日。擎棺出北門外。自入棺中。債路行人。釘之。市人相報環觀。只聞空中。鈴聲漸遠。揭棺視之。乃全身脫去也。

## 蒲州麻谷寶徹禪師法嗣

### 壽州良遂座主(凡一)

初謁麻谷。谷見來。荷鋤入園。鋤草去。師隨到鋤草處。谷不顧。便歸方丈。閉却門。

師明日又去。谷又閉却門。師遂敲門。谷云誰。師云。良遂。纔稱名。忽然契悟。乃云。和尚莫謾良遂。良遂若不來見和尚。泊被經論。賺過一生。及歸講肆。開演。其略云。諸人知處。良遂盡知。良遂知處。諸人不知。

雲門云。便有逆水之波。如今得入。是順水之意。亦喚作雙放時節。又云。麻谷問阿誰。他道莫謾良遂。不是識破麻谷相見時節。若不來禮拜和尚。泊被經論。賺過一生。亦知有賺人處。又云。作麼生是良遂知處。

## 虔州西堂智藏禪師法嗣

### 虔州處微禪師(凡二)

僧問。三乘十二分教。體理得妙。與祖意。是同是別。師云。須向六句外鑑。不得隨他聲色轉。云如何是六句。師云。語底。默底。不語不默底。總是。總不是。汝合作麼生。僧無對。師問仰山。汝名甚麼。山云惠寂。師云。那箇是慧。那箇是寂。山云。只在目前。師云。猶有前後在。山云。和尚見箇甚麼。師云。喫茶去。

## 湖南東寺如會禪師法嗣

### 吉州薯山慧超禪師(凡一)

洞山來。師問。汝已住一方。又來這裏作麼。洞云。無奈疑何。所以來見和尚。師召良价。价應諾。師云。是甚麼。洞無語。師云。好箇佛。只是無光燄。

## 荊州永泰靈湍禪師法嗣

### 湖南上林戒靈禪師(凡一)

師參大滄。滄問。大德作麼來。師云。介冑全具。滄云。卸却了。來相見。師云。卸却了也。滄咄云。賊尚未打。卸作甚麼。後參永泰。方喻厥旨。

### 湖南祇林和尚(凡一)

每叱文殊普賢。為精魅。手提木劍。自謂降魔。纔見僧來。便云。魔來也。以木劍亂揮。潛入方丈。如是十二年。置劍無言。僧向。十二年前。為甚麼降魔。師云。賊不打貧兒家。云十二年後。為甚麼不降魔。師云。賊不打貧兒家。

### 五臺秘魔巖和尚(凡一)

常提一杈。纔見僧來。提起杈云。甚麼魔魅。教汝出家。甚麼魔魅。教汝行脚。道得也杈下死。道不得。也杈下死。速道速道。法眼代云。乞命乞命。玄覺代云。老兒家。放下杈子得也。五祖戒云。山僧當時若見。奪劫杈來。驀項杈倒。點把火。照看。面皮厚多少。

## 南嶽下第五世

### 趙州觀音從諗禪師法嗣

#### 楊州光孝慧覺禪師(凡五)

師一日。見露柱合掌云。不審世尊。僧云。和尚是露柱。師云。啼得血流無用處。不如緘口過殘春。

師到崇壽。法眼問。近離甚處。師云。趙州。眼云。承聞趙州有栢樹子話。是否。師云無。法眼云。往來皆謂。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州云。庭前栢樹子。上座何得言無。師云。先師實無此語。和尚莫謗先師好。

師問宋齊丘。還會道麼。宋云。若是道。也著不得。師云。是有著不得。是無著不得。宋云。總不恁麼。師云。著不得底[斬/耳]。宋無對。

張居士問。奈老何。師云。年多少。士云。八十也。師云。可謂老也。士云。畢竟如何。師云。直至千歲也未在。

或人問。某甲平生殺牛。還有罪也無。師云無。或人云。何得無罪。師云。殺一箇。還一箇。

#### 隴州國清奉禪師(凡二)

問牛頭未見四祖時。為甚麼百鳥銜花獻。師云。陝府人。送錢財與鐵牛。云見後為甚麼不銜花獻。師云。木馬投明行八百。

僧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云。雨滋三草秀。春風不裊頭。

問如何是出家人。師云。銅頭鐵額。烏髻鹿身。

問如何是佛法大意。師云。釋迦是牛頭獄卒。祖師是馬面阿傍。

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東壁打西壁。

#### 婺州新建禪師(凡一)

一生不畜沙彌童行。有座主問。和尚年尊。何不討箇小師侍奉。師云。若有眼暗耳聾口啞底。為我討一箇來。主無對。

#### 杭州多福和尚(凡一)

僧問。如何是多福一叢竹。師云。一莖兩莖斜。僧云。不會。師云。三莖四莖曲。

### 益州西穆和尚(凡二)

師召侍者。者應諾。師云。更深夜靜。共伊商量。有俗士。舉手云。和尚是一頭驢。師云。老僧被爾騎。士無語去。後三日。却來云。某甲前日。著賊了也。師拈棒打出。

### 衢州子湖利蹤禪師法嗣

#### 日容遠禪師(凡一)

巖上座來。師拊掌三下云。猛虎當軒。誰是敵者。巖云。俊鷄冲天。阿誰捉得。師云。彼此難當。巖云。且休。未要斷這公案。師拈拄杖。作舞。歸方丈。巖無語。師云。死却這漢也。

#### 紫桐和尚(凡一)

僧問。如何是紫桐境。師云。爾眼裏著得沙麼。云大好紫桐境也不識。師云。老僧不諱此事。其僧出去。師下繩床擒住云。今日好箇公案。老僧未得分文入手。云賴遇某甲是僧。師云。禍不單行。

#### 漳州浮石和尚(凡一)

示眾云。山僧開箇卜鋪。能斷人貧富。定人生死。時有僧出問。離却貧富生死。不落五行。請師直道。師云。金木水火土。

聯燈會要卷第七

長沙景岑禪師法嗣

明州雪竇常通禪師(凡一)

僧問。如何是密室。師云。不通風。云如何是室中人。師云。諸聖求覩不見。僧作禮。師云。千聖不能思。萬聖不能議。乾坤壞不壞。虛空包不包。一切無比倫。三世唱不起。

鄂州茱萸禪師法嗣

石梯和尚(凡二)

師見侍者。托鉢上堂。乃喚云侍者。者應諾。師云。甚處去。云上堂齋去。師云。我豈不知爾上堂齋去。云除此外。別道箇甚麼。即得。師云。我只問爾本分事。云和尚若問本分事。某甲實是上堂齋去。云汝不謬為吾侍者。

有一暫到來。師前立少頃。便出去。師云。有甚麼辨白處。僧再來。立良久。師云。辨得也辨得也。云辨得後如何。師云。埋却得也。云蒼天蒼天。師云。適來却恁麼。如今還不當。僧便出去。

潭州大漚靈祐禪師法嗣

袁州仰山慧寂禪師(凡四十五)

韶州懷化葉氏子也。初謁大漚。漚問。爾是有主沙彌。無主沙彌。師云。有主沙彌。漚云主在甚麼處。師從西過東立。漚異之。漚山問師。承聞子在百丈先師處。問一答十。問十答百。是否。師云。不敢。漚云。佛法向上。道取一句。師擬開口。漚便喝。如是三問。三度擬對。三度遭喝。師垂淚云。先師道。爾須遇人始得。今日便是遇人也。遂發心牧牛三年。一日漚入山。見師在磐石上坐禪。漚以拄杖點師背云。寂子道得也未。師云。雖道不得。要且不借別人口。漚云。寂子會也。

為山謂師云。汝須自回光返照。別人不知汝解處。汝試將實解。獻老僧看。師云。若教某甲自看。到這裏無圓位。亦無一物一解。得獻和尚。為云。無圓位處。元是汝作解處。未離心境在。師云。既無圓位。何處有法。把何物作境。為云。適來是汝作恁麼解。是否。師云是。為云。若恁麼。是具足心境法。未脫我所心在。元來有解獻我。何得言無。許爾信位顯。人位隱在。

師問為山。如何是真佛住處。山云。以思無思之妙。返思靈燄之無窮。思盡還源。性相常住。理事不二。真佛如如。師於言下大悟。師在為山。牧牛時。踢天泰上座問。百億毛頭。百億師子現。作麼生。師騎牛便歸。

次日侍立為山。舉前話。方了。却見泰上座來。師云。便是這箇上座。為遂問。百億毛頭。百億師子現。豈不是上座道。泰云是。師云。正當現時。毛前現。毛後現。泰云。現時不說前後。為山大笑。師云。師子腰折也(依本錄)。

師看牛。為山問。此中還有菩薩也無。師云。有。為云。爾見那箇是。試指出看。師云。和尚擬那箇不是。試指出看。為休去。為山問師。忽有人。問爾。作麼生祇對。師云。東寺師叔若在。慧寂不到寂寞。為云。放爾一箇不祇對罪。師云。生之與殺。只在一言。為云。不辜汝見。別有人不肯。師云。阿誰。為指露柱云。這箇。師云。道甚麼。為亦云。道甚麼。師云。白鼠推遷。銀臺不變。

師問為山。大用現前。請師辨白。為下座。歸方丈。師隨後入。為云。子適來。問甚麼。師再舉。為云。還記得吾答否。師云。記得。為云。試舉看。師便出去。為云錯。師云。香嚴師弟來。莫道某甲無語。

師侍立為山。忽聞鳥鳴。為云。伊說事却徑。師云。不可向別人道。為云。何故。師云。為伊說事太直。為云。多少法門。寂子一時推下。師云。推下事作麼生。為敲禪床三下。

為山餽鷓生飯。回頭見師。乃云。今日為伊大上堂一上。師云。某甲隨例得聞。為云。聞底事作麼生。師云。鷓作鷓鳴。鵲作鵲噪。為云。爭奈聲色何。師云。和尚適來道甚麼。為云。我只道。為伊大上堂一上。師云。為甚麼喚作聲色。為云。雖然如此。驗過又何妨。師云。大事因緣。作麼生驗。為豎起拳。師云。終是指東劃西。為云。子適來問甚麼。師云。大事因緣。為云。為甚麼。喚作指東劃西。師云。為著聲色故。某甲所以問。為云。並未曉了此事。師云。如何得曉了去。為云。寂子聲色。老僧東西。師云。一月千江體不分。為云。應須與麼始得。師云。如金與金。終無異

色。豈有異名。為云。作麼生是無異名底道理。師云。瓶盤釵釧契盂盆。為云。寂子說禪。如師子吼。驚殺狐狼野犴之屬。

師掃地次。為山云。塵非掃得。空不自生。如何是塵非掃得。師以筭。掃地一下。為云。作麼生是空不自生。師以手指自身。又指為山。山云。塵非掃得。空不自生。離此二途。又作麼生。師又掃地一下。以手指自身。復指為山。

師夏罷。問訊為山。山云。一夏不見上來。在下面。作何所務。師云。某甲在下。鋤得一片畚。下得一籬種。為云。子今夏也不空過。師却問為山。和尚今夏。作得箇甚麼。為云。日中一食。夜後一寢。師云。和尚今夏。也不空過。道了不覺吐舌。為云。寂子何得自傷己命。

師住東平。為山寄鏡子一面。并書至。師陞堂。受書畢。提起鏡子。示眾云。大眾且道。是為山鏡。是東平鏡。若道是東平鏡。又是為山寄來。若道是為山鏡。又在東平手裏。若道得。即留取。若道不得。即撲破去也。如是三說。眾皆無對。師遂撲破。

西禪淨頌云。比謂拈來伸一問。如何舉眾盡茫然。不因一撲百雜碎。定作人間醜婦冤。

為山問。盡大地眾生。業識忙忙。無本可據。子作麼生。知他有之與無。師云。惠寂有驗處。

時有僧。從面前過。師召云。上座。僧回首。師云。和尚。這箇便是業識忙忙。無本可據。為云。此是師子一滴乳。迸散六斛驢乳。為山問師。甚麼處來。師云。田中來。為云。田中有多少人。師插下鋤子。叉手而立。為云。今日南山大有人刈茆。師拽鋤便行。

玄沙云。我若見。即踏倒鋤。雪竇云。諸方咸謂。插鋤話奇特。大似隨邪逐惡。據雪竇見處。仰山被為山一問。直得草繩自縛。去死十分。

為山與師行次。指田云。這一丘田。那頭高這頭低。師云。却是這頭高。那頭低。為云。汝若不信。向田中央立。看兩頭。師云。不必中間立。亦莫住兩頭。為云。若如是。著水看。水能平物。師云。水亦無定。但高處高平。低處低平。為休去。

師問為山。和尚去後。有人問法道如何傳嗣。向他道甚麼。為云。一粥一飯。師云。前人不肯。又作麼生。為云。作家師僧。仰作禮。為云。向後錯舉即不可。

師在為山牧牛。見一僧上寺。不久便下。師問。何不且住。僧云。只為因緣不契。所以下山。師云。有何因緣。請舉看。僧云。和尚問某甲。名甚麼。某甲云歸真。和尚云。真歸何在。某甲無對。師云。上座却回。向和尚道。某甲道得也。待他問爾作麼生道。但云。耳裏眼裏鼻裏。其僧回。一如所教。為云。脫空妄語漢。此是

五百人善知識語。

師到巖頭。頭舉拂子。師展坐具。頭拈拂子。置背後。師將坐具。搭肩上。便出。頭云。我不重爾放。只重爾收。

師問東寺。借一路。過那邊。得麼。寺云。大凡沙門。不可只一路也。別更有麼。師良久。寺却問師。借一路過那邊。得麼。師云。大凡沙門。不可只一路也。別更有麼。寺云。只有此。師云。大唐天子。決定姓金。

示眾云。汝等諸人。各自回光返照。莫記吾言。汝自無始劫來。背明投暗。妄想根深。卒難頓拔。所以假設方便。奪汝羸識。如將黃葉。止小兒啼。有甚麼是處。亦如人將百種貨物與金寶。作一鋪貨賣。祇擬輕重來機。所以道。石頭是真金鋪。我這裏是雜貨鋪。有人來覓鼠屎。我亦拈與他。來覓真金。我亦拈與他。

時有僧問。鼠屎即不要。請和尚真金。師云。齧鏃擬開口。驢年亦不會。

示眾云。我若索喚。即有交易。若不索喚。即無交易。我若說禪宗。身邊要一人相伴。亦無。豈況有五百七百眾。我若東說西說。便爭頭向前採拾。如將空拳誑小兒。都無實義。我今分明。向汝說。聖邊事。且莫將心湊泊。但向自己性海。如實而修。不要三明六通。何以故。此是聖末邊事。如今且要識心達本。但得其本。不愁其末。他時後日。自具去在。若未得本。縱饒將情學。他亦不得。汝豈不見。為山和尚道。凡聖情盡。體露真常。事理不二。即如如佛。

師指雪師子。謂眾云。還有過得此色者麼。眾無對。

雲門云。便好與推倒。

雪竇云。雲門只解推倒。不解扶起。

僧問。禪宗頓悟。畢竟入門的意如何。師云。祖宗門下。上根利智。一聞千悟。得大總持。若是根微智劣。若不安禪靜慮。到這裏。總須茫然。云還別有方便也無。師云。別有別無。令汝心不安。且如汝。是甚麼處人。云幽州人。師云。汝還思彼處否。云常思。師云。彼處樓臺林苑。人馬駢闐。汝返思思底。還有許多般也無。云某甲到這裏。一切不見。師云。汝解猶在境。信位即是。人位師不是。據汝所解。只得一玄。得坐披衣。向後自看。僧作體而謝。

師在為山。與天性上座。語話次。性云。好雨。師云。好在甚處。性無語。師却云。好雨。性云。好在甚處。師指雨示之。性無對。師云。何得大智而默。

鹽官會中。有數僧。到為山。心不肯伏。一日普請。西莊擔禾。師同至嶺頭歇。師拈禾擔。向數僧前。行一匝云。有麼有麼。數人無

對。師云。賺殺人。擔禾便去。

石霜有二僧。到為山云。此間無一人會禪。師因普請。搬柴次。拈一橛柴。問云。還道得麼。二俱無對。師云。莫道無一人會禪好。師歸。謂為山云。今日二禪客。被慧寂勘破。為云。子作麼生勘。師舉前話。為云。子今日又被吾勘破。

雲居錫云。甚麼處。是為山勘破仰山處。

龐居士問。久響仰山。到來為甚麼却覆。師豎起拂子。士云。恰是。師云。是仰是覆。士打露柱一下云。雖然無人見。也要露柱證明。師擲下拂子云。若到諸方。一任舉似。

師問僧。甚處來。云幽州。師云。我恰要幽州信。幽州米作麼價。云某甲無端從他市上過。踏折他橋梁。

保寧勇。代仰山云。放爾三十棒。

師夢往彌勒所。安第二座。有一尊者。白槌云。今日當第二座說法。師起白槌云。摩訶衍法。離四句絕百非。諦聽諦聽。

大為秀云。依文解義。即不無。忽然彌勒會中。有箇作者。纔見伊道摩訶衍法。便云。合取兩片皮。非唯止絕仰山寐語。亦免後人夢中說夢。

師問僧。近離甚處。云廬山。師云。曾到五老峰麼。云不曾到。師云。闍梨不曾游山。

雲門云。此語皆因慈悲之故。有落草之談。

黃龍心云。雲門仰山。只有受壁之心。且無割城之意。殊不知。被這僧一時領過。黃龍今日。更作死馬醫。乃拈拂子度與僧。僧擬接。龍便打。

大為喆云。仰山可謂光前絕後。雲門雖然提綱宗。要鉗鍵天下衲僧。爭奈無風起浪。諸人還識這僧麼。親從廬山來。

師住觀音時。出榜云。看經次。不許問事。後有一僧。潛至師背後立地。師回首見。遂卷却經。以目視之云。會麼。僧云。不會。師云。汝已後會去在。

後僧舉似巖頭。頭云。我將謂這老漢。被故紙埋。却元來猶在。

師問僧。近離甚處。云向南。師拈起拄杖云。彼中還說這箇麼。云不說。師云。不說這箇。還說那箇麼。云不說。師召大德。僧應諾。師云。參堂去。師復召僧。僧應諾。師云。近前來。僧近前。師便打。

雲門云。仰山若無後語。爭識得人。

一日有一異僧。垂空而來。作禮而立。師問。近離甚處。云。早晨離西天。師云。何太遲生。云游山翫水。師云。神通妙用。即不無

尊者。佛法須是老僧始得。云特來東土。禮文殊。却遇小釋迦。遂出西天貝多葉。與師。作禮騰空而去。

東林總云。諸方商量。如麻似粟。盡道。碧眼胡兒。來無蹤去無跡。直是光前絕後。若不是仰山。也難為縱奪。殊不知騰空而來。騰空而去。一生只在虛空裏。作活計。大小仰山。被他兩杓惡水澆了也。當時集雲峰下。自有正令。何不施行。大眾且道。作麼生是正令。

鼓山永云。仰山被這僧熱瞞。若是箇漢。待他道早晨離西天。脚跟下。痛與三十。

師坐次。有一僧。來作禮。師不顧。僧問。師還識字否。師云。隨分。僧右旋一匝云。是甚麼字。師於地上。書十字。酬之。僧又左旋一匝云。是甚麼字。師添十字。作卍字。僧作圓相。以兩手托。如修羅擎日月勢云。是甚麼字。師作圓相。圍却卍字。僧作樓至勢。師云。如是如是。此是諸佛之所護念。汝既如是。吾亦如是。善自護持。其僧作禮。騰空而去。

有一道者見。後五日。遂問師。師云。汝還見麼。者云。某甲見出門騰空而去。師云。此是西天羅漢。來探吾道也。者云。某甲雖覩種種三昧。不辨其理。師云。吾以義為汝解釋。此是八種三昧。是覺海變為義海。其體亦然。此義合有因有果。即時異時。總別不離隱身三昧也。

師見僧來。乃於地上。畫半月相。示之。僧却添作滿月相。後以手抹之。師却展手。作索勢。其僧拂袖便出。師便休。

師坐次。有僧來云。不審。叉手東邊而立。以目視師。師垂下一足。僧從東過西而立。師又垂一足。僧向中間立。師取兩足。僧作禮。師云。老僧自住來二十年。不曾打著一箇人。遂下繩床。打一棒。其僧騰空而去。

師共一僧語話。傍有僧云。語底是文殊。默底是維摩。師云。不語不默底。莫是上座麼。僧默然。師云。何不現神通看。云不辭現神通。恐和尚取入教去。師云。鑑汝來處。未有教外底眼。

師見僧來。豎起拂子。僧便喝。師云。老僧過在甚麼處。僧云。和尚不合將境示人。師便打。

僧問。見色便見心。繩床是色。請和尚。離却色。指學人心。師云。那箇是繩床。試指出來看。僧無語。

玄覺云。忽被伊指繩床。又作麼生。僧云。請師道。覺拊掌三下。

僧問。法身還會說法也無。師云。我說不得。別有一人說得。云說得底人。在甚麼處。師推出枕头。

為山聞。乃云。寂子用劔刃上事。

妙喜云。為山真是憐兒不覺醜。仰山推出枕头。已是漏逗。更著箇名字。喚作劒刃上事。誤他學語之流。便恁麼承虛接響。流通將去。

妙喜雖似借水獻花。要且理無曲斷。即今莫有傍不甘底麼。出來。我要問爾。推出枕头。還當得法身說法也無。天童華云。

二老於唱教門中。足可稱尊。衲僧門下。總是喫棒底漢。

僧問。和尚還識字否。師云。隨分。僧畫圓相。以手托呈。師以衣袖拂之。僧又作半月相。托呈。師以兩手作背拋勢。僧以目視之。師即低頭。僧繞仰一匝。師便打。僧便出去。

韋宙相公。就為山請伽陀。山云。覲面相呈。猶是鈍漢。豈況形於紙筆耶。韋乃就師請。師於紙上。畫一圓相。下面註云。思而知。落第二頭。不思而知。落第三首。

陸侍御。同師入僧堂。問如許多師僧。為復是喫粥鉢僧。為復是參禪僧。師云。亦不是喫粥鉢僧。亦不是參禪僧。陸云。在此作甚麼。師云。侍御自問取他。

師向陸郎中。承聞郎中。看經得悟。是否。陸云。弟子因看涅槃經。有云。不斷煩惱。而入涅槃。得箇安樂處。師豎起拂子云。只如這箇。作麼生入。陸云。入之一字。也不用得。師云。入之一字。不為郎中。陸便起去。

法燈云。入之一字。為甚麼人。又云。郎中且莫煩惱。雪竇於舉拂子處。別云。拂子到某甲手裏也。又別後語云。我將謂爾是箇俗漢。

### 鄧州香巖智閑禪師(凡七)

青州人也。初參百丈。性識聰敏。了無省動。百丈遷化後造為山。山問。我聞汝在百丈先師處。問一答十。問十答百。此是汝聰明靈利。意解識想。生死根本。父母未生時。試道一句來看。師茫然不能加答。遂歸寮。將平日看過底文字。從頭檢尋。無一句可將酬對。乃自嘆云。畫餅不可充飢。屢上堂頭告為山為說。山云。我若說似爾。爾已後罵我去在。我說底是我底。終不干爾事。師遂將平昔所畜文字。以火爇却。云此生不學佛法也。且作箇長行粥飯僧。免役心神。乃泣辭為山。

直過南陽忠國師遺跡。遂憩止草庵。一日芟除草木。因拋瓦礫。擊竹作聲。忽然省悟。遽歸沐浴。望為山作禮。嘆云。和尚大慈。恩踰父母。當時若為我說破。何有今日之事。乃述偈云。一擊忘所知。更不自修治。動容揚古路。不墮悄然機。處處無蹤跡。聲色外威儀。諸方達道者。咸言上上機。

瀉山聞得云。此子徹也。

時仰山侍立。乃云。此是心機意識。著述得成。待惠寂親自勘過。始得。

仰山後見師。問云。和尚贊嘆師兄。發明大事。爾試說看。師舉前頌。仰云。此是宿習。記持而成。若有正悟。更別說看。

師又作一偈云。去年貧未是貧。今年貧始是貧。去年貧尚有卓錫之地。今年貧錫也無。仰云。如來禪。許師兄會。祖師禪。未夢見在。

師又作一偈云。我有一機。瞬目視伊。若人不會。別喚沙彌。仰師報瀉山云。且喜香巖師兄。會祖師禪也。

師開堂日。瀉山令人送書。并拄杖到。師接了云。蒼天蒼天。僧問。和尚為甚如此。師云。只為冬行春令。

示眾云。道由悟達。不在語言。況是密密堂堂。曾無間隔。不勞心意。暫借回光。日用全功。迷徒自背。

示眾云。如人上樹。口銜樹枝。脚不踏樹。手不攀枝。樹下忽有問。如何是祖師西來意。不對又違他所問。若對他。又喪身失命。當恁麼時。作麼生即得。

時有虎頭上座。出眾云。上樹即不問。未上樹。請和尚道。師乃呵呵大笑。

雪竇云。樹上道即易。樹下道即難。老僧上樹也。致將一問

來。妙喜云。吞了栗棘蓬。透了金剛圈。見這般說話。也是泗州人見大聖。

保寧勇頌云。曲說多方老古錫。那堪枝上更生枝。好如良馬窺鞭影。逐塊且非師子兒。

僧問。不慕諸聖。不重己靈。時如何。師云。萬機休罷。千聖不携。

疎山時在眾。作嘔聲云。是何言歟。師問誰。眾云師叔。師云。不肯老僧那。山出眾云。是。師云。師叔莫道得麼。云道得。師云。試道看。山云。若教某甲道。須還師資禮始得。師下座。讓坐作禮。躡前問。山云。萬機休罷。猶有物在。千聖不携。亦從人得。師云。請師叔道。山云。肯重不得全。師云。肯又肯箇甚麼。重又重阿誰。山云。肯則肯他諸聖。重則重自己靈。師云。饒汝恁麼。也須倒屣三十年。設有住處。近山無柴燒。近水無水喫。分明記取。

後住疎山。果如師記。得疾。經二十七年方愈。自云。香巖師兄。記我。三十年倒屣。猶少三年在。每食罷。以手扶而吐之。以應前記。

山後問道怱長老。肯重不得全。作麼生會。怱云。全歸肯重。踈山云。不得全。又作麼生。怱云。箇中無肯路。山云。方愜病僧意。僧問。如何是道。師云。枯木裏龍吟。云如何是道中人。師云。髑髏裏眼睛。

其僧後問石霜。如何是枯木裏龍吟。霜云猶帶喜在。云如何是髑髏裏眼睛。霜云。猶帶識在。

又問曹山。如何是枯木裏龍吟。山云。血脉不斷。云如何是髑髏裏眼睛。山云。乾不盡。云未審還有得聞者麼。云盡大地。未有一人不聞。云未審龍吟。是何章句。山云。不知是何章句。聞者俱喪。遂作偈云。枯木龍吟真見道。髑髏無識眼初明。喜識盡時消息盡。當人那辨濁中清。

師問僧。甚處來。云瀋山來。師云。有何言句。云有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山豎起拂子。

師云。彼中兄弟。如何商量。云彼中商量道。即色明心。附物顯理。師云。會即便會。著甚死急。云師意如何。師亦豎起拂子。

### 杭州徑山洪諲禪師(凡三)

吳興吳氏子。佛日長老來。師問。承聞長老。獨化一方。何以荐游峰頂。云朗月當空挂。冰霜不自寒。師云。莫便是長老家風麼。云峭峙萬重關。於中含寶月。師云。此猶是文言。作麼生是長老家風。云今日賴遇佛日。

佛日却問師。隱密全真時。人知有道不得。太省無辜時。人知有道得。於此二途。猶是時人昇降處。未審長老。親道自道如何道。師云。我家道處。無箇道。日云。如來路上無私曲。更請玄音和一場。師云。任爾二輪更互照。碧潭雲外不相關。日云。為報白頭無限客。此回年少莫歸鄉。師云。老少同倫無向背。我家玄路勿參差。日云。一言定天下。四句為誰留。師云。爾言有三四。我道其中一也無。因有偈云。東西不相顧。南北為誰留。汝言有三四。我道一也無。

僧問。掩息如灰時如何。師云。猶是時人功幹。云幹後如何。師云。耕人田不種。云畢竟如何。師云。禾熟不臨場。

僧問。如何是長。師云。千聖不能量。云如何是短。師云。螻蛄眼裏著不滿。僧不肯。

後舉似石霜。霜云。只謂太近實頭。僧却問霜。霜云。不屈曲。僧進後語。霜云。雙陸盆中不喝彩。

### 福州雙峰禪師(凡一)

仰山問。師弟近日見處如何。師云。據某甲見處。實無一法可當情。仰云。汝解猶在境。師云。某甲只恁麼。師兄又如何。仰云。汝豈無能知無一法。可當情者。為山聞云。寂子一句。疑殺天下人。

### 福州九峰慈慧禪師(凡一)

師因為山上堂云。汝等諸人。只得大機。不得大用。師抽身便出。為山召云。更不回顧。山云。此子堪為法器。

保福展云。依稀似曲。失後忘前。

### 滁州定山神英禪師(凡二)

檉樹問。不落數量。請師道。師提起數珠云。是落不落。樹云。圓珠三竅。時人知有。請師圓前話。師便打。樹拂袖而出。師云。三十年後。槌笏大哭去在。

樹住後。示眾云。我三十年前。被定山熱瞞一上。不同小小。

雪竇云。定山用即用。爭奈嶮。檉樹知即知。要且未具擇法眼。試請辨看。

師見首座洗衣。乃問。作甚麼。座提起衣。師云。洗底是甚麼。座云。福州使鐵錢。師喚維那。移下挂搭著。

### 襄州延慶法端禪師(凡一)

僧問。蚯蚓斬為兩段。兩頭俱動。未審佛性在那頭。師展兩手。洞山別云。問底在阿那頭。

### 益州應天和尚(凡一)

僧問。如何是和尚佛性。師云。汝喚甚麼作佛性。云恁麼則和尚無佛性也。師高聲叫云。快活快活。

### 元康和尚(凡一)

訪玉樓。樓見師來。便収足坐。師云。得恁麼。威儀周足。樓云。汝適來見箇甚麼。師云。無端被人領過。樓云。直須恁麼。始為真見。師云。苦哉賺却幾人來。樓便起身。師云。見即見已。動即不動。樓云。盡力道不出定也。師拊掌三下。

南泉云。天下人斷這兩箇漢。是非不得。若斷得出。即與他同參。

### 京兆米和尚(凡三)

師令僧。問仰山。今時人。還假悟也無。仰云。悟即不無。爭奈落在第二頭。師深肯之。

僧問。自古上賢。還達真正理也無。師云達。云只如真正理。作麼生達。師云。當時霍光賣假銀城。與單于契書是甚麼人做。僧云。某甲直得杜口無言。師云。平地教人作保。

師問僧。近離甚處。云藥山。師云。藥山老子。近日如何。云大似一片頑石。師云。得與麼鄭重。云無爾提掇處。師云。非但藥山。米胡亦如是。僧近前顧視。師云。看看頑石動也。其僧便出去。

雪竇云。米胡也縱奪可觀。爭奈死而不弔。

### 襄州常侍王公敬(凡三)

公治事次。米胡來。王舉筆示之。米云。還判得虛空麼。王擲下筆。入宅。更不相見。米置疑。

明日憑華嚴置茶筵。米亦竄身屏間。嚴問。常侍昨日。米和尚有何言句。便不相見。王云。師子咬人。韓獹趨塊。米聞是語。遽出朗笑云。我會也。我會也。王云。會即不無。試請道看。米云。請常侍舉。王拈起一隻筯。米云。這野狐精。王云。這漢徹也。

大滄喆云。米胡只得一槩。常侍看樓打樓。若是大滄。待他擲下筆。但云。我從來疑著汝。

常侍。同臨濟入僧堂。乃問。這一堂師僧。還看經也無。云不看經。王云。還習禪也無。云不習禪。王云。經又不看。禪又不習。在這裏。作甚麼。濟云。總教伊成佛作祖去。王云。金屑雖貴。落眼成翳。濟云。我將謂爾是箇俗漢。

鏡清代云。比來拋磚引玉。大滄喆云。王常侍。可謂儒門君子。禪門良匠。若非智鑑精明。爭得是非穎脫。

常侍問僧。一切眾生。還有佛性也無。云有。王指壁間畫狗云。這箇響。僧無對。王云。看咬著。

### 筠州黃蘗希運禪師法嗣

### 睦州陳尊宿(凡二十四)

本郡人。得旨斷際。初居筠州米山。後住睦州觀音。常百餘眾。知道不偶世。捨眾居開元寺房。織蒲鞋養其母。挹世高蹈。為時所慕。凡應接來者。機辨峭絕。無容佇思。

指臨濟參黃蘗。接雲門嗣雪峰。皆師之力也。

示眾云。我見百丈和尚。不識好惡。上堂。大眾纔集。以拄杖一時打下。復召大眾。眾回首。丈云是甚麼。師云。有甚共語處。黃蘗亦然。復召大眾。眾回首。蘗云。月似彎弓。少雨多風。師云。猶較些子。

雪竇云。說甚麼。猶較些子。直是未在。雪竇眾集。一時打下。便休。或有箇無孔鐵鎚。為眾竭力。善能擔荷。可以籠罩古今。乾坤把斷。驀拈拄杖云。放過一著。

示眾云。汝等諸人。還得箇入頭處也未。若未得箇入頭處。須得箇入頭處。若得箇入頭處。不得辜負老僧。

時有僧出作禮云。終不敢辜負和尚。師云。早是孤負我了也。

雲峯悅云。古人恁麼道。和身放倒了也。汝等諸人。還相委悉麼。若相委悉。辜負睦州。若未委悉。雪峯亦遭連累。

示眾云。裂開也在我。捏聚也在我。

時有僧問。是何是裂開。師云。三九二十七。菩提涅槃。真如解脫。即心即佛。我且與麼道。汝又作麼生。僧云。某甲不恁麼。師云。盞子落地。樛子成七片。

雲峰悅云。相罵饒你接鬚。相唾饒汝潑水。

師云。明明向爾道。尚自不會。豈況蓋覆將來。

時有僧出作禮云。某甲終不敢辜負和尚。師云。早是辭負我了也。

妙喜云。葛藤得也未。

師云。我在此住持。未曾見箇無事人到來。汝等何不近前。

時有僧。近前。師云。維那不在。自領去三門外。與爾三十棒。云某甲過在甚麼處。師云。枷上更著杻。

西峰長老來。置茶果次。師問。今夏在甚麼處安居。峰云蘭溪。師云。多少眾。云七十餘人。師云。時中將何示徒。峰拈起柑子。師云。著甚死急。

師問武陵長老。了即毛吞巨海。始知大地一微塵。作麼生。陵云。和尚問阿誰。師云。問長老。陵云。何不領話。師云。我不領話。爾不領話。

雪竇云。墮也墮也。復云。這葛藤老漢。好與劃斷。驀拈拄杖云。甚麼處去也。

師問僧。近離甚處。僧便喝。師云。老僧被爾一喝。僧又喝。師云。三喝四喝後作麼生。僧無語。師便打云。這掠虜漢。

師有時喚僧云。大德。僧回首。師云。擔板漢。

雪竇云。睦州只具一隻眼。喚既回頭。因甚却成擔板。黃龍心云。雪竇亦只具一隻眼。這僧喚便回頭。因甚不成擔板。

師問僧。近離甚處。云瀏陽。師云。彼中老宿。祇對佛法大意。道甚麼。云徧地無行路。師云。老宿實有此語那。云實有。師拈拄杖打云。這念言語漢。

師問僧。近離甚處。云仰山。師云。五戒也不持。云甚麼處是某甲妄語處。師云。這裏不著沙彌。

師問僧。近離甚處。云那邊筍。師云。老僧屈。云和尚知即得。師云。檐枷過狀。劈脊便打。

雲峰悅云。睦州何用繁辭。那邊筍。劈脊便棒。

師問僧。近離甚處。云河北。師云。河北有箇趙州和尚。曾到彼中麼。云某甲近離彼中。師云。有何言句。僧舉喫茶話。師云。慚愧。

却問。爾道。趙州意作麼生。云只是一期方便。師云。苦哉。趙州被爾一杓屎。潑了也。便打。

師却問沙彌。爾作麼生會。彌作禮。師亦打。

其僧往問沙彌。和尚適來打爾。作甚麼。彌云。若不是我和尚。終不打我。

雪竇云。這僧克由耐。將一杓屎。潑他二員古佛。諸上座。若能辨得。非唯與趙睦二州。雪屈。亦乃雪竇。與天下老和尚無過。若辨不得。到處潑人。卒未了在。

師見僧來。便云。現成公案。放爾三十棒。云某甲如是。師云。寺門外金剛。為甚麼豎起拳。僧云。金剛尚乃如是。師便打。

雲門云。睦州正恁麼時。天下人。披枷帶鎖。

師見僧行胡餅。乃問行甚麼。云胡餅。師云。這俗漢。

雲門來敲門。師云阿誰。門云文偃。師開門。攔芻搗住云。道道。門擬議。師便推出云。秦時[車\*度]輅鑽。

師問僧。甚處來。云天台。師云。見說石橋。成兩截。是否。云和尚甚處。得這消息來。師云。將謂是華頂峰前客。元來只是平田村裏人。

師問僧正。聞汝講得唯識論。是否。云小年曾讀文字來。師拈胡餅。擘作兩片云。爾作麼生。正無語。師云。爾喚作胡餅。不喚作胡餅。云不可不喚作胡餅。師問沙彌。爾喚作甚麼。云胡餅。師云。爾也講得唯識論。

吳尚書至門。見師便問。三門俱開。弟子從何門入。師召尚書。書應諾。師云。從信門入。

有秀才。會二十四家書。師以拄杖。空中點一點云。會麼。云不會。師云。又道會二十四家書。永字八法。也不識。

黃龍南云。睦州一點。直在威音王已前。及乎八法論書。却被俗人勘破。若是黃龍。即不然。孔門弟子無人識。碧眼胡僧笑點頭。

僧問。高揖釋迦。不拜彌勒。時如何。師云。昨日有人。恁麼問。趁出去了也。云和尚恐某甲不實。師云。拄杖不在。苔蒂柄。聊與三十。

雪竇云。睦州只有受璧之心。且無割城之意。

僧問。門前金剛。托即乾坤大地。不托即絲髮不逢。時如何。師云。咩咩。我不曾見此問。先跳三千。倒退八百。爾合作麼生。僧云諾。師云。先責一紙罪狀好。便打。其僧擬去。師喚云。來來。我共爾葛藤。托即乾坤大地。爾且道。洞庭水深多少。云不曾量度。師云。洞庭湖又作麼生。云只為今時。師云。這葛藤尚不會。便打。

僧問。以字不成。八字不是。是何章句。師彈指一聲云。會麼。云不會。師云。上來講讚。無限良因。蝦蟆[跳-兆+孛]跳上天。蚯蚓驀過東海。

僧問。如何是向上一路。師云。要道有甚麼難。云請和尚道。師云。初三十一。中九下七。

問以一重。去一重。即不問。不以一重。去一重。時如何。師云。昨日栽茄子。今日種冬瓜。

問如何是展演之言。師云。量才補職。云如何是不展演之言。師云。伏惟尚饗。

問一氣還轉得一大藏教也無。師云。有甚[飢-几+(白-日+(田/升))]羅餿子。快下將來。

### 福州烏石靈觀禪師(凡六)

居常掩扃。人罕見之。

一日雪峰來敲門。師纔開門。峰搗住問云。是凡是聖。師唾云。這野狐精。托開。又閉却門。峯云。也只要識得老兄。

雪峰一日又來敲門。師問阿誰。峯云。鳳凰兒。師云。作甚麼。云啗老觀。師開門搗住云。道道。峯擬議。師便托開。掩却門。峰住後。示眾云。我當時。若入得老觀問。爾這一隊啗酒糟漢。向甚麼處摸索。

有老宿云。雪峰徒有此語。當時入不得。如今也入不得。明招代峯。纔見開門。便云。動即喪。

又代老觀云。俊哉俊哉。雪竇云。這辜恩負德漢。有甚麼交涉。當時入不得。豈是教爾入。今既摸索不著。累他雪峰。俱

在老觀門下。

曹山問。如何是毗盧師。法身主。師云。不道。

曹舉似洞山。山云。好箇話頭。只欠進語。曹云。進甚麼語。洞云。何不問為甚麼不道。

曹復去進是語。師云。若言我不道。即啞却我口。若言我道。即禿却我舌。

曹山舉似洞山。山深肯之。

師引麵次。有新到相看。師引麪示之。僧便去。

師晚間問首座。今日新到。在甚麼處。首座云。當時便去了也。師云。是即是。即得一椀。

雪竇云。老觀大似失錢遭罪。

翠巖芝云。彼此出家兒。

師問懶安。此一片地。堪著箇甚麼。安云。好著箇無相佛。師云。好一片地。被和尚放不淨污了也。

僧問。如何是佛。師出舌示之。僧作禮。師云。汝見箇甚麼。便禮拜。云謝和尚出舌相示。師云。老僧近日。舌上生瘡。

### 杭州千頃楚南禪師(凡一)

南閩張氏子。示眾云。諸子設使解得三世佛教。如瓶注水。及得百千三昧。不如一念修無漏道。免被人天因果繫縛。

僧問。無漏道。如何修。師云。未有闍梨時。體取。云未有某甲時。教阿誰體。師云。體者亦無。

### 相國裴公休(凡三)

公守宣州時。指畫壁高僧。問僧云。形儀可觀。高僧在甚麼處。僧無對。公云。此間莫有禪僧麼。

時黃蘗運禪師。客寺中。僧云。有一客僧。頗似禪者。公請來。理前問。運召裴休。公應諾。運云。在甚麼處。公於言下大悟。

公一日。捧一尊佛。於黃蘗前。跏趺云。請師安名。蘗召云。裴休。公應諾。蘗云。與汝安名竟。公作禮而謝。

公著傳心偈云。心不可傳。以契為傳。心不可見。以無為見。契亦無契。無亦無無。化城不住。迷額有珠。珠是強名。城豈有形。即心即佛。佛即無生。直下便是。勿求勿營。使佛覓佛。倍費功程。隨法生解。即落魔界。凡聖不分。乃離見聞。無心似鏡。與物無競。無念似空。無物不容。三乘外法。歷劫希逢。若能如是。是出世雄。

聯燈會要卷第八

南嶽下第五世

筠州黃檗希運禪師法嗣下

鎮州臨濟義玄禪師(凡四十八)

曹州南華邢氏子。初參黃檗。凡三年。行業純一。時陳睦州為首座。嘆曰。此子雖後生。與眾有異。

一日問師云。上座在此。多少時。師云。三年。座云。還曾參問也無。師云。不曾。座云。何不請問堂頭和尚。佛法。師云。不知問箇甚麼。座云。汝但去問。如何是佛法的的大意。師依教。上堂頭請問。聲未絕。檗拈棒便打。師罔措。下來。座問。爾問話作麼生。師云。某甲問聲未絕。和尚便打。某甲不會。座云。爾更去問。如是三問。三遭痛棒。乃泣辭首座云。幸蒙慈悲。令去問訊和尚。三度發問。三遭痛棒。自恨障緣。不領深旨。今且辭首座下山。座云。汝去須辭和尚了行。師作禮而退。

首座潛告黃檗云。問話底後生。甚是如法。若辭和尚時。可方便提誨。他時異日。成一株大樹。與天下人。作蔭涼去在。

師辭黃檗。檗云。不要別處去。向高安灘頭。大愚處去。必為汝說。

師到大愚。大愚問。甚處來。師云。黃檗來。愚云。有何言句。師云。某甲三度問。如何是佛法的的大意。三度遭棒。未審有過無過。愚云。黃檗恁麼老婆心。為汝得徹困。更來這裏。問有過無過。師於言下大悟。不覺失聲云。噫。元來黃檗佛法。無多子。大愚搗住云。這尿床鬼子。適來問有過無過。如今却道。黃檗佛法與多子。汝見箇甚麼道理。速道速道。師於大愚肋下。築三拳。愚托開云。汝師黃檗。非干我事。

師辭大愚。却歸黃檗。檗問。這漢。來來去去。有甚了期。師云。只為老婆心切。便人事畢。侍立其傍。

檗問。甚麼處來。師云。昨蒙慈悲。令見大愚來。檗云。有何言句。師舉前話。檗云。這老漢饒舌。作麼生得他來。待痛與一頓。師云。說甚麼待他來。即今便喫。道了。便打黃檗一掌。檗吟吟而笑云。這風顛漢。來這裏。捋虎鬚。師便喝。檗召侍者云。引這風顛漢。參堂去。

為山問仰山。臨濟得大愚力。得黃檗力。仰云。非。

但騎虎頭。亦解把虎尾。

白雲端頌云。一拳拳倒黃鶴樓。一踢踢翻鸚鵡洲。有意氣時添意氣。不風流處也風流。

師栽松次。黃檗云。深山裏。栽許多作甚麼。師云。一與山門作境界。二與後人作標榜。道了。將鑿打地一下。檗云。雖然如是。子已喫吾二十棒了也。師又打地一下云。噓噓。檗云。吾宗到汝。大興於世。

為山問仰山。黃檗當時只囑臨濟一人。別更有在。仰云有。只是年代深遠。不欲舉似和尚。為云。雖然如是。吾亦要知。但舉看。仰云。一人指南。吳越令行。遇大風即止。

師普請。鋤地次。黃檗後至。師問訊了。按鑿而立。檗云。爾困那。師云。纔鑿地。何言困。檗拈拄杖便打。師接住。便推倒黃檗。檗喚云。維那拽起我來。維那云。和尚爭容得這風顛漢。檗纔起。却與維那一掌。師將鑿鑿地云。諸方火葬。我這裏活埋。

為山問仰山。黃檗與臨濟。此時意作麼生。仰云。正賊走了。邏蹤人喫棒。大為喆云。黃檗推倒。維那扶起。火葬活埋。清風未已。

師因黃檗入厨。見飯頭揀米。乃問。作甚麼。云揀米。檗云。一日喫多少。云二碩伍斗。檗云。莫太多麼。云猶恐少在。檗便打。飯頭舉似師。師云。待我為汝。勘過這老漢。即往侍立。檗舉前話。師云。飯頭不會。請和尚。代一轉語。師便問。莫太多麼。檗云。何不道來日更喫一頓。師云。說甚麼來日。即今便喫。道了。便打檗一掌。檗云。這風顛漢。又來這裏。捋虎鬚。師便喝。乃出去。

為山云。養子方知父慈。

仰山云。大似勾賊破家。

師半夏間。上問訊黃檗。見檗看經。師云。我將謂爾是箇人。元來只是箇淹黑豆底老和尚。

住數日辭去。檗云。汝破夏來。不終調了去。師云。某甲暫來禮拜和尚。檗便打。趁令出。師行數里。却回終夏。

師辭黃檗。云甚麼處去。師云。不是河南。便是河北。檗便打。師約住棒。與檗一掌。檗呵呵大笑。

喚侍者。將先師禪版拂子來。師喚侍者。將火來。檗云。子但將去。已後坐却天下人舌頭。

為山舉問仰山。臨濟莫辜負他黃檗也無。仰云。不然。為云。子作麼生。仰云。知恩方解報恩。為云。從上來。莫有報恩事麼。仰云。有。只是年代深遠。不欲舉似和尚。為云。雖然如是。吾也要知。子但舉看。仰云。如楞嚴會上。阿難贊佛云。

將此深心奉塵刹。是則名為報佛恩。豈不是報恩之事。為云。  
如是如是。見與師齊。減師半德。智過於師。方堪傳授。  
師侍立德山次。山云。今日困。師云。老漢寐語作麼。山便打。師  
便掀倒繩床。

雪竇云。二員作者。具啐啄同時眼。有啐啄同時用。雪竇擬向  
飢鷹爪下奪肉。餓虎口裏爭食。敢謂德山臨濟。二俱瞎漢。有  
人辨得。天下橫行。

雲峰悅云。奇怪諸禪德。看此二員作家。一搵一捺。略露風  
規。大似把手上高山。雖然如是。未免傍觀者哂。且道。誰是  
傍觀者。喝一喝。

師到三峰平和尚處。平問。發足甚處。云黃檗。平云。有何言句。  
師云。金牛昨夜遭塗炭。直至如今不見蹤。平云。秋風吹玉管。那  
箇是知音。師云。直透萬重關。不住青霄外。平云。此語太高生。  
師云。龍生金鳳子。衝破碧琉璃。平云。且坐喫茶。

師到襄州華嚴。嚴見來。橫按拄杖。作瞌睡勢。師云。莫瞌睡。嚴  
云。作家禪客。宛爾不同。師云。侍者點茶來。與和尚喫。嚴喚維  
那。第三位安排著。

師到鳳林。林云。有事相借問。得麼。師云。何得剝肉作瘡。林  
云。海月澄無影。游魚逐浪迷。師云。海月既無影。游魚何得迷。  
林云。觀風知浪起。翫水野帆飄。師云。孤蟾獨耀江山靜。長嘯一  
聲天地秋。林云。任將三才輝天地。一句臨機試道看。師云。路逢  
劍客須呈劍。不是詩人不獻詩。林休去。

師乃有頌云。大道絕同。各自西東。石火莫及。電光罔通。

為山問仰山。臨濟道。石火莫及。電光罔通。從上諸聖。以何  
為人。仰云。和尚作麼生。為云。但有言說。都無實義。仰  
云。不然。為云。子又作麼生。仰云。官不容針。私通車馬。  
為云。如是如是。

師到金牛。牛見來。橫按拄杖。當門據坐。師以手敲杖三下。却歸  
堂中。第一位坐。牛下來見。乃問。夫賓主相見。各有禮儀。上座  
從何而來。太無禮生。師云。老和尚道甚麼。牛擬開口。師便打。  
牛作倒勢。師又打。牛云。今日不著便。

為山問仰山。此二尊宿。還有勝負也無。仰云。勝則總勝。負  
則總負。

師因徑山。有五百眾。少人參請。每日繞佛殿前大樹。行道。念觀  
音。接人。山與黃檗。是同參。寄書來。具言其事。檗令師往。乃  
問。爾到彼。作麼生。師云。某甲自有方便。

師到徑山。裝腰直上法堂。徑山纔舉頭。師便喝。山擬開口。師拂  
袖便行。

尋有僧。問徑山。適來這僧。有甚言句。便喝和尚。山云。這僧從黃檗來。爾要知。自去問取他。

是時五百眾。太半分散。

師到龍光。便問。不展機鋒。如何得勝。光據坐。師云。大善知識。豈無方便。光瞪目云。噯。師拍手云。大眾看。這老漢。今日敗闕。便行。

師往鳳林。路逢一婆子。問師。甚麼處去。師云。鳳林去。婆云。恰值鳳林不在。師云。甚麼處去。婆便行。師召婆。婆回首。師便行(有本後語云。誰云不在。深失旨也)。

示眾云。夫為法者不避喪身失命。我二十年。在黃檗先師處。三度問佛法的的大意。三度賜棒。如蒿枝拂著相似。如今更思得一頓喫。誰為下手。

時有僧。出云。某甲下手。師拈棒度與僧。僧擬接。師便打。

示眾云。赤肉團上。有一無位真人。常在汝諸人面門。出入。未證據者。看看。

時有僧問。如何は無位真人。師下繩床。搗住云。道道。僧擬議。師托開云。無位真人。是甚麼乾屎橛。便歸方丈。

雪峰云。臨濟大似白拈賊。琅琊覺云。臨濟可謂水凌上度過九鞠。劔刃上捨得全身。

雪竇云。夫善竊者。鬼神不知。既被雪峰覷破。臨濟不是好手。

復召大眾云。雪竇今日。換爾諸人眼睛了也。爾若不信。各歸寮舍。自摸索看。

妙喜頌云。腦後見腮村僧。大開眼了作夢。雖然趁得老鼠。一棒打破油甕。

示眾云。但有來者。不虧欠伊。總識得伊來處。與麼來者。恰似失却。不與麼來者。無繩自縛。一切時中。莫亂斟酌。會與不會。都來是錯。分明與麼道。一任天下人貶剝。

示眾云。一人在孤峰頂上。無出身路。一人在十字街頭。亦無向背。且道。那箇在前。那箇在後。不作維摩詰。不作傅大士。

示眾云。有一人。論劫在途中。不離家舍。有一人。離家舍。不在途中。那箇合受人天供養。

妙喜云。賊身已露。

師上堂。有僧出作禮。師便喝。僧云。老和尚莫探頭好。師云。爾道。落在甚麼處。僧便喝。

又一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便喝。僧作禮。師云。爾道。好喝也無。僧云。草賊大敗。師云。過在甚麼處。僧云。再犯不容。

師云。大眾要會臨濟賓主句。問取堂中二首座。便下座。

師見普化。乃云。我在南方。馳書到瀉山時。知爾先在此住。待我來。及我來。得汝佐贊。我今欲建立黃檗宗旨。汝切須為我成禱。普化珍重下去。

克符後至。師亦如是道。符亦珍重下去。

三日後。普化却上問訊云。和尚前日。道甚麼。師拈棒便打下。

又三日。克符亦上問訊。乃問。和尚前日打普化。作甚麼。師亦拈棒打下。

至晚上堂云。有時奪人不奪境。有時奪境不奪人。有時人境俱奪。有時人境俱不奪。

時有僧問。如何是奪人不奪境。師云。煦日發生鋪地錦。櫻兒垂髮白頭絲。云如何是奪境不奪人。師云。王令己行天下徧。將軍塞外絕煙塵。云如何是人境兩俱奪。師云。并汾絕信。獨處一方。云如何是人境俱不奪。師云。王登寶殿。野老謳歌。

普化與克符。俱出作禮。師便歸方丈。

示眾云。今時學佛法者。且要求真正見解。若得真正見解。生死不染。去住自由。不要求殊勝。殊勝自至。道流。只如自古先德。皆有出人底路。如山僧指示人處。祇要爾不受人惑。要用便用。更莫遲疑。如今學者。不得。病在甚處。病在不自信處。爾若自信不及。即便忙忙地。循一切境轉。被他萬境回換。不得自由。爾若能歇得念念馳求心。便與祖佛不別。爾欲識祖佛麼。祇爾面前聽法底是。學人信不及。便向外馳求。設求得者。皆是文字勝相。終不得他活祖意。莫錯。諸禪德。此時不遇。萬劫千生。輪回三界。循好惡境掇去。驢牛肚裏生。

道流。約山僧見處。與釋迦不別。每日多般用處。欠少甚麼。六道神光。未曾間歇。若能如是見得。祇是一生無事人。

大德。三界無安。猶如火宅。此不是爾久停住處。無常殺鬼。一剎那間。不揀貴賤老少。爾要與祖佛不別。但莫外求。爾一念心上。清淨光。是爾屋裏法身佛。爾一念心上。無分別光。是爾屋裏報身佛。爾一念心上。無差別光。是爾屋裏化身佛。此三種身。是爾即今目前聽法底人。祇為不向外馳求。有此功用。據經論家。取此三種身。為極則。約山僧見處。不然。此三種身是名言。亦是三種衣。古人云。身依義立。土據體論。法性身。法性土。明知是光影。

大德。爾且識取弄光影底人。是諸佛之本源。一切處。是道流歸舍處。是爾四大色身。不解說法聽法。脾胃肝膽。不解說法聽法。虛空不解說法聽法。是甚麼解說法聽法。是爾目前歷歷底。沒一箇形段。是這箇解說法聽法。如是見得。便與祖佛不別。但一切時中。

更莫間斷。觸目皆是。祇為情生智隔。想變體殊。所以輪回三界。受種種苦。若約山僧見處。無不甚深。無不解脫。

道流。心法無形。通貫十方。在眼曰見。在耳曰聞。在鼻嗅香。在舌談論。在手執捉。在足運奔。本是一精明。分為六和合。一心既無。隨處解脫。山僧與麼說。意在甚麼處。祇為道流一切馳求心不能歇。上他古人。閑機境。

道流。取山僧見處。坐斷報化佛頭。十地滿心。如客作兒。等妙二覺。擔枷帶鎖漢。羅漢辟支。猶如廁穢。菩提涅槃。如繫驢橛。何以如此。祇為道流。不達三祇劫空。所以有此障礙。若是真正道人。終不如是。但自隨緣消舊業。任運著衣裳。要行即行。要坐即坐。無一念心。希求佛果。緣何如此。古人云。若欲作業求佛。佛是生死大兆。

大德時光可惜。祇擬傍家波波地。學佛學法。認名認句。求佛求祖。求善知識。意度。莫錯。

道流。爾只有一箇父母。更求何物。爾自返照看。古人云。演若達多失劫頭。求心歇處即無事。大德。且要平常。莫作模樣。有一般不識好惡禿奴。便即見神見鬼。指東劃西。好晴好雨。如是之流。盡須抵債。向閻老前。吞熱鐵丸。有日在。好人家男女。被這一般野狐精魅所著。便即捏怪。瞎屢生。索飯錢有日在。

示眾云。道流切要求取真正見解。向天下橫行。免被這一般精魅惑亂。無事是貴人。但莫造作。祇是平常。爾纔擬心。早是錯了也。且莫求佛。佛是名句。爾還識馳求底麼。三世十方佛祖出來。也祇為求法。如今參學道流。也只為求法。得法始了。未得。依前輪回五道。云何是法。法者是心法。心法無形。通貫十方。目前現用。人信不及。便乃認名認句向。文字中。求其意度。與佛法。天地懸殊。

道流。山僧說法。說甚麼法。說心地法。便能入凡人聖。入淨入穢。入真入俗。要且是不爾真俗凡聖。能與一切真俗凡聖。安著名字。真俗凡聖。與此人。安著名字不得。

道流。把得便用。更莫安排。方契玄旨。山僧說法。與天下人別。只如有箇文殊普賢。出來目前。各現一身問法。纔道諮和尚。我早辨了也。老僧穩坐。更有道流。來相見時。我盡辨了也。何以如此。只為我見處別。外不取凡聖。內不住根本。見徹本法。更不疑謬。

示眾云。佛法無用功處。祇是平常無事。著衣喫飯。屙屎送尿。困來即臥。愚人笑我。智乃知焉。古人云。向外作功夫。總是癡狂漢。爾且隨處作主。立處皆真。一切境緣。回換不得。縱有從來習氣。五無間業。皆為解脫大海。

今時學者。總不識法。猶如觸草羊。逢著物。安在口裏。奴郎不辨。賓主不分。如是之流。邪心入道。鬧處即入。不得名為真出家人。正是真俗家人。

夫出家者。須辨得平常真正見解。辨佛辨魔。辨真辨偽。辨凡辨聖。若如是辨得。名真出家。若魔佛不辨。正是出家人一家。喚作造業眾生。未得名為真出家。只如今有一箇佛魔。同體不分。如水乳合。若是明眼道流。魔佛俱打。爾若愛聖憎凡。生死海裏浮沉。未有了日。

僧問。如何是佛魔。師云。爾一念心疑處。是佛魔。爾若達得萬法無生。心如幻化。更無一塵一法。處處清淨。即無佛魔。佛魔是染淨二境。約山僧見處。無佛無眾生。無古無今。得者便得。不歷時節。無修無證。無得無失。一切時中。更無別法。設有一法過此者。我說如夢如化。山僧所說是。道流。見今目前。孤明歷歷地。聽法者。此人處處不滯。通徹十方。三界自在。入一切差別境。不能回換。一剎那間。透入法界。逢佛說佛。逢祖說祖。逢羅漢說羅漢。逢餓鬼說餓鬼。向一切處。游履國土。教化眾生。未曾離一念。隨處清淨。光透十方。萬法一如。道流。大丈夫兒。今日方知本來無事。只為爾信不及。念念馳求。捨頭覓頭。自不能歇。如圓頓菩薩。入法界現身。向淨土中。厭凡欣聖。如此之流。取捨未忘。染淨心在。如禪宗見解。又且不然。直是現今。更無時節。山僧說處。皆是一期藥病相治。總無實法。若如是見得。是真出家。日消萬兩黃金。道流。莫取次被諸方老師。印破面門。道我解禪解道。辯似懸河。皆是造地獄業。若是真正學道人。不見世間過。切急要求真正見解。若達真心。悟性圓明。方始了畢。

僧問。如何是真正見解。師云。汝但一切入凡入聖。入染入淨。入諸佛國土。入彌勒樓閣。入毗盧遮那法界。處處皆現國土。成住懷空。佛出于世。轉大法輪。入無餘涅槃。不見有去來相貌。求其生死。了不可得。便入無生法界。處處游履國土。入華藏世界。盡見諸法空相。皆無實法。唯有聽法無依道人。是諸佛之母。所以佛從無依生。若悟無依。佛亦無得。若如是見得。是真正見解。學人不了。為執名句。被他凡聖名碍。所以障其道眼。不得分明。祇如十二分教。皆是表顯之說。學者不會。便向表顯名句上。生解。皆是依倚。落在因果。未免三界生死。你若欲得生死去住。脫著自由。即今識取聽法底人。無形無相。無根無本。無住處。活鱗鱗地。應是萬種施設。用處祇是無處。所以覓著轉遠。求之轉乖。號之為秘密。

道流。爾莫認著箇夢幻伴子。遲晚中間。便歸無常。爾向此世界中。覓箇甚麼物。作解脫。覓取一口飯喫。補毳過時。且要尋訪知

識。莫因循逐樂。虛生浪死。光陰可惜。念念無常。羶則被地水火風。細則被生住異滅。四相所逼。道流。今時且要識取四種無相境。免被境擺撲。

僧問。如何是四種無相境。師云。爾一念心疑。被此礙。爾一念心愛。被水溺。爾一念心瞋。被火燒。爾一念心喜。被風飄。若能如是辨得。不被境轉。處處用境。東涌西沒。南涌北沒。中涌邊沒。邊涌中沒。履水如地。履地如水。緣何如此。為達四大如夢如幻故。道流。祇今聽法者。不是爾四大。能用爾四大。若能如是見得。便乃去住自由。約山僧見處。勿嫌底法。爾若愛聖。聖是空名。有一般學人。向五臺求文殊。早錯了也。五臺無文殊。爾欲識文殊麼。祇爾日前用處。始終不異。處處不疑。此箇是活文殊。爾一念心。無差別光。處處總是普賢。爾一念心。自由自在。隨處解脫。此是觀音三昧法。互為主伴。出則一時出。一即三。三即一。必是解得。始好看教。

示眾云。如今學道人。且要自信。莫向外覓。總上他閑塵境。都不辨邪正。祇如有佛有祖。皆是教跡中事。有人拈起一句子語。或隱顯中出。便即疑生。照天照地傍家尋問。也大茫然。大丈夫。莫祇恁麼。論主論賊。論是論非。論色論財。閑話過日。山僧此間。不論僧俗。但有來者。盡識得伊。任伊向甚處出來。但有聲名文句。皆是夢幻。却見乘境底人。是諸佛之玄旨。佛境不能自稱我是佛境。還是這箇無依道人。乘境出來。若有人出來。問我求佛。我即應清淨境出。若有人。問我菩薩。我即應慈悲境出。有人問我菩提。我即應淨妙境出。有人問我涅槃。我即應寂靜境出。境即萬般差別。人即不別。所以應物現形。如水中月。道流。爾若欲得如法。直須是大丈夫兒始得。若萋萋隨隨地。即不得也。夫如甞噉之器。不堪貯醍醐。如大器者。直要不受人惑。隨處作主。立處皆真。但有來者。皆不得受。爾一念心疑。即魔入心府。如菩薩疑時。生死魔得其便。但須息念。更莫外求。物來即照。爾但信現今用底。一箇事也無。爾一念心生三界。隨緣被境分。為六塵。爾如今應用處。欠少甚麼。一剎那間。便入淨入穢。入彌勒樓閣。入三眼國土。處處游履。唯見空名。

僧問。如何是三眼國土。師云。我共爾。入淨妙國土中。著清淨衣。說法身佛。又入無差別國土中。著無差別衣。說報身佛。又入解脫國土中。著光明衣。說化身佛。此三眼國土。皆是依變。約經論家。取法身。為根本。報化二身。為用。山僧見處。法身即不會說法。所以古人云。身依義立。土據體論。法性身。法性土。明知是建立之法。依通國土。空拳黃葉。用誑小兒。藜藿菱刺。枯骨上。覓甚麼汁。心外無法。內亦不可得。求甚麼物。爾諸方言。道

有修有證。莫錯。設有修證者。皆是生死業。爾言。六度萬行齊修。我見皆是造業。求佛求法。即是造地獄業。求菩薩。亦是造業。看經看教。亦是造業。佛與祖師。是無事人。所以有漏有為。無漏無為。為清淨業。有一般瞎禿子。飽喫飯了。坐禪觀行。把捉念漏。不令放起。厭喧求靜。是外道法。祖師云。爾若住心觀靜。舉心外照。攝心內澄。凝心入定。如是之流。皆是造作。是爾如今。與麼聽法底人。作麼生擬修他。證他莊嚴他。渠且不是修底物。不是莊嚴底物。若教他莊嚴。一切物即莊嚴得。爾且莫錯。道流。爾取這一般老師口裏語。為是真道。是善知識。不思議。我是凡夫。心不敢測度他老宿。瞎屢生爾一生只作這箇見解。辜負這一雙眼。冷噤噤地。如凍凌上驢駒。相似。我不敢毀善知識。怕生口業。

道流。夫大善知識。始敢毀佛毀祖。是非天下。排斥三藏教。罵辱諸小兒。向逆順中。覓人。所以我於十二年中。求一箇業性。如芥子許。不可得。恰似新婦子禪師。便即怕趨出院。不與飯喫。不安不樂。自古先輩。到處人不信。被遞出。始知是貴。若到處。人盡肯。堪作甚麼。所以師子一吼。野犴腦裂。道流。諸方說有道可修。有法可證。爾說。證何法。修何道。爾今用處。欠少甚麼物。修補何處。後生小阿師。不會便即信這般野狐精魅。許他說事。繫縛他人言道。理行相應。護惜三業。始得成佛。如此說者。如春細雨。古人云。路逢達道人。第一莫向道。所以道。若人修道道不行。萬般邪境競頭生。智劍出來無一物。明頭未顯暗頭明。所以古人云。平常心是道。大德。覓甚麼物。現目前聽法無依道人。歷歷地分明。未曾欠少。爾若欲得與祖佛不別。但如是見。不用疑誤。爾心心不異。名之活祖。心若有異。則性與相別。心不異故。即性與相不別。

問如何是心心不異處。師云。爾擬問。早異了也。性相各分。道流莫錯。世出世諸法。皆無自性。亦無生性。但有空名。名字亦空。爾只麼認他閑名為實。大錯了也。設有。皆是依變之境。有箇菩提依。涅槃依。解脫依。三身依。境智依。菩薩依。佛依。爾向依變國土中。覓甚麼物。乃至三乘十二分教。皆是拭不淨故紙。佛是幻化身。祖是老比丘。爾還是娘生已否。爾若求佛。即被佛魔攝。爾若求祖。即被祖魔縛。爾若有求皆苦。不如無事。

有一般禿比丘。向學人道。佛是究竟。於三大阿僧祇劫。修行果滿。方始成道。道流爾若道佛是究竟。緣甚麼八十年後。向拘尸羅城。雙林樹間。側臥而死去。佛今何在。明知與我生死不別。爾言。三十二相。八十種好是佛。轉輪聖王。應是如來。明知是幻化。古人云。如來舉身相。為順世間情。恐人生斷見。權且立虛

名。假名三十二。八十也。虛聲。有身非覺體。無相乃真形。爾道佛有六通。是不可思議。一切諸天。神仙。阿修羅大力鬼。亦有神通。應是佛否。道流莫錯。祇如阿修羅。與天帝釋戰。戰敗。領八萬四千眷屬。入藕絲孔中藏。莫是聖否。如山僧所舉。皆是業通依通。夫如佛六通者。不然。入色界不被色惑。入聲界不被聲惑。入香界不被香惑。入味界不被味惑。入觸界不被觸惑。入法界不被法惑。所以達六種。色聲香味觸法。皆是空相。不能繫縛此無依道人。雖是五蘊漏質。便是地行神仙。

道流。真佛無形。真法無相。爾祇麼幻化頭上。作摸作樣。設求得者。皆是野狐精魅。並不是真佛。是外道見解。夫如真學道人。並不取佛。不取菩薩羅漢。不取三界殊勝。迥然獨脫。不與物拘。乾坤倒覆。我更不疑。十方諸佛現前。無一念心喜。三塗地獄頓現。無一念念怖。緣何如此。我見諸法空相。變即有。不變即無。三界唯心。萬法唯識。所以夢幻空花。何勞把捉。唯有道流目前。現今聽法底人。入火不燒。入水不溺。入三塗地獄。如游園觀。入餓鬼畜生。而不受報。緣何如此。無嫌底法。爾若愛聖憎凡。生死海裏沉浮。煩惱由心故有。無心。煩惱何拘。不勞分別取相。自然得道須臾。爾擬傍[冗-几+豕]波波地。學得。於三祇劫中。終歸生死。不如無事。向叢林中。牀角頭交脚坐。

道流。如諸方。有學人來。主客相見了。便有一句子語。辨前頭善知識。被學人拈出箇機權語路。向善知識。口角頭。攏過。看爾識不識。爾若識得是境。把得便拋向坑子裏。學人便即尋常。然後便索善知識語。依前奪之。學人云。上智哉。是大善知識。即云。爾大不識好惡。

如善知識。把出箇境。塊子。向學人面前弄。前人辨得。下下作主。不受境惑。善知識。即現半身。學人便喝。善知識。又入一切差別語路中擺撲。學人云。不識好惡老禿奴。善知識嘆云。真正道流。

如諸方善知識。不辨邪正。學人來。問菩提涅槃。三身境智。瞎老師。便與他解說。被他學人罵著。便把棒打他言。無禮度。自是爾善知識無眼。不得瞋他。

有一般不識好惡禿奴。即指東劃西。好晴好雨。好燈籠露柱。爾看。眉毛有幾莖。這箇具機緣。學人不會。便即心狂。如是之流。總是野狐精魅魍魎。被他好學人。嗞嗞微笑言。瞎老禿奴。惑亂他天下人。

道流。出家兒。且要學道。祇如山僧。往日曾向毗尼中留心。亦曾於經論尋討。後方知。是濟世藥方。表顯之說。遂乃一時拋却。即

訪道參禪。後遇大善知識。方乃道眼分明始識得天下老和尚。知其邪正。不是娘生下便會。還是體究練磨。一朝自省。道流。爾欲得如法見解。但莫受人惑。向裏向外。逢著便殺。逢佛殺佛。逢祖殺祖。逢羅漢殺羅漢。逢父母殺父母。逢親眷殺親眷。始得解脫。不與物拘。透脫自在。如諸方學道流。未有不依物出來底。山僧向此間。從頭地打。手上出來。手上打。口裏出來。口裏打。眼裏出來。眼裏打。未有箇獨脫出來底。皆是上他古人閑機境。山僧無一法與人。只是治病解縛。爾諸方道流。試不依物出來。我要共爾商量。十年五載。並無一人。皆是依草附葉。竹木精靈。野狐精魅。向一切糞塊上。亂咬。瞎漢。枉消他十方信施。道我是出家兒。作如是見解。向爾道。無佛無法。無修無證。祇與麼。傍家擬求甚麼物。瞎漢。頭上安頭。是爾欠少甚麼。道流。是爾目前用底。與祖佛不別。祇麼不信。便向外求。莫錯。向外無法。內亦不可得。爾取山僧口裏語。不如休歇無事去。已起者莫續。未起者不要放起。便勝爾十年行脚。約山僧見處。無如許多般。祇是平常。著衣喫飯。無事過時。爾諸方來者。皆是有心。求佛求法。求解脫。求出離三界。癡人。爾要出離三界。甚麼處去。佛祖是賞繫底名句。爾欲識三界麼。不離爾今聽法底心地。爾一念心貪。是欲界。爾一念心瞋。是色界。爾一念心癡。是無色界。是爾屋裏家具子。三界不自道我是三界。還是道人。目前靈靈地。照燭萬般。酌度世界底人。與三界安名。大德。四大色身。是無常。乃至脾胃肝膽。髮毛爪齒。唯見諸法空相。爾一念心。歇得處。喚作菩提樹。爾一念心。不能歇得處。喚作無明樹。無明無住處。無明無始終。爾若念念心。歇不得。便上他無明樹。便入六道四生。披毛帶角。爾若歇得。便是清淨身界。爾一念不生。便是上菩提樹。三界神通變化。意生化身。法喜禪悅。身光自照。思衣羅綺千重。思食百味具足。更無橫病。菩提無住處。是故無得者。道流。大丈夫漢。更疑箇甚麼。目前用處。更是阿誰。把得便用。莫著名字。号為玄旨。與麼見得。勿嫌底法。古人云。心隨萬境轉。轉處實能幽。隨流認得性。無喜亦無憂。道流。如禪宗見解。死活循然。參學之人。大須子細。如主客相見。便有言論往來。或應物現形。或全體作用。或把機權喜怒。或現半身。或乘師子。或乘象王。如真正學人。便喝。先拈出箇膠盆子。善知識不辨是境。便上他境上。作摸作樣。學人便喝。前人不肯放。此是膏肓之病。不堪醫。喚作客看主。或是善知識。不拈出物。隨學人問處。即奪。學人被奪。抵死不放。此是主看客。或有學人。應一箇清淨境。出善知識前。善知識。辨得是境。把得拋向坑裏。學人言。大好善知識。即云。咄哉不識好惡。學人便禮拜。

此喚作主。看主或有學人。披枷帶鎖。出善知識前。善知識。更與安一重枷鎖。學人歡喜。彼此不辨。呼為客看客。  
大德。山僧如是所舉。皆是辨魔揀異。知其邪正。  
道流。實情大難。佛法幽玄。解得可可地。山僧竟日。為他說破。學者總不在意。千徧萬徧。脚底踏過。黑沒焮地。無一箇形段。歷歷狐明。學人信不及。便向名句上。生解。年登半百。只管傍家。負死屍。擔却擔子。天下走。索草鞋錢。有日在。大德。山僧說。向外無法。學人不會。便即向裏作解。便即倚壁坐。舌拄上齶。湛然不動。取此為是祖門佛法。也大錯。是爾若取不動清淨境。為是。爾即認他無明。為郎主。古人云。湛湛黑暗深坑。實可怖畏。此之是也。所以動者。是風大。不動者。是地大。動與不動。俱無自性。若向動處捉他。他向不動處立。若向不動處捉他。他向動處立。譬如潛泉魚。鼓波而自躍。  
大德。動與不動。是二種境。還是無依道人。用動用不動。如諸方學人來。山僧此間。作三種斷。如中下根器來。我便奪其境。而不除其法。或中上根器來。我便境法俱奪。如上上根器來。我便境法人。俱不奪。如有出格道人來。山僧此間。便全體作用。不歷根器。  
大德。到這裏。學人著力處不通風。石火電光。即過了也。學人若眼目定動。即沒交涉。擬心即差。動念即乖。有人解者。不離目前。  
大德。爾擔鉢囊屎擔子。傍家走。求佛求法。只今與麼馳求底。爾還識渠麼。活撥撥地。祇是沒根株。擁不聚。撥不散。求著即轉遠。不求還在目前。靈音屬耳。若人不信。徒勞百年。  
道流。一剎那間。便入華藏世界。入毗盧遮那國土。入解脫國土。入神通國土。入清淨國土。入法界。入穢入淨。入凡入聖。入餓鬼畜生。處處討覓尋。皆不見有生有死。唯有空名。幻化空花。不勞把捉。得失是非。一時放却。  
道流。山僧佛法。的的。從麻谷和尚。丹霞和尚。道一和尚。廬山拽。石頭和尚。一路行。徧天下。無人信得。盡皆起謗。  
如道一和尚。用處純一無雜。學人。三百五百。盡皆不見他意。如廬山和尚。自在真正。逆順用處。學人不測涯際。悉皆茫然。如丹霞和尚。翫珠隱顯。學人來者。皆悉被罵。如麻谷用處。苦如黃檗。近皆不得。如石鞏用處。向箭頭上覓人。來者皆懼。如山僧今日用處。真正成壞。翫弄神變。入一切境。隨處無事。境不能換。但有來求者。我便出看渠。渠不識我。我便著數般衣。學人生解。一向入我言句。苦哉。瞎禿子。無眼人。把我著底衣。認青黃赤白。我脫却。入清淨境中。學人一見。便生欣欲。我又脫却。學人

失心茫然。狂走言。我無衣。我即向渠道。爾識我著衣底人麼。忽爾回頭。認我了也。大德。爾莫認衣。衣不能動。人能著衣。有箇清淨衣。有箇無生衣。菩提衣。涅槃衣。有祖衣。有佛衣。大德。但有聲名文句。皆悉是衣變。從臍輪氣海中。鼓激。牙齒敲磕。成其句義。明知是幻化。大德。外發聲語業。內表心所法。以思有念皆悉是衣。祇麼認他著底衣。為實解。縱經塵劫。只是衣通。三界循環。輪迴生死。不如無事。相逢不相識。共語不知名。

今時學人不得。蓋為認名字為解。大策子上。抄死老漢子語。三重五重。複子裏。不教人見。道是玄旨。以為保重。大錯。瞎屢生。爾向枯骨上。覓甚麼汁。有一般不識好惡。向教乘中取。意度商量。成於句義。如把屎塊子。口裏含了。吐過與別人。猶如俗人。打傳口令。相似。一生虛過。也道我出家。被他問著佛法。便即杜口無辭。眼似漆突。口如匾擔。如此之類。逢彌勒出世。移至他方世界。寄地獄受苦。

大德。爾波波地。往諸方。覓甚麼物。踏爾脚板闊。無佛可求。無道可成。無法可傳。外求有相佛。與汝不相似。欲識汝本心。非合亦非離。

道流。真佛無形。真道無體。真法無相。三法混融。和合一處。既辨不得。喚作忙忙業識眾生。

僧問。如何是真佛真法真道。乞垂開示。師云。佛者心清淨是。法者心光明是。道者處處無礙淨光是。三即一。皆是空名而無實有。如真正道人。念念心不間斷。自達磨大師。從西土來。只是覓箇不受人惑底人。後遇二祖。一言便了。始知從前。虛用工夫。

山僧今日見處。與祖佛不別。若第一句中。薦得。與祖佛為師。若第二句中薦得。與人天為師。若第三句中薦得。自救不了。

僧問。如何是西來意。師云。若有意。自救不了。云既無意。二祖如何得法。師云。得者是不得。云如何是不得底意。師云。為爾向一切處。馳求心不能歇。所以祖師云。咄哉丈夫。將頭覓頭。爾言下便自回光返照。更不別求。知身心。與祖佛不別。當下無事。方名得法。

大德。山僧今日。事不獲己。

話度說出許多不才淨。爾且莫錯。據我見處。實無許多般道理。要用便用。不用便休。祇如諸方。說六度萬行。以為佛法。我道是莊嚴門。佛事門。非是佛法。乃至。持齋持戒。擎油不涸。道眼不明。盡須抵債。索飯錢。有日在。何故如此。人道不通理。復身還信施。長者八十一。其樹不生耳。乃至。孤峯獨宿。一食卯齋。長坐不臥。六時行道。皆是造業底人。乃至頭目髓腦。國城妻子象馬七珍。盡皆捨施。如是等見。皆是苦身心故。還招苦果。不如無事

純一無雜。乃至十地滿心菩薩。皆求此道流蹤跡。了不可得。所以諸天歡喜。地神捧足。十方諸佛。無不稱嘆。緣何如此。為今聽法道人。用處無蹤跡。

僧問。大通智勝佛。十劫坐道場。佛法不現前。不得成佛道。未審此意如何。乞師指示。師云。大通者。是自己。於處處。達其萬法。無性無相。名為大通。智勝者。於一切處不疑。不得一法。名為智勝也。佛者。心清淨光明。透徹法界。得名為佛。十劫坐道場者。十波羅蜜是。佛法不現前者。佛本不生。法本不滅。云何更有現前。不得成佛道者。佛不應更作佛。古人云。佛常在世間。而不染世間法。道流。爾欲得作佛。莫隨萬物。心生種種法生。心滅種種法滅。一心不生。萬法無咎。世出世間。無佛無法。亦不現前。亦不曾失。設有者。皆是名言章句。接引小兒。施設藥病。表顯名句。且名句不自名句。還是爾目前。昭昭靈靈。鑑覺聞知。照燭底。安一切名句大德。造五無間業。方得解脫。

僧問。如何是五無間業。師云。殺父。殺母。出佛身血。破和合僧。焚燒經像等。此是五無間業。云如何是父。師云。無明是父。爾一念心。求起滅處。不可得。如響應空。隨處無事。名為殺父。云如何是母。師云。貪愛為母。爾一念心。入欲界中。求其貪愛。唯見諸法空相。處處無著。名為害母。云如何是出佛身血。師云。爾向清淨法界中。無一念心生解。便處處黑暗。是出佛身血。云如何是破和合僧。師云。爾一念心。正達煩惱結使。如空無所依。是破和合僧。云如何是焚燒經像。師云。見因緣空心空法空。一念決定斷。迥然無事。便是焚燒經像。

大德。若如是達得。免被伊凡聖名礙。爾一念心。祇向空拳指上生實解。根境法中虛捏怪。自輕而退屈言。我是凡夫。他是聖人。禿屢生。有甚死急。披他師子皮。却作野狂鳴。大丈夫漢。不作丈夫氣息。自家屋裏物。不肯信。祇麼向外覓。上他古人閑名句。倚陰博陽。不能特達。逢境便緣。逢塵便執。觸處惑起。自無准定。道流。莫取山僧說處。何故。說無憑據。一期間。圖畫虛空。如彩畫像等喻。

道流。莫將佛為究竟。我見猶如廁孔。菩薩羅漢。盡是枷鎖。縛人底物。所以文殊仗劍。殺於瞿曇。鴛崛持刀。害於釋氏。道流。無佛可得。乃至三乘五性。圓頓教跡。皆是一期藥病相治。並無實法。設有。皆是相似表顯。路布文字。差排且如是說。道流。有一般禿子。便向裏許著功。擬求出世之法。錯了也。若人求佛。是人失佛。若人求道。是人失道。若人求祖。是人失祖。大眾莫錯。我且取爾解經論。我亦不取爾國王大臣。我亦不取爾辯似懸河。我亦不取爾聰明智慧。唯要爾真正見解。

道流。設解得百本經論。不如一箇無事底阿師。爾解得。即輕滅他人。勝負修羅。人我無明。長地獄業。如善星比丘。解十二分教。生身陷地獄。大地不容。不如無事休歇去。飢來喫飯。困來合眼。愚人笑我。智乃知焉。

道流。莫向文字中求。心動疲勞。吸冷氣無益。不如一念緣起無生。超出三乘權學菩薩。

大德。莫因循過日。山僧往日。未有見處時。黑漫漫地。光陰空過。腹熱心忙。奔波訪道。後還得力。始到今日。共道流。如是話度。

勸諸道流。莫為衣食。看世界易過。善知識難逢。如優曇花。時一現耳。爾諸方聞道。有箇臨濟老漢。出來便擬問難。教語不得。被山僧全體作用。學人空開得眼口。總動不得。懵然不知以何答我。我向伊道。龍象蹴踏非驢所堪。爾諸處只指芻點肋道。我解禪解道。三箇兩箇。到這裏不奈何。咄哉。

爾將這箇身心。到處簸兩片皮。誑諱閻閻。喫鐵棒。有日在。非出家兒。盡向阿修羅界攝。夫如至理之道。非諍論而可求激揚。鏗鎗以摧外道。至於佛祖相承。更無別意。設有言教。落在化儀。三乘五性。人天因果。如圓頓之教。又且不然。童子善財。皆不求過。大德。莫錯用心。譬如大海不停死屍。祇麼擔却。擬天下走。自起見障。以礙於心。日上無雲。麗天普照。眼中無翳。空裏無花。道流。你欲得如法。但莫生疑。展即彌綸法界。收即絲髮不立。歷歷孤明。未曾欠少。眼不見。耳不聞。喚作甚麼物。古人云。說似一物。則不中。爾但自家看。更有甚麼。說亦無盡。各自努力。珍重。

趙州行脚時。見師。值師洗脚次。州便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恰值老僧洗脚。州近前作聽勢。師云。更要第二杓惡水潑在。州便下去。

師聞德山示眾云。道道。道得也三十棒。道不得。也三十棒。時洛浦作侍者。師令洛浦去。囑之云。汝去。若見渠恁麼道。便問。既是道得。為甚麼。也三十棒。他若打。爾便接住拄杖。推一推。浦如所教。山果行棒。被浦推倒。山起。便歸方丈。

浦回。舉似師。師云。我從來疑著這漢。雖然如是。爾還見德山麼。浦擬議。師便打。

麻谷來。纔敷坐具。便問。十二面觀音。阿那箇是正面。師下繩床。以一手收坐具。以一手搗住云。十二面觀音。甚麼處去也。谷轉身擬坐繩床。師拈棒便打。谷接却棒。與師相捉。歸方丈。

師會下。兩堂首座。一日舉頭相顧。各下一喝。僧舉問師。還有賓主也無。師云。賓主歷然。

師問院主。甚麼處來。云州中棗黃米來。師以拄杖。劃一劃云。還棗得這箇麼。主便喝。師便打。

須與典座來。師舉前話。座云。院主不會和尚意。師云。爾作麼生會。座作禮。師亦打。

黃龍南云。院主下喝。不可放過。典座禮拜。放過不可。臨濟令行。歸宗放過。三十年後。有人說破。

師會下。有同學二人相問。離却中下二機。請兄道一句子。一人云。擬問即失。一人云。恁麼則禮拜老兄去也。前人云。賊。師聞得。陞堂云。要會臨濟賓主句。問取堂中二禪客。便下座。師應機。多用喝。學徒多學之。師一日問僧。汝總學我喝。我且問爾。有一人。從東廊出。一人從西廊出。兩人齊喝一聲。這裏分得賓主。爾作麼生分。若分不得。已後不得學老僧喝。

師陞座次。有僧出。師便喝。僧亦喝。師便打。

翠巖芝云。臨濟也羸心。好彩是這僧。若是今時衲僧。且作麼生出得。

師問僧。甚處來。僧便喝。師揖坐。僧擬議。師便打。

師見僧來。豎起拂子。僧作禮。師便打。

翠巖芝云。這僧有理難伸。死而不弔。且作麼生會。如今作麼生。與這僧出氣。

師見僧來。豎起拂子。僧不顧。師亦打。

雲門舉三段了云。只宜老漢。

師拈胡餅。示洛浦云。萬種千般。不離這箇。其理不二。浦云。如何是不二之理。師又拈餅示之。浦云。恁麼則萬種千般也。師云。屙屎見解。浦云。羅公照鏡。

師問僧。甚處來。云定州。師拈棒。僧擬議。師便打。僧不肯。師云。已後遇明眼人去在。

僧後見三聖。纔舉前話。聖拈棒。僧擬議。聖便打。

有僧來問。禮拜則是。不禮拜則是。師便喝。僧作禮。師云這賊。

僧亦云。這賊。便出去。師云。莫道無事好。

首座侍立。師回顧云。還有過也無。座云有。師云。賓家有過。主家有過。座云。二俱有過。師云。過在甚麼處。座便出去。師云。莫道無事好。

有僧來。師展兩手。僧無語。師云。會麼。云不會。師云。完龜擘不破。與爾兩文錢。

師臨遷化時。示眾云。吾去後。汝等諸人。不得滅却吾正法眼藏。三聖出云。誰敢滅却和尚正法眼藏。師云。已後有人問。爾向伊。道甚麼。聖便喝。師云。誰知吾正法眼藏。向這瞎驢邊滅却。聖作禮。

師示以偈云。汨流不止問如何。真照無邊說似他。離相離名人不委。吹毛用了急還磨。言訖端坐而寂。咸通八年丁亥。孟陬月十日。全身塔于大名府西北隅。勅諡慧照禪師。

#### 聯燈會要卷第九

為山問仰山。黃檗只囑臨濟一人。別更有在。仰山云有。只是年代深遠。不欲舉似和尚。為山云。但舉看。吾亦要知。仰山云。一人指南。吳越令行。遇大風而止。

叢林皆以風穴沼禪師。當是記。或者曰。考其年代。風穴夜襄州華嚴。作維那時。興廓侍者同夏。即朋輩也。廓尚及見德山。沼雖不見臨濟。已致身叢林久矣。安得年代深遠乎。

又云。吳越令行。遇大風而止。皆無所謂。此記蓋預識妙喜也。妙喜為臨濟十二世孫。可謂年代深遠。先住吳之徑山。後住越之阿育王。可謂吳越令行也。

然賢聖識記。故不可得而知。宗門既無利害。聞諸羣議。謾筆卷末。智者審其疑似焉。

南嶽下第五世

福州長慶大安禪師法嗣

益州大隋法真禪師(凡十二)

示眾云。夫上代諸德。莫非求實。不自瞞昧。豈比飛蛾赴火。自傷自壞。他明白了。彼生死輪迴拘障不得。所以識不能識。智不能知。不聞道。釋迦掩室。淨名杜口。須菩提無說而說。釋梵絕聽而聽。此事大難大難。

示眾云。此性本來清淨。具足萬德。但以染淨二緣。而有差別。故諸聖悟之。一向淨用。而成覺道。凡夫迷之。一向染用。而溺輪迴。其體不二。故般若經云。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

示眾云。夫沙門釋子。見有如無。始得。向一切時中。與凡聖等。與解脫等。方有少許出家分。若不如此。大難大難。

師問僧。甚麼處去。云西山住庵去。師云。我向東山喚爾。爾還來得麼。云不然。師云。汝住庵未得在。

師問僧。甚麼處去。云峨嵋禮拜普賢去。師舉起拂子云。文殊普賢。總在這裏。僧作圓相。拋向背後。便作禮。師召侍者。取貼茶。與這僧。

保福展云。若無後語。笑殺衲僧。

雪竇云。殺人刀活人劍。具眼者辨取。

師燒畚次。忽見一條虵。師以杖挑向火中云。咄。這箇形骸。猶自不放捨。爾向這裏死。如暗得燈。

時有僧問。正恁麼時。還有罪也無。師云。石虎叫時山谷響。木人吼處鐵牛驚。

有婆。令人送錢。請師轉藏經。師下繩床。轉一匝云。傳語婆婆。轉藏已竟。其人歸舉似婆。婆云。比來請轉全藏。如何只轉半藏。

玄覺徵云。甚麼處。是轉半藏處。且道。婆具甚麼眼。

僧問。劫火洞然。大千俱壞。未審這箇。壞不壞。師云。壞。僧云。恁麼則隨他去也。師云。隨他去。

雪竇頌云。劫火光中立問端。衲僧猶滯兩頭關。可憐一句隨他語。萬里區區獨往還。

僧指龜。問云。一切眾生。皮裹骨。這箇為甚麼。骨裹皮。師拈草鞋。置龜背。僧無語。

僧問。如何是大人相。師云。肚上不帖膀。云如何是和尚家風。師云。赤土畫簸箕。云此意如何。師云。簸箕有脣。米跳不出。

僧問。如何是大隋一面事。師云。東西南北。

妙喜云。且道。是答這僧話。不答這僧話。

師將示寂。上堂。眾集。師以口作患風勢。告眾云。還有醫得老僧口者麼。僧眾送藥以至。俗士聞之。亦送藥。師俱不受。七日後。師自擱口令正。乃云。如許多時。鼓兩片皮。至今無人醫得。即端坐告終。

### 韶州靈樹如敏禪師(凡二)

閩人也。僧問。如何是和尚家風。師云。千年田八百主。云此意如何。師云。郎當屋舍少人修。云是甚麼得恁麼難會。師云。火官頭上風車子。

有一尼。送瓷鉢與師。師托起。問。這箇出在甚麼處。尼云定州。師乃撲破。尼無語。

保福展代云。欺敵者亡。

### 福州壽山師解禪師(凡三)

師到洞山。山問。生緣甚處。師云。閩中。山云。父母名甚麼。師云。被和尚一問。直得忘前失後。山休去。

示眾云。諸上座。幸有真實言語相勸。各自體悉。凡聖情盡。體露真常。汝但一時。卸却從前虛妄。攀緣塵垢。心如虛空相似。他時後日。合識些子好惡。

閩帥問師。年多少。師云。與虛空同年。帥云。虛空年多少。師云。與壽山同年。

### 福州靈雲志勤禪師(凡十一)

本郡長谿人也。參長慶大安禪師。復游雪峰玄沙之門。偶一日見桃花。豁然契悟。作頌云。三十年來尋劍客。幾回葉落又抽枝。自從一見桃花後。直至如今更不疑。

舉似大安。安云。從緣入者。永無退失。汝善護持。

妙喜頌云。盡說見桃花悟道。此理不知還是無。茫茫宇宙人無數。幾箇男兒是丈夫。

後舉似玄沙。沙云。諦當甚諦當。敢保老兄未徹在。

後有僧問。長慶云。玄沙意旨如何。慶云。將謂胡鬚赤。更有赤鬚胡。

五祖演云。說甚麼諦當。更參三十年。

雪峰問。古人云。前三三後三三。意旨如何。師云。水中魚山上鳥。云畢竟作麼生。師云。高可射兮深可釣。

師問僧。甚處去。云雪峰去。師云。我有一信。寄雪峰。得麼。云便請。師脫隻履。拋向面前。僧便去。既到雪峰。峰問。甚處來。云靈雲來。峰云。和尚安否。云有信。寄和尚。道了脫履。拋向雪峰前。峰休去。

大滄秀云。雪峰既不辨他來信端的。這僧又只依模畫樣。鈍置他。靈雲忽然當時道。我有一信。寄雪峰。他云便請。靈雲只據坐。這僧又若為吐露。不可大丈夫漢。為人馳達。一詞不措。

長生問。混沌未分時如何。師云。露柱懷胎。云分後如何。師云。如片雲點太清。云未審太清還受點也無。師不對。云恁麼則含生不來也。師亦不對。云直得純清絕點時如何。師云。猶是真常流注。云如何是真常流注。師云。似鏡常明。云未審向上。還有事也無。師云有。云如何是向上事。師云。打破鏡來。與爾相見。

僧問。佛未出世時如何。師豎起拂子。云出世後如何。師亦豎起拂子。僧不肯。

僧後到雪峰。舉前話。峰云。爾作麼生。云某甲不肯。峰云。爾問我。待我為汝道。僧理前問。峰豎起拂子。僧進後語。峰放下拂子。僧作禮。峰便打。

僧到玄沙。舉前話。沙云。爾作麼生。僧云。某甲不會。沙云。我與汝說。譬如人賣一片園。四至結契了也。中心有箇樹子。猶屬老僧在。

大滄喆云。這僧一張弓。兩隻箭。擬撥亂天下。至玄沙面前。一箇伎倆。也施設不得。何故。鶴有九臯難翥翼。馬無千里謾追風。

僧問。君王出陣時如何。師云。春明門外。不問長安。云如何得覲天子去。師云。盲鶴下清池。魚從腳底過。

僧問。摩尼珠。不隨眾色。未審作甚麼色。師云。白色。云恁麼則隨眾色也。師云。趙璧本無瑕。相如誑秦主。

僧問。君王出陣時如何。師云。郭璞葬熊耳。云意旨如何。師云。坐看白衣天。云當今何在。師云。莫觸龍顏。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井底種林擒。僧云。不會。師云。今年桃李貴。一顆直千金。

## 浮江和尚(凡一)

雪峰和尚。領眾到。問師。即今有二百眾。寄此過夏。得麼。師拈拄杖。劃一劃云。著不得。即道。峰休去。

## 福州南臺鄭十三娘子(凡二)

年十二。隨師姑。謁懶安。纔作禮。安便問。師姑在甚麼處住。云南臺江邊住。安便喝出。

又問。背後老婆。甚麼處住。十三娘斂手近前而立。安再問。十三娘云。早箇呈似和尚了也。安云。去。十三娘下到法堂。師姑問十三娘云。爾尋常道。我會禪。口如劍相似。今日被大師問著。無言可對。十三娘云。苦哉苦哉。作這箇眼目。也敢道。我行脚。脫取衲衣來。與十三娘著。

後到羅山。舉前話了云。只如十三娘。恁麼祇對。還得平穩也無。山云。也不得無過。十三娘云。過在甚麼處。山叱之。十三娘云。錦上更鋪花。

保福與甘長老相訪。遂問。承聞十三娘。參見大滄。是否。十三娘云。是。福云。大滄遷化。向甚麼處去。十三娘下繩床而立。甘長老云。閑時說禪。口似懸河。何不道取。十三娘云。鼓這兩片皮。堪作甚麼。甘云。爾別作麼生。十三娘云。合取狗口。

## 筠別高安大愚禪師法嗣

## 筠州末山尼了然禪師(凡三)

灌溪游方時。到山。乃云。若相當即住。不然。即推倒繩床。師令侍者問。上座游山來。為佛法來。云為佛法來。師即鳴鼓陞堂。閑上參。師問。今日離何處。云路口。師云。何不盖却。閑無對。便作禮問。如何是末山。師云。不露頂。云如何是末山主。師云。非男女等相。閑喝云。何不變去。師云。不是神不是鬼。變箇甚麼。隨後便打。閑於是伏膺。依附三年。

師問僧。太縵縵生。僧云。雖然如此。且是師子兒。師云。既是師子兒。為甚麼被文殊騎。僧無對。

僧問。如何是古佛心。師云。世界傾壞。僧云。為甚麼世界傾壞。師云。寧無我身。

## 襄州關南道常禪師法嗣

### 襄州關南道吾禪師(凡一)

嘗經村墅。聞巫者樂神。云識神無。師忽有省。後參常禪師。印其所解。復游德山之門。

凡上堂。戴蓮華笠。披襴執簡。擊鼓吹笛。口稱魯三郎。

有時云。打動關南鼓。唱起德山歌。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以簡挹云。諾。

### 漳州羅漢和尚(凡一)

師問常禪師。如何是大道之源。常與一拳。遂有省。

乃為歌曰。咸通七年初參道。到處逢言不識言。心裏疑團若桲桲。三春不樂止林泉。忽遇法王氈上坐。便陳疑悞向師前。師從氈上那伽起。袒膊當胷打一拳。駭散疑團獨狃落。舉頭看見日初圓。從茲蹬蹬而碣碣。直至如今常快活。只聞肚裏飽膨膨。更不東西去持鉢。

妙喜云。可惜好一拳。分付不著人。

### 福別先雙峰禪師法嗣

### 福州雙峰古禪師(凡一)

師到石霜。只隨眾而已。並不參請。有白石霜云。古待者。見雙峰。得箇入處。

師後辭石霜。霜將拂子。相送出門。霜召師。師回首。霜云。擬著即差。是著即乖。不擬不是。亦莫作箇會。除非知有。餘莫能知。作麼生。師應諾諾。師住後。僧問。當時石霜恁麼道。未審意作麼生。云只教我莫是非著。

### 南嶽下第六世

### 楊州光孝慧覺禪師法嗣

### 道巘禪師(凡二)

廬州劉氏子。示眾云。彌勒。朝入伽藍。暮成正覺。乃說偈云。三界上下法。我說皆是心。離於諸心法。更無有可得。看他恁麼道。

也太殺惺惺。若比吾徒。猶是鈍漢。所以一念見道。三世情盡。如印印泥。更無前後。諸子。生死事大。快須薦取。莫作等閑。業識忙忙。蓋為迷己逐物。世尊臨入涅槃。文殊請轉法輪。世尊咄云。吾住世四十九年。不曾說一字。汝請吾再轉法輪。是吾曾轉法輪耶。然今時叢林。建立箇主賓問答。事不獲己。蓋為初心爾。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云。今日三月三。云學人不會。師云。止止不須說。我法妙難思。

### 袁州仰山慧寂禪師法嗣

#### 袁州仰山南塔光湧禪師(凡二)

示眾云。汝等諸人。若是箇漢。從娘肚裏屙出來。便作師子吼。解好麼。

僧問。文殊是七佛之師。文殊還有師否。師云。遇緣即有。云如何是文殊師。師豎起拂子。僧云。莫只這便是否。師放下拂子。

#### 晉州霍山景通禪師(凡六)

自稱大禪佛。初見仰山。翹一足云。西天二十八祖。亦如是。唐土六祖。亦如是。和尚亦如是。景通亦如是。仰山下繩床。打四藤條。

雪竇云。藤條未到折。因甚麼。只打四下。須是箇斬釘截鐵漢。始得。

師到霍山。自云。集雲峰下四藤條。天下大禪佛。參。霍山喚維那打鐘著。師便走。

師聞秘魔巖和尚。凡見僧來。便提起木杈云。是甚麼魔魅。教汝出家。是甚麼魔魅。教汝行脚。道得也杈下死。道不得。也杈下死。師往訪之。纔見不禮拜。便攬入懷中。秘魔拊其背三下。師拍手云。師兄三千里外。賺我來。師兄三千里外。賺我來。

僧問。如何是佛。師便打。僧亦打。師云。爾打我。有道理。我打爾。無道理。僧無語。師連棒打出。

俗行者問。如何是佛法大意。師便設拜。者云。和尚何得禮拜俗人。師云。汝不聞道。尊重弟子。

師化緣將畢。先備薪於郊野。徧辭檀越。及日中。執燭登薪上。以笠置頂後。作圓光相。手執拄杖。作降魔杵勢。立終於紅焰中。

#### 袁州仰山東塔和尚(凡二)

僧問。如何是君王劍。師云。落纜不采功。云用者如何。師云。不落時人手。

僧問。法王與君王。相見時如何。師云。兩掌無私。云見後如何。師云。中間絕像。

### 鄧州佛巖暉禪師(凡二)

僧問。昔年有疾。今又中毒。請師醫。師云。二宜湯。

僧問。如何是佛向上事。師云。螺髻子。

### 睦州陳尊宿法嗣

#### 睦州陳操尚書(凡五)

公同眾官登樓。見數僧行來。諸官人云。來者總是行脚僧。公云不是。官人云。爭知不是。公云。待與勘過。僧及樓前。公召云。上座。僧皆舉首。公云不信道。

大滄喆云。陳尚書。可謂手持仲尼日月。腰背毗盧金印。非唯儒士驚懾。亦乃衲僧罔措。不見道。當機如電拂。方免病棲蘆。

鼓山永云。這僧有理難伸。死而不弔。尚書按劍當門。誰敢正眼覷著。

公問僧。有事相借問。得麼。僧云。合取狗口。公自擱口云。某甲罪過。僧云。知過必改。公云。就上座。覓取口喫飯。得麼。僧無對。

公與僧齋次。拈起胡餅。問僧。江西湖南。還有這箇麼。僧云。尚書適來。喫箇甚麼。公云。槌鐘謝響。

公一日齋僧。自行胡餅。僧展手接。公却縮手。僧無語。公云。果然果然。

公一日齋僧。自行食次。云請上座施食。僧云。三德六味。公云錯。僧無對。

### 鎮州臨濟義玄禪師法嗣

#### 鎮州保壽沼禪師(凡六)

胡釘鉸來參。師問。莫是胡釘鉸麼。胡云。不敢。師云。還釘得虛空麼。胡云。請和尚打破將來。師便打。胡不肯。師云。向後有多

口阿師。為汝點破在。

胡後見趙州。州問。莫是胡釘鉸麼。胡云不敢。州云。還釘得虛空麼。胡云。請和尚打破將來。州云。且釘這一縫。胡於言下。有省。

遂舉保壽行棒因緣。問州。未審某甲。過在甚麼處。州云。我與麼。與他保壽。千里萬里。

雪竇云。我要打這三箇漢。一打趙州。不合瞎却胡釘鉸眼。二打保壽。不能塞斷趙州口。三打胡釘鉸。不合放過保壽。驀拈拄杖云。更有一箇。大眾一時走散。師擊繩床一下。大滄喆云。可惜趙州放過。待他道某甲過在甚麼處。劈脊便棒。非但承他保壽威光。亦乃與叢林為龜鑑。

鼓山永云。保壽雖具打破虛空底鉗鎚。未免犯鋒傷手。胡公末後悟去。誰知眼尚[目\*答]眇。

師問僧。甚麼來。云西山來。師云。還見獼猴麼。云見。師云。作箇甚麼伎倆。云見某甲。一箇伎倆。也作不得。師便打。

師問僧。近離甚處。云崔禪。師云。還將得崔禪喝來麼。云不將得來。師云。恁麼則不從崔禪來。僧便喝。師拈棒。僧擬議。師便打。

僧來問訊。師云。百千諸佛。不出此方丈內。僧云。只如古人道。大千沙界海中漚。未審方丈。向甚麼處著。師云。千聖見在。云阿誰證明。師擲下拂子。僧從西過東立。師便打。僧云。若不久參。焉知端的。師云。三十年後。此話大行。

僧問。萬境來侵時如何。師云。莫管他。僧作禮。師云。不得動著。動著。打折爾驢腰。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面黑眼睛白。云萬里無片雲時如何。師云。青天也須喫棒。云未審過在甚麼處。師便打。

### 鎮州三聖慧然禪師(凡十一)

參德山。纔展坐具。山云。不用展炊巾。這裏無殘羹餽飯。師云。賴遇無。設有。向甚麼處著。山便打。師接住棒。推山向繩床上。山呵呵大笑。師哭云。蒼天蒼天。便出去。

師到德山。時踢天泰為首座。問師。行脚人。須具本色公驗。作麼生是上座本色公驗。師云。嘎。座再問。師打一坐具云。這桶漆。前後觸忤多少賢良。座便人事。

師問雪峰透網金鱗。未審以何為食。峰云。待汝出得網來。即向汝道。師云。一千五百人善知識。話頭也不識。峰云。老僧住持事繁。

雪竇云。可惜放過。好與三十棒。這棒一棒也不較。直是罕遇作家。承天宗云。布縵天網。須是雪峰。深入虎穴。還他三聖。眾中有般漢。商量便道。雪峰在網內。三聖在網外。苦哉苦哉。深屈古人。若非此二員作家。不能天下橫行。

大滄喆云。三聖可謂龍門萬仞。慣曾作客。雪峰大似孟嘗門啟。豈懼高賓。

師因雪峰見獼猴。云這獼猴。各背一面古鏡。師云。歷劫無名。何以彰為古鏡。峯云。瑕生也。師云。一千五百人善知識。話頭也不識。峰云。老僧住持事繁。

雪竇云。好與三十棒。此棒放過也好。免見將錯就錯。

仰山問師。汝名甚麼。師云。慧寂。山云。慧寂是我。師云。我名慧然。山呵呵大笑。

妙喜云。兩箇藏身露影漢。殊不顧傍觀者。

雪竇頌云。雙收雙放若為宗。騎虎由來要絕功。笑罷不知何處去。只應千古動悲風。

師在仰山不安。下涅槃堂將息。有官人。來見仰山。山問。官居何位。官人云。推官。山豎起拂子云。還推得這箇麼。官人無語。

山令大眾下語。俱不契。

山令侍者。請師下語。師云。但道。和尚今日有事在。山又令問。有甚麼事。師云。再犯不容。

師辭仰山。山將拂子相送。師云。某甲自有師在。山云。誰。師云。臨濟和尚。山云。慧寂罪過。

遂留兩日。備茶筵相送。

師到香巖。巖問。甚處來。師云。臨濟來。巖云。還將得臨濟劔來麼。師以坐具。驀口便搥。巖休去。

示眾云。我逢人則出。出則不為人。

興化云。我逢人則不出。出則便為人。

真淨文云。這兩箇老古錐。竊得臨濟些子活計。各自分疆列界。氣衝宇宙。使明眼衲僧。只得好笑。諸禪德。且道。笑箇甚麼。還知落處麼。若知。一任七顛八倒。若不知。且向三聖興化葛藤裏咬嚼。

師問僧。近離甚處。僧便喝。師亦喝。僧又喝。師亦喝。僧云。行棒即瞎。隨後又喝。師拈棒。僧轉身。作受勢。師云。下坡不走。

快便難逢。便打。僧云。這賊。便出去。師拋下棒。

次有僧問。適來爭容得這僧。師云。是伊曾見先師來。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臭肉來蠅。

興化獎云。山僧即不然。破驢脊上足蒼蠅。

## 魏府大覺禪師(凡二)

師見臨濟。濟豎起拂子。師便展坐具。濟擲下拂子。師便收坐具。參堂去。

其時眾議。莫是和尚親故。又不禮拜。又不喫棒。

濟聞。令侍者。喚師來。師至。臨濟云。師僧道。爾來又不禮拜。又不喫棒。莫是長老親故。師便珍重下去。

師臨示寂時。謂眾云。我有一隻箭。要付與人。時有僧出云。請和尚箭。師云。汝喚甚麼作箭。僧便喝。師便打。遂歸方丈。喚其僧來問。汝適來會麼。云不會。師又打數下。擲却拄杖云。已後遇明眼人。分明舉似。

即告終。

## 魏府興化存獎禪師(凡十一)

初謁臨濟。濟令師充侍者。濟問新到。甚處來。云鑾城。濟云。有事相借問。得麼。云新戒不會。濟云。打破大唐國。覓箇不會人難得。參堂去。

師問。適來新到。是成禪伊那。濟云。我誰管爾成禪不成禪。師云。和尚只會將死雀就地彈。不解將一轉語蓋覆却。濟云。爾又作麼生。師云。請和尚。作新到。濟遂云。新戒不會。師云。却是老僧罪過。濟云。爾語藏鋒。師擬議。濟便打。

至晚。濟謂師云。我今日問新到。是將死雀就地彈。就窠裏打。及爾出得語。又喝起。向青雲裏打。師云。草賊大敗。濟又打。

師後到三聖。聖請充第一座。常謂人曰。我向南方行脚一遭。拄杖頭。不曾撥著一箇會佛法底。爾在這裏。作甚麼。

三聖聞乃問師。爾具甚麼眼。師便喝。三聖云。須是爾始得。師休去。

大覺聞。乃云。作麼生得風吹。入大覺門來。師後到大覺。覺請師。充院主。一日喚云。院主。我聞。爾道。向南方行脚一遭。拄杖頭。不曾撥著一箇。會佛法底。爾具甚麼眼。師便喝。覺拈棒。師擬議。覺便打。師又喝。覺又打。明日師從法堂下過。覺喚云。院主。我直下不疑爾昨日兩喝。爾試說看。師云。某甲在三聖處。學得底業次。總被師兄。折倒了也。與某甲。箇安樂法門。覺云。這瞎漢。來這裏。納敗闕。卸下衲衣。痛打一頓。師於棒下。見得臨濟先師。在黃蘗處。喫棒底道理。

師開堂日示眾云。此一炷香。本為三聖師兄。三聖為我太孤。便合承嗣大覺。大覺為我太賒。我於三聖處。會得賓主句。若不遇大覺

師兄。洎乎誤却我平生。我於大覺處喫棒。見得臨濟先師。在黃檗處。喫棒底道理。此一炷香。供養我臨濟先師。

示眾云。今日不問如何若何。便請單刀直入。興化與爾證明。

時有旻德長老。出作禮。起便喝。師亦喝。德又喝。師又喝。德作禮歸眾。師云。適來若是別人。三十棒。一棒也不較。何故。為他旻德長老。會一喝不作一喝用。

瑯琊覺云。且道那一喝。不作一喝用。興化若無後語。疑殺天下人。雖然如是。曉者還稀。

教忠光云。興化與旻德。各出一隻手。要發明臨濟正法眼藏。殊不知。臨濟一宗。掃土而盡。且道。利害在甚麼處。具眼者辨取。

師謂眾云。我聞。長廊下也喝。後架也喝。諸子。莫盲喝亂喝。直饒爾喝得興化。上三十三天。却撲下來。一點氣也無。待興化蘇省起來。欸欸地。向爾道。未在。何故。我未曾向紫羅帳裏撒真珠。與爾諸人在。虛空裏。胡喝亂喝。作甚麼。

師入堂。見首座乃云。我見爾了也。座便喝。師打露柱一下。便出去。

首座隨後上方丈云。適來觸忤和尚。便作禮。師就地打一棒。座無語。

師見同參來。纔上法堂。師便喝。僧亦喝。行三兩步。師又喝。僧亦喝。須臾近前。師拈棒。僧又喝。師云。爾看。這瞎漢。猶作主在。僧擬議。師便打。直打下法堂。

時有僧問。這僧有甚觸忤和尚處。師云。是伊適來。也有權。也有實。也有照。也有用。及乎我將手。向伊面前。橫兩遭。便去不得。似這般瞎漢。不打。更待何時。

同光帝問師。朕收中原。獲一寶。未有人酬價。師云。略借陛下寶看。帝以手引幘頭脚。示之。師云。君王之寶。誰敢酬價。帝大悅。

雪竇云。至尊所得。只可傍觀。若非興化作家。往往高價酬

却 黃龍心云。興化一期。見機而作。爭奈埋沒他一朝天子。

當時但向伊道。蚌蛤之珠。收得也無用處。教他向後。別有生涯。免見遞相鈍置。如今若有人問。又作麼生酬價。

師召僧。僧應諾。師云。點即不到。

又召一僧。僧應諾。師云。到即不點。

僧問。四方八面來時如何。師云。打中間底。僧作禮。師云。興化今日。赴箇村齋。中路遇一陣卒風暴雨。却去古廟裏。避得過。

開善謙云。興化七事隨身。八面受敵。不妨是箇老作家。及乎兩陣交鋒。却走入鬼窟裏去。忽有人問開善。只向他道。四方

八面來一時打。待他禮拜。落脊便棒云。無爾回避處。  
師因騎馬傷脚。扶木柺。遶院行。問僧。汝等還識老僧麼。僧云。  
爭得不識和尚。師云。癩脚法師。說得行不得。復至法堂。令維那  
聲鐘。上堂。眾集。師云。還識老僧麼。眾無對。師擲下柺子。端  
然而逝。

### 鄂州灌溪志閑禪師(凡五)

師謁臨濟。濟一日驀掣住。師便云。領領。濟托開云。且放爾一  
頓。  
師住後。示眾云。我見臨濟。無言說。直至如今。飽不休。  
鼓山永云。乞兒見小利。  
示眾云。十方無壁落。四面亦無門。露保保赤洒洒。沒可把。便下  
座。  
僧問。久響灌溪。到來只見漚麻池。師云。爾只見漚麻池。且不見  
灌溪。云如何是灌溪。師云。劈箭急。  
玄沙云。更學三十年。也未會禪。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鉢裏盛飯。桶裏盛羹。云學人不  
會。師云。飢即飡困即休。  
師臨示寂時。問侍者。坐化者誰。云僧伽。師云。立化者誰。云僧  
會。師即行七步。垂手而終。

### 幽州談空和尚(凡二)

保壽問師。除却中下二根人來。師兄作麼生。師云。汝適來舉。早  
錯了也。壽云。師兄也不得無過。師云。汝與我作師兄。壽側掌  
云。這老賊。  
有尼欲開堂。師云。爾有五障。不得開堂。尼云。龍女成佛。有幾  
障。師云。龍女現十八變。爾試變看。尼云。不是野狐精。變箇甚  
麼。師便打。  
鎮州牧主聞云。和尚拄杖折那。將此見解。擬欲為人。翠巖芝  
云。且道。尼具甚麼眼。只擔得箇斷貫索。且作麼生會。

### 定州崔禪禪師(凡一)

拈拄杖。示眾云。出來打出來打。時有僧出云。崔禪[斬/耳]。師  
擲下拄杖。便歸方丈。  
歸宗一云。作麼生道得一轉語。救取崔禪。

法燈云。和尚且自救取。是肯他。不肯他。  
五祖戒云。便與推倒繩床。

### 鎮州萬歲和尚(凡一)

師訪保壽。壽不起。師便展坐具。壽下繩床。師便坐却繩床。壽便歸方丈。閉却門。師坐不起。主事云。和尚閉却門了。請庫下喫茶。師便歸。  
壽明日却去復禮。師亦坐不起。壽展坐具。師亦下繩床。壽便坐却繩床。師亦歸方丈。閉却門。壽於侍者寮。取灰圍却方丈門三道。便去師開門見。乃云。我不恁麼。他却恁麼。

### 襄州歷村和尚(凡二)

師煎茶次。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拈起茶盞。示之。云莫只這便是麼。師擲盞。向火中。僧無語。  
僧問。如何是觀其音聲。而得解脫。師以火筋。敲柴頭云。汝還聞麼。云聞。師云。誰不解脫。

### 滄州米倉和尚(凡一)

州牧。請師與保壽。入廳供養。令人傳語云。請二人長老。談論佛法。壽云。請師兄答話。師便喝。壽云。某甲尚未借問。何得便喝。師云。猶嫌少在。壽却與一喝。

### 涿州克符道者(凡五)

因僧問臨濟。如何是奪人不奪境。濟云。煦日發生鋪地錦。櫻兒垂髮白如絲。

師頌云。奪人不奪境。緣自帶譎訛。擬欲求玄旨。思量返責麼。驪珠光燦爛。蟾桂影婆娑。覲體無差互。還應滯網羅。

僧問。如何是奪境不奪人。濟云。王令已行天下徧。將軍塞外絕煙塵。

師頌云。奪境不奪人。尋言何處真。問禪禪是妄。究理理非親。日照寒光澹。山搖翠色新。直饒玄會得。也是眼中塵。

僧問。如何是人境兩但奪。濟云。并汾絕信。獨處一方。

師頌云。人境兩俱奪。從來正令行。不論佛與祖。那說聖凡情。擬把吹毛劍。還如值木盲。進前求妙會。特地斬精靈。

僧問。如何是人境俱不奪。濟云。王登寶殿。野老謳謠。

師頌云。人境俱不奪。思量意不偏。主賓言不異。問答理俱全。踏破澄潭月。穿開碧落天。不能明妙用。淪沒在無緣。

僧問。如何是賓中賓。師云。倚門傍戶猶如醉。出言吐氣不慚惶。云如何是賓中主。師云。口念彌陀雙拄杖。目瞽瞳人不出頭。云如何是主中賓。師云。高提祖印當機用。利物應須語帶悲。云如何是主中主。師云。橫按鎚鎚全正令。太平寰宇斬癡頑。云既是太平寰宇。為甚麼却斬癡頑。師云。不許夜行剛把火。直須當道與人看。

### 桐峰和尚(凡三)

僧問。庵主住此。忽遇大蟲來。又作麼生。師作大蟲吼。僧作怕勢。師大笑。僧云。這賊。師云。爭柰我何。

雪竇云。是即是。兩箇惡賊。只解耳偷鈴。

師見僧。驀把住。叫云。殺人殺人。僧托開云。叫喚作麼。師云。誰。僧便喝。師便打。僧出外云。且待且待。師呵呵大笑。

師問。一老人云。住在甚處。老人不語。師云。善能對機。老人拈一枝草示師。師便喝。老人作禮。師便歸庵。老人云。與麼。疑殺天下人去在。

### 虎谿庵主(凡二)

僧來相看。師不顧。僧云。知道庵主有此一機。師彈指一下。僧云。是何宗旨。師便打。僧云。知道今日落人便宜。師云。猶要棒喫在。

師見僧入門。師便喝。僧默然。師便打。僧却喝。師云。好箇草賊。

僧問。和尚住此庵。多少年。師云。只見春生夏長。總不記得。云大好不記得。師云。爾道多少年。云春生夏長。師云。開市裏虎。

### 覆盆庵主(凡一)

有僧。從山下哭上。師閉却門。僧於門上。畫一圓相。門外立地。師從庵後出。却於山下哭上。僧便喝云。猶作這箇去就在。師搥臂云。可惜先師。一場埋沒。僧云。苦苦。師云。庵主今日被人瞞也。

### 杉洋庵主(凡三)

師問僧。甚處來。云江西。師豎起痒和子云。江西還有這箇麼。僧托膝閉目。師云。東家廝兒。却向西家使喚。云有口不煩賓主說。師云。適來患聾。如今患啞。僧云。買鐵得金。一場富貴。師云。客作無功。未免逃避。僧便打。師云。自累猶可。莫累老僧。僧回作禮。師云。若不恁麼。已後喪我兒孫。僧問。庵主。得箇甚麼。便住此山。師云。也欲通箇來由。又恐遭人檢點。云又爭免得。師便喝。云恰是。師便打。僧大笑而出。師云。今日大敗。今日大敗。僧問。庵主忽遇境界當前。如何支遣。師喝云。這妖怪。云今日被迷一上。不同小小。師云。賴是深山無人見。云知即得。師呵呵大笑。

### 雲山和尚(凡二)

師問僧。甚處來。云西京。師云。還將得西京主人書來麼。云不敢妄通消息。師云。作家師僧。天然有在。云殘羹餽飯。誰人肯喫。師云。獨有上座不喫那。僧作吐勢。師召侍者云。扶出這病僧著。僧便出去。師見僧來。便起身。僧便出去。師云。得恁麼靈利。僧便喝云。作這箇眼目。法嗣臨濟。也大屈在。師云。且望闍梨善傳。僧回首。師便喝云。作這箇眼目。錯判諸方名言。隨後便打。

### 定上座(凡三)

師問臨濟。如何是佛法的的大意。濟下繩床擒住。師擬議。濟與一拳。便托開。師竚思。傍僧云定上座。何不禮拜。師方作禮。忽然大悟。

雪竇頌云。斷際全機繼後蹤。持來何必在從容。巨靈擡手無多子。分破華山千萬重。

師在鎮州。回到橋上歇。有三人座主。一人問。如何是禪河深處。須窮到底。師擒住其僧。擬拋向橋下去。時二座主。連忙救云。休休。不合觸忤上座。且望慈悲。師云。若不看這兩箇座主面。從他窮到底。

師路次。逢巖頭雪峰欽山三人。巖頭問。甚處來。師云。臨濟來。頭云。和尚萬福否。師云。順世也。巖頭嘆云。某甲三人薄福。特去禮見和尚。又已歸寂。未審有何言句。請上座舉一兩則。師云。

臨濟一日示眾云。赤肉團上。有一無位真人。在汝等面門出入。未證據者。看看。時有僧。出問。如何是無位真人。臨濟下繩床。攔臂搗住云。道道。其僧擬議。濟托開云。無位真人。是甚麼乾屎橛。

巖頭聞舉。不覺吐舌。

欽山云。何不道非無位真人。被師劈臂搗住。云無位真人。與非無位真人。相去多少。速道速道。欽山直得。面青面黃。語不得。巖頭雪峯勸云。這新戒。不合觸忤上座。且望慈悲。師云。若不看這兩箇老漢面。[祝/土]殺這屎床鬼子。

### 巖上座(凡二)

師到百丈。丈云。有事相借問。得麼。師云。幸自非言。何須諮[言\*窒]。丈云。收得安南。又憂塞北。師擘開臂云。與麼不與麼。丈云。要且難搆。師云。知即得。

仰山云。若有人。知此二人落處。不妨奇特。若辨不得。大似日中逃影。

師到德山。山下繩床。作抽坐具勢。師云。這箇且致。忽遇心境一如底人來。向伊道甚麼即得。不被諸方檢責。山云。猶較昔日三步。別作箇主人公來。師便喝。山不語。師云。塞却這老野孤咽喉。

為山云。巖上座。雖是得便宜。爭奈掩耳偷鈴。

### 聯燈會要卷第十

靈雲見懶安。傳燈收為祐公嗣。按祐錄云。師大中七年。正月九日遷化。懶安繼踵住持。未幾安歸閩川。閩帥創寺延安。亦以大為命之(今在長慶寺後)。復開山長慶。兩寺。僅二十年。

靈雲悟道有偈。雪峰激賞之。玄沙云。待某甲勘過。始得。故知。在雪峰住院之後。其見安公。明矣。雪峰行脚時。已不及見臨濟(祐化十四年臨濟方示寂)。靈雲悟道時。去祐公二十餘年。

後人不分前大為。後大為。好事者。於為山。作桃花洞。旌表其得道之徽美。蓋不本其源由耳。今移為懶安嗣。

魏府大覺禪師。見臨濟。傳燈收與黃檗嗣。統要收為臨濟嗣。據興化拈香云。我於三聖處。會得賓主句。若不遇大覺師兄。洎乎誤却我平生。故知大覺與興化。同出師門。今依統要為正。

南嶽下第七世

袁州仰山西塔穆禪師法嗣

吉州資福如寶禪師(凡四)

僧問。古人拈槌豎拂。意旨如何。師云。古人與麼那。僧云。拈槌豎拂。又作麼生。師便喝出。

雲門云。古人是甚麼眼目。僧云。和尚與麼驢年去。門却召僧云。來來。僧近前。門以拂子。驀口打。

示眾云。隔江見資福刹竿。便回去。脚跟下。好與三十棒。豈況過江來。

時有僧出。師便云。不堪共語。

僧問。如何是一塵入正受。師作入定勢。云如何是諸塵三昧起。師云。汝問阿誰。

雲門云。這阿師。話墮也不知。前頭早是葛藤。後頭又道。爾問阿誰。

陳操尚書來。師畫一圓相。陳云。弟子與麼來。早是不著便。更畫圓相。師便歸方丈。閉却門。

雪竇云。陳操尚書。只具一隻眼。大滄喆云。資福雖是本分爐鞴。爭奈陳操是煨了精金。諸人要識資福麼。等閑擲下釣。驚動碧潭龍。

鵠湖和尚(凡一)

師開堂日。資福令人送襪樣與之。師書火字。封還。福開封見。皺眉久不語。鹿苑和尚。畫一圓相。福云。拘尸那國。親行此令。

袁州仰山南塔光湧禪師法嗣

鄂州芭蕉慧清禪師(凡四)

新羅人也。示眾云。如人行次。忽遇前面。萬丈懸崖。背後野火來逼。兩邊荊棘叢林。若也向前。則墮坑落塹。若也退後。則野火燒身。若轉側。又被荊棘林礙。當恁麼時。作麼生免得。若也免得。合有出身之路。若免不得。墮身死漢。

示眾云。爾有拄杖子。我與爾拄杖子。爾無拄杖子。我奪却爾拄杖子。

師謂眾云。我十八上。到仰山。見南塔。上堂云。汝等諸人。若是箇漢。從娘肚裏屙出來。便作師子吼。解好麼。我於言下。歇得身心。便住五載。

僧問。如何是提婆宗。師云。赤幡在左。

問。賊來須打。客來須看。忽遇客賊俱來時如何。師云。屋裏有繡破草鞋。云只如破草鞋。還堪受用也無。師云。汝若將去。前凶後不吉。

問佛未出興時如何。師云。千年茄子根。云出興後如何。師云。金剛努出眼。

問。如何是佛。師云。胸題卍字。背負圓光。

### 越州清化全怱禪師(凡一)

蘇州崑山人也。僧問。如何是佛。師云。華表柱上木鸛飛。

問。路逢達道人。不將語默對。未審將甚麼對。師云。眼裏瞳人吹叫子。

問。和尚年多少。師云。始見去年九月九。如今又見秋葉黃。僧云。恁麼則無數去也。師云。問取黃葉。僧云。畢竟如何。師云。六隻骰子滿盤紅。

問。亡僧遷化。向甚麼處去。師云。長江無間斷。聚沫任風吹。

### 鎮州保壽禪師法嗣

### 汝州西院思明禪師(凡三)

僧問。踏破化城時如何。師云。不斬死漢。僧云斬。師云。不斬。僧又云斬。師便打。僧連道十聲斬。師連打十棒。趨出。師云。這箇師僧。將赤肉。抵他乾棒。有甚麼死急。

次有僧云。某甲啟和尚。適來問話僧。在大覺處來。兩人同參。在這裏。見解總與麼。和尚須是趨出此二人。若不趨出。恐委悉和尚法道。已後難得承嗣。道聲未絕。師便打。即時趨出。

僧問。學人有一問。在和尚處。時如何。師云。設有也斬為三段。僧作禮。師便休。

會下有一僧。次見問話僧云。和尚道即太殺道。即是未了在。問話僧。拽其僧。到法堂云。這僧不肯和尚。

師問。上座不肯老僧那。云某甲不曾覺事。亦不曾說。師一時喝下。其僧歸堂。又云。說甚麼道即太殺道。直是未了在。問話僧。又拽其僧來。投師。師云。上座是不肯老僧那。僧云。和尚莫信這僧。今日見伊兩度風發。師拈棒。一時打下。

師未住時。聞汝州南院出世。元是同參。特去相訪。纔人事了。云某甲啟和尚。無可作人事。自從許州來。收得江西剃刀一柄。上和尚。院云。汝從許州來。因甚却收得江西剃刀。師於南院手上。掐一掐。院呼侍者云。收。師以衣袖。拂一拂。便行。院云。阿刺刺。阿刺刺。

大滄喆云。西院收得江西剃刀。無處施呈。直遇同參。方始拈出。如今還有收得者麼。試呈似老僧看。如無。尋常用箇甚麼。

### 鎮州第二世保壽禪師(凡二)

先保壽問師。父母未生前。還我本來面目來。師立至深夜。下語。不契。翌日辭去。先保壽云。汝何往。師云。昨日蒙和尚設問。某甲不契。往南方。參知識去。壽云。南方禁夏不禁冬。我此間禁冬不禁夏。汝且作街坊過夏。若是佛法。闐闐之中。浩浩紅塵。常說正法。師不敢違。

一日街頭。見兩人交爭。揮一拳云。爾得恁麼無面目。師當下大悟。走見先保壽。未及出語。壽便云。爾會也。不用說。先保壽。臨遷化時。囑三聖。為師開堂。

師開堂日。三聖推出一僧。師便打。聖云。與麼為人。瞎却鎮州一城人眼去在。師擲下拄杖。便歸方丈。

雪竇云。保壽三聖。雖發明臨濟正法眼藏。要且只解無佛處稱尊。當時這僧。若是箇漢。纔被推出。便掀倒繩床。直饒保壽全機。也較三千里。

五祖戒。別保壽云。千鈞之弩。不為鼯鼠而發機。

雲峰悅云。臨濟一宗。掃土而盡。因甚麼。却到這裏。驀拈拄杖云。甚麼處去也。

大滄喆云。保壽大似寰中天子勅正行。三聖恰如塞外將軍令正舉。還有不惜性命者麼。出來。與老僧相見。要斷不平之事。良久云。橫按鎊鎚全正令。太平寰宇斬癡頑。

妙喜頌云。提起須彌第一鎚。電光石火大遲遲。象王行處狐蹤絕。子咆哮百獸危。

### 鎮州三聖慧然禪師法嗣

#### 鎮州大悲和尚(凡一)

僧問。除上去下。請師道。師云。我開口即錯。僧云。恁麼則真學人師也。師云。今日向弟子手中死。

#### 緇州水陸和尚(凡一)

僧問。如何是學人用心處。師云。用心即錯。云不起一念時如何。師云。沒用處漢。  
問。如何是最初一句。師便喝。  
問。驀路相逢時如何。師攔筇與一托。

### 魏府大覺禪師法嗣

#### 廬州澄心旻德禪師(凡二)

師問興化。學人有一問。在和尚處時如何。化拍繩床左角。師便喝。化拍繩床右角。師又喝。便歸眾。化云。旻德較却興化三十棒。雖然如是。是他旻德會。若小可衲僧。一棒也較不得。  
僧問。如何是澄心。師云。我不作這活計。云未審作甚麼活計。師便喝。僧云。大好不作這活計。師便打。

#### 汝州南院和尚(凡一)

僧問。匹馬單鎗時如何。師云。待我上山斫棒。

#### 廬州大覺禪師(凡一)

僧問。牛頭未見四祖時。為什麼百鳥銜花。師云。有恁麼畜生無所知。云見後。為什麼不銜花。師師。無恁麼畜生有所知。

#### 荊南府竹園山禪師(凡一)

僧問。久響和尚會禪。是否。師云是。僧云。蒼天蒼天。師以手掩僧口云。低聲低聲。僧打師一掌。師托開云。也是山僧招得。僧拂袖而出。師笑云。早知如是。悔不如是。

## 魏府興化存獎禪師法嗣

### 汝州南院顯禪師(凡十五)

示眾云。赤肉團上。壁立千仞。時有僧出問。赤肉團上。壁立千仞。豈不是和尚語。師云是。僧便掀倒繩床。師云。爾看這瞎漢。亂做。僧擬議。師便打。趨出院。示眾云。諸方只具啐啄同時眼。不具啐啄同時用。有僧便問。如何是啐啄同時用。師云。作家不啐啄。啐啄同時失。云此未是學人問處。師云。爾問處作麼生。僧云失。師便打。僧不肯。

翠巖芝云。運籌幃幄。決勝千里。南院雖則全機受敵。其柰土曠人稀。

大滄喆云。南院高提祖師。縱奪當機。這僧善能勅敵。爭奈力極計窮。如今還有本色衲僧麼。出來。與大滄相見。不圖鼓舞揚聲。貴要宗風不墜。有麼有麼。如無。大滄今日。大似索戰無功。

其僧。後到雲門會下。聞二僧舉此話。一人云。當時南院棒折那。其僧忽然契悟。

遂回省覲。師已圓寂。乃謁風穴。穴一見。便認得。乃問。上座莫是當時先師會中。問啐啄同時話底僧麼。云是。穴云。爾當時作麼生會。云某甲當時。如在燈影裏行相似。穴云。爾會也。

瑯琊覺云。只解豎降旗。不解奪劒戟。翠巖真出風穴語云。當時待他擬祇對。坐具劈口搥。

天封成云。風穴當時。待他擬祇對。便與本分草料。會麼。真金曾百煉。入火轉鮮明。

師問僧。近離甚處。云襄州。師云。來化甚麼。云特來禮拜和尚。師云。恰遇寶應不在。僧便喝。師云。向爾道不在。又喝作麼。僧又喝。師拈棒。僧擬議。師便打。僧禮拜。師云。這棒本分。是爾打我。我且打爾。要這話行。瞎漢參堂去。

僧問。從上諸聖。向甚麼處去。師云。不上天堂。即入地獄。云和尚又作麼生。師云。還知寶應老漢落處麼。僧擬議。師以拂子。驀口打。復云。近前來。僧近前。師云。令合是汝行。又打一拂子。

雪竇云。令既自行。且拂子。不知來處雪竇道箇瞎。且要雪上加霜。黃龍心云。白珪之玷。猶尚可磨。病在膏肓。亦宜救

療。這僧令既在手。為甚麼不行。過在甚麼處。妙喜云。權衡臨濟三要三玄。須是南院始得。雪竇因甚麼道。拂子不知來處。妙喜亦道箇瞎。且圖兩得相見。

有僧來參。乃云。敗也敗也。師遂引杖。向其僧前。僧無語。師連打數棒。

雲峰悅云。這僧頂上有光。不知脚下有漆。且作麼生會。直饒爾十字縱橫。朝打三千。暮打八百。

師問園頭。匏子開花也未。頭云。開花已久。師云。還著子也無。云昨夜遭霜了。師云。大眾喫箇甚麼。園頭擬議。師便打。

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便喝。僧云。和尚莫探頭好。師又喝。僧作禮。師云。放過即不可。便打。

又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亦喝。僧作禮。

師云。今日兩員。俱是作家禪客。與寶應老。稱提臨濟正法眼藏。若要一喝下辨賓主。問取二禪客。

師問僧。名甚麼。云普參。師云。忽遇屎橛時。又作麼生。僧云不審。師便打。

師問僧。近離甚處。云長水。師云。東流西流。僧云。總不恁麼。師云。作麼生。僧便珍重。師便打。

師一日。把住一僧云。作麼作麼。僧無語。師云。三十年弄馬騎。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云。無量大病源。云請師醫。師云。世醫拱手。

僧問。古殿重興時如何。師云。明堂瓦插簷。云恁麼則莊嚴畢備去也。師云。斬草蛇頭落。

僧問。如何是無縫塔。師云。七花八裂。云如何是塔中人。師云。頭不梳面不洗。

僧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云。黃尚書李僕射。

### 太行山禪房克賓禪師(凡一)

興化一日。謂師云。爾不久。為唱道之師。師云。不入這保社。化云。爾會了不入。不會不入。師云。總不恁麼。化便打。

復云。克賓維那。法戰不勝。罰錢五貫。設饋飯一堂。至明日齋時。化白槌云。克賓維那。法戰不勝。不得喫飯。即便出院。

雪竇云。克賓要承嗣興化。罰錢出院且置。却須索取這一頓棒。始得。且問諸人。棒既喫了。且作麼生索得。雪竇要斷不平之事。今日與克賓雪屈。以拄杖。一時打散。黃龍南云。克賓失錢遭罪。有理難伸。興化。以剛決柔。未足光也。

大滄喆云。興化令雖行。大似以勢欺人。克賓一期輸機。爭柰千古聲光不墜。且道。利害在甚麼處。若不沙場經久戰。揚天擣鼓喪紅塵。

資壽尼妙總云。重賞之下。必有勇夫。

真淨文頌云。丈夫當斷不自斷。興化為人徹底漢。已後從教眼自開。棒了罰錢趨出院。

### 守廓侍者(凡三)

師一日自語云。從上諸聖。向甚麼處去。德山聞云。作麼作麼。師云。勅點飛龍馬。跛鼈出頭來。山休去。

明日浴出。郭過茶。與山。山撫師背云。昨日公案作麼生。師云。這老漢。今日方瞥地。

雪竇云。然則真金百煉。要須本分鉗鎚。德山既以已妨人。這僧還同受屈。拈拄杖。劃一劃云。適來公案。且置。從上諸聖。向甚麼處去。大眾擬議。師一時趨出。黃龍南云。德山持響作啞。雖然暗得便宜。廓公掩耳偷鈴。爭奈傍觀者哂。

大滄喆云。若不登龍門。焉知滄海深。直饒浪激千尋。爭奈龍王不顧。

師因華嚴示眾云。今日賜卿無畏。若是臨濟德山。高亭大愚。烏窠缸子兒孫。不用如何若何。便請單刀直入。華嚴為汝證據。師出作禮。起便喝。嚴亦喝。師又喝。嚴又喝。師作禮。起云。大眾看。這老漢。一場敗闕。又喝一喝。拍手歸眾。華嚴歸方丈。

時風穴作維那。上去問訊。嚴云。耐耐浙客守廓。今日把老僧。搗糲一上。如今集眾打一頓趨出院。穴云。趨他遲了也。和尚云。便請單刀直入。自是和尚言過。他是臨濟兒孫。本分與麼作用。嚴方息怒。

穴下來。與師具言其事。師云。爾著甚來由。勸這老漢。我未問已前。早要棒喫得。我話行。如今不打。搭却我這話。不行。穴云。此話已行也。

師到鹿門。一日在後架。見楚和尚。與數僧道話次。鹿門下來。問云。爾終日披披搭搭。作甚麼。楚云。和尚見某甲披披搭搭那。門便喝。楚亦喝。兩家休去。

師云。諸上座。爾看這兩箇瞎漢。隨後便喝。

門歸方丈。令侍者。請師上來。云老僧適來。與楚闍梨。賓主相見。有甚敗闕處。師云。轉見病深。門云。老僧自見興化來。便會也。師云。和尚到興化時。某甲作侍者。記得恁麼時語。門云。請舉看。師遂舉。興化問甚麼處來。和尚云。五臺來。化云。還見文殊

麼。和尚便喝。化云。我問爾。還見文殊麼。又惡發作甚麼。和尚又喝。化不語。和尚作禮而去。至明日。教某甲喚和尚。待問和尚。和尚早去了也。

化乃上堂云。爾看這漢。擔得一條斷貫索。向南方去也。已後也道。曾見興化來。

師云。今日公案。恰似與麼時底。門云。興化當時。為甚無語。師云。知和尚不會賓主句。所以不語。明日待與持論。和尚早已去了也。

鹿門次日。特為煎茶。

晚參告眾云。夫參學龍象。直須子細。入室決擇。不可容易。得箇語。便以為極則。道我靈剎。只如山僧。當時見興化時。認得箇動轉底。見人道一喝兩喝。便休。以為佛法也。今日被明眼人覷破。却成一場笑具。圖箇甚麼。只為我慢無明。不能回轉。親近上流。賴得明眼道人。不惜身命。對眾出來。為鹿門老漢證據。實謂此恩難報。何故。興化云。直饒爾喝得興化。上三十三天。却撲下來。一點氣也無。欸欸地。待我蘇息起來。向爾道未在。何故如此。興化未曾向紫羅帳裏撒真珠。與爾諸人在。乾虛空裏。胡喝亂喝。作甚麼。

真謂藥石之言。道流難信。如今直須明辨取。豈不慶快平生。參學事畢。

## 涿州克符道者法嗣

### 際上座(凡一)

師在洛京。因朱行軍齋僧。入堂行香。顧視上下云。直下是。直下是。隨行隨道。口不暫住。至師面前。師問。直下是箇甚麼。朱便喝。師云。行軍。幸是佛法中人。又惡發作甚麼。朱云。爾作惡發。即不得。師便喝。朱云。鈎在不疑之地。師又喝。朱齋罷。請師說話。僧錄云。上啟行軍。適來爭容得這僧與麼無禮。朱云。若爾諸人喝時。下官有劍在。僧錄云。某甲一隊紫布袋不會。須是南禪長老始得。師云。若是南禪長老。未夢見在。

## 郢州芭蕉慧清禪師法嗣

### 郢州興陽清讓禪師(凡一)

僧問。大通智勝佛。十劫坐道場。佛法不現前。不得成佛道。此意如何。師云。其問甚諦當。僧云。既是坐道場。為甚麼。不得成佛道。師云。為伊不成佛。

#### 汝州芭蕉繼徹禪師(凡四)

師謁風穴。穴云。作麼生是正法眼。師云。泥彈子。穴奇之。後參芭蕉。聞上堂有云。兩口一無舌。即是吾宗旨。師豁然大悟。示眾云。昔日如來。於波羅奈國。梵王請轉法輪。如來不<sub>已</sub>而<sub>已</sub>。有屈宗風。隨機逗教。遂有三乘名字。流轉於天上人間。至今光揚不墜。若據祖宗門下。天地懸殊。上上根機。頓超不異。作麼生是混融一句。還有人道得麼。若也道得。有參學眼。若道不得。天寬地窄。

示眾云。眼中無翳。空裏無花。水長缸高。泥多佛大。莫將問來。我也無答。會麼。問在答處。答在問處。

古曲偈云。芭蕉的旨。不挂唇齒。木童唱和。石人側耳。

#### 天彭詞殼禪師(凡一)

示眾云。正令提綱。猶是捏窠造偽。佛法祇對。特地謾驀上流。問著即參差。答著即交互。大德。擬向甚麼處下口。雖然如是。事無一向。權柄在手。縱奪臨時。有疑請問。

僧問。如何是第一義。師云。群山穿海去。滴水下巖來。

#### 汝州西院思明禪師法嗣

#### 郢州興陽歸靜禪師(凡一)

師問。西院。擬問不問。時如何。院便打師良久。院云。爾若喚作棒。則眉鬚墮落。師於言下有省。

保福展云。雖然如是。爾眉毛有幾莖。

#### 汝州南院顯禪師法嗣

#### 汝州風穴延沼禪師(凡十七)

餘杭劉氏子。初見南院。纔跨門。院便云。入問須辨主。師云。端的請師分。院左拊其膝。師便喝。院右拊其膝。師又喝。院云。左

邊一拍且從。右邊一拍作麼生。師云瞎。院拈棒。師指住云。不要盲枷瞎棒。奪棒。打和尚去。莫言不道。院靠却拄杖云。今日被黃面浙子鈍置。師云。大似持鉢不得。詐道不飢。院問。子曾到此間麼。師云。是何言歟。院云。好好相借問。師云。也不得放過。便作禮。院揖云。且坐喫茶。

茶罷。院復問。汝與從游者。誰那。師云。與廓侍者。在襄州華嚴。同夏。院云。情知爾見作家來。

復問。渠向爾。道甚麼。師云。教某甲一向作主。院云。這瞎漢。來這裏。納敗闕。便打。師遂伏膺弟子之列。

南院一日問師。南方一棒。作麼生商量。師云。作奇特商量。師却問。未審和尚此間一棒。作麼生商量。院橫按拄杖云。棒下無生忍。臨機不見師。師於言下。大徹玄旨。

示眾云。大凡參學眼目。直須臨機大用現前。勿自拘於小節。設使言前薦得。猶是滯殼迷封。句下精通。未免觸途狂見。勸汝諸人。應是向來。依他學解。明昧兩岐。凡聖二途。與爾一時掃卻。直教箇箇。如師子兒。吒沙地哮吼一聲。壁立千仞。誰敢正眼覷著。覷著即瞎却渠眼。

示眾云。先師道。欲得親切。莫將問來問。會麼。問在答處。答在問處。雖然如是。有時問不在答處。答不在問處。爾若擬議。老僧在爾脚底。

示眾云。若立一塵。家國興盛。野老顰蹙。不立一塵。家國喪亡。野老安貼。於此明得。闍梨無分。全是老僧。於此不明。老僧即是闍梨。闍梨與老僧。亦能悟却天下人。亦能迷却天下人。要識闍梨麼。左邊拍一拍云。這裏是。要識老僧麼。右邊拍一拍云。這裏是。

雲門云。這裏即易。那裏即難。

雪竇頌云。野老從教不展眉。且圖家國立雄基。謀臣猛將今何在。萬里清風只自知。

示眾云。若是上上之流。各有證據者。略赴箇程限。未證據者。各自英雄。當處發生。隨處滅盡。如爆龜紋。爆即成兆。不爆成鈍。欲爆不爆。直下便捏。

示眾云。若據中下。止啼之義。若論祖令。便是碧眼胡僧。出頭來。也須乞命。若是盡令而行。便須倩人看院。

時有僧問。盡令而行時如何。師云。爾擬散眾那。僧擬議。師便打。

示眾云。三千劍客。耻見莊周。赤眉排肩。得無訛謬。他時豹變。後五日看。珍重。

郢州牧請。就衙內陞座。云。祖師心印。狀似鐵牛之機。去即印住。住即印破。只如不去不住。印即是。不印即是。時有廬陂長老。出問。某甲有鐵牛之機。請師不搭印。師云。慣釣鯤鯨澄巨浸。却嗟蛙步[馬\*展]泥沙。陂竚思。師便喝云。長老何不進語。陂擬議。師打一拂子云。還記得話頭麼。試舉看。陂擬開口。師又打一拂子。

牧主云。佛法元來與王法一般。師云。太守見箇甚麼。牧云。當斷不斷。返招其亂。師便下座。

雪竇頌云。擒得廬陂跨鐵牛。三玄戈甲未輕酬。楚王城畔朝宗水。喝下曾令却倒流。

師問懷本上座。有事相借問。得麼。本云。不可惜口去。師云。不惜口即道。本擬議。師便打。

又問第二人。莫道得麼。云道甚麼。師亦打。

又問第三人云。三人同行。必有我師。作麼生是師。云見參禮次。師亦打云。過這邊立。復云。將頭不猛。帶累三軍。瞎漢參堂去。本至來日上堂頭。請益云。某甲夜來。有甚麼過。便蒙賜棒。師云。要會麼。左邊拍一拍云。這裏是祖意。右邊拍一拍云。這裏是教意。還麼會。本不肯。

後到穎橋安鐵胡處。舉前話。安云。要會風穴道。這裏是祖意教意麼。非唯爾不會。直饒白非老。口赤赫地。教他舉。也舉不得。僧問。語默涉離微。如何通不犯。師云。常憶江南三月裏。鷓鴣啼處百花香。

雪竇云。曾有僧問。我對他道。劈腹剜心。又且如何。復云。

因風吹火。別是一家。傷鱉怒龜。必應有主。

僧問。寶塔元無縫。金門即日開。時如何。師云。智積佐來空合掌。天王捧出不知音。云如何是塔中人。師云。菱花風掃去。香水雨飄來。

瑯琊覺云。風穴若無後語。大以紀信詐降。

僧問。如何是第一句。師云。三要印開朱點窄。未容擬議主賓分。便喝。僧云。如何是第二句。師云。妙解不容無著問。謳和爭赴兩頭機。又云。未問已前錯。僧云。如何是第三句。師云。但看棚頭弄傀儡。抽牽全在裏頭人。又云。明破即不堪。

僧問。如何是賓中主。師云。入市雙瞳瞽。云如何是主中賓。師云。回鑾兩曜新。云如何是賓中賓。師云。攢眉看白雲。云如何是主中主。師云。磨礮三尺劍。待斬不平人。

云如何是佛。師云。杖林山下竹筋鞭。

僧問。古鏡未磨時如何。師云。天魔膽落。云磨後如何。師云。軒轅無道。

僧問。如何是佛。師云。如何不是佛。云未曉玄言。乞師再指。師云。家住海門東。扶桑最先照。

僧問。古曲無音韻。如何和得齊。師云。木雞啼子夜。葛狗吠天明。

問。九夏賞勞。請師言薦。師云。一把香葛拈未下。六環金錫響搖空。

問。如何是廣慧劍。師云。不斬死漢。

問。素面相呈時如何。師云。拈却蓋面帛。

問。百了千當時如何。師云。不許夜行。投明須到。

問。如何是佛。師云。嘶風木馬緣無絆。背角泥牛痛下鞭。

### 汝州穎橋安禪師(凡一)

師向火次。有鍾司徒。問三界焚燒。如何出得。師以香匙撥火。召云。司徒司徒。鍾於是有省。

### 南嶽下第九世

#### 汝州風穴延沼禪師法嗣

### 汝州首山省念禪師(凡九)

萊州狄氏子。生平業法華經。因號念法華。

一日侍立風穴次。穴顧師。垂淚云。不幸臨濟之道。至吾將墜于地耳。師云。觀此一眾。豈無人耶。穴云。聰敏者多。見性者少。師云。如某者如何。穴云。吾雖望子之久。猶恐擔著此經。不能放下。師云。此亦可事。願聞其要。

於是風穴上堂。舉世尊。以青蓮目。顧視迦葉。正恁麼時。且道。說箇甚麼。若言不說而說。又埋沒先聖。且道。說箇甚麼。師拂袖而退。穴擲下拄杖。歸方丈。

侍者遂問。念法華。為甚麼。拂袖而去。穴云。念法華會也。

師後與真園頭。同上侍立次。穴問。作麼生。是世尊不說說。真云。鶻鳩樹頭啼。意在麻畬裏。穴云。爾作許多癡福。作什麼。何不體究言句。

復問師。師云。動容揚古道。不墮悄然機。穴顧真云。汝何不看法華下語。於是聲動叢林。

示眾云。佛法付囑國王大臣。有力檀那。令燈燈相續不斷。至于今日。大眾。且道。續箇甚麼。良久云。須是迦葉師兄始得。

時有僧出問。靈山一會。何異今日。師云。墮坑落塹。僧云。為甚麼如此。師云。瞎。

問如何是和尚家風。師云。一言截斷千江口。萬仞峯前始得玄。云如何是佛法大意。師云。楚王城畔。汝水東流。

示眾云。諸上座。不得盲喝亂喝。這裏尋常向爾道。賓則始終賓。主則始終主。賓無二賓。主無二主。若有二賓二主。只是兩箇瞎漢。所以道。我若立時。汝須坐。我若坐時。汝須立。坐則共爾坐。立則共爾立。雖然如此。到這裏。急著眼始得。若也眼孔定動。則千里萬里。何故如此。如隔窻看馬騎相似。擬議則沒交涉。諸上座。既然於此留心。直須子細。不得掠虛好。他日異時。賺却爾在。諸人若也有事近前。無事珍重。

師問僧。恁麼來者。是甚麼人。云問者是誰。師云。老僧。僧便喝。師云。向爾道。是老僧。又惡發作麼。僧又喝。師云。恰遇棒不在手。僧云。草賊大敗。師云。今日又似得便宜。又似落便宜。僧問。菩薩未成佛時如何。師云。眾生。云成佛後如何。師云。眾生眾生。

僧問。魚鼓未鳴時如何。師云。看天不見天。云鳴後如何。師云。覷地不見地。

僧問。一毫未發時如何。師云。路逢穿耳客。云發後如何。師云。不用更遲疑。

僧問。萬機喪盡時如何。師云。死水不藏龍。云動轉後如何。師云。是碧眼胡僧笑點頭。

僧問。如何是佛。師云。新婦騎驢阿家牽。問。二龍爭珠。誰是得者。師云。得者失。

### 汝州廣慧真禪師(凡二)

風穴問師。會昌沙汰時。護法善神。向甚麼處去。師云。常在闌闌中。要且無人見。風穴云。汝徹也。

妙喜云。汝道。風穴自徹也未。

僧問。如何是廣慧境。師云。小寺前頭資福後。云如何是和尚家風。師云。杓爬鑿子。

### 南嶽下第十世

### 汝州首山省念禪師法嗣

### 汾陽善昭禪師(凡十一)

初謁首山。遇上堂。師出問。馬祖陞堂。百丈卷席。意旨如何。山云。龍袖拂開全體現。師云。師意如何。山云。象王行處絕狐蹤。師於言下大悟。提起坐具云。萬古碧潭空界月。再三撈攬始應知。便作禮。

時葉縣省和尚。作首座。參退。問師。昭兄爾適來見箇甚麼道理。便恁麼道。師云。正是善昭。放身捨命處。省便休。

示眾云。凡一句語。須具三玄門。每一玄門。須具三要路。有玄有要。有昭有用。或先照後用。或先用後照。或照用同時。或照用不同時。或先照後用。且要共爾商量。或先用後照。也須是箇人始得。或照用同時。爾又作麼生當抵。或照用不同時。爾又作麼生湊泊。

示眾云。汾陽門下。有西河師子。當門據坐。但有來者。即便咬殺。作何方便。入得汾陽門。見得汾陽人。若見得汾陽人。堪與佛祖為師。若見不得。盡是立地死漢。如今還有人得門底麼。快須入取。免得辜負平生。不是龍門客。切忌遭點額。

示眾云。汾陽有三訣。衲僧難辨別。更擬問如何。拄杖驀頭掣。時有僧問。如何是三訣。師便打。

示眾云。若是按劍手。汾陽不奈何。還識得劍麼。與爾註破。囊中無當者。海內獨橫行。

示眾云。夫說法者。須具十智同真。若不具十智同真。邪正不辨。縑素不分。不能與人天為眼目。決斷是非。如鳥飛空而折翼。如箭射的而斷弦。弦斷故射的不中。翼折故空不可飛。弦壯翼牢。空的俱徹。

作麼生是十智同真。與諸上座點出。一同一質。二同大事。三總同參。四同真智。五同徧普。六同具足。七同得失。八同生殺。九同音吼。十同得人。

又與甚麼人同得人。與誰同音吼。作麼生同生殺。甚物同得失。阿那箇同具足。是甚麼同徧普。何人同真智。孰能總同參。那箇同大事。何物同一質。莫有點得出底麼。點得出底。不恪慈悲。點不出底。未有參學眼在。切須辨取。要識是非。面目見在。

妙喜云。汾湯末後。若無箇面目見在。一場敗闕。雖然如是。喪我兒孫。喝一喝。

示眾云。千說萬說。不如自見分明。當下超凡入聖。不被眾魔惑亂。喚作大事已辨。但有來者。到爾面前。一箇伎倆也用不得。所以趙州云。老僧只管看。這裏不是箇擇法眼。釋尊喚作妙明真性。不假莊嚴。會取免得妄認緣塵。虛過時光。

示眾云。諸方老宿。事不獲已。東語西話。汝等諸人。謂合恁麼地。廣陳辭說。各競聚頭。不眠不睡。道我參尋。你擬向那裏參。

古人云。向外作功夫。總是癡狂漢。快須信取。不用久立。  
示眾云。倒却須彌。涸竭大海。魚龍變化。禽鳥飛鳴。忙忙者。逼塞虛空。正當恁麼時。佛出頭來。也貶向他方世界。且道。還有修行分也無。與我點出來看。有麼有麼。時有僧出。纔作禮。師便打云。我早無端入荒草。爾更來平地上掘坑。彼此相埋沒。作甚麼。道來道來。僧無語。

師拈拄杖。示眾云。識得拄杖子。行脚事畢。

雲峯悅。舉罷。拈起拄杖云。這箇是拄杖子。那箇是行脚事。

復云。柳[木\*栗]橫檐不顧人。直入千峰萬峰去。三角云。識得拄杖子。入地獄如箭射。

大滄喆舉罷。拈起拄杖云。這箇是拄杖。那箇是行脚事。直饒向這裏見得。於衲僧門下。只是箇脫白沙彌。若也不識。且向三家村裏。東卜西卜。忽然卜著也不定。智海逸。舉汾陽三角語罷云。二老一出一入。半合半開。猶是干戈相待。山僧即不然。識得拄杖子。畫月冷光在。指雲秋片移。

僧問。如何是學人著力處。師云。嘉州打大像。云如何是學人轉身處。師云。陝府灌鐵牛。云如何是學人親切處。師云。西河弄師子。

師云。若人會得此三句。已辨三要三玄。切須薦取。不是等閑。

又與大眾頌出。三玄三要事難分。得意忘言道易親。一句明明該萬象。重陽九日菊花新。

僧問。如何是接初機句。師云。汝是行脚僧。云如何是辨衲僧句。

師云。西方日出卯。云如何是正令行句。師云。千里持來呈舊面。云如何是定乾坤句。師云。北俱盧州長粳米。食者無貪亦無瞋。

師復云。將此四句語。驗天下衲僧。

大愚芝云。子細思量。將此四句語。被天下衲僧勘破。

僧問。如何是賓中賓。師云。合掌庵前問世尊。云如何是賓中主。

師云。對面無儔侶。云如何是主中賓。師云。陳雲橫海上。拔劍攪龍門。云如何是主中主。師云。三頭六臂擎天地。忿怒那吒撲帝鐘。

僧問。心地未寧時如何。師云。誰亂爾。云爭奈這箇何。師云。自作自受。

問學人未悟時如何。師云。誰言未悟。云悟後如何。師云。莫詐明頭。

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青絹扇子足風涼。

聯燈會要卷第十一

南嶽下第十世

前汝州首山省念禪師法嗣

汝州葉縣歸省禪師(凡十二)

首山舉竹篋。問師云。喚作竹篋即觸。不喚作竹篋即背。合喚作甚麼即得。師於言下大悟。遂掣竹篋。拗作兩截。擲于階下却云。是甚麼。首山云。瞎。師便作禮。

妙喜頌云。背觸非遮護。明明直舉揚。吹毛雖不動。徧地是刀鎗。

示眾云。夫行脚禪流。直須著忖參學。須具參學眼。見地須得見地句。方始有相親分。始得不被諸境惑。亦不落於惡道。畢竟如何委悉。有時意到句不到。如盲摸象。各說異端。有時句到意不到。妄認前塵。分別影事。有時意句俱到。打破乾坤界。光明照十方。有時意句俱不到。無目之人縱橫走。忽然不覺落深坑。

示眾云。宗師血脉。或凡或聖。龍樹馬鳴。天堂地獄。鑊湯爐炭。牛頭獄卒。森羅萬象。日月星辰。他方此界。有情無情。以手。畫一畫云。俱入此宗。此宗門中。亦能殺人。亦能活人。殺人須是殺人刀。活人須是活人句。作麼生是殺人刀。活人句。道得底出來。對眾道看。若道不得。即辜負平生。

示眾云。達磨西來。為傳東土。直指人心。見性成佛。獨標萬象。物外宣揚。悟之者。纖毫不隔。迷之者。背覺合塵。中下之機。也須子細。莫虛過時光。各各有之。況以西來的意。教外別傳。道契一言。縱橫自在。打破觸體。揭却腦蓋。豈不慶快。

師問僧。日暮投林。朝離何處。云某甲不僧學禪。師云。生身入地獄。

明教寬代云。鑰匙在和尚手裏。

師問僧。近離甚麼處。僧云。襄州。師拽童子。打一擱。便喝出。師看病僧。僧問。四大本空。病從何來。師云。從上座問處來。其僧喘氣云。不問後如何。師云。撒手臥長空。其僧云。唧唧。即便告終。

僧問。已事未明。以何為驗。師云。鬧市裏打靜槌。云意旨如何。師云。日午點金燈。

問。大闡提人來。師還相為也無。師云。法久成弊。云慈悲何在。師云。年老成魔。  
問。寶劍未出匣時如何。師云。劈口著。云出匣後如何。師云。拈却牙齒。  
問。如何是塵中獨露身。師云。塞北千人帳。江南萬斛缸。云恁麼則非塵也。師云。學語之流。一札萬行。  
問。諸餘即不問。如何是今日施設。師云。有爾瞎驢漢在。云與麼則打鼓弄琵琶去也。師云。捺<sub>胃</sub>放屁聲。

### 襄州石門慈照聰禪師(凡十四)

師在首山。因廣慧璉。問首山。學人親到寶山。空手回時如何。山云。家家門前火把子。師聞之。言下大悟。作頌云。我今二十七。訪道曾尋覓。今朝喜得逢。要且不相識。首山然之。  
示眾云。上上之機。人法俱遣。中下之機。但除其問。猶有法在。下下之機。據問而行。若是出格道人。全體作用。諸上座。盡是出格道人。老僧爭敢作用。  
示眾云。十五日<sub>已</sub>前。諸佛生。十五日<sub>已</sub>後。諸佛滅。十五日<sub>已</sub>前諸佛生。爾不得離我這裏。若離我這裏。我有鈎子。鈎爾。十五日<sub>已</sub>後諸佛滅。爾不得住我這裏。若住我這裏。我有錐子。錐爾。且道。正當十五日。用鈎即是。用錐即是。  
遂有頌云。正當十五日。鈎錐一時息。更擬問如何。回頭日又出。示眾云。問答須教起倒全。龍頭蛇尾自欺謾如王秉劍由王意。似鏡當臺要絕觀。開口<sub>已</sub>經千萬里。低頭思慮萬重關。指人若也無正眼。何啻前程作野干。  
示眾云。鐘鼓纔罷。賓主<sub>已</sub>分。大眾齊來。照用俱了。恁麼會得。繼紹古人。若會不得。實為苦屈。莫有會得底麼。出來對眾證據。示眾云。第一句道得。石裏迸出。第二句道得。挨拶將來。第三句道得。自救不了。  
示眾。舉風穴云。五白貓兒爪距寧。養來堂上絕蟲行。分明上樹安身法。切忌遺言許外生。  
師云。作麼生是許外生底句。良久云。莫錯舉。  
示眾云。擬心即差。動念即乖。不擬不動。正在死水裏作活計。作麼生是衲僧轉身處。只如古人恁麼道。還有為人處也無。若言為人。依言縛殺。若言不為人。意在甚麼處所以道。涅槃心易曉。差別智難明。  
示眾云。寶花王座。獨有慈尊。旃檀林中。別無異黨。狐非師子類。燈非日月明。知有者。<sub>已</sub>暢平生。未知有者。直須子細。

師問直歲。清涼堰從爾堰。忽遇洪水滔天時。堰得麼。歲云。在裏頭。師云。與誰同伴。歲無語。

請師代。師云。透過新羅。歲却問。忽遇洪水滔天時。堰得麼。師云。上拄天下拄地。歲云。若遇劫火洞然時。又作麼生。師云。橫出豎沒。

僧入室問。正恁麼時。還有師也無。師云。燈明連夜照。甚處不分明。云畢竟事如何。師云。來日是寒食。

僧問。古人急水灘頭毛毬子。意旨如何。師云。雲開日朗。云急水灘頭連底石。意旨如何。師云。屋破見青天。云意旨如何。師云。通上徹下。

僧問。日往月來遷。不覺年衰老。還有不老者麼。師云。有。云如何是不老者。師云。虬龍筋力高聲叫。晚後精靈轉更多。

云如何是學人深深處。師云。烏龜水裏深藏六。云未審其中事如何。云路上行人莫與知。

僧問。摩騰入漢。已涉繁辭。達磨西來。請師直指。師云。冬不寒臆後看。

問五目莫覩其容。二聽莫聞其響。落聲色即是。不落聲色即是。師云。問從何來。

問瞻之在前。忽然在後。復是何物。師云。築著鼻孔。

問寸絲不挂法網無邊。為甚麼却分迷悟。師云。兩桶一擔。

問心隨境轉。境逐心生。心境兩忘。甚處即是。師云。待爾悟始得。

問有情有用。無情無用。如何是無情無用。師云。獨扇門子盡夜開。

### 汝州廣慧元璉禪師(凡十三)

泉州晉江陳氏子。初謁南院念和尚。念問。近離甚處。師云首山。念云。老僧拄杖不在手。師云。設在手。也不得錯打人。念云。野狐精。師云。恰是。拍一拍。便出去。

師一日侍立次。問。魚鼓未鳴時如何。念云。看天不見天。云鳴後如何。覷地不見地。師於言下有省。便作禮。念云。爾見箇甚麼。便作禮。師云。鬧市裏。也有一箇半箇。念云。爾向南人靈利。師便珍重。

師一日問首山。學人親到寶山。空手回時如何。念云。家家門前火把子。師於此大悟。乃云。某甲從今。更不疑天下老和尚舌頭去也。念云。爾作麼生會。試說看。師云。只是地上水塌沙。念云。爾會也。師遂禮拜。

師到首山。山問。甚處來。云漢上。山豎起拳云。漢上還有這箇麼。師云。這箇是甚麼碗鳴聲。山云。瞎。師拍一拍。便出去。示眾云。昔日臨濟會裏。兩堂首座相見。顧視各下一喝。便休去。諸人且道。還有賓主也無。若道有。只是箇瞎漢。若道無。亦只是箇瞎漢。若道不有不無。萬里崖州。若向這裏道得。也好與三十棒。若道不得。也好與三十棒。衲僧家。到這裏。作麼生出得山僧綵纈。良久云。苦哉。蝦蟇蚯蚓。[跳-兆+孛]跳上三十三天。撞著須彌山。百雜碎。遂拈拄杖云。這一隊無孔鐵鎚。速退速退。示眾云。祖令當行。人天泯跡。若通一線道。且與說葛藤。何故如此。擬議之間。早是喪身失命了也。山僧不避諸方檢責。入泥入水。為爾諸人。莫有會底麼。出來通箇消息看。良久云。看看。惣在魔界裏。作活計。遂拈拄杖云。速道速道。眾擬議。師喝一喝。卓一卓。

示眾云。佛法本來無事。從上諸聖。盡是捏怪。強生節目。壓良為賤。埋沒兒孫。更有雲門洞山臨濟。死不惺惺。一生受屈。老僧這裏。則不然。便是釋迦老子出來。也貶向他方世界。教伊絕跡去。何故如此。免慮喪我兒孫。老僧恁麼道。汝等諸人。作麼生會。若向這裏會得去。豈不慶快。教伊脫却毛衫。作箇洒洒落落地衲僧去。更若不會。來年更有新條在。惱亂春風卒未休。便下座。時有僧。請益云。和尚適來道。便是釋迦老子出來。也須貶向他方世界。舉未了。師云。汝若恁麼會。入地獄如箭射。云未審作麼生會。師便打。僧擬議。師云會麼。云不會。師云。山僧今日不避諸方檢責。為汝注破。將此身心奉塵刹。是則名為報佛恩。

楊億侍郎到寺。值師上堂。拈拄杖。示眾云。豎窮三際。橫亘十方。且道帝釋梵王。向甚麼處。安身立命。

楊出眾擬祇對。師便打。楊云。某甲未有語在。和尚為甚麼便打。師云。侍郎未跨廣惠門時。早好喫老僧三十棒。楊云。低聲低聲。師云。知即得。

乃云。適來若不是侍郎。也大難承當。雖然如是。三十年後。有一箇頂門眼開布衲出來吾宗大盛。檢點此語去在。諸人還知麼。聽取一偈。鳥來有語。人去無聲。青青之桂。四海知名。

楊遂問。未審臨濟。有何奇特言句。過於諸方。和尚便為法嗣。師云。橄欖點茶滋味長。

劉太保問。如何是長老家風。師劈面便唾。太保作惡云。是何一唾。師云。這裏是甚麼所在。自領出去。王比部云。長老。太保問也不消得如此。師云。說甚麼太保。梵王帝釋來。也教伊絕跡去。太保謂比部云。此長老。實堪珍重。師喚侍者。將糞箕掃帚來。太保與比部。禮謝。

師乃踞座。橫按拄杖云。將軍劍下。已定乾坤。獨鎮寰中。橫身三界。三印在手。縱奪臨時。擬議之間。喪身失命。莫有如龍壯士。似虎兒郎。出來交鋒一陣看。要定平生。有麼有麼。良久云。紅旗熠熠。子弟悲號。以拄杖。擊繩床一下。

師坐方丈內。有張員外來。纔入門。師便問。師子窟中。為甚麼。著野狐精。張擬議。師便推出。掩却門。

張於土地堂。取紙錢一陌。挂方丈門。便歸。師開門見。乃云。須是這漢始得。

張來日再見師。師搗住云。昨日公案作麼生。張擬議。師與一掌。師問僧。爾有拄杖子麼。云無。師云。我與爾拄杖子。隨聲便打。三人新到相看。師問。三人同行。必有我師。阿那箇是師。云某甲乍入叢林。不會。師云。爾也罪過我也罪過。僧擬譏。師云。這漆桶且坐喫茶。

師問座主。聞爾講得三經五論。是否。云不敢。師豎起拄杖云。這箇作麼生。講主擬議。師便打。主云。何得造次。師云。這嚼涕唾兒。道甚麼。主無對。師云。近前來。主近前。師於地上。畫一畫云。這箇。經中出。論中出。主云。經論無文所載。師云。無孔鐵鎚。參堂去。

少頃再來人事。師問。爾是甚處人。主云。某甲適來。禮拜和尚了也。師云。我這裏。是甚麼所在。著爾這漢。道了。一踏踏倒。主起來云。我會也。我會也。師把住云。魅漢。爾道甚麼。速道速道。主打師一掌。師云。這瞎漢。來這裏。亂做。更道。主作禮。師云。養子不及父。家門一世衰。

### 潭州神鼎鴻譚禪師(凡十五)

襄水人也。示眾云。摩竭陀國。親行此令。大眾還知落處麼。一句子。該天括地。迥超格外。在眾聖之前。所以五天和不齊。梵夾持不來。釋迦掩室於摩竭。淨名杜口於毗耶。三乘教外。一句別傳。敢問大眾。作麼生是別傳底。試對眾道看。遞相證明。良久云。直饒道得。亦未稱祖師意。且道。如何稱得祖師意。諸兄弟。直須打辨精神。究徹根源。到這裏。不可說菩提涅槃。真如解脫。向上向下。安禪入定。造橋梁。開義井。得麼。然雖如是。不可無言去也。

山僧當初。行脚發足。亦無正意。參禪學道。只欲東京聽一兩本經論。以資平生。不期行來行去。到汝州襄城縣。恰遇汝州風起。鼓上首山。見箇老和尚。被他劈頭一錘。直得浹背汗流。不覺禮他三

拜。而今悔之不及。大眾且道。悔箇甚麼。悔不拽下繩床。痛與一頓。雖然如是。官不容針。私通車馬。

示眾。舉僧問首山。一毫未發時如何。山云。路逢穿耳客。云發後如何。山云。不用更遲疑。

曾有僧。問神鼎。一毫未發時如何。向他道。白雲嶺上。云發後如何。向伊道。澗下水流。若是首山兩轉語。有可咬嚼。東看西看。若是神鼎這語。如喫木札瓦片相似。實無滋味。直是自見自悟始得。會麼。天高東南。地傾西北。

示眾云。風不鳴條。雨不破塊。即且止。作麼生打得箇翻車筋斗。到梵天去。若有。出來。作箇伎倆看。有麼。莫教帝釋惡發。

後有僧。入室請益。某甲當時出來。左轉一轉。便歸眾。師云。莫教帝釋惡發。又作麼生。僧云。知恩者少。負恩者多。師云。築著鼻孔。

示眾云。南泉道。我十八上。便解作活計。趙州道。我十八上。便會破家散宅。

師云。爾道。破家散宅好。解作活計好。初心底人。且取前語。久參先德。直須破家散宅。更有一言。萬里崖州。

師行脚時。與數耆宿。游南嶽。一僧舉論宗乘。頗敏。會野飯。山店中供辨。其僧論說不已。師云。三界惟心。萬法惟識。惟識惟心。眼聲耳色。是甚麼人語。僧云。法眼語。師云。其語云何。僧云。惟心故。根境不相到。惟識故。聲色縱然。師云。舌味是根境否。云是。師以筋夾菜。置舌上。含胡而語云。可謂相入耶。坐者駭然。不能加答。師云。路途之學。終不到家。見解入微。不名見道。參須實參。悟須實悟。閻羅大王。不怕多語。

僧問。如何是接初機句。師云。山河大地。云如何是辨衲僧句。師云。七棒對十三。云如何是正令行句。師云。不通眨眼。云如何是定乾坤句。師云。汝擬作麼會。

僧問。諸法未聞時如何。師云。風蕭蕭雨颯颯。云聞後如何。師云。領話好。

云古帆未挂時如何。師云。到岸也。云到後如何。師云。猶是鈍漢。

問。和尚未見先德時如何。師云。東行西行。云見後如何。師云。橫擔拄杖。

問。達磨未來時如何。師云。西天此土。云來後如何。師云。此土西天。

問。寶劍未出匣時如何。師云。狼煙竟起。云出匣後如何。師云。天上天下。

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云。天知地知。云見後如何。師云。猶較些子。

問。輪迴六道底人。畢竟如何。師云。不願成佛。云為甚麼不願成佛。師云。佛亦不究竟。云請師一言。師云。昨日猶記得。今朝話無門。

問。匹馬單鎗時如何。師云。神鼎打退鼓。云畢竟如何。師云。想爾不是這手脚。

問。如何是清淨法身。師云。灰頭土面。云為甚麼如此。師云。爭怪得山僧。云未審向上還有事也無。師云有。云如何是向上事。師云。毗盧頂上金冠子。

問。撥塵見佛時如何。師云。佛亦是塵。

### 并州承天嵩禪師(凡十一)

師問首山。如何是佛法的的大意。山云。楚王城畔。汝水東流。師言下大悟。遂作三偈。一曰。得用直須用。心意莫定動。三歲師子吼。十方絕狐種。二曰。我有真如性。如同幕裏隱。打破六門關。顯出毗盧印。三曰。真骨金剛體可誇。六塵一拂永無遮。廓落世界空為體。體上無為真到家。

首山聞。請師喫茶云。這三頌。是爾作那。師云是。山云。忽有人。教爾現三十二相時如何。師云。某甲不是野狐精。山云。惜取眉毛好。師云。和尚落了多少。山以竹篋。驀頭打云。這漢向後亂做去在。

師辭首山。山以拄杖送師。師接得。有偈云。和尚拄杖。照破龍象。臨濟家風。落在我掌。山云。莫相帶累。師打山一坐具。山云。果然帶累。師云。今日捉敗這老漢。山云。又似得便宜。又似落便宜。

示眾云。文殊仗劍。五臺橫行。唐明一路。把斷妖訛。三世諸佛。未出教乘。網底游魚。龍門難渡。垂鈎四海。只釣鯢龍。格外談玄。為尋知己。若也舉揚宗旨。須彌直須粉碎。若也諸佛說祖。海水便須枯竭。寶劍揮時。毫光萬里。放一線道。通方說話。把斷咽喉。諸人甚處出氣。

示眾云。第一單鎗甲馬。第二甲馬。單鎗。第三撒星排陣。第四衣錦還鄉。

時有僧問。如何是單鎗甲馬。師云。不是金牙作。爭能射尉遲。云如何是甲馬單鎗。師云。金鏃馬前落。婁樊喪膽魂。云如何是撒星排陣。師云。陣雲橫海上。未辨聖明君。云如何是衣錦還鄉。師云。四海無消息。回奉聖明君。

師問僧。迦葉門前客。祇園會裏人。云特來禮拜。師云。泊不問過。僧便喝。師云。錯。僧又喝。師云。放爾三十棒。僧云。許和尚具一隻眼。師云。喫棒了聽欸。

師問僧。甚處來。云潞府。師云。米作麼價。云和尚試道看。師云。不解作客。勞煩主人。庫下喫茶去。

僧問。鈍根樂小法。不自信作佛。作佛後如何。師云。水裏捉麒麟。云與麼則便登高山去也。師云。騎牛上三十三天。

問古人東山西嶺青。意旨如何。師云。波斯鼻孔大。云恁麼則西天迦葉。東土我師。師云。金剛手板闊。

問有相即不問。如何是無相。師云。忻州齊和尚。云如何會得。師云。代州鴈門關。

問臨濟推倒黃檗。為甚麼。維那喫棒。師云。正狗不偷油。雞銜燈盞走。

問古人拈槌豎拂。意旨如何。師云。騎驢不著靴。

### 汝州首山志禪師(凡二)

師問首山念和尚。德山棒臨濟喝。意旨如何。念云。汝試道看。師便喝。念拈棒。師指住云。莫亂做。念擲下棒云。龍虵易辨。衲子難謾。師云。草賊大敗。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三尺杖子破瓦盆。

云如何是佛。師云。桶底脫。

云從上諸聖。有何言句。師云。如是我聞。云某甲不會。師云。信受奉行。

### 隋州智門罕禪師(凡一)

因為北塔僧使。點茶。師乃起自揖僧使。近上坐。使云。鷓子頭上。豈可安巢。師云。捧上不成籠。隨後打一坐具。僧使茶罷。進前云。適來觸忤和尚。師云。江南杜禪客。覓甚麼第二碗。

### 汝州仁王評禪師(凡一)

師問首山。如何是佛法大意。山便喝。師作禮。山拈棒。師云。和尚沒世界那。山擲下棒云。明眼人難設。師云。草賊大敗。

### 襄州石門慧昭山主(凡一)

楊億侍郎。寄問云。入山不怕虎。當路却防人。時如何。師云。君子坦蕩蕩。

云如何是石門山。云石頭大底大。小底小。云如何是山中人。師云。橫眠倒臥。

## 南嶽下第十一世

### 汾陽善昭禪師法嗣

#### 潭州興化楚圓禪師(凡二十)

依汾陽經一紀。得旨之後。固大愚數輩。辭汾陽。相讓不肯作參頭。汾陽云。此行不可以戒臆推。聽吾偈曰。天無頭。吉州城外起戈矛。將軍疋馬林下過。員州城裏鬧啾啾。

師遽出班云。楚圓何人。敢受和尚。如此記別。即領眾作禮。

汾陽復祝之曰。吾在先師處。親證三昧。汝今已得。宜行南方。大興吾道。

即造洞山實禪師席。終日面壁。寶問。達磨九年面壁。意旨如何。

師云。空腹高心。寶翌日陞堂。請師充第一座。

後開法袁州南源。終于本山。

示眾云。無明實性即佛性。幻化空身即法身。諸仁者若也信得去。不妨省力。可謂善財入彌勒樓閣。無邊法門。悉皆周徧。得大無礙。悟法無生。是謂無生法忍。無邊剎境。自他不隔於毫端。十世古今。始終不離於當念。且問諸人。且阿那箇是當念。只如諸人。無明之性。即汝本覺妙明之性。蓋為不了生死根源。執妄為實。隨妄所轉。致墮輪回。受種種苦。若能回光反照。自悟本來真性。不生不滅。故云。無明實性即佛性。幻化空身即法身。只如四大五蘊。不淨之身。即無實義。如夢如幻。如影如響。從無量劫來。流浪生死。貪愛所使。無暫休歇。出此入彼。積骨如毗富羅山。飲乳如四大海水。何故。為無智慧。不能了知五蘊本空。都無所實。逐妄所生。貪欲所拘。不能自在。所以世尊云。諸苦所因。貪欲為本。若滅貪欲。無所依止。汝等若能了知幻身虛假。本來空寂諸見不生無我人眾生壽者諸法皆如故。幻化空身即法身。法身覺了無一物。唯有聽法說法。虛玄大道。無著真宗。故云。本源自性天真佛。又云。五陰浮雲空去來。三毒水泡虛出沒。若如是者。為度一切苦厄。乃至無量無邊。煩惱知解。悉皆清淨。是為清淨法身。若到這箇田地。便能出此入彼。捨身受身。地獄天堂。此界他方。縱橫自在。任意浮沉。應物舒光。隨機逗教。喚作千五億化身。恁麼

說話。可謂無夢說夢。和泥合水。撒屎撒尿。不識好惡。乃呵呵大笑云。若向衲僧門下。十萬八千。未夢見他汗臭氣在。雖然如是。事無一向。但以假名字。引導於眾生。喝一喝。

示眾云。馬大師即心即佛。當人未悟。盤山非心非佛。只成戲論之談。雪峰輓毬。誑謊小兒之作。雲門顧鑿。笑殺傍觀。少室自傷。一場大錯。德山入門便棒。未遇奇人。臨濟入門便喝。太殺輕薄。黃梅呈頌。人我未忘。更言祖祖相傳。遞相誹謗。到這裏。須是箇人始得。所以道。鷹生鷹子。鶻生鶻兒。然雖如此。也是鞏縣茶瓶。乃彈指一下。

示眾云。先寶應道。第一句薦得。堪與佛祖為師。第二句薦得。堪與人天為師。第三句薦得。自救不了。

若是道吾即不然。第一句薦得。和泥合水。第二句薦得。無繩自縛。第三句薦得。四稜著地。所以道。起也海晏河清。行人避路。坐也乾坤黑暗。日月無光。汝等諸人。何處出氣。如今還有出氣者麼。有即出來。對眾出氣。若無。道吾今日。與汝出氣去也。乃噓一聲。

示眾云。宗師者。奪貧子之衣珠。究達人之見處。若不如是。盡是和泥合水漢。良久云。路逢劍客須呈劍。不是詩人不獻詩。喝一喝。

示眾云。道吾打鼓。四大部洲同參。拄杖橫也。挑括乾坤大地。鉢盂轉也。覆却恒沙世界。且問。爾等諸人。向甚麼處。安身立命。若也知安身立命處。北俱盧州。喫粥喫飯。若也不知。長連床上。喫粥喫飯。卓拄杖一下。

示眾云。上來也。步步登高。下去也。通身無礙。所以道。有時先敲後唱。有時先唱後敲。有時敲唱同時。有時敲唱不同時。所以王登寶殿。野老謳歌。如今還有謳謔者麼。良久云。木人雖舉手。石女不擡頭。喝一喝。

示眾云。心若無事。萬法不生。意絕玄微。纖塵何立。向上一路。千聖不傳。學者勞形。如猿捉影。喝一喝。

示眾云。百千法門。同歸方寸。河沙妙義。總在心源。無三界可出。無菩提可求。人與非人。性相平等。既然如是。為甚麼。那吒撲帝鐘。良久云。波斯鼻孔長又長。

示眾云。說佛說祖。和泥合水。向上向下。衲僧破草鞋。總不恁麼。無繩自縛。且獨脫一句。作麼生道。還有人。道得麼。試對眾倒道將一句來。有麼有麼。良久云。塚上更加泥。喝一喝。

師為唐明嵩和尚馳書。上楊內翰。纔通門狀。便請相見。坐次。楊問。對面不相識。千里却同風。師云。某甲奉院門請。楊云。真箇謾語。師云。前月離唐明。楊云。適來悔伸一問。師云。作者。楊

便喝。師云。恰是。楊又喝。師以手。面前畫一畫。楊吐舌云。龍象。師云。是何言歟。楊喚。客司點好茶。元來是家裏人。師云。也不消得。

茶罷。楊問。如何是圓上座為人底句。師云。切。楊云。恁麼則長裙新婦拖泥走。師云。誰得似內翰。楊云。作家作家。師云。放爾二十棒。楊拍膝云。這裏是甚麼所在。師拍手云。也不得放過。楊呵呵大笑。

楊問。記得唐明和尚。初悟底因緣麼。師云。曾見和尚舉來。楊云。請不吝慈悲。師云。見和尚舉。有僧問首山。如何是佛法大意。山云。楚王城畔。汝水東流。

楊云。只如楚王城畔。汝水東流。意旨如何。師云。水上挂燈毬。楊云。恁麼則辜負古人去也。師云。內翰疑則別參。楊云。三脚蝦蟆跳上天。師云。一任[跳-兆+孛]跳。楊乃大笑。

師取辭。楊云。億有一轉語。寄上座。往唐明處。還得麼。師云。明月照見夜行人。楊云。却不相當去也。師云。更深猶似可。午後始愁人。楊云。開寶寺前金剛。近日為甚麼汗出。師云。知。楊云。上座臨行。豈無為人底句。師云。重疊關山路。楊云。恁麼則隨上座去也。師噓一聲。揚云。真師子兒。大師子吼。師云。放去又扶來。楊云。某甲適來失脚倒地。又得家童扶起。師云。有甚麼了期。楊呵呵大笑。

師一日。方丈內。安一盆水。上橫一口劍。下著一雙草鞋。橫按拄杖而坐。見僧入門。便指。僧擬議。師便棒。

師問僧。名甚麼僧云。海滿。師云。海無增減。為甚麼却滿。云和尚莫謾海滿。師云南源罪過。

師問僧。近離甚處。云雲過千山碧。師云。著忙作甚。云鴈去水聲淒。師便喝。僧亦喝。師便打。僧亦打。師云。爾這瞎漢。本分打出三門外。念汝是新到。且坐喫茶。

師問僧。行脚人。須知有行脚事。作麼生是行脚事。云知。師云。知底事作麼生。云山高水深。師云。念汝遠來。且坐喫茶。僧云。諾諾。

師問顯英首座。近離甚處。云金鑾。師云。夏在甚處。云金鑾。云前夏在甚處。云金鑾。師云。先前夏。在甚處。云和尚何不領話。師云。我也不能勘得爾。教庫下供過奴子來勘。且點一碗茶。與爾濕口。

師問僧。近離甚處。僧以手。面前一劃。師云。是何言歟。僧便喝。師云。作甚麼。僧拊掌一下。便打。師云。瞎漢。亂做作麼。以坐具。直打出法堂。

僧問。行脚不逢人時如何。師云。釣絲絞水。

問如何是佛。師云。水出高原。

問達磨未來時如何。師云。長安夜夜家家月。云來後如何。師云。幾處笙歌幾處愁。

問已事未明。以何為驗。師云。玄沙見雪峰。云意旨如何。師云。一生不出嶺。

### 筠州大愚守芝禪師(凡十一)

太原王氏子。示眾云。山僧人微。素無德行。叨承密諫同僚諸官。堅請陞堂。上答皇恩。國詐永安。法輪常轉。且道。法輪作麼生轉。要得會麼。須彌山上倒翻身。却來堂中疊足坐。阿呵呵。是甚麼。飯蘿裏坐却受餓。和泥合水與麼過。上士聞之熙熙。下士聞之肯可。子細思量。却成口過。要會麼。一六三四二。直言四七一。桃李火中開。黃昏候日出。

示眾云。若向言中取則。句裏明機。大似迷頭認影。若也舉唱宗乘。恰似寐語一般。雖然如是。官不容針。私通車馬。放一線道。有箇葛藤。打繩床一下云。三世諸佛。盡皆頭痛。且道。諸人還有免得底麼。若有。一人免得。無有是處。若免不得。海印發光。豎起拂子云。這箇是印。那箇是光。這箇是光。那箇是印。掣電之機。徒勞竚思。會麼。且僧說夢。且道。夢見箇甚麼。南柯十更。若更不會。聽取一頌。北斗挂須彌。杖頭挑日月。林泉好商量。夏末秋風切。

示眾。擊拂子云。一擊響玲瓏。喧轟宇宙通。知音纔側耳。項羽過江東。恁麼會得。恰認得驢鞍橋。作阿爺下頷。

示眾云。德山入門便棒。臨濟入門便喝。一棒一喝。若雙峰而互出。賓主未辨。恹恹而萬里鄉關。照用雙行。擬議而千差塞路。諸上座。到這裏。憑何話會。乃有頌云。棒喝齊施早已賒。古今休讚絕周遮。二途不涉憑何說。南海波斯進象牙。

示眾云。沙裏無油實可哀。翠巖嚼飯餒嬰孩。他時好惡知端的。始覺從前滿面灰。

示眾云。淨名杜口。已涉繁詞。達磨西來。平欺漢地。放一線道。有箇商量。所以李長者云。有情之本。依智海以為源。含識之流。總法身而為體。諸仁者。既是總法身而為體。還知道。須彌吞却法身。法身吞却須彌麼。諸仁者。朝夕與古佛同參。與諸方老和尚同參。山僧今日。與大眾同參。且道。參箇甚麼。如是定當得。且認得箇著衣喫飯。猶去衲僧半月程。若定當不得。來年更有新條在。惱亂春風卒未休。

示眾云。大愚相接大雄孫。五湖雲水競頭奔。競頭奔。有何門。擊箭寧知枯木存。枯木存。一年還曾兩度春。兩度春。帳裏真珠撒與人。撒與人。思量也是慕西秦。

僧問。如何是和尚家風。師云。一言已出。駟馬難追。

問如何是城裏佛。師云。十字街頭石幢子。

問。如何是和尚為人一句。師云。四角六張。云意旨如何。師云。八凹九凸。

問。不落三寸時如何。師云。乾三連坤六段。云意旨如何。師云。切忌盈虛。

問。如何是道。師云。八斛四斛。云如何是道中人。師云。煮粥煨飯。

問。寶釧未出匣時如何。師云。切忌道著。云出匣後如何。師云。天魔膽落。

### 滁州瑯琊慧覺禪師(凡十七)

示眾云。君臣道合。猶是法身邊事。君不見君。臣不見臣。猶是法身向上事。向上向下。使汝心不安。且作麼生是法身。良久云。任是僧繇手。難盡志公真。

示眾云。世尊三昧。迦葉不知。迦葉三昧。阿難不知。阿難三昧。商那和修不知。吾有三昧。汝亦不知。為甚麼不知。理合如斯。若人會得。南北東西。若不如是。更擬何之。

示眾云。與麼來者。上間安排。不與麼來者。下間挂搭。向上人來。獨自悽悽暗渡江。更有一人。向甚麼處著。良久云。釣竿斫盡重栽竹。不計功程得便休。

示眾云。有句無句。如藤倚樹。樹倒藤枯。恰好喫棒。且道。過在甚麼處。良久云。不是僧繇手。徒說繪丹青。

示眾。舉世尊云。眾生妄認四大。為自身相。六塵緣影。為自心相。且問諸仁者。在眼曰見。在耳曰聞。在鼻嗅香。在舌知味。在手執捉。在足運奔。亦不喚作眾生。亦不喚作佛性。且道。喚作甚麼。良久云。香巖含悲泣拄杖。仰山撲破瀉山鏡。

示眾云。山僧因看華嚴金師子章。第九由心回轉善成門。又釋云。如一尺之鏡。納重重之影像。若然者。道有也得。道無也得。道非亦得。道是亦得。雖然如是。更須知有拄杖頭上一竅。若也不會。拄杖穿燈籠入佛殿。撞著釋迦。磕倒彌勒。露柱撫掌。呵呵大笑。爾道。笑箇甚麼。卓拄杖一下。

示眾。拈起拄杖云。山僧有時一棒。作箇漫天網。打俊鷹俊鷄。有時一棒。作布絲網。撈蝦攬蜆。有時一棒。作金毛師子。有時一

棒。作蝦蟆蚓蚯。山僧打爾諸人一棒。且作麼生商量。若緇素得出。不妨拄杖頭上。眼開照四天下。若也未然。從教立在古屏畔。待使丹青入畫圖。

示眾。拈起拄杖云。拄杖若是。頭上安頭。拄杖不是。斬頭覓活。離此二途。猶是無依滯魄。透脫一路。正是著肉汗衣。汝等諸人。各具金剛眼睛。到這裏。作麼生會。若也不會。拄杖子透過渤海。看看。卓一下。

示眾云。過去諸佛。已般涅槃。好與三十棒。現在諸佛。轉大法輪。好與三十棒。未來諸佛。當出於世。好與三十棒。諸高德。若要報佛深恩。當如是學。學則從爾諸人。不得辜負老僧。

示眾云。句中薦得。游子返於故鄉。意中薦得。方解事於尊堂。若然者。須知轉身吐氣始得。若能如是。方解百尺竿頭進步。句中無意。意中無句。既然如是。且作麼生吐氣。若也不會。拄杖子。為爾吐氣去也。卓一下。

示眾云。主賓互換。坐斷乾坤。料簡雙施。誰人舉目。釋迦聖主。示滅雙林。達磨大師。真歸熊耳。瑯琊門下。還有具眼衲僧。真正道流麼。若無。應病與藥。診候臨時。

示眾云。汝等諸人。在我這裏過夏。與爾點出五般病。一不得向萬里無寸草處去。二不得孤峰獨宿。三不得張弓架箭。四不得物外安身。五不得滯於生殺。何故。一處有滯。自救難為。五處若通。方名導師。汝等諸人。若到諸方。遇明眼作家。與我通箇消息。貴得祖風不墜。若是常徒。即須寢息。何故。裸形國內誇服飾。想君太殺不知時。

師上堂。有僧出。打一圓相。師便打云。道道。僧云。不道不道。師又打。僧云。三世諸佛。不出於此。師又打。乃云。大眾。教中道。以手指比丘。犯波逸提。山僧今日。入地獄如箭射。

僧問。雪峰三上投子。九到洞山。為甚麼。却向德山。倒戈卸甲。師云。人平不語。水平不流。云石火電光人不顧。隨機設教有誰知。師云。地無三寸土。人無隔宿恩。云雪後始知松栢操。事難方見丈夫心。師云。江南兩浙水。

僧問。談真逆俗。順俗違真。離此二途。請師舉唱。師云。水裏石牛吼。木裏瑞花香。僧云。若然者。不因觀北斗。爭得見南星。師云。世亂奴欺主。時衰鬼弄人。

僧問。一法若有。毗盧墮在凡夫。萬法若無。普賢失其境界。正恁麼時。還許文殊普賢出頭也無。師云。樓頭吹畫角。妄聽五更鐘。云學人未曉。乞師再指。師云。未到長安不肯休。云不入洪波裏。爭見弄潮人。師云。草上班班眾者看。

僧問。大事未辨時如何。師云。金燈連夜照。不覺五更鐘。云大事  
已辨時如何。師云。跣足踏冰雪。方知徹骨寒。

聯燈會要卷第十二

南嶽下第十一世  
汾陽善昭禪師法嗣

舒州法華全舉禪師(凡十一)

示眾云。鐘鳴鼓響。鶻噪鷓鳴。為汝諸人。脫般若講涅槃了也。還信得及麼。觀音勢至。向諸人面前。作大神通。若信不及。却往他方。救苦利生去也。

示眾云。擬則堞生招箭。不擬則三千里外。

示眾云。釋迦不出世。達磨不西來。佛法徧天下。談玄口不開。

妙喜云。作賊人心虛。

示眾云。若開口。又成增語。不開口。又成剩語。乃云。金輪天子勅。草舍家風別。

示眾云。語漸也。返常合道。論頓也。不留朕跡。直饒論其頓。返其常也。是抑而為之。

示眾云。心不是佛。智不是道。且道。是甚麼。刻舟求劍。膠柱調絃。

師到公安遠和尚處。遠問。作麼生是伽藍。師云。深山藏獨虎。淺草露群蛇。遠云。作麼生是伽藍中人。師云。青松蓋不得。黃葉豈能遮。遠云。道甚麼。師云。少年翫盡天邊月。潦倒扶桑沒日頭。遠云。一句兩句。雲開月露。作麼生。師云。照破佛祖。

師到大愚芝和尚。問古人見桃花。意作麼生。師云。曲不藏直。愚云。那箇且從。這箇作麼生。師云。大街拾得金。四鄰爭得知。愚云。上座還知麼。師云。路逢劍客須呈劍。不是詩人不獻詩。愚云。作家待客。師云。一條紅線兩人舁。愚云。玄沙道。諦當甚諦當。敢保老兄未徹在。又作麼生。師云。海枯終見底。人死不知心。

師到瑯琊覺和尚。問近離甚處。師云。兩浙。瑯云。舡來陸來。師云。舡來。瑯云。舡在甚處。師云。步下。瑯云。不涉程途。一句作麼生道。師云。杜撰長老。如麻似粟。拂袖而出。

瑯問侍者。此是甚麼人。者云。舉上座。瑯云。莫是舉師叔麼。先師教我尋見伊。遂下旦過問。上座莫是舉師叔麼。莫怪適來相觸忤。師便喝。

復問。長老何時到汾陽。瑯云。恁時到。師云。我在浙江。早聞爾名。元來見解只如此。何得名播寰宇。瑯云。慧覺罪過。便作禮。僧問。牛頭未見四祖時。為甚麼。百鳥嚙花。師云。果熟兼猿重。云見後。為甚麼。不嚙花。師云。林疎鳥不過。僧問。祖師西來事。請師直指陳。師云。截耳臥街。問七星光彩天將曉。不犯皇風試道看。師云。將軍馬蹄紅。問如何是佛。師云。波斯倚夜臺。

### 蘄州龍華曉愚禪師(凡二)

示眾云。摩騰入漢。已涉繁詞。達磨西來。不守已分。山僧今日。與麼道。也是為他閑事長無明。師到五祖戒和尚。問不落唇吻一句。作麼生道。師云。老老大大。話頭也不照顧。戒便喝。師亦喝。戒拈棒。師拍手一下。便下去。戒云。闍梨闍梨。且住。話在。師將坐具。搭在肩上。直出。更不回頭。

### 湖州天聖浩泰禪師(凡一)

師到琅琊。瑯問。埋兵掉鬪。未是作家。匹馬單鎗。便請相見。師指瑯云。將頭不猛。帶累三軍。瑯打師一坐具。師亦打瑯一坐具。瑯接住云。適來一坐具。是山僧令行。上座一坐具。落在甚麼處。師云。伏惟尚享。瑯托開云。五更侵早起。更有夜行人。師云。賊過後張弓。瑯云。且坐喫茶。

### 南嶽芭蕉谷泉庵主(凡三)

泉州人也。受法汾陽。放蕩湖湘。後省同參慈明禪師。明問。白雲橫谷口。道人何處來。師左右顧視云。夜來何處火。燒分古人墳。明云。未在更道。師作虎聲。明以坐具便撼。師接住。推明置繩床上。明却作虎聲。師大笑云。我見八十餘員善知識。只有爾一箇。較些子。

倚遇上座來參禮。問云。庵主在麼。師云誰。遇云。行脚僧。師云。作甚麼云禮拜庵主。師云。恰值庵主不在。遇云。爾響。師云。向道不在。說甚麼爾。我拽棒趨下山。

次日再來。師又打出。

遇一日又來。問庵主在麼。師云。誰。遇云。行脚僧。揭簾便入。師攔胸搗住云。我這裏。狼虎縱橫。尿床鬼子。三回兩度。來討甚

麼。遇云。人言。庵主親見汾陽來。師解衣抖擻云。爾道。我見汾陽。有多少奇特。遇云。如何是菴中主。師云。入門須辨取。遇云。莫只這便是麼。師云。賺殺幾多人。遇云。前言何在。師云。聽事不真。喚鐘作甕。遇云。萬法泯時全體現。君臣合處正中邪去也。師云。驢漢。不會便休。亂統作麼。云未審客來將何祇侍。師云。雲門胡餅趙州茶。云恁麼則謝師供養去也。師叱云。我這裏火種也未有。早言謝供養。

## 汝州葉縣歸省禪師法嗣

### 舒州浮山法遠禪師(凡八)

鄭囿田人王氏子。師出世受請。示眾云。看風使帆即不可。若教山僧舉揚宗旨。據令全提。三世諸佛。盡乃平沈。法堂堦前。草深一丈。雖然如是。建化門中。事無一向。大眾普集。太守臨筵。明眼高流。何不詰問。

僧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師云。八十翁翁輓綉毬。云一句迥然超祖胄。三玄戈甲振叢林。師云。李陵元是漢朝臣。

問釋迦出世。地湧金蓮。和尚說法。有何祥瑞。師云。萬願悉瞻春色異。暖風纔動雪初晴。云學人只如此。師意又如何。師云。野花開古岸。樵子夜還譌。

師云。更有問話者麼。問與不問。亦無得失之機。何故。況此事不在言詮之下。乃至三世諸佛出世。以森羅萬象。日月星辰。他方此土。有情無情。以海印三昧。一印印定。普天匝地。更無絲毫透漏。雖然如是。與衲僧拄杖子。天地懸殊。何謂衲僧拄杖子。緣具殺活。別有蹊徑。我若以此拄杖。向上舉擊。便須星辰移位。日月無光。鳥獸悲鳴。魚龍鎖戶。若也向下拈提。實乃千花競秀。萬木迎春。風不鳴條。雨不破塊。嘉禾合穗。鼓腹譌謠。儻或不上不下。又作麼生商量。良久云。勸君不用鑄頑石。路上行人口是碑。示眾云。諸佛出世。建立化門。不離三身智眼。亦如摩醯首羅。圓伊三點。何故。一隻眼。水泄不通。緇素難辨。一隻眼。大地全該。十方通暢。一隻眼。高低一顧。萬類齊瞻。雖然如是。若是本分衲僧。驀路相逢。別具正眼始得。所以道。三世諸佛不知有。狸奴白牯却知有。且道。知有箇甚麼。良久云。深秋簾幕千家雨。落日樓臺一笛風。

示眾云。欲得鷹俊麼。仍須四事俱備。方顯宗師蹊徑。何謂也。一者祖師巴鼻。二具金剛眼睛。三有師子爪牙。四得衲僧殺活拄杖。得此四事也。縱橫變態。任運卷舒。高聳人天。壁立千仞。儻不如

是。守死善道者。敗軍之兆。何故。棒打石人。貴論實事。是以到這裏。得不脩江耿耿。大野雲凝。緣竹凝煙。青山鎖翠。風雲一致。水月齊觀。一句該通。已彰殘朽。

草堂清舉了云。黃龍今日出世。時當末季。佛法澆漓。不用祖師巴鼻。不用金剛眼睛。不用師子牙爪。不用殺活拄杖。只有一枝拂子。以為蹊徑。亦能縱橫變態。任運卷舒。亦能高聳人天。壁立千仞。有時逢強則弱。有時遇貴則賤。拈起則羣魔屏跡。佛祖潛蹤。放下則合水和泥。聖凡同轍。且道。拈起好。放下好。竿頭絲線從君弄。不犯清波意自殊。

示眾云。諸仁者。欲得橫擔拄杖。目視雲霄。直得棲息無門。安居無地。孤峯嶮峻。不可延留。墟市平原。那堪久住。進一步。未免踏他王公草地。退一步。亦是少父丘園。且道。不進不退。又作麼生商量。拈起拄杖云。要會麼。閑持經卷倚松立。笑問客從何處來。

示眾云。學須實學。見須實見。爾若自憑正眼。觸淨有歸。祖師病關。永拋游刃。蓋謂爾出言吐氣。亮處不孤。暗鋒自合。承言易墜。貴語難該。目擊道存。早傷途轍。況復守株待兔。殺瓜棲蘆。淹却迅光。卒難緇素。所以夾山和尚道。直須揮劍。若不揮劍。漁父棲巢。

示眾云。諸兄弟。若約本分事。說箇甚麼即得。說佛說祖。挑瘡抉刺。相似。說禪說道。眼裏撒沙一般。西天二十八祖。天下老和尚出世。直饒爾能言解語。辯若懸河。還的當道得一字也未。只如釋迦老子。四十九年出世。建立化門。種種因緣。種種譬喻。善巧方便。即不無。亦未曾言著一字。爾道言著一字。成謗他眉鬚墮落。然雖如是。爾莫見我恁麼道。便撥無就空。作箇脫洒解會。此之理道三世諸佛出世。建立化場。無不蒙益。無一針一草。而乖違諸祖連繼。天下老和尚。布化並無虛設。開物成務。故經云。開方便門。示真實相。所以到這裏。得失是非。顛倒取捨。盡歸一道。不見古人云。會得也奇特。不會亦相許。

問從上諸聖。傳不到處。請師道。師云。番人愛著鷓鴣帽。云特地乾坤。斬新日月。師云。鐵鞭遙指賀蘭山。

問大善知識。言無話墮。有出人眼。如何是出人眼。師云。黃河九[阿-可+尻]。云恁麼則真善知識。師云。陝府鐵牛。

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云。雨下堦頭濕。云見後如何。師云。晴乾便無泥。

問蓮花未出水時如何。師云。焦磚打著連底凍。云出水後如何。師云。洋瀾左裏。無風浪起。

問金鏃慣調曾百戰。鐵鞭多力恨無讎。學人上來。請師端的。隨後以衣袖拂一拂。師云。誅龍之劍。豈可揮虵。僧乃噓噓。師云。如今大有如君者。不到烏江不肯休。

問如何是諸佛不斷命處。師云。嫩竹抽新笋。枯松長老枝。云如何是清淨法身。師云。條絲不挂。

### 汝州寶應法昭禪師(凡二)

示眾云。若論此事。從古至今。未曾有一人舉唱得。若有一人舉唱得。盡大地人。失却性命。如無孔鐵鎚相似。一時亡鋒結舌去。猶較些子。我若假立主賓。動兩片皮。舉指頭。豎拂子。隨汝顛倒。教汝有箇問處。若是明眼人前。直是拈掇不出。看他魯祖和尚。纔見僧來。便面壁。被他長慶道。恁麼接人。驢年去。如今看魯祖。只是箇不識羞漢。諸人行脚。合自肯重取好。

僧問如何是法王法。師云。長三尺。云用者如何。師云。鬧市看青天。

云如何是本來心。師云。頭大尾小。云如何見得。師云。地深三尺餘。

云文殊贊善即不問。維摩默然。事如何。師槌胸三下。云向上事如何。師云。休鬼話。

### 襄州石門慈照聰禪師法嗣

#### 大乘遵禪師(凡一)

師問石門。古人索火。意旨如何。門云。任他滅。師云。滅後如何。門云。初三十一。師云。正好時節。門云。見箇甚麼道理。師云。今日好困。

乃有頌云。索火之機實快哉。藏鋒妙用少人猜。要會我師端的旨。紅爐火盡不添柴。

#### 潤州金山達觀曇穎禪師(凡九)

首謁大陽延禪師。遂問。洞山特設偏正君臣。意明何事。延云。父母未生時事。師云。如何體會。延云。夜半正明。天曉不露。師罔然。

遂謁石門。舉前話。聰云。大陽不道不是。只是口門窄。滿口說未盡。老僧即不然。師問。如何是父母未生時事。聰云。糞墜子。師

云。如何是夜半正明。天曉不露。聰云。牡丹花下睡貓兒。師愈疑駭。

一日普請。聰問。今日運薪耶。師云然。聰云。雲門問僧。人般柴。柴般人。如何會。師無對。聰云。此事如人學書。點畫可効者工。否者拙。蓋未能忘法耳。當筆忘手。當手忘心。乃可。師於是默契。良久云。如石頭云。執事元是迷。契理亦非悟。聰云。汝以為藥語為病語。師云。是藥語。聰呵云。汝以病為藥。又安可哉。師云。事如函得蓋。理如箭直鋒。妙寧有加者。而猶以為病。實未喻旨。聰云。妙至是。亦只名理事。而祖師意旨。意所不能到。矧事理能盡乎。故世尊云。理障礙正見知。事障續諸生死。師晃如夢覺云。如何受用。聰云。語不離巢道。安能出蓋纏。師嘆云。纔涉唇吻。便落意思。盡是死門。終非活路。

示眾云。纔涉唇吻。便落意思。盡是死門。俱非活路。直饒透脫。猶在沉淪。莫教辜負平生。虛度此世。要得不辜負平生麼。拈拄杖。卓一下云。須是莫被拄杖瞞。始得。看看。拄杖子。穿過爾諸人觸體。[跳-兆+孛]跳入爾鼻孔裏去也。卓拄杖一下。

示眾云。山僧門庭別。已改諸人轍。為文殊拔却眼中楔。教普賢休嚼口中鐵。勸人放開駱蛇手。與爾斫却繫驢橛。駐意擬思量。喝一喝云。捏捏。

師一日陞堂。首座出作禮。師云。好好問著。座低頭纔問。師便云。今日不答話。便下座。歸方丈。

示眾云。五千教典。諸佛常談。八萬塵勞。眾生妙用。猶未是金剛眼睛。且作麼生是金剛眼睛。良久云。瞎。

示眾云。山僧平生好相撲。即是無搭對。今日且共首座搭對。遂卷袈裟下座。索首座相撲。座纔出。師云。平地喫交。便歸方丈。僧問。和尚還念佛也無。師云。不念。云為甚麼不念。師云。污人口。

都尉李公端愿。問人死。識歸何處。師云。未知生。焉知死。李云。生則已知。師云。生從何來。李擬議。師搵其胷云。只在這裏。思量箇甚麼。李云。只知貧程。不覺蹉路。師托開云。百年一夢。

都尉問。地獄畢竟是有是無。師云。諸佛向無中說有。眼見空花。太尉就有中覓無。手搯水月。堪笑眼前見牢獄不避。心外見天堂欲生。殊不知。忻怖在心。善惡成境。太尉。但了自心。自然無惑。李云。心如何了。師云。善惡都莫思量。李云。不思量後。心歸何所。師云。請都尉歸宅。

觀察李公端懿。問西方淨土。如何得到。師云。即今坐却雕梁畫棟。却要生西方淨土。是好假。不好真。李云佛豈是妄也。師云。

佛不妄。自是太尉妄。李云。某甲爭得妄。師云。若不妄。何求西方淨土。大凡淨土者。是清淨之性。西方者。日落之處。令人作歸投處耳。知歸投處。即是西方淨土。極樂世界也。李致謝而退。刁景純學士。問佛教。於世間何用。師云。日用少不得。刁云。作麼用。師云。在眼曰見。在耳曰聞。刁云。干佛甚麼事。師云。若不干佛事。將何為見聞。刁云。自有眼耳在。師云。雕畫一切人佛。皆有眼耳。只為無佛。了不能見聞。佛是覺義。為有正覺。號之為佛。若無正見。盡是邪解。且不用頭戴火燄。腳踏蓮華。黃卷赤軸。為佛教耳。

### 襄州石門了同禪師(凡一)

示眾云。鐘未鳴時。諸上座。便合知時。何用上來。握節當霄。實為沉屈諸人者。然雖如是。撒沙向諸人眼裏去也。三世諸佛。在諸人鼻孔上。轉大法輪。看看。春行冬令。

### 處州仁壽嗣珍禪師(凡二)

示眾云。明明無悟。有法則迷。日上無雲。麗天普照。眼中無翳。空本無花。無智人前。不得錯舉。僧問。如何是和尚家風。師云。土雞瓦犬。

### 都尉李文和公遵勗(凡六)

公謁石門聰禪師。問出家事。聰云。昔崔趙公。參國一禪師。問曰。弟子欲出家。得否。一云。出家是大丈夫事。非將相之所能為。公於言下大悟。作頌云。學道須是鐵漢。著手心頭便判。直趣無上菩提。一切是非莫管。

慈明來謁。公問。我聞西河有金毛師子。是否。明云。都尉甚處得這消息來。公便喝。明云。野干鳴。公又喝。明云恰是。公拍手呵呵大笑。

慈明辭。公問。如何是臨行一句。明云。好自將息。公云。與麼則不異諸方去也。明云。都尉見處。又作麼生。公云。放爾三十棒。明云。恁麼則專為流通去也。公便喝。復拍手一下。明云。瞎。公云。好去。明云。諾諾。

公因堅上座辭。公問。近離上黨。得<sub>屈</sub>中都。方接塵談。遽回虎錫。指雲屏之翠嶠。訪雪嶺之清流。未審此處彼處。的的事。作麼生。堅云。利劍拂開天地靜。霜刀纔舉斗牛寒。公云。老夫今日耳

聵。堅云。一箭落雙鷗。公云。上座為甚麼著靴睡。堅以衣袖一拂。公低頭云。今日可謂降伏也。堅云。香化出僧堂。公因肅國大長公主。生辰。就府。命谷隱石靈葉縣三大禪師。演法。末當葉縣省禪師。省登座。拈拄杖。就膝拗折。擲于地。便下座。公笑云。老作家。手段終別。省云。都尉也不得無過。公臨終時。鬲胃躁熱。因尼道堅。就枕問云。都尉。眾生見劫盡。大火所燒時。切要照管主人公。公云。大師與我。煎一服藥來。堅無語。公云。這師姑。藥也不會煎得。投枕未安而終。

## 汝州廣慧元璉禪師法嗣

### 侍郎楊公億(凡九)

公得汝州。未到任。先謁廣慧璉禪師。遂問。布鼓當軒擊。誰是知音者。璉云。來風深辨。公云。禪客相逢。只彈指也。璉云。君子可八。楊云。諾諾。璉云。今日太賺侍郎。

楊問。只如僧問風穴。布鼓當軒擊。誰是知音者。穴云。藏身不吞炭。僧云。未審此意如何。穴云。山雉枉遭傷。楊問。如何是藏身不吞炭。璉云。在野何傷。楊云。山雉枉遭傷。意旨如何。璉云。聽事不真。有甚麼事。

夜話次。璉問。侍郎曾見甚麼人來。楊云。億曾問雲居諒監寺。兩箇大蟲相咬時如何。諒云。一合相。億云。某甲只管看。未審恁麼道。還得也無。璉云。老僧不然。楊云。請和尚下一轉語。璉云。但請問來。楊理前問。璉搗楊鼻孔云。這畜生。更[跳-兆+孛]跳看。楊當下知歸。欣然禮謝。

道話徹夜。

次日上任。置一百問。請璉答。璉一一著語。送回。

公謂人云。玄沙和尚道。大唐國內。宗乘中事。未曾有一人舉唱。或有一人舉唱。盡大地人。失却性命。如無孔鐵鎚。一時亡鋒結舌去。且道。是甚道理。如今假立箇主賓。鼓這兩片皮。豎起指頭。舉起拂子。總成顛倒知見。順汝狂意。教汝有箇伸問處。若是明眼人前。怎生拈掇得出。只如魯祖。見僧來。便面壁。長慶道。恁麼為人。驢年去。我道魯祖。只是不識羞。是他明眼人。又爭肯爾。如今事不獲已。順汝諸人顛倒知見。一似結巾為馬。捏目生花。上祖道。箇開佛知見。示佛知見。悟佛知見。入佛知見。他恁麼道。抑下多少威光。且諸人分上。欠少箇甚麼。雖然如是。我若不恁麼。汝又向甚麼處見我。古人云。知恩者少。且道。承甚麼人恩力。於此不明。問取露柱去。

公又云。此事大難。釋迦老子。於三七日中。思惟如是事。便道。我寧不說法。疾入於涅槃。帝釋梵王。殷勤三請。不得已而許之。始自鹿野苑。終於俱尸羅城。中間四十九年。作大佛事。說五乘十二分教。如瓶注水。末後於靈山會上。目顧迦葉。謂大眾云。吾正法眼。已付摩訶大迦葉。又云。四十九年間。未嘗說一字。是甚麼道理。於諸人分上。著一字脚不得。為諸人各各。有奇特事在。若喚作奇特事。早不中了也。我道。釋迦是敗軍之將。迦葉是喪身失命底人。汝等諸人。作麼生會。不見道。涅槃生死是夢言。佛及眾生為增語。直須恁麼會取。不要向外馳求。若也未明。乖張不少。公問廣慧。承和尚有言。一切罪業。皆因財寶所生。勸人疎於財寶。而況閻浮提眾生。以財為命。邦國以財聚人。教中有財法二施。何得勸人疎於財。慧云。幡竿頭上鐵龍頭。公云。海壇馬子似驢大。慧云。楚雞不是丹山鳳。公云。佛滅二千年。比丘少慚愧。

公同李都尉。與唐明嵩禪師。問答。

問彌陀演化於西方。達磨傳心於東土。胡來漢現。水到渠成。五嶽鎮靜以崢嶸。百谷朝宗而浩渺。一靈之性。托境現形。三有之中。憑何立命。嵩云。仙人無婦。玉女無夫。公云。尼剃頭不復生子。嵩云。陝府鉄牛能哮吼。嘉州大像念摩訶。李云。側跳上山巔。嵩云。騎牛不著靴。

廣慧璉云。進象倒戈 汾陽昭云。端身裂面破。妙喜云。月下看弄雪師子。

問。玄沙不出嶺。保壽不渡河。善財參知識五十三員。慧遠結黑白一十八士。雪峰三度上投子。智者九旬講法華。這六箇漢。為復野干鳴。為復師子吼。速道速道。嵩云。水急魚行澁。峰高鳥不棲。公云。泗洲大聖。嵩云。土上加泥更一重。李云。舌上覆金錢。嵩云。半夜歌樂動。誰人得知音。

廣慧璉云。謠謠滿路人皆望 汾陽昭云。看壁畫人笑 妙喜云。野犴鳴師子吼。

問。風穴提印。南院傳衣。昭公演化於西河。嵩師領徒於并壘。南宗之旨。北土大興。且道。二師承誰恩力。嵩云。不入蓮池浴。嬾向雪山游。公云。清涼山裏萬菩薩。嵩云。維摩會中諸聖集。李云。背負乾薪遭野火。嵩云。口是禍門。

廣惠璉云。藏頭白海頭黑 汾陽昭云。告天手捺地噓噓 妙喜云。獼猴騎鰲背。

問。忉利透日月之上。四禪無風火之災。三交駕鐵牛之車。臨汝握全提之印。獼猴有一面古鏡。狸奴有萬里神光。直下承當。是何人也。嵩云。朝看東南。暮看西北。公云。狸奴白牯却知有。嵩云。淹殺塚頭蒿。李云。月裏煮油鑊。嵩云。石人腰帶。

廣慧璉云。陳蒲鞋周金剛 汾陽昭云。直裰又逢胡釘鉸 妙喜云。小出大遇。

問。[○@尾]一切諸佛。盡在裏許。動則喪身失命。覷著兩頭俱瞎。擬議之間。千山萬水。直下會得。也是炭庫裏坐地。有不惜眉毛者。通箇消息來。嵩云。百雜碎。公云。平生不妄語。嵩云。也要道過。李云。出穴免遭胃。嵩云。東西無滯礙。南北得自由。

廣惠璉云。振錫下泥犁 汾陽昭云。穿山透石壁。鼻孔血淋漓 妙喜云。自作自受。

## 南嶽下第十二世

### 潭州興化楚圓禪師法嗣

#### 洪州黃龍慧南禪師(凡十七)

信州玉山章氏子。

師久依泐潭澄禪師。分座接物。名振諸方。偶同雲峰悅禪師。游西山。夜話雲門法道。悅云。澄公雖是雲門之後。法道異矣。師詰其所以異。悅云。雲門如九轉丹砂。點鐵成金。澄公藥汞銀。徒可翫。入煨則流去。師怒以枕投之。明日悅謝過。

又云。雲門氣宇如王。甘死語不乎。澄公有法受人。死語也。死語其能活人乎。即背去。師挽之云。若如是。則誰可汝意。悅云。石霜楚圓。手段出諸方。子宜見之。不可後也。師默計之云。悅師翠巖。使我見石霜。於悅何有哉。即造石霜。聞慈明不事事。忽叢林。悔欲無行。

即謁福嚴賢。賢命掌書司。俄賢卒。郡守以慈明補之。既至。目其貶剝諸方。件件數為邪解。師為之氣索。遂造其室。明云。書記領徒游方。借使有疑。可坐而商略。師哀懇愈切。明云。公學雲門禪。必善其旨。如云。放洞山三頓棒。是有喫棒分。是無喫棒分。師云。有喫棒分。明色莊曰。從朝至暮。鵲噪鷓鳴。皆應喫棒。明即端坐。受師炷香作禮。明復問。趙州道。臺山婆子。我為汝勘破了也。且阿那裏是他勘破婆子處。師汗下。不能加答。

明日又詣。明詬罵不已。師云。罵豈慈悲法施耶。明云。爾作罵會那。師於言下大悟。作頌云。傑出叢林是趙州。老婆勘破有來由。如今四海清如鏡。行人莫與路為讎。呈慈明。明頷之。自是泐潭。舊好絕矣。

示眾云。盡令提綱。不通凡聖。放一線道。有箇商量。遂拈起拄杖云。即今拄杖子豎也。十方世界一時豎。又橫拄杖云。即今拄杖子

橫也。十方世界一時橫。何也。不見道。極小同大。忘絕境界。極大同小。不見邊表。遂卓拄杖一下。

示眾云。雲從龍風從虎。五九四十五。叢林將為向上關。同安不打這破鼓。為甚麼不打。守株待兔。豈是智人。避色逃聲。何名作者。祖不云乎。執之失度。必入邪路。放之自然。體無去住。

示眾云。有利無利。不離行市。鎮州蘿蔔頭。即且置。廬陵米價。作麼生。若善其價。可謂終日喫飯。未曾咬破一粒米。苟若不知。他時後日。有人索上座飯錢在。莫言不道。

示眾云。智海無風。因覺妄以成凡。覺妄元虛。即凡心而見佛。只恁麼休去。便道同安無折合。隨汝顛倒所欲。南斗七北斗八。

示眾云。擬心即差。動念即乖。不擬不動。土木無殊。行脚人。須得轉身一句。遂拈起拂子云。這箇是同安拂子。汝等諸人。作麼生轉。若也轉得。一為無量。無量為一。若轉不得。布袋裏老鴿。雖活如死。

示眾云。江南之地。春寒秋熱。近日已來。滴水滴凍。

僧問滴水滴凍時如何。師云。未是衲僧分上事。云如何是衲僧分上事。師云。滴水滴凍。

復云。諸上座。且作麼生會。良久云。鴛鴦繡出從君看。莫把金針度與人。

示眾云。道遠乎哉。觸事而真。聖遠乎哉。體之即神。拈起拄杖云。道之與聖。總在歸宗拄杖頭上。汝等諸人。何不識取。若也識得。十方剎土。不行而至。百千三昧。無作而成。若也未識。有寒暑兮促君壽。有鬼神兮妬君福。

示眾云。半夜捉烏雞。驚起梵王睡。毗藍風忽起。吹倒須彌山。官路無人行。私酒多人喫。當此之時。臨濟德山。開得口。張得眼。有棒有喝用不得。汝等諸人。各自尋取祖業契書。莫認驢鞍橋。作阿爺下頷。

示眾云。說妙談玄。乃太平之姦賊。行棒行喝。為亂世之英雄。英雄姦賊。棒喝玄妙。皆為長物。黃檗門下。總用不著。且道。黃檗門下。尋常用箇甚麼。咄。

示眾云。輕輕踏步恐人知。語笑分明更是誰。智者只此猛提取。莫待天明失却雞。

示眾。舉永嘉道。游江海涉山川。尋師訪道為參禪。自從認得曹谿路。了知生死不相關。諸上座。那箇是游底江海。那箇是涉底山川。那箇是尋底師。那箇是訪底道。那箇是參底禪。若向湖南兩浙。廬山衡嶽。雲門臨濟。而尋師訪道。洞山法眼而參禪。是向外求。名為外道。若以毗盧自性為海。般若寂滅智為禪。名為內求。若向外求。走殺儂。若住於五蘊內求。縛殺儂。是故禪者。非內非

外。非有非無。非實非虛。不見道。內見外見俱錯。佛道魔道俱惡。瞥然與麼去兮。月藏西山。更尋聲逐色兮。何處名邈。以拂子。擊繩床。

示眾云。有一人。朝看華嚴。暮看般若。晝夜精勤。無有暫暇。有一人。不參禪。不論義。把箇破席日裏睡。於此二人同到黃龍。一人有為。一人無為。安下那箇即是。良久云。功德天黑暗女。有智主人。二俱不受。

示眾云。心王不妄動。六國一時通。罷拈三尺劍。休弄一張弓。示眾。舉大珠和尚道。身口意清淨。是名佛出世。身口意不淨。是名佛滅度。也好箇消息。古人一期方便。與爾諸人。討箇入路。既得箇入路。又須得箇出路。登山須到頂。入海須到底。登山不到頂。不知宇宙之寬廣。入海不到底。不知滄溟之淺深。既知寬廣。又知淺深。一踏踏翻四大海。一擗擗倒須彌山。撒手到家人不識。雀噪鷓鴣鳴柏樹間。

僧問。無為無事人。猶是金鎖難。未審過在甚麼處。師云。一字入公門。九牛拽不出。云學人未曉。乞師方便。師云。大庾嶺頭。笑却成哭。

問大用現前。請師辨白。師云。摘却爾眉毛。傾出爾腦髓。脚跟下。道將一句來。云鑊錙舉起。蛟龍失色。師云。作麼生。僧以手。面前一劃云。爭奈這箇何。師云。三十年後。討箇師僧。也難得。僧便喝。師云。好一喝。未有主在。僧作禮。師云。當斷不斷。返招其亂。

僧問。一不去。二不住。請師道。師云。高祖殿前樊噲怒。云與麼。則今日得遇和尚也。師云。仰面看天不見天。云若然者。學人禮謝。師云。更待何時。

### 袁州楊歧方會禪師(凡十四)

本州宜春冷氏子。

師在筠州九峰。受請。拈法衣。示眾云。會麼。若也不會。今日無端走入水牯牛隊裏去也。還知麼。筠陽九岫。萍實楊歧。遂陞座。時有僧出。師云。漁翁未擲釣。躍鱗衝浪來。僧便喝。師云。不信道。僧撫掌歸眾。師云。消得龍王多少風。

僧問。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師云。有馬騎馬。無馬步行。云少年長老。足有機籌。師云。念汝年老。放爾三十棒。

問如何是佛。師云。三脚驢子弄蹄行。云莫只這便是麼。師云。湖南長老。

師云。更有問話者麼。試出來相見。楊歧今日。性命在爾諸人手裏。一任橫拖倒拽。為甚麼如此。大丈夫兒。須是當眾決擇。莫背地裏。似水底按葫蘆相似。當眾引驗。即便面赤。有麼有麼。出來決擇看。如無。楊歧今日失利。便下座。

九峰勤和尚。把住師云。今日喜得箇同參。師云。作麼生是同參底事。勤云。九峰牽犁。楊歧拽把。師云。正恁麼時。楊歧在前。九峰在前。勤擬議。師托開云。將謂同參。元來不是。

示眾云。霧鎖長空。風生大野。百草樹木。作大師子吼。演說摩訶般若。三世諸佛。在諸人脚跟下。轉大法輪。若也會去。功不浪施。若也不會。莫道楊歧山勢嶮。前頭更有最高峰。

示眾云。不見一法。是大過患。拈起拄杖云。穿過釋迦老子鼻孔。作麼生道得脫身一句。向水不洗水處。道將一句來。良久云。向道莫行山下路。果然猿叫斷腸聲。

示眾。以手拍繩床云。只箇心心心是佛。十方世界最靈物。釋迦老子說夢。三世諸佛說夢。天下老和尚說夢。且問諸人。還僧作夢麼。若也作夢。向半夜裏。道將一句來。良久云。人間縱有真消息。偷向楊歧說夢看。

示眾云。景色乍晴。物情舒暢。舉步也。千身彌勒。動用也。隨處釋迦。文殊普賢。總在這裏。眾中有一人瞞底。便道。雲蓋和麩糶麵。然雖如是。布袋裏盛錐子。

示眾云。楊歧無准的。種田博飯喫。說夢老瞿曇。何處覓蹤跡。

示眾云。踏著秤鎚硬似鐵。啞子得夢向誰說。須彌頂上浪滔天。大洋海裏遭火爇。

示眾云。一即一切。一切即一。拈拄杖。劃一劃云。山河大地。天下老和尚。百雜碎。作麼生是爾諸人鼻孔。良久云。劒為不平離寶匣。藥因救病出金瓶。

慈明忌辰設齋。眾纔集。師至真前。以兩手捏拳。安頭上。以坐具。劃一劃。打一圓相。便燒香。退身三步。作女人拜。首座云。休捏怪。師云。首座作麼生。座云。休捏怪。師云。兔子喫牛糞。第二座近前。打一圓相。便燒香。退身三步。作女人拜。師近前。作聽勢。座擬議。師打一掌云。這漆桶。也亂做。

龍興孜老遷化。僧至。下遺書。師問。世尊入滅。槩示雙趺。和尚歸真。有何相示。僧無語。師槌胸一下云。蒼天蒼天。

三人暫到相看。師問。三人同行。必有一智。提起坐具云。參頭上座。喚這箇。作甚麼。云坐具。師云。真箇那。云是。師復云。喚作甚麼。云坐具。師顧視左右云。參頭却具眼。

又問第二人。欲行千里。一步為初。如何是最初一句。云到和尚這裏。爭敢出手。師以手劃一劃。僧云。了。師展兩手。僧擬議。師

云了。

又問第三人。近離甚處。云南源。師云。楊歧今日。被上座勘破。且坐喫茶。

七人新到相見。師問。陣勢既圓。作家戰將。何不出來。與楊歧相見。僧以坐具便打。師云。作家。僧又打。師云。一坐具兩坐具。作麼生。僧擬議。師背面而立。僧又打。師云。爾道。楊歧話頭。落在甚麼處。僧指面前云。在這裏。師云。三十年後。遇明眼人。不得錯舉。且坐喫茶。

師問僧。秋色依依。朝離何處。云去冬在上藍。師云。不涉程途。一句作麼生。云兩重公案。師云。謝上座答話。僧便喝。師云。那裏學得這虛頭來。云明眼尊宿難瞞。師云。恁麼則楊歧。隨上座去也。僧擬議。師云。念汝鄉人在此。放爾三十棒。

師問僧。雲深路僻。高步何來。云天無四壁。師云。踏破多少草鞋。僧便喝。師云。一喝兩喝。又作麼生。云爾看這老和尚。師云。拄杖不在。且坐喫茶。

聯燈會要卷第十三

南嶽芭蕉谷泉庵主。見汾陽昭禪師後。省同參慈明禪師問答。有云。我見八十餘員知識。只有爾較些子。後人見有此語。宗派圖盡列為慈明嗣。非也。今收汾陽下。

南嶽下第十二世  
潭州興化楚圓禪師法嗣下

洪州翠巖可真禪師(凡六)

福州長谿人也。師參慈明。因之金鑾。同善侍者坐夏。善乃慈明高弟。道吾真。楊歧會。皆推伏之。師自負親見慈明。天下無可意者。善與語。知其未徹。笑之。

一日山行。真舉論鋒發。善拈一片瓦礫。置盤石上云。若向這裏。下得一轉語。許爾親見慈明。真左右視。擬對之。善叱云。佇思停機。情識未透。何曾夢見。真自愧悚。即還石霜。

慈明見來。叱云。本色行脚人。必知時節。有甚急事。夏未了。早已至此。師云。被善兄毒心。終礙塞人。故來見和尚。慈明遽問。如何是佛法大意。師云。無雲生嶺上。有月落波心。明嗔目喝云。頭白齒豁。猶作這箇見解。如何脫離生死。師不敢仰視。淚交頤。久之遂問。未審如何是佛法大意。明云。無雲生嶺上。有月落波心。師於言下大悟。

師爽氣逸出。機辨迅捷。叢林憚之。後出世翠巖。

示眾云。眾生為解礙。菩薩未離覺。拈拄杖云。拄杖子。是礙。那箇是覺。若也會去。解礙為礙。而不自在。若也不會。歸源性無二。方便有多門。

示眾云。不見一法。是大過患。山河大地。日月星辰。色空明暗。不是一法。拈起拄杖云。凡夫見拄杖。喚作拄杖。聲聞人。見拄杖。認得箇頑空。撥無拄杖。菩薩人。見拄杖。豈曾挂著齒牙。飢來喫飯。困來打睡。寒來向火。熱則取涼。不見道。一切智智清淨。恁麼說話。笑破土地口。

示眾。舉僧問巴陵。如何是道。陵云。明眼人落井。又問寶應。應云。五鳳樓前。又問首山。山云。脚下深三尺。

師云。此三轉語。一轉語。壁立千仞。一轉語。陸地行舡。一轉語。賓主交參。眾中莫有揀得出者麼。出來道看。如無。且行羅漢慈。破結賊故。行菩薩慈。安眾生故。行如來慈。得如相故。

示眾云。臨陣抗敵。不懼生死者。將軍之勇也。入山不懼虎兇者。獵夫之勇也。入水不避蛟龍者。漁父之勇也。作麼生是衲僧之勇。拈起拄杖云。這箇是拄杖子。拈得。把得。動得。三千大千世界。

一時搖動。若拈不得。把不得。動不得。文殊自文殊。解脫自解脫。

師住上藍時。有國博。問百丈華和尚云。既是百丈。為甚麼却矮小。華云。今日好天晴。博不肯。

請師代語。博理前問。師云。須彌南畔。把手同行。博竚思。却云。未審意旨如何。師云。蚊子上鐵牛。博云。請和尚為某甲說。師云。請去却妻子來。老僧為汝說。博云。只如長老。還行得也無。師云。老僧每日。上藍寺送客。行百十遭。

### 洪州大寧寬禪師(凡六)

示眾云。佛法無事。人自迷源。佛祖出來。大家整頓。故有教流沙界。道播四方。盡皆捨短從長。窮究本性。本性若達。一切皆空。信手拈來。千般受用。且道。恁麼說話。還合得祖宗門下事麼。良久云。啼得血流無用處。不如緘口過殘春。

示眾云。少林妙訣。祖佛家風。應用隨機。卷舒自在。如拳作掌。開合有時。似水成漚。起滅無定。動靜俱顯。語默全彰。萬用自然。不勞心力。到這裏。喚作順水放船。是人去得。逆風把拖。誰是知音。良久云。弄潮須是弄潮人。

示眾云。高而不危。滿而不溢。在凡凡不捨。居聖聖難逃。十方都一照。大地絕纖毫。且道是甚麼。喝一喝。

示眾。拈拄杖云。前佛性命。後佛紀綱。總在這裏。如今用去也。為雲為雨。為瑞為祥。利人利天。出生入死。他方世界。出沒卷舒。若也通身是口。說不能盡。通身是眼。照不能窮。一念相應。剎那萬劫。

示眾云。無念為宗。無住為本。真空為體。妙有為用。所以道。盡大地是真空。徧法界是妙有。且道。是甚麼人用得。四時運轉。日月長明。法本不遷。道無方所。隨緣自在。逐物昇沉。此土他方。入凡人聖。雖然如此。且道。入鄉隨俗一句。作麼生道。良久云。西天梵語。此土唐言。

示眾云。從上來事。非從佛得。不就祖求。丈夫稟性。本自天真。動止合儀。去來無著。如魚在水。任性浮沉。似鳥飛空。俱無罣礙。如斯說話。誰是知音。良久云。一氣不言含有象。萬靈何處謝無私。

僧問。教中道。始知眾生。本來成佛。為甚麼。却有煩惱菩提。師云。甘草甜黃連苦。云却成兩箇去也。師云。爾不妨會得好。問。既是一真法界。為甚麼。却有千差萬別。師云。根深葉茂。云未審還出得這箇也無。師云。弄巧成拙。

問如何是露地白牛。師以火筭。插火爐上云。會麼。云不會。師云。頭不欠尾不剩。  
問。作止任滅。教中四病。後學之流。如何趣向。師云。巧匠運斤斧。斫木不捭繩。  
問。丹霞燒木佛。院主為甚麼。眉鬚墮落。師云。賊不打貧兒家。師在同安。僧問。既是同安。為甚麼。却病僧化去。師云。布施不如還却債。  
問法無取捨。為甚麼。遞相傳授。師云。傳授無取捨。  
問飲光正見。為甚麼。見拈華却微笑。師云。忍俊不禁。  
問天下禪和。為甚麼。出這箇○不得。師云。往往如斯。

### 潭州道吾悟真禪師(凡十)

示眾云。古今日月。依舊山河。若明得去。十方薄伽梵。一路涅槃門。若明不得。謗斯經故。獲罪如是。  
示眾云。古人道。認著依前還不是。實難會。土宿頷下鬚髭多。波斯眼深鼻孔大。甚奇怪。欵然透過新羅界。  
示眾。舉僧問首山。如何是佛。山云。新婦騎驢阿家牽。師云。手提巴鼻腳踏尾。仰面看天聽流水。天明送出路傍邊。夜靜還歸茆屋裏。  
示眾。舉洞山云。五臺山上雲蒸飯。佛殿堦前狗尿天。剎竿頭上煎餛飩。三箇猢猻夜簸錢。師云。老漢即不然。三面狸奴腳踏月。兩頭白牯手拏煙。戴冠碧兔立庭柏。脫殼烏龜飛上天。老僧葛藤。盡被諸人覷破了也。洞山老人。甚是奇特。雖然如是。只行得三步四步。且不過七跳八跳。且道。謗訛在甚麼處。老僧今日。不惜眉毛。一時布施。良久云。丁寧損君德。無言真有功。任從滄海變。終不為君通。  
示眾云。獅子兒哮吼。龍馬駒[跳-兆+亨]跳。古佛鏡中明。三山孤月皎。乃作舞。下座。  
師問僧。有一事。相借問。只是不得打老僧。僧云。著甚來由。師提起坐具云。爭奈這箇何。云莫亂做。師便打。僧又云。莫亂做。師又打云。且坐喫茶。僧云。適來道。著甚來由。和尚因甚打某甲。師云。爾適來。甚麼處去來。僧無語。師搥胷一下。  
師問僧。甚處來。云堂中來。師云。聖僧道甚麼。僧近前不審。師云。東家作驢。西家作馬。云過在甚麼處。師云。萬里崖州。師不安。僧問。和尚近日尊位如何。師云。粥飯頭不了事。僧無語。師鳴指一下。

僧問。如何是第一玄。師云。釋尊光射阿難肩。云如何是第二玄。師云。孤輪眾象攢。云如何是第三玄。師云。泣向枯桑淚漣漣。云如何是第一要。師云。最好精羸照。云如何是第二要。師云。閃電乾坤光晃耀。云如何是第三要。師云。路夾青松老。僧問。凝然便會時如何。師云。老鼠尾上帶研搥。

## 筠州大愚守芝禪師法嗣

### 潭州雲峰文悅禪師(凡九)

南昌徐氏子。初造大愚。聞示眾。有云。大家相聚喫莖蠶。若喚作一莖蠶。入地獄如箭射。便下座。無他語。師大駭。夜造方丈。芝問。來何所求。師云。求心法。芝云。法輪未轉。食輪先轉。後生。趨色力健。何不為眾乞食。我忍飢不暇。何暇為爾說禪乎。師不敢違。未幾。芝移翠巖。師納疏罷。復過翠巖。求指示。芝云。佛法未到爛却。雪寒。宜為眾乞炭。師亦奉命。能事罷。復造方丈。芝云。堂司闕人。今以煩汝。師受之不樂。恨芝不去心。一日後架脩桶。桶箍忽散。自架墮落。師忽然開悟。頓見芝用處。急走方丈。芝見來。笑云。且喜大事了畢。師再拜。不及吐一辭。服勤八年。

後出世翠巖。時首座領眾出迎。問云。德山宗乘。即不問。如何是臨濟大用。師云。爾甚處去來。座擬議。師便掌。座擬對。師喝云。領眾歸去。自是一眾畏服。

示眾云。莫有作家禪客。本分衲僧。何妨出來。共相證據。有麼。布袋裏盛錐子。不出頭來。是好手。大凡扶豎宗乘。亦須是箇人始得。若未有奔流度刃。石火電光底手眼。不勞拈出。不見臨濟。與德山坐次。山云。今日困。濟云。老漢。寐語作麼。山拈棒。濟便掀倒繩床。師云。奇怪諸禪德。看此二員作家。一撈一捺。略露風規。大似把手上高山。雖然如是。未免傍觀者哂。且道。誰是傍觀者。喝一喝。擊繩床一下。

示眾云。佛法至理。非競辯而求。擊揚鏗鏘。以摧異學。諸祖之道。豈其然乎。所以一大藏教。不能自詮。十方諸佛。不能提唱。輝騰今古。迥絕見知。圓滿十虛。寧有方所。只為情生知隔。想變體殊。雖終日行。而不自覺。是以勞他先聖。回首塵勞。曲開方便。方便即有。還有證明得者麼。若也證明得。便能隨機利物。應化無方。出沒卷舒。人間天上。雖然如是。即不得向衲僧門下過。何故。笑破他口。

示眾云。過去諸佛已滅。未來諸佛未生。正當今日。佛法委在翠巖。放行則隨機利物。把住則瓦解冰消。且道。把住好。放行好。良久云。咄。這野狐精。擊繩床一下。

示眾云。汝等諸人。與麼上來。大似刺頭入膠盆。與麼下去。也似平地喫交。直饒不來不去。朝打三千。暮打八百。

示眾云。道遠乎哉。觸事而真。聖遠乎哉。體之則神。所以娑婆世界。以音聲為佛事。香積世界。以香飯為佛事。翠巖這裏。只於出入息內。供養承事過現未來。塵沙諸佛。無一空過者。過現未來。塵沙諸佛。是翠巖侍者。無一不到。如一不到。三十拄杖。諸上座。還會麼。將此深心奉塵刹。是則名為報佛恩。

示眾云。有情之本。依智海以為源。含識之流。總法身而為體。只為情生智隔。想變體殊。達本情忘。知心體合。諸禪德。會麼。古佛與露柱相交。佛殿與燈籠鬪額。若也不會。單重交拆。

小參。舉百丈歲夜示眾云。爾這一隊後生。經律論固是不知。入眾參禪。禪又不會。臘月三十日。且作麼生折合去。

師云。酌然諸禪德。去聖時遙。人心澹泊。看却今時叢林。更是不得。所在之處。或聚徒三百五百。浩浩地。只以飯食豐濃。寮舍穩便。為旺化。中間孜孜為道者。無一人。設有。十箇五箇。走上走下。半青半黃。會即總道我會。各各自謂握靈蛇之寶。孰肯知非。及乎挨拶鞭逼將來。直是萬中無一。苦哉苦哉。所謂般若叢林歲歲凋。無明荒草年年長。就中今時後生。纔入眾來。便自端然拱手。愛他別人供養。到處菜不擇一莖。柴不般一束。十指不沾水。百事不干懷。雖則一期快意。爭奈三塗累身。豈不見教中道。寧以熱鐵纏身。不受信心人衣。寧以洋銅灌口。不受信心人食。上座若也是去。直饒變大地作黃金。攪長河為酥酪。供養上座。未為分外。若也未是。至於滴水寸絲。便須披毛戴角。牽犁拽杷。償他始得。不見祖師道。入道不通理。復身還信施。此是決定底事。終不虛也。諸上座。光陰可惜。時不待人。莫待一期眼光落地。緇田無一簣之功。鐵圍陷百刑之痛。莫言不道。

僧問。萬法歸一。一歸何所。師云。黃河九[阿-可+尻]。云恁麼則今古無間斷也。師云。可憐沙塞鴈。嗚咽與春期。

問。如何是第一句。師云。垂手過膝。云如何是第二句。師云。萬里崖州。云如何是第三句。師云。糞箕掃帚。

問。巔山巖崖。甚有佛法也無。師云有。云如何是巔山巖崖佛法。師云。獼猴倒上樹。

問。達磨未來時如何。師云。流沙浪闊。云來後如何。師云。熊耳山高。

俗士問。如何是佛。師云。著衣喫飯量家道。云恁麼則退身三步。叉手當霄去也。師云。醉後添杯不如無。

### 滁州琅琊慧覺禪師法嗣

#### 越州姜山方禪師(凡七)

示眾云。不是道得道不得。諸方盡把為奇特。寒山燒火滿頭灰。笑罵豐干這老賊。

示眾云。穿雲不渡水。渡水不穿雲。乾坤把定不把定。虛空放行不放行。橫三豎四。乍離乍合。將長補短。即不無。汝諸人。飯是米做一句子。要且難道。良久云。私事不得官酬。

僧問。奔流度刃。疾燄過風。未審姜山門下。還許借借也無。師云。天寒日短夜更長。云錦帳繡鴛鴦。行人難得見。師云。髑髏裏面氣衝天。僧云和尚。師云。雞頭鳳尾。云諸方泥裏洗。姜山畫將來。師云。姜山今日為客。且望闍梨善傳。然雖如是。不得放過。拍繩床一下。

僧問。如何是一塵入正受。師云。蛇銜老鼠尾。云如何是諸塵三昧起。師云。鰲咬釣魚竿。云恁麼則東西不辨。南北不分去也。師云。堂前一椀夜明燈。簾外數莖清瘦竹。

僧問。佛未出世時如何。師云。不識酒望子。云出世後如何。師云。釣魚缸上贈三槌。

問。蓮花未出水時如何。師云。穿針嫌眼小。云出水後如何。師云。盡日展愁眉。

云如何是不動尊。師云。單著布衫穿市過。云學人未曉。師云。騎驢踏破洞庭波。

問。透過三級浪。專聽一聲雷。師云。伸手不見掌。云還許學人進向也無。師云。踏地告虛空。云雷門之下。布鼓難鳴。師云。八花毬子上。不用綉紅旗。云三十年後。此話大行。師便打。

#### 蘇州定慧海印信禪師(凡六)

示眾云。摩竭掩室。計較未成。毗耶杜詞。伎倆俱盡。一棒一喝。未稱衲僧。舉拂揚眉。殘羹餽飯。諸仁者。山僧與麼說話。為他閑事長無明。且道。不傷物義一句。作麼生道。良久云。常愛嶺南深鵝裏。雪中初綻一枝梅。

示眾云。若識般若。即被般若縛。若不識般若。亦被般若縛。識與不識。拈放一邊。如何是般若體。良久云。參堂去。

示眾云。有時一喝。壁立千仞。有時一喝。四稜蹋地。喝一喝云。且道。落在甚麼處。爾若辨得。也好與一喝。師問僧。忠國師無情說法。南方尊宿。如何商量。云諸方皆云。六根互用。師云。無眼耳鼻舌身意。將甚麼互用。僧擬議。師劈脊便棒。問如何是平常無生句。師云。三脚蝦蟆吞巨鼈。云如何是妙玄無私句。師云。白雲覆青山。云如何是體明無盡句。師云。須彌頂上浪滔天。云三句外。還有向上事也無。師云有。如何是向上事。師云。南嶽天台。問。如何是第一句。師云。那吒忿怒。云如何是第二句。師云。衲僧罔措。云如何是第三句。師云。西天此土。

### 南嶽下第十三世

#### 洪州黃龍慧南禪師法嗣

#### 洪州黃龍祖心禪師(凡十二)

南雄始興鄔氏子。初謁雲峯悅禪師。孤硬難入。終不契機。告悅將去。悅云。必往依黃檗南禪師。師依南四年。不大發明。辭南。再上雲峯。會悅謝世。即憩止石霜。因閱傳燈。至僧問多福。如何是多福一叢竹。福云。一莖兩莖斜。云不會。福云。三莖四莖曲。師於此開悟。徹見二師用處。徑回黃檗。方展坐具。南云。子已入吾室矣。師踊躍云。大事本來如是。和尚何得教人看話。百計搜尋。南云。若不教爾如此究尋。到無心處。自見自肯。即吾埋沒汝也。示眾云。知幻即離。不作方便。離幻即覺。亦無漸次。釋迦老子。千門萬戶。一時擊開。靈利漢。纔聞舉著。撩起便行。更若踟躕。君往西秦。我之東魯。示眾云。有句無句。如藤倚樹。且任諸方點頭。及乎樹倒藤枯。上無衝天之計。下無入地之謀。靈利漢。這裏著得隻眼。便見七縱八橫。乃舉拂子云。太陽溢目。萬里不挂片雲。若是覆盆之下。又爭怪得老僧。示眾。把拂子。擊繩床云。一塵纔起。大地全収。諸人耳在一聲中。一聲徧在諸人耳。若是摩霄俊鶻。便合乘時。止樂困魚。徒勞激浪。示眾云。不與萬法為侶。即是無諍三昧。便恁麼去。爭奈絃急則聲促。若能向紫羅帳裏撒真珠。未必善因而招惡果。

示眾云。礙處非墻壁。通處沒虛空。若能如是會。心色本來同。豎起拂子云。拂子是色。那箇是心。靈利漢。纔聞舉著。隔墻見角。早知是牛。若更擬議思量。白雲千里萬里。

示眾云。若也單明自己。不悟目前。此人有眼無足。若悟目前。不明自己。此人有足無眼。據此二人。十二時中。常有一物。蘊在胸中。物既在胸。不安之相。常在目前。既在目前。觸途成滯。且作麼生。得平穩去。祖不云乎。執之失度。必入邪路。放之自然。體無去住。

示眾云。愚人除境不忘心。智者忘心不除境。不知心境本如如。觸目遇緣無障礙。舉拂子云。看看。拂子走過西天。却來新羅國裏。知我者。謂我拖泥帶水。不知我者。贏得一場怪誕。

示眾云。良工未出。玉石不分。巧冶無人。金沙混雜。還有無師自悟底漢麼。出來辨別看。乃舉拂子云。且道。是金是沙。良久云。見之不取。思之千里。

示眾云。敲空作響。誰是知音。擊木無聲。徒勞側耳。不是目前法。莫生種種心。起滅不相知。箇中無背面。象王行處。狐兔絕蹤。水月現時。風雲自異。到這裏。乾坤収不得。宇宙不知名。千聖立下風。誰敢當頭道。諸仁者。應是從前活計。所作施為。會與不會。一時掃却。不如策杖歸山去。長嘯一聲煙霧深。

示眾云。玄道者。不可以設功得。聖智者。不可以有心知。真諦者。不可以存我會。至功者。不可以營事為。古人一期。應病與藥。則不可。若是大丈夫漢。出則經濟天下。不出則卷而懷之。爾若一向聲和響順。我則排斥諸方。爾若示現酒肆淫坊。我則孤峰獨宿。且道。甚處是黃龍為人眼。

夏倚公。與師劇談肇論。論會萬物為自己。情與無情共一體。時有狗子。臥香卓下。師拈壓尺擊狗。又擊香卓云。狗子有情即去。香卓無情自住。情與無情。如何得成一體。公不能加答。師云。纔入思惟。便成剩法。何曾會萬物。為自己哉。

### 洪州寶峰真淨克文禪師(凡十八)

陝府鄭氏子。

坐夏大瀉。聞僧舉雲門話。云。佛法如水中月。是否。門云。清波無透路。師豁然契悟。

遂造積翠。見南禪師。南問。甚處來。師云。大瀉來。南云。恰值老僧不在。師云。甚麼處去。南云。天台普請。南嶽游山。師云。恁麼則學人得自在去也。南云。脚下鞋。甚處得來。師云。廬山七

百五十文唱來。南云。何曾得自在。師指鞋云。何嘗不自在。南駭之。

師開堂日。上首白槌云。法筵龍象眾。當觀第一義。師召大眾云。當須自觀。若此觀者。名為正觀。若他觀者。名為邪觀。邪正未分。有疑請問。

僧問列祖陞堂。賢侯堅請。向上宗乘。願聞舉唱。師云。六六三十六。進云。常憶江南三月裏。鷓鴣啼處百花香。師云。好箇消息。進云。今日郎中承此問。退身三拜謝師恩。師云深。

師乃云。問話且止。祇知問佛問法。殊不知佛法來處。且道。從甚麼處來。乃垂下一足云。昔日黃龍。親行此令。十方諸佛。無敢違者。諸代祖師。一切聖賢。無敢越者。無量法門。一切妙義。天下老和尚舌頭。始終一印。無敢異者。無異即且止。印在甚麼處。還見麼。若見。非僧非俗。無黨無偏。一一分付。若也不見。而我自収。遂収足。喝一喝云。兵隨印轉。將逐符行。佛手驢脚生緣老。好痛與三十棒。如今會中。莫有不甘者麼。若有。不妨奇特。若無。新長老。謾爾諸人去也。故我大覺世尊。昔日於摩竭陀國。十二月八日。明星現時。豁然悟道。大地有情。一時成佛。今有釋子沙門克文。於東震旦國。筠陽城中。六月十三日。赫日現時。又悟箇甚麼。以拂子。劃一畫云。我不敢輕於汝等。汝等皆當作佛。上堂。僧問。如何是佛。師呵呵大笑。進云。何笑之有。師云。我笑爾隨語生解。云偶然失利。師喝云。不得禮拜。僧便歸眾。師復云。隨語生解。

師乃云。還更有問話者麼。良久云。三十年弄馬騎。却被驢撲。撫膝云。直得須彌岌嶽。海水騰波。三十三天。一時退位。十八地獄。盡乃停酸。見麼。若這裏見得。釋迦拱手。彌勒攢眉。文殊普賢。與伊作侍者。若也不見。看我七縱八橫。且向葛藤裏薦取。阿呵呵。諸高德且道。我笑箇甚麼。噫。我笑昔日雲門臨濟。德山巖頭。螢火之光。蚊蚋之解。一人道。我呵佛罵祖。一人道。我得末後句。一人道。黃檗佛法無多子。一人道。大覺世尊。初生下時。一手指天。一手指地云。天上天下。唯我獨尊。我當時若見。一棒打殺。與狗子喫。似這一隊掠虜漢。總只一期無佛處稱尊。若是如今。一時喚來。與伊生按過。自餘之輩。放過即不可。豈不聞。僧問乾峰。十方薄伽梵。一路涅槃門。未審路頭。在甚麼處。乾峰以拄杖。劃一劃云。在這裏。只如乾峰。恁麼道。曾夢見也未。若是老僧。即不然。十方薄伽梵。一路涅槃門。未審路頭。在甚麼處。劈脊便棒。却問他。路頭在甚麼處。待伊擬開口。熱喝出去。更有雲門折脚老比丘。不分緇素。不辨邪正。拈扇子云。扇子[跳-兆+孛]跳。上三十三天。築著帝釋鼻孔。東海鯉魚。打一棒。兩似盆

傾。似這般和泥合水漢。糞掃推頭。埋却十箇五箇。有甚麼過。阿呵呵。樂不樂。足不足。如今幸對山青水綠。年來是事一時休。信任身心懶拘束。大眾休瞌睡。

示眾云。天地與我同根。萬物與我一體。脚頭脚底。橫三豎四。北俱盧州火發。燒著帝釋眉毛。東海龍王。忍痛不禁。轟一箇霹靂。直得傾湫倒岳。雲暗長空。十字街頭瘳胡子。醉中驚覺。起來撫掌呵呵大笑云。筠陽城中。近來少賊。驀拈拄杖云。賊賊。

示眾云。佛法不須人情。諸方長老。大開口了道。我會禪會道。且道。伊會也未。無端向屎坑裏坐。瞞神謊鬼。似遮般底。打殺百千萬箇。與狗子喫。有甚麼過。又有一般禪和子。大開著眼。被伊狐媚。殊不自知。驀頭著屎澆。亦不厭惡。大眾。彼此丈夫。爭受與麼。自己合作麼生。

示眾云。獅子不食鷓鴣殘。快鷹不打死兔。放出臨濟大龍。抽却雲門一顧。遂拈起拄杖云。雲行雨施。三草二木。

示眾云。洞山門下。要行便行。要坐便坐。鉢盂裏屙屎。淨瓶裏吐唾。執法修行。如牛拽磨。

示眾云。洞山門下。有時和泥合水。有時壁立千仞。爾諸方。擬向和泥合水處。見洞山。洞山且不在和泥合水處。擬向壁立千仞處。見洞山。洞山且不在壁仞千仞處。擬向一切處。見洞山。洞山且不在一切處。爾擬不要見洞山。鼻索又在洞山手裏。擬瞌睡。也把鼻索一掣。只見眼孔定動。又不相識。也不要爾識洞山。但識得自己也得。

示眾云。汾陽莫妄想。俱抵豎指頭。古今佛法事。到此一時休。休休。却憶趙州勘婆子。不風流處也風流。拈拄杖云。為眾竭力。

示眾云。佛法兩字。直是難得人。有底不信自己佛事。唯憑少許。古人影響。相似般若。所知境界。定相法門。動即背覺合塵。黏將去脫不得。或學者來。如印印泥。遞相印受。不唯自悞。亦乃悞他。洞山門下。無佛法與人。只有一口劍。但有來者。一一斬斷。使伊性命不存。見聞俱泯。却向父母未生前。與伊相見。見伊纔向前。便為斬斷。然則鋼刀雖利。不斬無罪之人。莫有無罪底麼。也好與三十棒。

示眾。舉三聖問雪峰。透網金鱗。未審以何為食。峰云。待汝出得網來。向汝道。聖云。一千五百人善知識。話頭也不識。

師云。俊哉俊哉。快活快活。恰似一隻鷄子。莫驚著。報寧即不然。透網金鱗。未審以何為食。待汝出得網來。向汝道。待佗道一千五百人善知識。話頭也不識。但拽拄杖。打出三門外。復云。也好快活。恰似一隻虎。莫動著。諸禪德且道。報寧快活。何似三聖

快活。莫有快活底漢。出來定當看。良久。喝一喝云。把手拽不住。

示眾。舉雪峰云。南山有一條鱉鼻蛇。汝等諸人。出入切須好看。師云。雪峰無大人相。然則蛇無頭不行。長慶恰似箇新婦兒。怕阿家。相似。便道。堂中今日。大有人。喪身失命。雲門拈拄杖。攬向面前。作怕勢。為蛇畫足。玄沙云。用南山作麼。道我見處親切。不免在窠窟裏。更無一人。有些子天然氣槩。報寧門下。莫有天然氣槩底麼。不敢望爾別懸慧日。獨振玄風。且向古人鶻鼻布衫上。知些氣息。也難得。

示眾云。頭陀石。被莓苔裹。擲筆峰。遭薜荔纏。羅漢院裏。一年一度三箇行者。歸宗寺裏。參退喫茶。

示眾云。是日已過。命亦隨滅。如少水魚。斯有何樂。唯二乘禪定寂滅為樂。是為真樂。學般若菩薩。法喜禪悅為樂。是為真樂。三世諸佛。慈悲喜捨。四無量心。為樂。是為真樂。石霜普會云。休去歇去。冷湫湫地去。是謂二乘寂滅之樂。雲門云。一切知通無障礙。拈起扇子云。釋迦老子來也。是謂法喜禪悅之樂。德山棒。臨濟喝。是三世諸佛。慈悲喜捨之樂。除此三種樂。不為樂也。且道。歸宗一眾。在三種內。三種外。良久云。今日莊主設鑽飯。俵襯錢。參退。僧堂內普請。喫茶去。喝一喝。

師問僧。了也未。云未了。師云。爾喫粥了也未。云了。師云。又道未了。

復云。門外甚麼聲。云雨聲。師云。又道未了。

復云。面前是甚麼。云屏風。師云。又道未了。

復云。還會麼。云不會。師云。聽取一頌。隨緣事事了。日用何欠少。一切但尋常。自然不顛倒。

僧問。學人一面琴。不是凡間木。今日捧上來。請師彈一曲。師云。大眾側耳。云得聞於未聞去也。師云。是何指法。僧提起坐具。師云。哀哉哀哉。爾命何太短。云且喜沒交涉。師云。不是知音。云不如歸去來兮。葱嶺有人憶。師云。何得忘却焦桐。云在這裏。師云。放下著。

師有法界三觀六頌。一曰。色空無礙。如意自在。萬象森羅。影現中外。出沒去來。他方此界。心印廓然。融通廣大。二曰。理事無礙。如意自在。倒把須彌。卓向纖芥清淨法身。圓滿土塊。一點鏡燈。十方海會。三曰。事事無礙。如意自在。不動道場。十方世界。東涌西沒。千差萬怪。火裏蜚螻。吞却螃蟹。四曰。事事無礙。如意自在。手把猪頭。口誦淨戒。趁出姪坊。未還酒債。十字街頭。解開布袋。五曰。事事無礙。如意自在。拈起一毛。重重法界。一念徧入。無邊剎海。只在目前。或顯或晦。六曰。事事不

知。空色誰會。理事既休。鐵缸下海。石火電光。咄哉不快。橫按  
鎧鎗。魔軍膽碎。

#### 潭州雲蓋守智禪師(凡四)

劍州龍津陳氏子。示眾云。緊峭離水靴。踏破湖湘月。手把鐵蒺  
藜。打破龍虎穴。翻身倒上樹。始見無生滅。却笑老瞿曇。彈指超  
彌勒。

示眾云。不離當處常湛然。覓即知君不可見。雖然先聖恁麼道。且  
作箇模子搭却。若也出不得。只抱得古人底。若也出得。方有少分  
相應。雲蓋即不然。騎駿馬繞須彌。過山尋蟻跡。能有幾人知。

示眾。舉趙州問僧。甚處去。云摘茶去。州云閑。

師云。道著不著。何處摸索。背後龍鱗。面前驢脚。翻身筋斗。孤  
雲野鶴。阿呵呵。

示眾云。唯一堅密身。一切塵中現。雲蓋今日。千山鬱茂。鳥獸嘶  
鳴。百花競發。萬卉抽枝。盡是諸佛。箇箇真如。汝等諸人。游山  
翫水。直須急着眼睛。莫被伊瞞。

#### 湖州報本元禪師(凡六)

湖州倪氏子。初謁黃龍。示以三關語。一日坐下板。輒引手返覆視  
之。云寧以道理而言。以佛手知吾家。揭陽而復問。生緣何處乎。  
久而頓釋其疑。

示眾云。擊大法鼓。演大法義。未擊鼓已前。文殊大士。向諸人眉  
毛眼睫上。出沒卷舒。作大佛事。及乎擊動法鼓。觀音菩薩。又向  
諸人耳上。轉大法輪。諸人還聞麼。直饒見得聞得。已是不著便。  
若也真箇不知。自是無枝葉。莫怨太陽春。

示眾云。白雲消散。紅日東昇。仰面看天。低頭覷地。東西南北。  
一任觀光。達磨眼睛。斗量不盡。演若何曾認影。善財不往南方。  
衲僧鼻孔遼天。到此一時穿却。

示眾云。般若無知。無所不知。作麼生說箇無知底道理。若謂杜絕  
視聽。何異斷見外道。其或忘知遺照。正是背境凡夫。諸人還知  
麼。釋迦老子。終日向燈籠露柱。隨有道有。隨無道無。雖不即於  
有無。亦不離於有無。如斯語話。鈍置祖師。明眼衲僧。輸他冷  
笑。且道。笑箇甚麼。喝一喝。

僧問。未離兜率。已降王宮。未出母胎。度人已畢。今日意作麼  
生。師云。守株待兔。枉費精神。云不因入水。爭見長人。師云。  
未問已前。猶較些子。

僧問。黑白未分時如何。師云。天高地厚。云分後如何。師云。日暖月涼。云便恁麼去時如何。師云。須彌山倒卓。

### 洪州寶峰洪英禪師(凡八)

邵武陳氏子。因讀李長者十明論。豁然開悟。夜經行。聞二僧。舉黃龍佛手驢脚因緣。師異之。就問。南公今何所寓。僧云。筠州黃蘗。師黎明徑造黃蘗。南一見與語。自以為不及也。

示眾云。若論此事。直是難以商量。何也。況古佛心印。狀似鐵牛之機。擬欲進前。喪身失命。更乃退後。瓦解永消。直饒不進不退。猶是紅錦襖子。臭肉汗衫。貼體粘身。難為透脫。諸禪德。到這裏。縱饒明去。不露鋒鋦朕兆。又是靈龜曳尾。鼠咬枯髓。若向飲光門下。天地懸殊。且道。飲光門下。一句作麼生道。良久云。海月夜來籠石室。山雲時復潤禪衣。

示眾云。石門巖嶮鐵關牢。舉目重重萬仞高。無角鐵牛衝得破。毗盧海內作波濤。大眾且道。不涉波濤一句。作麼生道。良久云。一句不遑無著問。迄今猶作野盤僧。

示眾云。先聖道。江月照。松風吹。永夜清霄何所為。佛性戒珠心地印。霧露雲霞體上衣。諸禪德。雖然如是道。可謂傷鹽傷醋。若是山僧。即不然。江月照。松風吹。永夜清霄何所為。牧童嶺上一聲笛。驚起群鷓遶樹飛。

示眾云。祖師道。一切眾生性清淨。從本無生無可滅。即此身心是幻生。幻化之中無罪福。大眾。先聖恁麼道。不妨奇特。柰緣衲僧門下。檢點將來。也是食飽傷心。坐久腰痛。

示眾云。阿呵呵是甚麼。昨夜蟾光獨自坐。屈指從頭數故人。翻憶當年破竈墮。破竈墮。是甚麼。眨上眉毛早蹉過。拍禪床一下。

上堂。有僧出。禮拜起。垂下袈裟角云。脫衣卸甲時如何。師云。喜得狼煙息。弓梢壁上懸。僧攬上袈裟云。重整衣甲時如何。師云。不到烏江畔。知君未肯休。僧便喝。師云。驚殺我。僧拍一拍。師云。也是死中得活。僧作禮。師云。將謂是収燕破趙之才。元來是販私鹽賊。

僧問。逢場作戲時如何。師云。紅爐拋出鐵烏龜。

### 南嶽福嚴慈感禪師(凡二)

梓州杜氏子。示眾云。擲鉢峰前。春風浩浩。湘江水裏。白浪滔滔。是法無私顯露。動著不然而然。解后指南不遇。只管鼻孔遼

天。南泉頭頭垂示。大顛寂爾無言。毗耶長啟一室。誰人敢共齊肩。咄。以拂子。擊繩床。  
示眾云。古佛心只如今。若不會苦沉吟。秋雨微微。秋風颯颯。乍此乍彼。若為酬答。沙岸蘆花。青黃交雜。禪者何依。良久云筍。

### 筠州黃檗勝禪師(凡二)

梓州中江羅氏子。示眾云。羅漢書字。仰山白槌。禾山打鼓。清平踏泥。四人一向婆母。不知漏洩真機。雖然漏洩真機。要且後人不知。選佛須是英靈漢。敵勝還他獅子兒。  
示眾云。寂兮寥兮。蟾蜍皎皎下空谷。寬兮廓兮。曦光赫赫流四海。曹谿路上。勦絕人行。多子塔前。駢闐如市。直饒這裏薦得。個儻分明。未是衲僧活計。大丈夫漢。須是向黑暗獄中。敲枷打鎖。餓鬼隊裏。放火奪漿。推倒慈氏樓。拆却空王殿。靈苗瑞草和根拔。滿地從教荊棘生。

### 洪州雲居元祐禪師(凡五)

信州上饒王氏子。示眾云。參學之士。須得悟由。發明心地。若悟法身主。盡大地草木。歸依佛法僧。若悟毗盧師。虛空世界。歸依佛法僧。且道。喚甚麼。作法身主。毗盧師。要得直下會麼。眼睛裏放光現瑞。耳竅裏轉大法輪。  
結夏示眾云。無相光中。有一無位真人。出沒三界。輪轉五道。不捨十惡業。不墮五陰身。不捨煩惱障。不證涅槃心。不增毀禁。不敬持戒。不經冬不過夏。諸人還知去處麼。良久云。九旬陽焰裏。五分法身圓。  
示眾云。過去諸如來。更不再勸。現在諸菩薩。放過即不可。未來參學人。謾他一點不得。所以教中道。若人欲了知三世一切佛。應觀法界性。一切惟心造。雖然如是。羅漢門下。正是金屑落眼。  
示眾。舉僧問趙州。如何是祖師西來意。州云。庭前栢樹子。云和尚莫將境示人。州云。我不將境示人。云如何是祖師西來意。州云。庭前栢樹子。  
師云。奇哉古聖。垂一言半句。可謂截斷聖凡門戶。直示彌勒眼睛。今昔無墜。眾中異解多途。商量非一。埋沒宗旨。錯判名言。謂青青翠竹。盡是真如。鬱鬱黃花。無非般若。或謂山河草木。物物皆是真心顯現。何獨庭前栢樹子乎。塵毛瓦礫。但是一法界中。重重無盡。理事圓融。或謂庭前栢樹子。纔舉直下薦取。敵體全真。擬議之間。早落魔境。須是當人作用。臨機相見。或棒或喝。

或擎起拳頭。衣袖一拂。這箇眼目。如石火電光相似。或謂庭前栢樹子。更有甚麼事。趙州直下為人。實頭說話。飢來喫飯。困來打睡。動轉施為。盡是自家受用。

如斯見解。似粟如麻。皆是天魔種族。外道邪宗。但取識情分別。用心取捨。強作知見。口耳相傳。誑惑於人。貴圖名利。是何業種。玷瀆祖風。何不游方徧歷。求善知識。決擇身心略似箇衲僧。古來自有的宗門師範。我佛心宗。梵釋諸天。拱手敬信。三賢十聖。罔測其由。乃舉拂子云。若向這裏悟去。山河大地。與汝同參。復顧視左右云。道林爭敢壓良為賤。

僧問。如龜藏六時如何。師云。文彩已彰。云爭奈處處無蹤跡。師云。一任拖泥帶水。云便恁麼去時如何。師云果然。

聯燈會要卷第十四

南嶽下第十三世  
洪州黃龍慧南禪師法嗣

蘄州開元琦禪師(凡三)

示眾云。虛空無內外。事理有短長。順則成菩提。逆則成煩惱。燈籠常瞌睡。露柱亦懊惱。大道在目前。更於何處討。以拂子。擊繩床。

示眾云。四面亦無門。十方無碧落。頭鬢鬆。耳卓朔。箇箇男兒大丈夫。何得無繩而自縛。且道。透脫一句。又作麼生。良久云。踏破草鞋赤脚走。

僧問。須彌納芥子。即不問。微塵裏轉大法輪。時如何。師云。一步進一步。云。恁麼則朝到西天。暮歸唐土。師云。作客不如歸家。云。久響道風。請師相見。師云。雲月是同。谿山各異。

吉州隆慶閑禪師(凡四)

福州古田卓氏子。侍立黃龍。龍問。向後得坐披衣。如何為人。師云。遇方則方。遇圓則圓。龍云。恁麼說話。尚挂人脣齒在。師云。某甲只恁麼。和尚作麼生。龍云。近前來。向爾道。師撫掌云。三十年用底。今日捉敗。南呵呵大笑云。一等是精靈。師拂袖而出。

龍問。人人盡有生緣。上座生緣甚處。師云。早晨喫白粥。而今肚裏飢。龍云。我手何似佛手。師云。月下撥琵琶。龍云。我脚何似驢脚。師云。鷺鷥立雪非同色。

龍問。[怡-台+龍][怡-台+龍]鬆鬆。兩人共一椀。汝作麼生會。師云。百雜碎。龍云。盡大地是箇須彌山。撮來安掌中。又作麼生。師云。兩重公案。龍云。這裏且待爾胡言漢語。若到同安。作麼生過得。師云。同安也須到這田地始得。龍云。忽然指面前火爐云。這箇是黑漆火爐。那箇是香卓。甚麼處是不到處。師云。某甲面前。且容和尚與麼說話。若是別人。笑和尚去在。龍乃拍一拍。師便喝。

示眾云。拋輕負重。脫珍御服。著弊垢衣。笑破衲僧口。雖然如是。靈龜未兆之際。萌芽未發已前。若有人道得。可謂無師智。自

然智。若道不得。便乃舉古舉今。盡是滅胡種族。且向上一路。千聖不傳。學者勞形。如猿捉影。諸仁者。但自回光。無第二著。舉措施為。不虧實相。噫與麼說話。若遇明眼高流。跳下繩床。拽翻地下。爛搥一頓。喝罵云。為甚麼。向人天眾前。謗佛謗祖。也許伊具半隻眼。如今恁麼。遞相鈍置。有甚麼了期。喝一喝云。且莫錯笑人好。

### 金陵保寧璣禪師(凡六)

福州福清林氏子。示眾云。道源不遠。性海非遙。但向己求。莫從他覓。古人與麼說話。大似認奴作郎。指鹿為馬。若是翠巖。即不然。也不向己求。亦不從他覓。何故雙眉本來自橫。鼻孔本來自直。直饒說得天花亂墜。頑石點頭。筭來多虛不如少實。且道。如何是少實底事。良久云。冬瓜長儻侗。瓠子曲彎彎。

示眾云。若論此事。直饒擗倒須彌。踏翻大海。猶是有作思惟。從有心起。所以道。心生種種法生。心滅種種法滅。若約衲僧本分底事。天地懸殊。

示眾云。廣尋文義。鏡裏求形。息念觀空。水中捉月。單傳心印。特地多端。德山臨濟。枉用工夫。石鞏子湖。翻成特地。若是翠巖。總不恁麼。但自隨緣飲啄。一切尋常。深遁白雲。甘為無學之者。敢問諸人。翠巖畢竟將何報答四恩三有。良久云。愁人莫向愁人說。說向愁人愁殺人。

示眾云。言前薦得。有辱宗風。句下明機。辜負自己。一言相契。早是多端。特地商量。生死根本。說迷說悟。猶是好肉剜瘡。一切平常。盡落天魔外道。總不恁麼。又且如何。豎起拂子云。若也識得。翠巖功不浪施。若也未然。誰知遠煙浪。別有好思量。以拂子擊繩床。

示眾云。巢知風。冗知雨。甜瓜徹蒂甜。苦瓠連根苦。豎起拂子云。惟有這箇。無滋無味。亘今亘古。有時退水藏鱗。有時興雲致雨。諸人到此。也須緇素分明。不得莽莽鹵鹵。如今若要知端的。只在目前須薦取。

示眾云。德山棒。臨濟喝。殘羹餽飯。休拈掇。直饒窮盡玄微。筭來未是家活。豎起拂子云。爭似翠巖這箇能生能殺。放行也。天高地闊。把住也。不露毫末。把住放行即且致。即今事作麼生。良久云。茫茫宇宙人無數。幾箇男兒是丈夫。

### 袁州楊岐方會禪師法嗣

## 舒州白雲守端禪師(凡十五)

衡陽周氏子。首謁楊岐。岐問。上座鄉里甚處。師云。衡州。岐云。落髮師為誰。師云。茶陵郁和尚。岐云。吾聞其過橋遭擲。有省。作偈甚佳。能記之否。師云。記得。岐云。試舉看。師舉云。我有神珠一顆。久被塵勞關鎖。今朝塵盡光生。照破山河萬朵。岐大笑而去。師愕然。通夕不寐。翌日入室。咨決其事。時方歲旦。岐云。汝見昨日。作夜胡者乎。師云見。岐云。汝一籌不及他。師云。何謂也。岐云。渠却愛人笑。汝却怕人笑。師於言下大悟。

示眾云。善言言者。言所不能言。善跡跡者。跡所不能跡。每日開口動舌。無非是言。作麼生說箇言所不能言。喚作言即便是跡。作麼生說箇跡所不能跡。到這裏。一大藏教。一字用不著。到這裏。一大藏教。字字用得著。為甚麼先用不著。又却用得著。且道。誦訛在甚麼處。不見道。千峰勢到嶽邊止。萬派聲歸海上消。自古自今。向其間。鑽仰者。如稻麻竹葦。端的透徹者。百千中。無一二。若果然透得。十二時中。不妨慶快。應機接物。利樂有情。盡乾坤星辰日月。盡大地草木叢林。都作一箇。出入游戲之場。古者道。玉轉珠回祖佛言。精通猶是污心田。老盧只解長舂米。何得黃梅萬古傳。山僧在庵中。亦有示眾云。直下雖然沒許般。透如未盡活還難。海門昨夜狂風起。無限波濤一掃乾。恁麼地。先與人開却路。然後兩手掇向人前。靈利底。不用絲毫氣力。便提得去。還有麼。若提不去。敢問諸人。十二時中。應用施為。分別賢愚。是是非非。是箇甚麼。

示眾云。古者道。上士聞道。勤而行之。中士聞道。如存若亡。下士聞道。大笑之。大眾。若約衲僧門下。却許他大笑者。有些些骨氣。何謂如此。眾眼難瞞。

示眾云。佛身充滿於法界。普現一切羣生前。隨緣赴感靡不周。而常處此菩提座。作麼生。說箇隨緣赴感底道理。於一彈指頃。盡大地含生根機。一時周足。未嘗動著一毫頭。喚作隨緣赴感。而常處此座。只如山僧。此者受法華請。將次與大眾相別。宿松縣裏開堂。且道。還離此座也無。若離則世諦流布。若不離。作麼生見得箇不離底道理。莫是無邊剎境。自他不隔於毫端。十世古今。始終不離於當念麼。莫是一切無心。一時自徧麼。若恁麼。正是掉棒打月。到這裏。直須悟始得。悟後更須遇人始得。爾道。既悟了便休。何必更須遇人。悟了遇人底。當垂手方便之時。著著有出身之路。不瞎却學人眼。若只悟得乾蘿蔔頭。不唯瞎却學者眼。兼自己。動便犯鋒傷手。爾看。我楊岐先師。問慈明師翁。幽鳥語喃

喃。辭雲入亂峰。時如何。答云。我行荒草裏。爾又入深村。進云。官不容針。更借一問。師翁便喝。進云。好喝。師翁又喝。先師亦喝。師翁連喝兩喝。先師作禮歸眾。大眾須知。悟了遇人底。向十字街頭。與人相逢。却在千峰頂上握手。千峰頂上相逢。却在十字街頭握手。

山僧曾有頌云。他人住處我不住。他人行處我不行。不是與人難共住。大都緇素要分明。山僧此者臨行。解開布袋頭。撒在諸人面前了也。有眼底。莫錯怪好。

示眾云。昔日靈山會上。世尊拈花。迦葉微笑。世尊道。吾有正法眼藏。分付摩訶大迦葉。流傳無令斷絕。至于今日。若是正法眼藏。釋迦老子。自無分。將甚麼分付。將甚麼流傳。諸人分上。各各自有正法眼藏。每日起來。是是非非。分南道北。種種施為。正是正法眼藏之光影。此眼開時。乾坤大地。日月星辰。森羅萬象。只在目前。不見有毫釐之相。此眼未開時。盡在諸人眼睛裏。已開者。不在此限。未開者。山僧為諸人。開此正法眼藏看。豎起兩指云。看看。若也見得。事同一家。其或未然。不免重說偈言。諸人法眼藏。千聖莫能當。為君通一線。光輝滿大唐。須彌走入海。六月降嚴霜。法華雖恁麼。無句得商量。

既滿口說了。為甚麼。却道無句得商量。喝一喝云。分身兩處看。示眾云。如我按指。海印發光。拈起拄杖云。山河大地。水鳥樹林。情與無情。盡向拄杖頭上。作大師子吼。演說摩訶大般若。且道。天台南嶽。說箇甚麼法門。南嶽說。洞上五位修行。君臣父子。各得其宜。莫守寒巖異草青。坐著白雲宗不妙。天台說。臨濟三玄三要。四料簡。一喝分賓主。照用一時行。要會箇中意。日午打三更。廬山出來道。爾兩箇漢。正在葛藤窠裏。不見道。欲得不招無間業。莫謗如來正法輪。此三箇見解。若上衲僧秤子秤。一箇重八兩。一箇重半斤。一箇不直半分錢。但願春風齊著力。一時吹入我門來。

示眾云。釋迦老子。有四弘誓願。煩惱無邊誓願斷。法門無邊誓願學。眾生無邊誓願度。無上菩提誓願成。法華亦有四弘誓願。飢來要喫飯。寒來要添衣。困來伸脚睡。熱處要風吹。

示眾云。日消萬兩黃金。法華門下不著。直饒不直半分文。正入得法華門。未陞得法華堂。未入得法華室。且道。甚麼人陞得法華堂。入得法華室。響。眼有三角。頭峭五嶽。

示眾。舉玄沙因誤服藥。徧身紅爛。僧問。如何是堅固法身。沙云。膿滴滴地。

後來懷和尚頌云。滴滴通身是爛膿。釣魚船上顯家風。時人只看絲綸上。不見蘆花對蓼紅。

亦有人。問法華。如何是清淨法身。只答他道。屎臭薰天。又云。蓮花葉上化生兒。且道。與古人。是同是別。法華亦有一頌云。屎臭薰天亦偶然。法華爭敢為君宣。鼻中若有通天竅。一任橫行不著穿。

示眾云。有時確背生花。有時佛面百醜。李公醉倒街頭。自是張公喫酒。燈籠皺斷眉頭。露柱呵呵拍手。

示眾云。未透者。須教伊識。已透者。須共伊行。盡大地是沙門一隻眼。教阿誰識。實際理地。不受一塵。向甚麼處行。所以道。他人住處我不住。他人行處我不行。不是與人難共住。大都緇素要分明。少處減些子。多處添些子。為甚麼。少處更減。多處更添。神仙秘訣。父子不傳。

示眾云。若端的得一回汗出來。便向一莖草上。現瓊樓玉殿。若未端的得一回汗出來。縱有瓊樓玉殿。却被一莖草蓋却。作麼生得汗出去。自有一雙窮相手。不曾容易舞三臺。

示眾云。古人留下一言半句。未透者。撞著鐵壁相似。忽然一日覩透。方知自己是鐵壁。如今作麼生透。良久云。鐵壁鐵壁。

示眾云。明明知道。只是這箇。為甚麼。透不過。只謂見人開口時。便喚作言句。見人閉口時。便喚作良久默然。又道。動轉施為。開言吐氣。盡十方世界內。無不是自己。所以墮在途中。隱隱猶懷舊日嫌不見雲門道。聞聲悟道。見色明心。舉手云。觀世音菩薩。將錢買胡餅。放下手。元來却是饅頭。不見。山僧住法華時。道。無業禪師云。一毫頭。凡聖情念未盡。未免入驢胎馬腹裏去。直饒一毫頭。凡聖情念頓盡。亦未免入驢胎馬腹裏去。瞎漢。但恁麼參。

僧問。智不到處。切忌道著。道著時如何。師云。風吹日炙。云恁麼則無處容身去也。師云。確搗磨磨。云官不容針。私通車馬。師云。可貴可賤。僧彈指一下。師云。恰是。僧吐舌。師云。家貧猶自可。路貧愁殺人。僧呵呵大笑。師云。放過一著。

僧問。龍門未透時如何。師云。不是這箇調。云透後如何。師云。不是這箇調。僧擬議。師云。買賣不當價。

### 建康府保寧仁勇禪師(凡十四)

明州竺氏子。少習天台教。後更衣。謁雪竇顯禪師。顯熟視之。呵曰。殃祥座主。師氣不平。發憤下山。望雪竇山。大展坐具。禮三拜。誓曰。我此生行脚參禪。名不過如雪竇。誓不歸鄉。即謁楊岐。發明心地。岐歿。從同參守端禪師游。研極玄奧。後出世。兩住保寧。而終老焉。

示眾云。佛祖正令。凡聖俱忘。機智難明。心境雙絕。所以佛祖到這裏。盡皆亡鋒結舌。設有一言半句。皆是為蛇畫足。落草之談分外之說。實際理中。本無如是事。何謂如此。要諸人回頭瞥地去。不逐言語去。返本還源去。不涉岐路去。踏破化城去。截斷兩頭去。歸家穩坐去。諸人何不向佛未出世時。薦取。祖師未來時薦取。父母未生時薦取。祇如父母未生時。且道。自家本命元辰。作甚麼面目。還委悉麼。良久云。團圓古鏡無纖翳。試請回頭一照看。

示眾云。夜夜抱佛眠。朝朝還共起。起坐鎮相隨。語默同居止。分毫不相離。如身影相似。欲識佛去處。只這語聲是。

師云。大眾傳大士。此之一頌。古今不墜。一切人。向此瞥地者亦多。錯會者不少。玄沙云。大小傳大士。只認得箇昭昭靈靈。洞山聰和尚云。且道。衲僧家。日裏還曾睡也無。此二尊宿。兩轉語。誰言世上無仙客。須信壺中別有天。

保寧亦有一頌。要眠時即眠。要起時即起。水洗面皮光。啜茶濕却觜。大海紅塵生。平地波瀾起。呵呵阿呵呵。囉哩哩囉哩。

示眾云。古人底今人用。今人底古人為。古今無背面。今古幾人知。唧鳴伊。一九與二九。相逢不出手。

示眾。舉占德云。文殊門入者。墻壁瓦礫。為汝發機。觀音門入者。蝦蟆蚯蚓。為汝發機。普賢門入者。不動步徧十方。

大眾。東西南北。四圍上下。築著磕著。不覺不知。過在甚麼處。良久云。紅粉易粧端正女。無錢難作好兒郎。

示眾云。風鳴條。雨破塊。曉來枕上鶯聲碎。蝦蟆蚯蚓一時鳴。妙德空生都不會。都不會。三箇成群。四箇作隊。窈窕窈窕。飄飄飄飄。向南北東西。折得梨花李花。一佩兩佩。

示眾云。釋迦老子四十九年說法。不曾道著一字。優婆塞多。丈室盈籌。不曾度得一人。達磨不居少室。六祖不住曹谿。誰為後昆。誰為先覺。既然如是。彼自無瘡。勿傷之也。拍膝顧眾云。且喜天下太平。

示眾云。大方無外。大圓無內。無內無外。聖凡普會。瓦礫生光。須彌粉碎。無量法門。百千三昧。拈起拄杖云。總在這裏。會麼。蘇嚕蘇嚕。悉哩悉哩。娑訶。

示眾云。真相無形。示形顯相。千怪萬狀。自此而彰。喜則滿面光生。怒則雙眉陡豎。非凡非聖。或是或非。人不可量。天莫能測。直下搆得。未稱丈夫。喚不回頭。且莫錯怪。

示眾云。許由洗耳。徒賣弄於清高。巢父飲牛。謾誇張於意氣。太公垂釣。終是用心。范蠡泛湖。焉能絕跡。直得君臣道合。海晏河清。風不鳴條。雨不破塊。爭似三月野花隨處發。九秋黃葉滿空

飛。狂歌向碧洞之前。大醉於玉壺之裏。拍手大笑云。還知麼。昨日是季秋霜冷。今朝是孟冬漸寒。

示眾云。釋迦掩室於摩竭。已泄天機。淨名杜口於毗耶。特地饒舌。少林九年面壁。老不歇心。永嘉一宿曹溪。徒誇英俊。乃召大眾云。只如保寧恁麼道。還有過也無。復云。路逢劒客須呈劒。不是詩人不獻詩。

師陞座。有僧作禮起。以手。向懷中。作取物呈似勢。師左顧。僧起立。作獻勢。師右顧。僧伸手。作接物復安懷內勢。師以手直下指。僧擬議。師云。只有這箇。更無那箇。僧以手劃一劃。師云。果然僧歸眾。師呵呵大笑。

復一僧出。作禮起。畫一圓相。師以左手。拋向後。僧又畫一圓相。師以右手。拋向後。僧歸眾。師云。更有甚麼。僧無語。師拍膝云。龍頭蛇尾。僧云。賊過後張弓。師乃噓噓。

僧問。如何是保寧境。師云。主山頭倒卓。云如何是境中人。師云。鼻孔無半邊。

云如何是佛法大意。師云。鑊湯無冷處。

## 洪州翠巖可真禪師法嗣

### 潭州大漚慕喆禪師(凡九)

撫州臨川聞氏子。

示眾云。月生一。大地茫茫誰受屈。月生二。東西南北沒巴鼻。月生三。善財特地向南參。所以道。放行也但薩舒光。把住也泥沙匿曜。且道。放行是。把住是。良久云。圓伊三點水。萬物自尖新。示眾云。阿刺刺。是甚麼。翻思當年破竈墮。杖子忽擊著。方知辜負我。以拄杖。擊香臺一下云。墮墮。

示眾云。古佛道。昔於波羅奈。轉四諦法輪。墮坑落塹。今復轉最妙無上大法輪。土上更加泥。如今還有不歷階梯。獨超方外者麼。良久云。出頭天外看。誰是箇中人。

示眾云。捫空追響。勞汝精神。夢覺覺非。復有何事。德山老人。在汝諸人。眉毛眼睫上。諸人還覺麼。若也覺去。夢覺覺非。若也未覺。捫空追響。終無了期。直饒向這裏。個儻分明。猶是梯山入貢。還有獨超方外者麼。良久云。且莫詐明頭。

示眾云。白雲澹泞。水注滄溟萬法本閑。復有何事。所以道。也有權。也有實。也有照。也有用。諸人到這裏。如何履踐。良久云。但有路可上。更高人也行。

示眾云。日出卯。用處不須生善巧。拈起拄杖云。拄杖子[跳-兆+孛]跳。上三十三天。驚起帝釋。為念摩訶般若。一切智智清淨。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且道。作麼生是正義。良久云。智不到處。切忌道著。卓拄杖。下座。

示眾。拈起拄杖云。一塵纔起。大地全收。卓一下云。妙喜世界百雜碎。且道。無動如來。即今在甚麼處。若人識得。可謂不動步。而登妙覺。若也未識。向諸人眉毛眼睫裏。涅槃去也。又卓一下。

示眾。拈起拄杖云。智海拄杖。或作金剛王寶劍。或作踞地師子。或作探竿影草。或不作拄杖用。諸人還相委悉麼。若也委悉去。如龍得水。似虎靠山。出沒卷舒。縱橫應用。如未相委。大似日中逃影。

僧問。趙州庭栢。意旨如何。師云。夜來風色緊。孤客已先寒。云先師無此語。又作麼生。師云。行人始知苦。云十載走紅塵。今朝獨露身。師云。雪上加霜。

問。如何是城裏佛。師云。萬人叢裏不插標。云如何是村裏佛。師云。泥豬疥狗。云如何是山裏佛。師云。絕人往還。云如何是教外別傳底一句。師云。翻譯不出。

問。大通知勝佛。十劫坐道場。為甚麼。不得成佛道。師云苦殺人。

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云。寒毛卓豎。云見後如何。師云。額頭汗出。

## 潭州雲峰文悅禪師法嗣

### 桂州崇壽齊曉禪師(凡三)

示眾云。觸目不會道。猶較些子。運足焉知路。錯下名言。諸仁者。山僧今日將錯就錯。汝等諸人。見有眼。聞有耳。嗅有鼻。味有舌。因甚麼却不會。良久云。武帝求仙不得仙。王喬端坐却昇天。咄。

僧問。大眾雲臻。合談何事。師云。波斯入鬧市。云恁麼則草偃風行去也。師云。萬里望鄉關。

問。如何是佛。師云。著衣喫飯。云退身三步。叉手當霄去也。師云。醉後添杯。

## 南嶽下第十四世

### 洪州黃龍祖心禪師法嗣

## 洪州黃龍悟新禪師(凡十一)

韶州曲江王氏子。初謁心禪師。談辯無所抵牾。心云。若之伎。止是耶。是如說食。詎能飽人。師窘。無以進。從容云。某甲已弓折箭盡。願和尚慈悲。指箇安樂處。心云。一塵飛而翳天。一芥墮而覆地。安樂處。正忌上座許多骨董。直須死却無量劫來全心始得。師趨出。

一日默坐下板。會知事捶行者。聞杖聲。忽然大悟。奮起。忘納其屨。趨方丈見心。乃自諭云。天下人。總是學得底。悟新是悟得底。心云。選佛甲科。何可得也。

示眾云。過去諸佛。興慈運悲。也是頭上安頭。現在諸佛。列行布伍。恰似斬頭覓活。未來諸佛。分權顯實。也好與三十棒。且道。過在甚麼處。良久云。欲得不招無間業。莫謗如來正法輪。

示眾云。鑽金石者難為功。摧枯朽者易為力。其力易者報不堅。其功難者果必定。不堅必定。還是生滅。且道。不落生滅一句。作麼生道。自小持齋今已老。見人無力下繩床。

示眾云。清珠下於濁水。濁水不得不清。念佛投於亂心。亂心不得不佛。佛既不亂。濁水自清。濁水既清。功歸何所。良久云。幾度黑風翻大海。未曾聞道釣舟傾。

示眾云。心外無法。而法可明。法外無心。而心可通。可通可明。心法全宗。全其宗。則法法皆宗。全其心。則心心無心。心既無心。直造其源。則現大身。而滿虛空中。現小身。而纖塵不立。作麼生是纖塵不立。良久云。一點水墨。兩處成龍。

示眾云。達磨心宗。傳至今日。涓滴不漏。絲髮不移。既絲髮不移。作麼生傳。寶印當風妙。重重錦縫開。

示眾云。凡夫非是聖人。聖人非是凡夫。凡夫即是聖人。聖人即是凡夫。直得聖凡情盡。須知有轉身一路。若能轉得。入水不溺。入火不燒。若轉不得。有寒暑兮促君壽。有鬼神兮妬君福。

病起示眾。舉拂子云。看看。拂子病。死心病。拂子安。死心安。拂子穿過死心。死心穿過拂子。當恁麼時。喚作拂子。又是死心。喚作死心。又是拂子。畢竟喚作甚麼。良久云。莫把是非來辨我。浮生穿鑿不相干。

示眾云。說不得處。作麼生舉。舉不得處。作麼生會。會不得處。作麼生明。若也明得。三關一鏃。一鏃三關。若也未明。且作麼生定奪。良久云。夏月赤肱[骨\*栗]。冬月蓋被眠。

僧問。虛玄大道。無著真宗。不涉言詮。請師速道。師云。草深多野鹿。云學人不會。師云。巖高獬豸稀。僧作禮。師云。不得動著。動著打折爾腰。

僧問。如何是四大毒虵。師云。地水火風。云如何是地火水風。師云。四大毒虵。云學人未曉。乞師方便。師云。一大既爾四大同。正言王公問。嘗聞三緣和合而生。又聞。即死即生。何故有奪胎而生者。某甲甚疑之。師云。如正言作漕使。隨所住處。即居其位。還疑否。王云不疑。師云。復何疑也。正言於言下領解。

### 洪州黃龍惟清禪師(凡四)

本郡武寧陳氏子。印心於晦堂。

每謂人曰。今之學者。未脫死生。病在甚處。病在偷心未死耳。然非其罪。為師者之罪也。如漢高帝。給韓信而殺之。信雖云死。其心果死乎。古之學者。言下脫生死。效在甚麼處。在偷心已死。然非學者自能爾。實為師者。鉗錘妙密也。如梁武帝。御大殿。見侯景。不動聲氣。而景之心。已枯竭無餘矣。諸方所說。非不美麗。要之。如趙昌畫花。花雖逼真而非真花也。

示眾云。三世諸佛不知有。恩無重報。狸奴白牯却知有。功不浪施。明大用曉全機。蹤跡處不思議。歸去好無人知。衝開碧落松千尺。截斷紅塵水一溪。

示眾云。一葉落天下秋。全機能放。亦能收金波影落千江裏。玉露垂珠百草頭。無朕兆。有來由。法身真箇鬧啾啾。既是法身。且道。鬧箇甚麼。良久云。從來不墮玄中旨。今日那言轉處幽。

示眾云。鼓聲纔動。大眾雲臻。無限天機。一時漏泄。不辜正眼便合歸堂。更待繁詞。沉埋宗旨。縱謂釋迦不出世。四十九年說達磨不西來。少林有妙訣。修山主也似萬里望鄉關。又道。若人識祖佛。當處便超越。直饒恁麼悟入親切去。更有轉身一路。勘過了打。以拂子擊繩床。

### 洪州寶峰善清禪師(凡八)

南雄保昌何氏子。初謁大滄喆禪師。無所省動。

後謁黃龍心。心示以風幡話。久而不契。一日心問師。風幡話子。作麼生會。師云。迥無人處。乞師方便。心云。子見貓兒捕鼠乎。目睛不瞬。四足踞地。諸根順向。首尾一直。擬無不中。子誠能如是。心無異緣。六根自靜。默然而究。萬無失一也。

師從是屏去閑緣。歲餘豁然契悟。以偈告心云。隨隨隨昔昔昔。隨隨隨後無人識。夜來明月上高峰。元來只是這箇賊。心領之。

復告之曰。得道非難。弘道為難。弘道猶在己。說法為人難。既明之後。在力行之。大凡宗師說法。一句中具三玄。一玄中具三要。

子入處真實。得坐披衣。向後自看。自然七通八達去。

師復依止七年。即辭徧訪叢林。

後出世黃龍。終于泐潭也。

示眾云。諸佛出世。善巧多門。祖師西來。不立文字。得無所得。傳無所傳。唯是一心。更無別法。設有三乘十二分教。盡是應病施方。病有千差。藥興萬種。雖然種種方便。種種言詞。種種譬喻。曲為中下之機。黃葉止啼。都無實義。若是上根上智。一聞千悟。得大總持。不假言詮。豈容知解。端然成道。若能如是信解。如是修證如是悟入。可謂大丈夫。成就大丈夫事。既能成就大丈夫事。便能明了目前生死。是有是無。是真是妄。既能了知生死真妄。返觀世出世間。所有之法。皆如夢幻。不見古人道幻人說法幻人聽。由來兩箇總無情。說時無說從君說。聽處無聽一任聽。聽既無聽。說又無說。無說無聽。是名一理二義。於此明得。行住坐臥。無非大事現前。俯仰折旋。更無少剩。於此未明。但得五湖風浪靜。任他霄外太陽暉。

示眾云。色心不二。彼我無差。豎起拂子云。若喚作拂子。入地獄如箭。不喚作拂子。有眼如盲。直饒透脫兩頭。也是黑牛臥死水。

示眾云。心無自性全物而彰。物無自體。全心而現。舉起拂子云。拂子全體現去。變作天大將軍。巡歷四天下。有道學。無道學。有守節。無守節。一時奏與天帝釋。如今回在黃龍手裏。諸人不得喚作是。不得喚作非。且道。喚作甚麼。三頭六臂擎天地。忿怒那吒撲帝鍾。

示眾云。釋迦已滅。彌勒未生。正當今日。佛法委付阿誰。舉起拂子云。看看。於人善者。拂子善應。於人惡者。拂子惡應。善惡俱忘。拂子作麼生應。千年歷日雖無用。犯著須教總滅門。

示眾云。湛水無波。漚從風激。風停漚滅。水靜涵虛。正當恁麼時。設有燕金塞海。蝦蚋搖山。赭尾金鱗。優游自適。如今莫有辨浮沉。識深淺。垂綸擲釣者麼。有即出來相見。如無。且歸巖下去。同看月圓時。

僧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云。京三卞四。云見後如何。師云。灰頭土面。云畢竟如何。師云。一場摩羅。

僧問。如何是活句。師云死中得。云如何是死句。師云活中得。云如何是不死不活句。師云。京三卞四。

### 鄂州黃龍智明禪師(凡五)

示眾云。南北一訣。斬釘截鐵。切忌思量。翻成途轍。

師一日上堂。眾纔集。師云。不可更開眼說夢去也。

示眾云。向上一路。衲僧罔措。求妙求玄。邯鄲學步。  
僧問。世尊出世。魔界傾頽。和尚開堂。有何祥瑞。師云。一夜落花雨。滿城流水香。  
師同胡巡檢。到公安二聖。胡問。達磨對梁武帝云。廓然無聖。公安為甚麼。却有二聖。師云。一點水墨。兩處成龍。

## 洪州寶峰克文禪師法嗣

### 洪州寶峯文準禪師(凡五)

蜀人也。初謁真淨文禪師。文問。近離甚處。師云。大仰。文云。夏在甚處。師云。大滄。文云。甚處人事。師云。興元府。文展手云。我手何似佛手。師罔措。文云。適來祇對。一一靈明。一天天真。及乎道箇我手何似佛手。便成窒礙。且道病在甚處。師云。某甲不會。文云。一切見成。更教誰會。師當下釋然。  
示眾云。大道縱橫。觸事現成。雲開日出。水淥山青。拈拄杖。卓一下云。雲門大師來也。說道。觀音菩薩。將錢買胡餅。放下手。元來却是饅頭。大眾。雲門只見錐頭利。不見鑿頭方。寶峰即不然。擲下拄杖云。勿於中路事空王。策杖還須達本鄉。昨日有人。從淮南來。不得福建信。却道。嘉州大像。吞却陝府鐵牛。喝一喝云。是甚說話。笑倒雲居土地。  
示眾云。祖師關棧子。幽隱少人知。不是悟心者。如何舉似伊。喝一喝云。是何言歟。若一向恁麼。達磨一宗。掃土而盡。所以大覺世尊。初悟此事。便開方便門。示真實相。普令南北東西。四維上下。郭大李二。鄧四張三。同明斯事。雲巖今日。不免倣古去也。擊拂子云。方便門開也。作麼生是真實相。良久云。十八十九。癡人夜走。  
示眾云。同異成壞總別。三四五六七八。欲要隨流入流。無過先會此法。拈拄杖。卓一下云。此法非思量分別之所能解。若也分別。落在眾生境界。且道。不分別不思量。是箇甚麼。擲下拄杖云。妙湛總持不動尊。首楞嚴王世希有。  
示眾云。筍。久雨不晴。直得五老峰頭。黑雲鬢鬢。洞庭湖裏。白浪滔滔。雲門大師。忍俊不禁。向佛殿裏燒香。三門頭合掌。禱祝呪願。願黃梅石女生兒。子母團圓。少室無角鐵牛。當甘水草。喝一喝云。有甚交涉。

### 東京法雲佛照杲禪師(凡四)

徧歷諸方。後謁真淨。因讀祖師偈云。心同虛空界。示等虛空法。證得虛空時。無是無非法。於是豁然大悟。有百法座主云。禪家流。多愛脫空。師造前問。承聞座主講得百法論。是否。主云不敢。師云。昨日雨今日晴。是甚麼法中收。主無對。師便打云。莫道禪家流。多愛脫空好。主恚曰。和尚且道。昨日雨今日晴。是甚麼法中收。師云。四十二。時分不相應法中收。主屈服。作禮而謝。僧問。有問雲門。如何是透法身句。門云。北斗裏藏身。意旨如何。師云。赤心片片。云若是學人。即不然。師云。汝又作麼生。云昨夜擡頭看北斗。依稀却似點糖糕。師云。但念水草。餘無所知。僧問。達磨西來。傳箇甚麼。師云。周秦漢魏。

### 洪州兜率從悅禪師(凡七)

虔州熊氏子。師在道吾。作首座。領數衲。謁雲蓋知和尚。智與語。未數句。盡知所蘊。乃笑曰。觀首座。氣質不凡。柰何出言吐氣。如醉人耶。師面熱汗下云。願和尚不吝慈悲。復與語錐筍之。茫然。遂求入室。智云。曾見法昌遇和尚否。師云。曾看他錄。自了可已。不願見之。智云。曾見洞山文和尚否。師云。關西子。沒頭腦。拖一條布裙。作尿臭氣。有甚長處。智云。爾但向尿臭氣處參取。師依教。即謁洞山。深領奧旨。復謁智。智云。見關西子後。大事如何。師云。若不得和尚指示。泊乎蹉過一生。遂禮謝。師復謁真淨。後出世鹿苑。有清素者。久參慈明。寓居一室。未始與人交。師因食蜜漬荔枝。偶素過門。師呼云此老人鄉果也。可同食之。素云。自先師亡後。不得此食久矣。師云。先師為誰。素云。慈明也。某忝執侍十三年耳。師乃疑駭曰。十三年。堪忍執侍之役。非得其道而何。遂饋以餘果。稍稍親之。素問師。所見者何人。云洞山文。素云。文見何人。師云。黃龍南。素云。南匾頭見先師不久。後來法道大振如此。師益疑駭。遂袖香詣素。作禮。素起避之曰。吾以福薄。先師受記。不許為人。師益恭。素乃云。憐子之誠。違先師之記。子平生所得。試語我。師具通所見。素云可矣。能入佛。而不能入魔也。師云。何謂也。素云。豈不見。古人云。末後一句。始到牢關。如是累月。素

乃印可。仍戒之曰。文示子者。皆正知見。然子離文太早。不能盡其妙。吾今為子點破。使子受用。得大自在。他日切勿嗣吾也。師後嗣真淨。示眾云。溪上桃花爛熳春。倚筇閑看笑靈雲。抽枝抽葉尋常事。有悟無疑亦強分。諸禪客。既疑悟之強分。何玄旨而可定哉。但得凡情淨盡。自然聖解都忘。如此則何是非而有之。何得失而論之。何動靜而取之。何彼此而分之。到這裏。直得妙體虛明。縱橫妙用。都無揀擇。好醜雙行。還有承當得底麼。若承當得。兜率與爾拄杖子。向天下橫行。若也未然。不免自受用去也。良久云。撥落葉看蒼蘚色。卓穿冰放野泉聲。卓拄杖下座。示眾云。無法亦無心。無取復何捨。要真盡屬真。在假全歸假。平地上行舡。虛空裏走馬。九年面壁人。有口還如啞。參。示眾云。諸禪客。維摩既為眾生病。引得文殊領眾來。各入玄門談不二。只消一默盡空回。到這裏。直饒七佛之師。智慧縱橫。辯才無礙。也須稽首贊嘆。始得。既然如是。且道。毗耶老漢。當此之時。向甚麼處去也。良久云。千尋碧海風澄後。萬里青天月滿時。示眾云。兜率雖無定度。不踏聖賢舊路。有時捩轉雙睛。幾箇眉毛卓豎。喝一喝。師設三問。以待學者。其一云。撥草瞻風。只圖見性。即今上人性。在甚麼處。二云。識得自性。方脫生死。眼光落地時。作麼生脫。三云。脫得生死。便知去處。四大分時。向什麼處去。

### 衢州超化靜禪師(凡一)

示眾云。聲前認得。已涉廉纖。句下承當。猶為鈍漢。電光石火。尚在遲疑。一點不來。橫屍萬里。良久云。有甚用處。喝一喝。

### 南嶽上封慧和禪師(凡一)

示眾云。未陞猊座已前。盡大地人。成佛已畢。更有何法可說。更有何生可利。況菩提煩惱。本自寂然。生死涅槃。猶如春夢。門庭施設。誑謔小兒。方便門開。羅紋結角。於衲僧面前。皆為幻惑。且道。衲僧有甚長處。拈起拄杖云。孤根自有擎天勢。不比尋常曲[(彖-(彖-豕)+(ㄣ@一))\*頁]枝。聯燈會要卷第十五

南嶽下第十四世

南康軍雲居元祐禪師法嗣

洪州羅漢系南禪師(凡五)

汀州張氏子。示眾云。紅霞穿碧落。白鷺點滄州。不是寒山子。時臨古渡頭。騎駿馬。驟高樓。萬里銀河輓玉毬。別明真解脫。撥火覓浮漚。

示眾云。禪不禪。道不道。三寸舌頭胡亂掃。昨夜日輪飄桂花。今朝月窟出芝草。阿呵呵。萬兩黃金無處討。一句絕思量。諸法不相到。

示眾云。大智如愚。大巧若拙。勿謂今朝。中秋令節。八極同風。千潭共月。三十年後。蘆花照雪。與麼悟去。腦門百裂。

示眾云。[颯-台+弗][颯-台+弗]籬邊菊正黃。妙談西祖意琅琅。不知誰解聞斯語。堪為宗門立紀綱。便見。羅漢拂子。展大神通。化作文殊普賢。觀音勢至。穿過諸人髑髏。若也盡知來處。可謂於出入息中。供養恒沙諸佛。若也不知。分付德山臨濟。拂子擊一擊。

示眾云。諸佛不出世。達磨不西來。祖師心印。狀似鐵牛之機。所以印空也。日月沉輝。乾坤黯黑。印水也。蹙浪驚濤。魚龍喪命。印泥也。大地冰消。聖凡絕路。若是那一印。誰敢正眼覷著。爭奈諸方起模畫樣。若到羅漢門下。直教粉碎。

泉州南峰永程禪師(凡一)

示眾云。始自雞峰續燄。少室流芳。大布慈雲。宏開慧日。教分三藏。直指一心。或全提而棒喝齊施。或縱奪而賓主互設。或金剛按劍。或獅子翻身。或照用雷奔。或機鋒電掣。無非剪除邪妄。開廓玄微。直下明宗。到真實地。諸仁者。到此方許一線道。與爾商量。苟或未然。盡是依師作解。無有是處。

鄂州子凌山自瑜禪師(凡二)

示眾云。祖師關棧子。都不在言詮。若更重宣說。特地隔西天。

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云。好事不如無。

### 江州東林常總禪師法嗣

#### 廬州開先廣鑑英禪師(凡三)

桂州永福毛氏子。示眾云。談玄說妙。譬如畫餅充飢。入聖超凡。大似飛蛾赴火。一向無事。敗種焦芽。更若馳求。水中捉月。以拂子一拂云。適來許多見解。拂却了也。作麼生是諸人透脫一句。良久云。鐵牛不喫欄邊草。直向須彌頂上眠。以拂子。擊繩床。示眾云。有一人。說得一丈。一寸也行不得。有一人。行得一丈。一寸也說不得。有一人。說得行得。有一人。說不得行不得。此四人中。要覓一人為師。明眼衲僧。試請揀看。僧問。如何是道。師云。良田萬頃。僧云。不會。師云。春不耕秋無望。

### 潭州大溈懷秀禪師法嗣

#### 南嶽南臺允恭禪師(凡一)

示眾云。稀逢難遇。正是此時。何謂釋迦已滅。彌勒未生。拈起拂子云。正當今日。佛法盡在山僧拂子頭上。放行把住。一切臨時。放行則風行草偃。瓦礫生光。拾得寒山。點頭撫掌。把住則水泄不通。真金失色。德山臨濟。飲氣吞聲。當恁麼時。放行即是。把住即是。良久云。後五日看。

### 舒州白雲守端禪師法嗣

#### 蘄州五祖法演禪師(凡十三)

蜀人也。首謁圓照本禪師。古今因緣會盡。唯不會。僧問興化。四方八面來時如何。化云。打中間底。僧作禮。化云。我昨日赴箇村齋。中途遇一陣卒風暴雨。却向古廟裏。避得過。諸益本。本云。此是臨濟下因緣。須是問他家兒孫。始得。師遂謁浮山遠禪師。請益前話。遠云。我有箇譬喻。說似爾。爾一似箇三家村裏。賣柴漢子。把箇匾擔。向十字街頭。立地問人。中書堂。今日商量甚麼事。師默計云。若如此。大故未在。遠一日語師云。吾老矣。白雲端。爐鞴不可失也。師唯諾。

即訪白雲端。端一見乃云。川嘉礧。爾來也。

一日請問。南泉摩尼珠語。端叱之。師領悟。汗下被體。作投機頌云。山前一片閑田地。叉手丁寧問祖翁。幾度賣來還自買。為憐松竹引清風。端首肯之。

示眾。舉德山小參云。今夜不答話。問話者三十棒。眾中舉者甚多。會者不少。且道。向甚麼處見德山。有不顧性命者。試出來道看。若無。山僧為大眾。與德山老人。相見去也。待德山道今夜不答話。問話者三十棒。但向伊道。某甲話也不問。棒也不喫。爾道。還契他德山老人麼。到這裏。須是箇漢始得。

某甲游方。十有餘年。海上參尋。見數人尊宿。自為了當。及到浮山會裏。直是開口不得。後到白雲門下。咬破一箇鐵酸賺。直得百味具足。且道。賺子一句。作麼生道。乃云。花發雞冠媚早秋。誰人能染紫絲頭。有時風動頻相倚。似向堦前鬪不休。

示眾。舉祖師道。吾本來茲土。傳法救迷情。一花開五葉。結果自然成。達磨大師。信脚來。信口道。後代兒孫多成計較。要會開花結果處麼。鄭州梨青州棗。萬物無過出處好。

示眾。舉古人云。我若向爾道。即秃却我舌。我若不向爾道。即啞却我口。且道。還有為人處也無。四面有時擬為爾吞却。又被當門齒礙。擬為爾吐却。又為咽喉小。且道還有為人處也無。乃云。四面從來柳下惠。

示眾云。真如凡聖。皆是夢言。佛及眾生。並為增語。忽有人出來道。盤山老嚮。但向伊道。不因紫陌花開早。爭得黃鶯下柳條。若更道四面老嚮。白云諾。惺惺著。

示眾云。一向恁麼去。道絕人荒。一向恁麼來。辜負先聖。去此二途。佛祖不能近。設使與白雲。同生同死。亦未稱平生。何故。鳳凰不是凡間鳥。不得梧桐誓不棲。

示眾云。十方諸佛。六代祖師。天下善知識。皆同這箇舌頭。若識得這箇舌頭。始會大脫空。便道。山河大地是佛。草木叢林是佛。若未識得這箇舌頭。只成小脫空。自謾去。明朝後日。大有事在。太平恁麼說話。還有實頭處也無。白云。有。如何是實頭處。歸堂喫茶去。

示眾云。山僧昨日入城。見一棚傀儡。不免迎前看。或見端嚴奇特。或見醜陋不堪。動轉行坐。青黃赤白。一一見了。子細看時。元來青布幔裏有人。山僧忍俊不禁。乃問。長史高姓。他道。老和尚看便休。問甚麼姓。大眾。山僧被他一句。直得無言可對。無理可伸。還有人為山僧。道得麼。昨日那裏落節。今日這裏拔本。

示眾云。白雲不會說禪。三門開在兩邊。有人動著關捩。兩片東扇西扇。

示眾云。佛祖生冤家。悟道染泥土。無為無事人。聲色如聾瞽。且道。如何即是。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總不得。忽有箇漢。出來道。恁麼也得。不恁麼也得。恁麼不恁麼。總得。即向伊道。我也知。爾向鬼窟裏。作活計。

示眾舉德山和尚。因僧問。從上諸聖。以何法示人。山云。我宗無語句。亦無一法與人。雪峰從此有省。

後有僧。問雪峰云。和尚見德山。得箇甚麼。便休去。峯云。我當時空手去。空手歸。

白雲今日。說向透未過者。有箇人。從東京來。問伊。甚處來。他却道蘇州來。問伊。蘇州事如何。伊道。一切尋常。雖然如是。謾白雲不過。何故只為語音各別。畢竟如何。蘇州菱。邵伯藕。

示眾云。說佛說法。拈槌豎拂。白雲萬里。德山入門便棒。臨濟入門便喝。白雲萬里。然後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總不得。也則白雲萬里。忽有箇出來道。長老。爾恁麼道。也則白雲萬里。這箇說話。喚作矮子看戲。隨人上下。三十年後。一場好笑。且道。笑箇甚麼。笑白雲萬里。

示眾云。汝等諸人。見老和尚。鼓動唇吻。豎起拂子。便作勝解。及乎山禽聚集。牛動尾巴。却將作等閑。殊不知。簷聲不斷前旬雨。電影還連後夜雷。

示眾云。陸巨大夫問南泉。弟子家中有片石。也曾坐。也曾臥。如今擬鑄作佛去。得麼。泉云得。陸云。莫不得麼。泉云不得。

師云。夫為善知識。須明決擇。為甚麼。他人道得。也道得。他人道不得。也道不得。還知南泉落處麼。白雲不惜眉毛。與爾注破。得又是誰道來。不得又是誰道來。爾若更不會。老僧今日。為爾作箇樣子。乃舉手云。將三界二十八天。作箇佛頭。金輪水際。作箇佛脚。四大部洲。作箇佛身。雖然。作此佛兒子了。爾諸人又向那裏。安身立命。大眾還會也未。老僧作第二箇樣子去也。將東弗于逮。作箇佛。南瞻部洲。作箇佛。西瞿耶尼。作箇佛。北鬱單越。作箇佛。草不叢林。是佛。蠢動含靈。是佛。既恁麼。又喚甚麼。作眾生。還會也未。不如東弗于逮。還他東弗于逮。南瞻部洲。還他南瞻部洲。西瞿耶尼。還他西瞿耶尼。北鬱單越。還他北鬱單越。草木叢林。還他草木叢林。蠢動含靈。還他蠢動含靈。所以道。是法住法位。世間相常住。既然恁麼。又喚甚麼作佛。忽有箇漢。出來道。白雲休寐語大眾記取這一轉。

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云。頭上戴纓垂。云見後如何。師云。青布遮前。云未見四祖時。為甚麼。百鳥銜花。師云。富與貴。是人之所以欲。云見後。為甚麼。不銜花。師云。貧與賤。是人之所以惡。

問。如何是奪人不奪境。師云。秋風吹渭水。落葉滿長安。云如何是奪境不奪人。師云。路上逢人半是僧。云如何是人境兩俱奪。師云。高空有月千門照。大道無人獨自行。云如何是人境俱不奪。師云。少婦棹孤舟。歌聲逐水流。

問。如何是先照後用。師云。王言如絲。云如何是先用後照。師云。其出如綸。云如何是照用同時。師云。舉起軒轅鑑。蚩尤頓失威。云如何是照用不同時。師云。金將火試。

問。如何是臨濟下事。師云。五逆聞雷。云如何是雲門下事。師云。紅旗閃爍。云如何是漚仰下事。師云。斷碑橫古路。云如何是曹洞下事。師云。馳書不到家。僧作禮。師云。何不問法眼下事。云留與和尚。師云。巡人犯夜。

問。如何是白雲一滴水。師云。打碓打磨。云飲者如何。師云。教爾無著面處。

問。百尺竿頭。如何進步。師云。快走始得。

僧問。如何是佛。師云。肥從口入。

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云。人貧智短。馬瘦毛長。

#### 潭州雲蓋智本禪師(凡四)

筠州郭氏子。拈拄杖。示眾云。牙如劍樹面如鐵。眼放電光光不歇。手把蒺藜一萬斤。等閑敲落天邊月。卓拄杖一下。

示眾云。去者鼻孔遼天。來者腳踏實地。且道。祖師意向甚麼處著。良久云。長恨春歸無覓處。不知流入此中來。

示眾云。滿口道不出。句句甚分明。滿眼覷不見。山山疊亂青。鼓聲猶不會。那況是鐘聲。喝一喝。

僧問。人人有面古鏡。如何是學人古鏡。師云。打破來。向爾道。云打破了也。師云。胡地冬抽笋。

問。如何是咬人師子。師云。五老峰前。云這箇豈會咬得。師云。今日捨得性命。

問。古人云。說取行不得底。行取說不得底。且如行不得底。作麼生說。師云。口在脚下。云說不得底。作麼生行。師云。踏著舌頭。

#### 南嶽下第十五世

#### 洪州黃龍悟新禪師法嗣

#### 吉州禾山方禪師(凡二)

示眾云。先用後照。要驗作家。先照後用。不存影跡。照用同時。壁立千仞。照用不同時。根塵可鑑。古人以此四轉語。驗天下衲僧。若非具真正眼目。親切悟明者。難為湊泊。今日分明。為諸人拈出了也。還委悉麼。若委悉去。可謂不動絲毫。頓超覺地。其或未然。切須子細。

示眾。舉起拂子云。看看。只這箇。在臨濟則照用齊行。在雲門則事理俱備。在曹洞則偏正叶通。在為仰則暗機圓合。在法眼則何止唯心。然五家宗派。門庭施設。則不無。直饒辨得。個儻分明去。猶是光影邊事。若要抵敵死生。則霄壤有隔。且道。超越死生一句。又作麼生道。良久云。泊合錯下注脚。

### 洪州黃龍惟清禪師法嗣

#### 東京天寧守卓禪師(凡五)

泉州莊氏子。示眾云。大凡普會眾前。出來鼓揚此事。也須是箇本分衲僧。方可函蓋相投。當機勦絕。纔有譎訛。便為離隔。而況機輪轉處。佛眼猶迷。祖令行時。凡情那測。故德山棒下。知輕重者。關竅俱通。臨濟喝中。辨賓主者。皮膚脫落。如王寶劍。孰敢當鋒。所以道。言之者。失其真。知之者。返其愚。有之者。乖其性。無之者。傷其軀。病既多途。藥還異狀。若不深窮闢域。直造根源。水乳何分。精麤莫辨。致使廣大威德。枉受驅馳。本智不生。識情為咎。當須明悟。理則昭然。

示眾云。了法非法。則法法真如。知心非心。則心心玄寂。玄寂則應用恒沙。真如則隱顯無間。既是隱顯。作麼生無間。良久云。早知燈是火。飯熟也多時。

示眾云。平高就下。勾賊破家。截鐵斬釘。狐狸戀窟。總不恁麼。合作麼生。所以道。萬仞崖頭親撒手。須是其人。只如香積國中。持鉢一句。作麼生道。良久云。切忌風吹別調中。

示眾云。釋迦掩室。過犯彌天。毗耶杜詞。自救不了。如何如何。口門太小。

僧問。如何是主中賓。師云。不許夜行。投明須到。云如何是賓中主。師云。長安雖樂。不是久居。云如何是賓中賓。師云。人無遠慮。必有近憂。云如何是主中主。師云。當斷不斷。返招其亂。

#### 福州鼓山佛心才禪師(凡八)

住乾元。開堂示眾云。百千三昧門。無量福德藏。放行也。如開武庫。錯落交輝。把住也。似雪覆蘆花。通身莫辨。使見之者。撩起便行。聞之者。單刀直入。箇箇具頂門正眼。人人懸肘後靈符。掃佛祖見知。作叢林殃害。憶得寶壽開堂日。三聖推出一僧。寶壽便打。三聖云。與麼為人。瞎却鎮州一城人眼去在。且如乾元。今日開堂。或有僧出來。山僧亦打。不唯此話大行。且要開却福州一城人眼去。何也。劔為不平離寶匣。藥因救病出金瓶。

示眾云。三千劔客。獨許莊周。百萬鳳毛。點頭自肯。若也兩頭坐斷。中間不留。只是打淨潔毬子。未知向上一竅。若也隨波逐浪帶水拖泥。辜負己靈。未具頂門正眼。總不恁麼。又作麼生。良久云。不入驚人浪。難尋稱意魚。

示眾云。達磨未來東土已前。人人懷媚水之珠。箇箇抱荆山之璞。可謂壁立千仞。及乎二祖禮却三拜之後。一一南詢諸友。北禮文殊。好不丈夫。或有一箇半箇。不求諸聖。不重己靈。疋馬單鎗。投虛置刃。不妨慶快平生。如今有麼。自是不歸歸便得。五湖煙境有誰爭。

示眾云。撥塵見佛。眼翳花生。擲地金聲。賢者不貴。直得牢籠不肯住。呼喚不回頭。正好喫痛棒。畢竟如何。閑持經卷倚松立。笑問客從何處來。

示眾云。宗乘提唱。妙絕名言。一句該通。乾坤函蓋。直似首羅正眼。豎亞面門。又如員伊三點。橫該法界。乃卓拄杖云。向這一點下明得。出身猶可易。脫體道應難。又卓拄杖云。向第二點下明得。縱橫三界外。隱映十方身。又卓拄杖云。向第三點明得。魚龍鎖戶。佛祖潛蹤。不然。放過一著。隨分有春色。一枝三四花。

示眾云。即心即佛。眼中著屑。非心非佛。虛空釘橛。不是心。不是佛。不是物。遂以拂子。擊繩床云。為君擊碎精靈窟。北斗南星位不殊。一一觀方隨兆出。擲下拂子云。打鼓普請看。

示眾。大道無中。復誰先後。僧堂裏聖僧。盡日與諸人說法。長廊上露柱。與諸人覲體談玄。何須更來這裏。熱謾山僧。不如休去歇去好。良久云。道泰不傳天子令。時清休唱太平歌。

上堂。衲僧家。四事隨身。三玄被體。當機不犯。如珠走盤。須是殺人刀。活人劔。活人劔下。死人縱橫。殺人刀頭。活人無數。殺活自在。收放縱橫。還有出格翻身底麼。不是渠儂多意氣。他家曾蹈上頭關。

上堂。寶劔不失。虛舟不刻。朝游羅浮。暮歸檀特。若謂本光之地。理合如然。正是坐井觀天。持蠡酌海。若謂言發非聲。色前不物。非唯迷宗。亦乃失旨。宗明旨的。又作麼生。好把鴛鴦重繡出。從它人競覓金針。

## 洪州兜率從悅禪師法嗣

### 丞相無盡居士張公商英(凡三)

公年十九。應舉。入京師。經由向家。向預夢。人報云。明日接相公。凌晨公至。勞問曲折。後以女妻之。

因入僧寺。見藏經。梵夾齊整。佛然曰。吾孔聖之教。不如胡人之書。人所仰重。夜坐書院。研墨吮筆。憑紙長吟。向氏呼曰。官人夜深。何不睡去。公以前意語之。正此著無佛論。向曰。既是無佛。何論之有。當須著有佛論始得。公疑其言遂已之。

後訪一同列。見佛龕前經卷。乃問。此何書也。同列云。維摩詰所說經也。公信手開卷。閱到此病。非地大。亦不離地大處。嘆曰。胡人之語。亦能爾耶。遂問此經幾卷。云三卷。因借歸。盡讀。向氏問。看者何書。公云。維摩詰所說經。向云。可熟讀此經。然後著無佛論也。公異其言。由是深信佛乘。留心祖道。

後為江西漕。徧參祖席。復謁東林總。總詰其所見。與已符合。乃印可之。

後按部分寧。諸禪迓之。兜率居其末。公一一致敬罷。次及兜率。聞其聰明過人。遂問。聞公善文章。是否。悅大笑云。運使失却一隻眼。從悅臨濟九世孫。對運使論文章。政如運使。對從悅。論禪也。公意不平。遂問。此去玉溪幾里。云三十里。公云。兜率響。云五里。夜宿兜率。

悅先一夜夢。日輪昇天。被悅以手搏取。因語首座曰。日論者。運轉之義。聞張運使。非久此來。吾當深錐痛筍若肯回頭。則吾門幸事。

公與悅語。至更深。論及宗門事。悅云。聞東林印可運使。未審運使於佛祖言教。有少疑否。公云有。悅云疑何等語。公云。香巖獨脚頌。德山托鉢話。悅云。此既有疑。其餘安得無耶。只如巖頭云。末後句。是有耶。是無耶。公云有。悅大笑。歸方丈。閉却門。公睡不穩。至五更下床。觸翻踏床。忽然契悟。作頌云。鼓寂鍾沉托鉢回。巖頭一拶語如雷。果然只得三年活。莫是遭他受記來。遂扣方丈門云。某已捉得賊也。悅云。賊物在甚處。公無語。悅云且去。來日相見。公翌日以前頌呈悅。悅云。參禪只為命根不斷。依語生解。如是之說。公已深悟。然至極微細處。使人不覺不知墮在區宇。後作頌印之云。等閑行處。步步皆如。雖居聲色。寧滯有無。一心靡異。萬法非殊。休分體用。莫擇精麤。臨機不礙。應物無拘。是非情盡。凡聖皆除。誰得誰失。何親何疎。拈頭作尾。指實為虛。翻身魔界。轉脚邪途。了非逆順。不犯工夫。

佛日杲謁公。為湛堂求塔銘。纔相見。公便問祇恁麼著草鞋遠來。杲云。數千里。特來見相公。公遂問。年多少。杲云。二十八。公云。水牯牛。年多少。杲云。兩箇。公云。甚麼處。學得這虔頭來。杲云。今日親見相公。公云。念汝遠來。且坐喫茶。茶罷公問。公遠來。有何事。杲趨前云。泐潭和尚示寂。茶毗。眼睛牙齒。數珠不壞。舍利無數。山中耆宿。皆欲得相公大手筆。作塔銘。激勵後學。得得遠來。冒瀆鈞聽。公云。今有一問。若道得。即做塔銘。遂問。聞準老。眼睛不壞。是否。杲云是。公云。我不問這箇眼睛。杲云。相公問甚麼眼睛。公云。金剛眼睛。杲云。若是金剛眼睛。在相公筆頭上。公云。恁麼則老夫。為他點出光明。令他照天照地去也。杲進謝云。先師多幸。謝相公做塔銘。公唯唯而笑。

公謂佛日云。余閱雪竇拈古。至百丈再參馬祖因緣。云。大冶精金。應無變色。投卷嘆曰。審如是。豈得有臨濟今日耶。遂作一頌云。馬師一喝大雄峰。深入觸髓三日聾。黃檗聞之驚吐舌。江西從此立宗風。

後平禪師。致書云。去夏讀臨濟宗派。乃知居士。得大機大用。且求頌本。余作頌。寄之云。吐舌耳聾師已曉。槌笱只得哭蒼天。盤山會裏翻筋斗。到此方知普化顛。

諸方往往以余聰明博記。少知余者。公自江西法窟來。必辨優劣。試為老夫。言之。佛日云。居士見處。與真淨死心符合。公云。何謂也。佛日遂舉真淨頌云。客情步步隨人轉。有大威光不能現。突然一喝雙耳聾。那吒眼開黃蘗面。死心拈云。雲巖要問雪竇。既是大冶精金。應無變色。為甚却三日耳聾。諸人要知麼。從前汗馬無人識。只要重論蓋代功。公撫几云。不因公語。爭見真淨死心用處。若非二大老。難顯雪竇馬師爾。

## 蘄州五祖法演禪師法嗣

### 成都府昭覺克勤禪師(凡八)

蜀人也。出峽。初謁北烏牙方禪師。得照覺平實之旨。復謁大滄喆。後謁五祖入室。平生知解。全用不著。乃謂。祖移換人。出不遜語。忿然而去。祖云。待爾著一頓熱病。打時。方思量我在。師到金山。染傷寒。幾不起。遂以平日見處。試之。無得力者。追繹五祖之言。乃自誓云。我病稍間。即歸五祖。尋歸五祖。祖一見而喜曰。汝來耶。即日參堂。令人侍者寮。方半月。偶陳提刑者。解印還蜀。過山問道。祖問。提刑曾讀小艷詩否。詩中有兩句。頗相

近。頻呼小玉元無事。只要檀郎認得聲。提刑應諾。祖云。且子細。師適從外來。侍立次。問祖云。和尚舉小艷詩。提刑還會否。祖云。他只認得聲。師云。只要檀郎認得聲。他既認得聲。為甚麼。不是。祖云。如何是祖師西來意。庭前栢樹子。響。師忽然大悟。趨出。見雞飛上欄干。鼓翅而鳴。師自謂曰。此豈不是聲。即袖香入室。通所悟。祖云。佛祖大事。非小根小器。所能造詣。吾助汝喜。遂徧謂山中耆宿云。我侍者參得禪也。

師同佛鑑佛眼。侍五祖於亭上。夜坐。歸方丈。燈已滅。祖暗中云。各人下一轉語。鑑云。彩鳳舞丹霄。眼云。鐵蛇橫古路。師云。看脚下。祖云。滅吾宗者。克勤爾。

師開堂日。示眾云。一向目視雲霄。壁立千仞。則辜負諸聖。一向拖泥帶水。土面灰頭。則埋沒己靈。而今恁麼也得。不恁麼也得。且要正眼流通。還委悉麼。直饒高步毗盧頂。不稟釋迦文。婢視聲聞。奴呼菩薩底來。也須亡鋒結舌。自餘故是出頭不得。所以道。三世諸佛。只言自知。歷代祖師。全提不起。一大藏教。詮註不及。明眼衲僧。自救不了。若據本分草料。猶是節外生枝。且不涉化門一句。作麼生道。陣雲橫海上。拔劍攪龍門。

示眾云。通身是眼見不及。通身是耳聽不徹。通身是口說不著。通身是心鑑不出。直饒盡大地明得。無絲毫透漏。猶在半途。據令全提。如何展演。域中日月縱橫挂。一亘晴空萬古春。

示眾云。國無定亂之劍。四海晏清。門無白澤之圖。全家吉慶。若道有承恩力。正是土上加泥。更或削跡吞聲。亦乃持南作北。到這裏。縱橫十字。未免譎訛。據位投機。猶較些子。且作麼生是據位底句。寒山逢拾得。撫掌笑呵呵。

示眾云。一言截斷。千聖消聲。一劍當頭。橫屍萬里。所以道。有時句到意不到。有時意到句不到。句能割意。意能割句。意句交馳。衲僧巴鼻。若能恁麼轉去。青天也須喫棒。且道。憑箇甚麼。可憐無限弄潮人。畢竟還落潮中死。

示眾云。一塵入正受。盡大地冷湫湫。諸塵三昧起。徧十方開浩浩。分身百億。未足為多。端坐虛堂。未嘗言靜。到這裏。卷舒收放。擒縱殺活。以金剛王寶劍。截斷疑情。將衲僧巴鼻。脫生死關。坐斷要津。不通凡聖。千人萬人。牢籠不住。百千境界。轉變不得。始能為如來使。普現色身。且道。正當恁麼時如何。日用無回互。當機有淺深。

示眾云。萬仞崖頭撒手。要須其人。千鈞之弩發機。豈為鼯鼠。雲門睦州。當面蹉過。德山臨濟。誑諱閭閻。自餘立境立機。作窠作窟。故是滅胡種族。且獨脫一句。作麼生道。萬緣遷變渾閑事。五月山房冷似冰。

僧問。一大藏教。阿那箇是頭。師云。如是我聞。云此是阿難底。如何是和尚底。師云。老僧用得甚快。

### 建康府蔣山慧勳禪師(凡四)

師參五祖。因同圓悟。語話次。舉東寺問仰山。鎮海明珠因緣。至無理可伸處。圓悟徵云。既云取得。逮索此珠。又道無言可對。無理可伸。師不能加答。明日謂悟云。昨日公案。我有語也。悟云。試舉看。師云。東寺只索一顆明珠。仰山當下傾出一桲椌。悟深肯之。乃告之曰。老兄更宜親近老和尚去。

師一日造方丈。未及語。被祖詬罵。摩撻而退。歸寮閉門而睡。恨祖不已。悟已密知。即往扣門。召云。勳兄。師云誰。悟云我也。師即開門。悟問。爾見老和尚。如何。師云。我本不去。被爾賺累。我遭這老漢垢罵。悟呵呵大笑云。爾記得前日下底語麼。師云。是甚麼語。悟云。爾又道。東寺只索一顆明珠。仰山傾出一桲椌。師當下釋然。悟遂領師。同上方丈。祖纔見。遽云。勳兄且喜大事了畢。

示眾云。至道無難。唯嫌揀擇。桃花紅李花白。誰道融融只一色。燕子語黃鶯鳴。誰道關關只一聲。不識祖師闕捩子。空認山河作眼睛。

示眾云。十五日已前事。錦上鋪花。十五日已後事。如大海一漚發。正當十五日。大似一尺之鏡。照千里之像。雖則真空絕跡。其柰海印發光。任他露柱開花。說甚佛面百醜。何故。到頭霜夜月。任運落前谿。

示眾。舉僧問趙州。如何是不遷義。州以手作流水勢。其僧有省。又僧問法眼。不取於相。如如不動。如何不取於相。見於如如不動。眼云。日出東方夜落西。其僧亦有省。

若也於此見得。方知道。旋嵐偃嶽。本來常靜。江河競注。元自不流。其或未然。不免更為饒舌。天左旋地右轉。古往今來經幾徧。金烏飛玉兔走。纔方出海門。又落青山後。江河波渺渺。淮濟浪悠悠。直入滄溟晝夜流。遂高聲喝云。還見如如不動麼。

### 舒州龍門清遠禪師(凡七)

蜀之臨邛李氏子。年十四。捨家受具。依毗尼。究其說。因誦法華經。至是法非思量分別之所能解。持以問講師。講師莫能答。師嘆曰。義學名相。非所以了生死大事。遂卷衣南游。徑造舒之太平演禪師席。室中酬酢。水乳相合。凡七年。洞造闡域。

後出世舒之萬壽。遷龍門。後主和之褒禪也。

示眾云。始自隻履西歸。卷衣南邁。空聞消息。流落人間。古往今來。遞相敬授。大似一人傳虛。萬人傳實。山僧病多諳藥性。年老變成精。不是刻剝古人。免見互相埋沒。諸人應是從前覺觸。往日見知。從人邊請益得來語言中舉時中的。出入游戲。即不無。究竟真實大事。萬不可得。但能情忘理喪。計盡途窮。無施設處用心。正是作工夫處。山僧尋常只道喫茶去。今日也道喫茶云。會盡諸方五味禪。何似山僧喫茶去。

示眾云。總記不得。天花滿袂。縱有千言。不如一默。

示眾云。只宜說一句。有人會得去。猶較些子。或若無人會得。山僧却成妄語。思量來。不如且休。各自大家。堂中喫茶。自由自在。免見異日他時。被人覷破。何也。將軍自有嘉聲在。不得封侯也是閑。

示眾云。慮而解。思而知。孤燈難並太陽暉。不是心。不是佛。為君掃蕩精靈窟。摩天鷓子入雲飛。千里萬里只一突。阿刺刺。

示眾云。千說萬說。不如親面一見。縱不說亦自分明。王子寶刀喻。眾盲摸象喻。禪學中。隔江招手事。望州亭相見事。迴絕無人處事。深山巖崖處事。此皆親面而見之。不在說也。

僧問。道遠乎哉。觸事而真。如何是道。師云。頂上八尺五。云未審此理如何。師云。方圓七八寸。

云向上一路還許學人會也無。師云。不論向上向下。却許爾會。

#### 潭州開福道寧禪師(凡四)

示眾云。全提正令。匝地風生。把定要津。孰分優劣。三玄料簡。未辨衲僧。五位君臣。殊乖道體。平實無事。誑諱閭閻。入理深談。粘皮帶骨。何故。纖毫不動。空劫已前。數量難該。憑何話會。諸禪德。還委悉麼。幾回拋向眾人前。千眼大悲看不見。

示眾云。秋日耀長空。秋江浸虛碧。嗟傷門外人。處處尋彌勒。驀路忽擡頭。相逢不相識。諸禪德。既是相逢。為甚麼。却不相識。剪盡霜前竹。臨溪不化龍。

示眾云。靈山會上。早是周遮。良馬窺鞭。豈為英俊。巖間宴坐。天帝雨花。無說無聞。藏身露影。少林面壁。計較未成。立雪斷肱。辜他衲子。黃梅呈頌。勝負偏枯。半夜傳衣。謾人不少。從上來事。合作麼生。豈假人天眾前。鼓舌搖唇。競銳爭鋒。互立賓主。問答交參。檢點將來。彌天罪犯。雖然恁麼。不因紫陌花開早。爭得黃鸝下柳條。

示眾云。摩竭正令。未免崎嶇。少室垂慈。早傷風骨。腰囊挈錫。辜負平生。煉行灰心。遞相鈍置。爭似春雨晴春山青。白雲三片。五片黃鳥一聲兩聲。千眼大悲看不足。王維妙手畫難成。直饒便恁麼。猶是涉途程。諸禪德。不涉途程一句。作麼生。良久云。人從陳州來。不得東京信。

### 潭州雲蓋智本禪師法嗣

#### 潭州承天自承禪師(凡二)

示眾云。不是心。不是佛。不是物。打繩床云。與君打破精靈窟。簸土揚塵無處尋。千山萬山空突吼。復拍繩床云。歸堂去。  
示眾云。五更殘月落。天曉白雲飛。分明目前事。不是目前機。既是目前事。為甚麼。不是目前機。良久云。欲言言不及。林下好商量。

### 東京智海平禪師法嗣

#### 東京淨因繼成禪師(凡九)

示眾云。正法眼藏。頭頭漏泄真機。涅槃妙心。處處一時成現。若向言中取則。句外尋求。巧覓見知。強生分別。大似迷頭認影。緣木求魚。顛倒一生。永無休歇。直須回光返照。親近明師。識取自己家鄉。便是當人活計。迷悟心歇。取捨情忘。萬別千差。不離這箇。苟或未然。清風月下守株人。涼兔漸遙芳草緣。  
示眾云。狹路相逢且莫疑。電光石火已遲遲。若教直下三心徹。只在如今一餉時。到這裏。直使問來答去。火迸星飛。互換主賓。照用得失。波翻嶽立。玉轉珠回。衲僧面前。了無交涉。豈不見。拈花驚嶺。獨許飲光。問疾毗耶。誰當金粟。那知微笑。已成途轍。縱使默然。未免風波。要須格外相逢。始解就中穎契。還會麼。一曲寥寥動今古。洛陽三十六峰西。  
示眾云。五蘊山頭一段空。同門出入不相逢。無量劫來賃屋住。到頭不識主人公。若也識得。正是認奴作郎。若也不識。作麼生免得古人恁麼道。當初只謂茆長短。燒却元來地不平。  
示眾云。舉不顧。即差互。擬思量。何劫悟。大眾。枯桑知天風。是顧不顧。海水知天寒。是思不思。且喚甚麼。作悟底道理。兔角杖頭挑法界。龜毛拂子舞三臺。

示眾云。鼻裏音聲耳裏香。眼中鹹淡舌玄黃。意能覺觸身分別。冰室如春九夏涼。如斯見得。方知男子身中入定時。女子身中從定出。葵花隨日轉。犀紋翫月生。香楓化老人。螟蛉成蝶羸。若也不知。苦哉佛陀耶。許儂具隻眼。

示眾云。一念心清淨。佛居魔王殿。一念惡心生。魔王居佛殿。懷禪師云。但恁麼信去。喚作腳踏實地而行終無別法。亦無別道理。老僧恁麼舉了。只恐儂諸人。見兔放鷹。刻舟求劍。何故。功德天黑暗女。有智主人。二俱不受。

示眾。舉汾陽拈拄杖。示眾云。三世諸佛在這裏。為汝諸人無孔竅。遂走向山僧拄杖裏去。強生節目。師云。汾陽與麼示徒。大似擔雪填井。傍若無人。山僧今日。為汝諸人出氣。拈起拄杖云。三世諸佛。不敢強生節目。却從山僧拄杖裏走出。向諸人道。我不敢輕於汝等。汝等皆當作佛。說是語已。翻筋斗。向拘尸羅城裏去也。擲下拄杖云。若到諸方。分明舉似。

師同圓悟法真慈受。并十大法師。齋于陳太尉良弼府第。時徽宗。私幸。觀其法會。大師魯公。亦預焉。適善華嚴。對眾。問諸禪云。我佛設教。自小乘。至于圓頓。掃除空有。獨證真常。然後萬德莊嚴。方名為佛。禪宗一喝。轉凡成聖。與諸經論。似相違背。今一喝。若能入五教。而為正說。若不能入。是為邪說。諸禪顧師。師云。如法師所問。不足三大禪師所答。淨因小長老。可以使法師無惑。

乃召善。善應諾。師云。法師所謂愚法小乘者。乃有義也。大乘始教者。乃無義也。大乘中教者。不有不空義也。大乘頓教者。即有即空義也。一乘圓頓者。乃空而不有有。而不空義也。如我一喝。非唯能入五教。至方百工伎藝。諸子百家。皆悉能入。師乃喝一喝云。還聞麼。善云聞。師云。汝既聞此一喝。是有。能入小乘教。須臾又問善。還聞麼。善云不聞。師云。汝既不聞適來一喝。是無。能入大乘始教。師又顧善而問曰。我初一喝。汝既道有。喝久聲消。汝復道無。道無則元初實有。道有則如今實無。既乃不有不無。能入大乘中教。又云。我有一喝之時。非有是有。因無故有。我無一喝之時。非無是無。因有故無。即有即無。能入大乘頓教。又云。我有一喝。不作一喝用。有無不及。情解兩忘。道有之時。纖塵不立。道無之時。橫徧十方。即此一喝。入百千萬億喝。百千萬億喝。入此一喝。是為圓教也。善不覺身起于座。再拜師前。師復語之曰。非唯一喝為然。乃至語默動靜。一切時。一切處。一切事。一切物。契理契機。周徧無餘。於是四眾歡喜。聞所未聞。

## 南嶽下第十六世

### 東京天寧守卓禪師法嗣

#### 湖州道場良範禪師(凡三)

泉州晉江蔡氏子。示眾云。塵劫來事。盡在如今。空劫那邊。全歸日用。觸處成現。覲體無私。人人單提祖印。箇箇獨用全機。到這裏。直饒有通天作略。竭世樞機。只是枝上生枝。蔓上生蔓。於本分事上。了無交涉。是故諸佛出世。罕遇其人。西祖東來。乘虛接響。一大藏教。誑諱閭閻。明眼衲僧。自救不了。且作麼生話會。作麼生承當。作麼生展演。作麼生提唱。還有向這裏。挨得身。著得脚。顯大丈夫作略底麼。出來相見。如無。且放過一著。

示眾云。青眸一瞬。金色知歸。授手而來。如王寶劍。如今開張門戶。各說異端。可謂古路坦而荊棘生。法眼明而還自翳。辜負先聖。埋沒己靈。且道。不埋沒。不辜負。正法眼藏。如何吐露。還有吐露得底麼。出來吐露看。如無。擔取詩書歸舊隱。野花啼鳥一般春。

示眾云。未離兜率。已降王宮。未出母胎。度人已畢。猶較些子。及乎周行七步。目顧四方。一手指天。一手指地。道天上天下。唯我獨尊。特地一場敗闕。後來雲門老漢出來。要一棒打殺。與狗子喫。貴圖天下太平。未救得一半。而今莫有全救得底麼。出來。大展作略看。若向這裏展得去。釋迦雲門性命。總在上座手裏。

### 福州鼓山本才禪師法嗣

#### 福州普賢元素禪師(凡六)

建州人也。示眾云。拈花微笑。猶乖量外之機。斷臂安心。何異捉月之見。設使萬機休罷。千聖不携。還同待兔守株。未是通方達士。明眼漢沒窠臼。高高處。觀之不足。低低處。平之有餘。神光照徹大千。萬有全歸掌握。大機大用。草偃風行。全暗全明。超情離見。所以道。神光不昧。萬古徽猷。入此門來。莫存知解。知解既泯。真智現前。八字打開。分明顯示。豎起拂子云。還見麼。於斯見得。言語路絕。取捨情忘。了非生佛未分。豈是威音那畔。權實俱備。照用雙行。流出自己芻襟。要且不從人得。既不從人得。

正當今日。祝巖 聖壽一句。作麼生道。良久云。四海浪平龍睡穩。萬年松在祝融峯。  
示眾云。兵隨印轉。三千里外絕煙塵。將逐符行。二六時中淨髀裸。不用鐵旗鐵鼓。自然草偃風行。何須七縱七擒。直得無思不服。所謂大丈夫。秉慧劍。般若鋒兮金剛燄。非但能摧外道心。早曾落却天魔膽。正恁麼時。且道。主將是甚麼人。喝一喝。  
示眾云。南泉道。我十八上。便解作活計。囊無繫蟻之絲。厨乏聚繩之糝。趙州道。我十八上。便解破家散宅。南頭賣賤。北頭賣貴。檢點將來。好與三十棒。且放過一著。何故。曾為宕子偏憐客。自愛貪盃惜醉人。  
示眾。提起拄杖云。敲空作響。罕遇知音。復擊繩床云。擊木無聲。稀逢鑿者。莫向情中卜度。休於事上情量。縱饒劃斷兩頭。未是到家時節。且道。作麼生是到家時節。良久云。清風已逐和風去。朱夏還隨暑氣回。  
示眾云。未開口時先分付。擬思量處隔千山。莫言佛法無多子。未透玄關也大難。只如玄關。作麼生透。喝一喝。  
示眾云。一葉落天下秋。正是時人升降處。一塵起大地收。衲僧向甚麼處著眼。若向這裏。著得一隻眼。如珠走盤。不撥自轉。脫或未然。十字街頭吹尺八。酸酒冷茶愁殺人。

#### 泉州法石祖珍禪師(凡四)

莆田林氏子。示眾云。大道只在目前。要且目前難覩。欲識大道真體。不離聲色言語。卓拄杖云。這箇是聲。豎起拄杖云。這箇是色。喚甚麼作大道真體。直饒向這裏見得。也是鄭州出曹門。  
示眾云。向上一路。千聖不傳。卓拄杖云。恁麼明得。十萬八千。畢竟如何。桃紅李白薔薇紫。問著春風總不知。  
示眾云。尋牛須訪跡。學道貴無心。跡在牛還在。無心道易尋。豎起拂子云。這箇是跡。牛在甚麼處。直饒見得。頭角分明。鼻孔也在嶽林手裏。  
僧問。投子繞繩床一匝。便為推藏竟。此理如何。師云。畫龍看頭。畫蛇看尾。云未審甚處是投子轉藏處。師云。箭穿紅日影。須是射鵰人。進云。婆子云。比來請轉全藏。為甚却轉半藏。此意如何。師云。人無遠慮。必有近憂。云未審甚處是轉半藏處。師云。不是知音者。徒勞話歲寒。

#### 成都府昭覺圓悟克勤禪師法嗣

## 潭州大滄法泰禪師(凡十一)

蜀人也。示眾云。祖師道。欲得現前。莫存順逆。釋迦老子。是甚麼破草鞋。一大藏教。是拭不淨底故紙。達磨九年面壁。瞌睡未惺。汝等諸人。皮下無血。眼裏無筋。更來這裏。覓甚麼碗。各請歸堂。

示眾云。止止不須說。我法妙難思。釋迦老子。無端向淨地上放屙。諸增上慢者。聞必不敬信。彼彼丈夫兒。諸人向甚麼處。見釋迦老子。若也見得。入得德山門。未入得德山室。且德山室。如何入。良久云。三十年後。

示眾云。開口有時非。開口有時是。麤言及細語。皆歸第一義。釋迦老子怨鳴聲。達磨西來屎臭氣。唯有山前水牯牛。身放毫光照天地。

示眾云。法不爾而爾。暗去明來。道不然而然。雷奔雨驟。直得千江競注。萬壑爭流。山頭白浪滔天。平地人魚共處。莫問稻芽增長。如今頭上漫漫。雖然水到渠成。爭柰過猶不及。幸而雲收雨散。浪息波停。杲日當空。萬家同慶。且大功不宰一句。作麼生道。野老不知堯舜力。鼕鼕打鼓祭江神。

示眾云。寶劍拈來使用。豈有遲疑。眉毛剔起便行。更無回互。一切處騰今煥古。一切處截斷羅籠。不犯鋒鋌。亦非顧鑑。獨超物外。則且置。萬機喪盡時如何。八月秋何處熱。

示眾云。聞聲悟道。未免著水耳中。見色明心。亦是撒沙眼裏。直得纖毫無障礙。空有等空平。下絕己躬。上無攀仰。孤迥迥絕情塵。峭魏魏離分別。猶是那邊事。且這邊事。又作麼生。休戀寒潭無影樹。且看六月雪花飛。

示眾云。動則影現。覺則水生。不動不覺。土木無殊。衲僧家。到這裏。須有轉身一路。始得。若也轉得。分三成六。唱九作十。納須彌於芥中。擲大千於方外。若轉不得。守他山鬼窟。不免是精靈。

示眾云。達得人空法空。未稱祖佛家風。體得全用全照。亦非衲僧要妙。直須打破牢關。識取向上一竅。如何是向上一竅。春寒料峭。凍殺年少。

示眾云。涅槃無異路。方便有多門。拈起拄杖云。看看。山僧拄杖子。一口吸盡西江水。東海鯉魚[跳-兆+孛]跳。上三十三天。帝釋忿怒。把須彌山。一擗粉碎。堅牢地神。合掌讚嘆云。諦觀法王法。法王法如是。以拄杖。擊繩床。

示眾云。德山入門便棒。平地生堆。監濟入門便喝。無風起浪。俱胝只豎一指。未免顛預。雪峰輓出三毬。小兒戲劇。到這裏。總用

不著。爭如六月三伏。甘雨普滋。水足東臯。禾青南畝。農夫鼓  
腹。樵者高歌。古佛家風。儼然如在。於斯會得。共樂昇平。脫或  
未然。只知事逐眼前過。不覺老從頭上來。

聯燈會要卷第十六

南嶽下第十六世  
成都府昭覺克勤禪師法嗣下

臨安府徑山宗杲禪師(凡二十九)

宣州奚氏子。初謁寶峰準禪師。於道染指。次謁圓悟勤禪師。因上堂。聞舉僧問雲門。如何是諸佛出身處。門云。東山水上行。勤云。有問天寧。如何是諸佛出身處。只向他道。薰風自南來。殿角生微涼。師於言下。忽然前後際斷。雖然動相不生。却坐在淨裸裸處。勤曰。也不易爾得到這田地。不惜。死了不能得活。不疑言句。是為大病。不見道。懸崖撒手。自肯承當。絕後再甦。欺君不得。須信有這箇道理。每室中。詰以有句無句。如藤倚樹之語。師纔開口。勤便云。不是不是。經半年。奈何不下。遂請益勤云。聞和尚。當年曾問五祖此話。未審五祖道甚麼。勤笑而不答。師云。和尚須當眾問。今說又何妨。勤云。我問。有句無句。如藤倚樹。意旨如何。祖云。描也描不成。畫也畫不就。我問。樹倒藤枯時如何。祖云。相隨來也。師當下釋然曰。我會也。勤遂舉數因緣。詰之。師酬對。如太平時。得路便行。了無凝滯。

勤每對人。賞之曰。杲非一生兩生。為善知識來。自是名動叢林。勤著正宗記。委師極重。

紹興初。入閩庵居。得其法者。不可一二數。諸方屢舉。俱却之。後應張丞相魏公浚。徑山之命。

開堂日。僧問。人天普集。選佛場開。祖令當行。如何舉唱。師云。鈍鳥逆風飛。云徧界且無尋覓處。介明一點座中圓。師云。人間無水不朝東。

復有僧競出。師約住云。假使大地。盡末為塵。一一塵有一口。一一口。具無礙廣長舌相。一一舌相。出無量差別音聲。一一音聲。發無量差別言詞。一言詞。有無量差別妙義。如上塵數衲僧。各各具如是口。如是舌。如是音聲。如是言詞。如是妙義。同時致百千問難。問問各別。不消長老咳嗽一聲。一時答了。乘時於其中間。作無量無邊。廣大佛事。一一佛事。周徧法界。所謂一毛現神變。一切佛同說。經於無量劫。不得其邊際。便恁麼去。鬧熱門庭即得。正眼觀來。正是業識忙忙。無本可據。祖師門下。一點也用不著。況復勾章棘句。展弄詞鋒。非唯埋沒從上宗乘。亦乃笑破衲

僧鼻孔。所以道。毫釐繫念。三塗業因。瞥爾情生。萬劫羈鎖。聖名凡號。盡是虛聲。殊相劣形。皆為幻色。汝欲求之。得無累乎。及其厭之。又成大患。看他先聖。恁麼告報。如國家兵器。豈得已而用之。本分事上。亦無這箇消息。山僧今日。如斯舉唱。大似無夢說夢。好肉剗瘡。檢點將來。合喫拄杖。只今莫有下得毒手者麼。若有。堪報不報之恩。共助無為之化。如無。倒行此令去也。驀拈拄杖云。橫按鎊錫全正令。太平寰宇斬癡頑。卓拄杖。喝一喝。

示眾云。水底泥牛嚼生鐵。僑梵鉢提咬著舌。海神怒把珊瑚鞭。須彌山王痛不徹。

示眾云。顛倒想生生死續。顛倒想滅生死絕。生死絕處涅槃空。涅槃空處眼中屑。涅槃既空。喚甚麼。作眼中屑。白雲乍可來青嶂。明月難教下碧天。

示眾云。心生法滅。性起情忘。這裏悟去。捏怪有甚麼難。舉起拂子云。看看。觀音彌勒。普賢文殊。盡向徑山拂子頭上。聚頭打葛藤去。若也放開。從教口勞舌沸。若也把住。不消一擊。以拂子。擊繩床。

示眾云。摩竭提國。猶在半途。少室峰前。全無巴鼻。談玄說妙。好肉剗瘡。舉古明今。拋沙撒土。爭似飢飡渴飲。閑坐困眠。從教四序推移。都不干預我事。雖然如是。也須實到這箇田地。始得。只如實到這箇田地底。如何親近。喝一喝云。灸瘡癩上。更著艾炷去也。

示眾云。我宗無語句。實無一法與人。早是通身浸在屎窖裏了也。那堪踏步向前。如之若何。問向上向下。三玄三要。銀盃裏盛雪。北斗裏藏身。意旨如何。豈不是屎窖邊。更掘屎窖。雖然如是。若於屎窖中。知些氣臭。方知三世諸佛。歷代祖師。天下老和尚。古往今來。一切善知識。盡在屎窖裏。轉大法輪。其或未然。切忌向屎窖裏作活計。

示眾。問答罷。乃云。問得亦好。不問更親。何故。聲前一路。千聖不傳。學者勞形。如猿捉影。可中有箇英靈漢。恁麼不恁麼。聊聞舉著。剔起便行。猶在葛藤窠裏。直得內無所證。外無所修。似地擎山。如石含玉。亦未是衲僧放身命處。敢問大眾。作麼生是衲僧放身命處。若也知得。塵塵念念。皆無空闕。折旋俯仰。盡在其中。正恁麼時。畢竟是誰家風月。還委悉麼。千聖不知何處去。倚天長劍逼人寒。

師垂語云。我這裏。無法與人。只是據欵結案。恰如爾將箇琉璃瓶子來。護惜似箇甚麼。我一見。便與爾打破了。爾又將箇摩尼珠來。我又與爾奪了。待爾只恁麼來。我又和爾兩手截了。所以臨濟

和尚道。逢佛殺佛。逢祖殺祖。逢羅漢殺羅漢。既稱善知識。為甚麼。却要殺人去。且道是甚麼道理。

師垂語云。爾若會去。過他方世界。又他方世界。更他方世界。乃至不可說不可說。微塵數香水海。華藏世界外。與汝這裏。不別。更盡未來際。不可說不可說劫外。亦與爾這裏不別。

師舉南院問風穴。南方一棒。作麼生商量。穴云。作奇特商量。穴却問。和尚此間一棒。作麼生商量。院橫按拄杖云。棒下無生忍。臨機不見師。

師云。風穴當時好大展坐具。禮他三拜。不然。與他掀倒繩床。乃回顧冲密云。爾道。風穴當時禮拜是。掀倒繩床是。密云。草賊大敗。師云。爾退這瞎漢。便打。

舉睦州凡見僧來。便云。見成公案。放爾三十棒。雲峰悅云。作賊人心虛。

師云。又添得一箇。

道了。問冲密云。爾道。我恁麼道。還有過也無。密云。作賊人心虛。師云。三箇也有。

師舉。僧問大龍。色身敗壞。如何是堅固法身。龍云。山花開似錦。澗水湛如藍。作麼生會。僧云不會。師指拜席云。見麼。云見。師云。又道不會。

復云。太近也。因甚麼不會。僧罔措。師云。只為分明極。翻令所得遲。

師室中問僧。巖頭纔跨德山門。便問。是凡是聖。山便喝。頭便作禮。意作麼生。僧云。好箇消息。師云。那裏是好處。僧便喝。師云。爾這一喝。未有主在。出去。

師問僧。不是心。不是佛。不是物。爾作麼生。僧云。領。師云。領爾屋裏七代先靈。僧便喝。師云。適來領。如今喝。干他不是心不是佛不是物。甚麼事。僧無語。師便打。

師問僧。路逢達道人。不將語默對。時如何。僧珍重便行。師呵呵大笑。

次一僧來。師云。我適來問這僧。路逢達道人。不將語默對。時如何。他珍重便行。爾道。他會不會。僧擬問訊。師便打出。

師問僧。不與萬法為侶者。是甚麼人。云無面目漢。師云。適來有箇師僧。如此道。打出去也。僧擬議。師便打。

師問僧。馬大師道。自從胡亂後三十年。不曾少鹽醬。意作麼生。云隨家豐儉。師云。好箇隨家豐儉。只是爾不會。僧擬議。師便喝出。

師問僧。香巖上樹話。爾作麼生。僧云。好對春風唱鷓鴣。師云。虎頭上座道。樹上即不問。未上樹。請和尚道。又作麼生。僧云。

適來向和尚道了也。師云。好對春風唱鷓鴣。是樹上語。樹下語。僧無對。師便打。

師問僧。道不用修。但莫污染。如何是不污染底道。僧云。某甲不敢道。師云。汝為甚麼。不敢道。僧云。恐污染。師叫行者。將糞箕掃帚來。僧忙然。師便打出。

師見僧纔入門。便云。不是不是。出去。僧便出。師云。沒量大人。被語脉轉却。

又一僧入門。師亦云。不是不是。出去。僧却近前。師云。向爾道不是。更來覓箇甚麼。便打出。

復有一僧入門。云適來二僧。不會和尚意。師低頭。噓一聲。僧罔措。師打云。却是爾。會老僧意。

師問僧。一切智智清淨。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爾作麼生會。云一切智智清淨。無二無二分。無別無斷故。某甲只恁麼會。師高聲云。抱取猫兒來。僧無語。師便喝出。

師問僧。我前日。有一問。在爾處。爾先前日。答我了也。只今因甚麼瞌睡。僧云。如是如是。師云。道甚麼。僧云。不是不是。師連打兩棒云。一棒打爾如是。一棒打爾不是。

師見僧纔入門。便云。爾不會。出去。僧便出。

又一僧來。師亦云。爾不會。出去。僧亦出。

復有一僧來。師云。適來兩箇上座。一人解収不解放。一人解放不解放。爾還辨得出麼。云一狀領過。師云。領過後如何。僧拍手一下。便出去。師云。三十年後。悟去在。

師見僧入門。便云。釋迦老子來也。僧近前。師云。元來不是。便打。

次一僧來。師亦云。釋迦老子來也。僧問訊便行。師云。恰似真箇。

師問僧。香巖上樹話。爾作麼生。僧撒手便行。師云。爾擬那裏去那。僧無語。師便打。

師問侍者。許多人入室。幾人道得著。幾人道不著。者云。某甲只管看。師展手云。我手何似佛手。者云。天寒。且請和尚通袖。便行。師打一棒云。且道。是賞爾。是罰爾。

僧請益。不知某甲死。向甚麼處去。師云。爾即今是生耶死耶。僧云。生也不道。死也不道。師云。爾做得漸源奴。僧擬議。師便打出。

又一僧來。師云。適來這僧。納一場敗闕。爾還知麼。僧云知。師亦打出。

僧請益。夾山境話。聲未絕。師便喝。僧忙然。師云。爾問甚麼。僧擬舉。師連打喝出。

僧請益。某甲參禪不得。病在甚麼處。師云。病在這裏。云某甲為甚麼。參不得。師云。開眼尿床漢。我打爾去。

### 明州阿育王山端裕禪師(凡六)

紹興府。錢氏子也。示眾云。一法若有。重重鐵壁銀山。萬法若無。處處沉空滯寂。己眼若正。見刺亦除。一法不墮緣塵。萬法本無罣礙。山是山水是水。俗是俗僧是僧。不異不同。直饒恁麼。猶是閉門造車。未是出門合轍。更須知有頂王一著。作麼生明。今古團欒無縫罅。大力那羅擘不開。

示眾云。行時絕行跡。說時無說縱。行說若到。則垛生招箭。行說未明。則神鋒劃斷。就使說無滲漏。行不迷方。猶滯殼漏在。若是大鵬金翅。奮迅百千由旬。十影神駒。馳驟四方八極。不取次啗啄。不隨處埋身。且總不依倚。還有履踐分也無。剎剎塵塵是要津。

示眾。舉南泉道。老僧十八上。便解作活計。趙州道。我十八上。便解破家散宅。還會麼。作活計底。始解破家散宅。破家散宅底。始解作活計。假使黃金為城。白銀為壁。禪悅為食。解義為漿。本色衲子。不肯回顧。何也。豈不見道。明眼漢沒窠臼。縱饒萬里空寥寥。正好一槌俱搥碎。且道。不落進修一句。作麼生道。良久云。樗蒲若識本面采。儘教骰子滿盤紅。擊拂子一下。

示眾云。未恁麼時。一句子。超釋迦越彌勒。及乎明破。不直半分文。何也。只為見慣。若裁方就圓。如虎頭帶角。龍背插翼。為瑞為祥。若平榻榻地。睡來合眼。飯來開口。且道裁方就圓即是。平榻榻即是。還辨得出麼。直饒辨得。也是盃脫丘。

示眾云。盡大地是沙門眼。盡大地是自己光。為甚麼。東弗于逮打鼓。西瞿耶尼不聞。南瞻部州點燈。北鬱單越黑暗。直饒向箇裏。道得十全。猶是光影活計。以拂子搥云。百雜碎。作麼生是出身一路。若果不見隨路摘楊花。

示眾云。一鎚便成。不是性燥漢。一躍千里。不是汗血駒。鋒鋌不露。無孔鐵鎚。八面玲瓏。多虛少實。直須肘後懸夜明符。頂門具金剛眼。徹頭徹尾。生殺交馳。任他魔佛現前。便好利刀截却。且道。據箇甚麼。便如此。要知麼。玉霸輕提海嶽昏。

### 平江府虎丘隆禪師(凡四)

示眾云。豁開戶牖。萬里不挂片雲。杲日騰空。四顧清風滿座。湖光浩渺。野色澄明。萬象森羅。全彰海印。直得頭頭妙用。物物真

機。心境一如。纖塵不立。正恁麼時。萬機休罷。千聖不携。坐斷毗盧頂。不稟釋迦文。婢視聲聞。奴呼菩薩。德山臨濟。直得日瞪口呿。有棒有喝。一點也用不得。且道。忽遇其中人來時。如何話會。傾蓋相逢元故舊。何妨來喫趙州茶。

示眾云。目前無法。萬象森然。意在目前。突出難辨。不是目前法。觸處逢渠。非耳目之所到。不離見聞覺知。雖然如是。也須是踏著他向上關楨子。始得。所以道。羅籠不肯住。呼喚不回頭。佛祖不安排。至今無處所。如是則不勞斂念。樓閣門開。寸步不移。百城俱到。驀拈拄杖。劃一劃云。路逢死虵莫打殺。無底籃子盛將歸。

示眾云。光非照境。境亦非存。光境俱忘。復是何物。百草頭上罷却干戈。則且置。忽若嘉州大像。倒騎陝府鐵牛。把須彌山。一擗百雜碎。新羅國裏走馬。南瞻部洲說禪。又作麼生。五臺山上雲蒸飯。佛殿堦前狗尿天。剎竿頭上煎鎚子。三箇猢猻夜簸錢。

示眾云。凡有展托。盡落今時。不展不托。墮坑落塹。直饒風吹不入。水洒不著。撿點將來。自救不了。豈不見道。直似寒潭月影。靜夜鍾聲。隨扣擊以無虧。觸波瀾而不散。猶是生死岸頭事。拈拄杖。劃一劃云。劃斷古人多年葛藤。點頭石。不覺撫掌大笑。且道。笑箇甚麼。腦後見腮。莫與往來。

### 台州護國景元禪師(凡五)

溫州樂清張氏子。師謁圓悟於蔣山。因二僧閱死心錄。有云。既迷時。須得箇悟。既悟。須識悟中迷。迷悟雙忘。却從無言處。建立一切法。師心非之。拂袖而起。行數步。忽然冥契。走告圓悟。悟印其所解。

後辭悟。悟問。向去有人。問爾。作麼生。師撫傍僧背云。和尚問。爾何不祇對。悟大笑。

後開法處州南明。終于本山。

示眾云。釋迦不會道。達磨不會禪。列祖無機關。衲僧沒巴鼻。是則是。作麼生承當。若向這裏承當得去。佛法世法。打成一片。十二時中。不移易一絲毫。其或未然。莫守寒巖異草青。坐著白雲宗不妙。

示眾。舉拂子云。大眾。還見麼。擊碎銀山鐵壁。掀翻虎穴魔宮。截斷佛祖機關。拂盡諸方路布。直得德山却步。臨濟吞聲。天下衲僧。不敢喘氣。縱饒睦州親自入門。頂[寧\*頂]也還一筭。且道。連雲節角。在甚麼處。還知麼。若到諸方。切忌錯舉。

示眾云。野狂鳴。獅子吼。開得眼。張得口。動南星。蹉北斗。大眾。還知落處麼。金剛堦下蹲。神龜火裏走。  
僧問。如何是臨濟宗。師云。殺人活人不眨眼。云如何是雲門宗。師云。頂門三眼曜乾坤。云如何是溈仰宗。師云。推不向前。約不向後。云如何是法眼宗。師云。箭鋒相敵不相饒。云如何是曹洞宗。師云。手執夜明符。幾箇知天曉。

## 建康蔣山佛鑑慧勲禪師法嗣

### 韶州南華知炳禪師(凡八)

蜀人也。久隨佛鑑。盡得其奧妙。初住舒之天平。終于本山。  
上堂云。釋迦不曾出世。亦無一法示人。達磨不在少林。二祖何嘗得髓。以至諸方老宿。天下宗師。或棒喝縱橫。或言詞縝密。各各開張義路。建立門風。大似畫餅充飢。蒸沙作飯。縱經塵劫。徒自疲勞。諸人幸是無事人。輒不可造次承當。容易領解。金屑雖貴。落眼成翳。南華今日。早是犯鋒傷手了也。還有別機宜。識休咎底麼。直饒便領解得去。也是不啣[口\*留]漢。畢竟如何即是。若具爍迦羅眼者。三千里外見謗訛。

上堂云。諸法不自生。亦不從他生。不共不無因。是故說無生。無生之法。性本自空。眾生橫計。流轉生死。是以從上佛祖。出興於世。擊大法鼓。演大法義。欲令眾生。脫彼妄情。背塵合覺。若也頓除妄宰。空不生花。漸竭愛源。金無重鑛。如今法鼓已擊。卓拄杖一下云。大義已演。還有委悉底麼。本自無瘡。勿傷之也。

上堂云。十五日已前事。三世諸佛說不到。十五日已後事。一大藏教詮不及。正當十五日。猶如倚天長劍。誰敢當鋒。峭壁懸崖。那容措足。直得心無所緣。目無所覩。耳無所聽。口無所言。猶未得一片在。到這裏。如何即是。逢人且說三分話。未可全拋一片心。

上堂云。即心即佛。認奴作郎。非心非佛。斬頭覓活。總不恁麼。困魚止瀨。病鳥棲蘆。別有機關。避得風雷。重遭霹靂。且道。太平為人。在甚麼處。若也知得。喚鹽聞鹹。喫醋聞酸。若也不知。布袋裏老鷄。雖活如死。

上堂云。日日說。時時舉。似地擎山爭幾許。隴西鸚鵡得人憐。大都只為能言語。休思惟。帶伴侶。智者聊聞猛提取。更有一般也大奇。貓兒偏解捉老鼠。

上堂云。泡幻同無礙。如何不了悟。達法在其中。非今亦非古。諸人者。四大五蘊是泡幻。見聞覺知是泡幻。十二處。十八界。二十五有。山河大地。有情器世間。無不是泡幻。那箇是無礙。若也見

得。方知道。終日忙忙。那事無妨。苟或未然。易尋溪上路。難覓洞中天。

上堂云。五目莫覩其容。二聽絕聞其響。古人恁麼道。殊不知。語之不全。旨之有缺。五目莫覩其容。舉起拂子云。有眼者盡見。爭得不覩其容。二聽絕聞其響。復擊禪床云。有耳者盡聞。爭得不聞其響。不聞不見。何異盲聾。既聞既見。憑何旨的。不觸波瀾招慶月。動人雲雨鼓山雷。下座。

上堂云。迷不自迷。對悟立迷。悟不自悟。因迷說悟。所以悟為迷之體。迷為悟之用。迷悟兩無從。箇中無別共。無別共。撥不動。祖師不將來。鼻孔千斤重。

### 舒州龍門清遠禪師法嗣

#### 福州鼓山士珪禪師(凡五)

西蜀人也。示眾云。一向恁麼去底人。喚不回頭。脚跟下。已喫三十棒了也。一向恁麼來底人。把捉不住頂門上。更與一錐。新天寧。因病識病。所以用榻出榻。須是恁麼人始得。還委悉麼。劔為不平離寶匣。藥因救病出金瓶。

示眾云。明明無悟。有法則迷。諸人向這裏立不得。諸人向這裏住不得。若立即差。若住即瞎。須是意不停玄。句不停意。用不停機。三者既明。一切處不用管帶。自然現前。一切處不用照顧。自然明白。雖然如是。須知有向上事始得。遂召大眾云。如何是向上事。乃云。久雨不晴。喝一喝。

示眾云。用機鋒。守癡兀。依理智。住玄默。坐在窠窟裏。縱饒不用機鋒。不守癡兀。不依理智。不住玄默。也未出得窠窟在。諸人作麼生。出得窠窟去。良久云。修羅捧日遮天面。忿怒那吒撲帝鍾。喝一喝。

示眾云。釋迦彌勒。猶是他奴。臨濟德山。是何草芥。向上一路。荊棘成林。更欲翻身。墮崖落壑。總不動著。當處活埋。生機臨時。却成亂統。與爾諸人。一時拈了也。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總不得。作麼生。良久云。穿耳胡僧葱嶺上。朝來踏雪馬蹄輕。

示眾云。真實本有之事。不可妄求。見成難信之宗。終無所得。爰自雪山付囑。雞足授衣。晝渡重溟。夜航一葦。皆緣上祖不了。殃及兒孫。汝等諸人。各各如初心出家。如初心行脚。直須自重。莫受人謾。異時足下煙生。也怪天寧不得。

## 饒州薦福道行禪師(凡七)

括蒼葉氏子。示眾云。佛說三乘十二分教。頓漸偏圓。癡人面前。不得說夢。祖師西來。直指人心。見性成佛。臨濟三玄。洞山五位。癡人面前。不得說夢。山僧恁麼道。還免諸方檢責也無。所以古人道。石人機似汝。也解唱巴歌。汝若似石人。雪曲也須和。還有和得底麼。若有。喚來。與老僧洗腳。

示眾云。通身是口。說得一半。通身是眼。用得一椽。用不到處。說有餘。說不到處。用無盡。所似道。當用無說。當說無用。用說同時。用說不同時。諸人若也擬議。老僧在爾腳底。

示眾云。會即便會。玉本無瑕。若言不會。確齧生花。試問九年面壁。何如大會拈花。南明恁麼商確。也是順風撒沙。

示眾云。學道人第一不得行理路。若行理路。走殺爾。學道人第一不得行意路。若行意路。縛殺爾。走殺則天上人間。縛殺則三願六臂。不走不縛。垛根阿師。隨處負墮。且道過在甚麼處。爾若撿點得出。許爾具通方眼。

示眾。舉璣和尚開僧。禪以何為義。眾下語。俱不契理。僧請益璣。璣代云。以謗為義。大眾。三世諸佛是謗。西天二十八祖是謗。唐土六祖是謗。天下老和尚是謗。諸人是謗。山僧是謗。於中還有不謗者也無。談玄說妙河沙數。爭似雙峰謗得親。

示眾云。釋迦掩室於摩竭。正令不從。拗曲作直。淨名杜口於毗耶。東家廝兒。却在西家。使喚須菩提。唱無說而顯道。一人傳虛。釋梵絕聽而雨花。萬人傳實。斯皆理為神御。故口以之而默。草裏出頭來。豈曰無辯。辯所不能言也。訝郎當漢。又恁麼去也。僧問。如何是和尚為人一句。師云。門前石塔子。

## 撫州白楊仙林禪寺法順禪師(凡七)

綿州魏城文氏子。依止佛眼數年。偶佛眼普說。舉傅大士心王銘云。水中鹽味。色裏膠青。決定是有。不見其形。師於言下有省。次日入室。眼問云。真佛住在何處。師云。住在不定處。眼云。既是真佛。為甚麼不定。師云。若定即非真佛也。眼頷之。自是日臻堂奧。名動叢林。

示眾云。諸仁者。山僧從來。不識好惡。向爾諸人道。究此一段大事因緣。已<sub>1</sub>是將惡水。澆在爾諸人頭上了也。見爾不曉。也事不獲已<sub>2</sub>。更舉拂擎拳。有不識好惡底衲僧。便踏步向前。以語句吟哦。舉頭拂子。殊不知。與爾自己<sub>3</sub>。了無交涉。爾何不向道理未成。意路未行已<sub>4</sub>前。道得一句子。穩密密地。莫快活仙林腸肚麼。非但日

消萬兩黃金。仙林長老。以身為床座。教上人說法度生。未為分外。

示眾云。雞啼曉月。狗吠枯椿。只可默會。難入思量。看不見處。動地放光。說不到處。天地玄黃。撫城尺六狀紙。元來出在清江。大眾。分明話出人難見。昨夜三更月到窓。

示眾云。我此堅密身。一切塵中見。具相三十二。豈可容方便。老鼠入禾倉。烏狗上佛殿。夜月帶重輪。曉雲拖素練。形容滿世間。少有人看見。若也見凡聖。悟迷成一片。

示眾云。見聞覺知之性。明暗色空之緣。是眾生根本之光明。乃諸佛離念之境界。迷此號為凡夫。證此謂之先覺。大眾。吾無見。滿目青山成一片。金烏飛上碧霄來。芳草岸頭花影轉。正當恁麼時。如何說箇無見底道理。於斯存見。非吾眷屬。畢竟如何。說箇無見底道理。具擇法眼者。試請辨看。

示眾云。粥後一覺睡。齋時一鉢飯。此外絕馳求。道業自成辨。只如打睡喫飯。却如何說箇道業成辨底道理。此是仙林。成就諸人打睡喫飯底因緣。爾若於斯領覽得去。打睡時。光明射四天下。喫飯時。光明射四天下。乃至一動一靜。一語一默。悉皆光明。射四天下。脫或未然。且莫錯會仙林語好。

示眾云。水洗溪邊石。風吹古殿幡。於斯知落處。何必在靈山。

## 潭州開福道寧禪師法嗣

### 潭州大漚善果禪師(凡三)

信州人也。示眾云。大凡參學之士。須參活句。莫參死句。活句下明得。可以權衡佛祖。顯正摧邪。覆育群生。賑濟孤露。若於死句下明得。依草附木。埋沒宗風。自救不可。且如何是活句。莫是路逢死蛇莫打殺。無底籃子盛將歸麼。莫是陝府鐵牛。吞却嘉州大像麼。莫是懷州牛喫禾。益州馬腹脹麼。莫是天台普請。南嶽上堂麼。莫是不露鋒骨句。未舉先分付麼。若如此。總是死句。且如何是活句。卓拄杖云。有情有理俱三段。一道神光射斗牛。

示眾云。心生法亦生。心滅法亦滅。心法兩俱忘。烏龜喚作鱉。諸禪德。道得也未。若道得。道林與爾拄杖子。其或未然。歸堂喫茶去。

僧問。久響月庵。及乎到來。庵又不見。月又不現。師云。老僧罪過。僧作禮。師云。作家作家。

## 南嶽下第十七世

## 前潭州大瀉法泰禪師法嗣

### 鼎州靈巖仲安禪師(凡五)

蜀人也。示眾云。參禪不究淵源。觸途盡為留礙。所以守其靜默。澄寂虛閑。墮在毒海。以弱勝強。自是非他。立人我見。量處偏枯。忽若能殺不能活。能活不能殺。則被物流轉。忽若殺活齊致。優劣不分。照不搆用。用不離窠。此乃學處不玄。盡為流俗。到這裏。須知有殺中透脫。活處藏機。佛不可知。祖莫能測。所以古人道。有時先照後用。且要共爾商量。有時先用後照。爾須是箇漢始得。有時照用同時。爾又作麼生抵當。有時照用不同時。又向甚麼處湊泊。還知麼。穿楊箭裏驚人句。不是臨時學得來。

師為佛性和尚。往蔣山圓悟和尚處。通法嗣書。悟於法堂上接書。問。千里持來。不辱宗風。公案見成。如何通信。師云。覲面相呈。更無回互。悟云。此是德山底。作麼生是山座底。師云。豈有第二人。悟云。背後底響。師便通書。悟云。作家禪客。師云。分付蔣山。

師到僧堂前。捧書。問訊首座(即蓬萊卿和尚)。座問。玄沙白紙。此自何來。師呈起書云。見麼。座引手接書。師縮却書云。久默斯要。不務速說。今日拜呈。幸希一覽。座便喝。師云作家。座又喝。師遂打一書。座擬接。師云。未明三八九。不免自沉吟。座無語。師又打一書云。接。

時圓悟。同佛眼。在法堂前見。悟云。打我首座死了也。眼云。官馬廝踢。有甚憑據。師聞。應聲云。甚麼官馬廝踢。正是龍象蹴踏。

悟喚師來云。我五百眾中首座。爾為甚打他。師云。和尚也好喫一頓始得。悟顧佛眼吐舌。眼云。未在。眼却問師。空手把鋤頭。步行騎水牛。人從橋上過。橋流水不流。爾作麼生會。師曲躬云。如上所供。並皆詣實。眼笑云。元來是屋裏人。

師至五祖自和尚處。通書。自問。書裏說甚麼事。師云。文彩已彰。自云。畢竟說箇甚麼。師云。當陽揮寶劍。自云。近前來。這裏不識數字。師云。莫詐敗。自顧侍者云。這箇是那裏師僧。者云。此首座。曾在和尚座下去。自云。怪得與麼骨頭。師云。曾被和尚鈍置來。自將書於香爐上薰云。南無三滿馱。沒多南。師近前。彈指而已。

### 潭州芙蓉清旦禪師(凡六)

蓬州儀巖嚴氏子。謁德山泰禪師。聞上堂。舉趙州云。臺山婆子。  
已為汝勘破了也。意在甚麼處。良久云。就樹摘將黃葉去。入山推出白雲來。師於言下釋然。

翌日入室。泰問。前百丈。不落因果。因甚墮野狐。後百丈。不昧因果。因甚脫野狐。師云。好與一坑埋却。泰復徵詰。著著脫穎。語皆不凡。

後又因看華嚴經。有云。破塵出經卷。師當下心境消融。聖凡情盡。不覺手舞足蹈者終日。泰舉立僧。名動一時。

示眾云。至真絕相。非相無以顯真。至理忘言。非言無以明道。所以理隨事變。遇緣即宗。事得理融。隨機應物。如雲出岫。似谷傳聲。要須物我雙忘。自然圓機普應。然後離名絕相。聲色純真。但盡凡情。別無聖解。

示眾云。見色明心。墮坑落壑。聞聲悟道。辜負平生。直饒聲色純真。塵塵入妙。坐在光影裏。未為究竟。直須萬機休罷。千聖不携。撒手那邊。跳出窠臼。到這裏。亦無人亦無佛。大千沙界海中漚。一切聖賢如電拂。且道。釋迦老子。向甚麼處出頭。良久云。放過一著。

示眾云。夜夜抱佛眠。朝朝還共起。起坐鎮相隨。語默同居止。分毫不相離。如身影相似。欲識佛去處。只這語聲是。

眾中不曉古人意。便認業識。以為心性。如乘破舡。以渡大海。如將畫餅。以飽飢腸。無有是處。須知我此門庭。深固幽遠。無人能到。若有到者。終日同門出入。各不相知。終日共箇舌頭。各不相識。同中有異。異中有同。同異不相知。步步無前後。若能如是。即色即心。即人即佛。山花開似錦。徧界不曾藏。澗水湛如藍。通身無影像。直饒恁麼。墮在死水中。且轉身一句。作麼生道。龍向洞中啣雨出。鳳從花裏帶香歸。

示眾云。一葉落天下秋。一塵舉大地收。智者聊聞猛提取。莫待須臾失却頭。且道。是那箇一塵。明眼漢沒窠臼。纔聞舉著。拈來便使用。不撥一塵。糞掃堆頭。現丈六金身。不撥一境。向螻蛄眼裏。開張世界。隱在一塵中。使天下人。不見蹤跡。向一塵中。移身換步。換却天下人眼睛。所以道。靈鋒寶劍。常露現前。有時出就。佛祖不存。文殊普賢。也須貶向鐵圍山下。有時入就。風清月白。狸奴白牯。直入蓮花座間。且不出不入時。如何施設。良久云。

咩。泊乎打破蔡州。

示眾云。說佛說祖。正如好肉剜瘡。舉古舉今。猶是殘羹餽飯。一聞便悟。已落第二頭。一舉便行。早是不著便。須知箇事。如天普蓋。似地普擎。師子游行。不求伴侶。力士伸臂。不借他力。佛祖

拈掇不起。衲僧願見無門。迷悟雙忘。聖凡路絕。且道。從上諸聖。以何法示人。咄。莫妄想。僧問。至道無難。唯嫌揀擇。時如何。師云。河水從源濁。

## 臨安府徑山宗杲禪師法嗣

### 福州西禪鼎需禪師(凡七)

本州長樂林氏子。本老儒業。旬休日。入僧寺。見遺教經。戲看數板。忽然有省。遂辭親祝髮。一錫湖湘。凡叢林有聲者。例造參扣。法無異味。如水乳合。眼空諸方。無可意者。遂歸桑梓。結茅於羗峰絕頂。不畜童僕。唯一繩床。客至。席地而已。不下山者三年。

大乘佛心才禪師。屢邀不出。後修書責之曰。夫出家兒。既得安樂處。宜弘通大法。以報佛恩。厭喧求靜。獨善其身者。豈智人達士乎。力挽之。既出首眾大乘。嘗問學者。即心即佛因緣。時妙喜庵于洋嶼。師之友彌光。與師書云。庵主手段。與諸方別。可來少款。如何。師笑而不答。光以計。邀師飯。師往赴之。纔及門。會妙喜。為諸徒入室。師隨喜焉。妙喜問。僧問處祖。如何是佛。祖云。即心是佛。作麼生。師下語。妙喜诘之曰。爾見解如此。敢妄為人師耶。鳴鼓普說。揭其平生珍重得力處。排為邪解。師淚交頤。不敢仰視。默計曰。我之所得。既為所排。西來不傳之旨。豈止於是耶。遂歸心弟子之列。

一日妙喜問師。內不放出。外不放入。正恁麼時如何。師擬開口。妙喜拈竹篋。劈脊連打三下。師於此大悟。戾聲云。和尚已多了也。妙喜又打一下。師作禮。妙喜笑云。汝今日方知道。吾不汝欺也。遂印以偈云。頂門豎亞摩醯眼。肘後邪懸奪命符。瞎却眼卸却符。趙州東壁挂葫蘆。

於是名動叢林。

示眾云。句中意。意中句。須彌聳于巨川。句刻意意刻句。烈士發乎狂失。任待牙如劍樹。口似血盆。徒逞辭鋒。虛張意氣。所以淨名杜口。早涉繁詞。摩竭掩關。已揚家醜。自餘瓦棺老漢。巖頭大師。向羗峰頂上。拏風鼓浪。翫弄神變。脚跟下好與三十且道。過在甚麼處。良久云。機關不是韓光作。莫把芻襟當等閑。

示眾云。奔流度刃。未是作家。疾燄過風。猶為鈍漢。所以蹙指悟道。重益瘡疣。擊竹忘知。一場瞞[目\*董]。縱饒伎倆俱盡。氣息全無。點檢將來。直是未在。向上一路。千聖不傳。學者勞形。如

猿捉影。既是不傳。達磨一宗。因甚到于今日。喝一喝云。切忘認驢鞍橋。作阿爺下頷。

示眾云。太虛挂劍。用顯吾宗。按坐神威。如何近傍。縱具回天轉地。電卷星馳底手段。要且不堪勅敵。而今莫有別休咎者麼。便請出來相見。如其稍遲涉回。一鎚直教粉碎。喝一喝。

示眾云。承言易墜。滯句轉迷。坐却舌頭。別須有眼。假饒知有。不是俊流。攢眉却回。未為性燥。翻然一擲。騰過太虛。只這威稜。誰敢覷著。汝纔目顧他位。腳踏他門。盡是影響不真。狐狸戀屈。一鎚粉碎。未稱平生。不見道。欲知此事。直須揮劍。若不揮劍。漁父棲巢。正恁麼時。如何即是。良久云。將此深心奉塵刹。是則名為報佛恩。

至節示眾云。二十五日巳前。群陰消伏。泥龍閉戶。二十五日巳後。一陽來復。鐵樹開花。正當二十五日。塵中醉客。騎驢騎馬。前街後街。迎相慶賀。物外閑人。衲帔蒙頭。圍爐打坐。風蕭蕭雨蕭蕭。冷湫湫。誰管爾張先生。李道士。胡達磨。

示眾云。橫按鎚錘。虛張意氣。穿開鐵壁。徒費精神。直饒不動神鋒。坐致太平。堯舜之君。猶有化在。

### 福州龜山彌光禪師(凡七)

本州人也。徧歷叢林。後謁妙喜。平生所得。五技而窮。凡半年。無啟口處。

一日入室。妙喜問。喫粥了也。洗鉢盂了也。燒香行道了也。去却藥忌。道將一句來。師云。裂破。妙喜色莊云。又來這裏。說禪那。師於言下大悟。徧體汗下。遂作禮。妙喜以偈印之云。龜毛拈得笑哈哈。一擊萬重關鎖開。慶快平生是今日。孰云千里賺吾來。師亦作投機頌云。輕輕一拶怒雷吼。驚起法身藏北斗。洪波浩渺浪滔天。拈得鼻孔失却口。

後開法泉之教忠。終于本山。

示眾云。雨霽雲收。巖巒聳翠。風和日暖。殿閣生春。梁間乳燕語關關。原上天桃紅灼灼。最好是靈雲一見。自謂平生不疑。玄沙聞來便道。深談實相。二老漢。具頂門眼。有肘後符。檢點將來。未免尋聲逐色。且道。透脫一句。又作麼生。還委悉麼。乍雨乍晴寒食節。半明半暗禁煙天。

示眾云。月生一。一言勘破維摩詰。月生二。百草頭邊恣遊戲。月生三。白牯狸奴解放憨。放行則錦上添花。把住則真金失色。敢問大眾。把住好。放行好。良久云。深秋簾幕千家雨。落日樓臺一笛風。

示眾云。有句無句。如藤倚樹。師云。放憨作麼。及乎樹倒藤枯。句歸何處。情知爾諸人。卒討頭鼻不著。為甚如此。只為分明極。翻令所得遲。

示眾。拈起拄杖。卓一卓。喝一喝云。不是坐來頻勸酒。自從別後見君稀。

示眾云。夢幻空花。何勞把捉。得失是非。一時放却。遂擲下拂子云。山僧今日。已是放下了也。汝等諸人。又作麼生。遂喚侍者云。收取拂子。

僧問。見與師齊。減師半德。見過於師。方堪傳授。只如見與師齊。為甚麼。却減師半德。師云。我不可參雲門禪不得。云見過於師。方堪傳授。未審傳箇甚麼。師云。莫謗他好。

### 福州東禪思岳禪師(凡三)

本州人也。示眾云。啞却我口。直須要道。塞却爾耳。切忌蹉過。昨日有人。從天台來。却道。泗洲大聖。在洪州。打坐十字街頭。賣行貨。是甚麼。斷跟草鞋。尖簷席帽。

師問僧。甚處來。云黃檗來。師云。黃檗有何言句。云某甲到這裏。一時忘却。師云。上座豈不是黃檗來。云是。師云。又道忘却。僧擬議。師便喝出。

師問僧。道人相見時如何。云更無餘事。師云。趙州道呈漆器。又作麼生。僧便喝。師云。爾道無餘事。又喝作麼。僧擬議。師便打云。莫道無餘事好。

### 福州西禪守淨禪師(凡四)

示眾云。未到雲門。不免岐路波吒。前不至村。後不至店。及乎到來。又須透出始得。若不透出。坐在裏許。前面毒蛇成群。背後猛虎無數。頭上火是迸散。脚下劒戟森然。而今一眾。盡在裏許。眉毛相似。眼孔一般。誰是透出者。誰是透不出者。明眼高人。試為雲門指出。貴圖一夏在此。亦不虛過。儻或不爾。還我九十日飯錢來。

示眾云。善鬪者。不顧其首。善戰者。必獲其功。其功既獲。坐致太平。太平既致。高枕無憂。罷拈三尺劒。休弄一張弓。歸馬于華山之陽。放牛于桃林之野。風以時而雨以時。漁父歌而樵人舞。雖然如是。堯舜之君猶有化在。爭似乾坤収不得。堯舜不知名。渾家不管興亡事。偏愛和雲占洞庭。

示眾云。閉却口。時時說。截却舌。無間歇。無間歇。最奇絕。最奇絕。眼中屑。既是奇絕。為甚麼。却成眼中屑。了了了時無可了。玄玄玄處亦須呵。

示眾。舉教中道。佛滅度後。其為善知識者。總是見佛來。後來歸宗和尚道。其為善知識者。不可容易。所覩善知識者。亦不可輕慢。

師云。歸宗恁麼道。恰似新婦怕阿家。未免隨他舌頭轉。殊不知。其為善知識者。只是箇瞎漢。所覩善知識者。如宿世冤[冗-几+豕]。便好剗却眼睛掀却腦蓋。雖然如是。未足酬恩。

### 建寧府開善道謙禪師(凡八)

本府人也。初之京師。謁圓悟禪師。無所省發。後隨妙喜庵居泉南。妙喜領徑山。師亦侍行。未幾。令師往長沙。通紫巖居士張丞相書。師自謂。我參禪二十年。無入頭處。更作此行。決定荒廢。意欲無行。友人宗元者。叱曰。不可在路。便參禪不得也。去吾與汝俱往。師不得已而行。在路泣。謂元曰。我一生參禪。殊無得力處。今又途路奔波。如何得相應去。元告之曰。爾但將諸方參得底。悟得底。圓悟妙喜。為爾說得底。都不要理會。途中可替底事。我盡替爾。只有五件事。替爾不得。爾須自家知當。師云。五件者何事。願聞其要。元云。著衣。飯喫。屙屎。送尿。駝箇死屍。路上行。師於言下領旨。不覺手舞足蹈。

元復告之曰。爾這回方可通紫巖書。汝可前進。吾當歸矣。元即皈徑山。

師到長沙。留半載。

秦國太夫人。日常看經。因問師云。徑山和尚。尋常如何教人參禪。師云。和尚令人屏去雜事。唯看。僧問趙州。狗子還有佛性也無。州云無。又僧問雲門。如何是佛。門云乾屎橛。但一切時。一切處。頻頻提撕看。以悟為則。國太。欲辨此事。宜輟看經。專一體究。始得。國太依教。未及月餘。俄有省發。作偈云。逐日看經文。如逢舊識人。勿言頻有礙。一舉一回新。

師告回。及徑山。妙喜策杖門待。一見而喜曰。建州子。爾這回別也。於是日益玄奧。後出世玄沙。遷建寧開善。而終老焉。

示眾云。祖師門下。本分提綱。任是明眼衲僧。到此罔知所措。假使十方剗海。塵沙如來。同時出現。現無量神通光明。發無窮辨才智慧。總用一點不著。直得心機泯絕。凡聖無蹤。如萬仞壁立懸崖。一切人無湊泊處。便恁麼去。盡法無民。到這裏。事不獲已。通一線道。故先聖謂之脫珍御服。著弊垢衣。回首塵勞。曲開方

便。所以達磨大師。從西土來。抑下無限威光。向少林面壁九年。守株待兔。更有箇神光座主。不識好惡。立雪齊腰。自斷左臂。達磨乃問。爾立雪斷臂。當為何事。光云。某甲心未寧。乞師安心。達磨云。將心來。與汝安。光良久云。覓心了不可得。達磨云。與汝安心竟。啞。好鈍置殺人。當時何不捩轉面皮。教這老漢。一場懺懺。可惜放過。直至如今。令人扼腕。

後來又問。汝自見吾。得箇甚麼。光禮拜。依位而立。便搽糊他道。汝得吾髓。轉見不堪。自此一人傳虛。萬人傳實。喚作傳法救迷情。一例墮他野狐窟裏。更無一箇。軒昂特立。不受人謾。獨脫底大丈夫。只今莫有恁麼人麼。有則出來。對人天眾前。分明吐露。一任飛當激電。奪鼓攙旗。也要為舟為梁。為龜為鑑。庶不辜檀越今日。請山僧出世。而山僧亦不虛出來施設。彼此利益。豈不快哉。有麼有麼。如無。且看拄杖子。逞神通去也。驀拈拄杖。卓一下云。莫怪從前多意氣。他家曾踏上頭關。

示眾云。竺土大僊心。東西密相付。如何是密付底心。良久云。八月秋何處熱。

示眾云。德山入門便棒。大似傍若無人。臨濟入門便喝。也是乾氣脹。俱抵一生。只豎箇指頭。蝦跳何曾出得斗。雪峰毳毬。禾山打鼓。祕魔擎杖。道吾作舞。盡是小兒戲劇。自餘之輩。故是熱大不緊。且畢竟如何。花須連夜發。莫待曉風吹。

示眾云。擬則喪。動則乖。不擬不動。又似箇無孔鐵鎚。有甚麼提掇處。到這裏。須是咬猪狗底手脚。爾不見。臨濟侍立德山。山云。今日困。濟云。這老漢。寐語作麼。山擬拈棒。濟便掀倒繩床。

爾看。他兩箇老作家。等閑蕩蕩地。鋒鋦不露。忽然觸著。便如草窠裏大蟲。突然地。誰敢近著。近著則喪身失命。所以道。據虎頭收虎尾。第一句下明宗旨。敢問大眾。且道。虎頭作麼生據。虎尾作麼生收。把甚麼。為第一句。以何為宗旨。作家漢。不要囊藏。試對眾吐露看。如無。山僧自道去也。驀拈拄杖。卓一下云。峰頭有眼明如日。要識真金火裏看。

示眾云。壁立千仞。三世諸佛。措足無門。是則是。太殺不近人情。放一線道。十方剎海。放光動地。是則是。爭柰和泥合水。須知通一線道處。壁立千仞。壁立千仞處。通一線道。橫拈倒用。正按傍提。電激雷奔。崖頽石裂。是則是。猶落化門。到這裏。壁立千仞。也沒交涉。通一線道。也沒交涉。不近人情。和泥合水。總沒交涉。只這沒交涉。也則沒交涉。是則是。又無佛法道理。若也出得這四路頭。管取乾坤獨步。且獨步一句。作麼生道。莫怪從前多意氣。他家曾蹈上頭關。

示眾云。說佛說法。誑惑盲聾。論性論心。自投陷穽。行棒行喝。倚勢欺人。瞬目揚眉。野狐精魅。總不與麼。大似揚聲止響。別有奇特。也是望空啟告。畢竟如何。白雲盡處是青山。行人更在青山外。

結夏示眾云。把住世界。不漏絲毫。坐斷要津。豈通凡聖。開諸佛出世。說法度人。天雨四花。地搖六震。當甚麼熱盃鳴聲。見天下宗師。大機大用。電卷風旋。雲行雨施。如夢相似。說甚麼安居禁足。結制護生。謹守蠟人。無繩自縛。料掉沒交涉。直饒到此境界。方喚作衲僧。平常行履處。未是宗門向上事。且作麼生是宗門向上事。欲言言不及。林下好商量。

聯燈會要卷第十七

南嶽下第十七世  
臨安府住山宗杲禪師法嗣下

江州東林道顏禪師(凡十二)

蜀人也。久參圓悟。一日商確古今。師每當仁不讓。悟喝云。爾參禪。不求正悟。只管信口亂道作麼。師不覺汗下。歸堂坐禪。徹夜不寐。忽然猛省。不覺失笑。

次日復見圓悟。議論鋒發。略無疑滯。悟即點頭。師云。昨日亦如此祇對。和尚為甚麼不肯。今日亦如是。又却點頭。悟叱曰。癡漢。爾昨日雜妄想心也。師作禮云。元來釋迦老子。無神通也。師待圓悟游山。見園頭。燒糞煙起。悟問。煙從甚處起。師云。從糞堆頭起。

悟休去。悟歸寂。師復依妙喜。徹證闡域。首眾徑山。名徧叢林。示眾云。祖師巴鼻。列聖鉗鎚。驅耕夫牛。奪飢人食。眈眈虎視。凜凜全威。如商君法。如孫武令。有死無犯。除非久戰沙場。嗅土知機。望風決勝。識進退存亡者。聊通一線。若是己眼未開。以蝦為目者。只了趨隊喫飯。無自由分。如今莫有當陽定奪底衲僧麼。山僧性命。盡在諸人手裏。

示眾云。法無定相。理絕去來。道無古今。體離生滅。若離生滅去來。趣向法道。何異緣木求魚。捕風繫影。諸人欲識道法根源。便是生死根本。還委悉麼。河裏失錢河裏攏。

示眾云。一塵纔舉。大地全収。新羅國裏打鐵。火星飛燒著雲門脚指頭。則且置。眉毛在眼上。為甚麼不見。眾中多口阿師。被這一問。便須亡鋒結舌。直饒雲門見得。亦須口似磔盤。或有問卮庵。又且如何。良久云。理合如是。

示眾云。向上一竅。八面玲瓏。覲面一機。全身擔荷。是則金鑰難掩。非則玉石俱楚。擬議不來。銀山粉碎。總不恁麼。又且如何。是非不挂娘生口。自有傍人話短長。

示眾云。萬物始於生生。生者無生。變化非於始始。始者無始。然則無生無始。物之性也。萬物有性情。古今有死生。死故因於生。生故因於情。情積不休。生死流注。是以如來出世。演萬行之因花。祖師西來。喝一乘之妙法。根性猛利。靈覺獨存底。坐斷報化

佛頭。以蝦為目。借人鼻孔出氣底。未免生死海裏。頭出頭沒。是故名為可憐憫者。

示眾云。圓通門戶。八字打開。若是從門入得。不堪共語。須是人得無門之門。方可坐登堂奧。所以道。過去諸如來。斯門已成就。現在諸菩薩。今各入圓明。未來參學人。當依如是法。從上諸聖。幸有如此廣大門風。不能繼紹。甘自鄙棄。穿窬墻壁。好不丈夫。敢問大眾。無門之門。作麼生入。良久云。非唯觀世音。我亦從中證。

示眾云。牀窄先臥。粥稀後坐。熱即取涼。寒即向火。捨得哭寒山笑。莫道無事好。

示眾云。法無定相。遇物斯形。事無固必。功成不宰。有時風高寥廓。不可得而親疎。有時屈已伸他。不可得而翫狎。恁麼則易。不恁麼則難。世法佛法。俱成戲論。須知老僧。不在這裏。且道。在甚麼處。披蓑側立千峰上。引水澆蔬五老前。

僧問。如何是佛。師云。誌公和尚。云某甲問佛。和尚為甚麼。答誌公和尚。師云。誌公不是閑和尚。

云如何是法。師云。黃絹幼婦。外甥蠶白。云意旨如何。師云。絕妙好辭。云如何是僧。師云。釣魚缸上謝三郎。

云如何不直說。云玄沙和尚。云向上還更有事也無。師云。王喬詐仙得仙。僧呵呵大笑。師乃扣齒。

僧問。香巖上樹話。意旨如何。師云。描不成畫不就。云李陵雖好手。爭免陷番身。師云。甚麼處去來。

### 饒州薦福道本禪師(凡五)

江州人也。示眾云。高揖釋迦。不拜彌勒者。與三十拄杖。何故。為他只會步步登高。不會從空放下。東家牽犁。西家拽把者。與三十拄杖。何故。為他只會從空放下。不會步步登高。山僧恁麼道。還有過也無。眾中莫有檢點得出者麼。若檢點得出。須彌南畔。把手共行。若檢點不出。布袋裏老鴉。雖活如死。

示眾。舉肇法師道。諸法無異者。不可續覺截鶴。移嶽盈壑。然後為無異者哉。師云。僧堂穿過厨庫。佛殿走出三門。拽占波共新羅鬪額。雲門扇子[跳-兆+孛]跳。上三十三天。[祝/土]著帝釋鼻孔。東海鯉魚。打一棒。兩似盆傾。且道。是異無異。良久云。用盡自己心。笑破他人口。

示眾云。千峰頂上一句子。十字街頭不知。十字街頭若知。便是千峰頂上。十字街頭一句子。千峰頂上莫測。千峰頂上若測。便是十字街頭。恁麼也得。不恁麼也得。恁麼不恁麼。總得。然後種田博

飯。拽把牽犁。混俗和光。拖泥帶水。正當恁麼時。且道。到家一句。作麼生道。良久云。一堂風冷淡。千古意分明。  
示眾云。當頭坐斷。未解轉身。踏步向前。脚跟蹉過。直下漆桶子脫去。馬簸箕。三十年。不少鹽醬。是甚熱盃鳴聲。老趙州。十八上。便解破家散宅。徒為戲論。雖然如是。不因一事不長一智。  
示眾云。善言言者。言所不能言。言既無言。終日言而未嘗言。善跡跡者。跡所不能跡。跡既無跡。終日跡而未嘗跡。譬如虛空。體非群象。而不礙諸相發揮。日出之時。明徧天下。而虛空未嘗明。日沒之時。暗徧天下。而虛空未嘗暗。如今忽有箇不受人謾底。聞恁麼說話。忍俊不禁。出來掀倒繩床。喝散大眾。向三千里外側足。威音那畔搖頭。視佛祖。如萬世仇讎。聞禪道。似千錐筍耳。豈不是有些衲僧氣息。雖然如是。要且只入得祖師門。未入得祖師室在。敢問大眾。且道。祖師室。畢竟作麼生入。還委悉麼。白雲乍可來青嶂。明月難教下碧天。

### 潭州大漚法寶禪師(凡三)

福州人也。示眾云。一句語具三玄門。一玄門具三要路。有玄有要孰得知八臂那吒擎鐵柱。擊拂子云。是玄門。是要路。若緇素得出。許爾。具衲僧正眼。其或未然。却為諸人指出。玉兔挨開碧海門。金烏飛上珊瑚樹。

示眾。舉肇法師道。言之者失其真。知之者返其愚。有之者乖其性。無之者傷其軀。大眾。古人一期方便。大似把髻投衙。抱賊叫屈。衲僧門下。千山萬水。且道。衲僧有甚長處。舉頭天外看。誰是箇中人。

示眾云。丫角女子雪滿頭。毗盧頂上倒騎牛。寒山拾得呵呵笑。不風流處也風流。雖然如是。且道。拾得寒山。笑箇甚麼。拈起拄杖云。還見麼。一片月生海。幾家人上樓。

### 明州阿育王佛照德光禪師(凡七)

臨江軍彭氏子。志學之年。依本郡南山光化寺。吉禪師。落髮。一日入室。吉問。不是心。不是佛。不是物。是甚麼。師罔措。遂致疑。通夕不寐。次日詣方丈請益。昨日蒙和尚垂問。既不是心。又不是佛。又不是物。畢竟是甚麼。望和尚慈悲指示。吉震威一喝云。這沙彌。更要我與爾。下注脚在。拈棒劈脊打出。師於是有省。

後謁月庵果。應庵華。百丈震。終不自肯。

適妙喜領育王。四海英材鱗集。師亦與焉。妙喜室中問師。喚作竹篋則觸。不喚作竹篋則背。不得下語。不得無語。師擬對。妙喜便棒。師豁然大悟。從前所得。瓦解冰消。

示眾云。臨濟三遭痛棒。大愚言下知歸。興化於大覺棒頭。明得黃檗意旨。若作棒會。入地獄如箭射。若不作棒會。入地獄如箭射。眾中商量。盡道。赤心片片。恩大難酬。總是識情卜度。未出陰界。且如臨濟悟去。是得黃檗力。是得大愚力。若也見得。許爾。頂門眼正。肘後符靈。其或未然。鴻福更為諸人。通箇消息。丈夫氣宇衝牛斗。一蹈鴻門兩扇開。

示眾。舉金剛經云。三世諸佛。及諸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法。皆從此經出。錯認定盤星。德山人門便棒。臨濟入門便喝。著甚死急。天下老和尚。拈鎚豎拂。瞬目揚眉。自屎不知臭。浮山冷地觀著。這一隊漢。敗闕不少。諸人若也知去。許他鼻孔遼天。若也未知。且莫雲居羅漢。

示眾。舉僧問靈樹。如何是祖師西來意。樹據坐。樹舉似雲門云。如何得一轉語。鐫上碑去。門云不難。遂代云師。後來白雲端師翁。頌云。師之一字太巍巍。獨向寰中定是非。畢竟水須朝海去。到頭雲定覓山歸。

山僧即不然。師之一字見還難。直下須教透祖關。縱使頂門開正眼。前頭更有萬重山。

示眾云。七手八脚。三頭兩面。耳聽不聞。眼覷不見。苦樂逆順。打成一片。且道。是甚麼。路逢死虵莫打殺。無底籃子盛將歸。

示眾云。聞聲悟道。落二落三。見色明心。錯七錯八。生機一路。猶在半途。且道。透金剛圈。吞栗棘蓬底。是甚麼人。披蓑側立千峰上。引水澆蔬五老前。

僧問。浩浩塵中。如何辨主。師云。巾峰頂上塔心尖。

### 福州雪峰崇聖普慈蘊聞禪師(凡二)

洪州沈氏子。久依妙喜。發明心要。後出世信州懷玉。遷福州幽巖雪峯。被旨。住臨安雙徑。再乞歸老于本山。

示眾云。大丈夫事。不要回頭轉腦。擬議則喪身失命。鄉關萬里。到這裏。象王行處。狐兔潛蹤。師子嘖呻。野干腦裂。釋迦彌勒猶是他奴。文殊普賢。權為小使。臨機應變。不失其宜。放去也。春花似錦。海晏河清。收來也。衲僧禍害。佛祖冤讎。敢問諸人。總不恁麼。落在什麼處。豎起拂子云。天人群生類。皆承此恩力。示眾云。拈花微笑。飯裏著砂。少室傳心。腦門中箭。行棒行喝。大膽麤心。舉古舉今。蝦蟇涎唾。修禪入定。活殯深埋。如斯舉

唱。哂者還多。具眼衲僧。一撥便轉。雖然如是。事無一向。案不空行。又道。殺人須是殺人刀。活人須是活人劍。殺人刀則不問。作麼生是活人劍。喝一喝。下座。

示眾云。旃檀叢林。旃檀圍繞。師子叢林。師子圍繞。虎狼叢林。虎狼圍繞。荊棘叢林。荊棘圍繞。大眾四種叢林。合向那一種叢林。安居好。若也明得。九十日內。管取箇箇成佛作祖。其或未然。般若叢林歲歲凋。無明荒草年年長。

### 建寧府。竹原庵主宗元(凡六)

本府連氏子。久隨妙喜。得旨之後。徑歸桑梓。結茆韜晦。諸方屢請不出。終于是庵。

示眾云。達磨西來。已成多事。二祖安心。一生受屈。後來乘虛接響。將謂多少禪道佛法。盡是迷頭狂怖。殊不知。古聖曲垂方便。事出急家。今時滿口道。隨意說。如之若何。盡是染污。兄弟不知。却謂是好。點頭嚙唾。若真實全體作用。却理會不得。蓋謂不曾證悟。不遇真善知識。向心意識裏。度。自謂百了千當。苦哉。可惜許。皮下還有血麼。老僧。只是箇喫飯屙屎底。老和尚。無一法與人。爾纔入門。便知爾端的。若是箇中人。如上將軍出陣。不顧危亡得失。決勝千里。把從上佛祖。蹈向脚跟下。一突突出。噯。天下人。不奈爾何。然後更須知有向上一竅子。若透頂透底。方得自由自在。若只得箇入頭處。使寶惜。坐在勝妙境界中。堪作甚麼。大丈夫漢。一等是踏破草鞋。須是大徹大悟。方能出生入死。如其毫髮不透。則十萬八千。古人云。轉凡成聖易。轉聖成凡難。如今凡聖難易。總不得動著。但一切時中。著精彩看。忽然撞著無面目漢。老僧罪過彌天。達磨二祖。隱身無地。

師垂語云。諸方為人。抽釘拔楔。解粘去縛。我這裏為人。添釘添楔。加繩加縛。送向深潭裏。侍地自理會。

師垂語云。參禪須是透徹這一著子。始得。悟了。大法不明者。固有之。大法雖明。脚跟下紅線子不斷者。比比皆是。諸方聞恁麼道。盡罵老僧云。既是大法明了。又安得脚跟下紅線子。也怪他不得。為渠欠這一解。儘教他疑著。

師垂語云。這一些子。恰如撞著殺人漢。相似。爾若不殺了他。他便殺了爾。

師垂語云。楞嚴經。有十種魔界。如今盡大地人。參禪更高。也出他不得。時有僧云。和尚落在第幾界。師云。和爾在裏許。僧云。某甲不入這保社。師云。驢漢。爾擬那裏去那。

## 平江府資壽尼妙總禪師(凡五)

師徧參諸大老。後謁妙喜于徑山。因上堂。聞舉石頭云。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總不得。因緣。

時馮楫侍郎。在座下。忽有省。趨方丈。告妙喜曰。和尚適來。舉石頭話。楫會也。妙喜曰。侍郎作麼生會。馮云。恁麼也不得。蘇嚕娑婆訶。不恁麼也不得。唵哩娑婆訶。恁麼不恁麼。總不得。蘇嚕唵哩娑婆訶。

須臾師至。妙喜舉侍郎語。似師。師笑云。郭象註莊子。有識者謂。莊子註郭象。妙喜點之。

次日入室。妙喜問。古德既不出門。因甚却在莊上。喫油糍。師云。和尚放妙總過。即道。妙喜云。我放懶過。試道看。師云。妙總亦放和尚過。妙喜云。爭奈油糍何。師便喝。遂出去。

作投機頌云。驀然摸著鼻頭。伎倆冰消瓦解。達磨何必西來。二祖枉禮三拜。更問如何若何。一隊草賊大敗。

後出世平江資壽。

示眾云。宗乘一唱。三藏絕詮。祖令當行。十方坐斷。二乘聞之怖走。十地到此猶疑。若是俊流。未言而喻。設使用移星換斗底手段。施攬旗奪鼓底機關。猶是空拳。豈有實義。向上一路。千聖不傳。學者勞形。如猿捉影。靈山付囑。俯徇時機。演唱三乘。各隨根器。始於鹿野苑。轉四諦法輪。度百千萬眾。山僧今日。與此界他方。乃祖乃佛。山河大地。草木叢林。見前四眾。各轉大法輪。交光相羅。如寶絲網。若一草一木。不轉法輪。則不得名為轉大法輪。所以道。於一毫端。現寶王刹。坐微塵裏。轉大法輪。乘時於其中間。作無量無邊。廣大佛事。一一佛事。周徧法界。一為無量。無量為一。小中現大。大中現小。不動步。遊普賢樓閣。不反聞。入觀音普門。情與無情。性相平等。不是神通妙用。亦非法爾如然。於此個儻分明。皇恩佛恩。一時報足。且道。如何是報恩一句。天高群象正。海闊百川朝。

示眾云。若也孤峯頂上。目視雲漢。則辜負先聖。若也披毛帶角。土面灰頭。又埋沒己靈。於斯二途。誠難去取。若也全提正令。如倚天長劍。凜凜神威。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若放一線道。合水和泥。則恁麼也得。不恁麼也得。便能向虎穴魔宮。安身立命。街頭市尾。入草求人。驅耕夫牛。奪飢人食。不為分外。若是聽不出聲。見不超色。未免望崖而退。所以道。直似秋潭月影。靜夜鐘聲。隨扣擊以無虧。觸波瀾而不散。猶是生死岸頭事。到這裏。直須上無攀仰。下絕己躬。人人常光現前。箇箇壁立千仞。還委悉麼。鶴有九臯難翥翼。馬無千里謾追風。

示眾云。若論此事。如按太阿。擬之則犯鋒傷手。如大火聚。近之則燎却面門。若是同聲相應。同氣相求。則舉一明三。目機銖兩。如奔流度刃。似疾焰過風。聊聞舉著。踢起便行。可以起臨濟宗。可以持摩竭令。點著不來。白雲萬里。所以道。懸崖撒手。自肯承當。絕後再甦。欺君不得。非常之旨。人焉廋哉。我恁麼告報。猶涉化門。且道。不涉化門一句。又作麼生。畢竟水須朝海去。到頭雲定覓山歸。

問如何是奪人不奪境。師云。野花開滿路。徧地自清香。云如何是奪境不奪人。師云。茫茫宇宙人無數。那箇男兒是丈夫。云如何是人境俱不奪。師云。處處綠楊堪繫馬。家家門底透長安。云如何是人境兩俱奪。師云。雪覆蘆花。舟橫斷岸。

### 溫州淨居妙道禪師(凡五)

延平黃氏子也。徧參尊宿。後謁妙喜。因妙喜室中問。不是心。不是佛。不是物。是什麼。師立門外聞之。豁然大悟。妙喜印具所解。

後開法延平福興。後終于本山。

僧問。言無展事。語不投機。時如何。師云。未屙已前。墮坑落澗。

乃云。問話且止。直饒有傾湫之辯。倒嶽之機。衲僧門下。一點也用不著。且佛未出世時。一事全無。我祖西來。便有許多建立。列剎相望。碁布名山。以至今日。累及兒孫。遂使山僧。於人天大眾前。無風起浪。向第二義門。通箇消息。語默該不盡底。彌巨大方。言詮說不及處。徧周沙界。通身是眼。覷面當機。電卷星馳。如何湊泊。有時一喝。生殺全威。有時一喝。佛祖莫辨。有時一喝。八面受敵。有時一喝。自救不了。且道。那一喝。是生殺全威。那一喝。是佛祖莫辨。那一喝。是八面受敵。那一喝。是自救不了。若向這裏薦得。堪報不報之恩。脫或未然。山僧無夢說夢去也。拈起拂子云。還見麼。若見。被見刺所障。擊禪床云。還聞麼。若聞。被聲塵所惑。直饒離見絕聞。正是二乘小果。跳出一步。蓋色騎聲。全放全收。主賓互換。所以道。欲知佛性義。當觀時節因緣。敢問諸人。即今是什麼時節。蕩蕩仁風扶聖化。熙熙和氣助昇平。

示眾云。若論本分相見。不必高陞此座。然法不孤起。仗境方生。即今權衡在手。應變臨時。擒縱卷舒。得大自在。有時孤峯頂上。把斷要津。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有時鬧市門頭。放開一線。恁麼也得。不恁麼也得。便能攪長河為酥酪。變大地作黃金。

拈一枝草。作丈六金身。將丈六金身。作一枝草。把定則三玄戈甲。五位正偏。豎拂拈槌。默然良久。石火電光。總用不著。又況勾章棘句。展露言鋒。簇錦攢花。只益戲論。所以道。窮諸玄辯。若一毫致於太虛。竭世樞機。似一滴投於巨壑。況是人人具足。各各圓成。履地頂天。眼橫鼻直。春行萬卉。月映千波。無欠無餘。何思何慮。如斯舉唱。猶涉支離。且與大眾。赴箇時節。卓拄杖云。還會麼。千尺鯨噴洪浪飛。一聲雷震清颺起。示眾云。禪非意想。立意乖宗。道絕功勳。建功失旨。聞清聲外句。莫向意中求。轉照用機關。柄佛祖鉗鍵。有佛處。互為賓主。無佛處。風颯颯地。心寧意泰。響順聲和。似恁麼人。且道。向什麼處安著。良久云。披簑側笠千峯外。引水澆蔬五老前。示眾云。眨上眉毛蹉過。大似開眼尿床。現成公案放行。正是點兒落節。恁麼不恁麼。總不得。曳尾靈龜。不是心。不是佛。不是物。虛空釘橛。離得許多閑門破戶。猶是死水藏龍。傾湫倒岳一句。又作麼生。巨靈擡手無多子。分破華山千萬重。

### 侍郎張公九成(凡十三)

字子韶。鹽官人也。初謁靈隱明禪師。扣其旨要。明云。公年盛氣豪。正欲唾手取功名。何暇死生大事乎。公云。先儒嘗云。死生亦大矣。世出世間之法。初無有二。前輩超達之士。曾何儒釋之異哉。師既主盟。大法為事。安用峻拒耶。請至于再。明嘉其誠。示以栢樹子話。久無所契。

即謁善權清禪師。遂問嘗聞此事。人人具足。箇箇圓成。是否。清云然。公云。既如是。某甲為甚無箇入處。清袖中出數珠。示之云。此是誰底。公竚思。清復藏諸袖云。若是爾底。便拈取去。才涉思惟。便不是也。公於是領旨。

公復謁胡文定公。問治心修己之道。胡云。公但熟讀孟子。將他言仁義處。類作一處看。

一日如廁。因思惻隱之心。乃仁之端。忽聞蛙鳴。豁然有省。不覺自舉云。如何是祖師西來意。庭前栢樹子。不覺大笑。汗下被體。遂作頌云。春天月下一聲蛙。撞破乾坤共一家。正恁麼時誰會得。嶺頭脚痛有玄沙。

公訪規首座。纔相見。便問。承聞學錄因蛙鳴。有箇入處。是否。公云。那裏得這消息來。規云。現成公案。諱作甚麼。公召云。首座火發也。規云。滑頭作甚麼。公云。燒到首座脚下也。規云。將謂爾有長處。元來只如此。

規一日同公。坐於圍爐。規驀拈起香匙云。學錄不得喚作香匙。畢竟喚作甚麼。公掣却香匙。踢倒湯瓶而出。規坐灰火中。笑云。幸自好向火。引得這漢無禮。

公一日。詣明靜庵尚禪師營供。尚還其金。及相見。尚展兩手。公以手撥之。尚批其頰。公驟步而前。尚云張學錄謗般若。公云。九成見處只如此。和尚有何方便。尚示以即心即佛因緣。公作頌云。耐耐人間一老兵。巧拈糞塊惑平人。百般計解都呈盡。却作妖狐現本身。

尚一日謂公云。天下無禪師。且如馬祖陞堂。百丈捲席。誰會得耶。公云。有甚難會。尚云。公作麼生。公云。但舉來。尚纔舉。公遽踢倒香卓。尚厲聲云。張學錄殺人。公回顧傍僧云。汝作麼生。僧無語。公打僧一掌。却顧尚云。祖嬾不了。殃及兒孫。尚乃大笑。

公魁多士後。再謁尚。尚舉浮山語云。饒爾入得汾陽室。未可望浮山門。公作麼生。公叱侍僧云。何不祇對。僧罔措。公打僧一掌云。蝦蟆窟裏。果沒蛟龍。

公因讀妙喜贊云。黑漆羸竹篋。佛來也一棒。公掩卷嘆云。今日方知佛法有人在。且以語尚。尚云。此老將一條竹篋。坐在徑山頂上。誰敢近傍。公云。爾去。也須喫棒始得。尚仰首云。如何打得我。公云。這鈍根阿師。從朝至暮。喫他棒了。自不知痛痒。大笑而起。

公謁妙喜不遇。妙喜報謁公私第。但寒溫而已。妙喜歸。謂參徒云。張侍郎。不假師承。有箇自得處。學徒云。聞相見。未嘗說著箇禪字。何以知之。妙喜云。要我眼。作甚麼。

公一日。復謁妙喜。論格物之旨。妙喜云。公只知有格物。不知有物格。公沉吟。須臾云。師豈無方便耶。妙喜哂之。公云。還有樣子否。妙喜云。不見。小說載。唐時有與安祿山謀叛者。其人先為閬守。有畫像在焉。明皇幸蜀。見之大怒。令侍臣。以劒擊像首。其人在陝西。忽然首墮。公聞之。頓領厥旨。遂作偈云。子韶格物。曇晦物格。欲識一貫。兩箇五百。

公一日問妙喜。前輩既得了。何故。理會臨濟四料簡作甚。妙喜云。也不得。公乃嫚語。妙喜云。余嘗以此問圓悟先師。政與公無少異。然公所見。只可入佛。不可入魔。可不從料簡中去耶。公由是默究。得法自在。

妙喜一日訪公。公云。九成每於夢中。必誦論孟。師以謂如何。妙喜云。豈不見。圓覺經云。由寂靜故。十方世界。諸如來心。於中顯現。如鏡中像。公拊几云。奇哉非老師。莫聞此論。

公作黃龍三關頌云。我手何似佛手。天下衲僧無口。縱饒撩起便行。也是鬼窟裏走(諱不得)。我脚何似驢脚。又被[米\*离]膠粘著。翻身直上兜率天。已自遭他老鼠藥(吐不出)。人人有箇生緣。鐵圍山下幾千年。三災燒到四禪天。者漢猶自在傍邊(殺得工夫)。

## 明州阿育王山端裕禪師法嗣

### 湖州道場法全禪師(凡三)

示眾云。第一句。佛祖不存。第二句。稱提佛祖。第三句。與佛祖把手共行。此三句如摩醯首羅三目。非縱非橫。不並不別。照破本有靈機。著著元無虛棄。方知趙州道。有佛處不得住。無佛處急走過。三千里外。逢人不得錯舉。透過差別語言。不落一切音響。橫拋豎擲。示大威光。發大機。施大用。使一切人。脫籠頭。卸角馱。隨時應變。或殺或活。或収或放。總在當人。全身出沒。得到恁麼田地。方知從上佛祖。握閻外威權。提驗人巴鼻。敢問大眾。作麼生辨仙林驗人底句。大啟洪爐烹佛祖。狐狸煨作王麒麟。

示眾云。一塵起大地収。釋迦老子。為甚麼。於三七日中。思惟如是事。一花開徧界春。達磨大師。為甚麼。九年面壁。若人道得収足句。可以坐致太平。

示眾云。欲得現前。莫存順逆。卓拄杖云。三祖大師。變作馬面夜叉。向東弗于逮。西瞿耶尼。南瞻部洲。北鬱單越。却來山僧手裏。首身元來只是一條黑漆拄杖。還見麼。直饒見得。入地獄如箭射。卓拄杖一下。

### 臨安府淨慈師一禪師(凡二)

婺州人也。示眾云。凍雲欲雪未雪。普賢象駕崢嶸。嶺梅半合半開。少室風光漏泄。便恁麼去。猶是半提。作麼生是全提底事。無智人前莫說。打爾頭破百裂。

示眾云。師子教兒迷子訣。擬前跳擲早翻身。羅紋結角交鋒處。鶻眼臨時失却蹤。祖師門戶。八字打開。便請橫身直入。有麼。若無。一上座。不免為蛇畫足去也。拈拄杖。劃一劃云。三世諸佛。六代祖師。天下老和尚。山河大地。草木叢林。情與無情。百雜碎。莫有知恩者麼。若無舉鼎拔山力。千里烏騅不易騎。

## 平江府虎丘隆禪師法嗣

### 明州天童曇華禪師(凡三)

示眾云。風行草偃。水到渠成。正令當行。十方坐斷。若也向上論去。語默不及處。棒喝未施前。總是依草附木漢。事不獲已。且作死馬醫。所以道。隨處作主。遇緣即宗。法隨法行。法幢隨處建立。展臨濟三玄戈甲。會洞山五位君臣。敲唱雙行。殺活自在。拈一莖草。穿天下衲僧鼻孔。布縵天網。打衝浪錦麟。是則是。便恁麼去。達磨一宗。掃土而盡。驀拈拄杖。劃一劃云。劒為不平離寶匣。藥因救病出金瓶。卓拄杖一下。

示眾云。良工未出。玉石不分。巧冶無人。金沙混雜。縱使無師自悟。向天童門下。正好朝打三千。暮打八百。驀拈拄杖云。喚作拄杖。玉石不分。不喚作拄杖。金沙混雜。其間一箇半箇。善別端由。管取平丹丹霄。苟或未然。卓拄杖云。急著眼看。

示眾云。參禪人。切忌錯用心。悟明見性。是錯用心。成佛作祖。是錯用心。看經講教。是錯用心。行住坐臥。是錯用心。喫粥喫飯。是錯用心。屙屎送尿是錯用心。一動一靜。一往一來。是錯用心。更有一處錯用心。歸宗不敢與諸人說破。何故。一字入公門。九牛車不出。

### 台州護國景元禪師法嗣

### 台州國清行機禪師(凡三)

本州人也。示眾云。衲僧拄杖子。不用則已。用則如鳩鳥落水。魚鱉皆死。正按傍提。風颯颯地。獨步大方。殺活在我。所以道。千人排門。不如一人拔關。若一人拔關千人萬人。得到安樂田地。還知麼。鴛鴦綉出從君看。不把金針度與人。

示眾云。觀色即空。成大智故。不住生死。觀空即色。成大悲故。不證涅槃。生死不住。涅槃不證。漢地不収。秦地不管。且道。在甚麼處。安身立命。莫是昭昭於心目之間。而相不可觀。晃晃於色塵之內。而理不可分麼。莫是起坐鎮相隨。語默同居止麼。若恁麼。總是觸髅前敲瞌。須知過量人。自有過量用。且作麼生是過量用。北斗藏身雖有語。出群消息少人知。

示眾云。古佛出世。成人者少。祖師西來。敗已者多。三乘十二分教。玄言妙語。盡是鑊鈎搭索。向佛祖提撕不到處。提格外機。向佛祖開口不得處。說無義語。教他有殊勝功行者。寸步不移。不妨七縱八橫。教他有微妙語言者。一詞不措。不妨熾然常說。隱靜平高就下。未免拈占波與新羅鬪額。所以道。恁麼也得。不恁麼也。

得。有時恁麼中不恁麼。有時不恁麼中却恁麼。有時教伊揚眉瞬目。有時不教伊揚眉瞬目。有時教伊揚眉瞬目者是。有時教伊揚眉瞬目者不是。殺人刀活人劍。總在裏許。忽有箇衲子。出來道。和尚恁麼說話。且喜沒交涉。也怪他不得。何故。我王庫內。無如是刀。

## 饒州薦福道行禪師法嗣

### 泉州法石惠光禪師(凡二)

建寧府。陸氏子。師因舊住相訪。師問。頃年有一則公案。與爾商量不下如今作麼生。云未入門時。舉似和尚了也。師云。這裏又作麼生。云不可頭上安頭。師以手劃一劃云。這裏且置。爾為甚麼。踏斷天台石橋。僧無語。師云。脫空妄語漢。出去。師問僧。上來。曾撞見釋迦老子麼。祖見。師云。在甚麼處。僧問訊而立。師云。且莫認賊為子。僧云。將錯就錯師云。救爾不得。

## 南嶽下第十八世

## 福州西禪鼎需禪師法嗣

### 溫州龍翔南雅禪師(凡六)

示眾云。萬機不到。切忌垛根。一句全提。有何巴鼻。直饒透出威音那畔。猶落今時。且不落今時一句。又作麼生。良久云。紅白花開桃李春。

示眾云。百尺竿頭進步。脚跟下五色線猶存。寒灰枯木。一念萬年。坐在鬼窟裏。總不與麼。未有轉身一路。畢竟如何。舉頭天外看。誰是箇中人。

示眾云。瑞峰頂上。棲鳳亭邊。一杯淡粥相衣。百衲蒙頭打坐。二祖禮三拜。依位而立。已是周遮。達磨老臊胡。分盡髓皮。一場狼藉。其餘之輩。何足道哉。栢堂恁麼道。還免諸方檢責也無。拍繩床云。泊合停囚長智。

示眾云。大機貴直截。大用貴頓發。縱有嚙齧機。一鎚須打殺。何故。我王庫內。無如是刀。

示眾云。昨日鬧浩浩。今朝靜悄悄。鬧中之事。靜中參靜中之事。鬧中了。拈起拄杖云。拄杖子是靜鬧雙舉。是汝諸人。作麼生了。

若也了得。爾有拄杖子。我與爾拄杖子。爾無拄杖子。我奪却爾拄杖子。芭蕉鼻孔。落在諸人手裏。若了不得。芭蕉在汝諸人脚底。示眾云。紫蕨伸拳笋破梢。楊花飛盡綠陰交。分明西祖單傳句。黃栗留鳴燕語巢。這裏見得。諦信得及。若約諸方。決定明牕下安排。龍翔門下。直是一槌殺。何故。不是與人難共住。大都緇素要分明。

### 福州天王志清禪師(凡五)

示眾云。雞足峰前。徒勞話會。曹溪路上。迴絕商量。縱有窮天玄辯。竭世樞機。渾用一點不著。若也一擊便透。一舉雙明。不在揚眉瞬目。亦非竚思停機。方可捋猛虎鬚。拈毒蛇尾。放身捨命。入水入泥。南北東西。縱橫自在。一一七穿八穴。明明絕慮忘言。如是則論劫在途中。不離家舍。論劫在家舍。不離途中。且道。只今在家舍。在途中。會麼。玉殿半開金鎖澁。夜深誰見紫微君。

示眾云。奔流度刃。未是作家。疾焰過風。猶為鈍漢。所以曹溪豎拂。笑殺衲僧。雪峯毬毬。翻成兒戲。指南一路。智者知疏。末後一機。要津把斷。若是具向上眼底脚未跨門。撩起便行。猶是刺頭入膠盆。離此之餘。大似獼猴戴紙帽。總不恁麼。又且如何。良久云。將此深心奉塵刹。是則名為報佛恩。

示眾云。師子教兒迷子訣。擬前跳擲早翻身。羅紋結角交鋒處。鶻眼臨時失却蹤。這般說話。不是弄滑頭。逞俊快。須是伎倆盡。得失忘。應時如風。應機如電。雖然如是。未是達人分上事。作麼生是達人分上事。寒鷹未舉首。俊鷄已冲天。

示眾云。玄道者。不可以設功得。聖智者。不可以有心知。真諦者。不可以存我會。至功者。不可以營事求。古人恁麼說話。只見錐頭利。不見鑿頭方。通方君子。有時恁麼。有時不恁麼。有時恁麼者是。有時恁麼者不是。諸人還委悉麼。直饒見徹。一切法。無是。無不是。無非。無不非。直下是非兩忘。猶是隔靴抓痒。更向句裏呈機。言中辨的。劔去久矣。爾方刻舟。山僧恁麼道。還有為人處也無。虛空粉碎無依倚。不委蟠桃幾度春。

示眾。豎起拂子云。只這箇。天不能蓋。地不能載。徧界徧空。成團成塊。到這裏。三世諸佛。向甚麼處摸索。六代祖師。向甚麼處持提。天下衲僧。向甚麼處名邈。除非自得自證。便乃敲唱雙行。雖然如是。未是衲僧行履處。作麼生是衲僧行履處。是非海裏橫身入。豺虎叢中縱步行。

### 南劔州劔門庵安分庵主(凡五)

福州永福。林氏子。早歲於道。微有省發處。性疎散。  
紹興初。妙喜領徑山。師往求挂搭。妙喜恐其擾眾。却之。  
師入城。於稠人中。忽聞喝道者云。侍郎來。師豁然大悟。作頌  
云。幾年箇事挂胸懷。問盡諸方眼不開。  
肝膽這回俱揭盡。一聲江上侍郎來。  
遂徧歷江湖。徑歸洋嶼。依止懶庵需禪師。日臻玄奧。  
一日取辭。需送以偈云。江頭風急浪花飛。南北相逢不展眉。獨有  
分禪英俊手。等閑奪得錦標歸。  
後住本庵。  
示眾云。這一片田地。汝等諸人。且道。天地未分已前。在甚麼  
處。直下徹去。已是鈍置分上座。不少了也。更若擬議思量。何啻  
白雲萬里。驀拈拄杖。打散大眾。  
示眾云。斬草壺山頂。不是有為功。亦非無為法。驀拈拄杖。劃一  
劃云。誰敢正眼覷著。若也望崖而退者。辜負平生。任是聰明辯  
慧。種種神通。到這裏。用一點不著。直饒爾是箇鐵漢。向佛祖頭  
頂上行。正是門外客。入得山僧門者。打折爾脚。搥折爾腰。莫言  
不道。為甚如此。黃金自有黃金價。終不和沙賣與人。  
示眾云。上至諸佛。下及眾生。性命總在山僧手裏。撿點將來。有  
沒量罪過。山僧亦有沒量罪過。還有撿點得出者麼。卓拄杖云。冤  
有頭債有主。復東西顧視云。自出洞來無敵手。得饒人處且饒人。  
示眾云。十五日已前。天上有星皆拱北。十五日已後。人間無水不  
朝東。已前已後總拈却。到處鄉談各不同。遂以手屈指云。一二三  
四五六七八九十。十一十二十三十四。復召云。諸兄弟且道。今日  
是幾。良久云。本店買賣分文不賒。

## 福州東禪思岳禪師法嗣

### 福州鼓山宗逮禪師(凡五)

本州人也。初參東禪。密契微旨。復謁妙喜。臻極閩奧。後開法。  
終于本山。  
示眾云。瀉懸河之辯。未免葛藤。設陷虎之機。翻成窠臼。縱使談  
空說有。舉古論今。意句交馳。主賓互換。正是無風起浪。好肉剜  
瘡。建化門中。不妨施設。若欲全提正令。把斷要津。斡旋佛祖樞  
機。提掇衲僧巴鼻。須是頂門眼正。肘後符靈。絕類離倫。超宗越  
格。始得。雖然如是。猶是宗門極則。只如祝。  
聖開堂一句。作麼生道。  
帝基盤礴三千界。睿筭延鴻億萬春。

示眾。舉雲門大師云。平地上。死人無數。透得荊棘林者。是好手。遂拈拄杖云。大眾。若喚作拄杖子。正是平地上死人。若不喚作拄杖。未透荊棘林在。畢竟如何。良久云。冬不寒臘後看。卓拄杖下座。

示眾云。德山棒。臨濟喝。拈放一邊。秘魔叉。石鞏箭。不須拈出。三世諸佛。歷代祖師。橫說豎說。是甚麼熱盃鳴聲。諸人到這裏。又且如何。良久云。鼓山今日失利。下座。

示眾云。世尊道。應如是知。如是見。如是信解。不生法相。遂召大眾云。玉本無瑕却有瑕。

### 福州西禪守淨禪師法嗣

#### 福州乾元宗穎禪師(凡六)

本州閩清人也。示眾。拈拄杖。卓一下云。性燥漢。只消一鎚。遂靠却拄杖云。劊利人。不勞再舉。而今莫有劊利底麼。良久云。比擬張麟。兔亦不遇。

示眾云。誰人無心。誰心無佛。佛常在。人常逐物。豎起拂子云。茗喚這箇作拂子。未免為物所轉。若不喚這箇。作拂子。亦未免為物所轉。畢竟如何辨明。良久云。鴛鴦綉出從君看。莫把金針度與人。

示眾云。摩騰入漢。已涉繁詞。達磨西來。自彰瑕類。山僧與麼道。已是罪過彌天。

示眾云。若論此事。是著即差。非著即錯。不是不非。如蟻循環。如蠶作蠶。到箇裏。直須揮劍。設或不然。清風月下守株人。涼兔漸遙芳草綠。

僧問。最初說法。不知有末後句。末後說法。不知有最初句。最初句即不問。如何是末後句。師云。痛領此問。云與麼。則謾他一點不得也。師云。早被謾了。

僧問。如何是正知正見。師云。貓兒狗子。云也只具一隻眼。師云。半隻也無。

### 湖州道場法全禪師法嗣

#### 常州華藏有權禪師(凡三)

臨安府人也。師開堂。示眾云。拈花微笑。埋沒平人。面壁九年。外揚家醜。自此一人傳虛。萬人傳實。致使後代兒孫。承虛接響。

今日既是逃避不得。不免將錯就錯。指空話空。扇子[跳-兆+孛]跳。上三十三天。築著帝釋鼻孔。東海鯉魚。打一棒。雨似盆傾。是名初轉法輪。開演第一義諦。於斯明得。靈山一會。儼在目前。無古無今。非別非異。若也未明。更將一句無私語。旁贊。

皇圖億萬春。

結夏示眾云。今朝結却布袋口。明眼衲僧休亂走。心行滅處解翻身。噴嚏也成師子吼。旃檀林。任馳驟。剔起眉毛頂上生。剜肉成瘡露家醜。

示眾云。久雨不晴今日晴。簷頭雨滴許誰聽。觸體忽破聞機盡。見色聞聲總現成。拈拄杖。擊繩床云。此是聲色雙舉。聞見歷然。且那箇是現成底。會麼。浙人不相色。胡人不相鼻。

### 明州天童曇華禪師法嗣

#### 明州天童咸傑禪師(凡四)

福州人也。徧扣諸方。後依華禪師。華問。如何是正法眼。師云。破砂盆。華領之。

一日取辭。華送以偈。末句有云。吾有末後句。歸來要汝遵。華領天童命。師充第一座。

師後開法衢之烏巨。終于本山。

示眾云。以櫛出櫛。翻成途轍。以心傳心。其病轉深。達磨大師。不會當頭句。却向少林。面壁九年。後代兒孫。承虛接響。揚眉瞬目。行棒行喝。盡是黃葉止啼。烏巨到這裏。直得上天無路。入地無門。咬定牙關。且與諸人。和泥合水。卓拄杖云。不是一番寒徹骨。爭得梅花撲鼻香。

示眾云。動絃別曲。葉落知秋。舉一明三。目機銖兩。如王秉劍。殺活臨時。猶是無風匝匝之波。向上別有一路。千聖把手共行。合入犁泥地獄。正當與麼時。合作麼生。江南兩浙。春寒秋熱。

示眾云。盡乾坤大地。喚作一句子。擔枷帶鎖。不喚作一句子。業識忙忙。兩頭俱透脫。淨倮倮赤洒洒。沒可把。達磨一宗掃土而盡。所以雲門大師道。盡乾坤大地。無纖毫過患。猶是轉句。不見一法。始是半提。更須知有全提底時節。大小雲門。劍去久矣。方乃刻舟。

聯燈會要卷第十八

韶州六祖慧能禪師法嗣

吉州青原行思禪師(凡六)

本郡安城。劉氏子。師問六祖云。當何所務即得不落階級。祖云。爾曾作什麼來。師云。聖諦亦不為。祖云。落何階級。師云。聖諦尚不為。何階級之有。祖云。如是如是。善自護持。石頭來參。師問。甚處來。云曹溪來。師豎起拂子云。曹溪還有這箇麼。云非但曹溪。西天亦無。師云。子莫曾到西天否。云若到。即有也。師云。未在更道。云和尚也須道取一半。莫全靠某甲。師云。不辭向爾道。恐已後無人承當。師令遷馳書。往南嶽讓和尚處。師謂遷云。達書了回來。與汝箇鋤斧子。住山去。遷到南嶽。未通書。便問。不求諸聖。不重已靈。時如何。讓云。子問太高生。何不向下問。遷云。寧可永劫沈淪。不求諸聖解脫。讓休去。遷回。師問。書達否。云信亦不通。書亦不達。去時。蒙許鋤斧子。即今便請。師垂下一足。遷便作禮。尋歸南嶽。玄沙云。大小石頭。被大慧靠倒。至今起不得。翠巖芝云。思和尚垂足。石頭禮拜。要且不得他斧子。且道。後來用箇甚麼。黃龍南云。石頭雖善馳達。不辱宗風。其柰逞俊太過。不知落節。既是落節。回來。因甚得斧子。雪竇云。大小大慧。不能據令。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又恁麼去也。僧問。和尚近日。有何言句。乞示一兩則。師召云。近前來。僧近前。師云。分明記取。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云。廬陵米作麼價。

青原下第二世

吉州青原行思禪師法嗣

南嶽石頭希遷禪師(凡八)

高要陳氏子。師參六祖。祖將示寂。師問。和尚百年後。希遷當依附何人。祖云。尋思去。祖順世。師每靜坐。寂若忘生。第一座問云。汝師已逝。空坐何為。師云。我稟遺戒。故尋思爾。第一座云。汝有師兄行思和尚。住吉州青原。師言甚直。汝自迷耳。師聞是語。禮辭祖龕。直詣吉州青原。見思。思問。子自何來。師云。曹溪。思云。將得甚麼來。師云。未到曹溪。亦不失。思云。若恁麼。用去曹溪作麼。師云。若不到曹溪。爭知不失。師却問。曹溪還識和尚麼。思云。汝今還識吾麼。師云。識又爭能識得。思云。眾角雖多。一麟足矣。師因青原云。有人道。嶺南有消息。師云。有人不云云。原云。若恁麼。大藏小藏。從何而出。師云。盡從這裏去。青原然之。師問青原和尚。自離曹溪。甚麼年。到此住。思云。我即知爾早晚離曹溪。師云。某甲不從曹溪來。思云。我亦知汝來處。師云。和尚幸是大人。且莫造次。示眾云。我之法門。先佛傳授。不論禪定精進。惟達佛之知見。即心即佛。心佛眾生。菩提煩惱。名異體一。汝等當知。自己心靈。體離斷常。性非垢淨。湛然圓滿。凡聖齊同。應用無方。離心意識。三界六道。惟自心現。水月鏡像。豈有生滅。汝能知之。無所不備。師垂語云。言語動用。沒交涉。藥山出云。直得非言語動用。亦沒交涉。師云。我這裏。針筭不入。山云。我這裏。如石上栽花。大顛問。古人云。道有道無。二俱是謗。請和尚除。師云。我這裏。一物也無。除箇甚麼。師却問顛。併却咽喉唇吻。道將來。顛云。無這箇。師云。若與麼。汝即得入門。師問僧。甚處來。云江西來。師云。還具馬大師麼。僧云。見。師指一橛柴云。馬大師。何似這箇。僧罔措。回舉似馬大師。大師云。汝見橛柴大小。云沒量大。大師云。汝甚有力。僧云。何故。大師云。汝從南嶽。負一橛柴來。豈不是有力耶。僧問。如何是解脫。師云。誰縛汝。云無人縛。師云。誰求解脫。問如何是淨土。師云。誰垢汝。問如何是涅槃。師云。誰將生死與汝。問如何是禪。師云。碌磚。云如何是道。師云。木頭。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問取露柱。云某甲不會。師云。我更不會。

### 青原下第三世

## 南嶽石頭希遷禪師法嗣

### 荊州天皇道悟禪師(凡二)

婺州東陽張氏子。師問石頭。離却定慧。以何法示人。頭云。我這裏。無奴婢。離箇甚麼。師云。如何明得。頭云。汝還撮得虛空麼。師云。恁麼則不從今日去也。頭云。未審汝早晚。從那邊來。師云。某甲不是那邊人。頭云。我早知汝來處。師云。和尚何得賊。誣於人。頭云。汝身現在。師云。雖然如是。畢竟將何示於後人。頭云。汝道。誰是後人。師於言下契悟。前所得心。罄殫其跡。

師臨示寂時。大眾問疾。師驀召典座。近前云。會麼。云不會。師拈枕。擲于地。即便告終。

### 澧州藥山惟儼禪師(凡二十五)

絳州韓氏子。精持律行。博通經論。

一日自嘆云。大丈夫。當離法自淨。誰能屑屑。事細行耶。直造石頭。問三乘十二分教。某甲粗知。嘗聞南方直指人心。見性成佛。實未明了。伏望和尚。慈悲指示。頭云。恁麼也不得。不恁麼也不得。恁麼不恁麼。總不得。汝作麼生。師竚思。頭云。子因緣不在此。江西馬大師處去。必為子說。

師造江西。復理前問。馬大師云。我有時教伊揚眉瞬目。有時不教伊揚眉瞬目。有時教伊揚眉瞬目者是。有時教伊揚眉瞬目者不是。山於言下頓悟。便作禮。馬大師云。子見箇甚麼道理。便禮拜。師云。某甲在石頭時。如蚊子上鐵牛相似。馬大師云。汝既如是。宜善護持。

法雲秀云。石頭好箇無孔鐵鎚。大似分付不著人。藥山向江西悟去。爭奈平地喫交。有甚麼扶策處。具眼者辨看。

馬大師一日問師。子近日見處如何。師云。皮膚脫落盡。唯有真實在。馬云。子之所得。可謂協於心體。布於四肢。既然如是。宜將三條篋。束取肚皮。隨處住山去。師云。某甲又是何人。敢言住山。師云。不然。未有長行而不住。未有長住而不行。欲益無所益。欲為無所為。宜作舟航。無久住此。師即禮辭。復返石頭。師坐次。石頭問師。作甚麼。師云。一物不為。頭云。恁麼則閑坐也。師云。若閑坐。則為也。頭云。汝道不為。又不為箇甚麼。師云。千聖亦不識。頭以偈贊云。從來共住不知名。任運相將只麼行。自古上賢猶不識。造次凡流豈可明。

示眾云。祖師只教汝保護。若貪嗔癡起來。切須防禁。莫教振觸。是爾欲知。枯木石頭。却須擔荷。實無枝葉可得。雖然如此。更宜自看。不得絕却言語。我今為汝。說這箇語。顯那無語底。他那箇。本來無耳目等貌。

時有僧問。云何有六趣。師云。我此要輪。雖在其中。元來不染。問不了身中煩惱時如何。師云。煩惱作何相狀。我且要爾考看。有一般底。只向紙背上。記持言語。多被經論惑。我不曾看經論策子。汝只為迷事走。失自家不定。所以便有生死心。未學得一言半句。一經一論。便說與麼。菩提涅槃。世攝不攝。若如此解。只是生死。若不被此得失繫縛。便無生死。汝見律師。說甚尼薩耆。突吉羅。最是生死本。雖然與麼。窮生死。且不可得。上至諸佛。下至螻蛄。盡有此長短好惡。大小不同。若也不從外來。何處有閑漢。掘地獄待爾。欲識地獄道。只今鑊湯煎煮者是。欲識餓鬼道。只今多虛少實。不令人信者是。欲識畜生道。見今不識仁義。不辨親疎者是。豈須披毛帶角。斬割倒懸。欲識人天。只今清淨威儀。持瓶挈鉢者是。切須保任。免墮諸趣。第一不得棄這箇。這箇不是易得。須向高高山頂立。深深海底行。此處行不易。方有少分相應。如今出頭來。盡是多事人。覓箇癡鈍漢。不可得。莫只記策子中言語。以為自己見知。見他不解者。便生輕慢。此輩盡是闡提外道。此心直不中。切須審悉。與麼道。猶是三界邊事。莫在衲衣下空過。到這裏。更微細在。莫作等閑。須知珍重。

師久不上堂。院主白云。大眾久思和尚示誨。師云。打鐘著。院主打鐘。大眾纔集。師便下座。歸方丈。院主隨後問。和尚許為大眾說話。為甚一詞不措。師云。經有經師。論有論師。又爭怪得老僧。

瑯琊覺云。藥山下座。不妨疑著。及乎院主拶著。失却一隻眼。翠巖芝云。院主怪藥山不為說話。可謂悞他三軍。

師晚參云。我有一句子。待特牛生兒。即向汝道。時有僧出云。特牛生兒也。只是和尚不道。師喚侍者。將燈來。其僧便抽身歸眾。

洞山云。這僧會即會。只是不肯禮拜。

法燈云。生底。是牯牛兒。特牛兒。代云雙生。

師尋常不許人看經。一日將經自看。僧問。和尚尋常不許人看經。為甚麼。却自看。師云。我只要遮眼。云某甲學和尚。看得麼。師云。爾若看。牛皮也須穿。

長慶稜云。眼有何過。

師與道吾雲巖游山。見兩株樹。一榮一枯。師問雲巖。枯者是榮者是。云榮者是。師云。與麼。則酌然一切處光明燦爛去。又問道吾。吾云。枯者是。師云。與麼。則酌然一切處放教枯淡去。少頃

高沙彌來。師又問高。高云。枯者從他自枯。榮者從他自榮。師回顧雲巖道吾云。不是不是。

保寧勇頌云。抹粉搽坯復裹頭。盡由行主線牽抽。鼓颯打破曲吹徹。收拾大家歸去休。

師謂雲巖云。與我喚沙彌來。巖云。喚他來作甚麼。師云。我有箇折脚鐺子。要他提上挈下。岩云。恁麼則某甲共和尚。每人出一隻手。

大滄喆云。藥山不得雲巖。折脚鐺子。幾成廢器。

師一日。提笠子出。雲巖指問。用這箇作甚麼。師云。有處用。岩云。風雨來時作麼生。師云。蓋覆著。岩云。還受蓋覆也無。師云。雖然如是。要且無遺漏。

一日齋時。院主報云。打鐘也。請和尚上堂去。師云。汝與我擎鉢盂去。主云。和尚無手來。多少時也。師云。汝只是枉披袈裟漢。主云。某甲只恁麼。和尚又作麼生。師云。我無這箇眷屬。

師坐次。僧問。兀兀地。思量箇甚麼。師云。思量箇不思量底。云不思量底。又如何思量。師云。非思量。

遵布衲作殿主。俗佛次。師問。爾只浴得這箇。還浴得那箇麼。遵云。把將那箇來。

長慶稜云。邪法難扶。黃龍南云。此二尊宿。一出一入。未見輸贏。三十年後。不得錯舉。

師於手中。書佛字。問道吾云。是甚麼字。吾云。佛字。師云。多口阿師。

師問僧。甚處來。云南泉。師云。在彼多少時。云粗經冬夏。師云。恁麼則三十年後。成一頭水牯牛去也。云某甲雖在彼中。且不曾上他食堂。師云。爾口欲南風那。云和尚莫錯。自有把匙筯人在。

師問僧。甚處來。云湖南來。師云。洞庭水滿也未。云未。師云。許多時雨水。為甚麼未滿。

雲巖代云。湛湛地。道吾云。滿也。

師問僧。年多少。云七十二。師云。是七十二那。云是。師便打。

曹山云。前箭猶似可。後箭射人深。

僧問。如何免得此棒。曹云。王勅既行。諸侯避道。

師問飯頭。爾在這裏。得多少時。云三年也。師云。我總不識爾。其僧不契。憤然而去。

僧問。學人有疑。請師決。師云。待晚間來。為汝決。

晚參眾集。師云。今日要決疑僧。何在。僧便出。師下座。搗住云。大眾。這僧有疑。便托開。歸方丈。

翠巖芝云。藥山與麼決疑。土上更加泥。雖然如是。這僧也不得辜負藥山。

僧問。己事未明。乞師指示。師良久云。吾為汝道亦不難。只宜於言下。便見去。猶較些子。若更思量。却成吾罪過。不如各自合取口。免相累及。

僧問。平田淺草。麀鹿成羣。如何射得麀中主。師云。看箭。僧放身便倒。師喚侍者云。拖出這僧著。僧便走。師云。弄泥團漢。有甚麼限。

僧問。如何是道中至寶。師云。莫謠曲。云不謠曲時如何。師云。傾國莫換。

僧問。勞人擬歸鄉時如何。師云。汝父母。徧身紅爛。在荊棘林中。汝歸何所。云若恁麼。即不歸也。師云。汝却須歸去。汝若歸去。我示汝箇休糧方。子云。便請。師云。二時上堂。不得咬破一粒米。

僧問。祖師未來時。還有祖師意也無。師云有。云既有。祖師又來作麼。師云。只謂有。所以來。

師臨示寂時。叫云。法堂倒。法堂倒。眾皆持物。撐拄。師舉手云。子不會我意。即告終。

### 鄧州丹霞天然禪師(凡十)

初習儒業。入長安應舉。遇一禪者。問仁者何往。師云。選官去。禪者云。選官何如選佛。師云。選佛當何所詣。禪者云。江西馬大師。是選佛之場。仁者可往。師徑造江西。纔見馬大師。便以兩手。托幘頭脚。馬顧視之云。吾非汝師。南嶽石頭處去。

師復造石頭。亦以前意投之。頭云。著槽廠去。師乃服勤三年。石頭一日告眾云。來日割佛殿前草。次日大眾。各備鋤鑿割草。師獨以水洗頭。胡跪石頭前。頭微笑。與落髮。又為說戒。師掩耳而去。

師再謁馬祖。未參禮。便入僧堂。騎却聖僧項。而坐。眾皆愕然。報馬大師。大師入堂見。即笑云。我子天然。師跳下。作禮云。謝師安名。因名天然。

馬祖問。甚處來。師云石頭來。祖云。石頭路滑。還躓倒汝麼。師云。若躓倒。即不來也。

師經過一寺。值天寒。師取殿中木佛。燒火向。院主忽見。呵云。何得燒我木佛。師以拄杖撥灰云。吾燒取舍利。院主云。木佛何有舍利。師云。既無舍利。更請兩尊。再取燒之。院主自後。眉髮墮落。

師問僧。甚處來。云山下來。師云。喫飯了也未。云喫飯了。師云。將飯與汝喫底人。還具眼麼。僧無對。

長慶問保福。將飯與人喫。報恩有分。為甚麼。不具眼。福云。施者受者。二俱瞎漢。慶云。盡其機來。還成瞎否。福云。道我瞎得麼。

師訪龐居士。至門首相見。師問。居士在否。士云。飢不擇食。師云。龐老在否。士云。蒼天蒼天。便入宅去。師云。蒼天蒼天。便回去。

師問居士。昨日相見。何似今日。士云。如法舉昨日底來。作箇宗眼。師云。只如宗眼。還著得龐公麼。士云。我在爾眼裏。師云。我眼窄。何處安身。士云。是眼何窄。是身何安。師休去。士云。更道取一句。便得此話圓。師不對。士云。就中這一句。無人道得。

師與居士行次。見一泓水。士以手指水云。得與麼也。還辨不出。師云。酌然是辨不出。士辱水二掬潑師。師云。莫與麼。莫與麼。士云。須與麼。須與麼。師却辱水三掬潑士。士云。正與麼時。堪作甚麼。師云。無外物。士云。得便宜者少。師不對。士云。誰是落便宜者。

師訪居士。門逢女子靈照。提籃洗菜。師問。居士在否。照放下菜籃。斂手而立。師再問。照提籃便行。師遂回山。

須臾居士歸。照舉前話。士云。丹霞在否。照云。已去也。士云。赤土塗牛糞。

大滄喆云。大小丹霞。被居士女子勘破。

師路次。逢一翁。與一童子。師問翁。住在甚處。翁云。上是天下是地。師云。忽遇天崩地陷。又作麼生。翁云。蒼天蒼天。童子噓一聲。師云。非父不生其子。翁與童子。入山而去。

### 潭州長髭曠禪師(凡七)

師謁石頭。頭云。甚處來。師云。嶺南來。頭云。大庾嶺頭。一鋪功德。成就也未。師云。成就久矣。只欠點眼在。頭云。莫要點眼麼。師云。便請。頭垂下一足。師便作禮。頭云。爾見箇甚麼道理。便禮拜。師云。如紅爐上一點雪相似。

雪竇云。無限功德。有甚點處。

南華曷云。喚作一鋪功德。已是強名。石頭垂下一足。長髭云。如洪爐上一點雪。轉見漏逗。雖然如是。劔閣路雖險。夜行人更多。

師陞座次。龐居士來。眾集定。士出云。各請自檢好。師便提唱。士却於繩床右立。時有僧問。不觸主人公。請師答話。師云。還識龐公麼。云不識。士搗住其僧云。苦哉苦哉。僧無語。士便托開。師少頃問居士。適來這僧。還喫拄杖麼。士云。待伊甘。始得。師云。居士只見錐頭利。不見鑿頭方。士云。和尚恁麼說話。某甲即得。外人聞之。要且不妨。師云。不好箇甚麼。士云。阿師只見鑿頭方。不見錐頭利。

師廓下行。見僧問訊。師云。步步是汝證明處。還知麼。僧云。不知。師云。汝若知。我堪作甚麼。僧作禮。師云。我不堪。汝却好。

師一日見僧來。驀擒住云。獅子兒。野狂屬。僧以手作撥眉勢。師云。雖然如此。猶欠哮吼在。僧擒住師云。偏要行此一機。師與一擱。僧放手。拍三下。師云。若見同風。汝還甘與麼否。云終不由別人。師作撥眉勢。僧云。猶欠哮吼在。師云。料想不由別人。有僧來。繞繩床一匝。卓然而立。師云。若是石頭法席。一點也用不著。僧又行一匝。師云。却是恁麼時。不易道得箇來處。僧便出去。師喚云。上座。僧不顧。師云。這漢猶少教詔在。僧却回首云。有一人。不從人得。不受教詔。不落階級。師還許麼。師云。逢之不逢。逢必有事。僧退身三步。師却繞繩床一匝。僧云。不唯宗眼分明。亦乃師承有據。師打三棒。

師問僧。甚處來。云九華控石庵。師云。庵主是甚麼人。云馬祖下尊宿。云名甚麼。云不委他名。師云。他不委爾。爾不委他。云尊宿眼在甚麼處。師云。若是庵主親來。也須喫棒。云賴遇和尚。放某甲過。師云。百年後。討箇師僧。也難得。

雪竇云。是則是。二俱作家。且不解收虎尾。只解據虎頭。若是德山令行。並須瓦解。

師問。李行婆。憶得在絳州時事麼。婆云。非師不委。師云。多虛少實在。婆云。有甚諱處。師云。念汝是女人。放爾拄杖。婆云。某甲終不見尊宿過。師云。老僧過在甚麼處。婆云。和尚既無過。婆豈有過。師云。無過底人作麼生。婆豎起拳云。與麼不與麼。總成顛倒。師云。實無諱處。

### 潭州大川和尚(凡一)

問僧。甚處來。云江陵來。師云。幾時發足。僧提起坐具。師云。謝子遠來。下去。僧繞繩床一匝。便出。師云。若不恁麼。焉知眼目端的。僧撫掌一下云。苦殺人。泊合錯判諸方。師云。甚得禪宗道理。

後僧舉似丹霞。霞云。大川法道即得。我這裏即不然。云和尚此間。作麼生。霞云。猶較大川三步在。僧作禮。霞云。錯判諸方者多。

洞山云。若不是丹霞。也難分玉石。

### 潮州大顛和尚(凡五)

初謁石頭。頭問。阿那箇是汝心。師云。見言語者是。頭便喝出。經旬日。師詣方丈。請問前話云。前者既不是。除此外。何者是心。頭云。除却揚眉瞬目。將心來。師云。無心可得將來。頭云。元來有心。何得言無。無心盡同謗。師於言下有省。

示眾云。夫學道人。須識自家本心。將心相示。方可見道。多見時輩。只認揚眉動目。一語一默。驀頭印可。以為心要。此實未了。吾今為汝諸人。分明說出。各須聽受。但除却一切妄運想念見量。即汝真心。此心與塵境。及守認寂默時。全無交涉。即心是佛。不假修治。何以故。應機隨照。泠泠自用。窮其用處。了不可得。喚作妙用。乃是本心。大須護持。不可容易。

水空和尚來。師把住坐具云。不用通時暄。亦不用通來處。空云。擬欲恁麼。又恐人情不足。師放手云。還足也未。空提起坐具云。若通時暄。又恐迷來處。師云。暫時相見。也無妨。

師將痒和。廊下行。逢一僧問訊。師以痒和。驀口打云。會麼。云不會。師云。大顛老野狐。不曾辜負人。

侍郎韓愈文公。問師。春秋多少。師提起數珠云。會麼。愈云不會。師云。晝夜一百八。愈罔措。歸宅。怏怏不樂。夫人問。侍郎情思不懌。復有何事。愈舉前話。夫人云。何不進語云。晝夜一百八。意旨如何。愈明日凌晨復去。及門逢首座。座云。侍郎入寺。何早。愈云。特去堂頭通話。座云。有何因緣。愈舉前話。座云。侍郎怎生會。愈云。晝夜一百八。意旨如何。座扣齒三下。復至方丈。進前語。師亦扣齒三下。愈云。信知佛法一般。師云。有箇甚麼道理。愈云。適來門首。問首座。亦如是。師喚首座問。適來祇對侍郎佛法。是否。座云是。師便打。即時趨出。

保寧勇頌云。一步纔行兩步移。門前驚起鳳凰兒。棲蹤不在梧桐樹。羣鳥東西空繞枝。

### 汾州石樓和尚(凡二)

僧問。未識本來性。乞師方便。師云。石樓無耳朵。僧云。某甲自知非。師云。老僧還有過。僧云。和尚過在甚麼處。師云。過在汝

非處。僧作禮。師便打。

師問僧。近離甚處。云漢國。師云。漢國天子。還重佛法也無。僧云。苦哉賴遇問著某甲。問著別人。即禍生。師云何也。僧云。人尚不見。有何佛法可重。師云。闍梨受戒多少時也。僧云。二十夏。師云。大好不見人。便打。

雪竇云。這僧棒即喫了。要且去不再來。石樓令雖行。爭柰無風起浪。

### 鳳翔府佛陀遜禪師(凡三)

因米胡。領眾來相看。師便拽轉繩床。面壁而坐。米於背後立少時。却回客位。師云。是即是。若不驗過。已後遭人貶剝。却令侍者去請。米胡纔上來。拽轉繩床便坐。師繞繩床一匝。便歸方丈。胡拽翻繩床。領眾出去。

師訪龐居士。士云。憶得在母胎時。有一則語。今日舉似阿師。第一不得作道理主持。師云。猶是隔生也。士云。向道不得作道理主持。師云。驚人之句。爭得不怕。士云。如師見解。可謂驚人。師云。不作道理。却成道理。士云。不但隔一生兩生。師云。粥飯僧。一任檢責。

師見居士來。便閉却門。云多知老翁。莫與相見。士云。獨坐獨語。過在阿誰。師便開門。被士搗住云。是爾多知。是我多知。師云。多知且置。閉門開門。卷之與舒。相去幾何。士云。只此一問。氣急殺人。師不對。士云。弄巧成拙。

### 潭州招提慧朗禪師(凡二)

師謁馬大師。大師問。汝來何求。師云。求佛知見。大師云。佛無知見。知見乃魔爾。汝自何來。云南嶽來。大師云。汝從南嶽來。未見曹溪心要。汝速歸彼。不宜他往。師即歸石頭。問石頭。如何是佛。頭云。汝無佛性。師云。蠢動含靈。又作麼生。頭云。蠢動含靈却有。師云。某甲為甚麼却無。頭云。為汝不肯承當。師於言下悟入。後凡有學者扣問。師皆云。去。汝無佛性。

### 丁行者(凡一)

訪性空。空打一棒云。瞎却汝本來眼也。丁云。非但今日。古人亦行此令。空云。誰向汝道古今。丁拂袖便出。空云。青天白日。有

迷路入。丁云。莫要指示麼。空便打。丁云。莫瞎却人眼好。空云。瞎却俗人眼。有甚麼過。

## 青原下第四世

### 荊州天皇道悟禪師法嗣

#### 澧州龍潭崇信禪師(凡三)

本渚宮賣餅家子。未詳姓氏。

師家。日令師送十餅。上天皇。皇受畢。每留一餅。與之云。我惠汝。以蔭子孫。師忽自念云。餅我持去。何返遺我。豈別有旨耶。請問皇。皇云。是汝持來。復汝何咎。師言下領旨。因投出家。皇云。汝昔崇福善。今信吾言。可名崇信。

師問天皇。某甲自到來。不蒙和尚指示心要。皇云。自汝到來。吾未嘗不指示汝心要。師云。何處是指示某甲心要處。皇云。汝擎茶來。吾為汝接。汝行食來。吾為汝受。汝和南時。吾便低首。何處不指示汝心要。師竚思。皇云。見即直下便見。擬思即差。師當下開悟。乃問云。如何保任。皇云。任性逍遙。隨緣放曠。但盡凡心。別無聖解。

師問天皇。從上來。相承底事如何。皇云。不是明汝來處不得。師云。這箇眼目。幾人具得。皇云。淺草易為長蘆。

### 前澧州藥山惟儼禪師法嗣

#### 潭州道吾宗知禪師(凡十二)

豫章海昏。張氏子。初見藥山。山問。甚處來。師云。游山來。山云。不離此室。速道將來。師云。山上烏兒白似雪。水裏游魚閑不徹。

師因藥山示眾云。我有一句子。未曾向人說。師云。相隨來也。僧請問藥山。一句子如何說。山云。非言說。師云。早說了也。

師見南泉。泉問。闍梨名甚麼。師云。宗智。泉云。智不到處。作麼生宗。師云。切忌道著。泉云。酌然。道著即頭角生。

三日後。師與雲巖。在後架把針。泉見乃問。前日道智不到處。切忌道著。道著即頭角生。合作麼生行履。師便抽身入僧堂。泉便去。

師却來坐。巖問。師弟適來。何不祇對和尚。師云。汝得恁麼靈利。巖罔措。却去問南泉云。適來因緣。智頭陀何不祇對和尚。泉云。他却是異類中行。巖云。如何是異類中行。泉云。不見道。智不到處。切忌道著。道著即頭角生。直須向異類中行。始得。師知巖不薦。默計云。此人因緣。不在這裏。却同歸藥山。山見二人回。乃問巖。汝到甚麼處去來。巖云。到南泉。山云。有何言句。巖舉前話。山云。子作麼生會。巖無對。山大笑。巖問。如何是異類中行。山云。我今日困。別時來。巖云。某甲特為此事歸來。山云。且去巖便出。

師在方丈外。聞巖不薦。不覺咬得指頭。血出。師却下來。問巖云。師兄。去問和尚。那因緣。作麼生。巖云。和尚不為某甲說。師便低頭。

施主施裩。南泉提起示眾云。法身具四大。有人道得。與汝一腰裩。師出云。性地非空。空非性地。此是地大。三大亦然。泉云。與汝一腰裩。

雲巖問。師兄[冗-几+豕]風作麼生。師云。教汝指點著。堪作甚麼。云無這箇來。多少時也。師云。牙根猶帶生澁在。

雲巖不安。師問。離却殼漏子。向甚處相見。云向不生不滅處相見。師云。何不道。非不生不滅處。亦不求相見。

師見雲巖修鞋。乃問。作甚麼。云將敗壞。補敗壞。師云。何不道。即敗壞。非敗壞。

雲巖問。大悲菩薩。用許多手眼。作甚麼。師云。如人背手摸枕子。巖云。我會也。我會也。師云。爾作麼生會。巖云。徧身是手眼。師云。道也太殺道。只道得八成。巖云。師兄又作麼生。師云。通身手眼。

石霜問。百年後。有人。問極則事。向他道甚麼。師喚河彌。彌應諾。師云。添淨瓶水著。

師良久。却問石霜。適來問甚麼。霜擬再舉。師便起去。

師指佛桑花。問僧。這箇何似那箇。云直得寒毛卓豎。師云。畢竟如何。云道吾門下。師云。十里大王。

僧問。無神通菩薩。為甚麼足跡難尋。師云。同道者方知。亡和尚還知麼。師云。不知。云為甚麼不知。師云。去。汝不會我語。

僧問。萬里無雲。未是本來天。如何是本來天。師云。今日好曬麥。

### 潭州雲巖曇晟禪師(凡十一)

鐘陵海昌。王氏子。師初參百丈。凡二十年。無省發。

後謁藥山。山問。甚處來。師云。百丈來。山云。有何言句。師云。有時示眾云。我有一句子。百味具足。山云。鹹即鹹味。淡即淡味。不鹹不淡。是常味。作麼生是百味具足底句。師無對。山笑云。爭柰目前生死何。師云。目前無生死。山云。二十年在百丈。俗氣也不除。

藥山一日又問。海兄更說甚麼法。師云。有時道。三句外會取。六句外省去。山云。且喜沒交涉。

又問。更說甚麼法。云有時上堂。眾纔集。拈拄杖打下。復召大眾。眾回首。丈云。是甚麼。山云。何不早恁麼道。師於此大悟。

妙喜云。悟去即不無。爭柰未出葛藤窠。

藥山問師。爾未到百丈時。曾到甚麼處。師云。曾到廣南。山云。見說廣南城東門外。有一片石。被州主移去是否。師云。非但州主。蓋國人來。亦移不動。

藥山問師。聞爾解弄師子。是否。師云。是。山云。弄得幾出。師云。弄得六出。山云。我亦解弄。師云。和尚弄得幾出。山云。弄得一出。師云。一即六六即一。

師到瀉山。山問。承聞長老。在藥山弄師子。是否。師云。是。瀉云。長弄。還有置時。師云。要弄即弄。要置便置。瀉云。置時。師子在甚麼處。師云。置也置也。

師問一尼云。爾爺在否。云在。師云。年多少。云六十八。師云。爾有箇爺。不年六十八。汝還知否。云莫便是恁麼來者麼。師云。猶是兒孫在。

洞山云。直是不恁麼來者。亦是兒孫。

師謂眾云。有一箇人家兒子。問著。無有道不得底。洞山云。他屋裏。有多少典籍。師云。一字也無。道云。爭得與麼多知。師云。日夜不曾眠。洞云。問一件事。還得否。師云。道得即不道。

師煎茶次。道吾問。煎與阿誰。師云。有一人要。吾云。何不教伊自煎。師云。幸有某甲在。

師問石霜。甚處來。云瀉山來。師云。在彼多少時。云粗經冬夏。師云。與麼則成山長去也。霜云。雖在彼中。却不知。師云。他家亦非知非識。

道吾聞云。得恁麼。無佛法身心。

師掃地次。道吾云。太區區生。師云。須知有不區區者。吾云。恁麼則有第二月去也。師豎起掃帚云。這箇是第幾月。吾休去。

玄沙云。正是第二月。長慶云。被他倒轉掃帚。攔面搯。又作麼生。沙休去。羅山云。噫。兩箇漢。不識好惡。雲巖箇漢。縛手脚。死來多少時也。

雲門云。奴見婢殷勤。

裴大夫問僧。只如供養佛。佛還喫否。僧云。如大夫祭家神。大夫舉似師。師代云。有幾味飯食。但一時下將來。師却問神山。一時下來後。作麼生。山云。合取鉢盂師然之。

### 秀州華亭船子德誠禪師(凡五)

節操高邈。度量不羣。與道吾雲巖。得法於藥山。山順寂後。三人同議。各卜深山。隱居去。

道吾須臾云。適來所議。甚愜鄙懷。莫辜負先師否。

師良久云。予率性疎野。唯好山水。樂情自遣。他無所能也。若遇靈利座主。指一箇來。或堪雕琢。付受平日所得。以報先師之恩。三人於是分袂。

師即泛小舟於華亭。時人呼為船子和尚。後道吾至京口。指夾山見師。問答。言下大悟(語載夾山章)。山禮辭。師遂覆缸而逝。

有官人問。如何是和尚日用事。師豎起橈子云。會麼。云不會。師云。棹撥清波。金鱗罕遇。因示頌云。

三十年來坐釣臺。釣頭往往得黃能。金鱗不遇空勞力。收取絲綸歸去來。

千尺絲綸直下垂。一波纔動萬波隨。夜靜水寒魚不食。滿缸空載月明歸。

雪竇云。這漢。勞而無功。忽若雲門道一句合頭語。萬劫繫驢橛。又作麼生。免得此過。良久云。莫謂水寒魚不食。如今載得月明歸。

三十年來海上游。水清魚現不吞鈎。釣竿斫盡重栽竹。不計功程得便休。

### 宣州棹樹慧省禪師(凡四)

師問洞山。爾來作甚麼。山云。親近和尚。師云。若是親近。用動兩片皮。作麼。山無對。

曹山聞舉。乃云。一子親得。

師問定山云。不落數量。請師道。山提起數珠云。是落不落。師云。圓珠三竅人人有。請師圓前話。山便打。師便走。山云。三十年後。槌笱大哭去在。

師後開堂。示眾云。老僧三十年前。被定山熱瞞一上。不同小小。師睡次。道吾來見。乃牽被蓋之。師云。作甚麼。吾云。蓋覆。師云。坐底是。臥底是。吾云。不在這兩頭。師云。爭柰蓋覆何。吾云。莫亂道。

僧問。如何是佛。師云。貓兒上露柱。云不會。師云。問取露柱去。

### 高沙彌(凡五)

初見藥山。山問甚處來。師云。南嶽來。山云。甚處去。師云。江陵受戒去。山云。受戒圖箇甚麼。師云。圖免生死。山云。有一人。不受戒。亦無生死可免。汝還知麼。師云。恁麼則佛戒何用。山云。這沙彌。猶挂唇齒在。師因是契自本心。更不受戒。

藥山謂道吾云。適來有箇沙彌。却有些子氣息。吾云。未可全信。待與勘過始得。

至晚上堂。召云。早來沙彌。在甚麼處。師出眾。山問。我聞長安甚鬧。汝還知麼。師云。我國晏然。山云。汝從人得。看經得。請益得。師云。亦不從人得。不從看經得。不從請益得。山云。有人。不看經。不請益。為甚麼不得。師云。不道他不得。自是他不肯承當。山顧道吾雲巖云。不信道。這跛脚沙彌。却有些子氣息。藥山一日。自打鼓。師捧鉢作舞上堂。山擲下槌云。是第幾和。師云。第二和。山云。如何是第一和。師就桶。舀一杓飯。便行。師辭藥山。去住庵。山問。生死事大。何不受戒去。師云。知是般事便休。喚甚麼作戒。山咄云。這饒舌沙彌。人來近處住菴。庶幾時復相見。

師住菴後。一日雨中來。山云。爾來也。師云是。山云。可殺濕。師云。不打這鼓笛。雲巖云。皮也無。打甚麼鼓。道吾云。鼓也無。打甚麼皮。山云。今日大好曲調。

### 朗州刺史李翱(凡二)

一日肅莊客禮。直造藥山前。山看經。略不相顧。李云。見面不如聞名。拂袖便出。山召尚書。李應諾。山云。何得貴耳賤目。李遂作禮。問云。如何是道。山以手指天。復指淨瓶云。會麼。李云不會。山云。雲在青天水在瓶。李禮謝。贈詩云。鍊得身形似鶴形。千株松下兩函經。我來問道無餘事。雲在青天水在瓶。

李問藥山。如何是戒定慧。山云。我這裏。無這閑家具。李莫測其旨。山云。太守欲保任此事。直須向高高山頂立。深深海底行。閨閣中物捨不得。便為滲漏。

### 鄧州丹霞天然禪師法嗣

### 京兆府翠微無學禪師(凡四)

問丹霞。如何是佛。霞云。幸自可憐生。須要執巾箒。作麼。師退身三步。霞云。錯。師進前三步。霞云。錯。師蹶一足。旋身一轉而出。霞云。得即得。辜負諸佛師。

龍牙問。自到和尚法席。每上堂。不蒙一言示誨。意在於何。師云。嫌箇甚麼。

後問洞山。山云。爭怪得老僧。

後有僧。問法眼。眼云。祖師來也。

雪竇云。兩箇老漢。被這僧穿却。唯有法眼。與他同參。若是雪竇門下。喫棒了。趁出。

師在法堂上行。投子進前。作禮問。西來密旨。和尚如何指示於人。師顧視少頃。子云。乞師垂示。師云。更要第二杓惡水那。子作禮。師云。莫垛却。子云。時至根苗自生。

僧問。二祖初見達磨。有何所得。師云。汝今見吾。復何所得。

### 吉州孝義性空和尚(凡二)

僧來參。師展手示之。僧近前。復退後。師云。父母俱喪。略不慘顏。僧呵呵大笑。師云。與闍梨舉哀。其僧打筋斗而出。師云。蒼天蒼天。

師見僧來。乃問。與麼下去。還有佛法道理也無。僧云。某甲結舌有分。師云。老僧又作麼生。僧云。素非好手。師仰身合掌。僧亦合掌。師撫掌三下。僧拂袖而出。師云。烏不前兔不後。幾人於此忙然走。只有闍梨達本源。結舌何曾著空有。

### 米倉和尚(凡一)

有僧來。繞師三匝。敲繩床一下云。不見主人公。終不參眾去。師云。情識甚麼處去來。云果然不在。師打一拄杖云。幾落情識。僧呵呵大笑。師云。村草步頭。逢著一箇半箇。有甚共語處。僧云。且參堂去。

### 潭州長髭曠禪師法嗣

### 潭州石室善道和尚(凡四)

侍石頭游山次。頭云。與我斫却前頭樹子。礙我。師云。不將刀來。頭袖中取刀。倒度與師。師云。何不過那頭來。頭云。汝用那頭作麼。師於此有省。

杏山問。承聞行者游五臺。還見文殊麼。師云。見。山云。道甚麼。師云。道爾生身父母。在深草裏。杏無對。

師與仰山翫月次。山問。尖時。圓相向甚麼處去。圓時。尖相向甚麼處去。師云。尖時圓相在。圓時尖相隱。

師每見僧來。拈起拄杖子云。三世諸佛。盡由這箇。對者皆不契。長沙聞得云。我若見。只令放下拄杖。別通箇消息來。三聖將此語。去祇對。被師識破。是長沙語。

杏山聞三聖失機。親到石室。纔見便問。行者不易。貧道難消。師云。開心盃子盛將來。無縫盤子合將去。說甚麼難消。杏山休去。

## 潭州大川和尚法嗣

### 僊天和尚(凡六)

有新羅僧。來參。纔展坐具。師捉住云。未離本國時。道取一句。僧無語。師便推出云。問伊一句。便道兩句。

披雲和尚來。纔入方丈。師便問。未見東越老人時。如何為物。雲云。只見雲生碧嶂。焉知月落寒潭。師云。只與麼也難得。雲云。莫是未見東越老人時消息麼。師便喝。雲展兩手。師云。錯怪人底。有甚麼限。雲掩耳出去。師云。死却這漢平生也。

洛平來。師問。甚處來。云南溪。師云。將得南溪消息來麼。云消即已消。息即未息。師云。最苦是未息。云且道。未息箇甚麼。師云。一回見面。千載忘名。平拂袖便行。師云。弄死虵手。有甚麼限。

有僧來。擬作禮。師云。野狐兒。見箇甚麼。便禮拜。僧云。老禿奴。見甚麼。便恁麼道。師云。苦哉苦哉。僊天今日忘前失後。云要且得時終不補失。師云。爭不如此。僧云。誰甘。師呵呵大笑云。遠之遠矣。僧四顧而出。

有僧來。纔展坐具。師云。這裏會得。早是辜負平生。云不向這裏會。又作麼生。師云。不向這裏會。更向甚麼處會。便打出。

有僧來。纔展坐具。師云。不用通時暄。還我文彩未生時道理來。云某甲有口啞却。即閑苦死。覓箇朧月扇子作麼。師拈棒。作打勢。僧捉住云。還我未拈棒時道理來。師云。隨我者。隨之南北。不隨我者。死住東西。云隨與不隨。即且置。請和尚。指出東西南北。師便打。

聯燈會要卷第十九

青原下第四世

潮州大顛和尚法嗣

漳州三平義忠禪師(凡三)

福州楊氏子。

師謁大顛。問不用指東劃西。請師直指。顛云。幽州江口石人蹲。師云。猶是指東劃西。顛云。若是鳳凰兒。不向籬邊討。師作禮。顛云。若不得後語。前話也難圓。

師問侍者。姓甚麼。者云。與和尚同姓。師云。爾道。我姓甚麼。者云。問頭何在。師云。幾時曾問爾。者云。姓者誰。師云。念汝初機。放爾三十棒。

師陞座次。有道士出。從東過西。有僧出。從西過東。師云。道士却有見處。師僧未在。道士作禮云。謝師接引。師便打。僧作禮云。乞師指示。師亦打。

乃謂眾云。此兩件公案。且作麼生斷。還有斷得底麼。如是三問。眾無對。師云。既無人斷得。老僧為斷去也。擲下拄杖。便歸方丈。

大滄喆云。若不是三平。泊乎作道理斷。却不見石鞏道。三十年。一張弓。兩隻箭。只射得半箇聖人。果然。

馬頰山本空和尚(凡一)

示眾云。只這施為動轉。還合得本來祖翁麼。若合得。十二時中。無虛棄底道理。若合不得。喫茶說話。往往喚作茶話去。

僧問。如何免得不成茶話去。師云。爾還識得口也未。云如何是口。師云。兩片皮也不識。云如何是本來祖翁。師云。大眾前。不得牽爺侍娘。云大眾欣然去也。師云。爾試點大眾性看。僧作禮。師云。汝往往道一性一切性去。僧欲進語。師云。辜負平生行脚眼。

本生和尚(凡二)

拈拄杖。示眾云。我若拈起。汝便向未拈起時。作道理。我若不拈起。爾便向拈起時。作主宰。且道。老僧為人。在甚麼處。有僧出云。不敢妄生節目師云。也知闍梨不分外。云高高處。平之有餘。低低處。觀之不足。師云。節目上更生節目。僧無語。師云。掩鼻偷香。空招罪犯。

雪竇云。這僧善能切瑳。爭柰弓折箭盡。雖然如是。且本生是作家宗師。拈起也。天回地轉。應須拱手歸降。放下也。草偃風行。必合全身遠害。還見本生為人處也無。復拈起拄杖云。太平本是將軍致。不許將軍見太平。

師問僧。甚處來。云太原來。師云。那邊風景如何。云與此間不別。師云。且道此間風景如何。云和尚與某甲不同。師云。踏破施主草鞋。當為何事。僧無對。師云。即古即今。出箇問處且難。乃至老僧。亦出不得。

#### 侍郎文公韓愈(凡四)

公鎮潮州。暇日謁大顛。問弟子軍州事多。省要處。乞師一言。顛據坐。公罔措。時三平義忠禪師。侍立。乃敲繩床三下。顛回顧云。作麼。忠云。先以定動。後以智拔。公作禮云。和尚門風高峻。弟子。於侍者邊。得箇入處。

三平遷化。眾請公作喪主。公將手巾一條。蓋一面砂鑊。上橫一口劍。直到龕前。放下云。還有人道得麼。若道得。某甲即作喪主。若道不得。某甲即不作喪主。其時一眾無對。公踢翻砂鑊。哭云。蒼天蒼天。先師遠矣。

羅山閑。到三平讀碑。見載其事。乃云。噫。大奇大奇。三平門下。六百來人。總被箇俗漢吞却也。陳老師當時若在。未放他過在。

時有僧問。只如侍郎與麼上來。未審作麼生祇對。羅山云。我當時若在。只將七尺布巾。蓋却頭。橫亞一柄靈刃刀。以手握起孝幕。當門而坐。看韓家箇漢。要作喪主。也未得。要不作喪主。也未得。進之須有理。退之須有理(統要云。漳守姓韓。非文公也)。

公問僧。承聞講得肇論。是否。云不敢。公云。肇有四不遷。是否。云是。公將茶盞。撲破云。這箇是遷不遷。僧無對。

汾陽昭代云。識得侍郎。

公因唐憲宗。迎佛骨。入大內供養。夜放光明。次日早朝。羣臣皆賀。陛下聖德聖感。唯公不賀。上宣問。羣臣皆賀。卿何獨不賀。

公奏云。臣曾看佛書。佛光非青黃赤白等相。此是神龍衛護之光。上問。如何是佛光。公無對。因以罪出。

雪竇代云。陛下高垂天鑑。

## 青原下第五世

### 澧州龍潭崇信禪師法嗣

#### 鼎州德山宣鑑禪師(凡十三)

劔南周氏子。師在蜀。業金剛經。因號周金剛。嘗謂同學云。一毛吞海。海性無虧。纖芥投鋒。鋒利不動。學與無學。唯我知焉。後聞南方禪席頗盛。師氣不平。謂同列曰。出家兒。千劫學佛威儀。萬劫學佛細行。尚不得成佛。南方魔子。敢言。直指人心。見性成佛。我當<sup>搜</sup>其窟穴。滅其種族。以報佛恩。遂擔青龍疏抄。出蜀。及中路。遇一賣餅婆子。師放下疏抄。問婆云。買餅點心。婆斂手云。上座擔者。何文字師云。青龍疏抄。婆云。講何經。師云。金剛經。婆云。婆有一問。上座若道得。即捨餅充點心。師云。便請。婆云。經中道。過去心不可得。見在心不可得。未來心不可得。上座鼎鼎。是點那箇心。師無對。

徑造龍潭。纔相見。便問。久響龍潭。及乎到來。潭又不見。龍又不現。潭云。子親到龍潭。師作禮而退。

雪竇云。將錯就錯 雲峯悅云。大小德山。向龔甕裏淹殺 黃龍心云。雪竇與麼。不知德山將錯就錯。龍潭將錯就錯。識休咎底衲僧。必知去處。未過關者。亦宜辨白。還相委悉麼。縱饒栽種得。不是棟梁材。

師因侍立龍潭。抵夜。潭云。夜深。子何不下去。師即珍重。揭簾而出。見外面黑。却回云。外面黑。潭點紙燈。度與師。師擬接。潭便吹滅。師於此大悟。便作禮。潭云。子見箇甚麼道理。師云。某甲從今日去。不疑天下老和尚舌頭。

次日龍潭陞堂云。可中有箇漢。牙如劔樹。口似血盆。一棒打不回頭。他時異日。向孤峯頂上。立吾道去在。

師取疏抄。於法堂前。將一炬火。提起云。窮諸玄辯。若一毫置於太虛。竭世樞機。似一滴投於巨壑。將疏抄便燒。於是取辭。

師到瀋山。挾複子。於法堂。從西過東。從東過西。顧視方丈。瀋山不顧。師云無無。便出去(雪竇云。勘破了也)。師至門首。却云。也。不得草草。却具威儀。再入相見。纔跨門。提起坐具。召云和尚。瀋山擬取拂子。師便喝。拂袖而出。(雪竇云。勘破了也)瀋山至晚。問

首座。今日新到。在甚麼處。座云。當時背却法堂。著草鞋出去了也。為云。還識此人麼。云不識。為云。此子已後。向孤峯頂上。盤結草庵。呵佛罵祖去在(雪竇云。雪上加霜)。

五祖戒云。德山作賊人心虛。為山賊過後張弓。

妙喜云。二尊宿。恁麼相見。每人失却一隻眼。

示眾云。於已無事。則勿妄求。妄求而得。亦非得也。汝但無事於心。無心於事。則虛而靈。空而妙。若毫端許。言之本末者。皆為自欺。何故。毫釐繫念。三塗業因。瞥爾情生。萬劫羈鎖。聖名凡號。盡是虛聲。殊相劣形。皆為幻色。汝欲求之。得無累乎。及其厭之。又成大患。終而無益。

小參。示眾云。今夜不答話。問話者。三十棒。時有僧出。作禮。師便打。僧云。某甲話也未問。為甚便打。師云。爾是甚處人。云新羅人。師云。未跨船舷時。好與三十棒。

法眼云。大小德山。話作兩橛。德山密云。大小德山。龍頭蛇尾。雪竇云。二尊宿。雖善裁長補短。舍重從輕。要見德山老漢。亦未可在。何故。殊不知。德山握閩外之威權。有當斷不斷。不招其亂底劒子。諸人要識新羅僧麼。只是撞著露柱底瞎漢。大為喆云。德山大似清平世界鎗甲磨鎗。這僧不惜性命。身挨白刃。

示眾云。問則有過。不問猶乖。

時有僧出作禮。師便打。僧云。某甲話也未問。為甚便打。師云。待爾開口。堪作甚麼。

示眾云。諸子從朝至暮。有甚麼事。莫要逞驢唇馬嘴。問德山老漢麼。我且不怕爾。未審諸子。有何疑慮。近來末法時代。多有鬼神群隊。傍家走言。我是禪師。未審學得多少禪道。說似老漢來。爾諸方老禿奴。教爾修行作佛。傍家行脚。成得幾箇佛也。爾若無可學。又走作甚麼。若有學者。爾將取學得底來。呈似老僧看。一句不相當。須喫痛棒。始得。爾被他諸方老禿奴。魔魅著。便道。我是修行人。打硬作模作樣。恰似得道底人面孔。莫取次用心。萬劫千生。輪回三界。皆為有心。何故。心生則種種法生。若能一念不生。則永脫生死。不被生死纏縛。要行即行。要坐即坐。更有甚麼事。仁者。我見爾諸人。到處發心。向老禿奴會下。學佛法。荷負不惜身命。皆被釘却諸子眼睛。斷諸子命根。三二百箇姪女相似。道我王化建立法幢。為後人開眼目。自救得麼。仁者如此說修行。豈不聞道。老胡經三大阿僧祇劫修行。即今何在。八十年後死去。與爾何別。諸子莫狂。勸爾。不如休歇去。無事去。爾瞥起一念。便是魔家眷屬。破戒俗人。爾見德山出世。十箇五箇。擬聚頭來難問。教結舌無言。爾是樓儼兒。今何不出來。破布袋裏。盛錐子。

不出頭。是好手。我要問爾實底。莫錯。仁者。波波地傍家走道。我解禪解道。點胸點肋。稱楊稱鄭。到這裏。須盡吐却。始得無事。爾但外不著聲色。內無能所知解。體無凡聖。更學甚麼。設學得百千妙義。只是箇喫瘡疣鬼。總是精魅。我這裏虛空。道有。且不是有。道無。且不是無。言凡不凡。言聖不聖。一切處。安著他不得。與爾萬法為師。這箇老漢。不敢謗他。所以老胡。吐出許多方便涕唾。教爾無事去。莫向外求。爾更不肯。欲得採集殊勝言句。蘊在芻襟。巧說言辭。以舌頭取辦。高著布裙。貴圖人知。道我是禪師。要出頭處。若作如此見解。打那鬼骨臀。入拔舌地獄。有日在。到處覓人。道我是祖師門下客。被他問著本分事。口似木揸。便却與他說菩提涅槃。真如解脫。廣引三藏言教。是禪是道。誑他閻閻。有甚麼交涉。謗我先祖。德山老漢。見處即不然。這裏佛也無。祖也無。達磨是老臊胡。十地菩薩。是擔屎漢。等妙二覺。是破戒凡夫。菩提涅槃。是繫驢橛。十二分教。是鬼神簿。拭瘡疣紙。四果三賢。初心十地。是守古塚鬼。自救得也無。佛是老胡屎橛。仁者莫錯。身披瘡疣衣。學甚麼事。飽喫了飯。說真如涅槃。皮下還有血麼。須是箇丈夫始得。爾莫愛聖。聖是空名。向三界十方世間。若有一塵一法可得。與爾執取生解。保任貴重者。盡落天魔外道。是有學得底。亦是依草附木。精魅野狐。諸子。老漢此間。無一法與爾諸子。作解會。自己亦不會禪。老漢亦不是善知識。百無所解。只是箇屙屎送尿。乞食乞衣。更有甚麼事。德山老漢勸爾。不如無事去。早休歇去。莫學顛狂。每人擔箇死屍。浩浩地走。到處向老秃奴口裏。愛他涕唾喫。便道。我是人三昧。修蘊積行。長養聖胎。願成佛果。如斯等輩。德山老漢見。似毒箭入心。花針亂眼。辜負先聖。帶累我宗。圖他道我是出家兒。如此消他十方施主。水也消不得。莫筭道。敢向他國王地上行。父母不供甘旨。豈為無罪。莫錯用心。閻羅王。徵爾草鞋錢。有日在。穿爾鼻孔。繫著橛上。償他宿債。莫言不道。是爾諸人。大似有福。遇著德山出世。與爾解却繩索。脫却籠頭。卸却角馱。作箇好人去。三界六道。收攝爾不得。更無別法。是箇烜赫虛空。無礙自在。不是爾莊嚴得底物。從佛從祖。皆傳此法。而得出離。一大藏教。只是整頓爾今時人。諸子。莫向別處求覓。乃至達磨小碧眼胡僧。到此來。也只是教爾無事去。教爾莫造作。著衣喫飯。屙屎送尿。更無生死可怖。亦無涅槃可得。無菩提可證。只是尋常。一箇無事人。第一莫拱手作禪師。覓箇出頭處。巧作言語。魔魅後生。欲得人喚作長老。自己分上。都無交涉。徒知心識浩浩地。日夜捏怪不休。稱楊稱鄭。我是江西馬大師宗徒。德山老漢。且不是爾羣隊人。我見石頭和尚。不識好惡老

漢。所以罵他諸子。爾莫著聲色。名言句義。境致機關。道理善惡。凡聖取捨。攀緣染淨。明暗有無諸念。可中與麼得。方是箇無事人。佛亦不如爾。祖亦不如爾。仁者莫走蹈爾脚板闊去。別無禪道可學。若有學得者。即是二頭三首。外道見解。亦無神通變現可得。汝道神通是聖。諸天龍神。五通神仙。外道修羅。亦有神通。應可是佛也。孤峰獨宿。一食卯齋。長坐不臥。六時禮念。疑他生死。老胡有言。諸行無常。是生滅法。若言入定凝神。靜慮得者。尼乾子等。諸外道師。亦入得八萬劫大定。莫是佛否。明知邪見精魅。仁者老胡不是聖。佛是老胡屎橛。且要仁者。辨取好惡。莫著人我。免被諸聖橛。菩提橛。解脫殊勝。名言妙義。沒溺繫縛汝。何故。一念妄心不盡。即是生死相續。仁者時不待人。莫因循過日。時光可惜。老漢不圖爾田庫奴荷負。若肯。即信取。若不肯。每人有箇屎鉢。擔取去。老漢亦不求爾。諸方大有老禿奴。取一方處所。說禪說道。爾急去學取抄取。我此間。終無一法與爾諸人。仁者問取學取。以為知解。老漢不能入拔舌地獄。若有一塵一法。示諸人。說言有佛有法。有三界可出者。皆是野狐精魅。諸人者。欲得識麼。只是箇虛空。尚無纖塵可得。處處清淨。光明洞達。表裏瑩徹。無欲無依。無棲泊處。有甚麼事。老漢從生至死。只是箇老比丘。雖在三界生。而無垢染。欲得出離何處去。設有去處。亦是籠檻。魔得其便。仁者莫用身心。無可得。只要一切時中。莫用他聲色。應是從前行履處。一時放却。頓脫羈鎖。永離蓋纏。一念不生即前後際斷。無思無念。無一法可當情。仁者。作麼生擬下口觜。爾多知解。還曾識渠面孔麼。出家兒。乃至十地滿心菩薩。覓他蹤跡不得。所以諸天歡喜。地神捧足。十方諸佛讚嘆。魔王啼哭。何以故。緣此虛空。活鱗鱗地。無根株。無住處。若到這裏。眼目定動。即沒交涉。仁者莫求佛。佛是大殺人賊。賺多少人。入婬魔坑。莫求文殊普賢。是田庫奴。何惜許。一箇堂堂大丈夫兒。喫他毒藥了。便擬作禪師面孔。見神見鬼。向後狂亂。傍家走。覓師婆。打瓦卜去。被無知老禿奴。便即與卜道。教爾禮祖師鬼。佛鬼。菩提涅槃鬼。是小婬女子不會。便問。如何是祖師西來意。這老禿奴。便打繩床。作境致。豎起拂子云。好晴好雨。好燈籠。巧述言辭。強生節目。言有玄路。鳥道展手。若取如是說。如將寶器。貯於不淨。如將人糞。作旃檀香。仁者。彼既丈夫。我亦爾。怯弱於誰。竟日就他諸方老禿奴口觜。接涕唾喫了。無慚無愧。苦哉苦哉。狂却子去。因果分明。水牯牛。牽犁拽把。眼睛突出。氣力不登。大棒打爾脊。劫佛衣食。道我修行了也。若不明大理。饒爾去佛肚裏過來。只是箇能行底屎橛。不曾遇著好人。便即認得六

根門頭光影。向口裏。說取露布。是隱言妙句。光彩尖新。爭奈爾自家無分。仁者。是別人涕唾。

更有一輩。三三兩兩。聚頭商量。甚麼處無事好。經冬過夏。快說禪道。有知解會義理。仁者。總作如此見解。覓便宜。豈有如此道理。入地獄。有日在。莫道不向諸子說。到處。菜不擇一莖。柴不搬一束。一朝福盡。只是喫草去。虛消信施。濫稱參學。更作禪師摸樣。無益於人。自己分上。十二時中。行履處。心常附物。見人只欲妖媚。掉尾子。指東語西。眼裏口邊。果然不見。只欲將相似語。勘當解處。老漢。與爾諸人何別。郎君子。莫取一期眼下口快。喫他毒藥了。似貪姪女人。不持齋戒。瞎禿奴。羣羊僧。顛却他人。入地獄。仁者。莫取次看策子。尋句義。覓勝負。一遞一口。何時休歇。老漢相勸。不是惡事。切須自帶眼目。辨取清濁。是佛語是魔語。莫受人惑。所以殊勝名言。皆是老胡。一期方便施設。切須休歇去。莫倚一物。領他言語。作解會。揀擇親疎。浮虛詐偽。記他閑言長語。皆是比量。仁者。老漢只恐諸子。墮坑落澗。作薄福業。事持脣觜。得少為足。向靜處立。不肯進前。自惑諸境。亂走他。又由巡萬法。蓋為不信虛空。本來無事。增減他不得。爾諸人。好似老鴟。身在虛空。心在糞堆頭。只覓死物喫。諸子。莫道德山老漢。不曾入叢林。商量高聲。罵取無人情。不怕業。只為諸子。不守分。馳騁四方。傍他門戶。恰似女姑鬼。傳言送語。依事作解。心跡不忘。自猶不立。常負死屍。擔枷帶鎖。五百一千里。來到德山面前。八字立地。如欠伊禪道相似。和尚須為我說。指示我。老漢全體作用。大棒鎧這田庫奴。罵賊屎孔面。不識好惡。到我這裏。恰似遇澧州人。喫魚羹。爛糞一頓。且圖爾放下重擔。去却枷鎖。作箇好人去。還肯麼。若肯。即住。不肯。一任脫去。珍重。

雪峰問。古人斬虵。意旨如何。師便打。峰便走。師召云。布衲。峰回首。師云。他後悟去。方知老漢徹底老婆心。

師見僧來。閉却門。僧敲門。師問阿誰。云師子兒。師開門。僧作禮。師驀項騎云。這畜生。甚處去來。

有僧。來相看。作相撲勢。師云。與麼無禮。合喫山僧手中棒。僧拂袖便行。師云。饒爾如是。也只得一半。僧轉身便喝。師便打云。須是我打爾。始得。僧云。諸方有明眼人在。師云。天然有眼。僧擘開眼云。貓。便出。師云。黃河三千年一度清。

僧問。路逢達道人。不將語默對。未審將甚麼對。師云。只恁麼。僧良久。師云。汝更問看。僧擬再問。師便喝出。

妙喜云。不妨好一喝。只是下得太遲。

僧問。如何是菩提。師云。出去。莫向這裏屙。問如何是佛。師云。佛是西天老比丘。  
師因疾。僧問。還有不病者麼。師云有。云如何是不病者。師云。阿耶耶。阿耶耶。  
師臨示寂時。示眾云。捫空追響。勞汝精神。夢覺覺非。復有何事。言訖端然而寂。  
時咸通六年乙酉。十二月三日也。壽八十六。臘六十五。塔于本山。

### 洪州寶峰和尚(凡五)

師問巖頭。與麼與麼。作麼生會。頭云。不與麼不與麼。又作麼生會。師云。是平實語。頭云。腰帶無鉤。師云。作麼生。頭云。上腰不得。師云。是平實語。  
有僧從巖頭來。師豎起拂子云。落在此機底人。未具眼在。僧擬進前。師云。恰落在此機。  
僧回舉似巖頭。頭云。我若見。奪却拂子。看他作麼生。師聞乃云。我豎起拂子。從他奪。總不將物來。爾又作麼生。頭聞乃云。無星秤子。有甚麼辨處。  
師見僧念經。從方丈前過。師云。滿口道盡。只是不具眼。僧以手指師云。道道師掌身邊沙彌云。眼在甚麼處。僧蹶一足云。與麼與麼。師云。長江下釣。無餌也吞。僧便喝云。這老和尚。無故塗糊人。師云。咬人師子不露牙。僧作咬勢。師云。大裁帽子別處戴。  
師問僧。其中事。即易道。不落其中事。始終難道。僧云。某甲在路時。便知有此一問。師云。更二十年行脚。也不較多。云莫不契和尚意麼。師云。苦瓜那堪待客。  
師問僧。古人有一條路。接初機晚進。汝還知麼。云請師指出。師云。恁麼則闍梨知了也。云頭上更安頭。師云。老僧不合問。云問又何妨。師云。我這裏。不曾容人亂道。出去。

### 潭州道吾宗智禪師法嗣

#### 潭州石霜慶諸禪師(凡十二)

廬陵陳氏子。  
師到瀋山。作米頭。篩米次。山云。施主物。莫拋撒。師云。不拋撒。瀋於地上。拾得一粒米。示師云。汝道不拋撒。這箇從甚麼處

得來。師默然。為云。莫輕這一粒。百千粒。盡從這一粒生。師云。未審這一粒。從甚麼處生。為山呵呵大笑。歸方丈。

至晚上堂云。大眾。米裏有蟲。

師問道吾。如何是觸目菩提。吾喚沙彌。彌應諾。吾云。添淨瓶水著。吾却問。汝適來問甚麼。師擬舉。吾便起去。師於此密契。道吾謂師云。我疾作。將欲去世。心中有物。久而為患。誰為我除。師云。心物俱非。除之益患。吾賢之。

示眾云。一代時教。是整頓爾時人手脚。凡有其由。皆落今時。直至法身非身。猶是教家極則。我輩沙門。全無肯路。若分即差。不分即坐著泥水。

僧問。咫尺之間。為甚麼。不覩師顏。師云。我道徧界不曾藏。

僧後問雪峯。徧界不曾藏。意旨如何。峯云。甚麼處不是石霜。

僧回舉似師。師云。這老漢。有甚麼死急。

玄沙云。山頭老漢。蹉過也。洞山云。笑殺土地。

瑯琊覺云。雪峰雖有利人之心。且無出人之眼。石霜雖有出人之眼。未知有向上一竅。

僧問。先師一片靈骨。黃金色。擊作鐘聲。未審甚麼處去也。師召僧。僧應諾。師云。爾不會我語。去。

有僧辭師。問舡去陸去。云遇舡即舡。遇陸即陸。師云。我道半途稍難。僧無對。

雲門代云。三十年後。此話大行。又云。臨行之句。永劫不忘。

僧問。三千里外遠聞。石霜有箇不顧。是否。師云是。云且如萬象歷然。是顧不顧。師云。我道不驚眾。云不驚眾。是不與萬象合。如何是不顧。師云。徧界不曾藏。

雪竇云。誰是不顧者。

裴相公來。師拈起裴笏問。在天子手中為珪。在官人手中為笏。在老僧手中。且道。喚作甚麼。裴無對。師乃留下笏子。

雪竇代云。弄巧成拙。保寧勇代云。只恐和尚用不著。

師問侍者。道吾云。莫棄這邊。著那邊。爾作麼生會。者云。一依和尚所會。師云。作麼生是我會處。者從西過東而立。師云。爾正是棄這邊。著那邊。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扣齒示之。僧不契。

師遷化後。其僧問九峰。先師扣齒。意旨如何。峯云。寧可截舌。不犯國諱。

僧問雲蓋。蓋云。我與先師。有甚冤讎。

僧問。一毫穿眾穴。時如何。師云。直須萬年去。云萬年後如何。

師云。登科任爾登科。拔萃任爾拔萃。

其僧後問徑山謹。謹云。光靴任爾光靴。結裹任爾結裹。

### 潭州漸源仲興禪師(凡六)

師為道吾。作侍者。一日過茶與吾。吾接得。拈起盞子云。是斜是正。師叉手近前視之。吾云。斜則總斜。正則總正。師云。某甲不恁麼。吾云。子作麼生。師奪盞子。提起云。是斜是正。吾云。汝不謬為吾侍者。

師侍道吾。到一家吊慰次。師撫棺云。生耶死耶。吾云。生也不道。死也不道。師云。為甚麼不道。吾云。不道不道。歸至中路。師云。和尚快與某甲道。若不道。打和尚去。吾云。打即任打。道即不道。師便打。

吾歸寺謂師云。汝宜離此。恐知事知。於汝不便。

大滄秀云。大凡言論。須有轉身之謀。道吾既喫他痛棒。且漸源具甚麼眼。

師辭道吾。去一村院。凡經三年。一日聞童子念經云。應以比丘身得度者。即現比丘身。師忽然大悟。遂焚香。作禮云。信知先師之言。終不虛發。自是我不會。錯怪先師也。

師後造石霜。霜問。向來打先師因緣。還會也未。師云。却請和尚道。霜云。不見道。生也不道。死也不道。師遂通所得。作禮而退。

雲居元云。石霜著甚死急。喚惺千箇漸源。有甚用處。當初待他舉了。以棒打出。非唯作天下宗師。亦乃與道吾雪屈。

師一日。荷鋤子。於法堂上。從西過東。從東過西。霜問。作甚麼。師云。覓先師靈骨。霜云。洪波浩渺。白浪滔天。覓甚麼先師靈骨。師云。正好著力。霜云。這裏針筍不入。著甚麼力。師荷鋤便出。

太原孚云。先師靈骨猶在。

保寧勇頌云。終日挨門復倚樓。幾回明鏡照梳頭。自從事却潘郎後。也會人前不識羞。

師在紙帳中坐。有僧來撥開帳云。不審。師視之。良久云。會麼。云不會。師云。七佛已前事。為甚麼不會。

後僧舉似石霜。霜云。如人善射。箭不虛發。

師一日。捲簾。在方丈內坐。寶蓋和尚來見。乃下却簾子。歸客位。師令侍者傳語云。長老遠來不易。猶隔津在。蓋打侍者一掌。者云。不得打某甲。自有堂頭和尚在。蓋云。為有堂頭和尚。所以打爾。者舉似師。師云。猶隔津在。

### 祿青和尚(凡三)

僧問。不落道吾機。請師道。師云。庭前紅菟樹。生葉不生花。僧無語。師云。會麼。云不會。師云。正是道吾機。為甚麼不會。僧作禮。師便打云。須是老僧打爾。始得。有僧來。師以目視之。僧云。是箇機關。於某甲分上用不著。師彈指三下。僧繞繩床一匝。依位而立。師云。參堂去。僧纔出去。師便喝。僧以目視之。師云。酌然是用不著。

### 潭州雲巖曇晟禪師法嗣

#### 筠州洞山良价禪師(凡二十六)

會稽俞氏子。七歲依律師出家。一日律師。為師授般若心經。至無眼耳鼻舌身意處。師顧律師上下。又自捫其身云。和尚亦有眼耳鼻舌身意。某甲亦有眼耳鼻舌身意。佛何得言無。其師驚云。吾非汝師。汝已後當荷大乘法去。遂親送師。入五洩山出家。

師初謁忠國師。問如何是古佛心。忠云。墻壁瓦礫是。師云。墻壁瓦礫。豈不是無情。忠云是。師云。無情還會說法也無。忠云。常說。熾然說。無間歇。師云。甚麼人得聞。忠云。諸聖得聞。師云。師還聞否。忠云。我不聞。師云。和尚既不聞。爭知無情會說法。忠云。賴我不聞。我若聞。即齊於諸聖。汝即不聞我說法。師云。恁麼則眾生無分也。忠云。我為眾生說。不為諸聖說。師云。眾生聞後如何。忠云。即非眾生。師云。無情說法。該何典教。忠云。酌然。言不干典。非君子之所談。豈不是。華嚴云。剎說眾生說。三世一時說。師不契。

師後到瀋山。山問。承聞。价闍梨。曾問忠國師無情說法。是否。師云是。瀋云。試舉看。師舉了。瀋云。我這裏。也有些子。只是罕遇其人。師云。便請。瀋以拂子。點一點。師云。請和尚。為某甲說。瀋云。父母所生口。終不為子說。

師云。此間莫有同年慕道者麼。瀋云。此去澧陵縣側石室。有雲崑道人。若能撥草瞻風。必為子之所重。

師辭瀋山。直造雲崑。請益前話。崑云。不見彌陀經云。水鳥樹林。悉皆念佛念法。師因有省。作偈云。也大奇。也大奇無情說法不思議。若將耳聽終難會。眼處聞聲方得知。

師問雲巖。某甲有餘習未盡。巖云。汝曾作甚麼來。師云。聖諦亦不為。巖云。還得歡喜地也未。師云。歡喜即不無。如糞堆頭。拾得一顆明珠。

師問雲巖。百年後。忽有人問。還邈得和尚真。如何祇對。巖云。但道。只這是。師沉吟。巖云。价闍梨。承當箇事。大須審細。師無語。巖便打。

後因過水觀影。方得頓悟。作偈云。切忌從他覓。迢迢與我疎。我今獨自往。處處得逢渠。渠今正是我。我今不是渠。應須恁麼會。方得契如如。

師因供養雲巖真。僧問。先師道。只這是。莫便是麼。師云是。云意旨如何。師云。當初泊錯會先師意。云未審先師。還知有也無。師云。若不知有。爭解恁麼道。若知有。爭肯恁麼道。

師辭京兆興善平禪師。平問。甚處去。師云。汭流無定止。平云。法身汭流。報身汭流。師云。總不作此解。平乃撫掌。

示眾云。秋初夏末。東去西去。直須向萬里無寸草處去。始得。又云。只如無寸草處。作麼生去。

後有僧。舉似石霜。霜云。出門便是草。師聞乃云。大唐國裏。能有幾人。

大陽延云。如今直道。不出門。亦草漫漫地。且道。合向甚麼處行履。良久云。莫守寒巖異草青。坐著白雲宗不妙。

妙喜云。師子一滴乳。迸散十斛驢乳。

示眾云。有一人。在千人萬人中。不背一人。不向一人。爾道。此人具何面目。雲居膺出云。某甲參堂去。

師垂語云。須知有佛向上事。時有僧出問。如何是佛向上事。師云。非佛。

雲門云。名不得。狀不得。所以言非。

師夜參不點燈。有僧問話退。師喚侍者點燈來。召其僧。僧出來。師云。將取三兩粉。與這上座。其僧拂袖而退。因而有省。乃罄衣鉢設齋。

得三年後。辭師。師云。善為。

時雪峰侍立。乃問。這僧辭去。幾時却來。師云。他可知一去。不解再來。其僧歸衣鉢下坐化。須臾報師。師云。雖然如此。猶較老僧三生在。

師與泰首座。喫果子次。師問。有一物。上拄天。下拄地。黑如漆。常在動用中。動用中収不得。爾道。過在甚麼處。泰云。過在動用中。師便喝。掇却果卓。

五祖戒云。來朝更獻楚王看。

大滄喆云。還知洞山落處麼。若也不知。往往作是非得失會去。山僧道。這果子。莫道泰首座不得喫。設使盡大地人來。亦不得正眼覷著。

雲蓋本云。洞山雖有打破虛空底鉗鎚。且無補綴底針線。待伊道過在動用中。但道請首座喫果子。泰首座若是箇漢。喫了也須吐出。

開善謙云。洞山倚勢欺人。真如隨風倒柂。忽有人。問山僧道。過在甚麼處。拈果子便喫。何故。下坡不走。快便難逢。師在泐潭。因初首座。示眾云。也大奇也大奇。佛界道界。不思議。師出云。佛界道界。即不問。且如說佛界道界。是甚麼人。只請一言。初良久。師云。何不急道。初云。爭即不得。師云。道也未曾道。說甚麼爭即不得。初無語。師云。佛之與道。只是名字。何不引教。初云。教道甚麼。師云。得意忘言。初云。猶將教意向心頭。作病在。師云。說佛界道界。病大小。

初明日忽遷寂。時號師。為問殺首座价。

師與雲居渡水次。問水深多少。居云。不濕。師云。羸人。居云。和尚作麼生。師云不乾。

有一病僧。在延壽堂。要見師。師遂去。僧問。和尚何不救取人家男女。師云。汝是甚麼人家男女。云某甲是大闡提人家男女。師良久。僧云。四山相逼時如何。師云。老僧亦從人屋簷下過。云回互不回互。師云。不回互。云教某甲。向甚麼處去。師云。粟畚裏去。僧噓一聲云。珍重便坐脫。師以拄杖。敲頭三下云。汝只解恁麼去。不解恁麼來。

師因普請次。巡察。見一僧。師問。爾何不赴普請。云某甲不安。師云。爾尋常安時。又何曾去。僧無對。

師問僧。名甚麼。云某甲。師云。阿那箇是爾主人公。云見祇對次。師云。苦哉苦哉。今時人。例皆如此。只認得驢前馬後底。將謂自己。佛法平沉。因茲是也。客中認主。尚未分明。如何辨得主中主。

僧便問。如何是主中主。師云。闍梨自道取。云某甲道得。只是客中主。如何是主中主。師云。與麼道即易。相續也大難。

乃示偈云。嗟見今時學道流。千千萬萬認門頭。還似入京朝聖主。只到潼關即便休。

僧問。時時勤拂拭。莫遣惹塵埃。為甚麼。不得他衣鉢。師云。直饒道本來無一物。也未合得他衣鉢。云甚麼人合得。師云。不入門者。云只如不入門者。還得也無。師云。雖然如此。不得不與他。師復云。直道本來無一物。亦未合得他衣鉢。這裏合下得甚麼語。有一僧。下九十六轉語。不愜師意。末後一轉。始相契。師云。何不早恁麼道。

有一僧。密聽。只不聞末後一轉語。請益其僧。僧不肯說。如是三年。執侍巾瓶。一日因疾。僧云。某甲請舉前話。不蒙慈悲。善取

不得。惡取去。遂將刀向前云。上座若不為某甲舉。即殺上座去僧悚然云。闍梨且待。我為汝舉。乃云。直饒將來。也無著處。其僧忻然禮謝。

雪竇云。他既不受是眼將來底。必應是瞎。還見祖師衣鉢麼。若於此入門。便乃兩手分付。非但大庾嶺頭。一人提不起。設使盍國人來。且款款將去。翠巖芝云。不得他衣鉢。即與古佛同參。且道參阿誰。

師於扇上。書佛字。雲巖見。即書不字。又改作非字。雪峰見。一時除却。

師問僧。甚處來。云游山來。師云。還到頂麼。云到。師云。頂上有人麼。云無人。師云。爾不曾到頂。云若不到頂。爭知無人。師云。闍梨何不且住。云某甲住即不辭。西天有人不肯。

僧問。三身中。阿那身說法。師云。吾常於此切。

僧後問曹山。洞山道。吾嘗於此切。意旨如何。曹云。要頭便斫將去。

又問雪峯。峯以拄杖。劈口拄云。我也曾到洞山來。

承天宗云。一轉語。海晏河清。一轉語。風高月冷。一轉語。騎賊馬趕賊。試請辨看。忽有箇衲僧。出來道。總不恁麼。也許他具隻眼。

僧問。寒暑到來時。如何回避。師云。何不向無寒暑處去。云如何是無寒暑處。師云。寒時寒殺闍梨。熱時熱殺闍梨。

雪竇頌云。垂手還同萬仞崖。正偏何必在安排。瑠璃古殿照明日。忍俊韓獹空上堦。

師問僧。世間甚麼物最苦。僧云。地獄最苦。師云。不然。衣線下不明大事。始是苦。

有官人云。某甲欲註三祖信心銘。師云。纔有是非。紛然失心。作麼生註。官人無對。

保寧勇代云。今日得上座證明。

師將示寂。遣沙彌去。傳語雲居。他若問汝和尚。有何言句。但道。雲居路欲絕也。汝須遠立。恐他打爾。沙彌依教。語未終。被雲居打一棒。沙彌無語。

師臨示寂時。告眾云。吾有閑名在世。誰為我除。有沙彌出云。請和尚法號。師云。吾閑名已謝。

師於咸通十年。三月一日。剃沐。端然坐逝。大眾號慟移時。師忽開眼云。夫出家之人。心不附物。是真修行。勞生息死。於悲何有。乃令主事。辨愚癡齋一中。蓋責其戀情也。至八日。方坐逝。壽六十三。臘四十二。塔于本山。

### 潭州神山僧密禪師(凡五)

師與洞山行次。忽見白鹿走過。師云。俊哉。洞云。作麼生。師云。大似白衣拜相。洞云。老老大大。作這箇語話。師云。爾又作麼生。洞云。積代簪纓。暫時落魄。

師與洞山過水。洞云。莫錯下脚。師云。若錯。即過不得也。洞云。不錯底事作麼生。師云。共長老過水。

師與洞山行次。洞指路傍院云。裏面有人。說心說性。師云。是誰。洞云。被師伯一問。直得去死十分。師云。說心說性者誰。洞云。死中得活。

師把針次。洞山問。作甚麼。師云。把針洞云。把針事作麼生。師云。針針相似。洞云。三十年同行。作這箇語話。豈有與麼工夫。師云。長老作麼生。洞山云。大地火發底道理。

師與洞山鋤茶園。洞擲下鋤頭云。我今日困。一點氣力也無。師云。若無氣力。爭會與麼道。洞云。爾將謂有氣力底是那。師休去。

### 涿州杏山鑿洪禪師(凡一)

臨濟問。如問是露地白牛。師云。咩咩。濟云。啞却杏山口。師云。長老作麼生。濟云。這畜生。師便休。

### 幽溪和尚(凡一)

僧問。大用現前。不存軌則。時如何。師繞繩床一匝而坐。僧擬進語。師與一踏。僧歸位而立。師云。汝恁麼。我不恁麼。汝不恁麼。我却恁麼。僧再進語。師又與一踏云。三十年後。吾道大行。

聯燈會要卷第二十

青原下第五世

秀州華亭船子德誠禪師法嗣

澧州夾山善會禪師(凡十九)

廣州峴亭。廖氏子。初住京中竹林寺(今鶴林是)。上堂。有僧問。如何是法身。師云。法身無相。進云。如何是法眼。師云。法眼無瑕。道吾時客座下。聞是語。不覺失笑。

師纔下座。即請吾喫茶。問某甲適來祇對這僧話。必有不是處。致令上座失笑。望上座。不吝慈悲。吾云。和尚一等是出世。未有師在。師云。某甲甚處不是。望為說破。吾云。某甲終不說。可參華亭船子誠和尚去。師云。此人如何。吾云。此人上無片瓦遮頭。下無卓錫之地。若去宜易其服。

師乃散眾。易服。徑造華亭。誠見師來。便問。大德住甚麼寺。師云。似則不住。住則不似。誠云。不似。又不似箇甚麼。師云。不是目前法。誠云。甚處學得來。師云。非耳目之所到。誠云。一句合頭語。萬劫繫驢橛。

誠又問。垂絲千尺。意在深潭。離鈎三寸。子何不道。師擬開口。誠拈橈子。臂脊打落水中。師纔上船。誠急索云。道道。師擬開口。誠又打。師豁然大悟。乃點頭三下。誠云。竿頭絲線從君弄。不犯清波意自殊。

師遂問。拋綸擲釣。師意如何。誠云。絲懸淥水浮。定有無之意。師云。語帶玄而無路。舌頭談而不談。誠云。釣盡江波。金鱗始遇。師乃掩耳。誠云。如是如是。

即囑師云。向去直須藏身處沒蹤跡。沒蹤跡處莫藏身。吾二十年在藥山。只明斯事。汝今既得。他後不得住城隍聚落。但向深山裏鑿頭邊。覓取一箇半箇接續。無令斷絕。

師即辭行。頻頻回顧。誠喚云。闍梨闍梨。師回首。誠豎起橈子云。汝將謂別有那。乃覆缸入水而逝。

師後出世夾山。

示眾云。不知天曉。悟不由師。龍門躍鱗。不墮漁人之手。但意不寄私緣。舌不親玄旨。正好知音。此名俱生話。若向玄旨疑去。賺

殺闍梨。困魚止灤。鈍鳥棲蘆。雲水非闍梨。闍梨非雲水。老僧於雲水。而得自在。闍梨又作麼生。

示眾云。金烏玉兔。交互爭輝。坐却日頭。天地黑暗。上脣與下脣。從來不相識。明明向君道。莫令眼顧著。何也。日月未足為明。天地未足為大。空中不運斤。巧匠不遺蹤。見性不留佛。悟道不存師。尋常老僧道。目覩瞿曇。猶如黃葉。一大藏教。是老僧坐具。祖師玄旨。是破草鞋。闍梨。寧可赤脚不著最好。

示眾云。古人重懷中之金。千尺冰雪。遇日即消。萬劫疑情。一句頓曉。不墮沙門手。不度六門事。聞中生解。意下丹青。浮雲不關山。滴水鋒鋸。尚犯他影。饒君解唱婆娑曲。終歸不曉影人蹤。駟馬奔騰。從闍梨立響。這裏老僧沒蹤。

示眾云。眼不挂戶。意不停玄。直得靈草不生。猶是五天之位。珠光月魄。不是出頭時。座上無老僧。目前無闍梨。

示眾云。動則影現。離舌三寸。須有眼始得。坐却舌頭。別生見解。露柱簷楹。滴滴碎珠之影。乘舟者迷。登機者失。子有跨戶之談。老僧有室中之意。明月寄空。碧潭無分。一句合頭語。萬劫繫驢橛。或句到意不到。或意到句不到。或意句俱不到。或意句俱到。冥應萬機。龍現即乖。言下無跡。句裏出頭。言下立人。言下無跡。闍梨玄旨。是老僧舌頭。老僧玄旨。是闍梨舌頭。坐却舌頭。別生見解。他參活意。不參死意。溢目不登。揚眉自曉。

示眾云。聞中生解。意下丹青。目下即美。久蘊成病。青山與白雲。從來不相到。機梭不挂絲頭事。文彩縱橫意自珠。嘉祥一路。智者知疏。瑞草無根。賢者不貴。

示眾云。明不越戶。穴不棲巢。目不顧他位裏。脚不踏他位裏。六戶不掩。四衢無蹤。學不停午。意不立玄。千劫眼。不惜舌頭底。萬劫舌頭。不顧眼中明。俊機不假鋒鋸事。到這裏。有箇甚麼事。闍梨。竿頭絲線從君弄。不犯清波意自殊。

示眾云。忽有人問。老僧報道。百草頭上。罷却平生事。根株亦不留。老僧當位坐。坐處不停囚。闍梨。殿上識得天子。屋裏識得主人公。有甚用處。須向鬧市門頭。識取天子。百草頭上薦取老僧。方是儂儂漢。金烏不挂風雲影。水鳥那能度九天。明月夜藏鈎。不知落誰手。

示眾云。老僧於古路頭。置箇選場。若是孤進者。即放過。若是其中人。即別有一路。目前無法。意在目前。不是目前法。非耳目之所到。天無因。地無果。日月只運轉虛空裏。假使碧潭清似鏡。終教明月下來難。胡曲從君唱。秦箏夜裏彈。聞清聲外意。與他不相干。闍梨。龍無龍句。他不隨本形。駿馬不露風骨。老僧嘗云。天無動照之功。地無立機之用。明月不關天地事。闍梨。錯向水中

求。九五從他天子貴。金烏西謝也須愁。空戶不拘關鎖意。風雲不涉兩頭人。

示眾云。我二十年住此山。未嘗舉著宗門中事。

一日有僧問。承聞和尚有言。二十年住此山。未嘗舉著宗門中事。是否。師云是。僧掀倒禪床。師休去。

至明日。普請。掘一坑。令侍者。喚昨日問話僧來。僧便出。師云。老僧二十年。只說無義語。今請上座。打殺老僧。埋向坑中。便請上座。若不打殺老僧。上座自著打殺。埋此坑中。始得。其僧歸堂。束裝潛去。

師會下。有一僧。到石霜。纔入門。便云不審。霜云。不必。僧云。恁麼則珍重。

又到巖頭云。不審。頭噓兩聲。僧云。恁麼則珍重。纔回步。頭云。雖是後生。亦能管帶。

其僧回舉似師。師次日陞堂。喚云。昨日從石霜巖頭歸底阿師出來。如法舉著。僧出舉前話畢。師云。大眾還會麼。若無人道。老僧不惜兩莖眉毛。道去也。乃云。石霜雖有殺人刀。且無活人劍。巖頭亦有殺人刀。亦有活人劍。

妙喜云。癡人面前。不得說夢。

西蜀有一座主。舉華嚴。問白馬。一塵合法界無邊。時如何。馬云。如車二輪。如鳥兩翼。主云。將謂禪門別有奇特。元來不出教乘。乃回本地。

後聞師盛化。遣小師。持前話問師。師云。雕沙無鏤玉之談。結草乖道人之思。小師回舉似其師。其師讚嘆云。將謂禪門與教意不殊。元來有奇特事。

師有小師行脚。聞師道聲振遠。乃回省觀。云和尚有如此奇特事。何不向某甲說。師云。汝蒸飯吾著火。汝行益吾展鉢。甚麼處是辜負爾。麼小師從此開悟。

師問僧。甚處來。云洞山來。師云。有何言句。云尋常許人三路學。玄路。鳥道。展手。師云。實有此語那。云然。師云。軌持千里鈔。林下道人悲。

師問虎頭上座。甚處來。云湖南。師云。曾到石霜麼。云要路經過。爭得不到。承聞。石霜有毬子話。是否。云和尚也須急著眼。始得。師云。作麼生是毬子。云跳不出。師云。作麼生是毬杖。云勿手足。師云。老僧未曾與閻梨相識。出去。

雪竇云。親見這僧。從石霜來。因甚麼。道不相識。

師次日陞堂。召云。昨日新到。還在麼。虎頭應諾。師云。目前無法。意在目前。不是目前法。非耳目之所到。頭云。今日雖同。要且不是。師云。片月雖明。非關天地。頭云。莫[尸@豕]沸。便作

掀禪床勢。師云。且緩緩。虧著上座甚麼處。頭豎起拳云。目前還著得這箇麼。師云。作家作家。頭又作掀繩床勢。師云。大眾看這一員戰將。若是門庭建立。山僧不如他。若據入理深談。猶較山僧一級地。

僧問。如何是目前無法。師云。夜月流輝。澄潭無影。僧作掀禪床勢。師云。上座又作麼生。僧云。目前無法。了不可得。師云。大眾看。這一員戰將。

僧問。撥塵見佛。時如何。師云。欲知此事。直須揮劍。若不揮劍。漁父棲巢。

僧後問石霜。霜云。渠無國土。甚處逢渠。

僧回舉似師。師云。門庭施設即不無夾山。入理深談。猶較石霜百步。

僧問。如何是相似句。師云。荷葉團團團似鏡。菱角尖尖尖似錐。復云。還會麼。云不會。師云。風吹柳絮毛毬走。雨打梨花蛺蝶飛。

僧問。如何是道。師云。太陽謚目。萬里不挂片雲。云如何體會。師云。清清之水。游魚自迷。

僧問。如何識得家中至寶。師云。忙中爭得作閑人。

問擬伸一問。師還許也無。師云。四海無魚。徒勞下釣。

問如何是一老一不老。師云。青山元不動。澗水鎮長流。手執夜明符。幾箇知天曉。問如何是沙門行。師云。動則影現。覺則水生。

## 京兆府翠微無學禪師法嗣

### 舒州投子大同禪師(凡十五)

本州懷寧劉氏子。初參翠微。問如何是祖師西來意。微顧視之。師擬進語。微云。更要第二杓惡水那。師從此識通三昧。

示眾云。諸人來這裏。覓新鮮語句。簇錦攢花。圖口裏有可道。我老兒。氣力稍劣。口吻遲鈍。亦無閑言長語到汝。汝若問我。我隨汝答對。也無玄妙。可及於汝。亦不教汝垛跟。終不說向上向下。有佛有法。有凡有聖。亦不存坐繫縛汝諸人。變現千般。總是汝生解。自擔帶將來。自作自受。這裏無可與汝。不敢誑謗汝。無表無裏。可得說似諸人。還知麼。

時有僧問。表裏不収時如何。師云。汝擬向這裏倒跟那。

示眾云。爾諸人。口似刀子鑷子相似。有甚麼當處。雖然如此。莫遲俊。道有不潦底。打爾在。莫言不道。

示眾云。人人總道。投子實頭。忽若下山三步外。有人問爾。投子實頭事。爾作麼生祇對。

師一日。庵前指石。問雪峰云。三世諸佛。總在裏許。峯云。須知有不在裏許者。師云。不快漆桶。

師一日。同雪峰。游龍眠。路有兩條。峯云。那箇是龍眠路。師以拄杖指之。峯云。東去西去。師云。不快漆桶。

雪峰問師。此間還有人參也無。師將鑊頭。拋向面前。峯云。恁麼則當處掘去也。師云。不快漆桶。

雪峰問。一鎚便成時如何。師云。不是性燥漢。峯云。不假一鎚時如何。師云。不快漆桶。

雪竇云。然則一期折剉雪峰。且投子是作家爐鞴。我當時若作雪峰。待投子道不是性燥漢。只向伊道。鉗鎚在我手裏。諸上座。合與投子。著得箇甚麼語。若能道得。便乃性燥平生。光揚宗眼。若也顛預。頂上一鎚。莫言不道。

師在桐城縣。因趙州問。莫是投子庵主麼。師云。茶鹽錢。布施我來。州先歸庵。見師自携油歸。州云。久響投子。到來只見箇賣油翁。師云。爾只見賣油翁。且不見投子。州云。如何是投子。師提起瓶云。油油。

趙州問。死中得活時如何。師云。不許夜行。投明須到。州云。我早喉白。爾更喉黑。

巨榮禪客來參。師云。老僧未曾有一言半句。挂諸方唇齒。何用見老僧。榮云。到這裏不施三拜。要且不甘。師云。出家兒。得與麼無碑記。榮繞繩床一匝而出。師云。有眼無耳朶。六月火邊坐。

雪竇云。也不得放過。纔轉便擒住。是誰不甘。若跳得出。不妨是一員禪客。

大滄喆云。這僧雖則慣戰沙場。爭柰投子善能折剉。何故。真金不入爐中煅。爭得光華徹底鮮。

僧問。如何是十身調御。師下繩床立。又問。凡聖相去多少。師亦下繩床立。

雪竇云。此公案。諸人無不委知。若恁麼舉。天下衲僧。盡成念話杜家。雪竇莫有長處也無。試為大眾舉看。凡聖相去多少。投子下繩床立。如何是十身調御。投子下繩床立。且道與前來舉底。是同是別。若道一般。許上座具一隻眼。若道別有奇特。也許上座具一隻眼。

更開一線道。凡聖相去多少。請上座。下一轉語。如何是十身調御。請上座。答一轉話。非但參見投子。亦乃知雪竇長處。若總道下繩床立。惜取眉毛好。

僧問。一切聲是佛聲。是否。師云是。云和尚莫[尸@豕]沸盃鳴聲。師便打。

又問。麤言及細語。皆歸第一義。是否。師云是。云喚和尚。作一頭驢得麼。師便打。

僧問。不斷煩惱。而入涅槃。時如何。師作色云。這箇師僧。好發業殺人。

西堂藏云。家家觀世音。

國清機云。或有問山僧。不斷煩惱。而入涅槃。時如何。劈面便掌。何故。見之不取。思之千里。

僧問。依稀似半月。彷彿若三星。乾坤収不得。師於何處明。師云。道甚麼。云想師只有湛水之波。且無滔天之浪。師云。閑言語。

雪竇云。投子古佛。不可道不知。若檢點將來。直是天地懸隔。纔問。和聲便打。

僧問。諸佛出世。為一大事因緣。和尚出世。當為何事。師云。尹司空。今日為老僧開堂。

有婆子。上山云。婆家中失却牛。請師一卜。師召婆。婆應諾。師云牛在。

問金雞未鳴時如何。師云。無這箇音響。云鳴後如何。師云。各自知時。

問月未圓時如何。師云。吞却三箇四箇。云圓後如何。師云。吐却七箇八箇。

問達磨未來時如何。師云。徧天徧地。云來後如何。師云。蓋覆不得。

問如何是無情說法。師云。莫惡口。

問師子是獸中之王。為甚麼。被六塵吞。師云。不作大。無人我。

問抱璞投師。請師雕琢。師云。不是棟梁材。

問一大藏教。還有奇特事也無。師云。演出一大藏教。

問和尚住此山。有何境界。師云。丫角女子白頭絲。

問和尚甲子多少。師云。春風了又春風。

### 湖州道場山如訥禪師(凡一)

僧問。如何得聞性不隨緣。師云。汝聽看。僧作禮。師云。聾人也唱胡家曲。好惡高低自不聞。云聞性宛然也。師云。石從空裏立。火向水中焚。

### 鄂州清平令遵禪師(凡三)

師問翠微。如何是祖師西來意。微云。待無人處。為汝說。師良久云。無人也。請和尚說。微引師入竹園。師又云。無人也。請和尚說。微指竹云。這一竿。得與麼長。那一竿。得與麼短。師遂領旨。

後住清平。謂眾云。先師入泥入水。相為。自是我不識好惡。僧問。如何是大乘。師云。井索。云如何是小乘。師云。錢索。云如何是有漏。師云。爪籬。云如何是無漏。師云。木杓。云覲面相呈時如何。師云。分付與典座。

僧問。如何是禪。師云。獼猴上樹尾連顛。

### 棗山光仁禪師(凡一)

示眾云。不辜負平生眼目。致箇問來。有麼。時有僧出作禮。師云。負我且從大眾。何也。便歸方丈。

後有僧請益云。和尚陞座云。負我且從大眾何也。意旨如何。師云。齋時有飯與爾喫。夜間有床與爾睡。一向煎迫我。作甚麼。僧作禮。師云。苦苦。云乞師指示。師垂下足云。舒縮一任老僧。

### 建州白雲約禪師(凡一)

韶國師來。師問甚處來。云江北來。師云。舡來陸來。云舡來。師云。還逢見魚鱉麼。云往往逢之。師云。逢時如何。韶咄云。縮頭去。師乃大笑。

### 吉州性空和尚法嗣

### 歙州茂源和尚(凡一)

平田來。師起身。田把住云。開口即失。閉口即喪。正恁麼時。請和尚道。師以手掩耳。田放手云。一步易。兩步難。師云。有甚麼死急。田云。若非是師。不免諸方撿點。

### 青原下第六世

### 鼎州德山宣鑿禪師法嗣

### 鄂州巖頭全豁禪師(凡十四)

泉州柯氏子。初謁德山。執坐具。上法堂瞻視。山云。作麼。師便喝。山云。老僧過在甚麼處。師云。兩重公案。便下參堂。山云。好箇阿師。稍似箇行脚僧。

師來日。却上問訊。德山云。莫是昨日新到麼。云是。山云。甚麼處。學得這虔頭來。師云。某甲終不敢自瞞。山云。他後不得辜負老僧。

師一日上問訊。脚纔跨門。便問。是凡是聖。山便喝。師便作禮。洞山聞。乃云。若不是豁公。也大難承當。

師云。洞山老漢。不識好惡。錯下名言。殊不知。我當時。一手擡一手搥。

雪竇云。然則德山門下。草偃風行。要且不能塞斷天下人口。當時纔禮拜。劈脊便棒。非唯勦絕洞山。亦乃把斷豁老。還會麼。將軍自有嘉聲在。不得封侯也是閑。教忠光云。還知三大老落處麼。德山和身放倒。洞山帶水拖泥。若非巖頭具通方眼。爭顯功高汗馬。且作麼生是一手擡一手搥處。殺人刀活人劍。

師同雪峰欽山辭德山。山問。甚麼處去。師云。暫辭和尚。下山去。山云。子他後作麼生。師云。不忘和尚也。山云。子憑何有此語。師云。不見道。智與師齊。減師半德。智過於師。方堪傳授。山云。如是如是。善自護持。

示眾云。夫大統宗綱中事。須識句。若不識句。難作箇話會。甚麼是句。百不思時。喚作正句。亦云居頂。亦云得住。亦云歷歷。亦云惺惺。亦云的的。亦云佛未生時。亦云得地。亦云與麼時。將與麼時。等破一切是非。纔與麼。便不與麼。便轉轉地。若也看不過。纔被人刺著。眼瞪瞪地。恰似殺不死底羊。相似。不見古人道。沉昏不好。須轉得始得。觸著便轉。纔與麼。便不與麼。是句亦割。非句亦割。自然轉轉地。自然目前露倮倮地。飽齧齧地。不解却不解咬。不見道。却物為上。逐物為下。瞥起微情。早落地上。若是咬猪狗眼赫赤。若有人問如何是禪。向伊道。合取屎孔著。却有些子氣息。便知深淺。硬糾糾地。汝識取這箇狸奴面孔。與麼時。不要故垛伊。不要稱量伊。於中有一般漢。撞著物。不解轉。刺著屙轉地。這般底。槌殺百千萬箇。亦無罪過。若是本色底。撥著便上。咬人火急。却似刺蝟子相似。未觸著時。自弄毛羽。可憐生。纔有人撥著。便嗔斗詬地。有甚麼近處。若也未得與麼蕩蕩地。喚作依句修行。有則便須等破。與麼時。一物不存。信知從來學得一切言句。隘在罈中。有甚麼用處。不是道。辟觀辟句。外不放入。內不放出。截斷兩頭。自然光煇煇地。不與一物作對。便是無諍三昧。兄弟。若欲得易會。但向根本明取。欲出不

出。便須轉。一口咬斷後。不用尋伊去住底遠近。但放却。自然露  
倮倮地。不用思搭著。昏昏地。纔有所重。便成窠臼。古人喚作貼  
體衣病。最難治。是我向前行脚時。參著一兩處尊宿。只教日夜管  
帶。坐得骨臀生胝。口裏水漉漉地。初向然燈佛肚裏。黑漆漆地。  
道我坐禪。守取與麼時。猶有欲在。不見道。無依無欲。便是能  
仁。古人道。置毒藥安乳中。乃至醍醐。亦能殺人。這箇不是汝習  
學得底。這箇不是汝去住底。不是汝色裏底。莫錯認門頭戶口。賺  
汝臆月三十日。赤闕闕地。無益。當莫造作捏怪。但知著衣喫飯。  
屙屎送尿。隨分遣時。莫亂統詐稱道者。有一片衣。不敢將出曬。  
恐人見。失却道者名。圖人贊嘆。作與麼。不中心行。兄弟。亦不  
要信他繩床上老榻檣。屙輻地地。將謂好誑諱人。別作地獄。著汝  
在。信知古風大好。不見道。有即是無。無即是有。與麼送出來。  
便知深淺。這箇是古格。於中有一般漢。信彩吐出來。有甚麼碑  
記。但知喚作禪道。但知喚作一句子。軟嫩嫩地。真是無孔鐵鎚。  
聚得一萬箇。有甚麼用處。若是有筋骨底。不用多。諸處行脚。也  
須帶眼始得。莫被人謾。不見道。依法生解。猶落魔界。夫唱教。  
須一一從自己胸襟間。吐得出來。與人為榜樣。今時還有與麼漢  
麼。第一切須識取左右句。這箇是出頭處。識取去底。識取住底。  
這箇是兩頭句。亦是左右句。亦喚作是非句。纔生便咬。自然無  
事。兄弟。見與麼說。還會麼。莫終日闕闕地。亦無了期。欲得易  
會。但知於聲色前。不被萬境惑亂。自然露倮倮地。自然無事。送  
向聲色前。蕩蕩地。捨似一團火相似。觸著便燒。更有甚麼事。不  
見道。非是塵不侵。自是我無心。時熱。珍重。

示眾云。吾嘗究涅槃經。七八年。於中有一兩段義。頗似衲僧說  
話。又云。休休。

時有僧出。作禮云。請和尚。為眾舉。

師遂云。吾教意。如。字三點。第一向東方。下一點。點開諸菩薩  
眼。第二向西方。下一點。點諸菩薩命根。第三向上方。下一點。  
點開諸菩薩頂門。此是經中第一段義。

又云。吾教意。如摩醯首羅。擘開面門。豎亞一隻眼。此是第二段  
義。

又云。吾教意。如塗毒鼓。擊一聲。遠近聞者俱喪。此是第三段  
義。

時有僧出問。如何是塗毒鼓。師以手按膝。亞身云。韓信臨朝底。  
師問僧。甚處來。云西京來。師云。黃巢過後。還收得劔麼。云收  
得。師引頸近前云。因。僧云。師頭落也。師呵呵大笑。

僧後到雪峰。峰問甚處來。云岩頭來。峯云。有何言句。僧舉前  
話。峯打三十棒。趨出。

大滄喆云。這僧黃巢過後。曾收劍。却向巖頭處施設。乃至雪峯面前。鋒鋸不露。何故。為他巖頭大笑一聲。直得天地陡暗。四方絕唱。若不得雪峰。幾乎陸沉。不見道。殺人刀活人劍。

師因沙汰。遂於鄂州湖邊。作渡子。兩岸各挂一板。有人過渡。打板一聲。師云。阿誰。或云。要過那邊去。師乃舞棹迎之。

一日有一婆子。抱一孩兒來。問師。呈撓舞棹則不問。且道。婆婆手中兒。甚處得來。師便打。婆云。婆生七子。六箇不遇知音。只這一箇。也不消得。遂拋向水中。

德山謂師云。我這裏。有二僧。住菴多時。汝去看他怎生。師將一斧去。見二人在庵內坐。師提起斧云。道得也一斧。道不得也一斧。二人殊不顧。師擲下斧云。作家作家。

歸舉似德山。山云。爾道他如何。師云。洞山門下。不道全無。德山門下。未夢見在。

師與雪峯坐次。欽山將水一盃。致地云。水清月現。峯云。水清月不現。師賜翻水而去。

觀音會下。有僧來。以手。左右各作一圓相。中央作一圓相。欲成未成。師以手一撥。僧無對。師便喝出。僧便出。

師却喚回問。汝豈不是洪州觀音來。云是。師云。只如適來左邊圓相作麼生。云是有句。師云。左邊圓相作麼生。云是無句。師云。中央圓相響。云是不有不無句。師云。只如吾與麼。又作麼生。云如刀割水。師便打。即時趨出。

師見疎山來。遂洋洋而睡。山近前而立。師不顧。山拍繩床一下。師回顧云。作甚麼。山云。和尚且瞌睡。便出去。師呵呵大笑云。三十年弄馬騎。今日被驢撲。

臨濟有僧。放大言云。我若見。與他拔却髭。一日到來。作禮。欲起未起。師將衲衣角。驀面一拂。僧無語。泣淚而去。

有僧辭。師問。甚麼處去。云入嶺。禮拜雪峰去。師云。雪峯若問巖頭如何。但向他道。近日在湖邊住。只將三文。買箇撈波子。撈蝦撈蜆。且恁麼過時。

僧到雪峰。峯問甚處來。云巖頭來。峯云。有何言句。僧舉前話。峯云。窮鬼子。得與麼快活。

問三界競起時如何。師云。坐却著。僧云。未審師意如何。師云。移取廬山來。即向爾道。

問如何是佛法大意。師云。小魚吞大魚。

問浩浩塵中。如何辨主。師云。銅砂羅裏滿盛油。

問路逢猛虎時如何。師云。撈。

問無師還有出身路也無。師云。聲前古毳爛。

問利劍斬天下。誰是當頭者。師云。暗。僧擬進語。師云。鈍漢。

### 福州雪峰義存禪師(凡四十六)

泉州曾氏子。師出嶺。首謁鹽官。自後三到投子。九上洞山。因緣不契。

後參德山。遂問。宗乘中事。學人還有分也無。山和聲便棒。師當下如桶底脫相似。山復語之云。我宗無語句。亦無一法與人。

巖頭聞云。德山一條脊梁。硬以鐵。雖然如是。於唱教門中。

猶較些子。保福問招慶。只如巖頭出世。有何言句。過於德

山。便恁麼道。慶云。汝不見巖頭道。如人學射。久久方中。

福云。中後如何。慶云。展闍梨。莫不識痛痒好。福云。和尚非唯舉話。慶云。展闍梨。是甚麼心行。

明招云。大小招慶。錯下名言。

師在洞山。作飯頭。淘米次。山問。淘沙去米。淘米去沙。師云。沙米一時去。洞云。大眾喫箇甚麼。師覆却米盆。山云。據子。因緣合在德山。

瑯琊覺云。雪峯恁麼去。大似拋却甜桃樹。泂山摘醋梨。

洞山問師。甚處來。師云。天台。洞山云。還見智者麼。師云。義存喫鐵棒有分。

洞山問師。甚處來。師云。斫槽來。洞山云。幾斧斫成。師云。一斧斫成。洞云。猶是這邊事。那邊事作麼生。師云。直得無下手處。洞云。猶是這邊事。那邊事作麼生。師休去。

汾陽昭代云。某甲早是困也。

師辭洞山。山問。子向甚麼處去。師云。歸嶺去。山云。當時從甚路出。師云。飛猿嶺出。山云。今從甚路去。師云。飛猿嶺去。山云。有一人。不從飛猿嶺去。子還證麼。師云不識。山云。為甚麼不識。師云。他無面目。山云。子既不識。爭知無面目。師無對。

瑯琊覺云。心羸者失。

師在德山作飯頭。一日飯遲。師曬飯巾次。見德山托鉢。至法堂前。師云。這老漢。鍾未鳴。鼓未響。托鉢向甚麼處去。山便歸方丈。

師舉似巖頭。頭云。大小德山不會末後句。山聞令侍者喚巖頭來。山問。汝不肯老僧那。頭密啟其意。山休去。明日陞堂。果與尋常不同。頭至僧堂前。撫掌大笑云。且喜得。堂頭老漢。會末後句。他後天下人。不柰伊何。雖然如是。也只得三年。後三年果遷化。

明招代德山云。咄咄。沒處去沒處去。

雪竇云。曾聞說箇獨眼龍。元來只具一隻眼。殊不知德山是箇無齒大蟲。若不是巖頭識破。爭得昨日與今日不同。諸人要會末後句麼。只許老胡知。不許老胡會。大滄喆云。巖頭大似高崖石裂。直得百里走獸潛蹤。若非德山度量深明。爭得非昨日與今日不同。

師同巖頭欽山三人。辭德山。同到澧州。欽山先住。師與巖頭。一日到鼇山店。阻雪。師一向坐禪。巖頭唯打睡。師云。師兄師兄。且起來。頭云。作甚麼。師云。今生不著便。共文邃箇漢行脚。到處被他帶累。師兄如今又只管打睡。頭喝云。瞋眠去。每日恰似七村裏土地。他時後日。魔魅人家男女去在。師點胷云。某甲這裏。未穩在。不敢自瞞。頭云。我將謂。爾他後。向孤峯頂上。盤結草庵。呵佛罵祖去在。猶作這箇語話。峯云。某甲實未穩在。頭云。若實如此。據汝見處。一一通來。是處與爾證明。不是處。與爾剗却。師云。某甲初到鹽官。聞舉色空義。得箇入處。頭云。此去三十年。切忌舉著。師云。又因洞山過水悟道頌。有箇省處。頭云。若恁麼。自救也不了。師云。某甲因問德山。從上宗乘中事。學人還有分也無。山打一棒云。道甚麼。我當下。如桶底脫相似。被巖頭震威一喝云。豈不聞道。從門入者。不是家珍。師云。如何即是。頭云。他後若欲播揚大教。須一一從自己胸襟。流出將來。與我蓋天蓋地去。師於言下大悟。跳下床。作禮云。師兄。今日始是鼇山成道。師兄。今日始是鼇山成道。

教忠光云。只如岩頭道。一一從自己胷襟流出。且道。雲峯前三次悟。若從自己胷襟流出。又道未穩在。若不從自己胷襟流出。又從甚麼處得來。莫有斷得出者麼。若斷得出。不唯雪峰鼇山成道。盡大地有情。齊成正覺。若斷不出。說甚麼鼇山成道。直饒少室傳心。也未夢見在。

示眾云。南山有一條鼇鼻虵。汝等諸人。切須好看。時長慶出云。今日堂中。大有人。喪身失命。雲門以拄杖。攬向面前。作怕勢。僧舉似玄沙。沙云。須是稜兄始得。然雖如是。我即不然。僧云。和尚作麼生。沙云。用南山作麼。

真淨云。奇哉。善知出處。非父不生其子。驀拈拄杖。召大眾云。南山鼇鼻虵。却在這裏。擲下拄杖云。擬即喪身失命。

示眾云。望州亭。與汝相見了也。烏石嶺。與汝相見了也。僧堂前。與汝相見了也。

後保福問鵝湖。僧堂前即且致。望州亭烏石嶺。甚麼處相見來。鵝湖驟步。歸方丈。保福便入僧堂。

雪竇云。二老是則是。只知雪峯放行。不知雪峰把定。忽有箇衲僧出來。問未審雪竇作麼生。豈不是別機宜。識休咎底漢。

還有望州亭烏石嶺底麼。良久云。擔板禪和。如麻似粟。  
示眾云。盡大地撮來。如粟米粒大。拋向面前。漆桶不會。打鼓普請看。

長慶稜問雲門。雪峰與麼道。還有出頭不得處麼。門云有。稜云。作麼生。門云。不可總作野狐精見解。又云。狼籍不少。雲峰悅云。匹上不足。我更與爾葛藤。驀拈拄杖云。還見雪峯麼。咄。王令稍嚴。不許攙行奪市。大滄喆云。我更為諸人。土上加泥。乃拈杖云。看看。雪峰老人。向諸人面前放屙。咄。為甚麼。屎臭氣也不知。

雪竇頌云。牛頭沒馬頭回。曹溪鏡裏絕纖埃。打鼓看來君不見。百花春到為誰開。

示眾云。我這裏。如一面古鏡相似。胡來胡現。漢來漢現。時有僧出問。忽遇明鏡來時如何。師云。胡漢俱隱。

玄沙云。我即不然。時有僧問。忽遇明鏡來時如何。沙云。百雜碎。明招云。當與麼時。莫道胡漢俱隱。別作麼生道。沙云。破。招云喪也。

示眾云。盡大地。是箇解脫門。把手拽伊。不肯入。

時有僧出云。和尚怪某甲不得。

一僧云。用人作麼。師便打。

雪竇云。三箇中。有一箇受救在。忽若總不辨明。平地有甚麼。

示眾云。三世諸佛。是草裏漢。三經五論。是繫驢橛。八十卷華嚴。是村草步頭。博飯喫底言語。十二分教。是蝦蟆口裏事。還知麼。所以道。如今千百人中。若有一人大肯去。我作驢駝物。供養他。有甚麼罪過。

示眾云。三世諸佛。向這裏。出頭不得。一大藏教。著一字不得。天下老和尚。向這裏百雜碎。還知麼。諸人。若實明白得去。免被人惑。設有言句。亦不他疑。自己若未明白。却不得掠虐。枉度時光。莫只管向諸方老師領腮下。記得一言半句。將謂自己芻襟。大錯。兄弟。我道。只這三寸。能殺人能活人。我尋常向師僧道。是甚麼。他便口喃喃地。如此等輩。驢年解承當得麼。且問爾。諸和尚子。諸方老宿。還與闍梨。說事麼。還曾指示闍梨麼。還曾共闍梨。商量麼。大須體悉審實看。

示眾。良久云。便與麼承當得去。好省心力。所以道。三世諸佛。不能唱。十二分教。不能詮。如今嚼涕唾兒。爭能會得。我尋常向師僧道。是甚麼。更近前來。覓答話。驢年會得麼。我事不獲已。向爾恁麼道。已是平欺爾了也。又向爾道。未入門時。早共爾商量了也。亦是老婆心。省力處。不肯承當。但知踏步向前。覓言覓

句。向爾道。盡大地是箇解脫門。總不肯入。只管亂走。逢人便問佛問祖。還識差麼。甘自受屈。若實未得箇悟入。莫當等閑。直須悟入始得。不可虛度時光。著些精彩好。達磨西來。以心傳心。不立文字。且作麼生是汝諸人心。不可亂統了便休。已眼未明。何處消得許多妄想。時中無爾安身處。便乃見凡是聖。有僧俗男女。高低勝劣。大地面前。吵吵地。鋪沙相似。未曾一念。暫返神光。流浪生死。盡劫不息。大須慚愧。各自努力。

示眾云。臨河渴死人無數。飯籬邊受餓人。如恒河沙。非但一箇半箇。兄弟。若也根思遲回。却須勤著精彩。莫只這邊經冬。那邊過夏。收拾些子涕唾。便當平生事了。但擬抄取記取。盡是識學依通。這般底。我喚作蝦蟆衣下客。亦喚作黑牛臥死水。汝還會麼。示眾云。若論此事。如一片田地相似。一任諸人耕種。無有不承此恩力者。

玄沙云。且作麼生是一片田地。師云看。沙云。是即是。某甲不恁麼。師云。爾作麼生。沙云。只是人人底。

師垂語云。此事得與麼尊貴。得與麼綿密。

僧云。某甲自到山。經數載。可聞和尚與麼示徒。師云。我已前雖無。如今已有。莫有妨闕也無。僧云。不敢。此是和尚。不得已而已。

師一日。於僧堂前坐。拈起拄杖云。這箇為中下根人。

時有僧問。忽遇上上根人來時如何。師拈起拄杖。

雲門云。我不似雪峰打破狼籍。僧便問。未審和尚如何。師便打。

師參次。有一僧。珍重便出。師云。總似這箇僧。省我多少心力。

玄沙云。和尚恁麼為人。瞎却閩中一城人眼去在。師云。爾又作麼生。沙云。便好與三十棒。師云。已後無人奈子何。

師一日陞堂。眾集定。師輓出木毳。玄沙遂捉來。安舊處著。

白雲端云。此箇時節。眾人皆言。子父共作一大事。如此見解。還夢見也未。白雲今日布施大眾。乃云。濃研香墨。深蘸紫毫。

師晚參次。却向中庭臥。太原孚上座云。五州管內。只有這老和尚。較些子。師便起去。

師一日。於僧堂內。閉却門燒火。乃叫云。救火救火。玄沙將一片柴。從牕櫺內拋入。師便開門。

師領徒南游。時黃涅槃。預知。搗策出迎。抵蘇溪邂逅。師問。近離甚處。云辟支巖。師云。巖中還有主麼。槃以竹杖。敲師簷。師遂出簷相見。槃云。曾郎萬福。師展丈夫禮。槃作女人拜。師云。莫是女人麼。槃又設兩拜。遂以竹策劃地。右繞師簷三匝。師云。

某甲是三界內人。爾是三界外人。宜前去。某甲後來。繫即先回。師遂至止囊山。憩數日。繫供待隨行徒眾。一無所闕。師送南際長老。出門。遂作女人拜。際斂手應諾。師以手斫額。便歸。

師到國清。拈鉢盂。問座主云。道得即與爾鉢盂。主云。此是化佛邊事(雪竇別云。只恐鈍置和尚)。師云。爾作座主奴。也未得在。云某甲不會。師云。爾問。我與爾道。主方作禮。師一踏踏倒。主舉似雲門云。某甲得七年方見。門云。爾七年方見那。主云是。門云。更七年始得。

雪竇云。草賊敗也。

玄沙問。某甲如今大用去。和尚作麼生。師將三木毬。一時輓出。沙作斫牌勢。師云。爾親在靈山來。方得如此。沙云。也即是自家底。

有一僧。在山下卓庵。多年不剃頭。畜一長柄杓。就溪取水。有問如何是祖師西來意。僧提起杓云。溪深杓柄長。

師聞之云。也甚奇怪。一日袖剃刀。同侍者訪之。纔見便問。道得即不剃汝頭。僧便洗頭。跪師前。師便與剃却。

一日有兩僧來。師以手托庵門。放身出云。是甚麼。僧亦云。是甚麼。師低頭歸庵。

僧後辭去。師問甚麼處去。云湖南去。師云。我有箇同行。在彼。住巖頭。附汝一信去。

師致書云。某甲信上師兄。一自鼇山成道後。迄至于今。飽不休。同參某甲。信上師兄。

僧到巖頭。頭問。甚處來。云嶺南來。頭云。曾到雪峰麼。云近離彼中。雪峰有書。上和尚。頭看書了。却問。和尚有何言句。僧舉前話。頭云。他道甚麼。云他無語低頭歸庵。頭云。噫。我當初悔不向伊道末後句。若向伊道。天下人。不奈雪老何。僧至夏末。請益前話。頭云。何不早問。僧云。不敢容易。頭云。雪峰雖與我同條生。不與我同條死。要識末後句。只這是。

大滄喆云。大小雪峰巖頭。被這僧勘破。

雪竇頌云。末後句。為君說。明暗雙雙底時節。同條生也共相知。不同條死還殊絕。還殊絕。黃頭碧眼須辨別。南北東西歸去來。夜深同看千巖雪。

師問僧。見說大德。曾為天使來。是否。云不敢。師云。爭解與麼來。云仰慕道德。豈憚關山。師云。汝猶醉在。出去。僧便出。師却召云。大德。僧回首。師云。是甚麼。僧亦云。是甚麼。師云。這漆桶。僧無語。

師回顧鏡清云。好箇師僧。却向漆桶裏著到。清云。和尚豈不是據款結案。師云。也是我尋常用底。

復云。忽若喚回。道是甚麼。被他道這漆桶。又作麼生。清云。成何道理。師云。我與麼及伊。汝又道據款結案。他與麼及我。汝又道。成何道理。一等是與麼時節。其間。何故有得。有不得。清云。不見道。醜翻上味。為世所珍。遇斯等人。翻成毒藥。

雪竇云。看他父子相投。言氣相合。若知者。謂粉骨碎身。此恩難報。不知者。謂扶高抑下。臨危悚人。毒藥醜翻。千載龜鑑。還會麼。這漆桶。

師因僧作禮。師打五棒。僧云。某甲有甚麼過。師又打五棒。

雪竇云。我不曾與人葛藤。前五棒。日照天臨。後五棒。雲騰致雨。爾若辨得。也好與五棒。

有僧禮辭。師問甚處去。云禮拜徑山去。師云。徑山忽問爾此間佛法如何。汝作麼生祇對。云待問即道。師便打。却回顧鏡清云。這僧過在甚麼處。便喫棒。清云。問得徑山。徹困也。師云。徑山在浙中。因甚麼。問得徹困。清云。不見道。遠問近對。師休去。

師喚僧。僧應諾。師云。近前來。僧近前。師云去。

雲門舉問僧。爾作麼生。道得叉手句。爾若道得叉手句。即見雪峯。

師問僧。甚處來。云浙中來。師云。舡來陸來。云二途俱不涉。師云。爭得到這裏。云有甚麼隔礙。師打趂出。

僧過十年後。再來。師問。甚處來。云。湖南來。師云。湖南與此間。相去多少。云不隔。師豎起拂子云。還隔這箇麼。若隔即不到也。師又打趂出。僧住後。凡見人便罵。有同行。聞得。特去相訪。乃問老兄到雪峯。有何言句不是。罵之不已。僧遂舉前話。被同行詬罵。乃與說破。其僧悲泣。常夜間焚香。遙禮悔過。

師問僧。近離甚處。云覆舡。師云。生死海未渡。為甚麼覆却舡。僧無對。

雪竇代云。久響雪峯。待這老漢擬議。拂袖便行。

僧後舉似覆舡。舡云。何不道渠無生死。僧再去。進此語。師云。此不是爾語。云覆舡語。師云。我有二十棒。寄打覆舡。二十棒。老僧自喫。不干閣梨事。

雪竇著語云。能區能別。能殺能活。若也辨得。天下橫行。師問僧。甚處去。云識得即知去處。師云。爾是了事人。亂走作麼。云和尚莫搽污人好。師云。我即不搽污爾。古人吹布毛。作麼生。與我說來看。云殘羹餽飯。已有人喫了。師休去。

雲門別前語云。築著便作屎臭氣。又代後語云。將謂是鑽天鷄子。元來是死水裏蝦蟆。

雪竇出雪峰云。一死更不再活。

師問僧。名甚麼。云玄機。師云。日織多少。云寸絲不挂。師云。參堂去。僧纔行三五步。師云。袈裟落地也。僧回首。師便打云。大好寸絲不挂。

師見僧召云。近前來。僧近前。師云。甚處去。云普請去。師云去。

雲門云。此是隨語識人。

師問僧。甚處來。云江西。師云。江西與此間。相去多少。云不遙。師豎起拂子云。還隔這箇麼。云若隔即遙也。師便打出。

師問僧。甚處來。云慧日。師云。來時。日出也未。云若日出。即融却雪峯。師休去。

師問僧。近離甚處。云瀉山。師云。瀉山有何言句。云某甲曾問。如何是祖師西來意。山踞坐。師云。汝肯他否。云不肯。師云。瀉山古佛子。速去禮拜懺悔。

有僧。舉似玄沙。沙云。山頭老漢。蹉過也不知。僧云。未審和尚尊意如何。沙云。大小瀉山。被這僧一問。直得百雜碎。

僧問。聲聞人見性。如夜見月。菩薩人見性。如晝見日。未審和尚見性。如何。師打三棒。

其僧後問巖頭。頭打三掌。

雪竇云。應病與藥。且與三下。若也據令而行。合打多少。

僧問。古澗寒泉時如何。師云。瞪目不見底。云飲者如何。師云。不從口入。

僧後舉以趙州。州云。既不從口入。不可從鼻孔裏入。僧却理前問。州云。苦。僧進後語。州云死。

師聞。遙望作禮云。趙州古佛。從此不答話。

雪竇云。眾中商量。總云。雪峰不出這僧問頭。所以趙州不肯。如斯話會。深屈古人。雪竇即不然。斬釘截鐵。本分宗師。就下平高。難為作者。

天衣懷云。諸仁者。作麼生會不答話底道理。贊嘆趙州即不無。還知趙州片玉瑕生麼。若人檢點得出。相如不誑於秦主。

僧問。牧童能歌能舞時如何。師下繩床作舞。

玄沙云。這老漢。脚跟未點地在。師云。子又作麼生。玄沙乃撫掌三下。

僧問。乞師指示。師云。是甚麼。僧於言下大悟。

雲門云。雪峰向伊道甚麼。

僧與師。造龕子了。白云。和尚龕子成也。師云。昇將來。堂前著。僧昇來。師纔見。便問大眾道。得第一句。即留取。如是再問。

有僧出云。某甲咨和尚。師便喝云。莫[尸@豕]沸。便將龕子燒却。

聯燈會要卷第二十一

余乾道初。客建康蔣山。邂逅泉州一老僧。有巖頭錄。因閱之。見其問僧。甚處去。僧云。入嶺。禮拜雪峯去。巖頭云。雪峰若問爾。巖頭如何。但向他道。巖頭近日在湖邊住。只將三文。買箇撈波子。撈蝦攏蜆。且恁麼過時。因問老僧。余閱巖頭錄。他本盡作老婆。此云撈波。何也。渠笑云。老婆誤也。巖頭雪峯皆鄉人。吾鄉以撈蝦竹具。曰撈波也。鄉人至今。如是呼之。後人訛聽。作老婆字。教人一向作禪會。巖頭錄他本。作買箇妻子。雪峯錄作買箇老婆。後來真淨舉了云。我只將一文錢。娶箇黑妻子。所謂字經三寫。烏焉成馬。於宗門雖無利害。不可不知。雪峰空禪師頌。有云。三文撈波年代深。化成老婆黑而醜。蓋方語有所不知。不足怪也。

如福州諺曰。打野堆者。成堆打閩也。今明招錄中。作打野檉。後來圓悟碧巖集中解云。野檉乃山上燒不過底火柴頭。可與老婆。一狀領過也。

青原下第六世  
鼎州德山宣鑿禪師法嗣下

泉州瓦棺和尚(凡一)

師在德山。為侍者。德山斫木欲。山將一盃水。度與師。師接得喫却。山云。會麼。師云。不會。山又將一盃水。度與師。師接得又喫却。山云會麼。師云不會。山云。何不成褌取那不會底。師云。不會又成褌箇甚麼。山云。大似箇鐵櫬。  
師住後。雪峰相訪。茶話次。峯問。當年在德山。斫木因緣。作麼生。師云。先師當時肯我。峯云。和尚離先師太早。其時面前。有一碗水。峰云。將水來。師度與峯。峯接得便潑却。  
雲門云。莫壓良為賤。

襄州高亭簡禪師(凡一)

師初見德山。在江岸坐。即隔江問訊。山以扇子招之。師忽然契悟。橫趨而過。更不渡江。遂返高亭。住持。

洪州大寧感潭資國和尚(凡一)

白兆來問。家內停喪。請師慰問。師云。苦痛蒼天。兆云。死却父耶。死却母耶。師便打出。  
師凡遇僧來。多以拄杖打趂。

潭州石霜慶諸禪師法嗣

筠州九峰道虔禪師(凡五)

福州劉氏子。師為石霜侍者。霜遷化。眾請第一座。繼踵。師云。須會先師意始得。座云。先師有甚麼意。師云。先師道。休去歇去。一念萬年去。寒灰枯木去。古廟香爐去。冷湫湫地去。如一條白練去。作麼生。座云。明一色邊事。師云。元來不會先師意。座云。爾不肯我那。裝香事。座乃焚香云。我若不會先師意。香煙起

處即脫去不得。果隨香煙脫去。師撫其背云。坐脫立亡。即不無首座。先師意。未夢見在。

南華曷云。透生死關。高超世表。秉殺活劍。獨踞寰中。若非智眼洞明。未免扶籬摸壁。要會麼。春蘭與秋菊。各一時榮。僧問。無間中人。行甚麼行。師云。畜生行。云畜生復行甚麼行。師云。無間行。云此猶是長生路上人。師云。須知有不共命者。云不共甚麼命。師云。長生氣不常。

師復云。還識命麼。欲知命。流泉是命。湛寂是身。千波競起。是文殊境界。一亘晴空。是普賢床榻。其次借一句子是指月。於中事是話月。從上宗門中事。如節度使信旗。相似。且如諸方先德。未建立許多名目。指陳已前。兄弟。約甚麼體格商量。到這裏。不假三寸。試道看。不假耳根。試采聽看。不假眼根。試辨白看。所以道。聲前拋不出。句後不藏形。盡乾坤。都盧是汝諸人本體。向甚麼處。著眼耳鼻舌。若向意根下。圖度作解。盡未來際。未有了日。所以洞山和尚道。擬將心意學玄宗。狀似西行却向東。珍重。僧問。承師有言。諸聖間出。只是傳語底人。是否。師云。是。云世尊一手指天。一手指地云。天下天下。唯我獨尊。為甚麼。喚作傳語底人。師云。只為他一手指天。一手指地。所以喚作傳語人。僧問。如何是自己。師云。更問阿誰。云便恁麼承當時如何。師云。須彌上不可戴須彌。

僧問。一筆丹青。為甚麼。邈志公真不得。師云。僧繇却許誌公。僧云。為甚麼。繇却許誌公。師云。烏龜稽首須彌柱。

#### 台州湧泉景欣禪師(凡四)

示眾云。若是應世傍借。盡是千差門頭事。善惡二念未生時。是法身體。纔生屬報身。報屬化。一化千化。我道盡處為身。空處為座。萬行為衣。只喚作三世。因圓果滿。是菩提成立處。直得白衣拜相。善財龍女。屠兒廣額。拋刀便行。乃是一乘圓頓。猶是時人淨土。亦云一生補處。直得無方絕所。物物不拘。亦是佛地愚。若是渠爭肯坐著方所。我道出不隨應人不居空。內證見寂。即落守蘊。外證明空。即落明蘊。有見落常。無見落斷。不有不無。即落中道。若不知有此事。盡被人天帶將去。切須在意。莫作等閑。示眾云。我四十年。在這裏。尚自有走作。汝等諸人。莫開大口。見解人多。行解人。萬中無一箇半箇。見解言語。總要知通。若識不盡。敢道輪回去在。為何如此。蓋為識漏未盡。汝但盡却今時。即得成立。亦喚作立中功。轉功就他去。亦喚作就中功親他去。我所以道。親人不得度。渠不度親人。恁麼譬喻。尚不會薦得。渾崙

底。但管取信。亂動舌頭。不見洞山道。相續也大難。汝須知有此事。若不知有此事。啼哭有日在。

雪峰相訪。及去。師門送。峰入轎了。師云。這箇四人舁。那箇幾人舁。峰湧身起云。道甚麼。師再問。峯云。行行。他不曾。師云。知即知。即是道不得。

強德二禪客。路次見師騎牛。禪客云。頭角甚分明。爭奈騎者不識。師驟牛而去。二禪客。憩於樹下煎茶。師回來。下牛相問訊。與坐喫茶。師問近離甚處。云那邊。師云。那邊事作麼生。僧提起茶盞。師云。猶是這邊事。那邊事作麼生。二人無對。師云。莫道騎者不識好。

### 潭州雲蓋志元禪師(凡三)

師問雲居。某甲不奈何時如何。居云。只為工夫不到。師不禮拜而退。

後問石霜。霜云。非但闍梨。老僧亦不奈何。云和尚。因甚麼。不奈何。霜云。我若奈何。便拈却爾不奈何。師乃作禮入室。

師因僧問石霜。萬戶俱閉。即不問。百戶俱開時如何。霜云。堂中事作麼生。僧云。無人接得渠。霜云。道也太殺道。只道得八成。師聞。乃禮請石霜。為道。霜不道。師抱石霜。從方丈後去。復作禮不住。云請和尚。為某甲道。若不道。須打和尚去。霜云。得在。師復設拜。霜云。無人識得渠。師於言下有省。

翠巖云。先行不到。末後太過。

妙喜云。一對無孔鐵鎚。就中一箇最重。

有道正奏聞馬王。乞與師論義。馬王請師至。具說其事。師茶罷。就大王。借一口劍。乃握劍。問道正。爾本教道。恍恍惚惚。其中有物。是何物。杳杳冥冥。其中有精。是何精。道得即不斬。道不得即斬。道正作禮謝過。師謂大王曰。還識此人否。云識。師云。是誰。云道正。師云不是。其道若正。合對得臣。只是箇無主孤魂。

因斯。道門不復紛紜。

### 福州覆缸荐禪師(凡四)

道吾問。久響和尚會禪。是否。師云。蒼天蒼天。吾近前。掩却師口云。低聲低聲。師與一掌。吾云。蒼天蒼天。師近前把住云。得與麼無禮。吾却與師一掌。師云。老僧罪過。吾拂袖便行。師呵呵大笑云。早知如是。悔不如是。

師見僧來。作起身勢。僧便出去。師云。闍梨。且容人事。僧回身。作抽坐具勢。師却歸方丈。僧云。蒼天蒼天。師云。龍頭虵尾。僧叉手近前而立。師云。敗將投主。不存性命。僧問。鈎錐不到處。請師道。師良久。僧云。掣電之機。徒勞踟思。師云。出格一句。爾試道看。僧近前三步。却退後。師云。此是出格句。即今事作麼生。僧以衣袖一拂。便出。師云。也是天津橋上漢。僧問。如何是師子子。師云。善能哮吼。僧撫掌云。好手好手。師云。青天白日。却被鬼迷。僧作掀繩床勢。師便打。僧云。驢事未去。馬事到來。師云。酌然是作家。僧拂袖而去。師云。將甌盛水。擬比大洋。

### 潭州大光居誨禪師(凡三)

師依石霜凡十年。霜問。國家每年。放舉人及第。朝門還得拜也無。師云。有一人。不求進。霜云。憑何。師云。他不為名。霜云。除却今日。別更有時也無。師云。渠亦不道今日者是。示眾云。一代時教。只是整理今時人手脚。直饒剝盡到底。只成得箇了事人。不可將當衲衣下事。所以四十九年。明不盡。標不起。到這裏。合作麼生。若更切切。恐成負累。僧問。達磨還是祖否。師云。不是祖。云不是祖。又來作箇甚麼。師云。為爾不薦祖。云薦後如何。師云。方知不是祖。

### 鳳翔府石柱和尚(凡一)

師謁洞山。因山垂語云。有四種人。一人說過佛祖。一步行不得。一人行過佛祖。一句說不得。一人說得行得。一人說不得。行不得。且道。那箇是其人。師出眾云。一人說過佛祖。一步行不得。只是無舌。不許行。一人行過佛祖。一句說不得。只是無足。不許說。一人說得行得。正是函蓋相應。一人說不得。行不得者。如斷命而求活。此是石女兒。擔枷帶鎖。洞山云。闍梨自己。又作麼生。師云。該通分上。卓卓寧彰。洞山云。只如海上明公秀。又作麼生。師云。幻人相逢。撫掌呵呵。

### 潭州文殊禪師(凡一)

僧問。僧繇為甚麼。邈誌公真不得。師云。非但僧繇。誌公亦邈不得。云誌公為甚麼邈不得。師云。彩繪不將來。云和尚還邈得也無。師云。我亦邈不得。云和尚為甚麼。邈不得。師云。渠不以苟我顏色。教我作麼生邈。

### 秀才張公拙(凡一)

往石霜。訪禪月齊已太布衲。石霜相接。公但略相顧而已。即與三人。終日劇談。

公忽問。三人中。何不推一人。作長老。禪月知公輕於霜。乃云。公宜謁堂頭和尚。此是肉身菩薩。堂中五百學徒。勝某甲者。二百五十人。公遂欽奉。即造方丈參禮。

霜問。秀才何姓。公云。姓張名拙。霜云。覓巧了不可得。拙自何來。公言下有省。乃述偈云。光明寂照徧河沙。凡聖含靈共我家。一念不生全體現。六根纔動被雲遮。斷除煩惱重增病。趣向真如亦是邪。隨順世緣無罣礙。涅槃生死是空華。

### 筠州洞山良价禪師法嗣

#### 撫州曹山本寂禪師(凡二十三)

泉州莆田張氏子。謁洞山。山問師。名甚麼。師云。本寂。云何不向上道。師云。不道。云為甚麼不道。師云。不名本寂。洞山器之。

師辭洞山。山問。甚處去。師云。不變異處去。洞云。不變異處。豈有去耶。師云。去亦不變異。

示眾云。諸方盡把格則。何不與他道一轉語。教伊不疑去。雲門便問。密密處。為甚麼不知有。師云。只為密密。所以不知有。門云。此人如何親近。師云。莫向密密處親近。門云。不向密密處親近時如何。師云。始解親近。門云。諾諾。

妙喜云。濁油更著濕燈心。

示眾云。莫行心處路。不挂本來衣。何須更恁麼。切忌未生時。師聞鐘聲。乃云。阿耶耶。阿耶耶。僧云。和尚作甚麼。師云。打著我心。

五祖戒云。作賊人心虛。

雲門問。如何是沙門行。師云。喫常住苗稼者是。門云。便恁麼去時如何。師云。汝還畜得麼。門云畜得。師云。汝作麼生畜。門云。著衣喫飯。有甚麼難。師云。何不道披毛帶角。門便作禮。

鏡清問。清虛之理。畢竟無身。時如何。師云。理即如是。事作麼生。云如理如事。師云。謾曹山一人即得。爭柰諸聖眼何。云若無諸聖眼。爭鑑得箇不恁麼。師云。官不容針。私通車馬。

大滄喆云。曹山雖善切磋琢磨。其奈鏡清玉本無瑕。要會麼。不經敏手。終成廢器。

僧清銳問。某甲孤貧。乞師賑濟。師召銳闍梨。銳應諾。師云。清源白家三盞酒。喫了猶道未沾唇。

師問強德二上座。菩薩在定。聞香象渡河。出甚麼經。云涅槃經。師云。定前聞。定後聞。云和尚流也。師云。道也太殺道。只道得一半。云和尚又作麼生。師云。灘下接取。

師問僧。甚處來。云掃地來。師云。佛前掃。佛後掃。云前後一時掃。師云。與我過袈裟來。

僧問。抱璞投師。請師雕琢。師云。不雕琢。云為甚麼不雕琢。師云。須知曹山好手。

僧問。學人通身是病。請師醫。師云。不醫。云為甚麼不醫。師云。教爾求生不得。求死不得。

僧問。子歸就父。為甚麼。父全不顧。師云。理合如是。云父子之恩何在。師云。始成父子之恩。云如何是父子之恩。師云。刀斧斫不開。

僧問。世間甚麼物最貴。師云。死猫兒最貴。云為甚麼死猫兒却貴。師云。無人著價。

僧問。如何是師子。師云。眾獸近不得。云如何是師子兒。師云。能吞父母。云既是眾獸近不得。為甚麼却被兒吞。師云。若哮吼。祖父母俱盡。云只如祖父母。還盡也無。師云盡。云盡後如何。師云。全身歸父。云前來為甚麼道。父母俱盡。師云。不見道。王子能成一國事。枯木上更糝些子花。

僧問。乘教有言。大海不宿死屍。如何是海。師云。包含萬有。云為甚麼不宿死屍。師云。絕氣息者不著。云既是包含萬有。為甚麼。絕氣息者不著。師云。萬有非其功。絕氣息者有其德。云未審向上還有事也無。師云。有。云如何是向上事。師云。道有道無即得。爭奈龍王按劍何。

僧問。幻本何真。師云。幻本元真。云當幻何顯。師云。即幻即顯。云恁麼則始終不離於幻也。師云。覓幻相。了不可得。

僧問。日未出時如何。師云。三十年前。曹山也曾恁麼來。云日出後如何。師云。猶較曹山半月程。

僧問。國內按劍者誰。師云。曹山。云擬殺何人。師云。但有。一切總殺。云忽遇所生父母。又作麼生。師云。揀甚麼。云爭奈自己何。師云。誰人奈我何。云和尚何不自殺。師云。無下手處。

僧問。如何是無刃劍。師云。非淬煉所成。云用者如何。師云。逢者皆喪。云不逢者如何。師云。亦須頭落。云既不逢。為甚麼亦頭落。師云。不見道。能盡一切。云盡後如何。師云。方知有此劍。僧問。古人有言。盡大地唯有此人。未審是甚麼人。師云。不可有第二月去也。云如何是第二月。師云。也要老兄定當。云作麼生是第一月。師云嶮。

問。雪覆千山。為甚麼。孤峯不白。師云。須知有異中異。云如何是異中異。師云。不墮諸山色。

僧問。即心即佛。即不問。如何是非心非佛。師云。兔角不用無。牛角不用有。

僧問。十二時中。如何保任。師云。如經蠱毒之鄉。水也不得沾他一滴。

問一牛飲水。五馬不嘶。時如何。師云。曹山解忌口。

### 洪州雲居道膺禪師(凡二十三)

幽州玉田王氏子。謁洞山。山問。汝名甚麼。師云。道膺。洞云。向上更道。師云。若向上道。即不名道膺。洞云。與吾在雲巖時祇對。無異也。師乃服勤席下。

洞山問師。甚處來。師云。踏山來。洞云。阿那箇山堪住。師云。阿那箇山。不堪住。洞山云。恁麼則國內。總被子占却也。師云不然。洞云。恁麼則子得箇入路。師云無路。洞云。若無路。爭得與老僧相見。師云。若有路。即與和尚隔生也。洞云。子已後。千人萬人。把不住。

師問洞山。如何是祖師西來意。洞云。闍梨。他後有把茆蓋頭。有人問爾。作麼生。師云。道膺罪過。

師割草。偶割殺蚯蚓。洞山指問。這箇響。師云。他不死洞云。二祖往鄴都。又作麼生。師不對。

住後僧問。和尚在洞山。割蚯蚓。洞山問師。豈不是無語。師云。當時有語。只是無人聽。

洞山問師。吾聞思大在倭國。作國王。是否。師云。若是思大。佛亦不作。況國王乎。洞然之。

洞山問。大闡提人。殺父殺母。出佛身血。破和合僧。如是種種孝養何在。師云。始能孝養。

自此洞山推之。為室中領袖。

示眾云。得者不輕微。明者不賤用。識者不咨嗟。解者無厭惡。從天降下則貧寒。從地涌出則富貴。門裏出身易。身裏出門難。動則

埋身千丈。不動則當處生苗。一言迴脫。獨拔當時。言語不要多。多即無用處。

示眾云。了無所有。得無所圖。言無所恃。行無所依。心無所托。即得無過。在眾如無眾。無眾如在眾。豈不是無憍。其德超於萬類。脫一切羈鎖。千人萬人得尚道不當自己。古人云。體取那邊事。却來這邊行履。那邊有甚麼事。這邊又作麼生行履。所以道。有也莫將來。無也莫將去。見在底。是誰家事。

示眾云。汝等直饒學得佛法邊事。早是錯用心了也。不見古人道。講得。天花落地。頑石點頭。尚不干自己事。自餘是甚麼閑。擬將有限身心。向無限中用。有甚麼交涉。如將方木逗圓孔。多少誑訛。若無恁麼事。饒汝攢花簇錦。亦無用處。未離情識在。須向這裏及盡。方得無過。方有出身路。若有一毫髮。去不盡。即被塵累。豈況更多。差之毫釐。過犯山嶽。不見古人道。學處不玄。盡是流俗。閨閣中物。捨不得。俱為滲漏。併盡一切事。始得無過。頭頭上了。物物上通。只喚作了事人。終不喚作尊貴。將知尊貴一路自別。所以古人道。猶如雙鏡。光光相對。光明相照。更無虧盈。豈不是一般。猶喚作影像邊事。如日出照於世間明朗。是一半。那一半。喚作甚麼。如今人。未認得光影。門頭戶底。麤淺底事。將作屋裏事。又爭得。

示眾云。汝等發言吐氣。須有來由。莫當等閑。凡問箇事。也須識好惡。莫學相似語。所以尋常道。莫怪不相似。恐同學太多去。第一莫將來。將來不相似。八十翁翁入場屋。真誠不是小兒戲。一言若差。鄉關萬里。敲骨打髓。須有來由。言語如鉗鉞鈎鎖。相續不斷始得。頭頭上明。物物上顯。方是得妙。知有底。終是不取次。十度發言。九度休去。為甚如此。恐無利益他。得底人。如騰月扇。口生白醜去。不是強為。任運如此。要明恁麼事。須是恁麼人。若是恁麼人。何愁恁麼事。

示眾。舉古人云。地獄未是苦。衲衣下。不明大事。始是苦。汝等既在這行流。十分去九。不較多了。更著些心力。便是上座不枉平生行脚眼。不辜負叢林。古人道。欲得保任此事。須向高高峰頂立。深深海底行。方有些子氣息。若大事未辦。且須履踐玄途。

示眾云。若有一毫許。去不盡。即被塵累。豈況更多。不見尋常道。昇天底事。對眾掉却。十成底事。對眾去却。擲地作金聲。不須回頭顧著。自餘有甚麼用處。所以道。智人不向言中取。得人不向說中求。不是異於常徒。息一切萬累道。暫時不在途路。便有來由。非但惡眷屬。善眷屬也覓他不得。甚處去。通身去。歸家去。省覲去。脫諸有門去。絕牢籠去。脫嶮難。異常徒。

示眾云。老僧二十年前。住三峯庵時。有魏府興化長老。來問。權借一問。以為影草時。如何。老僧當時。機思遲鈍。道不得。為伊致得箇話頭奇特。不敢辜負伊。他云。想和尚。答這話不得。不如禮拜了退。

如今思量。當時不消道箇何必。

後遣化主。到魏府興化。化問。和尚住三峰庵時。老僧問伊話。對不得。如今道得也未。主舉前話。化云。雲居二十年。只道得箇何必。興化即不然。爭如箇道不必。

三聖云。雲居二十年。道得底。猶較興化半月程。

示眾云。如人將三貫錢。買得一隻獵狗。只解尋得有蹤跡。多氣息底。忽遇羚羊挂角時。氣息也無。

僧問。羚羊未挂角時如何。師云。六六三十六。云挂角後如何。師云。六六三十六。僧作禮。師云。會麼。云不會。師云。豈不見道。絕蹤跡。

僧舉似趙州。州云。雲居師兄猶在。僧却問。羚羊未挂角時如何。

州云。九九八十一。云挂角後如何。州云。九九八十一。

師問雪峰。門外雪消也未。峯云。一片也無。消箇甚麼。師白云。消也。

保福展云。要且無雪上加霜。

有一僧。在旁看經。師問。念底是甚麼經。云維摩經。師云。我不問爾維摩經。念底是甚麼。其僧言下有省。

師令侍者。送袴。與住菴道者。者云。自有娘生袴。竟不受。師又令侍者去問。娘未生時。著箇甚麼。者無對。

後遷化。燒得舍利。持以似師。師云。直饒出得八斛四斛。不如當初下取一轉語好。

保寧勇。向無語處。代僧。舉脚示之。

僧問。如何是諸佛師。師喝云。這田庫奴。僧作禮。師云。爾作麼生會。僧作舞出去。師云。泐臺般乞兒。

僧問。山河大地。從何而有。師云。從妄想有。云與某甲。想出一錠金。作麼。師休去。僧不肯。

雲門云。已<sub>巳</sub>是葛藤。不能折合。待伊道與某甲。想出一錠金。

得麼。拈拄杖。劈脊便打。

僧問。如何是一法。師云。如何是萬法。云未審如何領會。師云。一法是爾本心。萬法是爾本性。且道。心與性。是一是二。僧作禮。

師示以頌云。一法諸法宗。萬法一法通。惟心惟汝性。不說異兼同。

僧問。有人衣錦入來。見和尚後。為甚麼寸絲不挂。師云。直作瑠璃殿上行。撲倒。也須粉碎。

問香積之飯。甚麼人作喫。師云。須知得喫之人。入口也須挑出。荊南節度使成尚書。與大將。送供入山。問世尊有密語。迦葉不覆藏。如何是世尊有密語。師召尚書。書應諾。師云。會麼。云不會。師云。汝若不會。世尊有密語。汝若會去。迦葉不覆藏。

法燈云。且道。喚底是密語。應底是密語。若也總是。即不密也。且道。作麼生是密語。

時有僧問。如何是世尊有密語。燈云。何曾得密來。

東林總云。怪哉弘覺。二十年。羚羊挂角。絕跡亡蹤。及乎被尚書一撈。直作帶水拖泥。作人笑怪。法燈也是日午點金燈。夜半潑墨汀。東林即不然。如何是密語。却向伊道。甚處不密。且道。恁麼還有過也無。良久云。更不用別人。

師臨示寂時。問侍者。今日是幾。者云。初三。師云。三十年後。但道。只這是。乃端然告寂。

### 潭州龍牙居遁禪師(凡九)

師問翠微。學人自到法席。不蒙一法示誨。意在於何。微云。嫌甚麼。

又謁德山。理前問。山亦云。嫌甚麼。師不肯。

後見洞山。理前問。洞山云。爭怪作老僧。

師問翠微。如何是祖師西來意。微云。與我過禪板來。師度禪板。與微。微接得便打。師云。打即任打。要且無祖師意。

又問臨濟。濟云。與我過蒲團來。師度蒲團。與濟。濟接得便打。師云。打即任打。要且無祖師意。

師住後。有僧問。和尚當時。問二尊宿祖師意。未審二尊宿。還明也無。師云。明則明已。要且無祖師意。

石門總云。龍牙無人挨著。猶較些子。纔被箇布衲挨著。失却一隻眼。

雪竇云。臨濟翠微。只解放不解収。我若作龍牙。待伊索禪板蒲團。拈得劈篋便擲。

師問德山。學人仗劍。取師頭時如何。山近前。引頸云。囚。師云。頭落也。山呵呵大笑。

師後舉似洞山。山云。德山道甚麼。師云。他無語。山云。無語且致。將德山落底頭來。呈似老僧看。師於是有省。遂焚香。遙禮懺謝。

後有僧。舉似德山。山云。洞山老人。不識好惡。這漢死來多少時了也。救得有甚用處。

保福展云。龍牙只知進前。不知失步。

翠巖芝云。龍牙當斷不斷。如今作麼生斷。

師問洞山。如何是祖師西來意。山云。待洞水逆流時。即向汝道。師於言下契悟。

示眾云。夫參學人。須透過佛祖始得。新豐和尚云。佛教祖教。如生冤家。始有參學分。若透不過。即被佛祖謾。

時有僧問。佛祖還有謾人之心也無。師云。汝道。江湖還有礙人之意也無。又云。江湖雖無礙人之意。為時人過不得。江湖成礙人去。不得道江湖不礙人。佛祖雖無謾人之心。為時人透不得。佛祖成謾人去。不得道佛祖不謾人。若透得佛祖過。此人過却佛祖。始體得佛祖意。方與向上人同。若未透得過。但學佛求祖。萬劫無有出期。

僧問。如何得不被佛祖謾去。師云。道者直須自悟始得。

僧問。師子返擲時如何。師云。返擲且止。爾道。還怕文殊麼。云非但文殊。佛亦不怕。師云。爭奈被文殊騎何。云文殊騎者。不是師子。師云。返擲事作麼生。僧云。應用無虧。師云。正是文殊騎者。返擲事作麼生。僧無語。

僧問。二鼠侵藤時如何。師云。須有隱身處始得。云如何是隱身處。師云。還見文殊麼。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待石烏龜解語時。即向爾道。云石烏龜語也。師云。向爾道甚麼。

僧問。十二時中。如何用力。師云。如無手人行拳。

大滄秀云。是即是。又教人入陰界中。作活計。十二時中。如何用力。如有手人行拳。又且如何。

僧問。古人得箇甚麼。便休去。師云。如賊入空屋。

問大庾嶺頭提不起時如何。師云。六祖為甚麼將得去。

### 襄州洞山師虔禪師(凡五)

洞山問師。近離甚處。師云。武陵。山云。武陵法道。何似此間。師云。胡地冬抽筍。山云。別甌炊香飯。供養此人。師便出。山云。此子已後。千人萬人把不住。

鼓山永云。恁麼祇對。滴水難消。因甚別甌炊香飯。

示眾云。祖師門下。烏道玄微。功窮皆轉。不究難明。汝等諸人。直須離心意識參。出聖凡路學。方可保任。若不如此。非吾子息。

妙喜云。饒汝離心意識。參得透。出聖凡路。學得成。也是雪峰道底。

師凡有新到來。須令擔泥三擔。

有一僧不肯。乃問云。三轉內。即不問。三轉外事如何。師云。鐵輪天子寰中勅。僧無語。師便打。趁出院。

大滄秀云。夫欲君臣道合。應須水乳和同。這僧既抗節朝堂。不覺喪身失命。當時見道鐵輪天子寰中勅。將坐具便揖。待伊擬議。劈面便搥。

僧問。昔年疾苦中又毒。諸師醫。師云。金鑿刮破腦。頂上灌醍醐。云恁麼則謝師醫去也。師便打。

僧問。學人徑往時如何。師云。死蛇當大路。勸子莫當頭。云當頭者如何。師云。喪子命根。云不當頭者如何。師云。亦無回避處。云正恁麼時如何。師云。失却也。云未審向甚麼處去。師云。草深無覓處。云和尚也須隄防始得。師撫掌云。一等是毒藥。

### 撫州疎山羗仁禪師(凡五)

吉州新淦人。初往東林聽習。嘆曰。尋行數墨。語不如默。捨己求人。假不如真。即卷衣游方。

初謁滄山。見示眾云。行脚高士。直須向聲色裏睡眠。聲色裏坐臥。師出問。如何是不落聲色句。滄山豎起拂子。師云。此猶是落聲色句。滄山便歸方丈。

師不契。便辭香巖。巖云。何不且住。師云。某甲與和尚無緣。巖云。有何因緣。不契。試舉看。師舉前話。巖云。某甲有箇語。師云。道甚麼。巖云。言發非聲。色前不物。師云。元來此中有人。乃囑巖云。爾向後有住處。某甲却來相見。遂去。

滄山問香巖云。問聲色話底矮閣梨。在麼。巖云。已去了也。滄山云。曾舉向子麼。巖云。某甲亦曾有語。對他來。滄山云。試舉看。巖云。言發非聲。色前不物。滄山云。他道甚麼。巖云。他深肯。滄山云。我將謂他有長處。元來只在這裏。此子向後。設有住處。近山無柴燒。近水無水喫。

師到福州西禪。遇上堂。師出問。法身之理。理絕玄微。不奪是非之境。猶是法身邊事。如何是法身向上事。禪舉起拂子。師云。此猶是法身邊事。禪云。如何是法身向上事。師進前奪拂子。摺折擲向地上。便歸眾。禪云。龍蛇易辨。衲子難謾。

示眾云。老僧。咸通年已前。會得法身邊事。咸通年已後。會得法身向上事。

雲門問。承聞。和尚咸通年已前。會得法身邊事。咸通年已後。會得法身向上事。是否。師云是。門云。如何是法身邊事。師云。枯椿。門云。如何是法身向上事。師云。非枯椿。門云。還許學人說道理也無。師云許。門云。枯椿。豈不是明法身邊事。師云是。門云。非枯椿。豈不是明法身向上事。師云是。門云。法身還該一切也無。師云。作麼生不該。門指淨瓶云。還該這箇麼。師云。闍梨莫向淨瓶邊會。問便作禮。

上方岳云。疎山總是戰爭收拾得。却因歌舞破除休。雲門舌上有龍泉。

妙喜云。雲門禮拜。不是好心。

師到夾山。問承聞和尚有言。目前無法。意在目前。如何是目前法。山云。山月流輝。澄潭無影。師作掀繩床勢。山云。闍梨又作麼生。師云。目前無法。了不可得。山云。大眾看。這一員戰將。師因知事。為造壽塔畢。來白師。師云。將多少錢。與匠人。云一切在和尚。師云。為將三文。與匠人。為將兩文。與匠人。為將一文。與匠人。若道得。與吾親造塔。知事無對。

羅山閑禪師。時在大嶺住菴。其僧到大嶺。閑問。甚處來。云疎山。閑云。有何言句。僧舉前話。閑云。還有人道得麼。云未有人道得。閑云。汝却歸去。舉似疎山道。大嶺云。若將三文與匠人。和尚此生。決定不得塔。若將兩文。與匠人。和尚與匠人。共出一隻手。若將一文。與匠人。帶累匠人。眉鬚墮落。

僧回舉似師。師具威儀。望大嶺作禮。嘆云。將謂無人。大嶺有古佛。放光射到此間。

却語僧云。爾去向大嶺道。猶如臈月蓮花。僧持此語。舉似閑。閑云。早是龜毛長數丈。

浮山遠云。疎山以錐栽地。大嶺用刀剗空。雖然二老錯下錐刀。今時人。亦難搆赴。何故。後語中。有稍有殺。雖然如是。河裏失錢何裏攏。

師問僧。甚處來。云雪峰來。師云。我已前到時。是事不足。如今足也未。云如今足也。師云。粥足飯足。僧無對。

洞山代云。粥足飯足。

僧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云。魚隱深潭。必招釣客。云見後如何。師云。瞥然渾濁水。白鷺卒難尋。

僧問。久負不逢時如何。師云。饒汝雄信解拈鎗。猶較秦王一百步。云正恁麼時如何。師云。將軍不上便橋。金牙徒勞拈筈。

師嘗握木虵。僧問。和尚手中。是甚麼。師云。曹家女。

云如何是和尚家風。師云。尺五頭巾。云如何是尺五頭巾。師云。圓中取不得。

僧問。如何是冬來意。師云。京師出大黃。  
問百匝千重。是何人境界。師云。在搓芒繩縛鬼子。

### 澧州欽山文邃禪師(凡十一)

福州人也。同巖頭雪峰。見德山。師問德山。天皇也恁麼道。龍潭也恁麼道。未審和尚作麼生道。山云。爾試舉天皇龍潭底看。師擬議。山便打。師下延壽堂云。是即是。打我太殺。巖頭云。若恁麼。他後不得道見德山來。

雪竇云。諸禪客。欽山致箇問端。甚是奇特。爭奈龍頭蛇尾。汝試舉天皇龍潭底看。坐具便搥。大丈夫漢。捋虎鬚。也是本分。他既不能。德山令行一半。令若全行。雪峰巖頭。總是涅槃堂裏漢。

五祖戒云。德山只解打死欽山。不解打活欽山。

大滄喆云。德山門下。草偃風行。待問未審和尚作麼生道。劈脊便棒。且道。德山是。大滄是。

師游方時。同雪峰巖頭。憩一店上。喫茶。師云。不會轉身吐氣者。不得茶喫。頭云。若恁麼。我今日定不得茶喫。峯云。某甲亦然。師云。這兩箇老漢。話頭也不識。頭云。甚麼處去來。師云。布袋裏老鴉。雖活如死。頭退後云。看看。師云。豁公且致。存公作麼生。峰作一圓相。師云不得不問。頭笑云。太遠生。師云。有口不得茶喫者多。

師與巖頭雪峰坐次。洞山行茶來。師乃閉目。洞云。甚麼處去也。師云。入定。洞云。定本無門。從何而入。

有一老宿云。大有人恁麼會。雪竇代云。當時但指巖頭雪峰云。與這兩箇瞌睡漢茶喫。

巖頭住庵。師訪之。問云。師兄在此。二時齋粥。如何。頭云。每日受張四郎宅供養。極是難消。師云。師兄受他供養。他時異日。去他家。作男作女。頭以手捏拳。安頭上。師云。恁麼則向頂[寧\*頁]上。生去也。頭便喝。師云。何如生取文邃去好。頭又喝云。我見爾三二十年。鼓兩片皮。直至如今。猶作這箇去就。便喝出。時張四郎。却同師歸宅。

師垂淚云。三十年同行。有佛法。不向文邃道。至半夜。又去敲門云。師兄師兄。有佛法。不向文邃道。且乞慈悲。頭遂開門。為說細大法門。方得安樂。再回澧州住也。

示眾。橫按拄杖。顧視大眾云。有麼有麼。如無。欽山唱菩薩蠻去也。囉囉哩哩。便下座。

示眾。伸起手云。開即為掌。五指參差。復握拳云。握即為拳。必無高下。還有商量分也無。

時有僧出。豎起拳。師云。汝只是箇無開合漢。

雪竇云。我即不然。豎起拳云。握即為拳。有高有下。復開云。開即成掌。無黨無偏。且道。放開為人好。把定為人好。開也造車。握也合轍。若謂閉門造車。出門合轍。我也知爾向鬼窟裏。作活計。

良禪客問。一鏃破三關時如何。師云。放出關中主看。云恁麼則知過必改。師云。更待何時。云好箭放不著所在。便出去。師云。且來闍梨。良回首。師把住云。一鏃破三關。即且致。試與欽山。發箭看。良擬議。師打七棒云。且聽這漢。疑三十年。

同安察云。良公雖能發箭。要且未中的。

有僧問。未審如何得中的去。安云。關中主是甚麼人。

僧舉似欽山。山云。良公若解與麼。也免得欽山口。雖然如是。同安不是好心。亦須看始得。

師到浴下。見僧踏水車次。放却來問訊。師云。幸自轉轆轤地。何須却恁麼。僧云。不恁麼。又爭得。師云。若恁麼。欽山眼在甚麼處。云作麼生是和尚眼。師以手作撥眉勢。僧云。和尚又得與麼。師云。是是。為我與麼。便不得與麼。僧無對。師云。索戰無功。一場氣悶。良久云。會麼。云不會。師云。欽山為爾擔一半。

德山侍者來。纔作禮。師把住云。還甘欽山與麼也無。云某甲却悔久住德山。今日無言可對。師放却云。一任爾祇對。者撥開霄云。且聽某甲通氣一上。師云。德山門下即得。這裏用不著。云久響欽山不通人情。師云。累他德山眼目。參堂去。

僧問。十二時中。如何接人。師云。我若接人。即與爾一般。云某甲特來。和尚也須吐露。師云。汝若特來。我須吐露。云便請師便打。僧無語。師云。守株待兔。枉用心神。

#### 京兆府華嚴休靜禪師(凡四)

師問洞山。學人未見理路。未免情識。山云。爾還見理路也未。云無理路。山云。甚處得情識來。云學人實問。山云。若與麼。須向萬里無寸草處立。云無寸草處。還許立也無。洞云。直須恁麼去。師在洛浦。作維那。普請。白槌云。上間般柴。下間鋤地。首座云。聖僧作甚麼。師云。當堂不正坐。不赴兩頭機。

僧問。既是長老。為甚麼。却後生。師云。三歲國家龍鳳子。百年堦下老朝臣。

云王子未登九五時如何。師云。貪游六宅戲。不覺國內傾。云正登九五時如何。師云。朱簾齊卷上。四相集朝儀。云登九五後如何。師云。金箱排玉印。御輦四方歸。

僧問。大悟底人。為甚麼却迷。師云。破鏡不重照。落花難上枝。

#### 筠州高安白水本仁禪師(凡四)

示眾云。尋常不欲向聲前句後。鼓弄人家男女。何故且聲不是聲。色不是色。

時有僧問。如何是聲不是聲。師云。喚作色得麼。云如何是色不是色。師云。喚作聲得麼。僧作禮。師云。且道。為汝說。答汝話若人辨得。有箇入處。

雪竇云。既非聲前句後。且作麼生入。

示眾云。眼裏著沙不得。耳裏著水不得。

時有僧問。如何是眼裏著沙不得。師云。應真無比。云如何是耳裏著水不得。師云。白淨無垢。

師問鏡清。時寒。不易道者。清云。不敢。師云。還有臥單也無。

清云。設有也無展底工夫。師云。直饒道者滴水冰生。亦不干他事。清云。滴水冰生。事分相涉。師云。是。清云。此人意作麼生。師云。此人不落意。清云。不落意此人[斬/耳]。師云。高高山頂。無可與道者啗啄。

僧問。文殊與普賢。萬法悉同源。文殊普賢即不問。如何是同源底法。師云。却須問取文殊普賢。僧云。如何是文殊普賢。師云。一釣便上。

僧問。如何是不遷義。師云。落花隨流水。明月上孤峰。

#### 益州北院通禪師(凡四)

師辭洞山。山問。甚處去。師云。入嶺去。山云。飛猿嶺峻。好看。

師沈吟。山云。通闍梨。何不入嶺去。師於此有省。更不入嶺。

師在夾山。見示眾云。坐斷主人公。不落第二見。

師出眾云。須知有一人不合伴。山云。猶落第二見。師便掀倒繩床。山云。老兄作麼生。師云。待某甲舌頭爛。即向和尚道。

師問夾山。目前無法。意在目前。不是目前法。非耳目之所到。豈不是和尚語。山云。是。師便掀倒繩床。叉手而立。夾山起來。打一棒。便下去。

法眼云。是伊掀倒繩床了。何不下去。須待夾山起來。打一棒了去。意在甚麼處。

僧問。二龍爭珠。誰是得者。師云。得者失。云不失時如何。師云。還我珠來。

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壁上畫枯松。蜂來爭採藥。

### 洛京白馬遁儒禪師(凡一)

師問僧。名甚麼。云覓箇名。了不可得。師云。自是老僧不識好惡。云幾人於此忘言。師云。酌然是作家。云須是和尚眼始得。師云。闍梨甕。僧拂袖而出。師召云。闍梨闍梨。僧回首。師云。苦屈之辭。不妨難吐。

### 明州天童咸啟禪師(凡二)

僧問。學人卓卓上來。請師的的。師云。我這裏一屙便了。有甚麼卓卓的的。云和尚與麼答話。更買草鞋行脚始得。師喚其僧近前。僧近前。師云。只如老僧恁麼祇對。過在甚麼處。僧無語。師便打。

師問伏龍。甚處來。云伏龍來。師云。還伏得龍麼。云不曾伏這畜生。師云喫茶去。

聯燈會要卷第二十二

青原下第六世  
筠州洞山良价禪師法嗣下

越州乾峰和尚(凡四)

示眾云。法身有三種病。二種光。須一一透得。始解歸家穩坐。須知更有照用同時。向上一竅。

雲門出眾云。庵內人。為甚麼。不知庵外事。師呵呵大笑。門云。猶是學人疑處。師云。子是甚麼心行。門云。也要和尚相委。師云。若恁麼。始得穩坐。門云。諾諾。

雪竇云。若明得褒貶句。未必善因而招惡果。

示眾云。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落在第二。

雲門出眾云。昨日有人。從天台來。却往徑山去。師云。來日不得普請。

雪竇云。雲門只解一手擡。不能一手搦。還有共相著力者麼。試露牙爪看。

大滄喆云。乾峰善唱。雲門善拍。唱拍相隨。風清古格。還有知音者麼。一堂風冷淡。千古意分明。

僧問。十方薄伽梵。一路涅槃門。未審路頭。在甚麼處。師拈拄杖。劃一劃云。在這裏。

僧後請益雲門。門拈起扇子云。扇子[跳-兆+孛]跳。上三十三天。築著帝釋鼻孔。東海鯉魚。打一棒。雨似盆傾。會麼。

黃龍南云。乾峯一期指路。曲為初機。雲門乃通其變。使後人不倦。汝等須窮二老之意。莫逐二老之言。得意則返正道。以歸家。尋言則蕩邪途。而轉遠。

大滄喆云。乾峯被這僧勘破。

大滄秀云。乾峯老漢。被這僧一問。直得脚忙手亂。教忠光云。雲門跛脚阿師。泥水不辨。菽麥不分。懸羊頭。賣狗肉。神出鬼沒。爭柰伊何。還知乾峰落處麼。擲下拄杖云。切忌向這裏垛跟。

妙喜頌云。搗破雲門一柄扇。拗折乾峰一條杖。二三千處管絃樓。四五百條花柳巷。

師問僧。甚處來。云天台。師云。見說石橋成兩截。是否。云和尚甚處。得這消息來。師云。將謂是華頂峰前客元來只是平田村裏人。

### 筠州九峰普滿禪師(凡十三)

示眾云。常住法身。不生不滅。

有僧問。既不生不滅。為甚麼。六道輪迴。師云。為有心故。云以何方便。當證法身。師云。以虛空心。合虛空理。云證後如何。師云。任從三界轉。徒聽四生奔。復云。會麼。云不會。師云。禮拜著。

師問僧。近離甚處。云閩中。師云。遠涉不易。云不難。動步便到。師云。有不動步者麼。云有。師云。爭得到這裏。僧無對。師云。賺殺一船人。拈拄杖。即時趨下。

僧問。對境心不動時如何。師云。汝無大人力。云如何是大人力。師云。對境心不動。云適來為甚麼道。汝無大人力。師云在舍只言為客易臨淵方覺取魚難。

僧問。古人道。真因妄立。從妄顯真。是否。師云是。云如何是真。師云。不雜食。云如何是妄。師云。起倒攀緣。云去此二途。如何合得圓常。師云。不敬功德天。誰怕黑暗女。

僧問。如何是不遷義。師云。東生明月。西落金烏。云非師不委。師云。理當即行。僧作禮。師便打。云仁義道中。禮拜何咎。師云。來處不明。須行嚴令。

僧問。九峰一路。古今咸知。向上宗乘。請師提唱。師豎起拂子。僧云。大眾側聆。願垂方便。師云。清波不覩魚龍現。迅浪風高下底鈎。云若不久參。那知今日。師云。人生無定止。像沒鏡中圓。

僧問。如何是把定乾坤眼。師云。把定在裏許。云乾坤眼何在。師云。正是乾坤眼。云還照燭也無。師云。不借三光勢。云既不借三光勢。憑何照燭。喚作乾坤眼。師云。若不恁麼。觸體前。見鬼無數。

僧問。人人盡言請益。師將何極濟。師云。爾道。巨嶽還曾乏寸土麼。云四海參尋。當為何事。師云。演若迷頭心自狂。云還有不狂者也無。師云有。云如何是不狂者。師云。突曉途中眼不開。

僧問。如何是道。師云。見通車馬。云如何是道中人。師便打。僧作禮。師便喝。

僧問。如何是不遷義。師云。深夜眾星皆拱北。庭前花發滿堦紅。云如何領會。師云。出去。

僧問。如何是不壞身。師云。正是。云學人不會。請師直指。師云。適來曲多少。

僧問。眼不到色塵時如何。師指香臺云。面前是甚麼。云請師子細。師云。不妨遭檢點。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更問阿誰。云恁麼則學人全體是也。師云。須彌頂上戴須彌。

### 蜺子和尚(凡一)

混俗閩川。居無定所。日沿江岸。採拾蝦蜺充腹。夜宿東山白馬廟。紙錢中。華嚴休靜禪師。欲決師真偽。一夜潛入紙錢中。深夜師歸。靜驀欄笮搗住云。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神前酒臺盤。

### 台州幽棲和尚(凡三)

鏡清問。如何是少父。師云。無標的。清云。無標的。以為少父耶。師云。有甚麼過。清云。只如少父。又作麼生。師云。道者是甚麼心行。

僧問。如何是佛。師云。汝不信是眾生。云某甲深信。師云。若作聖解。即墮群邪。

師因僧為造壽塔畢。師即領眾看塔。即入塔內。端坐云。一客不煩兩主人。便告寂。

眾僧競喚云。和尚許多年在世。不可便即怎麼去。遂昇歸主事辦齋了。師復上堂。告眾云。不得喚作是。不得喚作非。汝喚作甚麼。時有僧出問。承和尚有言。不得喚作是。不得喚作非。未審喚作甚麼。師便珍重告寂。

### 澧州夾山善會禪師法嗣

#### 澧州洛浦元安禪師(凡二十四)

鳳翔府麟游。淡氏子。

師在臨濟。為侍者。濟問。從上來。一人行棒。一人行喝。阿那箇親。師云。總不親。濟云。親處作麼生。師便喝。臨濟便打。

一日有座主。相看。臨濟問。講何經。論主云。某甲荒虐。粗習百法論。濟云。有一人。於三乘十二分教。明得。有一人。於三乘十二分教。明不得。是同是別。主云。明得即同。明不得即別。師遽云。座主。這裏是甚麼所在。說同說別。濟回顧師云。爾又作麼生。師便喝。濟送座主回。問師。適來是汝。喝老僧那。師云。是。濟便打。

濟每對眾。賞之曰。臨濟門下一隻聖箭。誰敢當鋒。

師辭臨濟。濟拈拄杖。畫一畫云。過得這箇。便去。師便喝。濟便打。師作禮去。

後臨濟上堂云。臨濟門下。有一赤梢鯉魚。搖頭擺尾。向南方去。不知向誰家螿甕裏淹殺。

師到澧州夾山。於案山頂上。卓庵。山訝之。修書令侍者招之。師接書坐却。又展手。就侍者索。者無語。師便打云。歸去。分明舉似和尚。

者歸舉似夾山。山云。他若開書。三日後必來。若不開書。此人救不得。

山乃令人密伺其出庵。即焚之。

三日後。果來。隨後焚其庵。或告之曰。庵中火發。師不回顧。直詣夾山。不禮拜。端身而立。山云。雞棲鳳巢。非其同類。出去。師云。自遠趨風。乞師一接。山云。目前無闍梨。座上無老僧。師便喝。山云。住住。且莫草草忽忽。雲月是同。谿山各異。坐斷天下人舌頭。即不無闍梨。爭教無舌人解語。師佇思。山便打。師即投誠入室。

興化獎云。但知作佛。愁甚麼眾生。五祖戒。出洛浦語云。更說道理看。便出去。雪竇云。這漢可悲可痛。鈍致他臨濟。他既雲月是同。我即谿山各異。說甚麼無舌人解語。坐具劈口便搥。夾山若是箇知方漢。必然明窻下安排。

師問夾山。佛魔不到處。如何體會。山云。燭明千里像。闇室老僧迷。

又問。朝陽已昇。夜月如何不現。山云。龍啣寶珠。游魚不顧。師於言下大悟。

夾山將示寂。垂語云。石頭一枝。看看即滅矣。師云。不然。山云。何也。師云。自有青山在。山云。苟或如是。即吾道不滅矣。示眾云。末後一句。始到牢關。把斷要津。不通凡聖。尋常向諸人道。任從天下樂欣欣。我獨不肯。欲知上流之士。不將佛法見解。貼在額頭上。何故。如龜負圖。自取喪身之兆。鳳縈金網。趣雲漢以何期。直須旨外明宗。莫向言中取則。是以石人機似汝。也解唱巴歌。汝若似石人。雪曲也須和。指南一路。智者知疏。

示眾云。學道先須識得自己宗旨方可臨機免失。只如鋒鋌未兆已前。都無是箇非箇。瞥爾暫起見聞。便有張三李四。胡來漢去。四姓雜居。不親而親。是非互起。致使玄關固閉。識鑰難開。疑網羅籠。智刀劣剪。若不當陽曉示。迷子何以知歸。欲得大用現前。但可頓忘諸見。諸見若盡。昏霧不生。大智洞然。更非他物。今之學人。觸途成滯。蓋為聽不出聲。見不超色。假饒併當門頭淨潔。自己未得通明。還同不了。若也單明自己。法眼未明。此人只具一隻

眼。所以是非欣厭貫係。不得脫折自由。謂之深可愍傷。各自努力。

示眾云。孫賓收鋪去也。有卜者。出來。時有僧出云。請和尚一卜。師云。汝家爺死。僧無語。

法眼代。撫掌三下。

師問僧。近離甚處。云荆南。師云。有一人。恁麼去。汝還逢麼。云不逢。師云。為甚麼不逢。云若逢則頭須粉碎師云。闍梨三寸甚密。

雲門在江西。見其僧。問云。還有此語否。云是。門云。洛浦倒退三千里。

龐居士來。設拜。起云。孟夏毒熱。孟冬薄寒。師云。莫錯士云。龐公年老。師云。何不寒時道寒。熱時道熱。士云。患聾作麼。師云。放爾三十棒。士云。啞却我口。塞却爾眼。

有故人問。倏忽數年。何處逃難。師云。只在闌闌中。云何不向無人處去。師云。無人處去。有何難。云且如闌闌中。如何逃避。師云。雖在闌闌中。要且無人識。故人罔措。

復問。西天二十八祖。至此土。人傳一人。且如彼此不垂曲者如何。師云。野老門前。不話朝堂之事。云合談何事。師云。未逢別者。終不開拳。云有人不從朝堂來。相逢時還話否。師云。量外之機。徒勞目擊。故人無對。

僧問。一毫吞盡巨海。於中更復何言。師云。家有白澤之圖。必無如是之怪。

保福別云。家無白澤之圖。必無如是之怪。

問如何是主中賓。師云。逢人長問路。足下鎮長迷。云如何是賓主雙舉。師云。枯樹無橫枝。鳥來無措足。

問眾手淘金。誰是得者。師云。拳中舊寶。不假披沙。云恁麼。則展手不逢也。師云。莫將鶴唳。擬當鶯啼。

問學人擬歸鄉時如何。師云。家破人亡。子歸何處。云恁麼則不歸去也。師云。庭前殘雪日輪消。室內紅塵遣誰掃。

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以拂子。擊繩床云。會麼云。不會。師云。天上忽雷驚宇宙。井底蝦蟆不舉頭。

問撥亂乾坤底人來。師還接否。師豎起拂子。僧云。恁麼則今日得遇明君去也。師云。依稀似曲纔堪聽。又被風吹別調中。

問萬仞崖頭須進步。如何免得喪於身。師云。須彌繫藕絲。云是何境界。師云。剎竿頭上仰蓮心。云澄澄湛湛去也。師云。須彌頂上再翻身。云恁麼則競競切切也。師云。空隨媒鴿走。虛喪網羅身。云如何得不隨去。師云。鸚鵡瓶項小。擬透望天飛。

問二王當筵。龍蛇未辨。救難之心。誰人最切。師云。踏開鴻門者。云誰知今古不覺虞隨。師云。只貪香餌。身滯網羅。云饒君古鏡當軒。猶被野狐精魅。師云。山僧今日大戰無功。僧作虎聲。師便打。僧隨棒便倒。師云。棒打不死漢。有甚麼限。僧拂袖出去。師云。臘狗不向床下死。

問法身無為不墮諸數。是否。師云。惜取眉毛好。云如何免得斯咎。師云。泥龜任爾千年。終不解隨雲鶴。云任是孫賓。也遭貶剝。師云。無鼻孔牛。有甚禦處。僧以手托地。作牛吼。師云。這畜生。僧便喝。師云。掩尾露牙。終非好手。

問無問無答。請師答話。師云。爾不是丁姚。云謝師答話。師云。中九下七。

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颯颯當軒竹。經霜不自寒。僧擬議。師云。只聞風擊響。知是幾千竿。

問枯盡荒田獨立事如何。師云。鷺倚雪巢猶可辨。烏投漆立事難分。

師臨順寂時。告眾云。吾非明。即後也。今有事。問汝等。若道這箇是。即頭上安頭。若道這箇不是。即斬頭覓活。

第一座云。青山不舉足。日下不挑燈。師云。如今是甚麼時節。作這箇語話。

有彥從上座。出云。離此二途。請和尚不問。師云。未在更道。云彥從道不盡。師云。我不管汝盡不盡。云彥從無侍者祇對和尚。師至深夜。令侍者。喚彥從來方丈。問云。爾今日祇對老僧。甚有道理。據汝。合體得先師意。先師道。目前無法。意在目前。不是目前法。非耳目之所到。且道。那句是主。若擇得出。分付鉢袋子。云彥從不會。師云。汝合會。但道看。云彥從實不會。師喝出。乃云。苦苦。

次日午前。有僧舉前話問師。師云。慈舟不棹清波上。劔峽徒勞放木鵝。即便告寂。

### 袁州盤龍可文禪師(凡一)

僧問。亡僧遷化。向甚麼處去。師云。石牛泐江路。日裏夜明燈。問如何是佛。師云。癡兒捨父逃。

### 撫州黃山月輪禪師(凡四)

夾山問師。名甚麼。師云。月輪。山畫一圓相云。何似這箇。師云。和尚與麼說話。諸方大有人不肯。山云。子又作麼生。師云。

還見月輪麼。山云。子恁麼說話。大有人不肯諸方。  
夾山問師。甚處人。師云。閩中人。山云。還識老僧麼。師云。和  
尚還識某甲麼。山云。不然。子且還老僧草鞋錢。老僧然後還子廬  
陵米價。師云。與麼則不識和尚。未審廬陵米作麼價。山云。子善  
能哮吼。  
示眾云。祖師西來。特唱此事。自是諸人不薦。向外馳求。投赤水  
以尋珠。就荆山而覓玉。所以道。從門入者。不是家珍。認影迷  
頭。豈非大錯。  
僧問。如何是道。師云。石牛頻吐三春霧。木馬嘶聲滿道途。  
問如何得見本來面目。師云。不勞懸石鏡。天曉白雞鳴。

### 洛京韶山寰普禪師(凡四)

因遵布衲。到山下相見。遵問。韶山路。向甚麼處去。師以手指  
云。烏那青黯黯處去。遵近前把住云。久響韶山。莫便是否。師  
云。是即是。闍梨有甚麼事。遵云。擬伸一問。師還答否。師云。  
想君不是金牙作。爭解彎弓射尉遲。遵云。鳳凰直入煙霄去。誰怕  
林間野雀兒。師云。當軒布鼓從君擊。試展家風似老僧。遵云。一  
句迥超千聖外。松蘿不與月輪齊。師云。饒君透出威音外。猶較韶  
山半月程。遵云。未審過在甚麼處。師云。倜儻之詞。時人知有。  
遵云。與麼則真玉泥中異。不撥萬機塵。師云。魯般門下。徒施巧  
妙。遵云。某甲只恁麼。和尚又如何。師云。玉女夜拋梭。織錦於  
西舍。遵云。莫便是和尚家風也無。師云。耕夫製玉漏。不是行家  
作。遵云。北猶是文談。作麼生是和尚家風。師云。橫身當宇宙。  
誰是出頭人。

復云。闍梨有衝天之氣。老僧有人地之謀。闍梨橫吞巨海。老僧背  
負須彌闍梨按劍上來老僧亞鎗相待向上一路速道速道。遵云。明鏡  
當臺。請師一鑑。師云。不鑑。遵云。為甚麼不鑑。師云。淺水無  
魚。徒勞下釣。遵無語。師便打。

師問白頭因云。莫是多口白頭因麼。云不敢。師云。有多少口。因  
云。徧身是。師云。大小二事。向甚麼處屙。云韶山口裏。師云。  
有韶山口。即且從。無韶山口。向甚麼處屙。因無語。師便打。

雲門代云。這話墮阿師。放爾三十棒。又云。將謂是師子兒

又云。韶山今日瓦解冰消。

雪竇別云。從來疑著韶山。

僧問。是非不到處。還有句也無。師云有。云是甚麼句。師云。一  
片孤雲不露醜。

問如何是一切相。師云。鳥飛霄漢白。山遠色深青。云恁麼則一切相去也。師云。情知爾亂會。

### 舒州投子大同禪師法嗣

#### 福州牛頭微禪師(凡二)

示眾云。三世諸佛。用一點伎倆不著。天下老師。口似匾擔。諸人作麼生。大不容易。除非知有。餘莫能知。

僧問。如何是和尚家風。師云。山畚粟米飯。野菜淡黃齏。云忽遇上客來時。又作麼生。師云。喫則從君喫。不喫任東西。

#### 安州九巖山和尚(凡一)

僧問。如何是佛。師云。只汝是。

問久響九巖山。到來只見一巖。師云。爾只見一巖。且不見九巖。云如何是九巖。師云。水急浪花翻。

#### 東京觀音巖俊禪師(凡一)

師到投子。子問。昨夜宿何處。師云。不動道場。子云。既言不動。爭得到這裏。師云。到此。豈是動耶。子奇之。

### 青原下第七世

### 鄂州巖頭全豁禪師法嗣

#### 福州羅山道閑禪師(凡十二)

本州長谿陳氏子。

師謁石霜問。起滅不停時如何。霜云。直須寒灰枯木去。一念萬年去。函蓋乾坤去。純清絕點去。師不契。

復謁巖頭。理前問。頭喝云。是誰起滅。師於此大悟。

師初入院。上堂。纔攬衣欲坐。即云。珍重。便下座。

良久却回云。未識底。近前來。

時有僧。纔出作禮。師云。也大苦。僧拜起云。某甲咨和尚。師便喝出。

僧問。如何是奇特一句。師云。道甚麼。  
良久云。若是上士。脚纔跨門。便委得。若也覲面相呈。猶是鈍漢。口喃喃地。不消一鑿。會麼。不是禪。不是道。不是佛。不是法。是甚麼。靈鋒寶劍。常露現前。亦能殺人。亦能活人。若也操持。一任操持。若也出場定當。須是箇漢。始得。機機相副。法法無根。互為賓主。雖然如此。切忌承當。何故。爾若野狂鳴。我即師子吼。我若野狂鳴。爾亦師子吼。爾若師子吼。我亦師子吼。臨時布取意句有主宰。所以道。意中句。句中意。意中不停句。句中不停意。意句不同倫。合作麼生會。意能割句。句能割意。意句交馳。是為可畏。意句不明。事聖不通。只是箇無孔鐵鎚。古人喚作流俗阿師。似這般底。如稻麻竹[竺-二+韋]。有甚麼用處。比箇門中。須是箇漢。眼卓朔地。點著便轉轆轤地。豈是爾清濁可羨。凡聖能詮。有恁麼漢。上士相逢。如擊石火。似爆龜紋。迅速如風。捷辯如電。快著精彩。一人半人。事禪言句。動逾萬億。低頭學禪。卒不可得。所以道。恁麼則易。不恁麼則難。亦云。恁麼則難。不恁麼則易。諸人作麼生。大須細意。兄弟。夫行脚。也須帶眼。莫被這般底罩却。教爾直須冥然去。須得綿綿去。苦哉被這般底。無辜枷著。有甚麼出期。這箇如水上葫蘆子。有人按得麼。常露現前。滔滔地。自由自在。未嘗有一法解蓋得伊。未嘗有一法解等得伊。撥著便露。觸著便轉轆轤地。蓋聲蓋色。展即周流無滯。常露現前。豈是兀兀底。出則無無。不是入則箇箇歸源。聲前迥迥地。豈墮有無。所以道。聲前一句。非聖不傳。未曾親近。如隔大千。聲前一思。大家具知。這箇作麼生會。尋常道。聲前有路。從汝洞明。句後不來。猶虧一半。纖毫不盡。如隔鐵圍。奇特相逢。將何詰對。大凡唱教。須會目前生死。意句殺活。方可褒揚。殺人刀。活人劍。上古之機鋒。亦是今時之樞要。摧魔破執不得不無。直露直詮。須知已有。的能破的。大用無虧。圓通現前。魔難措手。若也未得如此。一切四威儀中。合作麼生明顯。還見伊面孔麼。這裏尋常道。面前一思。常時無間。諸人還得恁麼也無。若實未明。且須自立露倮倮地。不與萬法為隣。一切法。蓋伊不得。所以古人道。目前無法。意在目前。不是目前法。非耳目之所到。第一須得本智現前。本地風光。常露倮倮地。自由自在。出入無滯。方可違時。乃至龍神擎花無路。外道潛覷不見有蹤。不是泯形實去。兄弟。透頂透底始得。莫只這邊那邊。連得些言句。到處插語。指東劃西。舉古舉今。這般底。槌殺一萬箇。有甚麼過。明朝後日。錮鑿人家男女。打汝鬼骨臀。有日在。知麼。宗門深奧。酌度芻襟。麤食易飽。細食難飢。根本差殊。良

由自錯。虛勞一報。空腹高心。過在阿誰。食人言語。揀擇是非。只占己長。終無是處。無事珍重。

師侍巖頭。游山次。忽喚云。和尚。頭云作麼。師近前作禮云。和尚豈不是三十年前。在洞山。又不肯洞山。頭云是。師云。和尚豈不是法嗣德山。又不肯德山。頭云。是。師云。不肯德山。即不問。且如洞山。有甚麼虧闕。頭良久云。洞山好佛。只是無光。師便作禮。

保福會中。有一僧來。作禮云。保福傳語和尚。秋間入府。朝覲大王。致四十箇問頭。問大師。忽若一句不相當。莫言不道。師呵呵大笑云。陳老師。入福建道。洪唐橋頭。下一硬寨。未見一箇毛頭星現。汝向從展道。陳老師無許多問頭。只有一口劍。劍下有分身之意。亦有出身之路。稍若不明。直須成末。但與麼傳語。

僧回舉似保福。福云。我當時也只是謔伊。

至秋朝覲。師特為辨茶筵相請。福不赴。却向僧云。我當時曾有謔語。恐大師問著。

僧回舉似師。師云。汝更去。向他道。猛虎終不食伏肉。僧再去請。福遂來。師不言其事。

師任禾山。與清貴上座說話次。貴云天下無第一人。大小為山。輸他道吾。師云。有甚麼語。輸他。貴云。石霜辭為山。作禮起。為山云。有句無句。如藤倚樹。子意如何。霜無對。

却到道吾。吾問。甚處來。霜云。為山來。吾云。有何言句。霜舉前話。吾云。汝為我看庵。待我與汝報讎去。

吾往為山。值山泥壁次。忽回首。見道吾在背後。山云。智頭陀。因何到此。吾云。某甲不為別事來。聞和尚。問諸道者。有句無句。如藤倚樹。還是也無。為云。是。吾云。且如樹倒藤枯時如何。為山擲下泥盤。呵呵大笑。被吾捺向泥中。山總不管。

貴舉了云。這箇豈不是為山。輸他道吾。師云。三十年後。有把茆蓋頭。切忌舉著此話。貴不肯。却與道吾作主。被師擒下地云。白大眾。各請停喧。某甲今日。與貴上座。直為大為雪屈話。且須側聆。貴云。知也知也。便作禮。師云。何不早恁麼道爾還識道吾麼。只是館驛裏本色撮馬糞漢。

無軫上座。問巖頭道。洞山好佛。只是無光。未審洞山。有何虧闕。便道無光。師召無軫。軫應諾。師云。酌然好佛。只是無光。軫云大師為甚麼。撥某甲話。師云。甚麼處。是撥爾話處。快道快道。軫無對。師打三十棒。趣出院。

軫後舉似招慶。慶得一夏罵詈。夏末自來。問師此事。師即分明舉似慶。慶作禮懺悔云。泊合錯怪大師。

師發泉州化主。臨岐問化主。太傅忽問。大師十二時中。將何示徒。爾作麼生祇對。主無語。師云。但道。騎虎頭取虎尾。第一句下明宗旨。

師又問。渠忽進語云。此猶是菩薩有言教。菩薩無言教。又作麼生。主又無語。師又代云。敵露機鋒。如同電拂。

師住大嶺。有僧辭。往疎山。師云。我有一信。寄與疎山。將麼。云便請。師以手拄頭上。却展云。還柰何麼。僧無對。

僧後到疎山。堂內舉次。一僧云。還會麼。眾無對。僧云。天下人不柰大嶺何。

師在禾山。送同行矩長老。出門次。師以拄杖。攏向面前。矩無對。師云。石牛欄古路。一馬勿雙駒。

有僧舉似疎山。疎山云。石牛欄古路。一馬生三寅。

招慶問師。有問巖頭。塵中如何辨主。頭云。銅沙鑼裏滿盛油。意作麼生。師召大師。師應諾。師云。獼猴入道場。

僧後問明招。招云。箭穿紅日影。

招慶問。岩頭和尚道。恁麼恁麼。不恁麼不恁麼。意作麼生。師召大師。慶應諾。師云。雙明亦雙暗。慶作禮而去。

三日後。却來問。前日蒙大師垂慈。只為看不破。師云。盡情向爾道了也。慶云。大師是把火行。師云。若恁麼。據爾疑處問來。慶云。如何是雙明復雙暗。師云。同生亦同死。慶乃禮謝而去。

後有僧。問長慶。同生亦同死。時如何。慶云。彼此合取狗口。僧云。大師收取口喫飯。

其僧却問師。同生不同死時如何。師云。如牛無角云同生亦同死時如何。師云。如虎帶角。

師臨順寂時上堂。良久。展開左手。知事罔測。遂令師僧退後。師又展開右手。知事又指令西邊師僧退後。師乃云。欲報佛恩。無過守志。欲報王恩。無過流通大教去也。呵呵大笑。奄然而逝。

### 台州瑞巖師彥禪師(凡四)

福州許氏子。

問巖頭。如何是本常理。頭云。動也。師云。動時如何。頭云。不是本常理。師沉思。頭云。肯則未脫根塵。不肯則永沉生死。師於言下頓悟。

師到夾山。山問。甚處來。師云。臥龍來。山云。來時龍起也未。師近前。以目顧視山。山云。灸瘡癩上更著艾焦。師云。和尚又苦如此作麼。山休去。

大滄喆云。瑞巖雖然威凜吒愬。爭奈夾山水清不容。

師問夾山。與麼即易。不與麼即難。與麼與麼。即惺惺。不與麼不與麼。即居空界。與麼不與麼。請師速道。山云。老僧謾闍梨去也。師便喝云。這老和尚。是甚麼時節。便出去。後有僧。舉似巖頭。頭云。苦哉。將我一枝佛法。與麼流將去。師尋常自喚主人公。復自應云。諾。復云。惺惺著。他後莫受人謾。後有僧。舉似玄沙。沙云。一等是弄精魂。甚奇怪。復云。何不且住彼中。云已遷化了。沙云。如今還喚得。應麼。僧無對。

### 懷州玄泉彥禪師(凡一)

僧問。如何是佛。師云。張家三箇兒。僧云。不會。師云。孟仲季。

### 福州雪峰義存禪師法嗣上

#### 福州玄沙師備禪師(凡三十九)

本州謝氏子。初謁雪峰。後欲徧歷諸方。參尋知識。携囊出嶺。築著脚指頭。流血痛楚。忽然猛省曰。是身非有。痛自何來。即回雪峰。峰問。那箇是備頭陀。師云。終不敢誑於人。

峰一日召云。備頭陀。何不徧參去。師云。達磨不來東土。二祖不往西天峰然之。

後閱楞嚴。發明心地。由是應機敏捷。與修多羅冥契。

峰每徵詰。當仁不讓。峰云備頭陀。其再來人也。實雪峰門下。角立者。

師侍雪峰。行次。峰指面前地云。這一片田地。好造箇無縫塔。師云。高多少。峰上下顧視。師云。人天福報。即不無和尚。靈山受記。未夢見在。峰云爾作麼生。師云七尺八尺。

琅琊覺云。國清才子貴。家富小兒嬌。

雪峰指火爐云。三世諸佛。在火焰裏。轉大法輪。師云。近日王令稍嚴。峰云。作麼生。師云。不許攬行奪市。

雲門云。火焰。為三世諸佛說法。三世諸佛。立地聽。黃龍新云。雪峰雲門。交互爭輝。薪盡火滅。向甚麼處聽。莫戀白雲深處坐。切忌寒灰煨殺人。

雪峰謂師云。有箇南際長老。問著。無有答不得者。

一日令訪師。師問。古人道。此事唯我能知。長老作麼生。際云。須知有不求知者。師云。山頭老漢。喫許多辛苦。作麼。

師上山。問訊雪峰。時太原孚。主俗。峰云。我此間。有箇老鼠。今在浴下。師云。待與和尚勘過。師到浴下。見孚打水。師召云。新到相看。孚云。已相見了也。師云。甚麼劫中。曾相見來。孚云。莫瞌睡。

師上方丈。謂雪峰云。已勘破了也。峰云。子作麼生勘。師舉前話。峰云。汝著賊了也。

雪竇別云。這賊敗也。妙喜云。又勘破一箇。

師侍立雪峰。有二僧。從塔下過。峰云。此二人。堪為種草。師云。某甲不與麼。峯云。子又作麼生。師云。便好與二十棒。師因雪峰云。世界闊一丈。古鏡闊一丈。世界闊一尺古鏡闊一尺。師指火爐云。且道。火爐闊多少。峰云。如古鏡闊。師云。這老漢。脚跟未點地在。

東使問僧。為復古鏡致火爐與麼闊。火爐致古鏡與麼大。雲門

云。餽飯泥茶爐。保寧勇。別雪峰云。若不是吾。泊被子惑。雪峰到來。謂師云。近日有僧。來禮拜我。我打伊一棒。僧回首。我向伊道。是甚麼。渠便有箇會處。師云。和尚莫錯保持人。也須是某甲勘驗始得。

師後上雪峰。果見其僧。師問。山中和尚。見兄來。打一棒云。是甚麼。是否。云是。師拂袖而去。

峰問師。那僧如何。師云。那僧荒也。峰云。何處荒。師云。四邊荒徧徧地。

師遣僧。馳書上雪峰。峰開緘。唯見三番白紙。乃呈似大眾云。會麼。良久云。不見道。君子千里同風。僧回舉似師。師云。山頭老漢。蹉過也不知。

五祖戒云。將謂胡鬚赤。黃龍南云。雪峰不道無長處。既被玄沙識破。直至如今。雪不出。

海師信云。智與師齊。減師半德。智過於師。方堪傳授。要且欠一著在。

開善謙云。玄沙白紙。爭柰文彩已彰。雪峰既曰千里同風。何故不知蹉過。不見道。養子莫教大。大了作家賊。

雪峰遷化。師作喪主。三朝集眾煎茶。

師於靈前。拈起一隻盞云。先師在日。即且從。汝道。如今作麼生道。若道得。即先師無過。若道不得。即過在先師。還有人道得麼。

如是三問。眾無對。師撲破盞子。歸寺。

後問中塔。作麼生會。塔云。先師有甚麼過。師便面壁。塔便出去。師召塔。塔回首。師云。爾作麼生會。塔面壁。師休去。

示眾云。佛道閑曠。無有程途。無門解脫之門。無意道人之意。不在三際。故不可昇沉。建立乖真。非屬造化。動則起生死之本。靜則沉昏醉之鄉。動靜雙泯。即落空亡。動靜雙收。則顛預佛性。直須對塵對境。如枯木寒灰。但臨時應用。不失其宜。鏡照諸像。不亂光輝。鳥飛空中。不雜空色。所以十方無影像。三界絕行蹤。不墮往來機。不住中間意。鐘中無鼓響。鼓中無鐘聲。鐘鼓不相交。句句無前後。如壯士展臂。不借他力。師子游行。不求伴侶。九霄絕翳。何在穿通。一段光明。未曾昏昧。若到這裏。體寂寂常的的。日赫焰無邊表。圓覺空中不動搖。吞燦乾坤迥然照。夫出世者。元無出入。名相無體。道本如如。法爾天真。不同修證。只要虛閑。不昧作用。不涉塵泥。箇中纖毫道不盡。即為魔王眷屬。句前句後。是學人難處。所以一句當天八萬門。永絕生死。直饒得似秋潭月影。靜夜鐘聲。隨扣擊以無虧。觸波瀾而不散。猶是生死岸頭事。道人行處。如火銷冰。終不却成冰。箭既離絃。無返回勢。所以牢籠不肯住。呼喚不回頭。古聖不安排。至今無處所。若到這裏。步步登玄。不屬邪正。識不能識。智不能知。動便失宗。覺即迷旨。二乘膽戰。十地魂驚。語路處絕。心行處滅。直得釋迦掩室於摩竭。淨名杜口於毗耶。須菩提唱無說而顯道。釋梵絕聽而雨花。若與麼現前。更疑何事。沒棲泊處。離去來今。限約不得。心思路絕。不因莊嚴。本來真淨。動用語笑。隨處明了。更無欠少。今時人不悟箇中道理。妄自涉事涉塵。處處染著。頭頭繫絆。縱悟則塵境紛紜。名相不實。便擬凝心斂念。攝事歸空。閉目藏睛。終有念起。旋旋破除。細想纔生。即便遏捺。如此見解。即是落空亡底外道。魂不散底死人。溟溟漠漠。無覺無知。塞耳偷鈴。徒自欺誑。這裏分別則不然也不是隈門傍戶。句句現前。不得商量。不涉文墨。本絕塵境。本無位次。權名箇出家兒。畢竟無蹤跡。真如凡聖。地獄天堂。只是療狂子之方。虛空尚無改變。大道豈有昇沉。悟則縱橫不離本際。若到這裏。凡聖也無立處。若向句中作意。則沒溺殺學人。若向外馳求。又落魔界。如如向上。沒可安排。恰似焰爐。不藏蚊蚋。此理本來平坦。何用剷除。動轉揚眉。是真解脫。道不強為。意度建立乖真。若到這裏。纖毫不受。措意則差。便乃千聖出頭來。安排一字不得。久立。

示眾云。夫古佛真宗。常隨物現。堂堂應用。處處流輝。隱顯坦然。高低盡照。是以沙門上士。道眼唯先。契本明心。方為究竟。森羅萬像。一體同源。廓爾無邊。誰論有滯。塵劫中事。都在目前。時人曠隔年深。致乖殊體。迷心認物。久背真宗。執有滯空。不遇良朋善友。只自於私作解縱有商量。渾成意度及至尋窮理地。不辨正邪。況平生自己。未嘗撈攬。若乃先賢古德。便自知時。克

己推功。菴巖石室。古德云。情存聖量。猶落法塵。己見未忘。還成滲漏。不可道持齋持戒。長坐不臥。住意觀空。凝神入定。便當去也。有甚麼交涉。西天外道。入得八萬劫大定。凝神寂靜。閉目藏睛。灰心滅智。劫數滿後。不免輪迴。蓋為道眼不明。生死根源不破。夫出家兒。即不然。不可同他外道也。莫非真實明達。具大見知。能與諸佛同徹。寂照忘知。虛含萬像。如今甚麼處不是汝。甚麼處不分明。甚麼處不露現。何不與麼會去。若無這箇田地。時中爭柰諸般滲漏何。總成虛妄。阿那箇便是平生得力處。如實未有發明。却須在急。時中忘飡失寢。似救頭燃。如喪身命。冥心自救。放捨閑緣。歇却心識。方有少分相親。若不如是。明朝後日。盡被識情帶將去。有甚麼自由分。如今却不如他無情之物。敷唱分明。土木石頭說法。

非常真實。只是少人能聽。若聞此說。始可商量。且道。無情說底法。作麼生商量。試道看。不可道無言無說。也無視無聽。也不可道無問而自說。稱嘆所行道。不見善財童子。參五十三人知識。末後。見彌勒。彈指之頃。得入門。纔入門後。其門自閉。於樓閣中。覩百千諸佛。過去捨身受身。所參底。五十三人善智識。化境。於樓閣中。一時俱現。為其證明。善財疑心頓息。大凡三條椽下。具這箇真實發明。即可商量。便向四生六道中。同於諸佛淨土。更懼何生死。且阿誰知他。一切諸法。都無實體。至於靈山會上。迦葉親聞。猶如話月。古德云。善惡都莫思量。還如指月。乃至三乘行位解脫。菩薩涅槃。聖德聖果。並如空花兔角。不見道。却來觀世間。猶如夢中事。有為心法。不可相依。日久年深。全無利益。只為違真棄本。厭離凡情。折心聖道。作此見知。不出他限量。拋他五陰不去。不見道。諸行無常。是生滅法。爾只擬向前。爭能明得。可中徹去。方得知之。若未究得。當知盡是虛頭。世間難信之法。具大根器。方能明達。今生若徹去。萬劫亦然。古德云。直向今生須了却。誰能永劫受餘殃。珍重。

示眾云。夫為宗匠。大不容易。我恁麼。方便助汝。尚不能構得。若純舉宗乘。汝又向甚麼處措足。所以靈山百萬眾。唯有迦葉親聞。汝道迦葉親聞底事。作麼生不可道世尊不說說。迦葉不聞聞。便當得去。且如道吾有正法眼藏。分付摩訶大迦葉。我道。猶如話月。曹溪豎拂。猶如指月。所以道。大唐國裏。宗乘中事。未嘗有一人舉唱。設有一人舉唱。盡大地人。失却性命。如無孔鐵鎚。一時亡鋒結舌。賴遇我不惜身命。隨汝顛倒。方有箇伸問處。若不恁麼。汝又向甚麼處。相見。

示眾云。世尊道。吾有正法眼藏。付囑摩訶大迦葉。猶如話月。曹溪豎拂。猶如指月。

時鼓山出眾云。月響。師云。這阿師。就我覓月。

雪竇云。玄沙鼓山。如排百萬大陣。只拋瓦礫相擊。或有衲僧辨得。當知正法眼藏。分付有在。

師上堂。眾集。拈拄杖打下。却回顧侍者云。我今日作得一解。嶮。入地獄如箭射。者云。喜得和尚再復人身。

翠巖芝云。大小玄沙。前不構村。後不至店。且作麼生。道得出身一路。

示眾云。諸方盡道。接物利生。忽遇三種病人來。且作麼生接。患盲者。拈槌豎拂。他又不見。患聾者。語言三昧。他亦不知。患啞者。教伊說。又說不得。且作麼生接。若接不得。佛法無靈驗。時地藏出云。某甲有眼有耳。和尚作麼生接。師云。慚愧。便歸方丈。

後有僧。請益雲門。門云。汝禮拜著。僧拜起。門以拄杖桎之。其僧退後。門云。汝不是患盲。復喚僧近前來。僧近前。門云。汝不是患聾。又云。會麼。云不會。門云。汝不是患啞。其僧於此有省。

雪竇舉了。便喝云。這盲聾瘖啞漢。若不是雲門。驢年去。如今有底。拈鎚豎拂。他又不管。教伊近前。他又不來。還會麼。他又不應。諸方還奈何得麼。雪竇若不奈何。爾這一隊驢漢。又堪作甚麼。以拄杖。一時趨散。

龍門遠頌云。玄沙三種病人。有理不在高聲。引得香巖老子。却來樹上懸身。

示眾云。我與釋迦老子同參。

時有僧出問。未審參見甚麼人。師云。釣魚船上謝三郎。

師上堂。聞燕子聲。乃云。深談實相。善說法要。便下座。

尋有僧。請益云。某甲不會。師云。去。無人信汝。

師一日云。我尋常道。亡僧面前。正是觸目菩提。萬里神光頂後相。若搆得。不妨出得陰界。

天龍為師侍者。隨師游山。見虎。龍云。前面是虎。師云。是汝虎。

至晚侍立次。龍問。今日見虎。未審和尚尊意如何。師云。娑婆世界。有四種重障。若人透得許。爾出陰界。

雪竇云。要與人天為師。面前端的是虎。

保寧勇頌云。猛虎當途獨振威。爪牙真箇利如錐。可憐不覺亡身者。碎骨拾來良可悲。

師問鏡清云。我不見一法。為大過患。汝道。不見甚麼法。清指露柱云。莫是不見這箇法麼。師云。浙中清水白米。從汝喫。佛法未夢見在。

雪竇云。大小鏡清。被玄沙熱謾。我當時若見。但向道。靈山受記。也未到如此。

保寧勇。代鏡清。拍手呵呵大笑。

師一日云。深山巖崖。千年萬年。人跡不到處。還有佛法也無。若道有。喚甚麼。作佛法。若道無。佛法却有不到處。

長慶稜來。師云。去却藥忌。作麼生道。稜云。放憨作麼。師云。雪峰山象子捨食。却來這裏。雀兒放糞。

師訪三斗庵主。纔相見。主云。莫怪住庵年深。無坐具。師云。人人盡有。庵主為甚麼却無。主云。且坐喫茶。師云。元來有在。

師見鼓山來。作圓相。示之。山云。人人出這箇不得。師云。情知爾向驢胎馬腹裏。作活計。山云。和尚又作麼生。師云。人人出這箇不得。山云。和尚與麼道。却得。某甲為甚麼不得。師云。我得。汝不得。

師與地藏說話。夜深。師云。侍者關隔子門了。汝作麼生出得。藏云。喚甚麼作門。

法燈別云。和尚莫欲歇去。

雪竇別。珍重便行。

有聲明三藏到王。大王請師。試驗。師將銅火筋。敲鐵火爐。問。是甚麼聲。云銅鐵聲。師云。大王莫受外國人謾。

雪竇別云。大王宜加敬信。又別三藏云。莫謾外國人。法燈代。却是和尚謾大王。

師入眾時。光侍者云。師叔若學得禪。某甲打鐵缸。下海去。

師住後。令人馳書。問光云。打得鐵船也未。

法燈代。請和尚下船。

師謂大普玄通云。汝在彼住。莫誑惑人家男女。通云。某甲開箇供養門。爭敢作與麼事。師云。事難。通云。某實是難。師云。甚麼處是難處。云為伊不肯承當。師便歸方丈。

師與泉守。在室中說話。有沙彌。揭簾欲入。見却退步出去。師云。那沙彌。好與三十棒。守云。恁麼則某甲罪過。師云。佛法不是這箇道理。

韋監軍云。曹山和尚。甚奇怪。師乃問。撫州取曹山多少。韋指傍僧云。上座曾到曹山麼。僧云。曾到。韋云。撫州取曹山多少。僧云。一百二十里。韋云。與麼則上座不曾到曹山。韋却起禮拜。師云。監軍却須拜此僧。他却具慚愧。

承天宗云。這僧可悲可痛。直饒玄沙。具金剛眼。

睛。蹉過韋監軍了也。

監軍問。占波國人。語稍難會。何況五天梵語。還有人辨得麼。師拈起橐子云。識得這箇。即辨得。

雪竇云。玄沙何用繁辭。又云。適來道甚麼。  
師坐次。指面前一點白。問侍僧云。還見麼。云見。如是三問。僧亦三應。師云。爾也見。我也見。為甚麼不會。  
師問僧。甚處來。云德山來。師云。近日有何言句。云和尚一日。大眾集定。拈拄杖。甚向面前。便歸方丈。閉却門。師云。賺舉了也。云甚麼處。是賺舉處。師云。更舉看。僧又舉。師云。不違種草。  
僧問。承師有言。盡十方世界。是一顆明珠。學人為甚麼不會。師云。盡十方世界。是一顆明珠。用會作麼。  
雪竇云。諸方即得。我這裏不得。  
慈雲隆云。這般說話。喚作嚼飯餒嬰兒。把手更與杖。若也不會。須是扣己而參。直須真實。不可信口掠虛。徒自虛生浪死。  
僧問。是甚麼得恁麼難見。師云。只為太近。  
法眼云。也無可得近。直下是上座。  
師到泉州莆田縣。百戲迎之。  
次日問小唐長老。昨日許多喧闐。向甚麼處去也。小唐提起袈裟角。師云。料掉沒交涉。  
法燈別云。今日更是好笑。  
鏡清問。學人乍入叢林。乞師指箇入路。師云。汝聞偃溪水聲麼。云聞。師云。從這裏入。  
一日有三人新到來。師自去。打普請鼓三下。却歸方丈。新到具威儀了。亦去打普請鼓三下。却入僧堂。  
久住僧白師云。新到輕欺和尚。師云。打鐘集眾勘過。大眾既集。新到不來。師令侍者去喚。纔至法堂。新到却拍侍者背一下云。和尚喚爾。侍者至師傍。新到便歸堂。  
久住僧問。和尚何不勘他。師云。我與汝勘了也。  
師因誤服藥。徧身紅爛。僧問。如何是堅固法身。師云。濃滴滴地。  
天衣懷頌云。涸滴通身是爛膿。釣魚缸上顯家風。時人只看絲綸上。不見蘆花對蓼紅。  
師因雪峰垂語云。飯籬邊坐。餓死漢。臨河渴死漢。師云。飯籬裏坐。餓死漢。水裏沒頭浸。渴死漢。  
雲門云。通身是飯。通身是水。  
妙喜舉三人語了。喝云。多觜阿師。可殺忍俊不禁。通身是飯。通身是水。那裏得這消息來。

### 聯燈會要卷第二十三

青原下第七世

福州雪峰義存禪師法嗣下

韶州雲門文偃禪師(凡五十一)

蘇州嘉興人也。初參睦州。發明心要。

後謁雪峰。值峰上堂次。師犯眾出。熟視云。項上三百斤鐵枷。何不卸却。峰云。因甚到與麼。師以手拭目。趨出。峰奇之。自是入室。益臻玄奧。

示眾云。我事不獲已。向爾諸人道。直下無事。早是相埋沒了也。更擬踏步向前。尋言逐句。求覓解會。千差萬別。廣設問難。贏得一場口滑。去道轉遠。有甚休歇時。此事若在言句上。三乘十二分教。豈是無言句。因甚麼。更道教外別傳。若從學解機智得者。只如十地聖人。說法如雲如雨。猶被呵責見性如隔羅縠。以此故知。一切有心。天地懸隔。雖然如此。若是得底人。道火何曾口著燒。終日說事。不曾動著口脣。終日著衣未曾挂著一縷[糸\*系]。終日喫飯。未曾咬破一粒米。此猶是門庭之說。須實得恁麼。始得。若向衲僧門下句。裏呈機。徒勞踈思。直饒一句下承當得。猶是瞌睡漢。

示眾云。學人簇簇地。商量箇甚麼。舉一句語。教汝直下承當去。早是撒屎。在汝頭上了。直饒捻一毫頭。盡大地。一時明得。已是剜肉作瘡。雖然如此。也須實到這箇田地。始得。若未得如此。切不可掠虛。退步向自己脚跟下。推尋看。是甚麼道理。實無絲髮。與爾作解會。各各當人。一段大事。一切現前。更不煩汝一毫頭氣力。便與祖佛無別。自是諸人。起得許多頭角。擔鉢囊子。千鄉萬里。受屈。且爾諸人。有甚麼不足處。大丈夫漢。阿誰無分。直下承當得。已是不著便。不可受人欺謾。取人處分。纔見老和尚動口。便好將特石。驀口塞。恰似屎上蠅子相似。鬪啞將去。三箇五箇。聚頭商量。苦屈兄弟。古德一期。為爾諸人。不柰何。所以方便。垂一言半句。通汝入路。知是般事捻放一邊自家著些精彩。豈不是有相親分。快與快與。時不待人。出息不保入息。更有甚麼身心別處閑用。切須在急。

示眾云。我看諸人。二三機中。尚不能搆得。空披衲衣何益。爾還會麼。我為爾註破。久後到諸方。若見老宿。舉一指。豎一拂子。

云是禪是道。拽拄杖。打破頭。便行。若不如此。盡落天魔眷屬。壞滅吾宗。汝若實不會。且向葛藤社裏看。我尋常向爾道。微塵剎土中。三世諸佛。西天二十八祖。唐土六祖。盡在拄杖頭上說法。神通變化。聲應十方。一任縱橫。爾還會麼。若不會。且莫掠虛。雖然如此。且諦當實見也未。直饒到此田地。也未夢見衲僧沙彌在。三家村裏。不逢一人。驀拈拄杖。劃一劃云。總從這裏出去也。

示眾云。爾諸人。無端來這裏。覓甚麼。老僧只是喫飯屙屎。別解作甚麼。爾諸方行脚。參禪問道。我且問爾。諸方參得底事。作麼生。試舉看。諱爾屋裏老爺得麼。向老漢骨臀後。覓得些子涕唾。嚼將以為自己。便謂我解禪解道饒爾念得一大藏教擬作麼生去。古人事不獲已。見爾亂走。向爾道。菩提涅槃。是埋沒爾。是釘橛繫却爾。又見爾不會。向爾道。非菩提涅槃。知是般事。早是不著便了也。又更覓他注解。這般底。滅胡種族。從上來總似爾。何處有今日也。

示眾云。從上來是甚麼事。如今抑不得已。且向諸人道。盡大地。有甚麼物。與爾諸人。為緣為對。若有針鋒許。與爾為隔礙。與我拈將來。喚甚麼作佛。喚甚麼作祖。喚甚麼。作山河大地。日月星辰。將甚麼。為四大五蘊。我與麼道。喚作三家村裏。老婆說話。忽然遇著本色行脚漢。聞與麼道。把脚拽向堦下。有甚麼罪過。雖然如是。據箇甚麼道理。便與麼莫趁口快。向這裏亂道。須是箇漢始得。忽然被老漢。脚跟下尋著。沒去處。打折爾脚。莫言不道。示眾云。諸和尚。莫妄想。天是天。地是地。山是山。水是水。僧是僧。俗是俗。良久云。與我拈將案山來。

時有僧問。學人見山是山。水是水。時如何。師云。三門為甚麼。騎佛殿。從這裏過。僧云。與麼則不妄想去也。師云。還我話頭來。

示眾云。爾若不相當。且覓箇入頭處。微塵諸佛。在爾舌頭上。三藏聖教。在爾脚跟底。不如無事去好。還有人悟得麼。出來對眾道看。

示眾。拈拄杖。指面前云。乾坤大地。微塵諸佛。總在這裏。爭佛法勝負。還有人諫得麼。若無人諫得。待老僧與爾諫看。

時有僧出云。請和尚諫。師云。這野狐精。

師拈拄杖。示眾云。凡夫謂之有。二乘謂之無緣。覺謂之幻有。菩薩當體即空。衲僧家。見拄杖。但喚作拄杖。行但行。坐但坐。不得動著。

師拈拄杖。示眾云。拄杖子。化為龍。吞却乾坤了也。山河大地。甚處得來。

師有頌云。不露風骨句。未語先分付。進步口喃喃。知君大罔措。示眾云。諸方老宿盡道。聲色外。有一段事。似這般語話。三間法堂裏。獨自妄想。未曾夢見我本師宗旨。作麼生消得他信施。臘月三十日。各償他始得。乃[跳-兆+孛]跳云。爾諸人。各自努力。師垂語云。燈籠是爾自己。把鉢盂噉飯。飯不是爾自己。時有僧問。飯是自己時如何。師云。這野狐精。三家村裏漢。復云。來來。不是爾道飯是自己。云是。師云。驢年夢見。三家村裏漢。

妙喜云。用盡自己心。笑破他人口。

師舉三平頌云。只此見聞非見聞。師云。喚甚麼。作見聞。無餘聲色可呈君。師云。有甚麼口頭聲色。箇中若了全無事。師云。有甚麼事。體用何妨分不分。師云。語是體。體是語。復拈拄杖云。拄杖是體。燈籠是用。是分不分。不見道。一切智智清淨。

師有時云。大用現前。不存軌則。時有僧便問。如何是大用現前。師拈起拄杖。高聲云。釋迦老子來也。

師舉誌公云。如我身空法亦空。千品萬類悉皆同。師云。爾立不見立。行不見行。四大五蘊不可得。何處見有山河大地來。是汝每日。把鉢盂噉飯。喚甚麼作飯。何處更有一粒米來。

師有時云。要識祖師麼。以拄杖指云。祖師在爾頭上[跳-兆+孛]跳。要識祖師眼睛麼。在爾脚跟下。又云。這箇是祭鬼神茶飯。然雖如此。鬼神也無厭足。

妙喜云。不見道。留惑潤生。

時有僧。在傍咳嗽一聲。妙喜云。老僧恁麼道。有甚麼過。僧擬議。妙喜便打。

師有時云。若說菩提涅槃是。燒楓香。供養爾。若說佛祖是。燒黃熟香。供養爾。若說超佛越祖之談是。燒餅香供養爾。歸依佛法僧。下去。

師有時拈起拂子云。這裏得箇入處捏怪也。日本國裏說禪。三十三天。有箇人出來。喚云。吽吽。特舍兒。擔枷過狀。

師有時云。直得乾坤大地。無纖毫過患。猶是轉句。不見一法。始是半提。須知更有全提底時節。

師云。有三種人。一人因說得悟。一人因喚得悟。一人聞舉。便回去。爾道。便回去。意作麼生。復云。也好與三十棒。

師一日云。盡十方世界。乾坤大地。天下老和尚。以拄杖一劃云。百雜碎。

雪竇云。是即是。要且未有出身之路。如今拄杖。在雪竇手裏。復橫按云。東西南北。甚處得來。

師一日云。三乘十二分教。達磨西來。放過即不可。若不放過。不消一喝。

師一日云。聞聲悟道。見色明心。作麼生是聞聲悟道。見色明心。乃云。觀世音菩薩。將錢買胡餅。放不手云。元來却是饅頭。

師一日云。真空不壞有。真空不異色。

僧問。作麼生是真空。師云。還聞鐘聲麼。云此是鐘聲。師云。驢年夢見麼。

師有時云。平地上。死人無數。過得荊棘林者。是好手。

有僧云。與麼則堂中第一座。有長處也。師云。蘇嚕蘇嚕。

師有時云。光不透脫。有兩般病。一切處不明。面前有物。是一。又透得一切法空。隱隱地。似有箇物相似。亦是光不透脫。

又法身。亦有兩種病。得到法身。為法執不忘。己見猶存。坐在法身邊。是一。

直饒透得法身去。放過即不可。子細檢點來。有甚氣息。亦是病。

妙喜云。不用作禪會。不用作道會。不用作向上商量。此是雲門老漢。據實而論。我恁麼道。有沒量罪過。汝若檢點得出。

許爾具擇法眼。若檢點不出。且向雲門葛藤裏參。

師嘗舉。馬大師云。一切語言。是提婆宗。以這箇為主。乃云。好語。只是無人問。

時有僧問。如何是提婆宗。師云。西天九十六種。汝是最下種。

雪竇云。赤幡。被這僧奪却了也。

師舉臨濟三句。問塔主云。只如塔中和尚。得第幾句。主無對。師云。爾問我。主便問。師云。不快即道。主云。作麼生是不快即道。師云。一不成。二不是。

師問臥龍。明己底人。還見有己麼。龍云。不見有己。始明得己。

師又問。長連床上。學得底。是第幾機。龍云。第二機。師云。作麼生是第一機。龍云。緊峭草鞋。

妙喜云。騎賊馬趕賊隊。借婆轆子拜婆年。

僧舉灌溪語。問師。十方無壁落。四面亦無門。淨俶俶赤洒洒。沒可把。作麼生。師云。與麼道即易。也大難出。僧云。上座不肯他與麼道那。師云。適來是爾恁麼舉那。云是。師云。驢年夢見灌溪麼。云某甲話在。師云。我問爾。十方無壁落。四面亦無門。淨俶俶赤洒洒。沒可把。爾道。大梵天王。與帝釋。商量甚麼事。云豈于他事。師喝云。逐隊喫飯漢。

師到天童。童問。爾還定當得麼。師云。和尚道甚麼。童云。不會。即目前包裹。師云。會即目前包裹。

師因鵝湖上堂。有云。莫道未了底人。長時浮逼逼地。設使了得底人。明明知得有去處。尚乃浮逼逼地。

師下堂。舉問首座。適來和尚示眾。意作麼生。座云。浮逼逼地。師云。首座久在此住。頭白齒黃。作這箇語話。座云。上座又作麼生。師云。要道即得。見即便見。若不見。且莫亂道。座云。只如堂頭道浮逼逼地。又作麼生。師云。頭上著枷。脚下著杻。座云。與麼則無佛法也。師云。此是文殊普賢。大人境界。

大滄喆云。大凡撥草瞻風。須是其人。雲門可謂青天霹靂。早地震雷。直得魂慮變懾。不見道。驚群須是英靈漢。敵勝還他師子兒。

師在浙中。蘊和尚會中。喫茶次。蘊垂語云。見聞覺知是法。法離見聞覺知。作麼生。

時有僧云。見定如今目前。一切見聞覺知是法。法亦不可得。師遂拍手一下。蘊舉頭。師云。猶欠一著在。蘊云。我到這裏。却不會。

[啗-口+王]長老。舉菩薩手中幡。問師。作麼生。師云。爾是無禮漢。[啗-口+王]云。作麼生無禮。師云。是爾外道奴。也作不得。師問首座。爾道。乾坤大地。與爾自己。是同是別。座云同。師云。一切物命。蛾蚌蟻子。與爾自己。是同是別。座云同。師云。爾為甚麼。干戈相待。

師雲游。到江西。陳操尚書。請喫飯。

陳問。三乘教典。即不問。儒書更不在言。作麼生是行脚事。師云。曾問幾人來。陳云。即今問上座。師云。即今且致。作麼生是教意。陳云。黃卷赤軸。師云。這箇是語言文字。作麼生是教意。陳云。口欲談而詞喪。心欲緣而慮忘。師云。口欲談而詞喪。為對有言。心欲緣而慮忘。為對妄想。作麼生是教意。陳無對。師云。見說尚書。看法華經。是否。云是。師云。經中道。治世語言。資生產業。皆與實相。不相違背。且道非非想天。有幾人退位。陳又無對。師云。尚書且莫草草。十經五論。師僧拋却。入叢林。十年二十年。尚不奈何。尚書又爭會得。陳作禮云。某甲罪過。

師問直歲。甚處來。云割茆來。師云。割得幾箇祖師。歲云。三百箇。師云。朝三千暮八百。東家杓柄長。西家杓柄短。又作麼生。歲無語。師便打。

師問僧。光明寂照徧河沙。豈不是張拙秀才語。僧云。是。師云。語墮了也。

妙喜云。驢揀濕處尿。

大滄果頌云。萬丈龍門勢倚空。懸崖撒手辨魚龍。時人只看絲綸上。不見蘆花對蓼紅。

師問僧。甚處人。云新羅人。師云。將甚麼過海。云草賊大敗。師云。為甚麼在我手裏。云恰是。師云。一任[跳-兆+孛]跳。

雪竇云。雲門老漢。龍頭蛇尾。放過這漢。為甚麼在我手裏。  
恰是。臂脊便棒。

師問僧。近離甚處。云西禪。師云。西禪有何言句。僧展兩手。師與一掌。僧云。某甲話在。師却展兩手。僧無語。師又打。

師到庫下。見一僧。乃問。作甚麼。云設供。師云。爾是甚處人。云某處人。師喚典座。與這僧。設却供。

大滄喆云。雲門一期慈悲。却成多事。當時便回去。免見挂後人唇齒。良久云。若不登樓望。焉知滄海深。

師問僧。甚處來。云江西。師云。江西一隊老漢。寐語住也未。僧無語。

後舉似法眼。眼云。大小雲門。被這僧勘破。

師問僧。近離甚處。云南嶽。師云。我不曾與人葛藤。近前來。僧近前師。云去。

僧問。如何是法身向上事。師云。向上。與爾道。即不難。作麼生是法身。云請和尚鑑。師云。鑑即且致。作麼生是法身。云與麼與麼。師云。這箇是長連床上。學得底我且問爾。法身還喫飯麼。僧無對。

雪竇云。將成九仞之山。不進一簣之土。過在甚麼處。梁家庵主云。雲門直得人泥入水。

有一僧。罷經論。來參師。問云。未到雲門時。恰似初生月。及乎到來。曲彎彎地。師云。是爾道那。云是。師云。甚好。我問汝。作麼生是初生月。僧斫額。作望月勢。師云。爾如此。已後失却目去在。

僧經旬却來。師云。爾還會也未。云未會。師云。爾問我。僧便問。如何是初生月。師云。曲彎彎地。僧罔措。後果失目。

瑯琊覺云。且道。佛法有靈驗麼。如今若有問瑯琊。如何是初生月。向道。經堂前打板聲。

白雲端云。這僧失却目。雲門和鼻孔不見。雖然如是。家住州西。

師問僧。甚處來。云禮塔來。師云。謔我。云某甲實禮塔來。師云。五戒也不持。

汾州云。彼此相鈍置。

僧問。十方薄伽梵。即不問。如何是一路涅槃門。師云。我道不得。云和尚為甚麼道不得。師云。爾舉話即得。

雪竇云。淺水無魚。徒勞下釣。

僧問。秋初夏末。前程忽有人問。作麼生祇對。師云。大眾退後。僧云。未審過在甚麼處。師云。還我九十日飯錢來。

大滄喆云。這僧貪程太速。致使雲門。隨索飯錢。如今還有識雲門者麼。良久云。不是弄潮人。休入洪波裏。

僧問。佛法如水中月。是否。師云。清波無透路。云和尚從何而得。師云。再問復何來。云便與麼去時如何。師云。重疊關山路。

僧問。如何是雲門一曲。師云。臈月二十五。云唱者如何。師云。且緩緩。

僧問。如何是法身。師云。六不收。

雪竇頌云。一二三四五六。碧眼胡僧數不足。少林謾道付神光。卷衣又說歸天竺。天竺茫茫何處尋。夜來却對乳峰宿。

問如何是透法身句。師云。北斗裏藏身。

白雲端頌云。五陵公子游花慣。未第貧儒自古多。冷地看他人富貴。等閑不柰幞頭何。

僧問。不起一念。還有過也無。師云。須彌山。

保寧勇頌云。萬仞峯頭立大乖。須臾眨眼落懸崖。通身不損毫毛者。天上人間安敢埋。

問如何是道。師云。透出一字。云透出後如何。師云。千里同風。

問如何是清淨法身。師云。花藥欄。云便恁麼去時如何。師云。金毛師子。

問如何是塵塵三昧。師云。鉢裏飯。桶裏水。

問。一言道盡時如何。師云。裂破。

問。如何是超佛越祖之談。師云。胡餅。

問。如何是佛法大意。師云。面南看北斗。

問。如何是佛。師云。乾屎橛。

問。一切智通無障礙時如何。師云。掃地潑水相公來。

### 福州長慶慧稜禪師(凡十二)

杭州鹽官孫氏子。初參靈雲。問如何是佛法大意。雲云。驢事未去。馬事到來。

師往返。看二十年。無省動。

後謁雪峯。忽一日捲簾。豁然大悟。述偈云。也大差也大差。捲起簾來見天下。有人問我解何宗。拈起拂子驀口打。

雪峯謂玄沙云。此子徹也。沙云。未可。此是意識著述。待與勘過始得。

至晚師上問訊。峯問師。備頭陀不肯爾。若實有正悟。對眾舉來看。師復作偈云。萬象之中獨露身。唯人自肯乃方親。昔時謬向途中覓。今日看來火裏冰。峯顧玄沙云。不可也是意識著述。

示眾云。淨潔打疊了也。却近前。問我覓我。劈脊與爾一棒。有一棒到汝。汝須生慚愧。無一棒到汝。汝又向甚麼處會。

雪竇云。我即不然。淨潔打疊了也。直須近前。就我覓我。劈脊與爾一棒。有一棒到爾。爾須受屈。無一棒到爾。與爾平出。但恁麼會。

示眾云。撞著道伴。交肩過。一生參學事畢。

雪竇云。是即是。針不筍風不入。有甚麼用處。

示眾云。總似今日老。胡有望。

保福展云。總似今日。老胡絕望。

師拈拄杖。示眾云。識得這箇。一生參學事畢。

雲門云。識得這箇。為甚麼不肯住。

靈巖安云。恁麼住者。喪我兒孫。恁麼去者。寒灰發焰。然雖如是。都未得勦絕在。拈起拄杖云。識得這箇。遂卓一下云。

敲出鳳凰五色髓。擊碎驪龍明月珠。

師同保福鼓山。三人游山。福指雪峰舊院云。教中道妙高峯頂。莫只這裏便是麼。師云。是即是。可惜許。

鼓山云。若不是孫公。便見觸髅徧野。

雪竇云。今日共這漢游山。圖箇甚麼。

復云。百千年後。不道全無。只是少。

又頌云。妙峰孤頂草離離。拈得分明付與誰。不是孫公辨端的。觸髅徧野幾人知。

師一日陞堂。大眾集定。師拽出一僧云。大眾禮拜這僧著。又云。且道。這僧有甚長處。却教大眾禮拜他。眾無對。

臥龍舉。僧問曹山。維摩默然。文殊讚善。未審還稱得維摩意也無。曹云。爾還縛得虛空麼。云恁麼則不稱維摩意也。曹云。他又爭肯。云畢竟有何所歸。曹云。若有所歸。即同彼二公也。云和尚作麼生。曹云。待汝患維摩病。始得。

臥龍舉了。師云。我雖不見曹山。敢與曹山。作箇話主。龍愕然云。這老和尚。近日顛倒。作麼。山頭老漢。以維摩默然話。休歇了多少人。他却道。與曹山作箇話主。師咄云。這尿床鬼子。不會便休。亂統作麼。

僧問。羚羊未挂角時如何。師云。草裏漢。云挂角後如何。師云。亂叫喚。云畢竟如何。師云。驢事未去。馬事到來。

師問僧。甚處來。云鼓山。師云。鼓山有不跨石門句。有人問爾。作麼生道。云昨夜宿報慈。師云。劈脊便棒。爾又作麼生。云和尚若行此棒。不虛受人天供養。師云。泊乎放過。

僧問。眾手淘金。誰是得者。師云。有伎倆者得。云學人還得也無。師云。大遠在。

雪竇代這僧。當時便喝。

復云。有伎倆者得。一手分付。有伎倆者不得。兩手分付。學人還得也無。蒼天蒼天。

閩帥夫人練師崔氏。遣使送衣物至。云練師。令就大師請取回信。師云。傳語練師。領取回信。

師次日。入府。練師云。昨日謝大師回信。師云。却請昨日回信看。練師展兩手。帥云。練師與麼呈信。還愜大師意麼。師云。猶較些子。云未審大師意旨如何。師良久。帥云。不可思議大師。佛法深遠。

### 福州安國明真大師(凡二)

師問僧。得之於心。伊蘭作旃檀之樹。失之於旨。甘露乃蒺藜之園。我要箇語。具得失兩意。僧豎起拳云。不可喚作拳頭。師云。只為喚作拳頭。

雪竇云。無繩自縛漢。拳頭也不識。

雪峯一日。攔胸扭住師云。盡大地是箇解脫門。把手拽伊。不肯入。師云。和尚怪某甲不得。峯云。雖然如此。爭柰背後許多師僧何。

### 漳州保福從展禪師(凡十二)

福州陳氏子。示眾云。此事如擊石火。似閃電光。搆得。搆不得。未免喪身失命。

有僧問。未審搆得底人。還免喪身失命也無。師云。適來且致。闍梨還搆得麼。僧云。若搆不得。未免大眾笑怪。師云。作家作家。云是甚麼心行。師云。一杓屎。攔面潑。也不知臭。

雪竇云。保福有生擒虎兇底牙爪。這僧也不易相敵。雖然如是。且放過保福一著。只如雪竇與大眾。還免諸方檢責也無。若免不得。平地上死人無數。其中有得活底麼。遂拈拄杖云。來也來也。

師問長慶。盤山道。光境俱忘。復是何物。洞山道。光境未忘。復是何物。

據二老。總未得勦絕在。作麼生得勦絕去。慶良久。師云。情知爾向鬼窟裏。作活計。慶云。爾作麼生。師云。兩手扶犁水過膝。

雪竇云。俱忘未忘。總由我。保福因甚道。未得勦。絕。酌然能有幾箇。諸人又作麼生道。免得長慶在鬼窟裏。良久云。柳絮隨風。自西自東。

師一日云。如今有人。從佛殿後過。便知是李四張三。有人從佛殿前過。為甚麼不見。且道。佛法利害。在甚麼處。僧云。為伊有一分麤境。所以不見。師便喝。復自云。若是佛殿。即不見。云不是佛殿。還見麼。師云。不是佛殿。見箇甚麼。

師因僧侍立。師云。爾得恁麼麤心。云甚處是某甲麤心處。師拈一塊土。度與僧云。拋向門前著。僧拋了。却來云。甚處是某甲麤心處。師云。我見爾築著磕著。所以道爾麤心。

雪竇云。然則這僧被熱瞞。爭柰真不掩偽。曲不藏直。雪竇將今視古。於理不甘。爾這一隊漢。忽僧堂裏來。寮舍裏去。築著磕著。爾亦不知近來麤心轉盛。我若放過。便見諸方檢責。乃卓拄杖下座。

長生卓菴。師往相訪。茶話次。生云。有僧問某甲。如何是祖師西來意。某甲豎起拂子。不知得不得。師云。我爭敢道得不得。有箇問。有人讚嘆此事。如虎帶角。有人輕賤此事。分文不直。一等是與麼事。為甚贊毀不同。生云。適來出自偶爾。

有一老宿云。毀又爭得。有一老宿云。惜取眉毛。太原孚云。若無智眼。雞辨得失。

雪竇都別云。若非和尚證明。拂子一生無用。

師病中問僧。我與爾。相識年深。有何名方妙藥。相救。云藥方甚有。聞和尚不解忌口。

雪竇別云。只恐難為和尚。

師問飯頭。鑊闊多少。云和尚試量看。師作量勢。僧云。和尚莫瞞人好。師云。却是爾瞞我。

師問僧。爾作甚麼業。得與麼長。云和尚短多少。師蹲身。作短勢。僧云。和尚莫瞞人好。師云。却是爾瞞我。

師問僧。爾名甚麼。云咸澤。師云。忽遇枯涸時如何。云誰是枯涸者。師云。我是。僧云。和尚莫瞞人好。師云。却是爾瞞我。

師問僧。殿裏是甚麼佛。僧云。和尚試定當看。師云。釋迦佛。僧云。和尚莫瞞人好。師云。却是爾瞞我。

師見一僧。拈拄杖。打其頭。僧作忍痛聲。師云。那箇為甚麼不痛。僧無對。

玄覺代三。貪行拄杖。

師因尼來參。師云。阿誰。侍者云。覺師姑。師云。既是覺師姑。用來作麼。尼云。仁義道中。即不無。師自別云。和尚是甚麼心行。

師見僧數錢。乃展手云。乞我一錢。云和尚因何到恁麼地。師云。我到恁麼地。云若到恁麼地。將取一錢去。師云。汝為何到恁麼地。

師問僧。甚處來。云江西觀音。師云。還見觀音麼。云見。師云。左邊見。右邊見。僧云。見時不歷左右。

法眼別云。如和尚見。

師令侍者。屈崇壽長老云。但獨自來。莫帶侍者來。壽云。不許帶來。爭解離得。師云。太煞恩愛。壽無語。

僧問。如來禪即不問。如何是祖師禪。師以手撥云。香巖道底。拈向一邊著。僧無語。

師却問明招云。道者道取。招云。請大師舉。師便舉。招云。更有第二下鐵鎚來。和尚又將箇甚麼當抵始得。師休去。

僧問師。雪峰平生。有何言句。得似羚羊挂角時。師云。我不可作雪峰弟子不得。

雪竇云。一千五百箇衲子。保福較些子。

### 杭州龍冊順德怱禪師(鏡清也凡十八)

師問雪峰。只如古德。豈不是以心傳心。峰云。兼不立文字語句。師云。只如不立文字語句。未審如何傳授。峰良久。師便作禮。峰云。更問我一轉。豈不好。師云。就和尚。請一轉問頭。峰云。只恁麼。為別有商量。師云。和尚恁麼即得。峯云。汝又作麼生。師云。辜負殺人。

師在雪峰。普請次。峰舉。滄山云。見色便見心。還有過也無。師云。古人為甚麼事。峰云。雖然如此。我要共爾商量。師云。若恁麼。不知某甲鑿地去好。

示眾云。有舟無楫。亦不得。有楫無舟。亦不得。舟楫俱備。亦不得。亦不得。亦不得。諸人作麼生。

示眾云。一人到。亦不得。一人不到。亦不得。二人俱到。亦不得。亦不得。亦不得。諸人作麼生。此是妙中之妙。拂盡青霄。通霄不礙。

師一日。於僧堂前。自打鐘云。玄沙道底。玄沙道底。

時有僧問。玄沙道甚麼。師畫一圓相。僧云。若不久參。爭知與麼。師云。還我草鞋錢來。

雪竇云。洎被打破蔡州。

師普請。鋤草次。浴頭請師浴。師不顧。如是三請。師舉鑊。作打勢。頭便走。師召云。來來。頭面首。師云。向後遇作家。分明舉似。

僧後見保福。舉前話。未了。福以手掩僧口。

僧復舉似師。師云。饒伊與麼。也未作家。

師問靈雲。行脚大事。乞師指南。雲云。浙中米作麼價。師云。若不是某甲。洎作米價會。

師問風穴。近離甚處。云自離東來。師云。還過小江也無。云大舸獨飄空。小江無可濟。師云。鏡水秦山。鳥飛不渡。子莫道聽遺言。云滄溟尚怯艤輪勢。列漢飛帆渡五湖。師豎起拄杖子云。爭柰這箇何。云這箇是甚麼。師云。果然不識。云出沒卷舒。與師同用。師云。杓卜聽虛聲。熟睡饒嚙語。云澤廣藏山。理能伏豹。師云。捨罪恕愆。速須出去。云出去即得。便出。

到法堂上。却云。行脚人。因緣未盡善。不可便休。再上方丈。見師。坐次。穴問訊云。某甲適來。輒呈駭見。冒瀆尊顏。伏承和尚慈悲。未賜罪責。師云。適來言。從東來。豈不是翠巖來。云雪竇親棲寶蓋東。師云。不逐忘羊狂解息。却來這裏念篇章。云路逢劒客須呈劒。不是詩人不獻詩。師云。詩速秘却。略借劒看。云梟首甌人携劒去。師云。不獨觸風化。亦自顯顛預。云若不觸風化。爭明古佛心。師云。何名古佛心。云再許允容。師今何有。師云。東來衲子。菽麥不分。云只聞不己而已。何得抑己而已。師云。巨浪涌千尋。澄波不離水。云一句截流。萬機寢削。便作禮。師云。東來衲子。俊哉俊哉。

師問僧。近離甚處。云三峰。師云。夏在甚處。云五峰。師云。放爾三十棒。云某甲過在甚麼處。師云。為爾出一叢林。入一叢林。

琅琊覺云。割菜鎌子。

師問僧。近離甚處。云石橋。師云。本分事作麼生。云近離石橋。師云。我豈不知爾近離石橋。本分事作麼生。云。和尚何不領話。師便打。僧云。某甲話在。師云。爾但喫棒。我要這話行。

雪竇云。然則倚勢欺人。爭柰事不孤起。這僧若能慎初護末。棒須是鏡清白喫。

師問僧。門外甚麼聲。云雨滴聲。師云。眾生顛倒。迷己逐物。云和尚作麼生。師云。洎不迷己。云洎不迷己。意作麼生。師云。出身猶可易。脫體道應難。

黃龍心云。說易說難。轉見迷己。要不迷己。如今喚作甚麼聲。

師問僧。門外甚麼聲。云虵咬蝦蟆聲。師云。將謂眾生苦。更有苦眾生。

師住庵時。有一行者。徐徐近前。取拂子。豎起云。某甲決定喚這箇。作拂子。庵主喚作甚麼。師云。不可更分名立字也。者擲下拂子云。著甚死急。

明招代云。敢死喘氣。

僧問。學人未達其源。乞師方便。師云。是甚麼源。云其源。師云。若是其源。爭受方便。

雪竇云。死水裏浸殺。有甚用處。

侍者隨後問。適來是成褫伊那。師云。無。云不成褫伊那。師云。無。云和尚尊意如何。師云。一點水墨。兩處成龍。

雪竇云。猶較些子。雪竇不是減鏡清威光。要與這僧相見。是甚麼源。其源。三十年後。與爾三十棒。

僧問。學人啐。請師啄。師云。還得活也無。云若不活。遭人怪笑。師云。也是草裏漢。

雪竇云。衲僧有此奇特事。若有一人半人。互相平展。古聖也不虛出來一回。

僧問。聲前絕妙。請師指歸。師云。許由不洗耳。云為甚麼如此。師云。猶繫脚在。云某甲只如此。師意又如何。師云。無端夜來鴈。驚起後池秋。

僧問。新年頭還有佛法也無。師云。有。云如何是新年頭佛法。師云。元正啟祚。萬物咸新。云謝師答話。師云。鏡清今日失利。

### 福州長生皎然禪師(凡五)

師因雪峰。普請次。峰自負一束藤。路逢一僧。便拋下。僧擬取。被峰一踏踏倒。

乃謂師云。今日踏得這僧快生。師云。和尚須替這僧。入涅槃堂始得。峯休去。

雪竇云。長生大似東家人死。西家人助哀。也好與一踏。白雲端云。雪峰外面贏得五百。家中失却一貫。

有僧問雪峰。如何是第一句。峯良久。

僧舉似師。師云。此是第二句。峰聞。令僧同師。如何是第一句。師云。蒼天蒼天。

雪峰問師。光境俱亡。復是何物。師云。放某甲過。有箇商量。峰云。我放爾過。爾作麼生商量。師云。某甲亦放和尚過。峰深肯之。

玄沙問。我觀如來。前際不來。後際不去。今亦無住。長老作麼生。師云。放某甲過。有箇道處。沙云。我放爾過。爾作麼生道。師默然。沙云。誰委。師云。和尚不委那。沙云。情知爾向鬼窟裏。作活計。

僧問。從上宗乘。如何舉唱。師云。不可為闍梨。荒却長生山也。

### 福州鼓山神晏禪師(凡十一)

久依雪峰。峰知其緣熟。一日驀攔臂扭住云。是甚麼。師當下釋然契悟。但舉手搖拽而已。峰云。子作道理耶。師云。何道理之有。峰撫而印之。

示眾云。諸和尚盡道。向諸方參學。未審參箇甚麼。學箇甚麼。還有參得者也無。有即出來。對眾驗看。諸和尚。為復參禪參道。參佛參法。參毗盧師。法身主。參佛向上事。涅槃後句。若實參此。得無大妄。喚作望上。心不息。與諸和尚。了無交涉。

示眾云。大事未辦。宗脉不通。切忌記持言句。意識裏作活計。不見道。意為賊。識為浪。盡被漂沉沒溺去。無自由分。諸和尚。必若大事未辦。不如休去歇去。身心純靜去好。時中莫駐著事。却易得露這箇。是事不得已。相勸之言。古人喚作死馬醫。若是箇漢。向他與麼道。如同寐語一般。且諸人分上。作麼生。十二分教。還用得一字麼。諸方老宿語。還用得一句麼。若十二分教是。兄弟在阿那箇教裏。若諸方老宿語。當得。兄弟在阿那句中。所以道。十二分教唱不得。聖凡攝不得。古今流不得。言教該不得。與麼說話。為刺頭人在教門裏。且與伊折開。若有箇漢。總未通達箇消息。向伊與麼道。被伊驀口攔。[尸@豕]沸作麼。不可怪得他也。兄弟大須甄別。莫吉凶不辨。有辨得者。出來。對眾驗看。時寒。久立。

示眾云。若是靈利底。撩著便休去。似這般底。千里萬里去也。有甚麼救處。進前退後。納箇如何。醉人相似。有甚麼衲僧氣息。既然如是。且宗門中事。作麼生。諸和尚。這裏也須是箇漢。始得。大不容易。兄弟。鼓山不惜口業。向汝諸人道。不假記一字。亦不用一功。亦不用眨眼。亦不用呵氣。大坐著。便紹却去。諸和尚。且道。紹甚麼。為復紹佛紹祖。紹禪紹道。紹佛向上事。涅槃後句。若紹此句。得為大妄。喚作望上心不息。與諸兄弟。了無交涉。於諸人分上。作麼生紹。普請驗看。是甚麼。為復是凡是聖。是毗盧師。法身主。在甚麼處居住。甚麼年中有渠。方圓闊狹。長短大小。試道看。還有絲髮大物解。蓋覆得麼。還有絲髮許。間隔麼。向阿那裏抄。向阿那裏寫。諸和尚。與麼顯露。與麼聊要。何不直下承當取。又更刺頭。入他言句裏。意識中學。有甚麼交涉。不見道。意為賊。識為浪。走作馳求。終無歇分。若自不具眼。就人揀辨。卷子裏抄。策子裏寫。假饒百千萬句。龍宮海藏。一時吞納。盡是他人。不干自己事。亦喚作識學依通。猶如水母。借蝦為目。無自由分。亦如盲者辨色。依他語故。實不能辨色之正相。若是學經律論。自有人在。所以鼓山尋常道。經有經師。律有律師。論有論師。有函有號。有部有秩。白日明窓。夜附燈。燭自有人傳持在。禪師作麼生。還有人道得麼。試出來道看。

時有僧問。如何是日前顯露底機。師云。道甚麼。僧再問。師喝出去。

示眾云。諸和尚。大凡行脚。須識辨宗風。莫只是尋言逐句。無有了期。雪峰和尚道。三世諸佛。不能唱。十二分教。載不起。所以鼓山道。有一人與麼來。總未曾通這箇消息。向伊與麼道。被伊把黃泥驀口塞。還怪得他也無。恐人亂塞人口。所以道。鼓山有不跨石門句。作麼生道。這裏須是其人。莫亂道。

時有僧問。如何是不跨底事。師拈拂子。驀口打云。還會麼。云不會。師咄云。汝不是這手脚。

示眾云。實不敢欺兄弟。亦不敢昧兄弟。然且沒人辨得。

有僧問。從上宗乘。如何舉唱。師便打。僧作禮。擬再問。師云。老兄不是這手脚。

示眾云。鼓山門下。不得咳嗽。

時有僧。咳[口\*敕]一聲。師云。作甚麼。僧云。傷寒。師云。傷寒即得。

示眾云。若論此事。如一口劍相似。

時有僧問。和尚是死屍。學人是死屍。如何是劍師云。拖出這死屍。僧應諾。歸衣鉢下。束裝便行。

師至晚。問首座。問話僧在否。座云。當時便去也。師云。好與三十棒。

雲居齊云。鼓山拄杖。是賞伊罰伊。具眼者。試商量看。雪竇云。諸方老宿總道。鼓山失却一隻眼。殊不知。重賞之下。必有勇夫。然雖如是。若子細撿點來。未免一時埋却。

師問僧。直下猶難會。尋言轉見賒。若論佛與祖。特地隔天涯。爾作麼生會。僧無語。

後舉問侍者云。某甲不會。請侍者。代一轉語。侍者云。和尚與麼道。猶隔天涯在。

僧舉似師。師喚侍者來。問爾為新到代語。是否。云是。師便打趁出院。

有一僧。製得雪峰實錄云。師因上堂。良久顧視大眾云。是甚麼。師問。雪峰只有此語。為當別更有在。僧云。別更有。師云。案圓也。下山去。

師因困山同上雪峯。困山云。與和尚鬪行。師云。輸也。

### 明州翠巖令參禪師(凡三)

示眾云。一夏已來。為兄弟東語西話。看我眉毛在麼。

長慶云。生也。雲門云關。保福云。作賊人心虛。翠巖芝云。  
為眾竭力。禍出私門。

僧問。還丹一粒。點鐵成金。至理一言。轉凡成聖。學人上來。請  
師一點。師云。不點。云為甚麼不點。師云。恐汝落在凡聖。云乞  
師至理。師喚侍者點茶來。

僧問。古人拈槌豎拂。意旨如何。師云。邪法難扶。  
問僧繇為甚麼。寫誌公真不得。師云。作麼生折合。  
問。嶮惡道中。以何事為津梁。師云。藥山再三叮囑。

### 泉州臥龍道溥禪師(凡二)

示眾云。莫道空山無祇待。便歸方丈。

僧問。初心後學。乍入叢林。方便門中。乞師指示。師敲門枋。示  
之。云向上還更有事也無。師云有。云如何是向上事。師再敲門  
枋。

### 越州越山師肅禪師(凡三)

初謁雪峰。於道染指。

後因閩主請。於清風樓上齋。坐久。舉頭。忽見日光。豁然大悟。  
作偈云。清風樓上赴官齋。此日平生眼豁開。方信普通年遠事。不  
從忽嶺帶將來。

僧問。如何是佛身。師云。爾問那箇佛身。云釋迦佛身。師云。舌  
覆三千界。

師臨順寂時。示偈云。眼光隨色盡。耳識逐聲消。還源無別旨。今  
日與明朝。

### 安州白兆山志圓禪師(凡二)

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云苦。云如何是道。師云普。

玄則問。如何是學人自己。師云。丙丁童子來求火。

### 南嶽金輪可觀禪師(凡一)

師謁雪峰。峰召云。近前來。師近前。峰與一踏。師即冥契。

住後。示眾云。自從一喫雪峰踏。直至如今眼不開。不知是何境  
界。

### 漳州報恩懷嶽禪師(凡二)

僧問。十二時中。如何行履。師云。動即死。云不動時如何。師云。猶是守古塚鬼。

僧問。如何是學人出身處。師云。有甚麼纏縛汝。云爭柰出不得何。師云。過在阿誰。

### 漳州隆壽紹鄉禪師(凡一)

師侍雪峰行次。見風吹芋葉動。峰指示之。師云。某甲甚生怕怖。峰云。是爾屋裏事。怕箇甚麼。師於此有省。

### 杭州龍華靈照禪師(凡一)

師指半月。問溥上座。那一片。甚麼處去也。溥云。莫妄想。師云。失却一片了也。溥無對。

### 洛京南院和尚(凡一)

有一儒士。博覽古今。呼為張百會。一日謁師。師問。莫是張百會麼。云不敢。師以手空中。畫一畫云。會麼。張云不會。師云。一尚不會。甚麼處得百會來。

### 太原孚上座(凡十)

初名座主。在楊州光孝。講涅槃經。有一禪者。阻雪在寺。因往隨喜。講至三因佛性。三德法身。廣談法身妙理。禪者失笑。孚講罷。請禪者喫茶。問某甲素志狹劣。依文解義。適蒙見笑。有不到處。伏望見教。禪者云。實笑座主不識法身。師云。如此解說。何處不是。云請座主。更說一徧。師云。法身之理。猶若太虛。豎窮三際。橫亘十方。彌綸八極。包括二義。隨緣赴感。靡不周徧。禪者云。不道座主說得不是。只是說得法身量邊事。實未識法身在。師云。既然如是。禪者當為我說。云座主還信否。師云。焉敢不信。云若如是。座主暫輟講旬日。於室內端坐靜慮。收心攝念。善惡諸緣。一時放却。師一依所教。從初夜至五更。聞鼓角聲。忽然契悟。走扣禪者門。禪者問云。誰。師云。某甲。禪者咄云。教爾傳持大教。代佛宣揚。夜來為甚麼醉酒臥街。師云。禪德自來講

經。將生身父母鼻孔扭捏。從今向去。更不敢如是。禪者云。且去。明日來相見。師即罷講。徧謁諸方。

師初到雪峰。纔上法堂。顧視雪峰。便下去。見知事。

雪竇云。一千五百人善知識。被孚老一覷。便高豎降旗。

明日却上方丈。作禮云。昨日觸忤和尚。峰云。知是般事便休。

雪竇云。果然。

後有僧。問雲門。作麼生是觸忤處。門便打。

雪竇云。打得百千萬億箇。有甚麼用處。直須盡大地人。喫

棒。方可扶豎雪峰。且道。孚上座。具甚麼眼。

雪峰一日。指日示師。師搖手而去。峰云。爾不肯老僧那。師云。和尚搖頭。某甲擺尾。甚麼處是不肯和尚處。峰云。到別處。也須諱却。

雪峰問師。見說臨濟有三句。是否。師云。是。峰云。如何是第一句。師舉目視之。峰云。此是第二句。如何是第一句。師叉手而退。峯深器之。

晏國師問。父母未生前。鼻孔在甚麼處。師云。老兄先道。晏云。如今生也。鼻孔在甚麼處。師不肯。

晏却問。汝作麼生。師云。將扇子來。晏與扇。再徵之。師默致。晏乃歐師一拳。

師因雪峰。門送晏國師。住鼓山。回至法堂。峰云。一隻聖箭。射入九重城裏去也。師云。和尚是伊未在。峯云。渠是徹底人。師云。若不信。待某甲去。勘過。

遂趨至中路。便問。師兄向甚麼處去。晏云。九重城裏去。師云。忽遇三軍圍繞時如何。晏云。他家自有通霄路。師云。恁麼則離宮失殿去也。晏云。何處不稱尊。師拂袖而歸。

峯問。如何。師云。好一隻聖箭。折却了也。遂舉前話。峰云。奴奴。渠語在。師云。這老漢。畢竟有鄉情在。

大滄喆云。此話叢林商量不少。或云。纔問甚麼處去。這裏便好打。是聖箭折處。或云。忽遇三軍圍繞時如何。亦好打。是聖箭折處。

如斯理論。非唯瞞他。亦乃自瞞。會麼。相如奪得連城壁。秦主安然致太平。

保福簽瓜次。見師。乃問。道得即與汝瓜喫。師云。把將來。福度一片與師。師接得便去。

雪竇云。雖是死虵。解弄也活。且道。誰是好手者。試請辨看。

師到投子。子問。久響太原孚上座。莫便是麼。師作掌勢。子云。也是老僧招得。師便出。子云。且聽諸方斷看。師回首。子便打。

玄沙云。莫是投子。招得麼。  
僧問。如何是觸目菩提。師踢狗子。作聲走。僧罔措。師云。小狗子。不消一踢。  
師在雪峰。有大聲譽。後歸楊州。陳尚書。留在宅供養。一日謂尚書云。來日講一徧大涅槃經。報答尚書。書次日致齋。煎茶畢。師遂陞座。良久。揮尺一下云。如是我聞。乃召尚書。書應諾。師云。一時佛在。乃脫去。  
聯燈會要卷第二十四

青原下第七世

筠州九峰道虔禪師法嗣

洪州同安常察禪師(凡十二)

示眾云。洪音不剖。其理不彰。設使不言。且道是分不分。  
時有僧出云。不分。師云。若不是闍梨。老僧不曉。云同安風采。  
瓦解冰消。師云。養由弓矢。不射田蝸。僧作禮。師云。將謂是便宜。

示眾云。寅晡飲啄。無處藏身。爾道。有此道理麼。  
時有僧出云。和尚作麼生。師打一拂子。僧云。撲手征人。徒誇好手。  
師云。握鞭側帽。豈是闍梨。云今古之道。何處藏身。師云。  
闍梨作麼生。僧珍重便出。師云。未在。

示眾云。青霄鳥道。登者即迷。碧海無波。動犯風影。今時學者。  
也似敲空覓響。擊石求聲。火中求水。水裏覓火。山僧有一曲。即  
不然。何也。五天唱不起。漢地和不成。欲曉其中事。鐵牛水上  
行。幻人看音樂。石女夜鳴機。若能如是作。許君解無為。有言玄  
妙用。無語句中明。滿目不干生死事。迥然那肯挂風雲。直須頭頭  
超祖意。句句越無生。方可言了。物物不沉空。明明三界內。獨脫  
萬機前。所以道。俊鳥不栖林。活龍不滯水。孤鸞那有伴。師子不  
同群。鳳飛無影樹。象徑絕狐蹤。言須有骨格。句句透玄關。萬象  
不能藏。森羅何障礙。譬如手向長空。任爾開合。

師一日云。喜鵲鳴寒檜。心印是渠傳。  
時有僧云。何別。師云。眾中有人在。云同安門下。道絕人荒。師  
云。胡人飲乳。返怪良醫。僧云。休休。師云。老鶴入枯池。不見  
魚蹤跡。

師翫月次。乃云。奇哉。星明月朗。足可觀瞻。不異道乎。  
僧問。如何是道。師云。汝試道看。云彼自無瘡。勿傷之也。師  
云。負笈公文。莫閑弓矢。

有僧來。繞繩床一匝。振錫一下云。凡聖不到處。請師道。師鳴指  
一下。僧云。奇哉同安。嚇得。忘前失後。師云。闍梨發足甚處。  
僧便珍重。師云。五湖衲子。一錫禪人。未到同安。不妨疑著。僧  
云。近見不如遠聞。師云。貪他一杯酒。失却滿缸魚。

師問僧。善惡不思。心體自現。古人還有理也無。云莫便是古人深意麼。師云。胡人飲乳。返怪良醫。僧作禮而出。師云。若到諸方。莫道參見同安來。

師問僧。甚處來。云五臺。師云。還見文殊麼。僧展兩手。師云。展手頗多。文殊誰覩。云氣急殺人。師云。不覩雲中鴈。焉知沙塞寒。云遠趨方丈。乞師一言。師云。孫賓門下。徒話鑽龜。云名不浪施。師云。喫茶去。僧珍重。師云。雖得一場榮。別却一雙足。

師問僧。甚處來。云江西。師云。江西法道。與此間如何。云和尚賴遇問著某甲。問著別人。即禍生。師云。老僧適來造次。云某甲不是嬰兒。徒用止啼黃葉。師云。怒鼈傷龜。殺活由我。

僧又問。久造玄微。如何洞曉。師云。老僧耳背。分明問將來。云快鷄不打籬邊之雀。師云。暗中臨鏡。誰辨妍始。云向上機關。如何洞曉。師云。何必。云休休。師云。始解乘舟。便欲劒水。

師問僧。近籬甚處。云太原。師云。太原近日。法道如何。云只見雲隨日出。水逐波生。不知太原法道如何。師云。爾豈不是離太原。云苦苦。師云。不覩海雲色。微覺旱雷聲。云以金易鑰。僧真愛假。師便歸方丈。僧拂袖便出。師云。橫抱嬰兒。擬彰皇簡。

僧問。萬法歸真。真歸何所。師云。龍門無宿客。龜鶴自成仙。云作麼生是龍門無宿客底道理。師云。爛斧只因碁少局。亡羊那得失長途。云久響和尚。師云。負笈公文。不勝交戰。

僧問。學人未曉時機。乞師指示。師云。參差松竹煙凝薄。重疊峰巒月上遲。僧擬進語。師云。劒甲未施。賊身已露。云何也。師云。精陽不剪霜前竹。水墨徒誇海上龍。僧繞繩床一匝。大笑而出。師云。閉目食蝸牛。一場酸澁苦。

有座主問。三乘十二分教。某甲粗知。未審和尚。說何法示人。師云。我說一乘法。云如何是一乘法。師云。幾般雲色出峯頂。一樣泉聲落檻前。云某甲不問此事。如何是一乘法。師云。闍梨英賢。老僧蒙昧。對眾試道看。云某甲何咎。師云。只見錐頭利。不見鑿頭方。

### 吉州禾山澄源無殷禪師(凡二)

垂語云。習學謂之聞。絕學謂之隣。過此二者。謂之真過。僧問。如何是真過。師云。解打鼓。

云如何是真諦。師云。解打鼓。

又問。即心即佛。即不問。如何是非心非佛。師云。解打鼓。

云如何是向上事。師云。解打鼓。

云萬法齊興時如何。師云。解打鼓。

僧問。如何是古佛心。師云。世界崩壞。僧云。為甚麼世界崩壞。師云。寧無我身。

### 新羅清院和尚(凡一)

僧問。奔馬爭毬。誰是得者。師云。誰是不得者。云恁麼則不爭去也。師云。直得不爭。猶有過在。云如何免得此過。師云。要且不曾失。云不失處。如何煅煉。師云。兩手捧不起。

### 潭州雲盖志安禪師法嗣

#### 新羅臥龍和尚(凡一)

僧問。如何是大人相。師云。紫羅帳裏不垂手。云為甚麼不垂手。師云。不尊貴。  
問。十二時中。如何用心。師云。胡獼喫毛蟲。

### 潭州大光居誨禪師法嗣

#### 潭州伏龍禪師(凡一)

僧問。賓主未分時如何。師云。雙陸盤中不喝彩。云分後如何。師云。骰子不曾拈。  
云攪長河為酥酪。變大地作黃金。時如何。師云。臂長衫袖短。云隨緣認得時如何。師云。雪裏牡丹花。  
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竺國不傳無字印。支那謾說過流沙。

### 台州湧泉景欣禪師法嗣

#### 台州六通紹禪師(凡二)

湧泉問。甚處來。師云。燒畚來。泉云。火後事作麼生。師云。鐵蛇鑽不入。  
僧問。南山有一條毒蛇。如何近得。師云。非但闍梨。千聖亦近不得。  
問父母未生時。未審那人何處立。師云。卦兆未形。孫賓失筭。

問如何是大千頂。師云。不與眾峯齊。

### 潭州雲盖志元禪師法嗣

#### 潭州雲盖志罕禪師(凡一)

僧問。如何是須彌頂上浪滔天。師云。文殊正作鬧在。問如何是正位中事。師云。不向機前展大悲。  
問如何是那邊人。師云。峯前不露影。句後覓無蹤。

### 撫州曹山本寂禪師法嗣

#### 撫州金峯從志禪師(凡十六)

示眾云。事存函盖合。理應箭鋒拄。莫有人道得麼。若有人道得。金峯分半院。與他住。  
時有僧出作禮。師云。相見易得好。共住難為人。便下座。  
示眾云。我若舉來。又恐遭人唇吻。若不舉來。又恐遭人怪笑。於其中間。如何則是。  
時有僧纔出。師便歸方丈。  
至晚。有僧請益云。和尚今日垂語。有僧出。為甚麼不答他。師云。大似失錢遭罪。  
師拈枕头。謂僧云。一切人。喚作枕头。金峯道不是。云未審和尚。喚作甚麼。師拈起枕头。僧云。恁麼則依而行之。師云。爾喚作甚麼。云枕头。師云。落在金峯窠裏。  
師因僧侍立。師云。我有一則因緣。舉似爾。第一不得亂會。云請和尚舉。師豎起拂子。僧良久。師云。知道闍梨亂會。僧東西顧視。師云。雪上更加霜。  
有僧問訊。師把住云。我有一則因緣。舉似爾。僧作聽勢。師與一掌。僧云。為甚麼打某甲。師云。爾但喫掌。我要這話行。  
開善謙云。可惜許。金峯好一則因緣。被這僧榻却。若要話行。這一掌。須是金峯自喫。始得。  
師喫胡餅次。拈起一片。從上座板頭。轉一匝。大眾見。一一合掌。師云。假饒十分擡起手。也只得一半。  
晚間。有僧請益云。今日和尚。行胡餅。見眾僧合掌。却云。假饒十分擡起手。也只得一半。請和尚全道。師以手作拈餅勢云。會麼。云不會。師云。金峯也只得一半。

師見僧來。師云。不用通時暄。第一句。道將來。云孟春猶寒。伏惟和尚。尊候萬福。師云。猶有這箇在。云不可要人檢點。師云。誰。僧指自身。師云。不妨遭人檢點。

師問僧。發足何處。云趙州。師云。趙州法嗣何人。云南泉。師云。爾何曾離趙州。云未審和尚尊意如何。師云。趙州實嗣南泉。僧至晚請益云。今日蒙和尚慈悲。某甲未會。乞和尚指示。師云。若到諸方。莫道後語。是金峯底。云為甚如此。師云。恐辱他趙州。

師見僧來。便起身。僧便出去。師云。恰共昨日師僧。見解一般。僧回首云。昨日師僧。道甚麼。師云。恰與麼。僧云。知道金峯有眼。師云。金峯且致。爾今日何處喫飯。云道著即不中。師云。與麼則無來處也。云老婆心。堪作甚麼。師云。金峯問僧。不曾弱他。就中闍梨。無話處。云豈是分外。師云。小慈妨大慈。

師見僧來。豎起拂子云。此是大人分上事。爾試通箇消息來看。云某甲不欲謾和尚。師云。孝養人。也還希有。云莫是大人分上事麼。師云。老僧不欲謾闍梨。云到這裏。也不易辨白。師云。酌然酌然。僧作禮。師云。發足何處。云只這裏。師云。不唯自謾。兼謾老僧。

師問僧。還知金峯一句子麼。云知來久矣。師云。爾作麼生。僧便喝云。金峯一句子。今日百雜碎。師云。稍曾問人。就中闍梨。門風孤峻。云不可要人檢點。師云。真鑰不博金。

師問僧。甚處來。云東國來。師云。作麼生過得金峯關。云某甲行止分明。師云。試呈似老僧看。僧展兩手。師云。金峰關。從來無人過得。云和尚過得麼。師云。波斯喫胡椒。

師見駢道者來。遂擎起經。作攬衣勢。以目視之。駢提起坐具。以目視師。師云。一切人道。爾會禪。駢云。和尚作麼生。師云。草賊大敗。

僧問。不落凡聖機。請師別道。師云。金峯眼不小。云恁麼則一撥良琴。頓清君主去也。師云。別道又爭得。云為物之言。作麼生。師云。頓清君主。云不是金峰也大難。師云。量籌漢席周下還輪。云若不承言。恐遭惑亂。師云。承甚麼言。云何勞再舉。師云。啞子趁缸。頑<sub>𠵼</sub>不少。僧休去。

僧問。是身無知。如土木瓦石。此意如何。師下繩床。扭僧耳朶。僧負痛作聲。師云。今日捉著箇無知漢。僧作禮而去。師召云。闍梨。僧回首。師云。若到堂中。不得舉著。云何故。師云。大有人笑金峯老婆心。

僧問。金杯滿酌時如何。師云。金峯不勝酌酌。

### 處州廣利容禪師(凡一)

師見僧來。豎起拂子云。貞溪老漢。還具眼麼。云某甲不取見人過。師云。老僧死在闍梨手裏。僧以手指霄。便出去。師云。闍梨參見先師來。

至晚。請喫茶了。僧拈起盞子云。這箇是諸佛出世邊事。作麼生是未出世邊事。師以手撥却盞子云。到闍梨死在老僧手裏。云五里牌在郭門外。師云。無故惑亂師僧。僧遂起謝茶。師云。特謝闍梨相訪。

### 襄州鹿門處真禪師(凡二)

師問韶國師。近離甚處。云谷隱。夜宿龐居士巖。師云。五眼之中。那箇是正眼。韶云。久響鹿門。師云。這一片田地。干甚爾事。韶云。話頭何在。

僧問。如何是和尚家風。師云。有鹽無醋。

問如何是道人。師云。口似鼻孔。云客來將何祇對。師云。柴門草戶。謝汝經過。

云如何是禪。師云。鸞鳳入雞籠。云如何是道。師云。藕絲牽大象。

云劫壞時。此箇還壞也無。師云。臨崖看滄眼。特地一場愁。

云如何是和尚轉身處。師云。昨夜三更。失却枕头。

### 衡州阿育王弘通禪師(凡二)

示眾云。釋迦老子。四十九年。說不盡底句。今日不避羞耻。為諸人說却。良久云。珍重。

僧問。心法雙忘時如何。師云。三脚蝦蟆背大象。

云如何是祖師西來意。云壁邊有鼠耳。

### 撫州曹山惠霞禪師(凡二)

僧問。佛未出世時如何。師云。曹山不如。云出世後如何。師云。不如曹山。

云四山相逼時如何。師云。曹山在裏許。云還求出也無。師云。若在裏許即求出。

師問僧。可殺熱。僧云。未審向甚麼處回避。師云。鑊湯爐炭裏回避。云只如鑊湯爐炭裏。作麼生回避。師云。眾苦不能到。

## 洪州雲居道膺禪師法嗣

### 杭州佛日和尚(凡四)

初游天台。嘗謂人曰。有人奪得我機者。即我師也。  
次謁雲居。便問。二龍爭珠。誰是得者。居云。卸却業身來。相見。師云。業身已卸。膺云。珠在甚麼處。師無對。即投誠入室。  
師到夾山。見維那。那云。此間不著後生。師云。暫來禮拜和尚。維那白山。山許相見。師未陞階。山便問。甚處來。師云。雲居。云即今在甚麼處。師云。在夾山頂[寧\*頁]上山云。老僧行年在坎。五鬼臨身。師欲上階。山云。三道寶階。從何而上。師云。三道寶階。曲為今時。便上作禮。山問。闍梨與誰同行。師云。木上座。山云。何不來見老僧。師云。和尚見他有分。山云。在甚麼處。師云。堂中。山同師。下到堂中。山問。在甚麼處。師取拄杖。擲于山前。山云。莫從天台得麼。師云。非五岳之所生。山云。莫從須彌得麼。師云。月宮亦不逢。山云。莫從人得麼。師云。自己尚如冤家。從人得。堪作甚麼。山云。冷灰裏。一粒豆爆。乃喚維那。明窗下安排著。  
次日夾山入堂。問昨日新到。在甚麼處。師出應諾。山云。子未到雲居時。在甚麼處。師云。天台國清。山云。我聞天台有潺潺之水。淥淥之波。謝子遠來。子意如何。師云。久居巖谷。不挂松蘿。山云。此猶是春意。秋意作麼生。師良久。山云。看君只是撐舡客。終歸不是弄潮人。  
一日大眾普請次。維那令師送茶。師云。某甲為佛法來。不為送茶來。那云。和尚教上座送。師云。和尚尊命即得。乃携茶。去作務處。撼盞作聲。夾山回顧。師云。釃茶三五盃。意在鑊頭邊。山云。瓶有傾茶勢。籃中幾箇甌。師云。瓶有傾茶勢。籃中無一甌。便傾茶行。時大眾一時舉目。師云。大眾鶴望。請師一言。山云。路逢死蛇莫打殺。無底籃子盛將歸。師云。手執夜明符。幾箇知天曉。山云。大眾。有人也。歸去來。歸去來。

### 蘇州永光真禪師(凡二)

示眾云。言鋒若差。鄉關萬里。直須懸崖撒手。自肯承當。絕後再甦。欺君不得。非常之旨。人焉廋哉。  
僧問。道無橫徑。立處皆危。如何得不被橫徑所侵。師拈拄杖。劈口拄。

### 洪州同安丕禪師(凡四)

師看經次。有僧來參。師以衫袖盖却頭。僧作弔慰勢。師放下衫袖。提起經云。會麼。僧却將衫袖盖却頭。師云。蒼天蒼天。師問僧甚處來。云湖南來。師云。還知同安這裏。風雲體道。花檻璇璣麼。云知。師云。非公境界。僧便喝。師云。短販樵人。徒誇書劍。僧擬進語。師云。劍甲未施。賊身已敗。僧問。如何是和尚家風。師云。金雞抱子歸霄漢。玉兔懷胎入紫微。僧云。忽遇客來。將何祇待。師云。金果早朝猿摘去。玉花晚後鳳銜來。僧問。如何是同安一箭。師云。腦後看取。云將來不相似。不將來時如何。師云。向甚麼處著。

### 洪州雲居懷岳禪師(凡一)

僧問。明鏡當臺時如何。師云。不鑑照。云為甚麼不鑑照。師云。胡來胡現。漢來漢現。云大好不鑑照。師便打。

### 歙州朱溪謙禪師(凡一)

韶國師到。聞犬咬靈鼠聲。遂問。是甚麼聲。師云。犬咬靈鼠聲。韶云。既是靈鼠。為甚麼被犬咬。師云。咬殺也。韶云。好箇犬。師便打。韶云。莫打。某甲話在。師休去。

### 池州嵇山章禪師(凡一)

師在投子。作柴頭。投子一日。送茶與師。乃云。森羅萬象。總在裏許。師潑却茶云。森羅萬象。在甚麼處。子云。可惜一盃茶。

### 洪州雲居簡禪師(凡三)

范陽人也。久依雲居膺禪師。居第一座。膺將順寂。主事問。誰堪繼嗣。膺云。堂中簡。主事未喻旨。謂之揀選。與眾僉議。舉第二座。為化主。備禮先請第一座。必若謙讓。即堅請第二座。師既密承膺記。略不辭遜。自持道具。入方丈。主事不愜素志。罔循規式。師察其情。棄院下山。其夜山神號泣。詰旦主事大眾。奔至麥莊。悔過哀請。歸院。眾聞山神連聲云。和尚來也。和尚來也。

問維摩豈不是金粟如來。師云。是。云為甚麼。却預釋迦會下聽法。師云。他無人我。

問如何是和尚家風。師云。隨處得自在。

問如何是朱頂王菩薩。師云。爾問這赤頭漢。作甚麼。

問路逢猛虎時如何。師云。千人萬人不逢。偏爾便逢。

問孤峯獨宿時如何。師云。閑却七間僧堂。誰教爾孤峯獨宿。

### 廬山歸宗懷惲禪師(凡二)

僧問。截水停輪時如何。師云。磨不轉。

妙喜云。恩大難酬。

僧問。無佛無眾生時如何。師云。甚麼人如此問。水清魚現時如何。師云。把將一箇來問。學人未到處。請師說。師云。汝未到甚麼處。

### 筠州九峯普滿禪師法嗣

### 洪州同安威禪師(凡四)

師問僧。眼界無光。如何得見。僧云。北斗東轉。南斗西移。師云。夫子入太廟。云恁麼則同安門下。道絕人荒去也。師云。橫抱嬰兒。擬彰皇簡。

僧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云。路邊神樹子。見者盡擎拳。僧云。見後如何。師云。室內無靈床。渾家不著孝。

師游山次。大眾相隨。師云。階前翠竹。砌下黃花。古人謂真如般若。同安即不然。僧云。古人也好。和尚。師云。不貪香餌味。可謂碧潭龍。云諸方眼目。不怪陶潛。師云。闍梨。閉目中秋坐。劫笑月無光。云階前翠竹。砌下黃花。又作麼生。師云。安南未伏。塞北難降。僧作禮。師云。名稱普聞。

僧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云。玉兔不曾知曉意。金烏那肯夜頭明。

### 潭州龍牙居遁禪師法嗣

### 潭州報慈嶼禪師(凡三)

僧問。承古有言。情生智隔。想變體殊。只如情未生時如何。師云。隔。云情既未生。隔箇甚麼。師云。這梢郎子。未遇人在。

瑯琊覺云。報慈不妨入泥入水。據衲僧門下。遠之遠矣。  
天衣懷頌云。報慈一隔。衲僧命脉。欲識一貫。兩箇五百。  
師贊龍牙真云。日出連山。月圓當戶。不是無身。不欲全露。  
龍牙一日。在紙帳內坐。僧問。不是無身。不欲全露。請師全露。  
龍牙撥開帳子云。還見麼。云不見。龍牙云。不將眼來。  
師聞乃云。龍牙只道得一半。  
雲門謂僧曰。舉來我與爾道。僧舉了。門云。我不妨與爾道。  
僧問。心眼相見時如何。師云。向爾道甚麼。云如何是實見處。師  
云。絲髮不隔。云與麼則見也。師云。南泉甚好去處。  
問如何是西來意。師云。昨夜三更送過江。  
問臨機使用時如何。師云。海東有果樹頭心。  
問和尚年多少。師云。秋來黃葉落。春至便開花。

#### 襄州含珠山審哲禪師(凡四)

問僧。有亦不是。無亦不是。不有不無。亦不是。汝本來名甚麼。  
云已具名了。師云。具名即不無。畢竟名甚麼。僧云。只這是。師  
云。且喜沒交涉。  
僧問。學人道不得處。請師道。師云。別日來。與汝道。僧云。即  
今為與麼不道。師云。覓箇領話人。不可得。  
師問僧。張黃李趙。不是汝本來姓。汝本來姓。箇甚麼。云與和尚  
同姓。師云。同姓即且從。汝本來姓。箇甚麼。云待漢水逆流時。  
即向和尚道。師云。只今為甚麼不道。云漢水逆流也未。師休去。  
師因檀越。請堂中首座。開堂。主事報師。師云。是即是。欠悟  
在。  
首座聞得。束裝而去。師拈拄杖。隨後打出。

#### 襄州洞山師虔禪師法嗣(亦云青林)

#### 襄州鳳凰山石門獻蘊禪師(凡六)

師問青林。從上諸聖。學人還有分也無。林據坐。師良久。林云。  
會麼。師云。不會。林云。無子用心處。師於言下大悟。  
住後。凡有扣問。多云好大哥。然後答話。時人呼為大哥和尚。  
師在青林作園頭。林問。今日作甚麼。師云。種菜。林云。徧界是  
佛身。子向甚麼處種。師云。金鋤纔動土。靈苗在處生。  
林次日入園。召蘊闍梨。師應諾。林云。剩栽無影樹。留與後人  
看。師云。若是無影樹。又豈受栽。林云。不受栽。子還見他枝葉

麼。師云。不曾見。林云。既不曾見。爭知不受哉。師云。只為不見。所以道不受哉。林云。如是如是。

示眾云。瑠璃殿上。光輝之日日無私。七寶山中。晃耀之頭頭有據。泥牛運步。木馬嘶鳴。野老謳謠。樵人舞袖。太陽路上。古曲玄音。林下相逢。復有何事。

馬王。自青林請師。過夾山。王出遠迎。遂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好大哥。御駕六龍千古秀。玉階排仗出金門。

僧問。月生雲際時如何。師云。三箇孩兒抱花鼓。好大哥。莫來攔我毬門路。

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好大哥。玉印不離天子手。金箱豈許外人知。

問如何是和尚家風。師云。騎駿馬驟高樓。鐵鞭指出胡人路。

問不落機關。請師別道。師云。湛月迅機無可比。君今曾問幾人來。云只今問和尚。師云。好大哥。雲綻不須藏九尾。恕君殘壽速歸丘。

### 襄州萬銅山廣德禪師(凡一)

僧問。盡大地是箇死屍。向甚麼處葬。師云。北邙山下。千丘萬丘。

### 撫州疎山羗仁禪師法嗣

### 筠州黃蘗慧禪師(凡一)

師謁疎山。正值坐法堂。參次。師先顧視大眾。然後設問云。剎那便去時如何。山云。逼塞虛空。爾作麼生去。師云。逼塞虛空。不如不去。山休去。

師下至僧堂前。首座謂師云。適觀上座。祇對和尚。語甚奇特。師云。此乃率爾。實自偶然。敢望慈悲。開示愚迷。座云。一剎那間。還有擬議也無。師言下有省。

### 隋州護國淨果守澄禪師(凡二)

同演化大師。在湖南報慈。值慈陞堂次。演化出問。如何是真如佛性。慈云誰無。化不契。

請益師。師云。汝但問來。化理前問。師云。誰有。化於言下契悟。乃云。首座或在眾。或住持。某甲誓終身相助。後化亦繼師。

住護國。

僧問。諸佛不到處。是甚麼人行履。師云。耽耳鬢頭。驢面獸顛。

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一人傳虛。萬人傳實。

問百了千當時如何。師云。階下漢。

問鶴立枯松時如何。師云。地下底。一場摩囉。

問會昌沙汰時。護法善神。向甚麼處去。師云。三門外兩箇。一場摩囉。

問滴水滴凍時如何。師云。日出後。一場摩囉。

### 洛京長水歸仁禪師(凡一)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仰面獨揚眉。回頭自拍手。

云如何是和尚家風。師云。騎牛戴席帽。渡水著靴衫。

問如何是靈泉活計。師云。東壁打西壁。

### 撫州大安山省禪師(凡三)

僧問。失路迷人。請師直指。師云。三門前去。

問離四句。絕百非。請師道。師云。我王庫內。無如是刀。

問重重關鎖。信息不通。時如何。師云。爭得到這裏。云到後如何。師云。彼中事作麼生。

問如何是真中真。師云。十字街頭泥佛子。

### 筠州高安白水本仁禪師法嗣

### 杭州瑞龍幻璋禪師(凡一)

示眾云。老僧頃年。游歷江外。嶺南荆湖。但有知識叢林。無不參問。蓋為今日。與諸人聚會。要知箇去處。然諸方終無異說。只教當人。歇却狂心。休從他覓。但隨方任真。亦無真可任。隨時受用。亦無時可用。設使垂慈苦口。且不可呼晝作夜。更饒善巧多方。終不能指東為西。脫或能爾。自是神通作怪。非干我事。若是學語之流。不自省已知非。真欲向空裏採花。波中捉月。還著得心力麼。汝今各宜退思。忽然省去。始知瑞龍老漢。事不獲已。迂迴太甚。還肯麼。

### 澧州洛浦元安禪師法嗣

## 鳳翔府青峰傳楚禪師(凡二)

師齋次。問北院云。先師道。信手拈來草。師兄作麼生。院拈起一隻筍。師云。汝恁麼。又何曾夢見先師。院云。汝恁麼會。又何曾夢見先師。

白水問師。我聞洛浦有生機一路。是否。師云是。水云。止却生機。熟路上。道將一句來。師云。生機上。死人無數。熟路上。不著活漢。水云。此是洛浦底。上座分上。又作麼生。師云。非但洛浦。夾山亦不柰何。水云。夾山為甚麼不柰何。師云。不見道。生機一路。

## 蘄州烏牙彥賓禪師(凡一)

僧問。未作人身已前。作箇甚麼來。師云。三脚石牛波上走。一枝瑞氣月前分。

問匹馬單鎗。直入時如何。師云。饒汝雄信解拈鎗。猶較秦王一百步。

問久戰沙場。為甚麼。功名不就。師云。雙鷗隨手落。李廣不當名。

問百步穿楊。中的者誰。師云。將軍不上便橋。金牙徒勞拈筈。

## 袁州蟠龍可文禪師法嗣

### 袁州木平善導禪師(凡五)

問洛浦。如何是一漚未發已前事。浦云。移舟諳水勢。舉棹別波瀾。師不肯。

復問蟠龍。龍云。移舟不別水。舉棹即迷源。師從此悟入。

雲峰悅云。木平若於洛浦言下。悟去。猶較些子。可惜許。向蟠龍死水裏淹殺。

後有問。如何是木平。對云。不勞斤斧。師云。果然。只在這裏。諸禪德。大凡發足超方。也須甄別邪正。識辨真偽。帶些眼筋。始得。然雖如此。也是賊過後張弓。

僧問。如何是木平一句。師云。逼塞虛空。僧云。逼塞虛空。意旨如何。師便打。

李王問。如何是木平。師云。不勞斤斧。王云。為甚麼不勞斤斧。師云。向道木平。

僧問。亡僧遷化。向甚麼處去。師云。石牛泐古路。日裏夜明燈。

師凡有僧來參。先令擔泥三檐。有偈云。南山路側東山低。新到莫辭三檐泥。嗟汝在途經日久。明明不曉却成迷。

### 撫州黃山月輪禪師法嗣

#### 鄧州桐泉和尚(凡一)

黃山問師。天門一合。十方無路。若有道得。擺手出漳江。師云。蟄戶未開。龍無龍句。山云。是汝恁麼道那。師云。是即直言是。不是即直言不是。山云。擺手出漳江。

### 青原下第八世

### 福州羅山道閑禪師法嗣

#### 婺州明招德謙禪師(凡二十三)

師自受羅山印記之後。出於流輩。機鋒穎捷。無敢當者。示眾云。全鋒敵勝。罕遇知音。同死同生。萬中無一。尋言逐句。其數河沙。舉古舉今。滅胡種族。向上一路。啐啄猶乖。儒士相逢。握鞭回首。沙門所見。誠實苦哉。拋却真金。隨群撮土。報諸稚子。莫謾波波。解得他玄。猶兼瓦礫。不如一擲。騰過太虛。只這靈鋒。阿誰敢近。任君來箭。方稱丈夫。擬欲吞聲。不消一鑊。示眾云。太虛挂劍。用顯吾宗。選佛場中。還有虎狼禪客麼。出生入死。一任施展看。若也覷地覓針。切忌亂呈矇袋。槌折爾腰。莫言不道。

示眾云。干劍輪頂。飛大寶光。虎眼鋒前。豁開宗要。有何俊鷄。不避死生。眨上眉毛。與吾相見。

有僧纔出。師便云。可惜許。

示眾云。半夜明星當午現。愚夫猶待曉雞鳴。便下座。

上堂。良久云。這裏風頭稍硬。不是爾諸人。安身立命處。且歸暖處商量。便歸方丈。

大眾隨後。上方丈。方立定。師云。纔到暖處。便乃瞌睡。拈拄杖一時趨下。

師到福田。眾請上堂。纔就座。有僧出云。某甲咨和尚。師便喝出。

却云。莫有英靈底麼。一任擎展。選佛選祖。今正是時。所以道。驚群須是英靈漢。敵勝還他師子兒。選佛若無如是眼。假饒千載又

何為。

師一日。謁勝光。纔跨門。光方垂足。師云。伎倆已盡。拂袖而出。

師到鼓山。廨院喫餓。山見便問。這浙子。總不來鼓山。師云。某甲自從入嶺。便患風。不得禮覲大師。山行數步。回顧師云。還有風也無。師略展兩足。山云。元來是會禪。師云。和尚幸是大人。不得造次。山云。爾不肯鼓山。待上來。與爾三十棒。師云。喫棒自有人。

清八路。拈仰山插鋤話。問師。古人意在插鋤處。在叉手處。師召清上座。清應諾。師云。還夢見仰山麼。清云。不要上座下語。只要商量。師云。若要商量。堂頭自有五百人老師在。

師在招慶。普請般泥。慶將拄杖。當路坐。問一僧云。上窟泥。下窟泥。云上窟泥。慶打一棒。

又問一僧。僧云。下窟泥。慶亦打一棒。

却問師。師放下泥。叉手云。請和尚鑑。慶休去。

妙喜云。劈脊與一棒。看他如何折合。

師在招慶。殿上指壁畫。問僧。是甚麼神。云護法善神。師云。會昌沙汰時。甚麼處去。僧無語。

師令僧。問演侍者。演云。爾甚麼劫中。遭此難來。

僧舉似師。師云。直饒演上座。他後有一千眾。有甚麼用處。

僧請師別語。師云。甚麼處去也。

師在法雲。插火。從食堂前過。遇數兄弟。一人云。此是眾僧火。盜向甚麼處去。師轉火插云。上座分上。有多少在裏許。僧無語。師云。這一隊漢。今夜總須凍殺。

師在智者。為首座。尋常不受淨水。院主瞋云。上座不識觸淨。為甚麼不受淨水。師跳下床。拈起淨瓶云。這箇是觸是淨。主無語。師撲破淨瓶。

師在王太傅宅。迎木佛。傅問。忽遇丹霞時作麼生。師驀頭撮起云。也要分付著人。

雙巖欲卸院。與師。請師喫茶云。有一問。問上座。若道得。即卸院與上座。遂舉金剛經云。一切諸佛。及諸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皆從此經出。且道此經。是何人說。師云。說與不說。拈放一邊。和尚決定。喚甚麼。作此經。巖無語。

師却舉經云。一切賢聖。皆以無為法。而有差別。一切賢聖。皆以無為。為極則。憑何有差別。只如差別。是過底語。不是過底語。若是過。一切賢聖皆是過。若不是過。決定喚甚麼。作差別。巖又無語。師云。噫。雪峰道底。

師到坦長老處。坦云。夫參學人。一人所在。也須到。半人所在。也須到。

師問一人所在。即不問。如何是半人所在。坦無對。

後却令小師問師。汝欲識半人麼。只是箇弄泥團漢。

師會下。有一僧。去住庵。一年後。却來禮拜。師云。古人道。三日不相見。莫作舊時看。乃撥開胸云。爾道。我這裏。有幾莖蓋膽毛。僧無語。師云。爾甚時離庵。云今早。師云。來時折脚鐺子。分付阿誰。又無語。師遂喝出。

師訪保寧。中路相逢。師云。兄是道伴中人。遂以手點鼻云。這箇礙塞。我不可徹。與我拈却少時。得麼。寧云。和尚有來。多少時也。師云。噫。泊賺我。踏破一雙草鞋。便回。

國泰代云。非但某甲。諸佛亦不奈何。師云。因甚麼以己妨人。師問國泰。古人道。俱胝只念三行呪。便得名超一切人。作麼生。與他拈却三行呪。便得名超一切人。泰豎起一指。師云。不因今日。爭識得瓜州客。

草堂清云。明招只識得瓜州客。且不識國泰。直饒識得國泰。也未夢見俱胝老在。

師臥疾國泰深和尚來相訪。纔入方丈。師便云。阿耶耶。阿耶耶。深師叔。救取老僧。深云。和尚有甚救處。師舉頭一覷云。咦。眼子烏啼啼地。依前只是舊時深上座。乃轉身面壁。更不相見。

師疾愈。訪國泰。泰領眾。門接。師指金剛云。這兩箇漢。在這裏。作甚麼。泰作金剛勢。師云。殿裏黃面老子。笑爾在。

僧問。師子未出窟時如何。師云。俊鷄趁不及。云出窟後如何。師云。萬里正紛紛。云欲出未出時如何。師云。嶮。云向去時如何。師云。貶。

### 吉州清平惟曠禪師(凡一)

示眾云。不動神情。便有輸贏之意。還有麼。出來看。

時有僧纔出。師云。不是作家。出去。

僧問。如何是第一句。師云。要頭便斫將去。

### 婺州金柱義昭禪師(凡二)

新到來。師以手揭簾。作除帽勢。僧擬進前。師云。賺殺人。

師示眾。有頌云。虎頭帶角人難措。石火電光須密布。假饒烈士薦應難。槽底那能解回互。

### 吉州匡山和尚(凡一)

示眾云。匡山路匡山路。岩崖嶮峻人難措。游人擬議隔千山。一句分明超佛祖。

### 西川慧禪師(凡三)

羅山問。甚處來。師云。遠離西蜀。近發開元。却近前云。即今事作麼生。山揖云。且坐喫茶。師擬議。山云。秋氣稍暖。出去。師下法堂。自嘆云。我在峨嵋山下。拾得一隻蓬蒿箭。擬撥亂天下。今日到福建道。陳老師寨裏。弓折箭盡去也。休休。羅山次日陞座。師出問。豁開戶牖。當軒者誰。山便喝。師無語。山云。羽毛未備。翼梢未全。且去。師謁勝光。光坐次。師直造身邊。叉手而立。光云。甚麼處來。師云。猶待答話在。便下去。光遂拈拄杖拂子。下僧堂前。見師。提起拂子。問師。爾喚這箇。作甚麼。師云。敢死喘氣。光便低頭。歸方丈。

### 懷州玄泉彥禪師法嗣

### 岳州黃龍誨璣禪師(凡二)

清河張氏子。僧問。如何是君王劍。師云。不傷萬類。云佩者如何。師云。血濺梵天。云大好不傷萬類。師便打。僧問。毛吞巨海。芥納須彌。不是學人本分事。如何是學人本分事。師云。封了合盤市裏揭。問如何是大疑底人。師云。對座盤中弓落盞。云如何是不疑底人。師云。再座盤中弓落盞。問風恬浪靜時如何。師云。百尺竿頭五兩垂。聯燈會要卷第二十五

青原下第八世

福州玄沙師備禪師法嗣

漳州羅漢桂琛禪師(凡十三)

常山李氏子。玄沙問。三界惟心。子作麼生。師指倚子云。和尚喚這箇。作甚麼。沙云。倚子。師云。和尚不會三界惟心。沙云。我喚這箇作竹木。爾喚作甚麼。師云。某甲亦喚作竹木。沙云。盡大。地。覓箇會佛法人。了不可得。

師因中塔。侍立玄沙次。沙打一棒云。就名就體。塔無對。

沙問師。師云。這漢。著一棒。不知來處。

師作玄沙忌。請報恩藥石。恩見靈位無真。遂問。還有真麼。師以手揖云看。恩云。元來無真。師云。大似不相識。

師與長慶保福。入州。見牡丹障子。福云。好一朵牡丹花。慶云。莫眼花。師云。可惜一朵花。

玄覺云。三尊宿語。還有親疎也無。只如羅漢與麼道。落在甚麼處。

保福有僧來。師問。彼中如何示徒。僧云。和尚一日示眾云。塞却爾眼。教爾覷不見。塞却爾耳。教爾聽不聞。坐却爾意根。教爾分別不得。師云。我問爾。我不塞爾眼。爾見箇甚麼。不塞爾耳。爾聞箇甚麼。不坐爾意根。爾作麼生分別。僧於言下有省。

師晚參次。忽聞鼓角聲。乃云。羅漢三日一參。王太尉二時相助。師問僧。甚處來。云秦州。師云。將得甚麼物來。云不將得物來。

師云。爾為甚麼。對眾謾語。僧無對。

師却問。秦州豈不是出鸚鵡。云鸚鵡出隴西。師云。也不較多。

師問招慶僧云。爾在招慶。有甚麼異聞底事。試舉看。云不敢錯舉。師云。真實底事作麼生。云和尚因甚麼如此。師云。爾話墮也。

師問僧。甚處來。云報恩來。師云。何不且在彼中。云僧家不定。

師云。既是僧家。為甚麼不定。僧無對。

玄覺代云。謝和尚顧問。

師問僧。甚處來。云南方。師云。南方知識。有何言句示徒。云彼中道。金屑雖貴。眼裏著不得。師云。我道。須彌在爾眼裏。

翠巖芝云。且道。地藏還免得這僧麼。  
師見僧來。豎起拂子。僧作禮。師云。見箇甚麼。便作禮。云謝和尚指示。師便打。  
却云。見我豎起拂子。便道謝和尚指示。每日見我掃床掃地。為甚麼。不道謝指示。  
師插田次。見僧乃問。甚處來。云南方。師云。南方近日。佛法如何。云商量浩浩地。師云。爭如我這裏。種田博飯喫。云爭柰三界何。師云。爾喚甚麼。作三界。僧有省。  
大滄喆云。清貧長樂。濁富多憂。  
僧問。以字不成。八字不是。是甚麼字。師云。汝不識此字那。云不識。師云。看取註脚。  
僧問。如何是和尚一句。師云。我若向爾說。却成兩句。

### 福州安國惠球禪師(凡六)

泉州莆田人也。師問玄沙。如何是第一月。沙云。用汝箇月作麼。師言下大悟。  
示眾云。我此間粥飯因緣。為兄弟提唱。終是不常。如今欲得省要。却是山河大地。舉明其事。却常亦能究竟。若從文殊門入者。一切草木瓦礫。助汝發機。若從觀音門入者。一切蝦蟆蚯蚓。助汝發機。若從普賢門入者。不動步而到。我以此三門。方便示汝。如將一隻折筯。攪彼大海。令彼魚龍。知水為命。會麼。若無智眼。審而諦之。任爾百般巧妙。不為究竟。  
琅琊覺云。雖是善因。而招惡果。  
示眾云。諸人若要商量。向觸體後。通取箇消息來。共相商量。這裏不曾遮障人光明。  
師問了院主。先師道。盡十方世界。是箇真實人體。爾還見僧堂麼。主云。和尚莫眼花。師云。先師遷化。肉猶暖在。  
僧問。諸佛還有師也無。師云有。云如何是諸佛師。師云。一切人識不得。  
僧問。如何是大庾嶺頭事。師云。料汝承當不下。云重多少。師云。這般底。論劫不柰何。

### 婺州金華國泰瑫禪師(凡一)

示眾云。不離當處。咸是妙明真心。所以玄沙和尚道。我會最後句。出世少人知。爭如國泰。有末頭一句。  
時有僧問。如何是末頭一句。師云。闍梨向太遲。便歸方丈。

### 福州螺峰冲奧禪師(凡一)

僧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云。德重鬼神欽。云見後如何。師云。通身聖莫測。

乃云。人人具足。人人成見。爭怪得老僧。珍重。

### 泉州睡龍禪師(凡一)

拈拄杖。謂眾云。三十年住山。得他氣力。僧云。和尚得他甚麼氣力。師云。過山過嶺。東拄西拄。便拄歸方丈。

### 天台雲峯光緒禪師(凡二)

示眾云。但以眾生日用而不知。譬如三千大千世界。日月星辰。江河淮海。一切含靈。從一毛孔。入一毛孔。毛孔不小。世界不大。其中眾生。不覺不知。若要易會。上座日用亦復不知。

僧問。日裏僧馱像。夜裏像馱僧。未審此意如何。師云。闍梨。豈不是茶堂裏來。

### 天台國清師靜上座(凡二)

師謁玄沙。遇上堂云。汝諸人。但能一生。如喪考妣。吾保汝。究得徹去。

師遂問。只如教中道。不得以所知心。測度如來無上知見。又作麼生。沙云。汝道。究得徹底。所知心。還測度得及麼。師於此信入。

有問。弟子每當靜坐。心念紛飛。未明攝伏之方。願垂指誨。師云。如或安坐。心念紛飛。却將紛飛之心。以究紛飛之處。究之無處。則紛飛之念何存。反究究心。則能究之心安在。能照之智本空。所緣之境亦寂。寂而非寂者。蓋無能寂之人也。照而非照者。蓋無所照之境也。境智俱寂。心慮安然。外不尋枝。內不住定。二塗俱泯。一性怡然。此乃還源之要道也。

### 韶州雲門文偃禪師法嗣

### 韶州白雲祥禪師(凡二)

示眾云。諸人會麼。但向街頭市尾。屠兒魁膾。地獄鑊湯處。會取。若恁麼會。堪與人天為師為匠。若向衲僧門下。天地懸殊。更有一般底。只向長連床上。作好人去。爾道。此兩般人。那箇有長處。無事。珍重。

師問僧。不壞假名。而談實相。作麼生。云這箇是倚子。師以手撥云。與我將鞋袋來。僧無語。師云。這處頭漢。

雲門聞乃云。須是我祥兄始得。

### 岳州巴陵顥鑒禪師(凡四)

雲門舉雪峯云。開却門。達磨來也。意作麼生。師云。築著和尚鼻孔。門云。阿修羅王惡發。將須彌山一擲。[跳-兆+孛]跳上梵天。帝釋為甚麼。却去日本國裏藏身。師云。莫恁麼心行好。門云。汝道。築著鼻孔。又作麼生。師休去。

師問僧。為佛法來。游山來。云清平世界。說甚麼佛法。師云。好箇無事底禪客。云早是多事也。師云。上座去年在此過夏了。云不曾。師云。恁麼則先來不相識。下去。

師將拂子與僧。僧云。本來清淨。用拂子作麼。師云。既知清淨。切莫忘却。

梁山觀別云。也須拂却。

僧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云。雞寒上樹。鴨寒下水。

問如何是提婆宗。師云。銀盃裏盛雪。

問如何是道。師云。明眼人落井。

問如何是吹毛劍。師云。珊瑚枝枝撐著月。

### 隋州智門師寬禪師(凡五)

師游山回。首座出松門接。座云。游山巖嶮不易。師拈起拄杖云。全得這箇力。座奪拄杖。拋向一邊。師放身便倒。大眾進前扶起。師拈拄杖。一時趨散。却回顧首座云。向道全得這箇力。

黃龍南云。明教雖然會倒會起。不覺弄巧成拙。

師訪白兆。兆云。老僧有箇木魚頌。師云。請舉看。兆云。伏惟爛木一橛。佛與眾生不別。若以杖子擊著。直得聖凡路絕。師云。此頌有成禩。無成禩。兆云。無成禩。師云。佛與眾生不別。響。左右救云。有成禩。師云。直得聖凡路絕響。當時白兆一眾失色。

五祖戒和尚來參。師問。諸方言教。即不問。不涉泥水一句。道將來。戒云。話墮也。師云。拖泥帶水漢。戒云。和尚幸是大人。師云。禿丁子。參堂去。

師一日。舉拂子云。我這箇。為中下之機。僧云。忽遇上上人來時如何。師云。打鼓為三軍。僧問。新年頭。還有佛法也無。師云。無。僧云。日日是好日。年年是好年。為甚麼却無。師云。張公喫酒李公醉。云老老大大。龍頭虵尾。師云。明教今日失利。

### 襄州洞山守初禪師(凡九)

師謁雲門。門問。近離甚處。師云查渡。門云。夏在甚處。師云。湖南報慈。門云。幾時離彼。師云。八月二十五。門云。放子三頓棒。

師次日上去問訊云。昨日蒙和尚放三頓棒。未審某甲。過在甚麼處。門云。飯袋子。江西湖南。便恁麼商量。師於言下大悟。遂云。某甲他時異日。向無人煙處。卓箇庵子。不畜一粒米。不種一莖菜。接待十方往來。盡與他。出却釘。拔却楔。拈却炙脂帽。脫却鶻臭衫。教伊洒洒落落地。作箇衲僧去。豈不快哉。雲門云。爾身如椰子大。開得許大口。

雪竇云。雲門氣宇如王。拶著便冰消瓦解。當時若據令而行。

兒孫也未到斷絕 白雲端云。大小雲門。被洞山一問。直得額頭汗出。口裏膠生。

示眾生。楚山北畔。漢水南江。擊法鼓而會禪徒。舉宗風而明祖意。若以揚眉瞬目。舉指豎拂。罄欬咳嗽。是厨中拭鉢帛。道甚麼。會也無。是衲僧破草鞋。這瞎漢這漆桶。是箇弄精魂鬼。總與麼。總不與麼。是東司頭廁籌子。以此稱提從上來事。盡是邪魔所作。謗大乘。滅胡種。與爾天地懸殊。且道。衲僧據箇甚麼道理。出來。對眾道看。折脚鐺子。各出一隻手。貴要宗乘不斷。亦表叢林有人。有麼。若無。洞山不惜眉毛。打葛藤去也。葛藤之事。只在目前。萬象森羅。乾坤大地。百千諸佛。日月星辰。地獄三塗。起心動念。每日經歷。皆是諸德自己。何不向這裏。體當尋覓看。驀然覩得。倜儻分明。不虛行脚。也自得箇安樂田地。洞山此語。且作死馬醫。若據明眼衲僧。將草鞋。驀口[祝/土]。還怪得他也無。怪即不怪。爾道。憑箇甚麼。捉得將來。脚跟下推尋。毫末參差。槌折爾腰。莫驕心好。

示眾云。明機自昧。息慮迷源。萬法同塵。語默難顯。不是情中法。莫生種種心。離此章句。別有商量。且道。離却作麼生商量。還有委悉者麼。明明地揀破。明明地顯示。明明地舉唱。明明地歌詠。更無囊藏被蓋。純說乾爆爆地禪。若是靈利漢。纔聞舉著。便合眼卓朔地。知箇落處。豈不是自家具眼。其柰罕遇其人。蓋緣洞

山這裏。言無味。食無味。法無味。無味之句。塞斷人口。兄弟。到這裏。難為湊泊。若向這裏。覷得分明。天下尊宿。到與不到。徹與不徹。總被爾驗破。何故。智有邪正。道有真偽。多只是心機意識。認得箇門頭屋後底。學得路布葛藤。一堆一擔。蘊在胷襟。道我會禪會道。還夢見禪道也未。喚作打底不遇作家。到老只成骨董。待到明朝後日。驀筍地。踏著正脉。省前所行履處。方始差見本命元辰。

示眾云。舉唱宗乘。闡揚大教。須得法眼精明。方能鑑辨緇素。切緣真妄一源。水乳同器。到此難分。洞山尋常。以心中眼。觀身外相。觀之又觀。乃辨真偽。若不如是。何名善知識。

夫善知識者。驅耕夫之牛。奪飢人之食。方名善知識。即今天下。那箇是真善知識。諸人參得幾箇善知識來。也不是等閑。直須是參教徹。覷教透。千聖莫能證明。方顯丈夫兒。不見釋迦老子。明星現時。豁然大悟。與大地眾生。同時成佛。無前後際。豈不暢哉。雖然如是。若遇明眼衲僧。也好劈脊棒。

示眾云。言無展事。語不投機。承言者喪。滯句者迷。還得麼。爾衲僧分上事。到這裏。須具擇法眼始得。只如洞山恁麼道。也有一場過。且道。過在甚麼處。

示眾云。語中有語。名為死句。語中無語。名為活句。諸禪德。作麼生是活句。到這裏。實難得人。若也不動一塵。不撥一境。見事便道答話。長老下口不得。東西南北。莫知多少。要得去離泥水。活人眼目。舉唱宗風。激揚大事。不道全無。其柰還少。即緣未達其源。落在第八魔界中。識得箇不名不物。無是無非。頭頭物物。無不具足。道我得安樂田地。更不求餘。凡有扣擊問難。便敲床豎拂。更不惜便施便設。便行使用。向惡水坑裏。頭出頭沒弄箇無尾獼猴。臘月三十日。鼓也打破了。獼猴又走却了。手忙脚亂。一無所成。悔將何及。爾若是箇衲僧。乍可凍殺餓殺。終不著他鶻臭布衫。

示眾云。洞山這裏。尋常方丈內。不似諸方。一箇上來。一箇下去。啾啾唧唧地。衷私說底。佛法禪道。盡是向爾兄弟面前。滿口道。滿口說。滿口拈提。滿口欒揀。無爾左遮右掩處。一時和底翻出。諸德作麼生委悉。試對眾道看。譬如太末蟲。處處泊得。不能泊於火燄之上。被他諸方老禿奴。甜唇美舌。說作配當道。這箇是禪。這箇是道。這箇是菩提涅槃。這箇是真如解脫。被丈二釘八尺櫛。櫛在眼裏。不知不覺。乍到洞山這裏。不知是何說話。會得麼。直饒會得。真如涅槃。菩提解脫。毫末無差。被他條繩子。於脚跟下繫却。不得出離。若是靈利衲僧。一咬咬斷。作箇脫洒衲

僧。豈不快哉。若三咬兩咬不斷。准前打入骨董社裏。有甚麼出頭時。洞山不獲已。傍地為儂著力。珍重。  
師問僧。甚處來。云汝州。師云。此去多少。云八百里。師云。踏破幾緇草鞋。云三緇。師云。甚處得錢買。云打笠子。師云。參堂去。僧應諾去。  
問赤水求珠。猶是人間之寶。和雲唱出。固非格外之談。未審今日。將何示人。師云。夜聞祭鬼鼓。朝聽上灘歌。  
問言超象表青霄外。出語幽玄事若何。師云。岸上行人聲有韻。缸中漁父和不齊。云幽玄事若何。師云。鈎長線短。  
問如何是佛。師云。麻三斤。  
問纔生便死時如何。師云。鍾馗解舞十八拍。  
問如何是古佛心。師云。巢知風穴知雨。  
問蓮華未出水時如何。師云。漢水正東流。云出後如何。師云。楚山頭倒卓。  
問如何是衲僧本分事。師云。雲裏楚山頭。決定多風雨。  
問衲僧得一時如何。師云。五九四十五。太陽來入戶。  
問佛法禪道。是同是別。師云。頭不梳面不洗。  
問德山入門便棒。臨濟入門便喝。未審和尚意旨如何。師云。尖剝量不盡。

### 韶州雙峰競欽禪師(凡二)

益州人也。示眾云。進一步則迷理。退一步即失事。饒汝一向兀然去。又同無情。  
時有僧問。如何得不同無情去。師云。動轉施為。云如何得不迷理失事去。師云。進一步。退一步。僧作禮。師云。向來有人恁麼會。老僧不肯伊。云請和尚直指。師便打出。  
僧問。如何是法王劍。師云。鉛刀徒逞。不若龍泉。云用者如何。師云。藏鋒猶不許。露刃更何堪。

### 蘄州北禪寂禪師(凡二)

師拈拄杖。示眾云。過去未來現在。三世諸佛。微塵菩薩。一時在拄杖頭上。轉大法輪。盡向諸人鼻孔裏過。還見麼。若見。與我拈將來。若不見。大似立地死漢。良久云。風恬浪靜。不如歸堂。  
師問僧。甚處來。云黃州。師云。在甚麼寺。云資福。師云。福將何資。僧云。兩重公案。師云。爭柰在北禪手裏。云在手裏。即收取。師便打。僧不甘。師隨後趂出。

雪竇云。奇怪宛有超師之作。還知這僧麼。只解瞻前。不能顧後。若在雪竇手裏。棒折也未放在。

### 朗州德山圓明密禪師(凡八)

示眾云。靈山會上。付囑相傳。十方諸佛。出現於世。喚作建立道場。轉大法輪。如斯之法。只在如今。若於祖宗門下。天地懸殊。上上之流。何不啟問。

時有僧出。師便云。去去西天路。迢迢十萬餘。

問靈山一會。意旨如何。師云。當時妄想。直至如今。

云如何是最初一句。師云。三生六十劫。

云大悟底人。還有過也無。師云。鐵山橫在路。

師乃云。坐斷日頭。天地黯黑。茫茫者。匝地普天。當此之時。佛祖出頭來。也好與三十棒。雖然如是。官不容針。私通車馬。

示眾云。十方諸佛出世。了無一法與人。只是治病解縛。但有來者。盡是依草附木。竹木精靈。所以從頭地棒待有箇獨脫底出來。別有商量。眾中還有麼。

時有僧出作禮。師便下座。

示眾云。一人在須彌頂上。一人在千尺井中。又無繩索。亦無梯橙。日月照不到。要與此人相見。且作麼生得相見。若相見了。朝打三千。暮打八百。良久云。直饒恁麼會得。埋沒宗乘。不恁麼會得。辜負平生。據汝諸人。論甚麼劫數。

示眾云。與麼來者。現成公案。不與麼來者。垛生招箭。總不與麼來者。徐六擔板。迅速鋒鏑。猶是鈍漢。萬里無雲。青天猶在。

示眾。舉臨濟示眾云。恁麼來者。恰似失却。不恁麼來者。無繩自縛。十二時中。莫亂斟珪。會與不會。都盧是錯。分明與麼道。一任天下人貶剝。

師云。古鏡闊一丈。屋梁長三尺。是汝鉢盂饋子。闊多少。

示眾云。但參活句。莫參死句。活句下薦得。永劫無滯。一塵一佛國。一葉一釋迦。是死句。揚眉瞬目。舉指豎拂。是死句。山河大地。更無諂訛。是死句。

時有僧問。如何是活句。師云。波斯仰面看。云恁麼則不謬去也。師便打。

示眾云。俱胝和尚。凡有扣問。只豎一指。寒則普天普地寒(雪竇云。甚麼處見俱胝老)。熱則普天普地熱(雪竇云。且莫錯認定盤星)。

雪竇復云。森羅萬象。徹下孤危。大地山河。通上嶮絕。甚麼處。得一指頭禪來。

僧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云。秋來黃葉落。云見後如何。師云。春來草自青。

問達磨未來時如何。師云。千年松倒挂。云來後如何。師云。金剛努起拳。

問羚羊未挂角時如何。師云。獵屎狗。云挂角後如何。師云。獵屎狗。

問明星現時。便成正覺。時如何。師云。曲為今時。

云侗儻無差時如何。師云。繫驢橛。云過在甚麼處。師云。自屎不覺臭。云和尚與麼道即得。師云。蜣螂推糞毬。

問一物不將來時如何。師云。獼猴繫露柱。

問無蹤無跡。是甚麼人行履處。師云。偷牛賊。

### 隋州雙泉郁禪師(凡二)

僧問。如何是第一句。師云。回頭終不顧。云如何是第二句。師云。未語先分付。云如何是第三句。師云。連根猶帶苦。

示眾云。初祖不虛傳。二祖不虛受。彼彼大丈夫。因甚麼到恁麼地。便下座。

### 郢州林溪敬脫禪師(凡四)

僧問。如何是法身。師云。四海五湖賓。

問如何是本來人。師云。風吹滿面塵。

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云。富貴多賓客。云見後如何。師云。貧窮絕往還。

問如何是佛。師云。十字街頭。云如何是法。師云。三家村裏。云佛之與法。是一是二。師云。露柱渡三江。猶懷感恨長。

### 潞府妙勝臻禪師(凡一)

僧問。金粟如來。為甚麼。却降釋迦會裏。師云。香山南雪山北。云南瞻部洲事。又作麼生。師云。黃河水急浪花麤。

云如何是向上一路。師云。一條濟水貫新羅。

### 益州香林澄遠禪師(凡四)

漢州綿竹。上官氏子。

示眾云。諸上座。本來只是箇無事人。不造作。不攀緣。無所得。一念相應。不受後有。不見病惱逼迫。四大本空。五陰虛假。起心動念。有少疑慮。盡屬魔民。皆落妄想。若得實地。逆須皆通。實際理地。無法當情。凡有施設。不滯前塵。物物當體。都無所得。本來解脫。不假功成。故云。一切法常住。且無爾加減處。盡十方法界。一塵一剎。頭頭並是一真實人體。皆是受用門庭。若離此外。別有何見。並是捏目生花。三頭二首。外道邪魔。鬼神群隊。且不編入本姓。與爾自己。了無交涉。

師在眾時。普請鋤茶次。一僧喚云。看。俗家火發。師云。那裏失火。僧云。爾不見那。師云。不見。僧云。這瞎漢。是時一眾。皆謂遠上座敗闕。後智門寬和尚。聞云。須是我遠兄始得。

僧問。北斗裏藏身。意旨如何。師云。月似彎弓。少雨多風。

問如何是室內一盃燈。師云。三人證龜成鼈。

問如何是衲衣下事。師云。騰月火燒山。

問魚游陸地時如何。師云。發言必有後救。云却下碧潭時如何。師云。頭重尾輕。

問。但有言句。盡是賓。如何是主。師云。長安城裏。云如何領會。師云。千家萬家。

師臨示寂時。示眾云。老僧四十年來。不能打得成一片。言訖告寂。

### 韶州雲門法球禪師(凡一)

示眾云。一法如是。諸法亦然。萬別千差。不離方寸。諸禪德。若能如是。盡十方世界。一時拈來。向諸人眼睫上。百千諸佛。向眼睫上。轉大法輪。各各湧身。向虛空。現十八變。為三世諸佛說法。諸人還見麼。若道不見。可惜父母祈生眼。若道見。且作甚麼面目。試對眾道看。良久云。買賣不當價。拊掌一下。

### 潭州南臺道遵禪師(凡二)

示眾云。從上宗乘。合作麼生提綱。合作麼生言論。將佛法兩字。當得麼。雖然如是。細不通風。大通車馬。若約理化門中。一言啟口。振動乾坤。山河大地。海晏河清。三世諸佛。說法現前。若也分明。古佛殿前。同登彼岸。

僧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云。著衣喫飯。云見後如何。師云。鉢盂挂壁上。

### 南岳般若啟柔禪師(凡二)

上堂聞板聲。乃云。善哉三下板。知識盡來參。既善知時節。吾今不再三。

僧問。西天以蠟人為驗。此土以何為驗。師云。新羅人草鞋。

### 信州鵝湖雲震禪師(凡一)

僧問。如何是佛。師云。闍梨不是。

云如何是鵝湖家風。師云。客是主人相師。云恁麼則謝師周旋去也。師云。難下陳蕃之榻。

### 廬州天王徽禪師(凡二)

僧問。如何是一大藏教。師云。高座不曾登。云登後如何。師云。三段不同。今當第一。向下文長。付在來日。東家籬西家壁。自己分上。合作麼生。僧無對。師便打。

僧問。如何是從天降下。師云。風雨順時。云如何是從地涌出。師云。稻麻竹[竺-二+韋]。

### 深明二上座(凡二)

因聞僧問法眼。如何是色。法眼豎起拂子。或云。雞冠花。或云。貼肉汗衫。

二師特特遠訪。遂問。承聞和尚。有三種色語。是否。眼云是。深云。鷓子過新羅。便歸眾。

時李後主在座下。不肯。乃白法眼。寡人來日。為致茶筵。請此二人。重新問話。明日茶筵罷。備綵一箱。劍一口。謂二師曰。上座問話。若問得是。奉賞雜綵。若問不是。只賜一劍。法眼既陞座。深復出問。今日奉勅問話。師還許也無。眼云。許。深云。鷓子過新羅。捧綵便行。

大眾一時散去。時法燈作維那。乃鳴鍾集眾僧堂前。勸二師。眾既集。法燈問。承聞二上座。久在雲門。有甚奇特因緣。舉一兩則來。商量看。深云。古人道。白鷺下田千點雪。黃鶯上樹一枝花。維那作麼生商量。燈擬議。深打一坐具。便歸眾。

二上座。到淮河。見人牽網。有魚從網透出。深云。明兄。俊哉。一似箇衲僧。明云。雖然如此。爭如當初不撞入網羅好。深云。明兄。爾欠悟在。明至中夜。方省。

### 饒州薦福古禪師(凡三)

師望雲門百餘歲。因閱其錄。發明已見。即為之嗣。  
示眾云。三世諸佛。仰望不及。天下祖師。結舌有分。知有者。善自保任。未知有者。不休何待。  
示眾云。劒去遠矣。爾方刻舟。便下座。  
示眾。舉百丈恒和尚。有時上堂。眾纔集。便云。喫茶去。  
有時眾纔集。便云。珍重。  
有時眾纔集。便云。歇。便下座。往往多用此時節因緣。  
後自作一頌。頌此三轉因緣云。百丈有三訣。喫茶珍重歇。直下便承當。敢保君未徹。  
大眾。只如恒和尚。作此一頌。且道。見處如何。還知得失麼。據他三度上堂時。恰似箇好人。後來作此一頌。恰似面上雕兩行字。若是通人達士。舉起便知。後學初機。難為揀辨。老僧與爾。從頭註出。百丈有三訣。賊身已露。喫茶珍重歇。賊物出來。直下便承當。敢保君未徹。大似抱贓判事。雖然如此。諸仁者。若具擇法眼。方能證明。如或邪正未分。可謂顛預佛性。更須博問賢良。可惜虛生浪死。

### 福州長慶慧稜禪師法嗣

#### 泉州招慶道匡禪師(凡四)

潮州人也。示眾云。聲前薦得。辜負平生。句後投機。殊乖道體。且道。從來合作麼生。  
示眾云。招慶今日。與諸人一時道却。還知落處麼。  
有僧出云。大眾一時散去。還稱師意也無。師云。好與三十拄杖。僧作禮。師云。雖有盲龜之意。且無曉月之程。  
時有僧問。如何是曉月之程。師云。此是盲龜之意。  
云如何是沙門行。師云。非行不行。  
云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蚊子上鐵牛。  
師在長慶。作桶頭。常與眾僧語話。  
一日長慶入寮。見。乃問。爾終日口嘮嘮地。作甚麼。師云。一日不作。一日不食。慶云。與麼則磨弓錯箭去也。師云。專待尉遲來。慶云。尉遲來時如何。師云。教伊筋骨偏地。眼睛突出。慶便出去。  
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云。七顛八倒。  
問如何是招慶家風。師云。清貧長樂。濁富多憂。

### 福州報慈光雲禪師(凡三)

閩王問。報慈與神泉。相去遠近。師云。若說遠近。不如親到。師問。大王日應千差。是甚麼心。王云。甚麼處得心來。師云。豈有無心者。王云。那邊事作麼生。師云。請向那邊問。王云。大師謾別人即得。師休去。

示眾云。瘥病之藥。不假驢馱。若據如今。各自歸堂好。

師問僧。甚處來。云臥龍。師云。在彼多少時。云經冬過夏。師云。龍門無宿客。因甚麼在彼許多時。云師子窟中無異獸。師云。汝試作師子吼看。云若作師子吼。即無和尚去。師云。念汝新到。放汝三十棒。

雪竇云。奇怪諸禪德。若平展。則兩不相傷。若據令。則彼此俱嶮。還檢點得出麼。

### 婺州報恩寶資禪師(凡二)

僧問。波騰鼎沸。起必全真。未審古人意旨如何。師叱之。僧云。恁麼則造次也。師云。爾話墮也。

又云。我話亦墮。汝作麼生。僧無對。

師令侍者。取西橋水。灌東邊蓮盆。侍者灌了。師云。灌何處。者云。東邊蓮盆。師顧旁僧云。是真實。是妄語。

### 襄州鷲嶺明遠禪師(凡三)

長慶問師。汝名甚麼。師云。明遠。慶云。那邊事作麼生。師云。明遠退兩步。慶云。爾無端退兩步作麼。師無語。慶代云。若不退兩步。爭知明遠。師於是喻旨。

僧問。無一法當前。應用無差。時如何。師以手卓火。其僧有省。

### 福州石佛靜禪師(凡一)

示眾云。素面相呈。猶兼脂粉。縱離忝過。猶有負愆。諸人作麼生體悉。

### 福州僊天守玘禪師(凡一)

僧問。十二時中。常在底人。還消得人天供養也無。師云。消不得。云為甚麼消不得。師云。為伊常在。云只如不常在底人。還消

得麼。師云驢年。

### 杭州傾心法瑤禪師(凡二)

示眾。良久云。大眾不待一句語。便歸堂去。還有紹繼宗風分也無。若有人酬得。這裏與諸人為怪笑。若無人酬得。諸人與這裏為怪笑。

僧問。承古有言。不斷煩惱。而入涅槃。此意如何。師云。又是發人業。云如何得不發人業去。師云。汝話墮也。

### 新羅龜山和尚(凡一)

師舉。裴相國問僧。看甚麼經。云無言童子經。裴云。有幾卷。云兩卷。裴云。既是無言。為甚有經兩卷。僧無對。

師代云。若論無言。非唯兩卷。

### 大傅王公延彬(凡三)

因入佛殿。指鉢盂。問殿主。這箇是甚麼鉢。主云。藥師鉢。公云。只聞有降龍鉢。主云。待有龍即降。公云。忽遇拏雲<sup>騰</sup>霧來時。又作麼生。云他亦不顧。公云。話墮也。

玄沙云。盡爾神力走。向甚麼處去。保福展云。皈依佛法僧雲門云。他日生天。莫辜負老僧。

王與長慶語話次。慶舉。雪峰見僧來。豎起拂子。僧便出去。

慶云。若據此僧。合喚回與一頓棒。公云。和尚是甚麼心行。慶云。泊合放過。

公到招慶。煎茶次。時朗上座。與明招把鉢。忽翻却茶鉢。公見乃問。茶爐下是甚麼。朗云。捧爐神。公云。既是捧爐神。為甚麼翻却茶鉢。朗云。事官千日。失在一朝。公拂袖而出。招云。朗上座。喫却招慶飯了。却向江外打野糲。朗云。爾又作麼生。招云。非人得其便。

雪竇云。當時但踏倒茶爐。大滄喆云。王太傅。大似相如奪璧。怒髮衝冠。明招也是忍俊不禁。難逢快便。大滄若作朗上座。當時見問。但呵呵大笑。何故。見之不取。千載難忘。

### 漳州保福從展禪師法嗣

### 泉州招慶省僉禪師(凡一)

同保福。入佛殿。覩佛像。福舉手問師。佛與麼。意作麼生。師云。和尚也是橫身。福云。一槩我自取。師云。和尚不唯橫身。福然之。

### 漳州報恩熙禪師(凡一)

為保福。往王太傅宅。下書。王問。漳南和尚。近日還為人麼。師云。若道為人。即屈著和尚。若道不為人。又屈著太傅。王云。何不道取一句。待鐵牛能嚙草。木馬解含煙。師云。某甲惜口喫飯。王良久。又問。驢來馬來。師云。驢馬不同途。王云。爭得到這裏。師云。謝太尉領話。

### 福州鼓山神晏國師法嗣

#### 金陵淨德慧悟禪師(凡一)

福州人也。僧問。如何是大道。師云。我無小徑。云如何是小徑。師云。我不知有大道。

#### 福州鼓山智岳禪師(凡一)

本州人也。初游方。至鄂州黃龍。遂問。久響黃龍。到來只見赤斑虵。龍云。汝只見赤斑虵。且不識黃龍。師云。如何是黃龍。龍云。滔滔地。師云。忽遇金翅鳥來。又作麼生。龍云。性命難存。師云。恁麼則被他吞却也。龍云。謝子供養。師不契。尋回受業。禮覲國師。發明奧旨。

#### 建州白雲智作禪師(凡三)

因鼓山上堂。召大眾。眾皆迴眸。山披襟示之。師忽有省。鼓山一日問。南泉喚院主。意作麼生。師叉手端容而立。山莞然奇之。示眾云。還有人向宗乘中。致得一問來麼。待山僧向宗乘中答。時有僧出作禮。師便歸方丈。

### 明州翠巖令參禪師法嗣

## 杭州龍冊子興禪師(凡二)

僧問。正位中。還有成佛否。師云。誰是眾生。云恁麼則成佛去也。師云。還我正位來。云如何是正位。師云。汝是眾生。僧問。如何是無價珍。師云。卞和空抱璞。云忽遇楚王。還進也無。師云。別足始知非。

## 泉州臥龍道溥禪師法嗣

### 漳州保福清豁禪師(凡二)

福州永泰人也。臥龍問師。豁闍梨。見何尊宿來。師云。某甲謁大章。得箇信入處。龍遂陞座。眾集。龍召豁闍梨。出來燒香。對眾說悟處。老僧為汝證明。師出燒香云。香已燒了。悟臥不悟。龍深肯之。

僧問。家貧遭劫時如何。師云。不能盡底去。云為甚麼不能盡底去。師云。賊是家親。云既是家親。為甚麼翻成家賊。師云。內既無應。外亦不能為。云忽然捉敗。功歸何處。師云。賞亦未曾聞。云恁麼則勞而無功去也。師云。功則不無。成而不處。云為甚麼不處。師云。不見道。太平本是將軍致。不許將軍見太平。

妙喜云。絲來線去。弄精魂。

## 洪州雲居懷岳禪師法嗣

### 揚州風化令崇禪師(凡一)

僧問。如何是敵國一局碁。師云。下將來。問一棒打破虛空時如何。師云。把將一片來。

## 安州白兆志圓禪師法嗣

### 朗州大龍智洪禪師(凡一)

僧問。如何是佛。師云。即汝是。云如何領會。師云。更嫌鉢盂無柄那。

### 襄州白馬行靄禪師(凡一)

僧問。如何是清淨法身。師云。井底蝦蟆吞却月。  
云如何是白馬正眼。師云。面南看北斗。

### 晉州興化師普禪師(凡二)

僧問。盈龍宮。溢海藏。真詮。即不問。如何是教外別傳底事。師云。眼裏耳裏鼻裏。云莫只這便是麼。師云。是甚麼。僧便喝。師便打。

師問僧。近離甚處。云下寨。師云。還逢著賊也無。云今日捉下。師云。放爾三十棒。

### 洪州同安丕禪師法嗣

#### 洪州同安志禪師(凡一)

僧問。一機不到。如何舉唱。師云。徧處不逢。玄中不失。  
問凡有言句。盡落今時。學人上來。請師直指。師云。目前不現。  
句後不迷。云向上事如何。師云。迥然不換。標的即乖。

### 青原下第九世

### 婺州明招德謙禪師法嗣

#### 處州報恩契從禪師(凡一)

示眾云。烈士鋒前。還有俊鷹俊鷄麼。放一箇出來看。  
時有僧出。師云。著精彩。僧擬議。師云。甚麼處去也。  
問師子未出窟時如何。師云。鋒鋸難擊。云出窟後如何。師云。藏身無路。云欲出未出時如何。師云。命若懸絲。云向去事如何。師云搵。

### 鄂州黃龍誨璣禪師法嗣

#### 棗樹和尚(凡四)

僧問訊次。師問。爾見阿誰了。便不審。云見師不問訊。禮式不全。師云。却是辜負老僧。

僧舉似首座。座云。和尚近日。可謂為人切。師聞乃打首座七棒。座云。某甲恁麼道。未有過在。亂打作麼。師云。喫了我多少鹽醋。又打七棒。

有僧辭。師問。若到諸方。有人問爾老僧法道。作麼生對他。云待他問。即道。師云。何處有無口底佛。云只這也還難。師豎起拂子云。還見麼。僧云。何處有無眼底佛。師云。只這也還難。僧繞繩床一匝而出。師云。善能祇對。僧便喝。師云。老僧不識子。云用識作麼。師敲繩床三下。

師問僧。發足甚處。云閩中。師云。俊哉。云謝師指示。師云屈哉。僧作禮。師云。我與麼道。落在甚麼處。僧無對。師云。彼自無瘡。勿傷之也。

師問僧。未到這裏時。在甚麼處。安身立命。僧叉手近前。師亦近前。相並而立。僧云。某甲未到此時。和尚與誰並立。師指背後云。莫是伊麼。僧無語。師云。不獨自謾。兼謾老僧。僧作禮。師云。正是自謾。

### 嘉州黑水和尚(凡一)

問黃龍。雪覆蘆花時如何。龍云。猛烈。師云。不猛烈。龍又云。猛烈。師又云。不猛烈。龍便打。師因而有省。

### 漳州羅漢桂琛禪師法嗣

#### 金陵清涼法眼文益禪師(凡十三)

餘杭魯氏子。參長慶。不大發明。後同景修法璠三人。欲出嶺。經過地藏。阻雪。少憩。藏即琛禪師也。琛問。此行何之。師云。行脚去。琛云。作麼生是行脚事。師云。不知。藏云。不知最親切。又同三人。舉肇論。至天地與我同根處。琛云。山河大地。與爾自己。是同是別。師云同。琛豎起兩指。熟視之云。兩箇。即便起去。

師須臾啟行。琛門送之。問云。上座尋常說。三界惟心。萬法惟識。乃指庭下片石云。且道。此石。在心內。在心外。師云。在心內。琛云。行脚人。著甚來由。安片石。在心頭耶。師窘。無以對。即放包。依席下。求決擇。近一月餘。日呈見解。說道理。藏語之曰。佛法不恁麼。師云。某甲詞窮理絕也。藏云。若論佛法。一切見成。師於言下大悟。

後出世撫州崇壽。

長慶會下。有子昭首座。平昔與師商確古今。心中憤憤。一日領眾。遠詣撫州。責問於師。師舉眾出迎。特加禮待。主賓位上。各挂拂子。茶罷。昭忽變色問云。長老開堂。的嗣何人。師云。地藏。昭云。何太辜長慶先師。某甲同在座下。商確古今。曾無間隔。因何却嗣地藏。師云。某甲不會長慶一則因緣。昭云。何不問來。師云。長慶道。萬象之中獨露身。作麼生。昭豎起拂子。師叱云。首座。此是當年學得底。別作麼生。昭無對。師云。只如萬象之中獨露身。是撥萬象。不撥萬象。昭云。不撥。師云。兩箇。參隨。連聲救云。撥萬象。師云。萬象之中獨露身。擗。昭等。摩撻而退。師指住云。首座。殺父殺母。猶通懺悔。謗大般若。誠難懺悔。昭竟不能對。

於是參師。發明己見。更不開堂。

示眾云。出家兒。但隨時及節。便得。寒即寒。熱即熱。欲識佛性義。當觀時節因緣。古今方便不少。石頭初看肇論。至會萬物為己者。其惟聖人乎。則曰。聖人無己。靡所不己。乃作參同契。首言。竺土大僊心。無過此語也。中間亦是尋常說話。夫欲會萬物。為自己去。蓋盡大地。無有一法可見。己而又囑云。光陰莫虛度。所以告汝輩。但隨時及節。便得。若也移時失候。却虛度光陰。於非色中。作色解。即是移時失候。且道。色作非色解。還當得麼。若恁麼會。便是沒交涉。正是癡狂兩頭走。有甚用處。但守分過時好。

示眾云。古人道。我立地待爾搆去。山僧如今坐地。待爾搆去。還有道理也無。那箇親。那箇疎。試斷看。

示眾云。盡十方世界。皎皎地。無一絲頭。若有一絲頭。即是一絲頭。

法燈云。若有一絲頭。不是一絲頭。

師指橙子云。識得橙子。周匝有餘。

雲門云。識得橙子。天地懸殊。天衣懷云。識得橙子。椽楠木做。圓通秀云。識得橙子。四脚著地。其間一出一沒。半合半開。有得有失。有親有疎。具眼禪人。一任檢點。

妙喜云。識得橙子。好剃頭洗脚。

師問修山主。毫釐有差。天地懸隔。兄作麼生。修云。毫釐有差。天地懸隔。師云。恁麼會又爭得。修云。某甲只恁麼。和尚作麼生。師云。毫釐有差。天地懸隔。修作禮。

保寧代修山主云。恁麼會。又爭得。

又頌云。石城親切問同參。不話東西便指南。明暗兩條來去路。依稀屈曲在烟嵐。

師拈香匙。問悟空云。兄不得喚作香匙。畢竟喚作甚麼。空云香匙。師不肯。悟空後二十餘日。方省。  
師問僧。甚處來。云泗州禮拜大聖來。師云。大聖今年出塔否。云出。師却問傍僧。爾道。這僧曾到泗洲麼。  
一日有二僧來參。師以手指簾。二僧齊去捲。師云。一得一失。師開井。泉眼不通。問僧。泉眼不通。被沙塞。道眼不通。被甚麼礙。僧無對。師代云。被眼礙。  
子方上座。自長慶來。師問。長慶道。萬象之中獨露身。作麼生。方舉起拂子。師云。恁麼會又爭得。云師意如何。師云。爾喚甚麼。作萬象。云古人不撥萬象。師云。萬象之中獨露身。說甚麼撥與不撥。方豁然有省。  
師指竹問僧。還見麼。云見。師云。竹來眼裏。眼到竹邊。云總不恁麼。師休去。  
師問百法座主云。百法是體用雙陳。明門是能所兼舉。座主是能。法座是所。作麼生說箇兼舉底道理。主無對。  
雪竇別云。和尚分半院。與某甲。始得。  
僧問。如何是塵劫來事。師云。盡在于今。  
楊次公頌云。塵劫來事。盡在于今。祖師不會。面壁沉吟。

### 襄州青溪洪璣禪師(凡三)

師在地藏。居第一座。因二僧禮拜地藏和尚。藏云。俱錯。僧無對。  
下堂請益修山主。修云。爾自巍巍堂堂。却禮拜。擬問別人。豈不是錯耶。  
師聞之不肯。修乃問。未審上座作麼生。師云。汝自迷暗。焉可為人。修憤然。上方丈。請益地藏。藏指庫下云。典座入庫頭去也。修乃有省。  
師問修山主。明知生是不生之理。為甚麼。為生死之所流。修云。筭畢竟成竹去。如今作箴使得麼。師云。汝向後自悟去在。修云。某甲所見。只如此。上座作麼生。師云。這箇是監院房。那箇是典座房。修乃作禮。  
僧問。眾旨摸象。各說異端。忽遇明眼人。又作麼生。師云。汝但舉似諸方。

### 撫州龍濟紹修山主(凡七)

師同法眼悟空三人。到地藏。阻雪。附爐次。藏問。山河大地。與上座自己。是同是別。眼云別。藏豎起兩指。師云同。藏亦豎起兩指。便起去。師罔措。遂投誠入室。

師問地藏。古人道。萬象之中獨露身。意旨如何。藏云。汝道。撥萬象。不撥萬象。師云不撥。藏云兩箇。師駭然沉思。却問。未審古人。撥萬象。不撥萬象。藏云。爾喚甚麼作萬象。師於言下領旨。

示眾云。具足凡夫法。凡夫不知。具足聖人法。聖人不會。聖人若會。即是凡夫。凡夫若知。即是聖人。此語具一理二義。若人辨得。不妨於佛法中。有箇入路。若辨不得。莫道不疑。

示眾云。聲色不到處。病在見聞。言詮不及處。過在唇舌。僧云。離却聲色。請和尚道。師云。聲色裏問將來。

師問僧。甚處來。云翠岩。師云。有何言句。云尋常道。出門逢彌勒。入門見釋迦。師云。恁麼道。又爭得。云和尚作麼生。師云。出門逢阿誰。入門見甚麼。僧言下有省。

天衣懷云。雖得一場榮。別却一雙足。且道。落在賓家分上。

主家分上。若定當得出。憂則共戚。樂則同歡。山僧即不然。

出門則吳山楚水。入門則佛殿行廊。或有箇衲僧。出來問。師意如何。也許伊具一隻眼。

僧問。師子返擲時如何。師云。爾還怕文殊麼。云非但文殊。佛來亦不顧。師云。爭柰披文殊騎何。云文殊騎者。不是師子。師云。返擲事作麼生。云應用無虧。師云。正是文殊騎師子。

僧問。劫火洞然。大千俱壞。未審這箇。壞不壞。師云。不壞。云為甚麼不壞。師云。為同大千。

問毫釐不隔。為甚麼。覩之不見。師云。作家弄影漢。

問古鏡未磨時如何。師云。照天照地。云磨後如何。師云。黑似漆。

師有頌云。欲識解脫道。諸法不相到。眼耳絕見聞。聲色鬧浩浩。

又云。諸佛不出世。四十九年說。祖師不西來。少林有妙訣。

又云。萬法是心光。諸緣唯性曉。本無迷悟人。只要今日了。

### 金陵清涼休復悟空禪師(凡三)

師凡三度入嶺。偶值地藏不安。師一日侍立床前。乃啟地藏云。某甲與和尚因緣背。此來。又值和尚不安。地藏起身。拈拄杖卓向前云。這箇也不背。師於此有省。

示眾云。古聖纔生下。便周行七步。目顧四方云。天上天下。唯我獨尊。便有這箇方便奇特。只如諸上座。生下時。有箇甚麼奇特。

試舉看。若道無。是對面諱却。若道有。作麼生。通得箇消息來。  
還會麼。諸上座。幸自有奇特事。因甚麼不知去。  
問如何是佛。師云。汝是眾生。  
問如何是觸目菩提。師云。問取觸體後人。  
問如何是諸佛本源。師云。爾喚甚麼作諸佛。

### 南岳南臺守安禪師(凡一)

僧問。寂寂無依時如何。師云。寂寂底響。  
師有偈云。南臺靜坐一爐香。終日凝然萬慮忘。不是息心除妄想。  
都緣無事好思量。  
資壽尼妙總云。可惜南臺。向死水裏浸殺。當初若見。與他一  
搵。令渠別有生涯。  
聯燈會要卷第二十六

青原下第九世

潭州延壽惠輪禪師法嗣

廬山歸宗道詮禪師(凡二)

僧問。承聞和尚。親見延壽來。是否。師云。山前麥熟也未。  
僧問。九峰山中。還有佛法也無。師云有。如何是九峰山中佛法。  
師云。石頭大底大。小底小。

韶州白雲祥禪師法嗣

連州保峰和尚(凡四)

示眾云。看天看地。新羅國裏。和南不審。日銷萬兩黃金。雖然如是。猶欠少在。  
示眾云。盡十方世界。是箇木羅漢。幡竿頭上。道將一句來。  
師問僧。甚處來。僧云。大容來。師云。大容近日作麼生。僧云。  
合得一甕醬。師喚沙彌。將一盃水來。與這僧照影。  
師見僧。從法堂階下過。師敲繩床。作聲。僧云。若是這箇。不消拈出。師喜。近前詰之。僧無說。師便打。

韶州月華和尚(凡一)

有一老宿。上法堂。東西顧視云。好箇法堂。要且無主。師召云。  
且坐喫茶。老宿問。玄中最的。猶是龜毛兔角。不向二諦中修。如何密用。師云。側。老宿云。與麼則拗折拄杖。割斷草鞋去也。師云。細而詳之。

吉州巴陵顥鑿禪師法嗣

泐潭靈澄散聖(凡二)

知門寬問師。甚處來。師云。水清月現。寬云。好好借問。師云。褊衫不染皂。寬云。喫茶去。寬一日又問。到來數日。且喜安樂。師云。菠菱好煮羹。寬云。爾作這箇去就那。師云。王字不著點。寬拊掌大笑。

## 隋州智門師寬禪師法嗣

### 江陵福昌惟善禪師(凡十一)

示眾。拈拄杖一劃云。盡乾坤大地。微塵諸佛。總在福昌這裏。說佛說法。諸禪德。若也會得。出來與汝證據。若也不會。花須連夜發。莫待曉風吹。

師問僧。近離甚處。云大別。師云。在彼多少時。云三年。師云。水牯牛便甚麼人作對。云不曾觸他一粒米。師云。二時喫箇甚麼。僧無語。師便打。

有僧來。畫一圓相。師便喝云。野狐精。僧作擲勢。以脚拶之者三。師云。蒿箭子。僧作禮。師便打。

師問僧。近離甚處。云安州。師云。甚麼物恁麼來。云請師辨看。師云。驢前馬後漢。僧便喝。師云。驢前馬後漢。又惡發作麼。僧又喝。師便打。僧無語。師喝云。這瞎驢。打殺一萬箇。有甚麼罪過。參堂去。

有僧。自號映達磨。纔入方丈門。提起坐具云。展則徧周沙界。不展則賓主不分。展即是。不展即是。師云。平地喫交了也。映云。明眼宗師。果然有在。師便打。映云。奪拄杖打和尚去。莫言不道。師云。棺木裏撐眼。且坐喫茶。

茶罷。映前白云。適來容易。觸忤和尚。師云。兩重公案。罪不重科。便喝出。

師問僧。近離甚處。云承天。師云。不涉程途。道將一句來。僧便喝。師便打。僧拈坐具。作搥勢。師笑云。喪車後拋藥袋。

師問僧。近離甚處。云遠離兩浙。近發鼎州。師云。夏在甚處。云德山。師云。武陵溪上。道將一句來。僧無語。師自代云。水到渠成。

師問僧。甚處來。云復州。師云。甚麼物恁麼來。云請和尚辨看。師云。禮拜著。僧云諾。師云。自領去。三門外。與爾三十棒。師問超山主。名甚麼。云與和尚同名。師云。回互不回互。云不回互。師便打。

師問俗士。年多少。云四十四。師云。減一添一是多少。士無對。師便打。又自代云。適來猶記得。

僧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云。巢知風穴知雨。  
問如何是佛法大意。師云。東方甲乙木。

### 蕪州五祖師戒禪師(凡七)

智門問師。暑往寒來。即不問。林下相逢事若何。師云。五鳳樓前聽玉漏。云爭柰主山高按山低。師云。須彌頂上擊金鍾。

示眾云。大迦葉擊金鍾於須彌頂上。普震大千。阿難陀集總持於畢鉢岩前。曲垂奧旨。今則大教東流。法傳西祖。觀機應響。接物隨緣。有解問者。一任施呈。

時有僧出作禮。師云。切忌龍門點破額。

示眾云。涅槃含四德。唯我契真常。拈拄杖云。豈不是四德。作麼生是真常。諸人還會麼。爾若不會。祖峰布施爾諸人。乃云。拄杖子穿過真常。真常穿過四德。會麼。祖峰解開布袋。一時傾出了也。爾諸人。有會底也無。出來說看。祖峰與爾證明。若說不得。敲落爾鼻孔。拽脫爾眉毛。以拄杖。擊香臺。下座。

示眾。拈拄杖云。彌勒先鋒。釋迦殿後。總在祖峰拄杖頭上。爾諸人。還見麼。

又道。我觀法王法。法王法如是。會麼。會即出來道看。若也不會。伏惟尚饗。以拄杖。擊香臺。

師問僧。近離甚處。云東京。師云。還見天子也無。云常年一度。出金明池。師云。有禮可恕。無禮難容。出去。

僧問。截鐵鎊。猶是鈍。嚙鏃當鋒事若何。師云。爾試用看。云恁麼則獻上漢高王也。師云。爾見箇甚麼道理。云苦痛深。師云。頭在我手裏。一任[跳-兆+孛]跳。

僧問。如何是佛。師云。鼻孔長三尺。云不會。師云。真不掩偽。曲不藏直。

問如何是道。師云。點。云點後如何。師云。荊三卞四。

### 蕪州四祖謚禪師(凡二)

示眾云。盡乾坤大地。三世諸佛。天下老和尚。今日被山僧坐斷。無爾出頭處。設有出頭得。也只是箇竹木精靈。雖然如是。未免擔枷判事。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一人傳虛。萬人傳實。

### 蕪州廣教懷志禪師(凡二)

示眾云。舉令提綱。群魔屏跡。全提祖印。坐斷十方。正恁麼時。老胡出來。也須乞命。眾中若是作家。略希英鑒。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云。爾記來多少時。云學人不會。師云。言猶在耳。

### 舒州龍門永禪師(凡三)

示眾云。諸佛言詮。止啼為義。祖師心印。莫可論之。向上一路。誰敢措足。直下會得。已是不著便。僧問。祖祖相傳。未審傳箇甚麼。師云。德山拄杖。僧云。恁麼則師得其妙也。師便打。僧問。如何是龍門路。師云嶮。云為甚麼如此。師云。點額却回來。

### 唐州天目契滿禪師(凡一)

示眾云。迦葉親傳如來密印。達磨西來。多虛少實。若論此事。權且認奴作郎。說佛說祖。剝肉作瘡。直下單明。未是衲僧活計。作麼生是衲僧活計。何不出來。對眾證據。時有僧出作禮。師云。若是仙陀客。更不待揚眉。僧應諾。師云。金剛路兩兩三三。

### 鄂州建福智通禪師(凡二)

示眾云。直饒一句下。個儻分明去。早是不著便。遭他點污了也。衲僧家。合作麼生。便下座。僧問。如何是透法身句。師云。鸚鵡戀西秦。

### 襄州洞山守初禪師法嗣

### 岳州乾明睦禪師(凡二)

師問洞山。停機罷賞時如何。山云。水底弄傀儡。師云。誰是看翫者。山云。停機罷賞者。師云。恁麼則知音不和也。山云。知音底事。作麼生。師云。大盡三十日。山云。未在更道。師云。某甲合喫和尚手中痛棒。山休去。僧問。昔日靈山記。今朝嗣阿誰。師云。楚山突屺。漢水東流。云恁麼則洞山的嗣也。師云。聽事不真。喚鐘作甕。

### 鄧州廣濟通禪師(凡一)

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云。黑漆崑崙牽白象。云和尚莫謾後學好。師云。好心不得好報。

### 荊南府開福德賢禪師(凡一)

示眾云。不用思而知。不用慮而解。知解俱泯。合談何事。良久云。一葉落天下秋。

僧問。如何是衲僧活計。師云。耳裏種田。

### 朗州德山密禪師法嗣

### 南岳南臺勤禪師(凡二)

示眾云。南岳山裏寒。不似別處寒。寒則樹結銀條。草鋪碎玉。江河凍定。四海成冰。虛空結合。鳥道不通。雲布長郊。龍魚鎖戶。當恁麼時。命若懸絲。作麼生道。若道得。即紅日連天。若道不得。冥冥長夜。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一寸龜毛重七斤。

### 鼎州文殊應真禪師(凡二)

示眾云。直鈎釣驪龍。曲鈎釣蝦蟆蚯蚓。還有龍麼。良久云。勞而無功。

僧問。寶劍未出匣時如何。師云。在甚麼處。云出匣後如何。師云。臂長衫袖短。

### 鼎州德山紹晏禪師(凡二)

示眾云。一塵纔起。大地全収。一毛頭上。師子全身。一塵纔起。大地全収。須彌山重多少斤兩。一毛頭上。師子全身。大海水有幾許滴瀝。有人道得。與汝拄杖子。天下橫行。若道不得。須彌山。盖却爾頭。大海水。溺却汝身。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桃源水繞白雲亭。

### 鼎州文殊寬禪師(凡三)

示眾云。直教儻聞一句。一時決了。已是不著便。遭他點污。合作麼生。

僧問。如何是文殊為人一句。師云。粗識好惡。

云古人捲席。意旨如何。師云。汝自不知時。

僧問。如何是雲門透法身句。師云。惜取眉毛。云為甚麼如此。師云。非汝境界。

## 隋州雙泉郁禪師法嗣

### 鼎州德山慧遠禪師(凡二)

開堂示眾云。無量法門。悉已具足。然雖如此。且須委悉始得。其餘方便。昔時聖人互出。乃曰傳燈。爾後賢者差肩。故云繼祖。是以心心相傳。法法相印。且作麼生傳。作麼生印。舉起拂子云。此乃人天同證。若如是。也遞相證明。其或未曉之徒。請垂下問。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鐵門路嶮。

示眾云。夫出家之人。生死事大。直須究取生滅之法。既於剎那剎那之際。猶如電轉。電轉之法。無有所寄。諸法生滅滅已。會麼。會即便會。不會即生死根本。

## 江陵府奉先深禪師法嗣

### 天台蓮華峰祥公庵主(凡二)

師拈拄杖。示眾云。古人到這裏。為甚麼不肯住。眾無對。師自云。為他途路不得力。復云。畢竟如何。又自云。柳[木\*栗]橫擔不顧人。直人千峰萬峰去。

示眾云。若論此事。最是急切。切須明取始得。若也明得。時中免被拘繫。便能隨處安閑。亦不要將心捺伏。自然合他古轍去。若學處分劑。便須路布箇道理。以為佛法。幾時得休歇去。上座。却請與麼相委好。

## 鄂州林溪敬脫禪師法嗣

### 西劔州鳳凰山智廣禪師(凡二)

示眾云。朝朝相似日日一般。更有新奇。也拈不出。以至諸聖出來。且不敢誑於上座。因甚如此。蓋為上座。是行脚人。如今與上

座。在這裏。聚集少時。早是欺屈諸人了也。更若停騰是非鋒起。不如且歇。

僧問。如何是和尚此間佛法。師云。東壁打西壁。

### 潞府妙勝臻禪師法嗣

#### 潭州大漚承禪師(凡一)

僧問。梁皇。為甚麼不識達磨。師云。彼此丈夫。

問九年面壁。意旨如何。師云。一人傳虛。萬人傳實。

### 益州香林澄遠禪師法嗣

#### 隋州智門光祚禪師(凡十二)

示眾云。汝等諸人。橫擔拄杖。出一叢林。入一叢林。爾道。叢林有幾種。或有旃檀叢林。旃檀圍繞。或有荊棘叢林。荊棘圍繞。或有荊棘叢林。旃檀圍繞。或有旃檀叢林。荊棘圍繞。只如四種叢林。是汝諸人。在阿那箇叢林裏。安身立命。若無安身立命處。虛踏破草鞋。閻羅王。徵爾草鞋錢。有日在。

示眾云。三兩日來好雨。可謂滂沱。凡夫見水是水。天人見水是琉璃。龍魚見水是窟宅。餓鬼見水是火。爾衲僧家。喚作甚麼。爾若喚作水。又同凡夫見。若喚作琉璃。又同諸天見。若喚作窟宅。又同龍魚見。若喚作火。又同餓鬼見。是爾尋常。還作麼生。所以道。若是得底人。道火不燒口。道水不溺身。爾每日喫飯。還少得一粒麼。古人云。終日著衣喫飯。未曾咬著一粒米。未曾挂著一縷絲。雖然如此。又須實到這裏。始得若未到這田地。且莫掠虛。

示眾云。雪峰毘毘。羅漢書字。歸安斬虵。大隋燒畬。且道。明甚麼邊事。還有人明得麼。試道看。若明不得。所以道。斬虵須是斬虵手。燒畬須是燒畬人。瞥起情塵生妄見。眼底無筋一世貧。

示眾云。數日來好雨。且道。從甚麼處來。若道從天降。且阿那箇是天。若道從地出。喚甚麼作地。若更不會。所以道。天地之前徑。時人莫強移。箇中生解會。眼上更安錐。

示眾云。赫日裏我人。雲霧裏慈悲。霜雪裏假褐。雹子裏藏身。還藏身得麼。若藏不得。却被雹子打破觸體。

示眾云。南泉道。自小養一頭水牯牛。擬向溪東放。不免食他國王水草。擬向溪西放。不免食他國王水草。不免隨分納些些。他總不見得。所以雲門大師道。平地上死人無數。過得荊棘林者。是好

手。直饒爾截斷凡聖。及盡有無。也只是老鼠入飯甕。未知有向上一竅在。

時有僧問。如何是向上一竅。師便打云。我早是將一塊屎。驀口抹了。爾更來。洩我手作麼。

僧問。蓮華未出水時如何。師云。蓮華。云出水後如何。師云。荷葉。

雪竇頌云。蓮華荷葉報君知。出水何如未出時。江北江南問王老。一狐疑了一狐疑。

問如何是般若體。師云。蚌含明月。云如何是般若用。師云。兔子懷胎。

雪竇云。非唯把定世界。亦乃安貼邦家。若也善能參詳。便請丹青獨步。

又頌云。一片虛凝絕謂情。人天從此見空生。蚌含玄兔深深意。曾與叢林作戰爭。

僧問。如何是佛。師云。踏破草鞋赤脚走。云如何是佛向上事。師云。拄杖頭上挑日月。

雪竇云。千兵易得。一將難求。

僧問。金剛眼中。著得箇甚麼。師云。一把沙。云為甚麼如此。師云。非公境界。

僧問。國師三喚侍者。意旨如何。師云。憐兒不覺醜。云國師辜負侍者。意旨如何。師云。美食不中飽人飡。侍者辜負國師。意旨如何。師云。粉骨碎身未足報。

僧問。如何是透法身句。師云。胡獼繫露柱。

問曹溪路上。還有俗談也無。師云。六祖是盧行者。

問一切智智清淨。還有地獄也無。師云。閻羅王是鬼做。

## 洪州同安志禪師法嗣

### 鼎州梁山緣觀禪師(凡六)

示眾云。垂絲千尺。意在深潭。一句橫空。白雲自異。孤舟獨掉。不犯清波。海上橫行。不逢明鑿。

示眾云。停機罷賞。匿跡潛蹤。竹戶茆堂。眠雲臥月。青松碧澗。枕石漱流。道不屬修。無心自悟。談玄唱道。莫非雲水高人。鳥道無蹤。乃是道人行履。談玄則不挂脣吻。履踐則鬼神難覓。悟之則剎那成佛。迷之則永劫生死。有疑即決。不可守株待兔。抱拙守愚。潦倒無成。空延歲月。

師與端長老坐。話次。有僧問。二尊不並化。因甚麼兩人居方丈。  
師云。一亦非。  
僧問。家賊難防時如何。師云。識得後不為冤。云識得後時如何。  
師云。貶向無生國裏。云莫是他安身立命處也無。師云。死水不藏  
龍。云如何是活水龍。師云。興雲不吐霧。云忽遇興雲致雨時如  
何。師下繩床。把住云。莫教濕却老僧袈裟角。  
僧問。如何是從上來傳底事。師云。渡水胡僧無膝袴。背駝梵夾不  
持經。  
問如何是西來意。師云。葱嶺不傳唐土信。胡人謾說太平歌。  
師示眾。有偈云。赫日猶虧半。烏沉未得圓。若會箇中意。牛頭尾  
上安。

### 韶州舜峰韶禪師法嗣

#### 磁州桃園曦朗禪師(凡一)

示眾云。若是唱道門風。權且強名。若論祖宗提綱。難為開口。所  
以先聖道。向上一路。千聖不傳。學者勞形。如猿捉影。諸禪德。  
且作麼生商量。得與先聖齊去。眾中莫有作家底麼。便請離却前  
非。單刀直入。  
時有僧。出作禮。師云。真師子兒。  
問靈山一會。何異今日。師云。當時妄想。此日猶存。

### 青原下第十世

#### 金陵清涼法眼禪師法嗣

#### 天台德韶國師(凡九)

師處州龍泉縣陳氏子。  
問龍牙云。天不能蓋。地不能載。時如何。牙云。道者合如是。  
凡經十七次問。牙云。若為汝說。汝已後罵我去。  
師後住天台通玄峰。因澡浴。忽省前話。遂具威儀。焚香遙禮龍牙  
云。當時若為我說。今日決定罵他。  
妙喜云。只今也不少。  
師問疎山。百匝千重。是何人境界。山云。左搓芒繩縛鬼子。師  
云。不落古今。請師說。山云不說。師云。為甚麼不說。山云。箇  
中不辨有無。師云。師今善說。山駭之。

師參五十三員善知識。後謁法眼。但隨眾而已。  
一日有僧。問法眼。如何是曹源一滴水。眼云。是曹源一滴水。僧罔措。師在座側。豁然開悟。凝滯冰釋。  
示眾云。真空不二。萬德無言。正當明時。如王寶劍。所以如來。於一切處。成等正覺。於刀山劍樹上。成等正覺。於鑊湯爐炭裏。成等正覺。於棒下。成等正覺。所以一動一靜。一去一來。一生一滅。未曾有纖毫異相。未曾有纖毫別相。更無毫釐絲髮許。作見聞心識解會。何故。儲仁者。誠謂是非路絕。妙性天機。所以道。汝生我亦生。汝殺我亦殺。生殺輪王機。交馳如電掣。  
示眾云。古聖方便。猶如何沙。祖師道。非風幡動。仁者心動。斯乃無上心印法門。我輩是祖師門下客。合作麼生。莫是風幡不動。汝心妄動麼。莫是不撥風幡。就風幡道取麼。莫是動處是甚麼麼。有云。附物明心。有云。色即是空。有云。非風幡動。應須妙會。如此解會。與祖師。有何交涉。既不許如是會。諸上座。便合知悉。這裏悟去。何法而不明。百千諸佛方便。一時洞了。若不如。設經塵劫。只自勞神。無有是處。  
示眾云。佛法現成。一切具足。圓同太虛。無欠無餘。若能如是。且誰欠誰剩。誰是誰非。誰會誰不會。所以道。東去也是上座。西去也是上座。南去也是上座。北去也是上座。上座因甚麼。得成東西南北去。若會得。自然見聞覺知路絕。一切諸法現前。何故如此。為法身無相。觸物皆形。般若無知。對緣而照。一時徹底會去好。  
師住通玄峰。有偈云。通玄峰頂。不是人間。心外無法。滿目青山。  
法眼聞得。乃云。只此一偈。可以起吾宗。  
妙喜云。滅却法眼一宗。只緣此一偈。  
僧問名假法假。人空法空。向去諸緣。請師直指。師云。謝此一問。云不覩王居壯。焉知天子尊。師云。貪觀天上月。失却手中撈。  
僧問。敲打虛空鳴磬。石人木人齊應諾。六月降雪落紛紛。此是如來大圓覺。如何是敲打虛空底。師云。崑崙兒著鐵袴。打一棒行一步。僧云。恁麼則石人木人齊應諾也。師云。爾還聞麼。  
僧問。諸法寂滅相。不可以言宣。和尚如何為人。師云。若到諸方。更舉一徧。云恁麼則絕於言句去也。師云。夢裏惺惺。  
問如何是古佛心。師云。此問不弱。  
云如何是絕滲漏底句。師云。口似鼻孔。  
問三世諸佛。為甚麼不知有。師云。却是爾知有。云狸奴白牯。為甚麼却知有。師云。爾甚麼處。見三世諸佛。

問淨慧寶印。和尚親傳。未審今日一會。分付何人。師云。鼕鼕鼓。一頭打兩頭鳴。

#### 金陵清涼泰欽禪師(凡四)

開堂日。示眾云。某甲本欲居山藏拙。養病過時。柰緣先師有未了底公案。出來與他了却。

時有僧出問。如何是先師未了底公案。師便打云。祖禰不了。殃及兒孫。僧云。過在甚麼處。師云。過在我。殃及爾。

翠巖芝云。為眾竭力。禍出私門。

雲峰悅云。這老漢。一斯與奪。也似絕後光前。及乎拶著。又却龍頭蛇尾。如今莫有為清涼作主底麼。

李國主問。先師有甚未了底公案。師云。見分析次。

師問僧。近離甚處。云廬山。師拈起香匣云。廬山還有這箇麼。僧無對。

僧問。百骸俱潰散。一物鎮長靈。未審百骸一物。相去多少。師云。百骸一物。一物百骸。

雪竇別云。吾不如汝。

#### 金陵報恩玄則禪師(凡四)

法眼問師。曾見甚麼人來。師云。曾見青峰和尚來。眼云。有何言句。師云。某甲曾問。如何是學人自己。峯云。丙丁童子來求火。眼云。好語。只恐爾錯會。爾試說來看。師云。丙丁屬火。將火求火。如將自己。而求自己。眼云。與麼會。又爭得。師云。某甲只恁麼。和尚尊意如何。眼云。爾問來。待我與爾道。師理前問。眼云。丙子童子來求火。師言下大悟。

師開堂日。李王與法眼在會。

有僧問。龍吟霧起。虎嘯風生。學人知是出世邊事。到這裏。為甚麼不會。師云。會取好。僧舉頭看師。又看法眼。便抽身入眾。

眼與李王失色。眼歸方丈。令侍者喚其僧至。眼問。上座適來問底語。許爾具眼。人天眾前。何不禮拜。蓋覆却。便搥一坐具。其僧三日後。吐光而終。

僧問。宗門中玄要。乞師一言。師云。汝行脚來。多少時也。僧云。不曾逢伴侶。師云。少瞌睡。

問如何是不遷義。師云。江河競注。日月旋流。

#### 金陵報恩玄覺禪師(凡一)

聞鳩子鳴。問僧。是甚麼聲。云鶉鳩聲。師云。欲得不招無間業。莫謗如來正法輪。

### 杭州報恩慧明禪師(凡二)

問僧。近離甚處。云都城。師云。上座離却都城。到此山。都城少上座。此山剩上座。剩則心外有法。少則心法不周。說得道理則住。不會則去。僧無對。

師舉雪峰塔銘。問僧。從緣有者。始終而成壞。非從緣有者。歷劫而長堅。堅之與壞。即且置。雪峰只今在甚麼處。僧無對。

法眼代云。只今是成是壞。

### 漳州羅漢守仁禪師(凡四)

示眾云。報恩這裏。不曾與人揀話。今日與上座。揀一兩則。還願樂麼。諸上座。鶴脰自長。鳧脰自短。甘草甜。黃連苦。恁麼揀辨。還愜雅意麼。諸上座。莫道血脉不通。泥水有隔好。且莫錯會。珍重。

師問僧。甚處來。云福州。師云。跋涉如許多山嶺。那箇是上座自己。云某甲親離福州。師云。只恁麼。別更有商量。云更作麼生商量。師云。汝話墮也。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喚甚麼作祖師西來意。云恁麼則無西來意也。師云。由爾口頭道。

### 金陵鍾山義章禪師(凡二)

示眾云。道遠乎哉。觸事而真。聖遠乎哉。體之則神。我尋常示汝。何不向衣鉢下坐地。直下參取。須要上來。討箇甚麼。欲得省要麼。但向僧堂裏。三門下。寮舍裏。參取好。還有會處也未。若有會處。試說看。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不東不西。

### 金陵報恩文遂禪師(凡一)

師問僧。甚處來。云曹山。師云。幾程到此。云七程到。師云。行許多山林溪澗。何者是汝自己。云總是。師云。眾生顛倒。認物為己。云如何是學人自己。師云。總是。

### 杭州永明道潛禪師(凡五)

法眼問。律中道。隔壁聞釵釧聲。即名破戒。見觀金銀合雜。朱紫駢闐。是破戒。是不破戒。師云。好箇入路。

示眾云。佛法顯然。因甚麼不會去。欲會佛法。問取張三李四。欲會世法。參取古佛叢林。珍重。

僧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云。看東看西。云見後如何。師云。南看看北。

問如何是慧日祥光。師云。此去報恩不遠。云恁麼則親蒙照燭去也。師云。且喜沒交涉。

僧問。至理無言。假言詮而顯道。如何是顯道底言。師云。切忌揀擇。云如何是不揀擇。師云。元帥大王。太保令公。

佛鑑勤云。大好不揀擇。

僧問。祖師西來。未審傳箇甚麼。師云。傳箇策子。云恁麼則心外有法去也。師云。心內無法。

### 廬山歸宗慧超禪師(凡二)

師問法眼。如何是佛眼。云汝是慧超。師於言下大悟。

雪竇頌云。江國春風吹不起。鷓鴣啼在深花裏。三級浪高魚化龍。癡人猶辱夜塘水。

僧問。如何是佛。師云。我向汝道。即別有也。

### 廬山棲賢慧圓禪師(凡一)

示眾云。出得僧堂門。見五老峰。一生參學事畢。何用更到這裏。雖然如此。也勞上座一轉。

### 洪州百丈恒禪師(凡六)

師問法眼。外道問佛。不問有言。不問無言。敘語未終。眼云。住住。爾擬向世尊良久處會那。師於此大悟。

示眾云。諸上座。適來從僧堂裏出來。脚未跨門限。便回去。已是重說偈言了也。更來這裏。不可重重下切脚也。古人云。參他。不如自參。所以道。森羅萬象。是善財之宗師。業惑塵勞。乃普賢之境界。若恁麼參得。即與善財同參。若不肯與麼參。却歸堂向火。參勝熱婆羅門。珍重。

師或時上堂。眾纔集。師便云。喫茶去。

或時眾纔集。便云珍重。

或時眾纔集。便云歇。後有頌云。百丈有三訣。喫茶珍重歇。直下便承當。敢保君未徹。

僧問。承古有言。於無異法中。而說諸法。如何是無異底法。師云。鶴脰長。鳧脰短。云如何體會。師云。有甚麼可體會。

僧問。祖師西來。直指人心。見性成佛。未審此理如何。師云。不用更如何。云學人不會。乞師慈悲。師云。靈利人難得。

僧問。學人乍入叢林。諸事不會。時如何。師云。吾助汝喜。

問一物不將來時如何。師云。却請將取去。

問學人欲作佛時如何。師云。汝許多時。作甚麼來。

### 杭州靈隱清聳禪師(凡一)

示眾云。十方諸佛。常在汝前。還見麼。若言見。將心見。將眼見。所以道。一切法不生。一切法不滅。若能如是解。諸佛常現前。

又曰。見色便見心。且喚甚麼作心。山河大地。萬象森羅。青黃亦白。男女等相。是心。不是心。若是心。為甚麼却成物象去。若不是心。又道。見色便見心。還會麼。只為迷此。而成顛倒。種種不同。於無同異中。強生同異。若能直下承當。頓豁本心。皎然。無一物。可作見聞。若離心。別求解脫者。古人喚作迷波討源。卒難曉悟。

### 襄州清溪洪璣禪師法嗣

#### 襄州天平從漪禪師(凡一)

師到西院。居常自言。莫道會佛法。今時覓箇舉話人。也無。

西院聞之。一日遙見師。遂召云。從漪。師舉頭。院云錯。師行三兩步。院又云錯。師近前。院云。適來這兩錯。是西院錯。上座錯。師云。是從漪錯。院又云錯錯。師無語。院云。且在這裏。過夏。待共上座。商量這兩錯。師當下便行。

住後告眾云。我當初行脚時。被業風吹。到汝州思明長老處。被他連下兩錯。更留我過夏。待共我。商量這兩錯。我不道那時錯。發足南方去時。早知道錯了也。

首山云。據天平作與麼解會。也未夢見西院在。何故。話在。

### 蘄州五祖師戒禪師法嗣

### 洪州泐潭懷澄禪師(凡一)

僧問。如何是佛。師云。文不加點。  
問不與萬法為侶者。是甚麼人。師云。觀世音菩薩。  
問如何是佛法大意。師云。文殊自文殊。解脫自解脫。

### 筠州洞山自寶禪師(凡二)

示眾云。總恁麼。風恬浪靜。那裏得來。忽遇洪波浩渺。白浪滔天。當恁麼時。覓箇水手也難得。眾中莫有把柁者也無。眾無對。  
師云。賺殺一缸人。  
問如何是佛。師云。腰長脚短。

### 復州北塔思廣禪師(凡二)

問如何是衲僧變通事。師云。東涌西沒。云通變後如何。師云。地肥茄子嫩。  
問如何是和尚家風。師云。左手書右字。云學人不會。師云。歐頭柳脚。

### 潭州福嚴良雅禪師法嗣

### 潭州北禪智賢禪師(凡二)

歲夜小參。示眾云。年窮歲盡。無可與諸人分歲。且烹箇露地白牛。炊黍米飯。向骨拙火。唱村田樂。何故。免見倚他門戶。傍他墻。剛被時人喚作郎。便下座。  
至深夜。維那來問訊云。縣裏有公人。到勾和尚。師云。作甚麼。那云。道。和尚宰牛。不納皮角。師捋頭帽。擲地云。這箇不是。那就地拾得便行。師跳下繩床。攔芻搗住。叫云。賊賊。那將帽子。覆師頂云。天寒。且還和尚帽子。  
時法昌為侍者。師顧法昌云。這箇公案。作麼生。昌云。潭州紙貴。一狀領過。  
僧問。如何是佛。師云。匙挑不上。

### 鼎州文殊應真禪師法嗣

## 筠州洞山曉聰禪師(凡六)

韶州曲江林氏子。

示眾云相見不揚眉。君東我亦西。紅霞穿碧落。白日繞須彌。

示眾云。井底生紅塵。高峰起白浪。石女生石兒。龜毛寸寸長。若欲學菩提。但看此模樣。

送化主。示眾云。住持之事。勞他十方高人。且實際理地。不受一塵。佛事門中。不捨一法。蓋為清眾之故。所以忘勞。盡大地。作箇胡餅。天下人盡得喫。唯有深沙神不得喫。怒發將蒺藜棒打一棒。瓦解冰消。

僧問。德山入門便棒。猶是起模畫樣。臨濟入門便喝。未免捏日生花。離此二途。未審洞山如何為人。師云。天晴久無雨。近日有雲騰。云他日若有人。問洞山宗旨。教學人如何舉似。師云。園蔬枯槁甚。擔水潑菠菱。

云師唱誰家曲。宗風嗣阿誰。師云。竹錫挑擎千界月。鉢盂盛貯五天雲。

云古聖說不到處。請師舉。師云。寒星明月夜。寂寂萬家門。

僧問。無根樹子。向甚麼處栽。師云。千年常住一朝僧。

云如何是離聲色句。師云。南瞻部洲。北鬱單越。云恁麼則學人知恩不昧去也。師云。四海水深多少。

僧問。如何是佛。師云。理長即就。

問祖師西來。當為何事。師云。幾人被渠謾。

問國師三喚侍者。意旨如何。師云。年老心孤。

云既是泗洲大聖。為甚麼在揚州出現。師云。君子愛財。取之有道。

## 朗州德山慧遠師云法嗣

## 廬山歸宗善暹禪師(凡二)

臨江軍人也。示眾云。一若是二即非。東西南北少人知。休話指天并指地。青天白雲徒爾為。以拄杖。繫繩床。下座。

僧問。達磨未來時如何。師云。清貧長樂。云來後如何。師云。濁富多憂。

問年窮歲盡時如何。師云。依舊孟春猶寒。

云更深夜靜時如何。師云。老鼠入燈籠。

## 隋州智門光祚禪師法嗣

## 明州雪竇重顯禪師(凡二十四)

遂州李氏子。

問智門。不起一念。云何有過。門召師近前。師纔近前。門以拂子驀口打。師擬開口。門又打。師豁然開悟。

師開堂日。普觀大眾云。人天普集。合發明箇甚麼事。焉可互分賓主。馳騁問答。便當宗乘去。廣大門風。威德自在。輝騰今古。杷定乾坤。千聖只言自知。五乘莫能建立。所以聲前悟旨。猶迷顧鑒之端。言下知宗。尚昧識情之表。諸人要知真實相為。但以上無攀仰。下絕己躬。自然常光現前。箇箇壁立千仞。還辨明得也無。未辨辨取。未明明取。既辨明得。能截生死流。同居佛祖位。妙圓超悟。正在此時。堪報不報之恩。以助無為之化。

示眾云。形興未質。名起未名。形名既兆。游氣亂清。拈起拄杖云。大眾。拄杖子。是形名雙舉。還有過也無。有即水底月。無即形名兆。若也究得。實謂恩大難酬。

示眾云。一問一答。總未有事在。直饒乾坤大地。草木叢林。盡為衲僧。異口同音。各置百千問難。不消長老彈指一下。並乃高低普應。前後無差。曠佛祖之妙靈。廓人天之幽跡。如是則何假覺城東際。五眾咸居。古佛廟前。此時參畢。

示眾云。田地穩密底。佛祖不敢近。為甚麼擡脚不起。神通游戲底。鬼神不能測。為甚麼下脚不得。直饒十字縱橫。朝打三千。暮打八百。

示眾云。春山疊亂青。春水漾虛碧。寥寥天地間。獨立望何極。便下座。

却顧侍者云。適來有人。看方丈麼。者云有。師云。作賊人心虛。

示眾云。國無定亂之劍。四海晏清。也不是分外。還有梯山入貢者麼。

示眾云。十方無碧落。四面亦無門。古人向甚麼處見客。或若道得接手句。許爾天上天下。

示眾云。上士相見。一言半句。如擊石火。瞥爾便過。應非即言定旨。滯句迷源。從上宗乘。合作麼生議論。直得三世諸佛。不能自宣。六代祖師。全提不起。一大藏教。詮註不及。所以棒頭取證。喝下承當。意句交馳。還同流浪。其有通方作者。共相證明。

示眾云。立賓立主。剝肉作瘡。舉古舉今。拋沙撒土。直下無事。正是無孔鐵鎚。別有機關。合入無間地獄。明眼衲子。應須自看。師問大龍。語底默底不是。非語非默底更非。總是總不是拈却。大用現前。時人知有。大龍如何。龍云。子有如是見解那。師云。這老漢。今日瓦解冰消。

至晚。龍問師。那裏是老僧瓦解冰消處。師云。轉見不堪。拂袖便出。龍云。耐耐耐耐。師不顧。

後舉似福嚴雅雅云。何不與他本分草料。師云。和尚更買草鞋行脚。始得。

一日五人新到相看。師云。洞庭絕頂無行路。不假梯航試道看。云特來禮拜和尚。師云。湛水停舟。徒勞運濟。僧無語。師云。過這邊來。其僧齊過。師云。將頭不猛。帶累三軍。參堂去。

師問僧名甚麼。云宗雅。師云。雅即不問。如何是宗。僧無對。師云。且限三日。其僧頻來下語。師不諾。僧云。和尚作麼生。師云。爾何不問。僧擬問。師連打數棒。

一日六人新到相看。師問參頭。夫為上將。須是七事隨身。兩刃交鋒。作麼生。云久響和尚。有此一著。師云。一著放過。還我草鞋錢來。僧便喝。師便打。僧約住棒。與師一掌。師云。未到翠峰時。與爾三十棒了也。僧無語。師云。且過一邊著。

却問第二僧。副將作麼生。僧茫然。師云。一狀領過。喫茶了。師把住參頭云。適來公案。這裏只恁麼。堂中作麼生舉。僧擬議。師打一坐具。便推出。

一日六人新到相見。師問。還有作家禪客麼。參頭云。和尚道甚麼。師云。點即不到。僧擬議。師便喝。僧無語。師云。龍頭蛇尾漢。

復問第二僧。僧指參頭云。和尚問爾。何不祇對。師與一掌。僧無語。

復指第三僧。其僧茫然。師云。一狀領過。

師問僧。甚處人。僧提起坐具。師云。蝦跳不出斗。僧云。[跳-兆+孛]跳。師便打。僧云。更[跳-兆+孛]跳。師又打。僧便走。師喚回。僧作禮云。觸忤和尚。師云。我要這話行。爾又走作麼。僧云。已徧天下了也。師又打五棒。僧云。有諸方在。師云。爾只管喫棒。

師又喚第二人近前。僧近前。師云。爾是甚處人。云鼎州。師云。敗也。云青天白日。師云。兩重公案。云恰是。師以拄杖指云。爾擬[跳-兆+孛]跳那。僧議擬。師亦打五棒。

參頭云。這僧。與某甲喫棒不同。師云。一時近前來。僧珍重便走。師隨後與一拄杖。

師問僧。近離甚處。云和尚道甚麼。師云。我問爾。近離甚處。僧退身而立。師云。克由耐耐。不言來處。將拄杖來。僧云。某甲近離奉川。師云。打野糗漢。何不早恁麼道。

復問第二人云。爾也一處來。云某甲近離大梅。師云。兩段不同。好與三十棒。且放過。

師問聰道者云。久參事作麼生。聰云。青天白日。師云。亂走作甚麼。聰便喝。師云。喫棒得也。聰擬舉手。師打一坐具云。爾看。這瞎漢亂做。

師問僧。近離甚處。云天台。師云。還見智者麼。云見。師云。為甚麼在我脚底。僧無語。師云。脫空妄語漢。

師問僧。近離甚處。云溫州。師云。還識永嘉大師麼。云是鄉人。師云。與爾隔海在。云酌然。師云。面赤不如語直。僧無語。師噓一聲。

師在大滄。為知客李殿院來。問云。知客是長老鄉人那。師云不敢。李云。且在這裏。不得亂走。師云。本為行脚。李云。行脚當為何事。師云。看亂走底。李大笑。

僧問。只在目前。為甚麼再三不覩。師云。截耳臥街。

云黑豆未生芽時如何。師云。餒驢餒馬。云生芽後如何。師云。透水透沙。

僧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云。恰恁麼。云見後如何。師云。三生六十劫。

僧問。如何是雪竇境。師云。天無四壁。云如何是境中人。師云。月在中峰。

### 鼎州彰法燈泗禪師(凡一)

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云。多少人摸索不著。云忽然摸著時如何。師云。堪作甚麼。

### 潭州雲盖繼鵬禪師(凡三)

初謁雙泉雅禪師。雅令充侍者。示以芭蕉拄杖話。經久無省發。一日雅向火次。師侍立。雅忽問。拄杖子話。試舉來。與子商量。師擬舉。雅拈火筋便搥。師豁然大悟。

白雲端頌云。與奪雙行驗正邪。纔爭拄杖便亡家。驀然鐵棒如風至。失却從前眼裏花。

示眾云。高不在絕頂。富不在福巖。樂不在天宮。苦不在地獄。良久云。相識滿天下。知心能幾人。

僧問。如何是佛法大意。師云。舌頭無骨。

### 鼎州梁山緣觀禪師法嗣

### 郢州太陽明安警延禪師(凡十一)

師問梁山。如何是無相道場。梁指觀音云。此是吳處士畫。師擬進語。梁急索云。這箇是有相底。那箇是無相底。師於言下大悟。作禮。叉手而立。梁云。何不道取一句。師云。道即不辭。恐上紙墨。梁山呵呵大笑云。此語已後。上碑去在。

示眾云。諸禪德。須明平常無生句。妙玄無私句。體明無盡句。第一句。通一路。第二句。無賓主。第三句。兼帶去。一句道得。師子嘯呻。二句道得。師子返擲。三句道得。師子踞地。縱也周徧十方。擒也一時坐斷。正恁麼時。作麼生通得箇消息。大眾證明。若通不得來朝更獻楚王看。

時有僧出問。如何是平常無生句。師云白雲覆青山。青山頂不露。云如何是妙玄無私句。師云。寶殿無人不侍立。不種梧桐免鳳來。云如何是體明無盡句。師云。手指空時天地轉。回途石馬出紗籠。問如何是師子嘯呻。師云。終無回顧意。爭肯落平常。云如何是師子返擲。師云。周旋往返全歸父。繁興大用體無虧。云如何是師子踞地。師云。迴絕去來機。古今無變異。

示眾云。莫行心處路。莫坐無處功。有無二俱離。廓然天地空。所以南泉道。大家在這裏。喫莖菜。若更覓一莖菜。入地獄如箭射。且道。是甚麼語話。

示眾云。文殊隱顯於人間。普賢出沒於眾中。爾若一念通明。向文殊門裏發機。爾若通前叶後。超方不弱。向普賢門裏出身。如今上來下去。頭上脚下。是箇甚麼。上來也我辨爾。下去也爾辨我。句裏明宗即易。宗中辨的則難。句裏明宗。為爾恁麼來。宗中辨的。爾諸人試通箇消息看。大家證明。有麼。乃云。老僧今日。一場醉酒。

示眾云。一句子。拈起也。滿日生光。放下也。寒雲收谷。且道。不拈不放。喚作甚麼。洪波浩渺。白浪滔天。杲日當空。森羅俱顯。若向言中取則。句裏明機。也似迷頭認影。若也宗乘舉唱。石人拊掌。且道。石人明甚麼邊事。乃云。露柱懷胎猶未可。鐵牛生處不難通。

示眾云。放一線道。縱橫可否。不放一線道。大難大難。所以睦州和尚道。放一線道。也由睦州。不放一線道。也由睦州。僧問。如何是放一線道。州云。量才補職。如何是不放一線道。州云。萬里崖州。雖然如是。各在門底施設。建立宗乘。大開徑路。大陽尋常道。握拳展手。為訪知音。展則當處出生。握則隨處滅盡。恁麼告報。猶尚不會。豈況言中宛轉。句裏藏鋒。覲面無私。徒伸意欸。一句當軒。三門頭合掌。兩廊下行道。中庭裏作舞。後門底搖頭。更有針鋒上師子。作麼生道。爾若委悉去。放一線道。若也宗乘舉唱。老僧口門窄。

示眾云。廓然去。肯重去。無所得心去。平等心去。離彼我心去。然後方可穩坐。所以古德道。牽牛向水東去。也不免官家徭稅。牽牛向水西去。也不免官家徭稅。不如隨分納些些。免被他家撈擾。作麼生是隨分納些些底道理。但截斷兩頭。聖凡情盡。體露真常。事理不二。即如如佛。若能如是。法法無依。平等大道。萬有不繫。隨處碌碌地。更有何事。

師問聰上座。(即石門慈照也。)近離甚處。聰云。襄州。師云。作麼生是不隔底句。聰云。和尚住持不易。師云。且坐喫茶。聰便參堂去。

侍者遂問。暫到祇對。住持不易。和尚為甚麼。教且坐喫茶。師云。我獻他新羅附子。他酬我舶上茴香。爾去問。他有語在。侍者問聰。適來祇對和尚。住持不易。意旨如何。聰云。真鍮不博金。

師問僧。甚處來。云洪山。師云。先師在麼。云在。師云。在即不無。請渠出來。我要相見。僧云。師云。這箇猶是侍者。僧無對。師云。喫茶去。

師問侍者。有一人。徧身紅爛。在荊棘林中。周匝火圍。如何近附。救得此人。者云。六根不具。七識不全。師云。教伊出來。我要與伊相見。者云。只今別無左右祇對。師云。官不容針。

僧問。雲門透法身句。意旨如何。師云。爾記來多少時。云深承和尚指示。師云。更不再撥。

聯燈會要卷第二十七

青原下第十一世

天台德韶禪師法嗣

杭州永明延壽智覺禪師(凡四)

初住雪竇。示眾云。雪竇這裏。迅瀑千尋。不停纖粟。奇巖萬仞。無立足處。汝等諸人。向甚麼處進步。師問僧。曾到此間麼。云曾到。又問一僧。僧云。不曾到。師云。一得一失。少頃侍者問。未審那箇得。那箇失。師云。爾曾識這僧麼。云不曾識。師云。同坑無異土。僧問。久在永明。為甚麼不會永明家風。師云。向不會處會取。云不會處。又如何會。師云。牛胎生象子。碧海起紅塵。問如何是大圓鏡。師云。砂盆。僧問。如何是永明旨。師云。更添香著。僧云。謝師指示。師云。且喜沒交涉。僧作禮。師云。聽取一偈。欲識永明旨。門前一池水。日照光明生。風來波浪起。

溫州僊巖安禪師(凡二)

師因破句。讀楞嚴經云。知見立。知即無明本。知見無。見斯即涅槃。於此悟入。即印心於韶國師。後畢生如是讀。或告之曰。和尚破句讀了也。師云。此是我悟處。姚夔通判問。鏡清問玄沙。學人乍入叢林。乞師指箇入路。沙云。還聞偃溪水聲麼。清云聞。沙云。從這裏入。忽若當時道箇不聞。又作麼生。師召云。學士。姚應諾。師云。從這裏入。姚亦有省。

杭州五雲志逢禪師(凡二)

示眾云。捨一知識。參一知識。盡學南游之式樣也。且問上座。只如善財禮拜文殊。擬登妙峰山。禮德雲比丘。及到彼所。德雲何得於別峰相見。教意祖意。同一方便。終無別理。彼若明得。此亦照

然。諸上座。只今簇著老僧。是相見。是不相見。此處是別峰。不是別峰。脫或從此省去。可謂不辜負老僧。亦見德雲未嘗剎那相捨。還信得及麼。

示眾云。古德為法行脚。不憚勤勞。如雪峰和尚。三度到投子。九度上洞山。盤桓往返。尚求箇入處不得。看汝諸人。纔跨門來。便要老僧。接引指示。說禪說道。且汝欲造玄極之道。豈是等閑。而況此事。亦自有時節。躁求焉得。汝等要知悟時麼。各自下去。堂中靜坐。直待仰家峰點頭時。老僧為汝說破。

時有僧出云。仰家峰點頭也。請和尚說。師召大眾云。且道。這僧會不會。僧作禮。師云。今日偶然失鑒。

### 廣州光聖師護禪師(凡一)

僧問。學人作入叢林。乞師指示。師云。汝未入眾時。我已指示汝了也。云如何領會。師云。不用領會。

### 杭州龍華慧居禪師(凡一)

示眾云。從上宗乘。到此如何舉唱。只如釋迦老子。說一代時教。如瓶注水。古德尚云。猶如夢事寐語一般。且道。古德據箇甚麼道理。便恁麼道。還會麼。大施門開。何曾壅塞。生凡育聖。不隔絲毫。言凡則全凡。舉聖則全聖。凡聖不相待。箇箇獨稱尊。所以道。山河大地。長時說法。長時放光。地水火風。一一如是。時有僧。出作禮。師云。好箇問頭。如法問著。僧方進前。師云。又沒交涉了也。

### 溫州瑞鹿本先禪師(凡五)

示眾云。吾初見天台。言下便薦。然千日之內。四威儀中。似物礙膺。如鱸同處。一日忽然猛省。譬如洗面。摸著鼻孔。

示眾云。大凡參學。未必學問話。是參學。未必學揀話。是參學。未必學代語。是參學。未必學別語。是參學。未必學捻破經論中。奇特言語。是參學。未必學捻破諸祖師語言。是參學。若也如是參學。任爾七通八達。於佛法中。儻無真實見處。喚作乾慧之徒。豈不聞。古德道。聰明不敵生死。乾慧未免苦輪。諸人。若也參學。應須真實參學始得。真實參學者。行時行時參取。立時立時參取。坐時坐時參取。眠時眠時參取。語時語時參取。默時默時參取。一切作務時。作務時參取。既向如是等時參。且道。參箇甚麼人參。

箇甚麼說。到這裏。自有箇明白處。始得。若無明白處。喚作造次參學。則無究了。

示眾云。天台教中說。文殊觀音普賢三門。文殊門者。一切色。觀音門者。一切聲。普賢門者。不動步而到。我道。文殊門者。不是一切色。觀音門者。不是一切聲。普賢門者。是箇甚麼。莫道。別却天台教說話。無事。且退。

示眾云。幽林鳥叫。碧澗魚跳。雲片展張。瀑聲嗚咽。爾等還知許多境界。示汝入處麼。若也知得。不妨參取好。

師有頌云。曠大劫來只如是。如是同天亦同地。同地同天作麼形。作麼形兮無不是。

### 溫州鴈蕩願齊禪師(凡一)

僧問。夜月舒光。為甚麼碧潭無影。師云。作家弄影漢。僧從西過東立。師云。不惟弄影。無乃怖頭。

### 杭州興教洪壽禪師(凡一)

示眾云。撲落非他物。縱橫不是塵。山河及大地。全現王身。

### 金陵清涼泰欽禪師法嗣

### 洪州雲居齊禪師(凡四)

師在法燈座下。充藏主。燈一日謂師云。今日有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老僧對他道。不東不西。藏主作麼生。師云。不東不西。燈云。恁麼又爭得。師罔措。

至晚。上方丈請益。燈去。他家自有兒孫在。師於言下。頓明厥旨。

有頌云。接物利生絕妙。外生終是不肖。他家自有兒孫。將來用得恰好。

師問僧。甚處來。云堂中來。師云。何得謾語。

慈受深云。這僧是小謾語。雲居是大謾語。

僧問。如何是佛。師云。汝是阿誰。

師臨示寂時。示眾云。今日老僧。風火相逼。特與諸人相見。且向甚麼處相見。向四大五蘊處。見耶。向六入十二處。見耶。既是種種處。不可見。則如今相問者。是誰。若也見得。可謂後學有賴。

## 洪州百丈恒禪師法嗣

### 廬山栖賢澄湜禪師(凡二)

示眾云。佛法無事。大家共行。大家共止。滿眼是色。滿耳是聲。諸佛妙義。於此明得千里萬里。僧問。如何是佛。師云。張三李四。

## 洪州雲居清錫禪師法嗣

### 天台山從進禪師(凡一)

僧問。古澗寒泉時如何。師云。切忌飲著。云飲者如何。師云。喪却汝性命。

## 廬山歸宗義柔禪師法嗣

### 明州天童新禪師(凡一)

僧問。如何是密用。師云。何曾得密。問心徑未通時如何。師云。甚麼物礙汝。問求之不得時如何。師云。用求作麼。云如何即是。師云。何曾失却。

## 廬山長安延規禪師法嗣

### 潭州雲蓋用清禪師(凡一)

僧問。有一人。在萬丈井中。如何出得。師云。且喜相見。僧云。恁麼則穿雲透日去也。師云。三十三天事作麼生。僧無對。師云。脫空謾語漢。

## 洪州泐潭澄禪師法嗣

### 明州阿育王大覺懷璉禪師(凡二)

示眾云。若論佛法兩字。是加增之辭。廉纖之說。諸人向這裏。承當得。盡是二頭三首。譬如金屑雖貴。眼裏著不得。若是本分衲

僧。纔聞舉著。一擺擺斷。不受纖塵。獨脫自在。最為親的。然後便能在天同天。在人同人。在僧同僧。在俗同俗。在凡同凡。在聖同聖。一切處出沒自在。拘檢他不得。名邈他不得。何也。謂渠能建立一切法。要且不是渠。渠既無背面。第一不用妄與安排。但知十二時中。平常飲啄。快樂無憂。只此相期。更無別事。所以古人道。放曠長如癡元人。他家自有通人愛。師舉拳。示眾云。握拳則五嶽倒卓。展手則五指參差。有時把定佛祖關。有時托開千聖宅。今日這裏相呈。且道。作何使用。拍繩床云。向下文長。付在來日。

### 婺州承天惟蘭禪師(凡一)

示眾云。一刀兩段。埋沒宗風。師子翻身。拖泥帶水。直饒坐斷十方。不通凡聖。脚跟下好與三十。

### 復州北塔思廣禪師法嗣

### 荊門軍玉泉承浩禪師(凡四)

示眾云。山僧在谷隱十年。不曾飲谷隱一滴水。不曾嚼谷隱一粒米。汝若不會來。太陽與爾說。拈拄杖。下座。示眾云。粥稀後坐。床窄先臥。耳聾愛高聲。眼昏宜字大。珍重。師因僧入室。有狗在室中。師叱一聲。狗便出去。師云。狗却會。爾却不會。僧問。如何是佛。師云。截却脚跟。云如何是法。師云。掀却腦蓋。

### 潭州北禪智賢禪師法嗣

### 洪州法昌倚遇禪師(凡十五)

北禪問師。近離甚處。師云。福巖。賢云。思大鼻孔。長多少。師云。與和尚當時見底一般。賢云。汝道。我見時。長多少。師云。和尚大似不曾到福巖。賢云。學語之流。又問。來時。馬大師。安樂否。師云安樂。賢云。向汝道甚麼。師云。教和尚莫亂統。賢云。念汝新到。不能打得爾。師云。某甲亦放和尚過。

茶罷。賢問。鄉里甚處。師云。漳州。賢云。三平在彼作甚麼。師云。說禪說道。賢云。年多少。師云。與露柱齊年。賢云。有露柱即且從。無露柱年多少。師云。無露柱一年也不少。賢云。夜半放烏雞。

示眾云。毗耶杜口。倣倣宗乘。鷲嶺拈花。翻成毒藥。九年面壁。鈍置先宗。半夜傳衣。欺他後學。馬祖即心是佛。大似待兔守株。盤山非心非佛。可謂和泥合水。如斯之見。盡是敗祖宗風。滅胡種族。承虛接響。罔聖欺賢。後學無辜。遭他指註。若論此事。諸佛不曾出世。亦無一法與人。達磨不西來。二祖不得髓。直得皇風蕩。

蕩。野老謳謠。心無所恃。行無所依。聞禪與道。似見冤家。說色與心。如逢猛虎。法昌然後。與爾。挑野菜。舂黍米。作和羅飯。煮骨董羹。飢即食。困即眠。不由諸位自崇高。莫學三乘立功課。示眾云。聞聲悟道。何異緣木求魚。見色明心。大似迷頭認影。諸仁者。不用續晷截鶴。移岳盈壑。南辰北斗。躔度分明。日晦月明。昇沈自異。但請休征罷戰。端拱無為。自然安貼邦家。差肩佛祖。更若言中辨的。句裏明機。清風月下守株人。涼兔漸遙春草綠。

示眾云。祖師西來。特唱此事。只要時人知有。如貧子衣珠。不從人得。千世諸佛。只是弄珠底人。十地菩薩。只是求珠底人。汝等正是伶俚乞丐。懷寶迷邦。靈利漢。纔聞舉著。眨上眉毛。便知落處。若更踏步向前。不如策杖歸山去。長嘯一聲煙霧深。

示眾云。汝若退身千尺。我便當處生芽。汝若覲面相呈。我便藏身露影。汝若春池拾礫。我便撒下明珠。直得水洒不著。風吹不入。如箇無孔鐵鎚相似。且道。法昌還有為人處也無。良久云。利刀割肉瘡猶合。惡語傷人恨不消。

師垂語云。我要一箇不會禪底。作國師。

妙喜云。且道。是醜翻句。是毒藥句。

師與南禪師。舉程大卿看生緣話。師云。何不直下與伊勦絕却。南云。也曾為她畫足來。是伊自不瞥地。師云。和尚如何為他。南云。咬盡生薑呷盡醋。師云。流俗阿師。又恁麼去。南云。和尚作麼生。師拈拂子便打。南云。這老漢。也是無人情。

師與南禪師。舉昔曾問興化。知有底人。向甚麼處去。化云。善財拄杖子。我云。我不問善財拄杖子。知有底人。向甚麼處去。化云。或則登山。或則渡水。我云。和尚只解步步登高。不解從空放下。化云。老僧雖則年邁。要且不負來機。

南云。和尚作麼生。師云。我當時錯怪興化。南云。如今知也。且道向甚麼處去。師云。爾問阿誰。南云。佯聾詐啞作甚麼。師云。

雖然如是。要且不負來機。

師在雙嶺受請。與英勝二首座相別。云三年。聚首。無事不知。檢點將來。不無滲漏。以拄杖。畫一畫云。這箇即且止。宗門事作麼生。英云。須彌安鼻孔。師云。恁麼則臨崖看滄眼。特地一場愁。英云。深沙努眼睛。師云。爭柰聖凡無異路。方便有多門。英云。錢虵鑽不入。師云。這般漢有甚共語處。英云。自緣根力淺。莫怨大陽春。却畫一畫云。宗門事且止。這箇事作麼生。師便掌。英云。這漳州子。莫無去就。師云。爾這般見解不打。更待何時。又打。英云。也是老僧招得。

英勝二首座。到山相訪。英云。和尚尋常愛檢點諸方。今日因甚麼。却來古廟裏。作活計。師云。打草只要虵驚。英云。莫塗糊人好。師云。爾又刺頭入膠盆。作甚麼。英云。古人道。我見兩箇泥牛鬪入海。所以住此山。未審和尚。見箇甚麼。師云。爾他時異日。有把茆蓋頭。人或問爾。作麼生祇對。英云。山頭不如嶺尾。師云。爾且道。還當得住山事也無。英云。使鑿不及拖犁。師云。還曾夢見古人麼。英云。和尚作麼生。師展兩手。英云。蝦跳不出斗。師云。休將三寸燭。擬比大陽暉。英云。爭柰公案現在。師云。亂統禪和。如麻似粟。

師將起法堂。問英勝二首座云。我欲來這裏。起法堂。且道。作得箇甚麼向當。英云。賊是小人。師云。邵武子動著便作屎臭氣。英云。曾經霜雪苦。師云。明珠自有千金價。誰肯林間打雀兒。英云。大似持鉢不得。詐道不飢。

師却指勝云。爾且道。作得箇甚麼向當。勝云。本來無位次。不用強安排。師云。爾這驢漢。向甚麼處著。勝云。一任鑽龜打瓦。師云。也只是箇杜撰巡官。

英云。若是千金寶。何須打雀兒。師云。東家人死西家人助哀。英云。路見不平。

冬夜。與感首座。喫果子。師拈起橘子云。這箇滋味。何似黃龍。感云。須待嘗過始得。師云。驗人端的處。開口便知音。云末法禪師。多虛少實。師拈起棗子云。這箇又作麼生。云須是和尚始得。師云。一箇棗子。早是不柰何。感云。饒人不是弱漢。

喆首座來。師問。山深路僻。何煩訪及。喆云。仁義道中。不為分外。師云。將得甚麼來。喆叉手近前。師云。只這箇。為當別有。喆展兩手。師云。前頭較些子。後頭打不著。喆云。且容某甲人事。

人事罷。師復問。近離甚處。喆云。雲居。師云。峯頭事作麼生。喆云。多少人疑著。師卓拄杖云。弘覺鼻孔。何似這箇。喆云。草

賊大敗。師云。這僧。話頭也不識。喆云。和尚問甚麼。師云。我問爾弘覺鼻孔。喆云。又道不識話頭。師云。不謬為翠巖弟子。師問僧。一切聲是佛聲。是否。云是。師云。為甚麼。鵲作鵲鳴。鵲作鵲噪。云和尚自生分別。師便打。又問一僧。一切聲是佛聲。是否。云不是。師云。為甚麼不是。云鵲作鵲鳴。鵲作鵲噪。師亦打。後有僧問。前頭一僧是。且從。後頭一僧。不是。因甚也打。師打云。且聽明眼人斷看。

## 筠州洞山曉聰禪師法嗣

### 南康軍雲居曉舜禪師(凡十)

自洞山如武昌。行乞。首謁劉公居士家。居士高行。為時所敬。意所與奪。莫不從之。師時年少。不知其飽參。頗易之。居士云。老漢有一問。上人語相契。即開疏。如不契。即請却還。遂問。古鏡未磨時如何。師云。黑似漆。士云。磨後如何。師云。照天照地。居士長揖云。若恁麼。上人且請還洞山。拂袖入宅。師摩攏即還洞山。山問其故。師具言其事。山云。爾問來。我與爾道。師理前問。山云。此去漢陽不遠。師進後語。山云。黃鶴樓前鸚鵡洲。師於言下大悟。機鋒不可觸。師開堂日。示眾云。如來至理。實難剖露。心印玄機。那從意解。眾生無始時來。背心取法。執事迷流。遂有諸佛。出興於世。隨機設教。喚作方便門庭。若據衲僧門下。一言相契。迢迢十萬。眾中莫有通商量底麼。出來對眾。吐露談消息看。僧問。承和尚有言。不談玄不說妙。去此二途。如何指示。師云。蝦蟆趕鷄子。云全因此問也。師云。老鼠弄狢猴。師乃云。問話且止。古人道。多言復多語。由來返相悞。山僧今日。無端向諸人前。敗闕一場。若是明眼人見。笑破他口。何謂。彼自無瘡。勿傷之也。雖然如是。又須實到這箇田地。始得。示眾云。德山道。與爾脫却籠頭。卸却角馱。教爾作箇好人去。三界不收。六道不攝。爾諸方學得底。豈不是籠頭角馱。德山棒。臨濟喝。豈不是籠頭角馱。爾諸人。被諸方老骨槌。教壞了也。學得一堆骨董。蘊在胷襟。便道。我會禪。爾皮下。還有血麼。被他熱瞞了也。大愚今日。與麼道。也是為他閑事長無明。示眾云。古人道。不見一法即如來。方得名為觀自在。且問爾諸人。作麼生說箇不見一法底道理。莫是本來無一法麼。莫是本來清淨麼。若恁麼會。未曾夢見。在三家村裏老婆。亦不作如是見解。

大愚會下。莫有說得道理底麼。試出來。對眾說看。大愚與儂證明。有麼。一言已出。駟馬難追。  
示眾云。聞說佛法兩字。早是汗我耳目。諸人未跨大愚門。脚跟下。好與三十棒。雖然如是。今日也是為眾竭力。  
示眾云。橫飛雪刃。寸草不存。大地黯然。乾坤失色。正當與麼時。佛祖出頭來。也須入地三尺。雖然如是。大愚今日。向諸人前。敗闕一場。且道。甚麼處敗闕。還有人撿點得出麼。若撿點得出。行脚事畢。若撿點不得。且作納飯阿師。  
示眾云。拈起要妙。露柱皺眉。出格之談。烏龜向火。平實無事。嚼飯小兒。褒貶古今。豈能自救。諸禪德。離此之外。作麼生商量。莫是三年逢一閏。九月是重陽麼。莫是大盡三十日。小盡二十九麼。莫是春來草自青麼。若作如斯見解。大愚門下。喚作驢前馬後漢。  
示眾。舉夾山道。鬧市門頭。識取天子。百草頭上。薦取老僧。三峽即不然。婦搖機軋軋。兒弄口喞喞。  
示眾云。諸方便有弄蛇頭。撥龜尾。跳大海。劔刃裏藏身。三峽這裏。寒天熱水洗脚。夜間脫襪打睡。早朝旋繫行纏。風吹籬倒。喚人夫。劈箴縛起。  
僧問。言無展事。語不投機。未是衲僧見處。學人上來。師意如何。師云。水長缸高。云如何是衲僧見處。師云。人無遠慮。必有近憂。  
問。如何是本來心。師云。拆東籬補西壁。

### 廬山歸宗善暹禪師法嗣

#### 洪州雲居佛印元禪師(凡二)

饒州浮梁林氏子。  
師謂眾曰。雲門說法。如雲如雨。絕不許人記錄其語。見則詬曰。汝口不用。返記吾語。他日異時。裨販我去在。今室中對機錄。皆香林以紙為衣。隨所聞即書之。後世漁獵語言。正如吹網欲滿。非愚即狂也。  
師一日。為學徒入室。適東坡居士。忽到面前。師遽云。此間無坐榻。居士來此。作甚麼。坡云。暫借佛印四大。為坐榻。師云。山僧有一問。居士若道得。即請坐。若道不得。即輸腰下玉帶子。坡欣然云。便請。師云。居士適來道。暫借山僧四大為坐榻。只如山僧。四大本空。五陰非有。居士向甚麼處坐。坡不能加答。遂留下玉帶。師却贈以衲衣。坡有偈云。百千燈作一燈光。盡是恒。沙妙

法王。是故東坡不敢惜。借君四大作繩床。又曰。病骨難堪玉帶圍。鈍根猶落箭鋒機。會當乞食歌姬院。奪得雲山舊衲衣。又曰。此帶閱人如傳舍。流傳到我亦悠哉。錦袍錯落猶相襯。乞與佯狂老萬回。

## 明州雪竇重顯禪師法嗣

### 越州天衣義懷禪師(凡十二)

溫州樂清陳氏子。

示眾云。未離兜率。已降王宮。未出母胎。度人已畢。直饒恁麼。猶落建化門中。諸人者。若論此事。舉目則千山萬水。思量則天地懸殊。直得六根杜絕。一念相應。正是無孔鐵鎚。恁麼說話。埋沒宗風。耻他先作。初機後學。不可徒然。先聖幸有第二義門。留與後人。諸仁者。若論第二義門。足可話會。山僧今日不避譏嫌。分明說破。大道無偏。復誰迷悟。諸仁者。迷則迷於悟。悟則悟於迷。迷時力士失額上之珠。悟則貧子獲衣中之寶。誰人不有。故聖人云。如我觀身實相。觀佛亦然。前際不來。後際不去。今則無住。無住之本。流出萬端。森羅眩目。全彰古佛家風。音聲聒耳。盡是普賢境界。雖然如是。笑殺衲僧。以拄杖擊繩床。

師受天衣請。辭眾。示眾云。今日一筵。便是祖送。將軍出塞。坐蓮華帳。勸上馬盃。乃橫按拄杖云。雖無七事隨身。且有折弓鈍劍。雖不能刺鍾截鐵。爭柰古格猶存。對諸作者面前。焉敢拈出。念是舊時光彩。乃目顧大眾云。七星璀璨。光透九霄。膝上磨礮。乾坤肅靜。若也交鋒兩刀。自取其傷。若也掃蕩煙塵。赤眉轉盛。直得心無異緣。口無異說。目無異顧。不施寸刃。建立太平。檢點將來。羈乎化跡。何也。將軍猶在。若是明眼衲僧。一任貶剝。示眾云。玄黃不真。黑白何咎。六祖大師道。葉落歸根。來時無口。若會此箇說話。直入維摩丈室。住金色光中。見十方世界。四聖六凡。如觀掌中庵摩勒果。又見一類眾生。寢生死長夜。昏昏睡眠。不覺不知。作金雞報曉一聲。令伊惺悟。豈不快哉。若能如是。方可將此深心奉塵刹。是則名為報佛恩。雖然如是。古人道。笑我者多。哂我者少。

示眾云。山河無隔礙。光明處處透。作麼生是處處透底光。若也不會。山僧為爾註脚。透爾眼處。十方諸佛國土。只在香煙上。透爾耳處。觀音菩薩。在鍾聲裏禮拜。透爾鼻處。香積世界。熏天炙地。透爾舌處。醍醐上味。翻成毒藥。透爾身處。一棒一條痕。透爾意處。業識茫茫。顛倒妄想。如是會得。四大五蘊。瓦解冰消。

作麼生是父母未生前面目。良久云。三十年後。鼻孔撩天。一任罵取。

示眾云。鴈過長空。影沉寒水。鴈無遺蹤之意。水無沉影之心。若能如是。方解向異類中行。不用續鳧截鶴。夷嶽盈壑。放行也。百醜千拙。収來也。攣攣拳拳。用之則敢與君王鬪富。不用都來不直半分錢。參。

示眾云。青蘿夤緣。直上寒松之頂。白雲淡泞。出沒太虛之中。何似南山起雲。北山下雨。若也會得。甜瓜徹蒂甜。苦瓠連根苦。

示眾云。五蘊山頭一段空。同門出入不相逢。無量劫來賃屋住。到頭不識主人公。

有老宿拈云。既不識。當初問甚麼人賃。師云。恁麼拈。也大遠在。何故。須知死人路上。有活人出身處。活人路上。死人無數。那箇是活人路上。死人無數。那箇是死人路上。活人出身處。若也檢點得分明。拈却炙脂帽子。脫却鶻臭布衫。

示眾云。日月沉輝。乾坤黯黑。赤肉團上。壁立千仞。孫賓門下。徒話鑽龜。朕兆已萌。何勞擬議。向威音王佛已前道得。猶在金峯窠裏。若是具眼衲僧。到這裏。合作麼生道。

示眾云。無邊剎境。自他不隔於毫端。且道。妙喜世界。不動如來。說甚麼法。十世古今。始終不離於當念。只如威音王佛。最初一會。度多少人。若是通方作者。試為道看。良久云。行路難行路難。萬仞峰前著眼看。

示眾云。善能分別諸法相。於第一義而不動。作麼生說箇分別底道理。老僧試為分別看。四面是山。中間是僧堂佛殿。廚庫三門。這裏是法堂。上是天下是地。僧是僧俗是俗。作麼生說箇第一義。若向這裏。明得去。穿取維摩老子鼻孔。若也不會。且待阿逸多出世。

師作色空二偈。一云。色空空色色空空。礙却潼關路不通。劫火洞然毫末盡。青山依舊白雲中。

其二云。東西南北。十萬八千。空生罔措。火裏生蓮。

### 泉州承天傳宗禪師(凡二十)

示眾云。靈山正眼。千聖不知。少室鋒機。三乘莫演正當今日。委在山僧。放開也風行草偃。捏聚也。地轉天回。爾等諸人。盡是久經陣敵慣戰作家。幸對人天。出來證據。

示眾云。始自迦葉垂旨。海印分權。斷臂少林。吾宗失旨。豈況列位三乘。分宗五教。則此道濫觴也。若論衲僧門下。直須千聖情

盡。萬緣不滯。始得。設使機輪轉處。又涉多途。直饒千眼頓開。白雲萬里。

示眾云。大凡舉唱宗乘。須會目前生殺。縱奪臨時。殺人刀。活人劍。此是上古之機鋒。亦是今時之樞要。到這裏。也須是箇漢。始得。點著使轉。撥著便露。擬議之間。喪身失命。以拄杖。擊繩床。

示眾云。鋒前一句。切忌承當。師子翻身。急須著眼。一刀兩段。少分相應。同死同生。萬中無一。爾諸衲子。盡是尋言泥句。入海籌沙。習學多聞。驢年會去。若更放過。轉見不堪。拈拄杖。一時趲下。

示眾云。汝等諸人。盡是老弱殘兵。只是守營把寨底手脚。若是上將軍。便能埋兵布陣。把定邊疆。不顧信旗。單刀直入。說甚麼孟嘗門下。賓客三千。點著不來。還歸死海。

僧問。如何是諸佛本源。師云。千江流。白月。進云。如何領會。師云。三十年後。師乃云。人天圍繞。賓主交馳。問者。若一花一葉以開敷。答者。似一雨一雲而動作。如斯相見。未稱衲僧。若論宗乘一筭。海辯難宣。把定乾坤。要津無路。既通一線。千聖出興。所以大覺世尊。於師子床。回紫金山。普告大眾。吾今為汝。建大法幢。為出世因。作將來眼。諸人還辨得也無。忽若於此辨得。當知正法眼藏。委在此時。便能作大覺王。獨步三界。堪報我佛之恩。用助堯天之化。

示眾云。諸人者。直饒問得知過鶩子。辯若滿慈。也祇是口傳心授底葛藤。且道。從上宗乘。合作麼生議論。若也鋒鋌未兆之前。大朴未分之際。薦得。猶落化門。若向意根下尋思。卒摸索不著。

僧問。如何是般若體。師云。雲籠碧嶠。云如何是般若用。師云。月在清池。師乃云。若是上士。脚纔跨門。便知般若之體。便乃覷露鋒機。如同電拂。論禪與道。未免輪迴。舉意明宗。猶遭曲轍。通人分上。私限不拘。後進初機。快須薦取。於斯明得。許爾把定乾坤。手擎日月。若也未然。山僧今日。勞而無功。

示眾云。宗門深奧。合作麼生話會。若教山僧。祖令當行。直須倒插乾坤。翻騰日月。人天泯跡。佛祖潛蹤。一切魔王宮殿振裂。雖然如此。猶涉化門。若是作者相見。閃電猶遲。擬拄言詮。宛然流浪。

示眾云。千峰影裏。雙澗聲中。忽然風雷一擊。千尺鯨噴。祖佛家風。急須著眼。雄兵百萬。要定邊疆。劍客三千。到則不點。東來衲子。吳楚作家。點著不來。一時擒下。

示眾云。聞聲悟道。猶是聽響之流。見色明心。何異眼中著屑。真如佛性。要且未出苦源。行布圓融。大似無繩自縛。若是衲僧家。

喝散白雲。衝開碧落。橫身三界獨步大方。若不如是。徒為大夫。喝一喝。

示眾云。衲僧門下。不在多端。達士相逢。非存目擊。始知拈槌豎拂。眼裏撒沙。瞬目揚眉。猶是鈍漢。假饒直下明得。正是無孔鐵鎚。擬欲尋思。千里萬里。卓拄杖一下。

師行脚時。為泉州栖隱和尚。馳書到京師。李駙馬宅。相看。尉問因甚麼到京。師云。專為院門馳書。尉云。適來悔伸一問。師云。駙馬慣得其便。尉便喝。師云。放過一著。尉云。再犯不容。師云。三十年後。有人舉在。

師到風穴。穴問。近離甚處。師云。東家。穴云。且喜沒交涉。師便喝。穴云。作家。師打一坐具。拂袖而出。穴云。未到風穴。與爾三十棒了也。

瑞光專使。馳書上。師接書了。拈拄杖。問參頭。西祖不傳東土信。少林謾道付神光。書且拈却。作麼生是瑞光家風。使云。師叔在上。師指云。將頭不猛。帶累三軍。使云。和尚幸是大人。師云。兩重公案。且放過一著。

復問第二僧。爾在瑞光。多少時。云和尚著忙作麼。師云。師子窟中無異獸。僧無語。師打一棒。

又問第三僧。爾為甚麼。失却本道公驗。云和尚慣得其便。師云。一狀領過。且坐喫茶。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白雲抱幽石。僧云。乞師再垂方便。師云。千里未是遠。

問如何是道。師云。虵無頭不行。云如何是道中人。師云。行到水窮處。坐看雲起時。

問孟常門下。劍客三千。鳳凰門下。又且如何。師云。不許夜行。云恁麼則學人退身三步。師云。不是劍客。請莫相過。

問如何是道。師云。且莫詐明頭。云如何是道中人。師云。墮坑落塹。

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云。胡馬嘶北風。

### 舒州投子法宗道者(凡一)

僧問。如何是道者家風。師云。袈裟裹草鞋。云意旨如何。師云。赤脚下桐城。

### 越州天衣在禪師(凡二)

示眾云。摩竭掩室。鈍鳥栖蘆。毗耶杜詞。困魚止灤。少林面壁。待兔守株。天衣恁麼道。還有分付處也無。良久云。他時豹變。後五日看。

僧問。祖祖相傳。傳祖印。師今得法。嗣何人。師云。人將語試。水將杖試。

## 郢州大陽警延禪師法嗣

### 郢州興陽剖禪師(凡四)

師在大陽。作園頭。種瓜。延問。甜瓜何時熟。師云。即今熟爛了也。延云。揀甜底摘來。師云。與甚麼人喫。延云。不入園者。師云。未審不入園者。還喫也無。延云。汝還識伊麼。師云。雖然不識。不得不與。延笑云。去。

師臥疾次。延問是身如泡幻。泡幻中成辨。若無箇泡幻。大事無由辨。若要大事辨。識取箇泡幻。作麼生。師云。猶是這邊事。延云。那邊事作麼生。師云。匝地紅輪秀。海底不栽花。延笑云。乃爾惺惺耶。師喝云。將謂我忘却。

示眾云。西來大道。理絕百非。句裏投機。全乖妙旨。不己而已。有屈祖宗。豈況忉忉。有何所益。雖然如是。事無一向。且於唱教門中。通一線道。大家商量。

僧問。娑竭出海龍宮震。覲面相呈事若何。師云。金翅鳥王當宇宙。箇中誰是出頭人。云。忽遇出頭時。又作麼生。師云。似鶻提鳩。君不信。髑髏前驗始知真。云。恁麼則叉手當胷。退身有分去也。師云。須彌脚下烏龜子。莫待重遭點額回。

### 舒州投子義青禪師(凡六)

青社李氏子。

謁浮山遠禪師。經三載。

遠一日問云。外道問佛。不問有言。不問無言。世尊默然。如何。青擬開口。遠遽以手掩師口。師於此大悟。遂作禮。遠云。汝妙悟玄機那。師云。設有妙悟。也須吐却。

時孜侍者在旁。云。青華巖。今日如病得汗。師回顧孜云。合取狗口。汝更忉忉。我即便毆。

遠後以大陽直裰皮履。付師。囑云。代吾。續洞上宗風。

示眾云。若論此事。如鸞鳳冲霄。不留其跡。羚羊挂角。那覓其蹤。金龍不守於寒潭。玉兔豈栖於丹影。其或主賓若立。須威音路

外搖頭。問答言陳。仍玄路傍提為唱。若能如是。猶在半途。更乃凝眸。不勞相見。

示眾云。默沉陰界。語落深坑。擬著則天地懸殊。棄之則千生萬劫。洪波浩渺。白浪滔天。鎮海明珠。在誰收掌。良久。卓拄杖云。百雜碎。

示眾云。孤村陋店。莫挂瓶盂。祖佛玄關。橫身直過。早是蘇秦觸塞。求路難回。項主。臨江。何逃困命。禪德。到這裏。進則落於天魔。退則沉於鬼趣。不進不退。正在死水中。諸仁者。作麼生。得平穩去。良久云。任從三尺雪。難壓寸靈松。

示眾云。諸佛出世。應病施方。祖師西來。守株待兔。直饒全提舉唱。猶如鑿壁偷光。設使盡令施行。大似空中擲劍。何故。不見古人道。不用求真。唯須息見。諸仁者。且道。息箇甚麼見。良久云。靈雲不悟桃花旨。空使玄沙暗皺眉。

示眾云。若論此事。如魚遁深淵。必招釣客。玉埋荆谷。何逆求人。所以別足楚城。煙波渭水。蓋謂不守平常。致見如是。此日白雲滿谷。淥水浮煙。瑞鳥驚晨。山光眩日。觸事無私。有何不可。雖然如是。更須無手能遮目。釣魚不犯竿。

### 慧州羅浮如禪師(凡一)

大陽問師。爾甚處人。師云。益州。陽云。此去多少。師云。五千里。延云。爾與麼來。還曾踏著麼。師云。不曾踏著。陽云。汝解騰空那。師云。不解騰空。陽云。爭得到這裏。師云。步步不迷方。隨身無辨處。陽云。汝得超方三昧耶。師云。聖心不可得。三昧豈彰名。陽云。如是如是。汝應信。此即本體全彰。理事不二。善自護持。

### 西川雲頂鵬禪師(凡二)

僧問。如何是大疑底人。師云。畢鉢巖中。面面相覷。云如何是不疑底人。師云。如是我聞。須彌粉碎。

僧問。祖意教意。是同是別。師云。達磨逢梁武。摩騰遇漢明。

### 青原下第十二世

#### 廬州栖賢澄湜禪師法嗣

### 湖州西余體柔禪師(凡一)

示眾云。一人把火。自燼其身。一人抱水。橫死於路。進前即觸途成滯。退後即噎氣填胸。直得上天無路。入地無門。如今已不奈何也。良久云。待得雪消去。自然春到來。

### 洪州雲居曉舜禪師法嗣

#### 建康府蔣山法泉禪師(凡二)

隋州時氏子。

上堂。僧問。達磨未來時如何。師云。月明東嶺上。云來後如何。師云。黃河徹底清。

云祖師面壁。意旨如何。師云。撐天拄地。云便恁麼去時如何。師云。落七落八。師乃云。諸仁者。問話得也未。相挨相拶。進前退後。口裏喃喃地。圖箇甚麼。將謂宗門。合有恁麼說話。諸人敗關。終可帶累山僧。亦無分雪處。何故。諸人未發問時。猶較些子。纔出頭來。便沒交涉。不見。摩竭國內。土曠人稀。少室巖前。風高月冷。到這裏。豈假三寸。方解辨明。所以道。諸佛不出世。祖師不西來。馬鳴龍樹不敢商量。海藏龍宮。不能詮註。雖然如是。若是明眼漢。一點也瞞他不得。後學初機。卒難摸索。今日判府侍郎。為佛法主。山僧得與諸人相見。大眾。如今忽有人問。如何是相見底事。向他道甚麼。莫有道得底麼。出來。露箇消息看。山僧為汝證明。若也未知。今日已是隱藏不得。為諸人一時說破。乃擘開筈云。一時記取。

示眾云。要去不得去。要住不得住。打破大散關。脫却娘生袴。諸仁者。到臘月三十日。且道。用箇甚麼。良久云。柳絮隨風。自西自東。

#### 處州慈雲修慧禪師(凡四)

示眾云。若論此事。唯佛與佛。乃能知之。諸人還知麼。慈雲今日。開大智門。入總持藏。示汝諸人。無價珍去。諸人還識麼。拈起拄杖云。這箇豈不是無價珍。一人有一箇。自是諸人。不肯承當。若承當去。頭頭應用。取捨自由。十二時中。受用不盡。若用不得。一任懷寶迷邦。向外馳求。踏破草鞋。虛生浪死。卓拄杖一下。

示眾云。大眾會麼。五月十五。即不問。且道。葫蘆裏走馬一句。作麼生道。直饒道得。也是渴鹿趨陽焰。

示眾云。菩提達磨。口能招禍。聖諦義中。梁王勘破。歸到少林。九年壁坐。退已讓人。萬無一箇。僧問。牛頭未見四祖時如何。師云。青山藏不得。云見後如何。師云。明月却相容。

## 越州天衣義懷禪師法嗣

### 東京法雲圓通法秀禪師(凡七)

秦州隴城辛氏子也。通諸經論。久習華嚴。一日嘆曰。吾觀善財。始見文殊。復過百一十城。事五十三知識。又聞。達磨西來。老盧南去。教外別傳。無上心印。吾豈止方隅。滯性相之宗耶。因棄所業。束裝南游。徑往天衣。謁懷禪師。懷問曰。座主講甚麼經。師云。粗習華嚴。懷云。華嚴以何為宗。師云。以法界為宗。懷云。法界以何為宗。師云。以心為宗。懷云。心以何為宗。師不能加答。懷云。毫釐有差。天地懸隔。汝當自看。會有省發耳。後十七日。聞僧舉。白兆問報慈云。情生智隔。想變體殊。情未生時如何。慈云隔。師於此大悟。直詣方丈。陳所證。懷喜云。前後座主。唯汝一人。真大法器。吾宗異日。在汝行矣。師遂服勤八年餘。天衣推為導首。後出世舒之四面。最後住本山。而終老焉。示眾。舉古云。見一則瞎汝眼。知一則翳汝眼。翳生則天上人間。瞎却則三頭六臂。師云。既是翳生。為甚麼天上人間。既是瞎却。為甚麼三頭六臂。山僧即不然。翳生則長連床上。伸脚打睡。都莫以道為懷。瞎却則朝打三千。暮打八百。且道。還有得失也無。良久云。可知禮也。示眾云。單傳心印。過犯彌天。祖師玄言。如何宣說。打鼓上來。成得什麼。良久云。直饒動地雨花。爭如歸堂向火。參。示眾云。多能多慮。轉不相應。絕言絕慮。無處不通。拈起拄杖云。直饒向這裏。見得祖師。正好喫山僧拄杖。若也棒頭取證。猶在半途。作麼生是究竟一句。良久云。常憶江南三月裏。鷓鴣啼處百花香。示眾云。道士倒騎驢。獼猴繫露柱。蝦蟆跳上天。烏龜縮頭去。棲賢也欲放過。又恐不分緇素。却被諸方檢點。驀拈拄杖云。非但諸方。便是棲賢拄杖。也自不甘。擊繩床一下。示眾云。少林九年冷坐。却被神光覷破。如今玉石難分。只得麻纏紙裏。還會麼。笑我者多。哂我者少。

示眾云。看風使帆。正是隨波逐波。截斷眾流。未免依前滲漏。量才補職。寧越短長。買帽相頭。難為恰好。直饒上不見天。下不見地。東西不辨。南北不分。有甚麼用處。任是純鋼打就。生鐵鑄成。也須額頭汗出。總不恁麼。又且如何商量。良久云。赤心片片。誰知得笑殺黃梅石女兒。

示眾云。衲僧家。高揖釋迦。不拜彌勒。未為分外。只如半偈亡軀。一句投火。又圖箇甚麼。良久云。彼彼住山人。何須更說破。

### 杭州佛日智才禪師(凡一)

示眾云。風雨蕭騷。塞汝耳根。落葉交加。塞汝眼根。香臭叢雜。塞汝鼻根。冷熱甘甜。塞汝舌根。衣綿溫冷。塞汝身根。顛倒妄想。塞汝意根。諸禪德。直饒爾翻得轉。也是平地骨堆。

### 東京慧林宗本禪師(凡一)

僧問。如何是露地白牛。師云。放出無尋處。

### 台州瑞巖子鴻禪師(凡二)

示眾云。法爾不爾。建立乖真。堂堂現成。雕琢成偽。妙圓超悟。頭上安頭。頓獲法身。枷上著杻。設若不爾。則靈山畫餅。曹溪指梅。過犯彌天。放過即不可。更有一箇。誰檢點得出。驀拈拄杖云。今日不著便。

示眾云。一不守。二不向。上下四維無等量。大洋海裏泛鐵缸。彌須頂上翻鯨浪。臨濟縮却舌頭。德山閣却拄杖。千古萬古獨巍巍。留與人間作榜樣。

### 真州長蘆體明禪師(凡二)

示眾。顧視左邊云。師子之狀。豈免嘖呻。復顧視右邊云。象王之儀。寧忘回顧。取此逃彼。上士奚堪。識變知機。野狐戀窟。到這裏。須知有凡聖不歷處。古今不到處。且道。是甚處人行履。良久云。丈夫自有衝天氣。不向如來行處行。

示眾云。上士相逢。休存目擊。祖師門下。如何受用。古往今來。新新無間。雖然如是。猶在荊棘林中。衲僧家。須向鑊湯爐炭上。成等正覺。刀山劒樹上。說法度人。方有少分相應。良久云。茯苓只在松根下。用意追尋事轉遙。

## 蘇州淨慧可證禪師(凡二)

示眾云。龍宮海藏。盡屬葛藤。教外別傳。起摸畫樣。當人分上。平地風波。到這裏。如何出得。良久云。毗婆尸佛早留心。直至如今不得妙。

僧問。達磨未來時如何。師云。天涯地角。云來後如何。師云。四海五湖。

## 舒州投子義青禪師法嗣

### 東京淨因道楷禪師(凡十)

師問投子。佛祖意句。如家常茶飯。離此之餘。還別有為人言句也無。子云。汝道。寰中天子勅。還假禹湯堯舜也無。師擬開口。子拈拂子。驀口打云。爾發意來時。早有二十棒分。師於此契悟。作禮便行。子云。且來闍梨。師竟不回首。子云。子到不疑之地耶。師掩耳而去。

師作典座。子問。廚務勾當不易。師云。不敢。子云。煮粥耶。蒸飯耶。師云。人工淘米著火。行者煮粥蒸飯。子云。子作箇甚麼。師云。和尚慈悲。放他閑去。

師侍投子。游菜園。子度拄杖與師。師接得隨行。子云。理合恁麼。師云。與和尚。提鞋挈杖。也不為分外。子云。有同行在。師云。那一人。不受教。子休去。

至晚。問師。早來與子說話。未盡。師云。請和尚舉。子云。卯生日戌生月。師即點燈來。子云。子上來下去。總不空然。師云。在和尚左右。理合如此。子云。奴兒婢子。誰家屋裏無。師云。和尚年尊。關他不可。子云。得恁麼殷勤。師云。報恩有分。

示眾云。威音已前。不落諸位。然燈之後。以心傳心。諸祖遞相繼襲。掩室摩竭。似是而非。更於鹿野苑中。三轉十二行法輪。自後聲教既傳。四十九年。指喻不下。子孫幾乎斷絕。黃面老人。末後著忙。將青蓮目。顧視迦葉。迦葉微笑。便云。吾有正法眼藏。付囑於汝。金色頭陀。大似不丈夫。取人處分。自後西天此土。指鹿為馬。少室黃梅。將日作月。祖師已是錯傳。山僧已是錯說。今日不免將錯就錯。曲為今時。從來向君道。直須旨外明宗。莫向言中取則。石人機似汝。也解唱巴歌。汝若似石人。雪曲也須和。直饒唱得韻出青霄。和得宮商不犯。正是出世邊事。落在今時。且道未出世邊事。作麼生。良久云。朕兆未生前薦取。春風飄擺綠楊垂。

示眾云。威音路外。千聖不游。問答言陳。鄉關萬里。設使總不恁麼。坐在無事界中。更若凝眸。不勞相見。

示眾云。纔陞此座。已涉塵勞。更乃凝眸。自彰瑕玷。別傳一句。勾賊破家。不失本宗。狐狸戀窟。所以真如凡聖。皆是夢言。佛及眾生。並為增語。到這裏。回光返照。撒手承當。未免寒蟬抱枯木。泣盡不回頭。

示眾云。威音那畔。水泄不通。便是釋迦親來。也分疎不下。少室九年。伸吐無門。若據令而行。三界諸佛。應須側立。六代祖師。只可傍觀。如今放一線道。許爾諸人。通箇消息。許爾同身共命。一氣連枝。若通不得。只知荊玉異。那辨楚王心。

示眾。拈起拄杖云。這裏薦得。盡是諸佛建立邊事。直饒爾東涌西沒。卷舒自在。也未夢見七佛已前消息。須知有一人。不從人得。不受教詔。不落階級。若識此人。一生參學事畢。驀召大眾云。更若凝眸。不勞相見。

示眾云。道本明直。不勞修證。直饒一句下會得。君臣父子。五位具足。臨濟三玄三要。四句料簡。雲門函蓋乾坤。截斷眾流。隨波逐浪。會得。通同古今。倜儻分明。盡是古人方便建立。落在今時。不見黃面老人。自解知非。掩室摩竭。淨名杜口。有一般漢。將為極則。黃面老人。早是犯鋒傷手。幸然無事。更將膩脂帽子。搨向頭上。自後黃梅聚徒八百。選佛場開。末後散席。白云。心空及第。便有老盧出云。未來無一物。便乃密傳衣法。半夜渡江。負重至大庾嶺頭。明上座趨及。白云。為法而來。便云。不思善。不思惡。正恁麼時。還我明上座本來面目。這一場狼藉。不同小小。便是德山臨濟手脚。也打疊不盡。更有一般底。遞相傳授。舉覺商量。將為奇特。爛嚼細嚙。垢汙心田。且諸祖未建立已前。將甚體格今時。只如老漢。不會禪。不會道。百無長處。是箇三家村裏漢。自小出家。寺院剃頭。後乃經游天台廬阜。如今年老。頭白齒黃。只是舊時三家村裏漢。與諸人何異。地上行。床上臥。鉢盂裏喫飯。後架裏盥漱。若作佛法商量。眉鬚墮落。諸人還會麼。直饒會得玄玄。爭似飢飧困歇。

楊次公問師。相別得幾年。師云。七年。公云。七年。參禪來。學道來。師云。不打這鼓笛。公云。恁麼則空游山水。百無所能去也。師云。相別未久。善能高鑑。公呵呵大笑。

韓相公來。師出接。公云。禁足不出。為甚麼却出。師云。官不容針。私通車馬。

#### 西京少林恩禪師(凡四)

示眾云。若向這裏。說即心是佛。大似頭上安頭。若說非心非佛。何異迷頭認影。賞箇名。安箇是。立箇非。向甚麼處。見達磨祖師。雖然如此。放一線道。別有商量。諸仁者。是復誰是。非復誰非。是非杳絕。分明萬機。於斯明得。晝見日夜見星。於斯不明。有寒暑兮促君壽。有鬼神兮妬君福。

示眾云。如斯說話。誰是知音。直饒句一向下。千眼頓開。端的有幾箇。是迷鋒達磨。諸人要識達磨祖師麼。舉手捏空云。達磨祖師鼻孔。在少林手裏。若放開去。從他此土西天。說黃道黑。若不放過。不消一捏。莫有為祖師作主者麼。出來。與少林相見。有麼。良久云。果然。

示眾云。便恁麼休去。已落二三。更若忉忉。終成異見。既到這裏。又不可弓折箭盡去也。且衲僧家。遠則能照。近則能名。拈拄杖云。穿却德山鼻孔。換却臨濟眼睛。掀翻大海。撥轉虛空。且道。三千里外。誰是知音。於斯明得。大似杲日照天。苟或未明。不免雲騰致雨。卓拄杖一下。

僧問。久飄客路。罕遇知音。今日上來。請師一接。師云。有眼無耳朶。六月火邊坐。云頂門不具金剛眼。幾逐流鶯過短籬。師云。白雲千里萬里。

聯燈會要卷第二十八

青原下第十三世

東京法雲法秀禪師法嗣

澧州香積用旻禪師(凡一)

示眾云。夫為宗匠。隨眾提綱。應機問答。殺活臨時。心眼精明。那容妖怪。若也棒頭取證。喝下承當。埋沒宗風。耻他先作。轉身一路。不在遲疑。息不未。還同死漢。大眾。直饒到這箇田地。猶是語句埋藏。未有透脫一路。且作麼生是透脫一路。還有人道得麼。若無。山僧不免為諸人說破。良久云。玉離荊岫寒光動。劍出豐城紫氣橫。

東京慧林宗本禪師法嗣

杭州淨慈善本禪師(凡二)

本州余氏子。

示眾云。上士聽法以神。中士聽法以心。下士聽法以耳。且道。更有一人來。將甚麼聽。卓拄杖云。高也著低也著。落落圓音徧寥廓。十方內外更無他。不用無繩而自縛。

示眾云。會麼。祖師妙旨。只在目前。惠日峰前。雲生足下。湖湘浪闊。迥接遙天。晚唱漁舟。夜泛蒹葭之月。歡游畫舫。時聞絲竹之音。更說聞聲悟道。見色明心。大似拋却甜桃樹。沿山摘醋梨。

福州太平恩禪師(凡二)

示眾。豎起拳云。或時為拳。復開云。或時為掌。若遇衲僧。有功者賞。遂放下云。直是土曠人稀。相逢者少。

示眾云。衲僧現前三昧。釋迦老子不會。住世四十九年。說得天花亂墜。爭似渴飲飢飡。展脚堂中打睡。

秀州本覺法真禪師(凡二)

示眾云。本分相見。不在如何。撩起便行。猶為鈍漢。若也分賓列主。俱為念話杜家。更乃說妙談玄。不是宗門苗裔。山僧恁麼道。已是雪上加霜。汝等諸人。更擬覓甚麼。以拄杖。一時趨下。示眾云。拆半裂三。人人道得。去一拈七。亦要商量。正當今日。雲門道底。不要。別作麼生。露得箇消息。良久云。日月易流。

## 北京天鉢重元禪師法嗣

### 西京聖善真悟禪師(凡一)

示眾云。揚聲止響。不知聲是響根。弄影逃形。不知形為影本。以法問法。不知法本非法。以心傳心。不知心本無心。心本無心。知心如幻。了法非法。知法如夢。心法不實。莫謾追求。夢幻空花。何勞把捉。到這裏。三世諸佛。一大藏教。祖師言句。天下老和尚。路布葛藤。盡使不著。何故。太平本是將軍致。不許將軍見太平。

## 東京淨因楷禪師法嗣

### 東京淨因法成禪師(凡四)

示眾云。知有佛祖向上人。方有說話分。諸禪德。且道。那箇是佛祖向上事。有箇人家兒子。六根不具。七識不全。是大闡提。無佛種性。逢佛殺佛。逢祖殺祖。天堂收不得。地獄攝無門。大眾還識此人麼。良久云。對面不仙陀。睡多饒寐語。

示眾云。只這箇。負累殺人。認作空劫時自己。分明頭上安頭。更言落在今時。何異霜加雪上。直得純清絕點。猶有流注真常。縱然轉位回機。大似日中逃影。所以道。二由一有。一亦莫守。一心不生。萬法無咎。喝一喝云。是甚熱盃鳴聲。豈不見道。文殊起佛見法見。貶向二鐵圍山。衲僧起佛見法見。列在三條椽下。乃舉起拂子云。拂子夜來起佛見法見。且道。今朝如何批判。繫繩床云。分付德山臨濟。

示眾云。靈機獨耀。智鑑洞然。瞬目揚眉。已彰痕跡。拈槌豎拂。豈免階梯。悟之者。心超數量。語默皆如。左放右收。都無依賴。迷之者。頭頭作解。取捨有心。縱饒盡得那邊。未免這邊礙著。所以道。衲僧家。說箇解粘去縛。拔楔抽釘。已是犯鋒傷手。更言體之與用。正之與偏。恰似三家村裏教書郎。未念得一本太公家教。

便道。文章賽過李白杜甫。諸禪德。伊家自有同風。不要展他書卷。

師問僧。甚處人。云西川。師云。幾時離鄉。云前年二月。師云。未離本國一句。作麼生道。云通身是口。難為祇對。師云。猶是離家失業句。僧無語。師打一拂云。枉踏草鞋。

## 青原下第十四世

### 杭州淨慈善本禪師法嗣

#### 福州雪峰思慧禪師(凡四)

杭州余氏子。

示眾云。若論此事。最尊最勝。難解難知。是第一義諦。是無分別法。是智不到處。是大總持王。是如來頂。是祖師印。是金剛王寶劍。是踞地師子。是鐵牛機。是猛火聚。擬向即乖。措意即失。而我云何能說能示。諸人云何能信能解。自非上根大器。向光未發已前。驀提得去。其孰能與於此哉。眾中必有飽參禪客在。行間立地。鼻孔裏冷笑。肚皮裏自語云。這話墮阿師。大好不說。咦。師子咬人。狂狗趨塊。却被山僧拄杖子。檢責云。克由耐耐。妄意卜慶。隨語生解。放過即不可。若也放過。曹溪路上生荊棘。迦葉門風被陸沉。以拄杖。擊繩床。下座。

示眾云。一法有形。翳汝眼睛。眼睛不明。世界崢嶸。縱使通身眼綻。爍破大千。十方圓明。純一無雜。猶未得勦絕在。何故。金屑雖貴。落眼成翳。翳若不消。空花仍在。直須瞎却諸人眼。始解剪除病根。從教摸地撈天。免人弄光認影。過此已還。吾不知也。

示眾云。諸佛說法。常依真俗二諦。唯有祖師門下。一無所依。不依內。不依外。不依中間。乃至一切諸佛。都無依倚。或問或答。盡在臨時。句後聲前。不留影迹。不是禪。不是道。不是玄。不是妙。不是真。不是俗。且道。是箇什麼。良久云。毗婆尸佛早留心。直至如今不得妙。

示眾云。當場問答。只在臨時。不用尋思。拈來使用。諸禪德。不是情中法。莫生取捨心。而況法無異法。句無別句。拈起一毫。盡大地一時明得。一切言句。無不該通。猶未是衲僧分上事。豈不見道。擊石火閃電光。薦得薦不得。未免喪身失命。且如諸人。還免得也無。良久云。臨崖看許眼。特地一場愁。

### 鄧州丹霞淳禪師法嗣

## 明州天童正覺禪師(凡五)

示眾云。佛法也無許多般。只要諸人一切時中。放教身心。空索索地。條絲不挂。廓落無依。本地靈明。毫髮不昧。若恁麼履踐。得到自然一切時合。一切時應。了無纖毫許。作爾障礙處。便能轉十聖。向自己背後。方喚作衲僧。若也倚他門戶。取他處分。受他茶糊。豈不是瞎驢趁大隊。既然如是。畢竟如何。自是不歸歸便得。五湖煙景有誰爭。

示眾云。諸禪德。吞盡三世佛底人。為甚麼。開口不得。照破四天下底人。為甚麼。合眼不得。許多病痛。與爾一時拈却了也。且作麼生。得十成通暢去。還會麼。擘開華岳連天秀。放出黃河到海清。

示眾云。以本際光。洗長夜暗。以法界智。破塵劫疑。生滅紛紛。而不至真淨之家。夤緣擾擾。而不到圓明之境。任他外變。獨我中虛。步入道寰。體亡幻事。所以古人道。有物先天地。無形本寂寥。能為萬象主。不逐四時凋。且道。是甚麼。良久云。鯨吞海水盡。露出珊瑚枝。

示眾云。真空不空。妙有不有。是萬化生成之根。即二儀造化之母。方隅不可定其居。劫數不可窮其壽。門庭廓淨也。風色如秋。田地虛明也。月華如晝。達一念之未萌。在大功而莫守。五路頭木馬嘶鳴。四衢內石牛奔走。到處相逢到處渠。通身是眼通身手。

示眾云。一切色不為眼礙。文殊門中發機。一切聲不為耳魔。觀音門中透徹。一切用不為身拘。一切應不為事背。便是普賢門中出入。奪境也。如驢覷井。奪人也。如井覷驢。三千世界百億身。不用安排只這是。

## 青原下第十五世

### 福州雪峰思慧禪師法嗣

## 臨安府淨慈道昌禪師(凡三)

湖州人也。

示眾云。了得目前。不了生死。此人病在生死。了得生死。不了目前。此人病在目前。且道。目前生死。一時了得底人。病在甚麼處。良久云。鴛鴦綉出從君看。莫把金針度與人。

示眾云。只這裏蕩蕩地。幸自可憐生。因甚麼特地礙却。只為爾行時。有箇行見。坐時。有箇坐見。隱隱猶懷舊日嫌。若是覷得透。

見得徹。撥正路頭。直饒隨風倒柁。要且徧界不藏。且道不受移易一句。又作麼生。無底籃中提得起。莫窰村裏不須尋。示眾云。靈山會上。特地顛顛。少室峯前。依前摩囉。何山門下。覩明不覩暗。未免從頭筭兩箇五百文。元來是一貫。恁麼說話。且道。於衲僧門下。成得甚麼邊事。須知穿耳客。不是刻舟人。

## 明州天童正覺禪師法嗣

### 臨安府淨慈慧暉禪師(凡四)

明州人也。示眾云。真機獨立。卓爾不群。覩面無私。對揚有準。不墮諸緣之後。妙超造化之先。眾生背之。而逐浪迷源。諸佛證之。而截流到岸。設使波澄大海。風清而未許停舟。雲散長空。月朗而豈容披照。當陽顯赫。大地該通。一句全提。十方普應。黃花翠竹。咸彰妙德家風。松韻泉聲。盡證圓通境界。直得恁麼。猶是門庭施設。止宿草庵。入理深談。猶隔生在。所以道。任汝頭頭上了。物物上明。只喚作了事底人。須知有尊貴邊事。直饒如兩鏡相照。光影互融。亦只喚作光影邊事。更須知有到家時節。合作麼生。人歸大國方成器。水到滄溟始是波。

示眾云。巢知風穴知雨。甘草甜黃連苦。不須計較作商量。五五從來二十五。萬般施設只如常。此是叢林飽參句。諸人還委悉麼。野老不知堯舜力。鼕鼕搥鼓祭江神。

示眾云。懸崖撒手。自肯承當。絕後再甦。欺君不得。若向這裏見得。便能全人即境。全境即人。人境一如。十方通徹。在一塵而見性。即一性以全真。有時鬧市橫身。有時寒巖宴坐。有時賓中辨主。有時主中辨賓。有時賓主交參。有時主賓互用。諸人還相委悉麼。我是法中王。於法得自在。

示眾云。二千年前。吾佛世尊。拈花示眾。唯有金色頭陀。破顏微笑。世尊云。吾以正法眼藏。涅槃妙心。分付摩訶大迦葉。自後遞代。以心傳心。直指人心。見性成佛。譬如金翅鳥。扇開大海。直取龍吞。擬議不來。白雲萬里。唯在一念自肯。不落意思。不墮情識。德山棒。臨濟喝。竹韻松聲。驢鳴犬吠。莫不盡是發揚此事。自是諸人。開眼尿床。對面蹉過。且道。誑訛有甚麼處。擲下拄杖云。三十年後。不得錯舉。

## 應化賢聖

佛陀波利尊者。游五臺。到忻州。見一老人。問師。甚麼處去。師云。臺山禮文殊去。老人云。大德見文殊。還識麼。尊者無對。

汾陽云。今日慶幸。

尊者到山下。又見一老人。問尊者。何來。云西天來。老人云。還將得佛頂尊勝經來麼。者云。不將得來。老人云。空來何益。尊者遂回。

明安云。當初下得甚麼語。得見文殊。不回西天。乃云。但展兩手似伊。

耶舍尊者。訪遠法師。遠問。如何是道。師云。無人能會。云此間有五百聽徒。其中碩學高流。豈無一人會。師微笑。

遠復問。如何是道。師舉如意示之。云見麼。遠云。見。師云。見箇甚麼。遠云。見尊者手中如意。師將如意。擲于地云。還見麼。遠云見。師云。見箇甚麼。遠云。見尊者手中如意墮地。師收起如意云。見即不見。還見麼。遠罔措。師斥云。觀公見解。未出常流。何得名喧宇宙。乃拂衣上紫霄峰。

波羅提尊者。西天異見王問。何者是佛。師云。見性是佛。王云。師見性否。師云。我見佛性。王云。性在何所。師云。性在作用。王云。是何作用。我今不見。師云。今現作用。王自不見。王云。於我有否。師云。王若作用。無有不是。王若不用。體亦難見。王云。若當用時。幾處出現。師云。若出現時。當有其八。王云。其八出現。當為我說。師說偈云。在胎曰身。處世名人。在眼曰見。在耳曰聞。在鼻嗅香。在舌談論。在手執捉。在足運奔。徧現俱該沙界。收攝在一微塵。識者知是佛性。不識者喚作精魂。

王聞。心悟。作禮而謝。

秦跋陀禪師。問生法師。講何經論。生云。大般若經。師云。作麼生說色空義。云眾微聚曰色。眾微無自性曰空。師云。眾微未聚。喚作甚麼。生罔措。

師又問。別講何經論。云大涅槃經。師云。如何說涅槃之義。云涅槃而不生。槃而不滅。不生不滅。故曰涅槃。師云。這箇是如來涅槃。那箇是法師涅槃。云涅槃之義。豈有二耶。某甲只如此。未審禪師。如何說涅槃。師拈起如意云。還見麼。云見。師云。見箇甚麼。云見禪師手中如意。師將如意。擲于地云。見麼。云見。師云。見箇甚麼。云見禪師手中如意墮地。師斥云。觀公見解。未出常流。何得名喧宇宙。拂衣而去。

其徒懷疑不已。乃追師扣問。我師說色空涅槃。不契。未審禪師。如何說色空義。師云。不道汝師。說得不是。汝師只說得果上色空。不會說得因中色空。其徒云。如何是因中色空。師云。一微空

故。眾微空。眾微空故。一微空。一微空中。無眾微。眾微空中。無一微。

汾陽代云。休葛藤。

南岳慧思禪師。因誌公。令人傳語云。何不下山。教化眾生。目視雲漢。作甚麼。師云。三世諸佛。被我一口吞盡。何處更有眾生可化。

五祖戒云。更說道理看。

天台智顛禪師。在南岳。誦法華經。至藥王品云。是真精進。是真法供養如來。於是悟法華三昧。獲旋陀羅尼。見靈山一會。儼然未散。

妙喜云。如今未獲旋陀羅尼者。還見靈山一會否。若見。以何為證。若不見。是真精進。是真法供養如來。只恁麼念過。

却成剩法矣。

天台豐干禪師。因寒山問。古鏡未磨時。如何照燭。師云。冰壺無影像。猿猴探水月。云此是不照燭也。更請道看。師云。萬德不將來。教我道甚麼。寒山拾得。二俱作體而退。

師欲游五臺。問寒山拾得云。汝共我去。游五臺。便是我同流。若不共我去游五臺。不是我同流。山云。爾去游五臺。作甚麼。師云。禮文殊。山云。爾不是我同流。

大溈祐禪師。作沙彌時。往國清受戒。寒山預知。同拾得。往松門接。祐纔到。二人從路傍跳出。作大蟲吼三聲。祐無對。山云。自從靈山一別。迄至于今。還記得麼。祐亦無對。拾得拈拄杖云。爾喚這箇。作甚麼。祐又無對。寒山云。休休。不用問他。自別後。已三生作國王來。總忘却了也。

先淨照禪師。問楞嚴大師。經中道。若能轉物。即同如來。若被物轉。即名凡夫。只如昇元閣。作麼生轉。

汾陽代云。彼此老大。

金陵誌公和尚。問一梵僧。承聞尊者。喚我作屠兒。曾見我殺生麼。云見。師云。有見見。無見見。不有不無見。若有見見。是凡夫見。無見見。是聲聞見。不有不無見。是外道見。未審尊者。如何見。梵僧云。爾有此等見耶。

汾陽云。不枉西來。

師垂語云。終日拈香擇火。不知身是道場。

玄沙云。終日拈香擇火。不知真箇道場。

雪竇云。一對無孔鐵鎚。

昭覺勤云。終日拈香擇火。不知拈香擇火。

明州布袋和尚。嘗立通衢。有僧問。在這裏。作甚麼。師云。等箇人來。或云。來也來也。遂懷內。取一橘子。度與僧。僧擬接。師

縮手云。汝不是這箇人。

僧問。如何是祖師西來意。師放下布袋。叉手而立。僧云。只這箇。別更有在。師拈布袋。上肩便行。

師一日。見僧在前行。師驀撫其背。僧回首。師云。把將一錢來。師或將布袋。并破席一領。於通衢往來。布袋盛鉢盂木履。魚肉菜飯。瓦石土木。諸般總有。或於稠人中。打開布袋。撒下物云。看看。又一一拈起。問人云。這箇喚作甚麼。

婺州善慧大士。梁武帝請講金剛經。士纔陞座。以尺揮按一下。便下座。帝愕然。誌公云。陛下還會麼。帝云不會。誌公云。大士講經竟。

白雲端云。大士與誌公。被梁皇一狀領過。

雪竇頌云。不向雙林寄此身。却於梁土惹埃塵。當時不得誌公老。也是恹恹去國人。

大士一日披衲。頂冠。鞞履。朝見。帝問。是僧耶。士以手指冠。帝云是道耶。士以手指鞞履。帝云是俗耶。士以手指衲衣。

汾陽代云。大士多能。

大士有偈云。夜夜抱佛眠。朝朝還共起。起坐鎮相隨。語默同居止。纖毫不相離。如身影相似。欲識佛去處。(雪竇云三生六十劫)祇這語聲是。

玄沙云。大小傳大士。只認得箇昭昭靈靈。

雪竇云。天下衲僧跳不出。直饒口挂壁上漢。別有一竅。勘過了打。又云。玄沙打草驚蛇。

泗州大聖。或問。師何姓。師云。姓何。或云。何國人。師云。何國人。

無著和尚。往臺山。文殊相迎次。問。大德何方而來。師云南方。云南方佛法。如何住持。師云。末法比丘。少奉戒律。云多少眾。師云。或三百。或五百。

師却問。和尚此間。佛法如何住持。殊云。凡聖同居。龍蛇混雜。師云。多少眾。殊云。前三三。後三三。

汾陽代云。識得爾。

雪竇頌云。千峰盤屈色如藍。誰謂文殊是對談。堪笑清涼多少眾。前三三與後三三。

文殊與師喫茶次。拈起玻璃盞。問。南方還有這箇麼。師云無。殊云。尋常將甚麼喫茶。師無對。

長慶稜云。若恁麼。癡客勸主人。

師覩日色稍晚。遂問文殊。擬投一宿。得否。殊云。汝有執心在。不得宿。師云。某甲無執心。殊云。汝曾受戒否。師云。受戒久矣。殊云。爾若無執心。何用受戒。

師辭退均提童子。送師出門。師問童子。和尚適來道。前三三後三三。是多少。童子召大德。師回首。童子云。是多少。

洞山云。欲觀前人。先觀所使。

師見寺無額。問童子。此寺名甚麼。童子。以手指金剛背後。云看。師回首。化寺乃隱。

師游五臺。逢一老人。師問。莫是文殊麼。云豈有二文殊。師纔作禮。老人忽然不見。

趙州代云。文殊文殊。天衣懷云。無著只有先鋒。且無殿後。

老人若不隱去。有甚面目見無著。

公期和尚。因往羅漢。路逢一騎牛公子。師問。羅漢路。向甚麼處去。公拍牛云。道道。師喝云。這畜生。公云。羅漢路。向甚麼處去。師却拍牛云。道道。公云。直饒恁麼。猶少蹄角在。師便打。公子拍牛便走。

紙衣道者。曹山問師。莫是紙衣道者麼。師云。不敢。山云。如何是紙衣下事。師云。一裘纔挂體。萬法悉皆如。山云。如何是紙衣下用。師近前應諾。便立脫去。山云。汝只解恁麼去。且不解恁麼來。師忽開眼。問一靈真性。不假胞胎時如何。山云。未是妙。師云。如何是妙。山云。不借借。師便珍重。却坐脫。

山乃有頌云。覺性圓明無相身。莫於知見強疎親。念異便於玄體昧。心差不與道相隣。情分萬法沉前境。識鑑多端喪本真。如是句中全曉會。了然無事舊時人。

寒山。因眾僧炙茄次。將串茄。向一僧背上。打一下。僧回首。山呈起茄串云。是甚麼。僧云。這風顛漢。山向傍僧云。爾道。這僧。費却我多少鹽醋。

寒山。因趙州游天台。路次相逢。山見牛跡。問州云。上座還識牛麼。州云。不識。山指牛跡云。此是五百羅漢。游山。州云。既是羅漢。為甚麼。却作牛去。山云。蒼天蒼天。州呵呵大笑。山云。作甚麼。州云。蒼天蒼天。山云。這廝兒。宛有大人之作。

拾得一日掃地。寺主問。汝名拾得。因豐干拾得汝歸。汝畢竟名甚麼。姓甚麼。拾得放下掃箒。叉手而立。主再問。拾得拈掃箒。掃地而去。寒山搥胸云。蒼天蒼天。拾得云。作甚麼。山云。不見道。東家人死。西家人助哀。二人作舞。笑哭而去。

拾得。見國清半月念戒。眾集。拾得拍手云。聚頭作想。那事如何。維那叱之。得云。大德且住。無嗔即是戒。心淨即出家。我即與爾合。一切法無差。

錢塘將使。在界上。為鎮使。每問僧。若相契。即留止宿。一日有二僧來。使問。甚處來。云江西馬大師處來。使問。有何言句。云即心是佛。使便揖出。又問次僧。僧云。非心非佛。使亦揖出。

洪州許式郎中。與上藍溥。泐潭澄。二師。話次。澄云。承聞郎中有云。夜坐連雲石。春栽帶雨松。當時答洞山甚麼話。許云。今日放衙。澄云。聞說是答泗州大聖。在楊州出現底話。是否。許云。別點茶來。澄云。名不虛得。元來是作得主。許云。和尚早晚回山。澄云。今日被上藍覷破。藍便喝。澄云。須是爾始得。許云。無奈缸何。打破戽斗。

郎中入上藍。問首座。年多少。座云。六十八。許云。僧臘多少。座云。四十七夏。許云。聖僧得幾夏。座云。與虛空同受戒。許拍板頭云。下官喫飯。不似首座喫鹽多。

大宋太宗皇帝。問僧。看甚麼經。云仁王經。帝云。既是寡人經。因甚麼。在卿手裏。僧無對。

雪竇代云。皇天無親。惟德是輔。

帝幸開寶塔。問僧。卿是何人。云塔主。帝云。寡人塔。為甚麼。卿作主。僧無對。

雪竇代云。盍國咸知。

帝因僧朝見。乃問。卿是甚處僧。僧云。廬山臥雲庵。帝云。臥雲深處不朝天。為甚到此。僧無對。

雪竇代云。難逃至化。

帝夢。神人報云。請陛下。發菩提心。帝早朝。宣問左右街云。菩提心。作麼生發。俱無對。

雪竇代云。實謂今古罕聞。

有僧朝見云。陛下。還記得臣僧麼。帝云。甚處相見來。云靈山一別。直至于今。帝云。卿以何為驗。僧無對。

雪竇代云。貧道得得而來。

帝因僧奏。燒却藏經。欲乞宣賜。帝問。昔日摩騰不燒。如今為甚麼。却燒。僧無對。

雪竇代云。陛下不忘付囑。

## 亡名尊宿

昔有一老宿。一夏不為師僧說話。有僧嘆云。我只恁麼。空過一夏。不敢望和尚說佛法。得聞正因兩字。也得。老宿聞乃云。闍梨莫[斯/言]速。若論正因。一字也無。道了叩齒云。適來無端。不合與麼道。隣壁有不老宿。聞云。好一釜羹。被一顆鼠糞污却。

雪竇代云。誰家釜裏。無一兩顆。

昔有一老宿。住庵。於門上。書心字。於窻上。書心字。於壁上。書心字。

法眼云。門上但書門字。牕上但書牕字。壁上但書壁字。玄覺云。門上不要書門字。牕上不要書牕字。壁上不要書壁字。昔有二菴主。住庵。旬日不相見。忽相會。上庵主。問下菴主。多時不相見。在甚麼處去。下菴主云。在菴中。造箇無縫塔。上菴主云。某甲也要造一箇。就兄借取塔樣子。下庵主云。何不早說。恰被人借去了也。

法眼云。且道。是借他樣。不借他樣。昔有老宿云。祖師九年面壁。為訪知音。若恁麼會得。喫鐵棒。有日在。又一老宿云。祖師九年面壁。何不慚惶。若恁麼會得。更買草鞋行脚。三十年。

瑯琊覺云。既不然。且道。祖師面壁。意作麼生。良久云。欲得不招無間業。莫謗如來正法輪。昔有老宿。畜一童子。並不知軌則。有一行脚僧到。乃教童子禮儀。

晚間見老宿外歸。遂去問訊。老宿怪訝。遂問童子云。何誰教爾。童子云。堂中某上座。老宿喚其僧來問。上座傍家行脚。是甚麼心行。這童子。養來二三年了。幸自可憐生。誰教上座。教壞伊。快束裝起去。黃昏雨淋淋地。被趁出。

法眼云。古人恁麼。顯露些子。家風甚怪。且道。意在於何。昔有一行者。隨法師。入佛殿。行者向佛吐唾。法師云。行者少去就。何以唾佛。者云。將無佛處來。與某甲唾。法師無對。

仰山代法師。但唾行者。待他有語。却向他道。還我無行者處來。

昔有僧。到曹溪。時守衣鉢僧。提起衣云。此是大庾嶺頭。提不起底。僧云。為甚麼。在上座手裏。僧無對。

雲門云。彼此不了。又云。將謂是師子兒。昔有一僧。去覆缸。路逢一賣鹽翁。僧問。覆缸路。向甚麼處去。翁良久。僧再問。翁云。爾患聾那。僧云。爾向我道甚麼。翁云。向爾道覆缸路。僧云。翁莫會禪麼。翁云。莫道會禪。佛法也會盡。僧云。爾試說看。翁挑起鹽籃。僧云難。翁云。爾喚這箇。作甚麼。僧云鹽。翁云。有甚麼交涉。僧云。爾喚作甚麼。翁云。不可更向爾道是鹽。

昔有婆子。供養一庵主。經二十年。常令一二八女子。送飯給侍。一日令女子。抱定云。正恁麼時如何。主云。枯木倚寒巖。三冬無暖氣。女子舉似婆。婆云。我二十年。只供養得箇俗漢。遂遣出。燒却庵。

昔有一僧。參米胡。路逢一婆住庵。僧問。婆有眷屬否。云有。僧云。在甚麼處。云山河大地。若草若木。皆是我眷屬。僧云。婆莫作師姑來否。云汝見我。是甚麼。僧云。俗人。婆云。汝不可是僧。僧云。婆莫混濫佛法好。婆云。我不混濫佛法。僧云。汝恁麼。豈不是混濫佛法。婆云。爾是男子。我是女人。豈曾混濫。昔南泉典座。辨兩分食。詣園。管待園頭。食時展鉢次。忽有念佛鳥鳴。園頭乃敲枕頭一下。鳥又鳴。頭又敲一下。鳴既住。園頭云。會麼。座云。不會。頭又敲一下。鹽官會下。有一主事僧。見一鬼使來追。僧云。某甲身充主事。未暇修行。乞容七日。得否。使云。待我白王。若許。七日後來。不然。須與便至。言訖不見。七日後來。覓其僧。了不可得。後有僧。問一僧云。忽然覓著時。如何抵擬他。僧無對。

洞山云。被他覓得也。

昔為山。有一僧。下山覓住處。偶宿一行者家。者問。上座何處去。云覓箇住處。者書佛字問。這箇是甚麼字。云佛字。者却喚妻子問。是甚麼字。妻云。佛字。者云。上座與拙室。見解一般。爭解住得。其僧却回為山。

昔有一僧。到翠巖相看。值巖不在。遂下看主事。事云。見和尚也未。云未。主事指狗子云。上座要見和尚。但禮拜這狗子。僧無語。

後翠巖歸。聞乃云。作麼生免得與麼無語。

雲門云。欲觀其師。先觀弟子。

妙喜云。當時若作這僧。便禮狗子一拜。

昔有一婆。入趙州僧堂云。這一堂師僧。總是婆生。只有大底孩兒。五逆不孝。州纔顧視。婆便出去。

昔有一道士。背佛而坐。僧問。道流莫背佛。道云。大德。本教道。佛身充滿於法界。教我向甚處坐。即得。其僧無對。

昔有一僧。還魂云。冥中見地藏。問爾平生。修何行業。云念法華經。藏云。止止不須說。我法妙難思。僧無對。

昔有一僧。問一老宿云。師子捉象。全其力。捉兔。亦全其力。未審全箇甚麼力。老宿云。不欺之力。

昔有施主。入寺。行眾僧隨年錢。知事云。聖僧前。著一分。施主云。聖僧年多少。僧無對。

法眼代云。心期滿處即知。

昔有一老宿。不赴堂。侍者來。請赴堂。宿云。我今日在莊。喫油糍飽。者云。和尚不曾出入。宿云。爾但去。問取莊主。者方出門。忽見莊主歸。謝和尚到莊。喫油糍。

妙喜頌云。和尚不赴堂。莊主謝臨屈。一字入公門。九牛車不出。

昔廣南有一僧住庵。偶大王出獵。吏人報云。庵主。大王來。請起身。主云。非但大王來。佛來亦不起。王問。佛豈不是卿師。主云是。王云。見師為甚麼不起。僧無對。

法眼代云。未足酬恩。

昔有一官人。作無鬼論。中夜揮毫。忽見一鬼。出云。汝道無。我響。官無語。

五祖演代。但以手。作鵝鳩觜云。谷谷孤。

昔有老宿。問一座主。疏鈔解義。廣略如何。主云。鈔解疏。疏解經。宿云。經解甚麼。主無對。

昔有僧。路行。見魚死水中。乃問。魚以水為命。為甚麼却向水中死。竟無對者。

昔高麗國。來錢塘。刻觀音像。昇上缸。竟不能動。遂請入明州開元寺。供養。

後有僧問。無刹不現身。因甚麼。不去高麗國。

長慶稜云。現身雖普。覩相生偏。

昔有座主。常念彌陀號。有小師喚云。和尚。主回首。小師不顧。如是數四。主叱之。小師云。和尚幾年。喚他即得。某甲纔喚。便惡發。

聯燈會要卷第二十九

傅大士心王銘

觀心空王	微妙難側	無形無相	有大神力
能滅千災	成就萬德	體性雖空	能施法則
觀之無形	呼之有聲	為大法將	心戒傳經
水中鹽味	色裏膠青	決定是有	不見其形
心王亦爾	身內居停	面門出入	應物隨情
自在無礙	所作皆成	了本識心	識心見佛
是心是佛	是佛是心	念念佛心	佛心念佛
欲得早成	戒心自律	淨律淨心	心即是佛
除此心王	更無別佛	欲求成佛	莫染一物
心性雖空	貪嗔體實	入此法門	端坐成佛
到彼岸已	得波羅蜜	慕道真士	自觀自心
知佛在內	不向外尋	即心即佛	即佛即心
心明識佛	曉了識心	離心非佛	離佛非心
非佛莫測	無所堪任	執空滯寂	了此漂沉
諸佛菩薩	非此安心	明心大士	悟此玄音
身心性妙	用無更改	是故智者	放心自在
莫言心王	空無體性	能使色身	作邪作正
非有非無	隱顯不定	心性離空	能凡能聖
是故相勸	好自防慎	剎那造作	還復漂沉
清淨心智	如世黃金	般若法藏	並在身心
無為法寶	非淺非深	諸佛菩薩	了此本心
有緣遇者	非去來今		

誌公和尚十二時歌

平旦寅 狂機內有道人身  
勤苦已經無量劫 不信常擎如意珍  
若捉物 入迷津 但有纖毫即是塵  
不住舊時無相貌 外來知識也非真  
日出卯 用處不須生善巧  
縱使神光照有無 起意便遭魔境撓  
若施功 終不了 日夜被他人我拗

不用安排只麼從 何曾心地生煩惱  
食時辰 無明本是釋迦身  
坐臥不知元是道 只麼忙忙受苦辛  
認聲色 覓疎親 只是他家染汙人  
若擬將心求佛道 問取虛空始出塵  
禹中已 未了之人教不至  
假饒通達祖師言 莫向心頭安了義  
只守玄 沒文字 認著依前還不是  
暫時自肯不追尋 曠劫不遭魔境使  
日南午 四大身中無價寶  
陽焰空花不肯拋 作意修行轉辛苦  
不曾迷 莫求悟 任爾朝陽幾回暮  
有相身中無相身 無明路上無生路  
日昃未 心地何曾安了義  
他家文字沒疎親 莫起工夫求的意  
任縱橫 絕忌諱 長在人間不居止  
運用不離聲色中 歷劫何曾暫拋棄  
晡時申 學道先須不厭貧  
有相本來權積聚 無形何用要安真  
作淨潔 却勞神 莫認愚癡作近隣  
言下不求無處所 暫時喚作出家人  
日入酉 虛幻聲音終不久  
禪悅珍羞尚不飡 誰能更飲無明酒  
沒可拋 無物守 蕩蕩逍遙不曾有  
縱爾多聞達古今 也是癡狂外邊走  
黃昏戌 狂子施功投暗室  
假使心通無量時 歷劫何曾異今日  
擬商量 却啾唧 轉使心頭黑似漆  
晝夜舒光照有無 癡人喚作波羅蜜  
人定亥 勇猛精進成懈怠  
不起纖毫修學心 無相光中常自在  
超釋迦 越祖代 心有微塵還窒礙  
放蕩長如癡兀人 他家自有通人愛  
夜半子 心住無生即生死  
生死何曾屬有無 用時使用無文字  
祖師言 外邊事 識取起時還不是  
作意搜求實沒蹤 生死魔來任相試  
雞鳴丑 一顆圓光明已久

內外推尋覓總無 境上施為渾大有  
不見頭 亦無手 世界壞時渠不朽  
未了之人聽一言 只這如今誰動口

### 誌公和尚十四科

#### 菩提煩惱不二

眾生不解修道 便欲斷除煩惱  
煩惱本來空寂 將道更欲覓道  
一念之心即是 何須別處尋討  
大道曉在目前 迷倒愚人不了  
佛性天真自然 亦無因緣修造  
不識三毒虛假 妄執浮沉生老  
昔時迷日為晚 今日始覺非早

#### 持犯不二

丈夫運用無礙 不為戒律所制  
持犯本自無生 愚人被他禁繫  
智者造作皆空 聲聞觸途成滯  
大士肉眼圓通 二乘天眼有翳  
空中妄執有無 不達色心無礙  
菩薩與俗同居 清淨曾無染世  
愚人貪著涅槃 智者生死實際  
法性空無言說 緣起略為茲偈  
百歲無智小兒 小兒有智百歲

#### 佛與眾生不二

眾生與佛無殊 大智不異於愚  
何須向外求寶 身田自有明珠  
正道邪道不二 了知凡聖同途  
迷悟本無差別 涅槃生死一如  
究竟諸緣空寂 惟求意想清虛  
無有一法可得 翛然自入無餘

#### 理事不二

心王自在翛然 法性本無十纏  
一切無非佛事 何須攝念坐禪  
妄想本來空寂 不用斷除攀緣  
智者無心可得 自然無爭無喧  
不識無為大道 何時得證幽玄  
佛與眾生一種 眾生即是世尊  
凡夫妄生分別 無中執有迷奔  
了達貪嗔空寂 何處不是真門

### 靜亂不二

聲聞厭喧求靜 猶如棄麵求餅  
餅即從來是麵 造作隨人百變  
煩惱即是菩提 無心即是無境  
生死不異涅槃 貪嗔如焰如影  
智者無心求佛 愚人執邪執正  
徒勞空過一生 不見如來妙頂  
了達姪慾性空 鑊湯爐炭自冷

### 善惡不二

我自身心快樂 翛然無善無惡  
法身自在無方 觸目無非正覺  
六塵本來空寂 凡夫妄生執著  
涅槃生死空平 四海阿誰厚薄  
無為大道自然 不用將心畫度  
菩薩散誕靈通 所作常含妙覺  
聲聞執法坐禪 如蠶吐絲自縛  
法性本來圓明 病愈何須執藥  
了知諸法平等 翛然清虛快樂

### 色空不二

法性本無青黃 眾生謾造文章  
吾我說他止觀 自意擾擾顛狂  
不識圓通妙理 何時得會真常  
自疾不能治療 却教他人藥方  
外看將謂是善 心內猶若豺狼

愚人畏其地獄 智者不異天堂  
對境心常不起 舉足皆是道場  
佛與眾生不二 眾生自作分張  
若欲除却三毒 迢迢不離災殃  
智者知心是佛 愚人樂往西方

### 生死不二

世間諸法如幻 生死猶如雷電  
法身自在圓通 出入山河無間  
顛倒妄想本空 般若無迷無亂  
三毒本自解脫 何須攝念禪觀  
只為愚人不了 從他戒律決斷  
不識寂滅真如 何時得登彼岸  
智者無惡可斷 運用隨心合散  
法性本來空寂 不為生死所絆  
若欲斷除煩惱 此是無明癡漢  
煩惱即是菩提 何用別求禪觀  
實際無佛無魔 心體無形無段

### 斷除不二

丈夫運用堂堂 逍遙自在無妨  
一切不能為害 堅固猶如金剛  
不著二邊中道 翛然非斷非常  
五欲貪瞋是佛 地獄不異天堂  
愚人妄生分別 流浪生死猖狂  
智者達色無礙 聲聞無不惴惶  
法性本無瑕翳 眾生妄執青黃  
如來引接迷愚 或說地獄天堂  
彌勒身中自有 何須別處思量  
棄却真如佛像 此人即是顛狂  
聲聞心中不了 唯只聽逐言章  
言章本非真道 轉加鬪爭剛強  
心裏虻蛇蝮蝎 螫著便即遭傷  
不解文中取義 何時得會真常  
死入無間地獄 神識枉受災殃

## 真俗不二

法師說法極好	心中不離煩惱
口談文字化他	轉更增他生老
真妄本來不二	凡夫棄妄覓道
四眾雲集聽講	高座談議浩浩
南座北座相爭	四眾為言為好
雖然口談甘露	心裏尋常枯燥
自己元無一錢	日夜數他珍寶
恰似無智愚人	棄却真金擔草
心中三毒不捨	未審何時得道

## 解縛不二

律師持律自縛	自縛亦能縛他
外作威儀恬靜	心內恰似洪波
不駕生死舡筏	如何渡得愛河
不解真宗正理	邪見言辭繁多
有二比丘犯律	便却往問優波
優波依律說罪	轉增比丘網羅
方丈室中居士	維摩便即來呵
優波默然無對	淨名說法無過
而彼戒性如虛	不在內外娑婆
勸除生滅不肯	忽悟還同釋迦

## 境照不二

禪師體離無明	煩惱從何處生
地獄天堂一相	涅槃生死空名
亦無貪瞋可斷	亦無佛道可成
眾生與佛平等	自然智者惺惺
不為六塵所染	句句獨契無生
正覺一念玄解	三世坦然皆平
非法非律自制	翛然直入圓成
絕此四句百非	如空無作無依

## 運用無礙

我今滔滔自在 不羨王公卿宰  
四時猶若金剛 昔樂心常不改  
法寶喻於須彌 智慧廣於江海  
不為八風所牽 亦無精進懈怠  
任性浮沉若顛 散誕縱橫自在  
遮莫刀劍臨頭 我自安然不采

### 迷悟不二

迷時以空為色 悟即以色為空  
迷悟本無差別 色空究竟還同  
愚人喚南作北 智者達無西東  
欲覓如來妙理 常在一念之中  
陽燄本非其水 渴鹿狂趨忽忽  
自身虛假不實 將空更欲覓空  
世人迷倒至甚 如犬吠雷呔呔

### 三祖璨大師信心銘

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  
毫釐有差 天地懸隔 欲得現前 莫存順逆  
違順相爭 是為心病 不識玄旨 徒勞念靜  
圓同太虛 無欠無餘 良由取捨 所以不如  
莫逐有緣 勿住空忍 一種平懷 泯然自盡  
止動歸止 止更彌動 唯滯兩邊 寧知一種  
一種不通 兩處失功 遣有沒有 從空背空  
多言多慮 轉不相應 絕言絕慮 無處不通  
歸根得旨 隨照失宗 須臾返然 勝却前空  
前空轉變 皆由妄見 不用求真 唯須息見  
二見不住 慎莫追尋 纔有是非 紛然失心  
二由一有 一亦莫守 一心不生 萬法無咎  
無咎無法 不生不心 能由境滅 境逐能沉  
境由能境 能由境能 欲知兩段 元是一空  
一空同兩 齊含萬象 不見精麤 寧有偏黨  
大道體寬 無易無難 小見狐疑 轉急轉遲  
執之失度 必入邪路 放之自然 體無去住  
任性合道 逍遙絕惱 繫念乖真 昏沉不好  
不好勞神 何用疎親 欲取一乘 勿惡六塵

六塵不惡	還同正覺	智者無為	愚人自縛
法無異法	妄生愛著	將心用心	豈非大錯
迷生寂亂	悟無好惡	一切二邊	良由斟酌
夢幻空花	何勞把捉	得失是非	一時放却
眼若不睡	諸夢自除	心若不異	萬法一如
一如體玄	元爾忘緣	萬法齊觀	歸復自然
泯其所以	不可方比	止動無動	動止無止
兩既不成	一何有爾	究竟窮極	不存軌則
契心平等	所作俱息	狐疑盡淨	正信調直
一切不留	無可記憶	虛明自照	不勞心力
非思量處	識情難測	真如法界	無他無自
要急相應	唯言不二	不二皆同	無不包容
十方智者	皆入此宗	宗非促延	一念萬年
無在不在	十方目前	極小同大	忘絕境界
極大同小	不見邊表	有即是無	無即是有一切即一
若不如是	必不須守	一即一切	不二信心
但能如是	何慮不畢	信心不二	
言語道斷	非去來今		

### 永嘉真覺大師證道歌

君不見絕學無為閑道人  
不除妄想不求真  
無明實性即佛性  
幻化空身即法身  
法身覺了無一物  
本源自性天真佛  
五陰浮雲空去來  
三毒水泡虛出沒  
證實相 無人法  
剎那滅却阿鼻業  
若將妄語誑眾生  
自招拔舌塵沙劫  
頓覺了 如來禪  
六度萬行體中圓  
夢裏明明有六趣  
覺後空空無大千  
無罪福 無損益  
寂滅性中莫問覓  
比來塵鏡未曾磨  
今日分明須剖析  
誰無念 誰無生  
若實無生無不生  
喚取機關木人問  
求佛施功早晚成  
放四大 莫把捉  
寂滅性中隨飲啄  
諸行無常一切空  
即是如來大圓覺  
決定說 表真乘  
有人不肯任情徵  
直截根源佛所印  
摘葉尋枝我不能  
摩尼珠 人不識  
如來藏裏親收得

六般神用空不空 一顆圓光色非色  
淨五眼 得五力 唯證乃知難可測  
鏡裏看形見不難 水中捉月爭拈得  
常獨行 常獨步 達者同游涅槃路  
調古神清風自高 貌悴骨剛人不顧  
窮釋子 口稱貧 實是身貧道不貧  
貧則身常披縷褐 道則心藏無價珍  
無價珍 用無盡 利物應時終不吝  
三身四智體中圓 八解六通心地印  
上士一決一切了 中下多聞多不信  
但自懷中解垢衣 誰能向外誇精進  
從他謗 任他非 把火燒天徒自疲  
我聞恰似飲甘露 銷融頓入不思議  
觀惡言 是功德 此則成吾善知識  
不因訕謗起冤親 何表無生慈忍力  
宗亦通 說亦通 定慧圓明不滯空  
非但我今獨達了 恒沙諸佛體皆同  
師子吼 無畏說 百獸聞之皆腦裂  
香象奔波失却威 天龍寂聽生欣悅  
游江海 涉山州 尋師訪道為參禪  
自從認得曹谿路 了知生死不相干  
行亦禪 坐亦禪 語默動靜體安然  
縱遇鋒刀常坦坦 假饒毒藥也閑閑  
我師得見然燈佛 多劫曾為忍辱仙  
幾回生 幾回死 生死悠悠無定止  
自從頓悟了無生 於諸榮辱何憂喜  
入深山 住蘭若 岑峯幽邃長松下  
優游靜坐野僧家 間寂安居實瀟灑  
覺即了 不施功 一切有為法不同  
住相布施生天福 猶如仰箭射虛空  
勢力盡 箭還墜 招得來生不如意  
爭似無為實相門 一超直入如來地  
但得本 莫愁末 如淨琉璃含寶月  
既能解此如意珠 自利利他終不竭  
江月照 松風吹 永夜清霄何所為  
佛性戒珠心地印 霧露雲霞體上衣  
降龍鉢 解虎錫 兩鈷金環鳴歷歷  
不是標形虛事持 如來寶杖親縱跡

不求真 不斷妄  
無相無空無不空  
心鏡明 鑑無礙  
萬象森羅影現中  
豁達空 撥因果  
棄有著空病亦然  
捨妄心 取真理  
學人不了用修行  
損法財 滅功德  
是以禪門了却心  
大丈夫 秉慧劍  
非但能摧外道心  
震法雷 擊法鼓  
龍象蹴踏潤無邊  
雪山肥膩更無雜  
一性圓通一切性  
一月普現一切水  
諸佛法身入我性  
一地具足一切地  
彈指圓成八萬門  
一切數句非數句  
不可毀 不可讚  
不離當處常湛然  
取不得 捨不得  
默時說 說時默  
有人問我解何宗  
或是或非人不識  
吾早曾經多劫修  
建法幢 立宗旨  
第一迦葉首傳燈  
法東流 入此土  
六代傳衣天下聞  
真不立 妄本空  
二十空門元不著  
心是根 法是塵  
痕垢盡除光始現  
嗟末法 惡時世  
去聖遠兮邪見深

了知二法空無相  
即是如來真實相  
廓然瑩徹周沙界  
一顆圓光非內外  
漉漉蕩蕩招殃禍  
還如避溺而投火  
取捨之心成巧偽  
真成認賊將為子  
莫不由斯心意識  
頓入無生知見力  
般若鋒兮金剛燄  
早曾落却天魔膽  
布慈雲兮洒甘露  
三乘五性皆惺悟  
純出醍醐我常納  
一法徧含一切法  
一切水月一月攝  
我性同共如來合  
非色非心非行業  
剎那滅却三祇劫  
與吾靈覺何交涉  
體若虛空沒涯岸  
覓即知君不可見  
不可得中只麼得  
大施門開無壅塞  
報道摩訶般若力  
逆行順行天莫測  
不是等閑相誑惑  
明明佛勅曹溪是  
二十八代西天記  
菩提達磨為初祖  
後人得道何窮數  
有無俱遣不空空  
一性如來體自同  
兩種猶如鏡上痕  
心法雙亡性即真  
眾生薄福難調制  
魔強法弱多冤害

聞說如來頓教門 恨不滅除令瓦碎  
作在心 殃在身 不須冤訴更尤人  
欲得不招無間業 莫謗如來正法輪  
旃檀林 無雜樹 鬱密深沉師子住  
境靜林閒獨自游 走獸飛禽皆遠去  
師子兒 眾隨後 三歲便能大哮吼  
若是野狂逐法王 百年妖怪虛開口  
圓頓教 沒人情 有疑不決直須爭  
不是山僧逞人我 修行恐落斷常坑  
非不非 是不是 差之毫釐失千里  
是即龍女頓成佛 非即善星生陷墜  
吾早年來積學問 亦曾討疏尋經論  
分別名相不知休 入海算沙徒自困  
却被如來苦呵責 數他珍寶有何益  
從來蹭蹬覺虛行 多年枉作風塵客  
種性邪 錯知解 不達如來圓頓制  
二乘精進沒道心 外道聰明無智慧  
亦愚癡 亦小駾 空拳指上生實解  
執指為月枉施功 根境法中虛捏怪  
不見一法即如來 方得名為觀自在  
了即業障本來空 未了還須償宿債  
飢逢王膳不能飡 病遇醫王爭得瘥  
在欲行禪知見力 火中生蓮終不壞  
勇施犯重悟無生 早時成佛于今在  
師子吼 無畏說 深嗟懵懂頑皮鞮  
只知犯重障 菩提不見如來開秘訣  
有二比丘犯姪殺 波離螢光增罪結  
維摩大士頓除疑 猶如赫日銷霜雪  
不思議 解脫力 妙用恒沙也無極  
四事供養敢辭勞 萬兩黃金亦銷得  
粉骨碎身未足酬 一句了然超百億  
法中王 最高勝 恒沙如來同共證  
我今解此如意珠 信受之者皆相應  
了了見 無一物 亦無人 亦無佛  
大千沙界海中漚 一切聖賢如電拂  
假使鐵輪頂上旋 定慧圓明終不失  
日可冷 月可熱 眾魔不能壞真說  
象駕崢嶸漫進途 誰見螳螂能拒轍

大象不游於兔徑 大悟不拘於小節  
莫將管見謗蒼蒼 未了吾今為君決

### 石頭和尚參同契

竺土大僊心	東西密相付	人根有利鈍
道無南北祖	靈源明皎潔	枝派暗流注
執事元是迷	契理亦非悟	門門一切境
回互不回互	回而更相涉	不爾依位住
色本殊質像	聲元異樂苦	暗合上中言
明明清濁句	四大性自復	如子得其母
火熱風動搖	水濕地堅固	眼色耳音聲
鼻香舌鹹醋	然於一一法	依根葉分布
本末須歸宗	尊卑用其語	當明中有暗
勿以暗相遇	當暗中有明	勿以明相覩
明暗各相對	比如前後步	萬物自有功
當言用及處	事存函蓋合	理應箭鋒拄
承言須會宗	勿自立規矩	觸目不會道
運足焉知路	進步非遠近	迷隔山河固
謹白參玄人	光陰莫虛度	

### 石頭和尚草庵歌

吾結草庵無寶貝	飯了從容圖睡快
成時初見茅草新	破後還將茅草蓋
住庵人 鎮長在	不屬中間與內外
世人住處我不住	世人愛處我不愛
庵雖小 含法界	方丈老人相體解
上乘菩薩信無疑	中下聞之必生怪
問此庵 壞不壞	壞與不壞主元在
不居南北與東西	基上堅牢以為最
青松下 明窻內	玉殿朱樓未為對
衲帔蒙頭萬事休	此時山僧都不會
住此庵 休作解	誰誇鋪席圖人買
回光返照便歸來	廓達靈根非向背
遇祖師 親訓誨	結草為庵莫生退
百年拋却任縱橫	擺手便行且無罪
千種言 萬般解	只要教君長不昧

欲識庵中不死人 豈離如今遮布袋

### 僧亡名息心銘

(隋右拾遺。棄官為僧。名曰亡名)。

法界有如意寶人焉。久緘其身。銘其膺曰。古之攝心人也。戒之哉。戒之哉。無多知。無多慮。多知多事。不如息意。多慮多失。不如守一。慮多志散。知多心亂。心亂生惱。志散妨道。勿謂何傷。其苦悠長。勿言何畏。其禍鼎沸。滴水不停。四海將盈。纖塵不拂。五嶽將成。防末在本。雖小不輕。關汝七竅。閑爾六情。莫視於色。莫聽於聲。聞聲者聾。見色者盲。一文一藝。空中蚊蚋。一伎一能。日下孤燈。英賢才藝。是為愚蔽。捨棄淳朴。耽溺淫麗。識馬易奔。心猿難制。神既勞役。形必損斃。邪行終迷。脩途永泥。莫貴才能。日益昏瞶。誇拙羨巧。其德不弘。名厚行薄。其高速崩。內懷憍伐。外致怨憎。或談於口。或書於手。邀人令譽。亦孔之醜。凡謂之吉。聖謂之咎。賞翫暫時。悲哀長久。畏影畏跡。逾遠逾極。端坐樹陰。跡滅影沉。厭生患老。隨思隨造。心想若滅。生死長絕。不死不生。無相無名。一道虛寂。萬物齊平。何貴何賤。何辱何榮。何勝何劣。何重何輕。澄天愧淨。皎日慙明。安夫岱嶺。同彼金城。敬貽賢哲。斯道利貞。

### 趙州和尚十二時歌

鷄鳴丑 愁見起來成漏逗  
裙子褊衫箇也無 袈裟形相些些有  
裩無腰 袴無口 頭上青灰三五斗  
比望修行利濟人 誰知變作不唧[口\*留]  
平旦寅 荒村破院實難論  
解齋粥米全無粒 空對閑牕與隙塵  
唯雀噪 勿人親 獨坐時聞落葉頻  
誰道出家憎愛斷 思量不覺淚沾巾  
日出卯 清淨却翻為煩惱  
有為功德被塵漫 無限田地未曾掃  
攢眉多 稱心少 耐耐東村黑王老  
供利不曾將得來 放驢喫我堂前草  
食時辰 煙火徒勞望四隣  
饅頭餽子前年別 今日思量空嚙津  
持念少 嗟嘆頻 一百家中無善人

來者只道覓茶喫 不得茶嚙去又瞋  
 禺中已 削髮那知到如此  
 無端被請作村僧 屈辱飢悽受欲死  
 胡張三 黑李四 恭敬不曾生些子  
 適來忽爾到門頭 唯道借茶兼借紙  
 日南午 茶飯輪環無定度  
 行却南家到北家 果至北家不推註  
 苦沙鹽 大麥醋 蜀黍米飯齏蒿苣  
 唯稱供養不等閑 和尚道心須堅固  
 日昃未 這回不踐光陰地  
 曾聞一飽忘百飢 今日老僧身便是  
 不習禪 不論義 鋪箇破席日裏睡  
 想料上方兜率天 也無如此日炙背  
 晡時申 也有燒香禮拜人  
 五箇老婆三箇瘦 一雙面子黑皺皺  
 油麻茶 實是珍 金剛不用苦張筋  
 願我來年蠶麥熟 羅睺羅兒與一文  
 日入酉 除却荒涼更何守  
 雲水高流定委無 歷寺沙彌鎮長有  
 出格言 不到口 枉續牟尼子孫後  
 一條拄杖羸搥梨 不但登山兼打狗  
 黃昏戌 獨坐一間空暗室  
 陽燄燈光永不逢 眼前純是金州漆  
 鍾不聞 虛度日 唯聞老鼠鬧啾啾  
 憑何更得有心情 思量念箇波羅蜜  
 人定亥 門前明月誰人愛  
 向裏惟愁臥去時 勿箇衣裳著甚蓋  
 劉維那 趙五戒 口頭說善甚奇怪  
 任爾山僧囊罄空 問著都緣總不會  
 半夜子 心境何曾得暫止  
 思量天下出家人 似我住持能有幾  
 土榻床 破蘆蓆 老榆木枕全無被  
 尊像不燒安息香 灰裏唯聞牛糞氣

### 羅漢琛禪師明道頌

至道淵曠 勿以言宣 言宣非旨 孰云有是  
 觸處皆渠 豈喻真虛 真虛設辨 如鏡中現

有無雖彰	在處無傷	無傷無在	何拘何闕
不假功成	將何法爾	法爾不爾	俱為脣齒
若以斯陳	理沒宗旨	宗非意陳	無以見聞
見聞不脫	如水中月	於此不明	翻為剩法
一法有形	翳汝眼睛	眼睛不明	世界崢嶸
我宗奇特	當陽顯赫	佛及眾生	皆承恩力
不在低頭	思量難得	拶破面門	覆蓋乾坤
快須薦取	脫却根塵	其如不曉	謾說如今

## 同安察禪師十玄談

### 心印

問君心印作何顏	心印何人敢授傳
歷劫坦然無異色	呼為心印早虛言
須知體自虛空性	將喻紅爐火裏蓮
勿謂無心云是道	無心猶隔一重關

### 祖意

祖意如空不是空	靈機爭墮有無功
三賢尚不明斯旨	十聖那能達此宗
透網金鱗猶滯水	回途石馬出紗籠
慙慙為說西來意	莫問西來及與東

### 玄機

迢迢空劫勿能収	豈與塵機作繫留
妙體本來無處所	通身何更有蹤由
靈然一句超群眾	迥出三乘不假修
撒手那邊千聖外	回程堪作火中牛

### 塵異

濁者自濁清者清	菩提煩惱等空平
誰言卞璧無人鑿	我道驪珠到處晶
萬法泯時全體現	三乘分別強安名
丈夫自有衝天志	莫向如來行處行

## 演教

三乘次第演金言 三世如來亦共宣  
初說有空人盡執 後非空有眾皆捐  
龍宮滿藏醫方義 鶴樹終談理未玄  
真淨界中纔一念 閻浮早已八千年

## 達本

勿於中路事空王 策杖還須達本鄉  
雲水隔時君莫住 雪山深處我非忘  
堪嗟去日顏如玉 却嘆回時鬢似霜  
撒手到家人不識 更為一物獻尊堂

## 還源

返本還源事已差 本來無住不名家  
萬年松徑雪深覆 一帶峰巒雲更遮  
賓主穆時全是妄 君臣合處正中邪  
還鄉曲調如何唱 明月堂前枯樹花

## 回機

涅槃城裏尚猶危 陌路相逢勿定期  
權挂垢衣云是佛 却裝珍御復名誰  
木人夜半穿靴去 石女天明戴帽歸  
萬古碧潭空界月 再三撈摑始應知

## 轉位

披毛帶角入塵來 優鉢羅華火裏開  
煩惱海中為雨露 無明山上作雲雷  
鑊湯爐炭吹教滅 劒樹刀山喝使摧  
金鎖玄關留不住 行於異類且輪回

## 一色

枯木巖前差路多 行人到此盡蹉跎

鷺鷥立雪非同色 明月蘆華不似他  
了了了時無可了 玄玄玄處亦須呵  
慇懃為唱玄中曲 空裏蟾光撮得麼

### 法眼禪師。三界惟心頌

三界惟心 萬法惟識 唯識惟心 眼聲耳色  
色不到耳 聲何觸眼 眼色耳聲 萬法成辨  
萬法匪緣 豈觀如幻 大地山河 誰堅誰變

### 澄觀國師。答皇太子心要

至道本乎其心。心法本乎無住。無住心體。靈知不昧。性相寂然。包含德用。該攝內外。能深能廣。非有非空。不生不滅。無始無終。求之而不得。棄之而不離。迷現量則惑苦紛紜。悟真性則空明廓徹。雖即心即佛。唯證者方知。然有證有知。則慧日沉沒於有地。若無照無悟。則昏雲掩蔽於空門。若一念不生。則前後際斷。照體獨立。物我皆如。直造心源。無智無得。不取不捨。無對無修。然迷悟更依。真妄相待。若求真去妄。猶棄影勞形。若體妄即真。似處陰影滅。若無心忘照。則萬慮都捐。若任運寂知。則眾行爰起。放曠任其去住。靜鑒覺其源流。語默不失玄微。動靜未離法界。言止則雙忘知寂。論觀則雙照寂知。語證即不可示人。說理則非證不了。是以悟寂無寂。真知無知。以知寂不二之一心。契空有雙融之中道。無住無著。莫攝莫収。是非兩忘。能所雙絕。斯絕亦寂。則般若現前。般若非心外新生。智性乃本來具足。然本寂不能自現。實由般若之功。般若之與智性。翻覆相成。本智之與始修。實無兩體。雙忘正入。則妙覺圓明。始末該融。則因果交徹。心心作佛。無一心而非佛心。處處成道。無一塵而非佛國。故真妄物我。舉一全収。心佛眾生。渾然齊致。是知迷則人隨於法。法法萬差。而人不同。悟則法隨於人。人人一智。而融萬境。言窮慮絕。何果何因。體本寂寥。孰同孰異。唯忘懷虛朗。消息冲融。其猶透水月華。虛而可見。無心鑑像。照而常空矣。

### 鼎州普安道和尚頌

#### 函蓋乾坤句

乾坤并萬象 地獄及天堂 物物皆真見

頭頭用不傷

截斷眾流句

堆山積岳來 一一盡塵埃 更擬論玄妙  
水消瓦解摧

隨波逐浪句

辯口利舌問 高低總不虧 還如應病藥  
診候在臨時

三句外

當人如舉唱 三句豈能該 有問如何事  
南岳與天台

通褻貶

金屑眼中翳 衣珠法上塵 已靈猶不重  
佛祖為何人

辨親疎

黑豆未生前 商量已成顛 更尋言句會  
特地隔西天

辨邪正

罔象談真旨 都緣未辨明 守他山鬼窟  
不免是精靈

通賓主

自遠趨風問 分明向道休 再三如未曉  
消得更搖頭

擡薦商量

相見不揚眉 君東我亦西 紅霞穿碧落  
白日繞須彌

### 提綱商量

若欲正提綱 直須大地荒 擬來衝雪刀  
不免碎鋒鋌

### 據實商量

睡來合眼飯來漚 起坐終諸沒兩般  
同道已知言不惑 十方世界目前看

### 委曲商量

得用由來處處通 應機施設任家風  
揚眉瞬目開隻手 堅拂拈槌為舉揚  
聯燈會要卷第三十(終)  
至元辛卯歲重刊于育王松庵三山鄭子楚棨。  
康應己巳歲重刊于臨川寺。  
岢元祿庚午孟夏日雒北大應禪寺涉門祖泰命工印行。

---

## [CBETA 贊助資訊](#)

(<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自 2001 年 2 月 1 日起，CBETA 帳務由「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承辦，並成立「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 CBETA 專戶，所有捐款至 CBETA 專戶皆為專款專用，歡迎各界捐款贊助。

您的捐款本協會皆會開立收據，此收據可在年度中申報個人或企業的綜合所得稅減免。感恩諸位大德的善心善行，以及您為佛典電子化所做的一切貢獻。

---

## 信用卡線上捐款

本線上捐款與聯合信用卡中心合作，資料傳送採用 SSL (Secure Socket Layer) 傳輸加密，讓您能夠安全安心地進行線上捐款動作。

## [前往捐款](#)

---

## 信用卡（單次 / 定期定額）捐款

本授權書可提供單次捐款或定期定額捐款之用途。

請於下載並填妥捐款授權書後，請傳真至 02-2383-0649，並請來電 02-2383-2182 確認。

或掛號寄至 10044 台灣台北市中正區延平南路 77 號 8 樓 R812 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收。

請在此下載 [授權書](#) (MS Word 格式)

---

## 劃撥捐款

郵政劃撥帳號: 1 9 5 3 8 8 1 1

戶名: 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

欲指定特殊用途者, 請特別註明, 我們會專款專用。

---

## 線上信用卡 / PayPal 捐款

PayPal 是一個跨國線上付款機制的公司, CBETA 引用其服務, 提供網友能在線上使用信用卡或 PayPal 帳戶贊助 CBETA 。

PayPal is an online system of a global payment solution. CBETA uses its service to provide the uses to donate by using the credit cards or PayPal account to support the CBETA project.

相關收據開立事宜, 由於付款幣別為美元, 我們除了會依您所贊助之美元金額開立收據外, 另我們會依捐款當日公告匯率開立台幣收據, 此收據為國內正式合法報稅憑證。

Since the donation made is in US currency, hence all the receipts will be issued in the US dollars consequently. However for the domestic donators, a Chinese official receipt will also be mad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urpose of tax deduction.

[線上信用卡 / PayPal 贊助](#)

---

## 支票捐款

支票抬頭請填寫「財團法人西蓮教育基金會」。

CBETA is part of Seeland Educational projects, any donation (ex- cheques, remittance, etc.,) please entitle to "The Seeland Education Foundation".

---